언론사: 한겨레-1-3.txt

제목: [시민편집인의 눈] 전문적 분석으로 정책 선도를/최영재  
날짜: 2017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27180818001  
ID: 01101001.20171227180818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 올해 <한겨레> 적폐고발 보도 빛났다<br/><br/> 초유의 대통령 탄핵, 새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 적폐청산 등 중대한 역사적 변곡점으로 기록될 2017년 한 해 동안 <한겨레>는 진보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았다. <한겨레>의 권력감시, 비리고발 보도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개혁 노력이 어떠했을까 싶을 정도로 한겨레의 여러 보도는 시의적절하게 빛났다. 5월 중순 ‘국정농단 수사 검사들의 돈 봉투 만찬’ 특종을 시작으로 국정원 여론 조작,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공공기관 부정 채용 등과 관련한 잇따른 특종 보도들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br/><br/> <br/><br/> ■ 보수-진보 프레임 전쟁, 선방했다<br/><br/> 저항 없이 순탄하게 성공한 개혁이 있었을까. 탈원전, 대북·대미 관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케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해 보수진영 및 언론은 공격과 비방, 시비와 조롱으로 일관했다. 한겨레는 많은 사설과 칼럼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추진에 힘을 보태면서 보수진영의 시비 걸기와 악의적 편파 왜곡을 비판했다.<br/><br/> 이달 13일부터 3박4일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도 보수진영은 ‘국격훼손’ ‘외교참사’ 등 외교성과 폄훼를 시도했다. 한겨레는 16일 23면 사설 ‘문 대통령 ‘방중’ 둘러싼 논란과 비난, 지나치다’에서 “<span class='quot0'>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도한 공세를 퍼붓는 것</span>”이라고 지적하고, 18일 5면, ‘문 대통령 방중, 겉치레보다 ‘관계복원’ 실리 택했다’ 기사와 27면 사설, ‘72년 전 백범 김구가 섰던 자리에 선 문 대통령’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일부 문제점과 함께 객관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18일 5면, 베이징 김외현 특파원의 ‘‘혐오의 공생’에 갇힌 기자폭행 사건’ 기사는 국내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대통령과 한국 언론을 부당하게 비난, 폄하, 혐오하는 행위는 중국 쪽에 이용당할 수 있는 위험한 내부 분열 행위임을 적절히 지적했다. <br/><br/>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2년 만에 고쳐 삼성에스디아이(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추가 매각 명령을 내린 데 대한 보수언론의 비판에 맞서, 한겨레는 22일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그룹 청탁과 박근혜 정부 외압 등으로 잘못 작성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뒤늦게라도 고친 것은 정당하다고 설파했다. 미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과 관련해 보수신문들이 펼치는 “한국만 역주행” 주장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22일 4면, ‘레이건·부시도 ‘초대형 감세’ 했지만, 투자·고용 효과 없었다’와 5일 17면, ‘미 법인세 인하해도 한국은 올려야 하는 이유’ 기사 등에서 법인실효세율이 미국 34.9%, 한국 18%이고, 법인세 인하는 소득 불평등 심화와 국가 재정적자 누적만 초래한다면서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br/> <br/><br/> ■ 합리, 전문성으로 정책 프레임 경쟁 승리해야<br/><br/>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보수진영의 편파, 왜곡의 반대 주장에 대해 한겨레는 나름대로 방어적인 프레임으로 맞서는 데 선방했다. 그러나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케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이견과 갈등이 첨예한 의제를 놓고 보수진영의 편파성을 비판하는 가운데, 한겨레 자체의 ‘편파성’ 또한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아쉬웠다. 한겨레 보도는 관련 이슈의 추진 방향이 진보 이념에 입각하여 정당하고 옳다는 점을 동의하게 만들지만, 추진 과정에서 부닥치는 현실적인 문제, 이해갈등, 사실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정치한 분석과 입증을 통해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는 다소 한계를 보였다.<br/><br/> 21일 8면, ‘원전 35기 맞먹는 태양광·풍력발전소 짓는다’ 기사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정부 계획대로 재생에너지를 창출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다. 18일 사설, ‘‘불평등 방치하면 파국 온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는 불평등의 심각성을 새삼 인식시켜주지만,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실 문제로 연결되지 못한다. <br/><br/> <br/><br/> ■ 적폐청산 대 진정한 개혁<br/><br/> 일부에서 적폐청산 ‘피로증’의 전파 시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적폐청산, 진실규명에는 과도함이란 없다’, ‘적폐청산 이상의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한겨레의 주장은 적절해 보인다. 여현호 논설위원의 1일 칼럼, ‘‘검찰개혁 실종’ 유감’과 22일 칼럼 ‘작고도 필요한 검찰개혁 과제, 하나 더’는 “적폐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개혁은 뉴스와 정치권의 구호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의한 적폐청산 성과가 바로 검찰개혁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이 권력의 요구 등에 따라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br/><br/><br/><br/> 문화방송, 한국방송, 와이티엔, 연합뉴스 등 공영방송과 공영적 언론사의 개혁도 전 정권에서 ‘낙하산’ 임명된 이사장과 사장을 해임하고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새 인물로 교체하는 ‘적폐청산’으로 만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한겨레는 7일 22면, 김종구 편집인 칼럼 ‘‘이용마법’ 제정과 암과의 싸움’과 13일 3면 ‘개혁입법 처리 지지부진 왜?’ 기사에서 “<span class='quot0'>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이라는 고질적 암을 영원히 퇴치하기 위한 제도 혁신</span>”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령,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13명을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하고 이사회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 등을 통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진정한 방송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대로 짚었다. 현재까지 “문화방송, 와이티엔 등 사장 선임에 청와대가 관여한 흔적은 전혀 없다”고는 하지만, 추후라도 청와대가 정파적 진영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공영 언론사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적폐를 해소하는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권력감시 보도를 하는 것이 한겨레의 개혁적 책무일 것이다.<br/><br/>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언론사: 한겨레-1-4.txt

제목: 류여해 “제명 이유? 홍준표 존엄성에 위해를 가했다고…”  
날짜: 20171227  
기자: 이승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27103808002  
ID: 01101001.20171227103808002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조치를 당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제명 이유에 대해 “<span class='quot0'>간단하게 정리하면 홍준표 당대표의 존엄성에 대한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span>”고 징계의 부당성을 27일 주장했다. <br/><br/> 류 전 최고위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span class='quot1'>저는 이번에 제가 무엇으로 징계를 받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윤리위에 들어갔다</span>”며 이같이 말했다. <br/><br/>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전날인 26일 류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결정하며 사유를 “<span class='quot2'>말로써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허위사실로 해당 행위를 한 것</span>”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홍준표)는 바퀴벌레, 암. 표현이 더 셌다. 나중에는 연탄가스 그 다음에 저한테 주모라고 했다”고 홍 대표의 거친 발언들을 언급하며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대표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br/><br/> 전날 그는 기자들에게 “저보다 훨씬 더 막말은 홍 대표가 하고 있다. 저를 주모라고 하기도 했고 최고위원회의 안에서 여자는 조용히 앉아서 밤에만 쓴다고 했다”고 홍 대표가 자신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로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span class='quot3'>나는 24년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도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른 일도 없다</span>”며 “<span class='quot3'>해당 행위를 하고 제명당하고 나가면서 거짓으로 일관한 사람의 거짓말을 기사로 내보내는 것은 참으로 유감</span>”이라고 반박했다.<br/><br/> 이에 대해 류 전 최고위원은 “<span class='quot1'>제가 ‘적반하장’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러 대표실에 독대하러 들어갔을 때 저한테 했던 이야기</span>”라고, 전날과 사실관계가 다소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br/><br/> 그는 “<span class='quot1'>(윤리위 징계로)5년 후까지는 복당이 불가능한데 5년 후에 재입당할 생각도 있냐</span>”는 진행자의 질문에 “<span class='quot1'>5년 뒤에 자유한국당이 남아 있겠냐</span>”라고 답했다. <br/><br/> 이승준 기자 gamja

언론사: 한겨레-1-5.txt

제목: 홍준표 “문 대통령에게 인간적 호감…쇼는 기 막히게 해”  
날짜: 20171227  
기자: 김남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27050857001  
ID: 01101001.20171227050857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span class='quot0'>제2 혁신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희생, 솔선수범을 가치로 하는 제대로 된 신보수주의 정당을 만들겠다</span>”고 밝혔다. 홍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기득권과 탐욕으로 인해 수구꼴통으로 매도 당하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겠다</span>”며 이렇게 말했다. 개헌에 대해선 “개헌을 반대하지 않는다.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홍 대표는 “<span class='quot0'>당협위원장 정비를 다음달 10일 전후로 속전속결로 마치겠다</span>”고 했다. 또 “20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끝까지 나갈 생각이 없다”며 내년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자신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공천 후보자를 물색하겠다고 했다. <br/><br/> <br/><br/> -보수정권이 10년도 못 채우고 바뀌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br/><br/>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좌파정권 50년’을 계획했지만 불과 10년만에 무너졌다.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것은 한국 보수진영 전체의 문제가 아닌 친박의 궤멸이다. 친박이 궤멸한 것은 뚜렷한 정책목표도 없이 오로지 이익집단으로 정당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 좌우의 양날개가 건강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박근혜 정부는 얼치기 우파정부였다. 그렇게 하다보니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버림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도 보수우파 정책에 충실했다고 보지 않는다. 일종의 얼치기 우파정부였다. 나는 좌파를 나쁘다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우파만이 살 길이라고 해본 적도 없다.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이 된다면 좌파정책도 받아들일 수 있다.”<br/><br/> -보수정당 재건 로드맵을 설명해 달라.<br/><br/> “당 궤멸의 가장 큰 원인은 인적 구성에 있었다.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치맛자락 잡았던 이익집단이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출당, 친박 핵심 청산, 당협위원장 정비가 이뤄졌다. 조만간 제2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신보수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지향점을 발표하겠다.”<br/><br/>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br/><br/> “1월10일 전까지 당협위원장 정비를 할 것이다. 아무리 늦어도 1월 중순까지다. 지방선거기획단도 바로 띄워야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할 수밖에 없다.” <br/><br/> -조강특위 두고 당내 잡음이 있다.<br/><br/> “찻잔 속의 미풍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다.”<br/><br/> -류여해 최고위원의 반발이 심하다.<br/><br/> “그건 묻지마라. 인형 갖고 노는 사람이다. 요즘 초등학생도 인형 갖고 놀지 않는다. 징계 절차는 윤리위 소관이다.” <br/><br/> -인적 혁신 대상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마무리는 안 된 것 아닌가.<br/><br/> “자연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고 늘 이야기했다. 그냥 방치해도 소멸하는 동료의원 제명시키라고 (체포동의안) 투표 강요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두 사람의 징계 여부(제명)를 의원총회에 계류시킨 것으로도 청산은 충분히 되었다고 본다.”<br/><br/> -제2혁신위는 신보수주의를 기치로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념적으로 어떤 정당인가.<br/><br/> “중도는 스윙보트 계층이다. 정치나 이념성향에서 중도는 없다. 보수가 강세면 스윙보트 계층은 보수로, 진보가 강세면 진보 쪽으로 간다. 그래서 중도보수라는 말은 아예 없다. 보수정당이냐 진보정당이냐, 좌파정당이냐 우파정당이냐 그 차이다. 신보수주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희생, 솔선수범을 가치로 하는 제대로 된 정당집단이다. 과거 보수정당은 현상유지, 기득권, 탐욕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꼴통, 수구꼴통으로 매도 당하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br/><br/>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전보다 치열하지 못하다. 20대 공천이 잘못된 것인가.<br/><br/> “우리 당 의원 중에 치열함을 가진 사람을 10% 정도 밖에 보지 못했다. 여당 10년의 타성에 젖어 투쟁력이 극히 약화됐다. 국회의원을 고관대작 마치고 하는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현실 문제에 치열하지 못하고 자기 것 지키기에 급급하다. 그러니 당이 붕괴될 때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쓰나미에 쓸려가듯 당이 쓰러졌다. 그런데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연탄가스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좀 남아있다.”<br/><br/> -지방선거는 보수재권과 정권심판 중 어느 쪽인지.<br/><br/>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권력을 한 곳에 몰아주지 않는다. 지금을 좌파광풍 시대라고 보는데, 이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이 좌우 균형을 맞춰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 정부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될 때, (국민들이) 다음으로 선택할 정당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부 혁신과 개혁, 새로운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br/><br/> -내년 지방선거는 자신있다는 말씀인가<br/><br/> “그렇다.”<br/><br/> -인천·부산·대구·울산 등 광역단체장 공천 기준은? <br/><br/> “당선 가능한 현역 단체장이 있을 땐 그 사람을 바로 정해줄 것이다. 반면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현저히 낮은 현역 단체장은 아예 경선에도 부치지 않고 빼버릴 것이다. 본선 경쟁력 없는 현역단체장을 경선에 부치는 것 자체가 불공정 경선이다.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데 경선을 하면 신인이 이길 수 있겠나.”<br/><br/> -광역단체장 6곳 수성을 약속했다. 방어적 목표로 보인다. <br/><br/> “정권교체 1년만에 한 선거 중에 여당이 진 선거는 거의 없다. 현상유지만 해도 다음 총선에 희망이 있어서 그런 목표를 세운 것이다.”<br/><br/> -당 지지도가 낮고 인기가 없어서 지방선거 인재영입이 잘 안 될 거 같다.<br/><br/>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인재영입위원장이 현재 공석인데, 내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을 생각이다. (서울시장 홍정욱·경기지사 최중경·부산시장 장제국 등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br/><br/> -장제국 총장은 출마 안 한다고 한다.<br/><br/> “1차 프로젝트 끝나면 2차, 3차 (대안을) 다 갖추고 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성남·고양·수원·창원시장 후보 등 인재영입하러 다녀야 한다.”<br/><br/>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와는 연대나 통합이 가능한지.<br/><br/> “선거연대는 과거 진보좌파의 선거방식이다.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남경필·원희룡 지사는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다. 저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br/><br/>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게 되면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br/><br/> “박지원 의원이 묘한 말을 했다. ‘구멍가게 둘 합쳐본들 수퍼마켓 안 된다’. 그 말이 정답이다. 합쳐본들 위장야당, 여당 이중대에 불과하다. (중도·보수대통합 추진은) 지방선거 뒤에 검토할 문제다.”<br/><br/>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를 어떻게 보나.<br/><br/> “<span class='quot1'>대선 토론회 때 보니까 안 대표는 참 순진한 분이다.(웃음) 유 대표에 대해선 평가하지 않겠다.</span>”<br/><br/> -국회 개헌특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개헌에 대한 입장은?<br/><br/> “개헌특위는 원내대표 소관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우리는 개헌을 반대하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 후에 2018년 12월 말까지 개헌 완료하자는 것이다. 개헌은 (앞으로) 30년, 50년 대한민국 틀을 만드는 일이다. 대선보다 더 중요하다. 지방선거 묻어가는 곁다리 투표는 옳지 않다.”<br/><br/>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개헌을 추진하는 경우는 없었다.<br/><br/> “우리가 개헌 안 하자는게 아니다. 내년 연말까지 하자는 거다. 개헌 시점의 문제다.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여야 간에) 개헌 접점을 찾으리라고 본다.”<br/><br/>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입장은?<br/><br/> “국회의원들이 지금 개헌을 서두르는 가장 큰 목적은 자기들이 권력을 쥐자는 거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서 자기들이 권력의 반을 쥐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10%도 되지 않는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나. 그래서 난 그런 개헌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려면 정치불신부터 타파한 뒤 주장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 권한 제한에는 동의하지만 그 권한을 국회의원이 가져간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지방분권도 마찬가지다. 저는 경남도지사를 한 지방분권주의자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마치 내가 지방분권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흘리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br/><br/>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생각은?<br/><br/> “게임의 룰에 관한 것인데, 여야 합의 없이 개편한 전례가 없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던 민정당 시절 민주당이 신격화시킨 디제이(DJ)가 단식투쟁해서 얻어내 결과다. 그런데 지금와서 거꾸로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는 것은 난센스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br/><br/>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수사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br/><br/> “청부수사 형태로 윗선 지시를 받아 사건을 만드는 것은 검사가 아니다. 항소심 법정에서 증거조작한 것이 증인신문으로 다 밝혀져 있다.”<br/><br/>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민변 검찰청’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검찰 견제 위해 필요하지 않나?<br/><br/> “그럼 나중에 공수처가 잘못하면 공수처 위에 또 만들겠다는 것인가. 검찰 견제를 하려면 검찰 권력을 경찰에 나눠줘서 동등한 권력, 동등한 수사 기능을 가지고 상호 감시하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경찰 권력의 위험성 역시) 상호 견제하게 하면 된다.”<br/><br/> -‘과거의 홍준표’는 합리적 개혁 보수로 민주당에서도 영입하려 했다. 최근에는 극우보수로 변한 거같다. <br/><br/> “잘못 보고 있다. 나는 보수우파 진영에 있으면서 좌파정책을 도입한 대표적 사람이다. 반값아파트 정책,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적 이탈 제한하는 국적법은 내가 취한 대표적 좌파정책이다. 내가 추진하는 서민정책도 좌파정책이다.”<br/><br/> -예전에 그런 부분을 보고 합리적 개혁 보수로 생각했는데 대선 출마 뒤 남북관계에서 크게 달라졌다.<br/><br/> “남북관계에 대한 내 주장은 일관되다. 대북화해 정책은 안 된다.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찾아야 한다. 이건 극우가 아니다. 북침을 하차는 것이 극우다.”<br/><br/> -과거 홍 대표는 북한 핵을 체제보장용이라고 봤다. 체제보장용인가, 적화통일용인가.<br/><br/> “적화통일용으로 본다. 체제보장용이라면 아이시비엠(ICBM)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아이시비엠 개발은 남침했을 때 미국의 발을 묶겠다는 뜻이다. 워싱턴 불바다를 각오하면서 미국이 참전하겠나. 과거에 내가 체제보장용이라고 봤다면 그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적화통일용 주장은 아이시비엠 때문이다.”<br/><br/> -2011년 당 대표가 됐을 때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남북대화를 건의했다. 그래서 홍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말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된다. <br/><br/> “맞다. 그때 대통령이 극렬하게 반대해도 개성공단에 갔었다. 남북대화 기조 유지에 이의는 없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아이시비엠을 개발하는 걸 보고 대화 상대가 아닌 통일 대상이라고 보게 됐다. 김정은 집권이 모멘텀이 됐다.” <br/><br/>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 홍 대표는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를 만들자고 했었다.<br/><br/> “디제이 정부 들어선 뒤 국정원이 대북감시에서 대북협력국으로 전락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하려했다. ‘그럴 바에는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를 하란’ 뜻이었다. 그때와는 다르다. 김정은이 아이시비엠까지 개발해 적화통일을 하려하는데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할 수 있나. 과거 북한은 체제 보장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정도는 아는 사람이 집권하고 있었다. 지금은 김정은이라는 어린 아이가 정권을 잡았다.”<br/><br/> -다른 정치인을 연탄가스, 바퀴벌레, 양아치, 암덩어리로 부르는 것이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킨다. <br/><br/> “이미 정치혐오증이 있을 대로 다 있다.(웃음) 자기들은 ‘(홍준표) 사당화 한다’ 온갖 말을 하면서 나는 하면 안 되나? 이 당에서 대신 말해줄 사람이 있나? 당내 문제를 평정해 줄 사람이 있나? 문재인 정부에 싸울 사람이 있나? 없으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임팩트가 없다. 내가 말해야 <한겨레>에서도 쓰지 않나.”<br/><br/> -바퀴벌레, 양아치는 심하다. <br/><br/> ”그런 짓을 하니까 그렇다. 연탄가스 같은 짓을 하니까 연탄가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유법, 은유법은 왜 있나? 누구를 직접 지칭한 적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도 앞으로는 ‘~같은’이라고 하겠다.(웃음)”<br/><br/>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표정이 무서워졌다.<br/><br/> “오히려 정치를 처음할 때는 검사 기운이 남아서 아주 험악한 얼굴이었다. 지금은 나도 정치 23년 하면서 내공이 쌓일 대로 쌓였다.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지금은 훨씬 마일드해졌다. 그런데 독한 소리할 때도 웃으면 그건 사이코패스가 된다.(웃음)”<br/><br/>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br/><br/>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나도 그거 좀 배워야 하는데 잘 안 된다. (인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는 호감을 느낀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다. 휴게실에서 잠시 봤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 치고 참 부드럽고 비교적 진솔한 사람이었다. 그 뒤로 십여년이 흘렀으니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른다. 그때는 그렇게 봤다.”<br/><br/> -홍 대표의 막말은 막말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발언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보복 하느라 예방점검 안했다’는 충북 제천 화재 현장 발언도 미리 준비했나?<br/><br/> “준비한다. 연말연시에는 무조건 큰 화재가 나게 돼 있다. 이번에도 예방점검을 했어야하는데 안했거나 형식적으로 했더라.” <br/><br/>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없는 것 같다. <br/><br/> “지방선거나 20대 국회 보궐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다. 그러니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고, 당협위원장 62명 쳐내는 악역을 하고 있다. 당 전체를 바로잡기 위해 악역이 필요하다. 나중에 선거 나갈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미지 개선하고 관리할 것이다. 내 인상이 사실 무서운 인상이 아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 못봐서 그렇다. 일부러 못된 사진만, 못된 장면만 찍어 올려서 그렇다.(웃음)”<br/><br/>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정리 김남일·정유경 기자 namfic

언론사: 한겨레-1-6.txt

제목: 삼성이 잡아뗀 반도체 접착제, 검색만 해도 자료가 쏟아졌다  
날짜: 2017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23153830001  
ID: 01101001.20171223153830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6년간 반도체 ‘금선 연결’ 공정 일해몸 아파 회사 떠난 뒤 난소암 진단삼성 “화학물질 사용하지 않았다”산보연, 삼성 제출자료만 훑어봐<br/><br/> <br/><br/> 삼성, 1심 패하자 ‘자체 검증’ 주장제조업체·성분물질 모두 공개 안 해법원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 노출”산보연 역학조사 문제점도 꼬집어<br/><br/> <br/><br/> 은주씨는 만 17살에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해 6년2개월간 일했다. ‘금선 연결’ 공정을 맡았다. 23살 되던 해 건강 이상으로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다음해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br/><br/>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은주씨를 처음 만난 2011년 11월, 그녀는 이미 오랜 투병 생활로 지쳐 있었다. 옛 공장에 관한 기억도 희미했다. 다행히 은주씨 동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동료 중 한 명도 난소 종양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앞 공정부터 다 살펴봐야 해요. 어태치(접착공정)에서 나온 연기라든지, 오븐에서 나는 냄새를 다 맡았거든요. 에폭시가 굳으며 나는 냄새가 있어요. 본드 냄새랑은 좀 다른…. 국그릇 크기의 플라스틱 용기에 공업용 알코올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솜뭉치에 묻혀서 오염을 닦아내는데 그것도 냄새가 안 좋았어요. 은주는 가끔 구역질 난다고 화장실 가서 구토하기도 했어요.”(동료들 진술) <br/><br/> <br/><br/> 은주씨는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망설였다. 삼성을 상대한다는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해보겠다”고 했지만 이후 병은 그만 더 악화되고 말았다. 2012년 1월, 결국 36살 나이에 은주씨는 세상을 떠났다. 20대 초반에 암에 걸려, 흔히 말하는 한창때를 병상에서 보내다 고인이 됐다.<br/><br/> <br/><br/>\_\_\_\_\_\_\_\_\_산보연의 엉터리 역학조사 고인의 아버지가 반올림과 함께 산재보상 신청을 하자,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그 조사에서 유족 쪽은 동료들이 기억하고 있는 화학물질, 에폭시 냄새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은 고인의 업무와 관련해, “<span class='quot0'>어떠한 화학물질도 사용하지 않았다</span>”, “에폭시가 노출될 수 없었다”, “<span class='quot0'>실제 에폭시 냄새는 발생하지 않았다</span>”고 진술했다.<br/><br/> 핵심 물질인 ‘에폭시 접착제’를 둘러싸고 유족 쪽과 회사 쪽 진술이 엇갈렸다. 은주씨 동료들은 ‘EN 4065’, ‘8351C’라는 이름을 기억했지만 삼성은 ‘EN 4066’만을 취급했다고 했다. 여기서 산보연의 대응은 간단했다. “<span class='quot1'>근로자 쪽에서 진술한 제품들은 <span class='quot1'>어느 사이트에서도 검색되지 않는다</span></span>”며 삼성이 주장한 EN 4066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산보연은 또 은주씨 업무환경을 조사한다고 해놓고는 온양공장에 가서도 자체적인 분석이나 측정은 하지 않고 삼성이 제출한 자료만 살펴봤다. 재해자 쪽이 주장한 유해물질 노출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공단은 이처럼 엉터리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해 “<span class='quot2'>난소암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span>”고 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소송을 결심했고 나는 소송 대리인이 됐다.<br/><br/> 나는 ‘에폭시 접착제’부터 파고들었다. 은주씨 동료들이 강조한 “이상한 냄새”의 원인 물질이어서다. 반도체 공장에서 취급하는 에폭시 물질은 가열했을 때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년), 은주씨는 에폭시 접착제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설비를 담당했다.<br/><br/> 산보연은 은주씨 동료들이 기억하고 있는 EN 4065, 8351C가 “<span class='quot1'>어느 사이트에서도 검색되지 않는다</span>”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무심결에 구글 검색부터 해봤더니 여러 기술문서가 쏟아졌다. 같은 이름을 가진 화학제품이 반도체 공장에서 쓰이고 있었다. 제조업체도 나왔다. 그 업체들에 몇 가지 질문을 던졌더니 명쾌한 답변이 돌아왔다. “<span class='quot1'>EN 4065와 8351C를 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한 사실이 있다.</span>” 제조업체들은 해당 제품의 성분도 밝혔는데,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이 눈에 띄었다. 더 놀라운 건 삼성이 주장한 EN 4066에 대한 답변이었다. “<span class='quot1'>그러한 품명은 존재하지 않는다.</span>”<br/><br/> 이렇게 해서 ‘접착제’에 관한 진실이 밝혀졌다. 은주씨 동료들의 말이 맞았고 삼성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산보연은 삼성의 말만 믿다가 은주씨가 취급한 접착제를 파악조차 못했다. 그래 놓고는 “난소암과 관련있는 물질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욕설이 튀어나왔다.<br/><br/> 삼성 직업병 사건이 늘 그러했듯이, 이 사건 역시 많은 것이 은폐되기도 했다. 법원의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가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공장에서 취급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성분, 유해성 등이 기재된 문서)에는 성분 정보가 대부분 “영업비밀”로 감춰져 있었다. 어떤 제품은 성분의 90% 이상이 “영업비밀”일 정도였다. 삼성은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이어서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제조업체들 중에는 삼성에스디아이(SDI)와 같은 계열사도 포함됐다.<br/><br/> 그리고 ‘2013년 안전보건진단보고서’. 고용노동부가 은주씨가 근무했던 공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한 결과다. 법원이 이 보고서의 제출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삼성전자가 모두 거부했다.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특히 삼성은 은주씨 동료들이 강조했던 또 다른 유해인자인 ‘세척제’에 대해서는 취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법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세척제를 사용한 적 없다”며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은주씨는 세척제를 취급했고 그 역시 생식독성이 있는 유해물질이었다.<br/><br/> 이처럼 고인의 업무환경에 존재했던 유해 요인들이 조금씩 밝혀지자, 이제는 유해 요인들과 난소암의 의학적 관련성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 필요했다.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공감해오던 직업환경의학, 산업보건 전문가들을 찾아다녔다. 특히 경희대 직업환경의학과 임신예 교수님의 도움이 컸다. 오랜 교대근무 경험이 난소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최근 논문을 찾아주셨는데, 그에 따르면 은주씨의 근무이력은 발병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해 있었다.<br/><br/> 그러자 근로복지공단도 전문가를 동원했다. 우리 쪽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어느 대학 교수의 소견서를 냈다. 무심결에 기억하고 있던 그 교수의 이름은 이후 뜻밖의 곳에서 다시 등장했다. 2015년 9월, 삼성이 교섭 약속을 파기하며 강행한 자체 보상 절차의 보상위원 중 한 명으로. 삼성은 보상위원들이 보상 대상을 심사하고 지급액을 결정하는 등 “보상의 전 과정을 총괄”한다고 주장했다. 산재소송에서 피해자의 반대편에 섰던 교수에게 그런 역할을 맡긴 것이다.<br/><br/> <br/><br/>\_\_\_\_\_\_\_\_\_1심 승소…뒤집기 노린 ‘정경유착’<br/><br/><br/><br/> 2016년 1월, 소를 제기한 지 2년8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우리가 이겼다. 유해물질 노출과 교대근무, 과로·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난소암의 원인이 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특히 접착제 가열 공정에서 노출되는 독성물질에 주목했다. 몹시 춥던 날, 참 따뜻한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변호사 단체와 몇몇 언론사로부터 ‘이달의 판결’, ‘올해 가장 주목할 판결’로 선정되기도 했다. 같은 해 나온 유엔 인권이사회 방한 보고서도 이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br/><br/>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승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뜻밖의 주장을 했다. “1심 판결 내용처럼 접착제로부터 정말 독성물질이 노출되는지, 삼성이 검증했을 수 있습니다. 삼성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br/><br/> 이상한 주장이었다. 만일 그런 검증이 가능했다면 산보연이 역학조사를 할 때 관련 자료가 제출됐어야 하고, 산보연이 직접 검증했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어떠한 검증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검증 결과란 말인가. 법정에서 그렇게 반박하자 공단 변호사의 답은 간단했다. “<span class='quot1'>삼성이 최근에 조사했을 수 있잖아요.</span>”<br/><br/> 정말 그랬다. 삼성은 1심 판결이 원고 승소로 나오자 오로지 그것을 뒤집기 위한 자체 검증을 실시했고, 공단은 그러한 검증 결과가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삼성은 2014년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산재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개봉 등으로 여론이 한창 좋지 않을 때였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재판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은근슬쩍 다시 소송에 개입한 것이다. 다른 사건에서도 그랬다. 매번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가로막기 위해, 삼성과 정부는 이처럼 서로 도왔다.<br/><br/> 그런데 법원에 제출된 삼성의 검증 결과라는 게 너무 부실했다. 먼저 삼성은 고인이 취급했던 접착제와 유사한 제품을 특정해 그 성분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 제품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제조업체도 알 수 없었고 성분 물질도 대부분 ‘영업비밀’이었다. 원고 쪽으로서는 그 제품이 실재하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다. 또한 삼성은 고인의 업무환경과 “사실상 똑같은” 공정에서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측정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공정이 고인의 업무환경과 유사하다는 주장부터가 억지였다. 고인이 퇴사한 지 무려 17년이 지난 공장에 고인의 업무환경과 유사한 곳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생산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반도체 공장에서.<br/><br/> 또 한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다. 삼성은 유사 제품의 성분분석을 A라는 외부 기관에 맡겼다고 했다. 그런데 A는 지난해 떠들썩했던 ‘갤럭시 노트 7 폭발사태’ 때 등장했던 회사다. 당시 삼성은 1차 폭발 때는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전량 회수했지만, 2차 폭발 때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를 앞세워 판매를 강행했다. 그 외부기관이 A였는데, 검사 두시간 만에 “<span class='quot3'>배터리 결함이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한 발화</span>”라고 발표해 의혹을 더 키웠던 곳이다. 그 이후에도 폭발이 계속되자 삼성은 결국 판매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A한테도 책임론이 불거졌었다.<br/><br/> 솔직히 나는 삼성이 1심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며 제출한 자료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에 놀랐다. 법원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다. 우리 사회에는 삼성과 싸운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나는 삼성의 실체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그 정도로 대단치 않고 때로는 어이없을 정도로 형편없다고.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그들의 대응 수준을 보면 분명 그렇다.<br/><br/> <br/><br/>\_\_\_\_\_\_\_\_\_서울고법 “망인의 난소암은 업무상 재해”<br/><br/> <br/><br/><br/><br/> 2017년 7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 기각.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겼다. 서울고등법원은 “<span class='quot4'>망인이 업무 중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인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상당 기간 교대근무를 하며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난소암 진단을 받았고, 망인에게 다른 건강상의 결함이나 유전적 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4'>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span>”고 했다.<br/><br/> 재판부는 특히 산보연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 근로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리고 삼성이 제출한 자체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던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도 승복했다. 그렇게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난소암도 직업병이 되었다.<br/><br/> 은주씨 아버지는 80이 다 된 연세에 막내딸을 먼저 떠나보냈다. 은주씨 사망 후 속세와 연을 끊겠다며 산속에 칩거하셨고, 지금까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움막 같은 곳에서 살고 계신다. 그런데 1심 판결 선고 이틀 전, 삼성 보상위원회 쪽이 아버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다. 회유하기 위해서였다. 삼성이 일방적으로 정한 사과와 보상의 내용을 그저 받아들이라는 것이었다. 고인의 오빠가 “아버지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며 따졌지만, 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은 채 합의만 종용했다고 한다. 유족들은 현재까지 삼성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br/><br/> 은주씨 아버지·어머니께서 반올림 농성장에 오신 적이 있다. 고 황유미씨 아버지와 함께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여러 감정이 솟구쳤다. 같은 공장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나란히 앉은 모습에 마음이 참 아팠다. 하지만 그날도 삼성은 유족들 뒤로 펜스를 쳤다.<br/><br/> <br/><br/> <br/><br/>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최근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사회적 참사다. 피해자들이 막강한 정부와 기업에 맞서 법정에서 무엇을 겪었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격주 연재.

언론사: 한겨레-1-7.txt

제목: 이번엔 교도소에서…응답하라, 인생의 의미  
날짜: 2017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23100846001  
ID: 01101001.20171223100846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슬기로운 감빵생활>(티브이엔)은 ‘응답하라’ 시리즈를 만든 신원호 피디의 후속작이다. 특정 연도를 배경으로 청춘들의 꿈과 사랑을 그린 응답하라 시리즈는 뛰어난 예능감과 독특한 구성으로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특정 세대의 추억을 소환하는 기획이자, 비슷한 형식의 반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응답하라’ 시리즈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비판의 지점을 피해간 영리한 기획이다. <br/><br/> 드라마는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물려받은 것들이 많다. 야구가 등장하고, 지인의 딸이자 동생처럼 여겼던 여성과의 연애가 나온다. 또 남자주인공의 성격도 비슷하다. 주인공의 서사를 중심에 두면서, 독자적인 서사를 지니는 주변 인물들을 비중 있게 다루는 반(半)옴니버스식 구성도 비슷하다. 자칫 산만해지기 쉬운 구성이지만, 재치 있는 편집과 효과음 등으로 몰입감을 높이는 것도 같다.<br/><br/> 드라마는 대학가의 하숙집이나 처마를 맞댄 골목처럼, 사연 있는 인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생활세계로 감방을 채택하였다. 그동안 영화 <빠삐용>, <쇼생크 탈출>,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 등 감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았지만, 주로 탈옥의 장소이거나 범죄의 인큐베이터로 그려졌을 뿐, 생활공간으로 그린 작품은 거의 없었다. 교도소가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 드라마는 기존 장르물을 비틀며 감방을 다르게 그리겠다는 포부를 드러낸다. 탈옥을 준비하는 듯 비장하게 움직이던 재소자들은 온수기의 온도잠금장치를 부순다. 팔팔 끓는 라면을 먹으며 바깥세상의 정취를 맛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수형시설에 관한 탄탄한 취재를 바탕으로, 감방생활을 디테일하게 묘사한다. 국정농단 사태이후 박근혜를 비롯한 권력자들이 수감됨으로써, 수형시설의 처우나 특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나온 기획인가 싶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준비된 기획이라 한다.<br/><br/>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감방 안의 인간 군상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는 드라마이다. 그런 의미에서 탈옥영화들보다 이광수의 소설 <무명>이나 신영복의 에세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가깝다. 감방은 법을 어긴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놓은 공간이지만, 법과 사회의 바깥에 존재하는 예외지대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하게 기존 질서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법과 자본과 폭력이 가장 응축된 형태로 힘을 발휘하는 공간이다. 영치금이 없는 노인 수형자는 비굴함을 견뎌야 하고, 목공소에서는 노동착취가 일어난다. 반입금지 물품이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상권을 장악한 공급책은 엄청난 권력을 지닌다.<br/><br/> 또한 감방은 재소자의 사연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응축하여 보여준다. 드라마는 캐릭터 열전을 통해 이를 부각한다. 가령 백억원을 횡령한 죄목으로 들어온 고 과장은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며 고지식한 인물이다. 그가 20년간 근무한 대기업은 회사 차원의 비리를 고 과장에게 덮어씌웠다. 감방에서 온갖 부당함과 맞서 싸우는 그가, 정작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순간, 드라마는 ‘인지부조화’라는 단어를 투척한다. 부대원 폭행치사의 누명을 쓴 유 대위는 또 어떠한가. 부대원들은 집단 괴롭힘을 모두 알면서도 묵인하고 은폐했다.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 진범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영화 <신과 함께>와 더불어 군 의문사 수사의 문제점을 환기하는 텍스트이다.<br/><br/> 드라마는 엄청난 시련과 불운을 딛고 성공했지만, 메이저리그 진출 직전에 인생이 추락해버린 김제혁 선수의 휴먼스토리를 들려준다. 그는 교통사고와 암 투병을 딛고 재활에 성공하였으며, 오른손잡이였으면서도 왼손투수가 되었을 정도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왔다. 하지만 드라마는 그의 입을 통해 알량한 자기계발의 논리를 풀어놓지 않는다. 취업준비생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지만 감방에 오게 된 것이 모두 공무원시험에 붙지 못한 자기 탓인 것 같다고 말하자, 김제혁은 “어떻게 더 열심히 사냐, 세상이 더 노력하고 애를 썼어야지…. 네 탓은 하지 마”라고 말한다. 드라마가 김제혁을 통해 말하는 ‘슬기로운 감방생활’의 요령은 별것 없다. 그것은 버티기 위해 화를 다스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br/><br/> 이처럼 좋은 드라마에 딱 하나 불만이 있다. 영화 에는 체포된 고문경관이 가족과 면회하는 장면이 나온다.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에게 아버지는 “<span class='quot0'>사람이 죽었는데 별일이 아니라니?</span>”라 반문한다. 아들의 안위가 아닌, 피해자를 생각한 것이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는 오직 판사만이 김제혁의 유죄와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위를 말한다. 김제혁이나 주변 인물 누구도 죽은 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동생을 성폭행하려던 자이기에 죽어 마땅하며,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똑같이 했을 것이란 확신만 존재한다. 그의 뇌사와 사망은 김제혁의 앞날에 악재로 파악될 뿐, 그도 피해자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는지는 한 번도 논의되지 않는다. 감방을 다룬 드라마이니만큼, 법과 윤리에 대한 균형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br/><br/> 대중문화평론가

언론사: 한겨레-1-8.txt

제목: 불로 태우지 않아 안전?…궐련형 전자담배의 진실  
날짜: 2017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22090907001  
ID: 01101001.2017122209090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올해 담배와 관련한 가장 큰 뉴스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한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한달 만에 6만갑이 팔렸다. 이어 5월에 다른 제품이 추가로 나오면서 반출량은 크게 늘었다. 지난 10월 한달간 2079만갑이 반출된 것을 보면, 폭발적인 증가 폭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br/><br/> 궐련형 전자담배가 큰 인기를 얻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기서 배출되는 연기의 유해물질 등이 일반 궐련담배에 견줘 90%가량 낮다는 제조사의 홍보 덕분이다. 불을 피워 연기를 내는 기존 담배와는 다르기 때문에 건강에 덜 해롭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담배 관련 전문가들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도 담배 회사의 이런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기존 담배와 형태는 다르지만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이는 국외의 동물실험 등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간접흡연의 폐해도 일반 담배와 거의 마찬가지라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br/><br/> <br/><br/> ■ 궐련형 전자담배는 안전할까? 궐련형 전자담배는 충전된 건전지를 이용해 담뱃잎을 태우지 않을 정도의 열을 발생시킨 뒤, 담뱃잎을 가열해 연기가 아닌 기체 형태로 담뱃잎의 니코틴을 들이마실 수 있도록 고안한 제품이다. 이 담배를 제조하는 필립모리스에서는 기존 담배처럼 담뱃잎을 불로 태우지 않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필립모리스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운 경우와 일반 담배를 비교했더니 혈압, 폐 용량, 백혈구 수치 등 24개 건강 지표 가운데 23개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혈관 염증 수준에서만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운 경우가 일반 담배보다 10.6% 낮았을 뿐이었다.<br/><br/>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연구 결과들은 많다. 지난 7월 스위스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연기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등이 검출됐다. 일반 담배와 거의 비슷한 유해성분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벤조피렌이 대표적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인데 이는 발암물질이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포름알데히드도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미국에서도 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혈관 기능을 떨어뜨려 심장 및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담배의 크기가 줄었기 때문에 담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흡연량을 줄여도 심장 및 혈관 질환 발생이 줄지 않고 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결국 암을 일으키거나 심장 및 혈관 건강을 해치는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담배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br/><br/> ■ 담배회사 내부 자료에서 위해성 인정 지난 11월24일 대한금연학회가 연 ‘2017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성규(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학회 총무이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담배회사 내부 문건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슷한 찐 담배의 경우에도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찐 담배는 1980년대 후반에 다국적 담배회사인 아르제이(RJ) 레이놀즈가 ‘이클립스’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는데, 당시 제조사는 찐 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에 견줘 훨씬 낮다고 영업 활동을 했다. 이 이사는 “<span class='quot0'>담배제조사 내부 문건을 보니 ‘이클립스 흡연자의 흡연량이 기존 담배보다 2배 정도 많다’, ‘다른 흡연자보다 이클립스 사용자의 흡연 간격이 더 짧다’, ‘핏속 니코틴 양은 일반 흡연자와 이클립스 흡연자가 비슷했다’ 등 찐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span>”고 설명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일반 담배보다 건강 유해물질이 훨씬 덜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입장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기존 일반 담배보다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br/><br/> ■ 니코틴 흡수량 많아질 수 있어 담배에 빠져들게 하는 성분인 니코틴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며, 몸속으로 흡수가 잘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거의 7초 만에 뇌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의학적으로 흡연을 니코틴 중독 질환으로 분류하는 나라도 많다. 담배를 끊기 힘든 것도 이 니코틴 때문인데, 궐련형 전자담배도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마찬가지다. 게다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에 견줘 목 넘김이 편하고 냄새도 덜하기 때문에 흡연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몸속으로 흡수되는 니코틴 양이 많아지고 뇌에는 점차 니코틴 수용체 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일반 담배를 피우게 되면 흡연량이 이전에 견줘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동시에 피우는 흡연자들도 많은데, 이 경우에도 니코틴 중독 가능성을 더 높일 우려가 나온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용된 일본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무려 72%가 일반 담배도 함께 피운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국내 소비자들도 비슷한 흡연 성향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br/><br/> 간접흡연의 폐해가 없다는 것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장점으로 소개된 바 있는데, 이런 주장에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일본 오사카 국제암센터 연구 결과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간접흡연자 가운데 37%가 전반적인 불편감, 눈이나 목의 통증 등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br/><br/> ■ 금연보조제로서 효과? 담배를 피우면 이미 니코틴에 중독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배 대신 니코틴을 공급하는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금연보조제로는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이나 사탕 등이 있으며,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을 주는 약물로는 부프로피온 서방정, 챔픽스 등이 나와 있다. 일각에서는 니코틴 액을 들이마실 수 있는 전자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도 이런 보조제의 하나로 여기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흡연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을 비롯해 각종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 못지않게 많아 인체에 해롭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초기 흡연 도구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문제점도 지적된 바 있다. 즉, 전자담배가 본격적인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연보조제나 흡연 대체요법으로는 권고되지 않는 셈이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9.txt

제목: 어떻게든 알아내겠다는 각오가 소설의 진실  
날짜: 20171221  
기자: 최재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21212838001  
ID: 01101001.20171221212838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알제리의 유령들황여정 지음/문학동네·1만2000원<br/><br/> 황여정(사진)의 소설 <알제리의 유령들>은 문학동네소설상과 문학동네작가상을 통합해 처음 시행한 5천만원 고료 제23회 문학동네소설상 수상작이다. 그에 못지 않게 관심을 끈 것은 수상자가 소설가 황석영과 홍희담의 딸이라는 사실이었다(<한겨레> 2017년 10월26일치 15면).<br/><br/> 마침내 책으로 나온 <알제리의 유령들>은 역시 소설가 부모의 직·간접적 영향을 보여준다. 황석영과 홍희담은 사회적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작품 세계는 물론 문학 바깥의 직접적 참여와 행동을 대표하는 작가들이다. 그들의 딸인 황여정의 데뷔작 <알제리의 유령들>은 부모 세대가 온몸으로 통과해 온 80년대의 시대적 아픔을 자식 세대의 눈으로 재구성한다.<br/><br/> 소설은 모두 4개 부로 이루어졌고 1, 2, 3부는 서로 다른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운다. 4부 ‘남은 이야기’의 화자는 1부와 같은 율이다. 이야기는 주인공 율이 십대 초 소녀이던 시절부터 20년을 훌쩍 넘는 시간대에 걸쳐 있고, 각 부의 화자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어서 독자로서는 다소 혼란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소설 앞부분에서 수수께끼 같은 공백으로 남았던 것들이 뒤로 가면서 하나씩 해결되기 때문에 퍼즐을 맞추는 듯한 발견과 성취의 쾌감을 맛볼 수도 있겠다.<br/><br/> <br/><br/> 1부에서 핵심적인 사건은 율이 십대였을 때 아버지가 ‘책이 무섭다’며 집 안의 책이란 책은 교과서까지 모조리 불에 태워 없앴던 일이다. 분서가 있기 전에 아버지는 한동안 집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것이 80년대 지식인 및 문화예술인 들이 연루된 시국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드러난다. 그 사건에는 율의 부모와 율의 동갑내기 남자친구인 징의 부모 역시 연루되었다. 어머니들끼리는 중학교 동창이고 아버지들끼리는 고교 동창이며 율의 어머니와 징의 아버지는 대학 연극 서클 동료이기도 한 두 집안은 일종의 공동체처럼 허물없이 넘나드는 사이인데, 사건이 있은 뒤로는 서로를 의심하고 저주하며 싸움을 일삼다가 결국 율의 어머니와 징의 아버지는 암으로 먼저 세상을 뜨기에 이른다.<br/><br/> 율과 징의 부모를 망가뜨리고 그들 자식 세대의 성장기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운 사건의 핵심에 ‘알제리의 유령들’이라는 희곡이 있다. 아버지가 무서워한 책이란 바로 ‘알제리의 유령들’이었던 것. 마르크스가 알제리에서 요양 중이던 말년에 썼다는 이 작품은 멀쩡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파멸시키는 근거가 된다.<br/><br/>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인 것 같나? (…) 모든 이야기에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보고 들어도 각자에게 들어보면 다들 다른 이야기를 하지.”<br/><br/> 율이 삼촌이라 부르는, 부모들과 함께 사건에 연루되었던 연출가 탁오수는 마르크스 희곡과 그로 인한 사건의 진위 여부를 궁금해하는 청년 김철수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숱한 이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지난 시절에 대한 단죄이자, 문학과 소설에 관한 정의로도 읽힌다. 멀리 제주까지 자신을 찾아와 사실을 캐묻는 철수에게 탁오수는 또 이렇게 말한다.<br/><br/> “자네가 어떻게든 알아내고 싶다는 거, 알아내겠다는 거. 그게 바로 진실이네.”<br/><br/> <알제리의 유령들>이라는 출사표를 내던진 신인 작가 황여정의, 소설에 임하는 각오가 읽히는 발언이다.<br/><br/> 최재봉 선임기자 bong

언론사: 한겨레-1-10.txt

제목: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위암이 다시 1위로  
날짜: 2017122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21200813001  
ID: 01101001.2017122120081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으로 위암이 다시 1위 자리에 복귀했다. 2009년부터 줄곧 다빈도암 1위였던 갑상샘암은 과잉검진 논란 뒤로 크게 줄면서 3위로 내려앉았다. 전체 암 발생은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암에 걸려도 5년 상대 생존율은 71%로 해마다 계속 높아지고 있다.<br/><br/> 2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공개한 ‘2015년 암 통계’를 보면, 2015년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1만4701명으로 2014년의 21만8954명보다 4253명(1.9%) 줄었다. 암 종류별로 보면 갑상샘암 환자 수의 감소 폭이 가장 커 2015년에는 이전 해보다 6050명이 줄었다. 감소 폭도 19.5%에 달했다. 이어 위암 818명(2.7%), 대장암 422명(1.6%), 간암 83명(0.5%)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유방암은 환자 수가 전년보다 798명(4.3%), 전립샘암은 341명(3.5%), 췌장암은 340명(5.7%) 늘었다.<br/><br/> 갑상샘암이 크게 줄어든 데에는 2014년 3월 발족한 ‘갑상샘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사연대는 당시 “<span class='quot0'>우리나라의 갑상샘암 환자 수가 2011년 기준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원자력발전소 폭발 등 별다른 사고도 없는 상황에서 특정 암이 이렇게 많은 것은 과잉검진 탓</span>”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br/><br/> 2015년 기준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으로 전체 암의 13.6%를 차지했으며, 대장암(12.5%), 갑상샘암(11.7%), 폐암(11.3%), 유방암(9%), 간암(7.3%), 전립샘암(4.8%) 차례였다. 남성은 44살까지는 갑상샘암, 45~69살에는 위암, 70살 이후에는 폐암에 가장 많이 걸렸고, 여성은 39살까지는 갑상샘암이, 40~64살은 유방암, 65살 이후에는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br/><br/> 국내 암 환자 발생은 201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다. 1999년 이후 한해 평균 3.6%씩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해마다 6.1%씩 감소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53.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70.3명보다 낮았다.<br/><br/> 암에 걸린 뒤 치료를 받아 생존할 가능성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진단받은 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을 뜻하는 ‘5년 생존율’은 일반인의 5년 생존 가능성의 70.7%로, 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 환자의 생존율인 54%보다 16.7%포인트 높아졌다.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샘암으로 100.3%를 기록했으며, 이어 전립샘암(94.1%), 유방암(92.3%) 차례였다. 100%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암에 걸리지 않은 같은 나이대의 5년 생존율보다 오히려 높다는 뜻이다. 술·담배 등을 끊고 건강에 신경 쓴 결과 오히려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다.<br/><br/> 하지만 늦게 진단되는 췌장암은 여전히 5년 생존율이 10.8%에 머물렀으며, 폐암(26.7%), 간암(33.6%)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2001~2005년에 견줘 5년 생존율이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암은 위암으로 17.6%포인트 상승했으며, 이어 전립샘암(13.7%포인트), 간암(13.2%포인트), 폐암(10.2%포인트) 차례였다. 위암 5년 생존율은 우리나라가 75.4%로 미국의 31.1%보다 2배 이상이었고, 대장암도 우리나라가 76.3%, 미국은 66.3%로 나타났다.<br/><br/> 1999년 이후 발생한 암 환자 가운데 2016년 1월 기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암 경험자는 약 161만1487명(전체 인구 대비 3.2%)으로 집계됐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11.txt

제목: 우리 국민 많이 걸리는 암은? ‘위암’ 다시 1위로  
날짜: 2017122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21112817001  
ID: 01101001.2017122111281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다시 위암이 됐다. 2009년부터 줄곧 다빈도암 1위였던 갑상샘암은 과잉검진 논란이 일어난 뒤로는 크게 줄면서 3위로 내려앉았다. 암 발생은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암에 걸려도 5년 이상 살 가능성은 71%로 해마다 계속 높아지고 있다. <br/><br/> 2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공개한 ‘2015년 암 통계’ 자료를 보면, 2015년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1만4701명으로 이전 해의 21만8954명에 견줘 4253명(1.9%) 줄었다. 암 종류 별로 보면 갑상샘암 환자 수의 감소폭이 가장 커 2015년에는 이전해보다 6050명이 줄어 감소폭도 19.5%를 기록했다. 이어 위암에 걸린 사람은 이전해에 견줘 818명이 줄어 2.7% 감소했으며, 대장암 422명(1.6%), 간암은 83명(0.5%)이 줄었다. 갑상샘암이 크게 줄어든 데에는 2014년 3월 갑상샘암에 대한 과잉검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료계 내부의 비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발족한 ‘갑상샘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는 우리나라의 갑상샘암 환자 수가 2011년 기준 약 4만명으로 인구 10만명당 81명꼴이었는데, 원자력발전소 폭발과 같은 별다른 사고도 없는 상황에서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암이 많은 것은 과잉검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br/><br/> 이전해보다 환자 수가 늘어난 암도 있는데, 유방암 환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 798명(4.3%)을 기록했고, 전립샘암은 341명(3.5%), 췌장암은 340명(5.7%)이 증가했다. <br/><br/> 2015년 기준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으로 전체 암의 13.6%를 차지했으며, 대장암(12.5%), 갑상샘암(11.7%), 폐암(11.3%), 유방암(9%), 간암(73%), 전립샘암(4.8%) 순이었다. 성 및 나이대별 분석에서는 남성은 44살까지는 갑상샘암이, 45∼69살에는 위암, 70살 이후에는 폐암에 가장 많이 걸렸고, 여성의 경우에는 39살까지는 갑상샘암이, 40~64살은 유방암, 65살 이후에는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br/><br/> 국내 암 환자 발생은 201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한해 평균 3.6%씩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해마다 6.1%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53.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70.3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 암에 걸린 뒤 치료를 받아 생존할 가능성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진단받은 암 환자 가운데 5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은 70.7%로, 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인 54%보다 16.7%포인트 높아졌다. 생존율이 높은 암은 갑상샘암으로 100.3%를 기록했으며, 이어 전립샘암(94.1%), 유방암(92.3%) 순이었다. 100%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암에 걸렸어도 같은 나이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5년 이상 생존한 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늦게 진단되는 췌장암은 여전히 해당 비율이 10.8%에 머물렀으며, 폐암(26.7%), 간암(33.6%)에 그쳤다. 2001~2005년에 견줘 5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암은 위암으로 17.6%포인트 상승했으며, 이어 전립선암(13.7%포인트), 간암(13.2%포인트), 폐암(10.2%포인트) 순이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는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5년 이상 생존율이 미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위암은 우리나라가 75.4%로 미국의 31.1%보다 2배 이상이었고, 대장암도 우리나라가 76.3%, 미국은 66.3%로 나타났다. <br/><br/>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을 겪은 암 경험자도 크게 늘었는데, 1999년 이후 발생한 암 환자 가운데 2016년 1월 기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암 경험자는 약 161만1487명(전체인구 대비 3.2%)으로 집계됐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12.txt

제목: ‘안정동위원소’는 알고 있다…네가 어디서 왔는지  
날짜: 20171218  
기자: 김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8070904002  
ID: 01101001.20171218070904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60여종의 동위원소 가운데 방사선을 방출하며 계속 붕괴하는 방사성동위원소와 달리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안정동위원소’다. 탄소(C)를 예로 들면, 자연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똑같이 6개인 탄소 원소가 대부분이지만 중성자가 한두 개 더 많은 것도 미량 발견된다. 탄소는 자연 상태에서 질량수가 12, 13, 14인 세 가지 동위원소로 존재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질량수가 12인 탄소(¹²C)와 13인 탄소(¹³C)가 안정동위원소, 질량수 14인 탄소(¹⁴C)가 방사성동위원소다.<br/><br/> 방사성동위원소가 암 치료 이야기나 눈길 끄는 고고학적 발견과 함께 종종 언급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데 반해 안정동위원소는 조명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 주로 지질이나 해양, 환경 분야 등의 지구화학 연구실에서만 연구 대상 물질의 기원을 찾아내는 방법론으로 안정동위원소가 존재하는 비율인 ‘안정동위원소비’ 변화 특성에 주목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연구논문 속에만 머물던 안정동위원소가 최근 들어 범죄 수사, 농수산물 검사, 환경오염 사고 원인 규명 등 현실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br/><br/> 원소별로 고유한 안정동위원소비는 물리·화학적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변화한다. 탄소 안정동위원소는 ¹²C가 98.9%, ¹³C가 1.1%의 비율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밀한 질량분석기(MS)를 이용해 실제 확인해보면 돼지고기 속 탄소냐 쇠고기 속 탄소냐에 따라 다른 것은 물론, 같은 쇠고기 안에서도 호주산이냐 미국산이냐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을 살찌운 사료와 사육된 환경 속 탄소의 안정동위원소비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안정동위원소비 변화 특성 때문에 동위원소비 질량분석기(IRMS)로 조사 대상 시료들을 구성하는 원소의 안정동위원소비를 측정하면 두 시료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있고, 표준시료의 안정동위원소비와 대조하면 조사 대상 시료가 거쳐온 과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br/><br/> <br/><br/>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강창근 교수는 “안정동위원소비 분석을 하면 동해 바다 밑 유기물이 낙동강을 통해 유입된 육상 기원 물질인지, 러시아에서 버린 폐기물에서 나온 것인지, 자연 속 고유물질인지도 알 수 있다. 안정동위원소비 분석은 물질의 기원을 찾기 위해 과학계에서 쓰는 추적자 중에서 제일 앞서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안정동위원소비가 ‘화학적 지문’으로 불리는 이유다.<br/><br/> 2013년 6월 어느 날 저녁 전남 여수시 율촌면 일부 지역에 검은색 비가 내렸다. 이 검은 비 사고의 원인 규명에 나선 국립환경과학원은 그때까지 연구해오던 안정동위원소비 분석법을 처음 시도했다. 의욕적인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환경과학원은 비에 섞여 피해지역에 떨어진 분진과 인근 산업단지에서 채취한 분진 속 탄소와 질소의 안정동위원소비를 분석해 한 업체의 매립장을 발생원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분석 결과를 전달받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업체를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도 이 업체가 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법적 증거로 인정받는 데는 실패했지만 안정동위원소비 분석이 점점 다양해지는 오염사고 원인 규명의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환경과학원은 2014년부터 이 부문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짜 추진해오고 있다.<br/><br/> 환경과학원은 이후 최근까지 대구 안심연료단지가 주변 공기질에 끼친 영향 조사, 동해 시멘트공장 분진 피해 조사 등으로 안정동위원소비 분석 적용 사례를 늘리며 분석 기법을 가다듬어왔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시작 단계일 뿐이라는 것이 내부 평가다. 최종우 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span class='quot0'>환경 분야 안정동위원소비 분석은 아직 공정시험기준도 없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시범 케이스로 여기저기 적용해보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로 보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과학수사에서 유전자 분석이 자리잡는 데 20년 이상 걸렸는데, 이쪽도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br/> 환경과학원보다 먼저 안정동위원소의 화학적 지문 활용에 주목한 것은 지문과 유전자 분석의 한계를 절감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다. 국과수는 이미 2010년 말 화제가 됐던 이른바 ‘쥐식빵 사건’을 쥐식빵 속의 제빵 재료와 제보한 빵집 제빵 재료의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를 대조해 제보자의 자작극임을 밝혀내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국과수는 이후 계속 안정동위원소비 분석을 적용하며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유전자 채취가 불가능한 백골 상태 시신에 남아 있는 머리카락이나 치아, 뼈 속의 스트론튬(Sr) 동위원소비로 시신의 거주지와 이력 정보를 추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까지 세워놓았다.<br/><br/> 인삼이나 어류 같은 농수산물 원산지 추적도 안정동위원소비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목받아온 분야다. 이미 안정동위원소비 분석이 공식 시험법으로 채택된 경우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벌꿀 식품규격은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를 일반 꿀과 설탕을 먹인 사양 벌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용기에 벌꿀 표준시료와의 동위원소비 차이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진 도핑테스트에도 안정동위원소비 분석은 활용되고 있다. 신경훈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운동선수들이 근육강화제로 쓰는 스테로이드는 체내에도 원래 있는 물질이어서 사람마다 농도 차이가 있다. 이 농도가 어중간하면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를 분석하면 약물으로 주입된 것과 선천적인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br/><br/> <br/><br/> 안정동위원소비 분석법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안정동위원소비가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지만 갈수록 화학적 지문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안정동위원소비 분석 사례가 쌓인 안정동위원소비 라이브러리가 구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 교수는 “안정동위원소비 분석을 해도 대조할 동위원소비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결과를 바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면 매번 배경 시료를 다 채취해서 분석해야 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다. 전문 인력이 꾸준히 분석 데이터를 축적해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br/> 김정수 선임기자 jsk21

언론사: 한겨레-1-13.txt

제목: 한국당, 서청원·유기준 등 의원 4명 당협위원장직 박탈  
날짜: 20171217  
기자: 김남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7212806001  
ID: 01101001.20171217212806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자유한국당이 17일 서청원(8선, 경기 화성갑), 유기준(4선, 부산 서구·동구), 배덕광(재선, 부산 해운대을), 엄용수(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의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했다. 배·엄 두 의원은 비리·불법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이미 당협위원장직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역 불패’ 관례를 깨고 지역구 관리권을 빼앗긴 의원은 친박계 중진 두 사람뿐인 셈이다.<br/><br/>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의원 4명과 원외 58명 등 62명의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협위원장은 지역구 관리 책임자로 내년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기초단체장 등의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2020년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서청원·유기준 의원 등 62명의 당협위원장직 박탈이 사실상 ‘총선 공천 배제’로 읽히는 이유다. 이는 전체 당무감사 대상자 214명 중 28.9%로,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체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체제 때 이뤄진 19대 총선 공천 물갈이 비율은 46%였다.<br/><br/> 교체 폭은 보통이지만 후폭풍은 광폭이 될 전망이다. 특히 홍준표 대표가 “바퀴벌레, 고름, 암덩어리”라고 지칭했던 옛 친박계 맏형과 중진 의원 2명의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면서 감사의 공정성과는 별개로 ‘표적 감사’, ‘사당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국회 최다선인 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주고받으며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다. 서 의원은 이날 홍 대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고얀 짓이다. 못된 것만 배웠다”며 분노했다. 유 의원 역시 최근 당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홍 대표의 막말을 비판하며 각을 세워왔다. 한 친박 쪽 인사는 “<span class='quot0'>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를 통한 ‘주관’이 개입했을 수 있다</span>”고 했다.<br/><br/>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1'>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계량화해서 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도 당무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일체의 정무 판단 없이 계량화된 수치로 엄격히 블라인드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18일부터 20일까지 탈락자들로부터 재심 신청을 받는다.<br/><br/> 당무감사 결과에는 홍 대표가 말한 “친박 자동사망·차도살인”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만간 검찰 기소가 확실한 최경환·이우현 의원 등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22명의 바른정당 복당파 의원 중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서울 강서을) 등 7명의 지역구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해, 김 원내대표 등이 당협위원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앞으로 당 조직강화특위의 당협위원장 선출 심사를 통해 복당파 대다수가 당협위원장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는 자질 부족 논란을 일으켰던 류여해 최고위원이 ‘보수 텃밭’인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했고, 친박계 인사인 권영세(서울 영등포을)·김희정(부산 연제) 전 의원, 김재철(경남 사천·남해·하동) 전 <문화방송> 사장 등도 지역구를 반납하게 됐다. <br/><br/>김남일 기자 namfic

언론사: 한겨레-1-14.txt

제목: 홍준표, 결국 ‘차도살인 당무감사’였을까  
날짜: 20171217  
기자: 김남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7191901001  
ID: 01101001.20171217191901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자유한국당이 17일 서청원(8선, 경기 화성갑), 유기준(4선, 부산 서구·동구), 배덕광(재선, 부산 해운대을), 엄용수(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 현역의원 4명의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했다. 배·엄 두 의원은 비리·불법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이미 당협위원장직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역 불패’ 관례를 깨고 지역구 관리권을 빼앗긴 의원은 옛 친박계 중진 두 사람뿐인 셈이다. <br/><br/>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의원 4명과 원외 58명 등 62명의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기초단체장 등의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2020년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서·유 의원 등 62명의 당협위원장직 박탈이 사실상 ‘총선 공천 배제’로 읽히는 이유다. 이는 전체 당무감사 대상자 214명 중 28.9%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내년 6·13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체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체제 때 이뤄진 19대 총선 공천 물갈이 비율은 46%였다. <br/><br/> 교체 폭은 보통이지만 후폭풍은 광폭이 될 전망이다. 특히 홍 대표가 “바퀴벌레, 고름, 암덩어리”라고 지칭했던 옛 친박계 맏형과 중진 의원 2명의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면서 감사의 공정성과는 별개로 ‘표적 감사’, ‘사당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국회 최다선인 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주고받으며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다. 서 의원은 지난 5·9 대선을 앞두고 홍 대표가 직권으로 당원권 정지를 풀어줬지만 당협위원장직 중지는 해제되지 않은 상태다. 서 의원은 이날 홍 대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받고는 “고얀 짓이다. 못된 것만 배웠다. 당의 앞날이 걱정”이라며 분노했다고 한다.<br/><br/> 유 의원 역시 최근 당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홍 대표의 막말을 비판하며 각을 세워왔다. 유 의원 쪽은 “<span class='quot0'>당무감사 결과부터 열람해 봐야겠다</span>”며 당황하는 분위기다. 유 의원은 당원 확보 등 당무감사 기준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때는 부산 16개 선거구 중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긴 3곳 중 2곳(서구·동구)이 유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다. 한 친박 쪽 인사는 “<span class='quot1'>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를 통한 ‘주관’이 개입했을 수 있다</span>”고 했다. <br/><br/>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2'>이번 당무감사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계량화해서 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인적·조직 혁신이 완수 단계에 왔다고 선언했던 홍 대표도 당무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과 분당 과정에서 급조된 당협위원장이 70여명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았다.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당협위원장 정비를 하게 됐다. 일체의 정무판단 없이 계량화된 수치로 엄격히 블라인드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교체 대상 원외 58곳 중 21곳이 탄핵과 분당 이후 채워진 ‘반년짜리 당협위원장’들이다. 앞서 홍 대표는 현 당무감사위원 구성이 전임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꾸려졌다는 점을 들며 공정성을 강조해 왔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탈락자들로부터 재심 신청을 받는다. <br/><br/> 당무감사 결과에는 홍 대표가 말한 “친박 자동사망·차도살인”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만간 검찰 기소가 확실한 최경환·이우현 의원 등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오히려 최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구 관리가 잘 돼 있다”(이용구)는 ‘칭찬’까지 나왔다. ‘알아서 정리’될 것이라는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br/><br/> 바른정당 복당파 의원들은 희비가 갈렸다. 전체 22명의 복당 의원 중 김성태 원내대표(서울 강서울), 정양석(서울 강북갑),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홍철호(경기 김포을),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의 지역구 원외 당협위원장들만 이번 교체 대상에 올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당 조직강화특위의 당협위원장 선출 심사과정을 통해 복당파 대다수가 당협위원장직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조강특위의 심사 과정에서 친홍계 인사들이 약진할 경우 2차 후폭풍도 예상된다. 특히 대구 사고 지역구(달서병, 북을)에 당협위원장 신청 의사를 밝힌 홍 대표는 물론, 홍 대표 비서실장인 강효상 의원까지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br/><br/> 한편,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는 잦은 돌출 발언과 자질 부족 논란을 일으켰던 류여해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 ‘꽃밭’인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했다.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깜짝 2등’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류 최고위원은 당무감사 결과 발표가 나오자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대표는 후안무치와 배은망덕을 그대로 보여줬다. 홍준표의 ‘사당’에 맞서 적극 투쟁하겠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br/><br/>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박민식 전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역시 탈락했다. 박 전 의원은 홍 대표의 ‘부산시장 후보 전략공천’ 입장에 맞서 ‘후보 경선’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2012년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물갈이 공천 당무감사를 주관했던 권영세 전 의원(서울 영등포을)도 당협위원장직을 잃었다. 김희정(부산 연제), 전하진(경기 성남분당을) 전 의원 등 인지도가 높은 원외 인사들도 물갈이를 피해가지 못해다.<br/><br/> 김남일 기자 namfic

언론사: 한겨레-1-15.txt

제목: 당협위원장 박탈에 서청원 “고얀 짓, 못된 것, 앞날 걱정”  
날짜: 20171217  
기자: 김남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7184844001  
ID: 01101001.20171217184844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허허 고얀 짓이네. 못된 것만 배웠구만. 당의 앞날이 걱정이네.”<br/><br/> 17일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경기 화성갑)이 자신의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한 당무감사 결과를 전해듣고 내놓은 말은 이게 전부다. 서 의원 쪽은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 9시 서 의원의 지역구 관리 권한을 뺏기로 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9시간 뒤인 이날 오후 6시10분께 에스엔에스를 통해 “<span class='quot0'>잠시 후 대표님(서청원 의원) 공식 반응을 올리겠다</span>”고 공지했다. 이어 19분 뒤 “당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고얀 짓”, “못된 것”, “앞날 걱정”이라는 짧은 세 문장을 알렸다. 서 의원 쪽은 “<span class='quot1'>(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 언급은 없었다</span>”고 전했다. <br/><br/> 국회 최다선인 서 의원은 자신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던 홍준표 대표와 막말을 주고받으며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다. 서 의원은 지난 5·9 대선을 앞두고 홍 대표가 직권으로 당원권 정지를 풀어줬지만 당협위원장직 중지는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친박계를 두고 “바퀴벌레, 고름, 암덩어리”라고 했던 홍 대표는 당무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당협위원장 정비를 하게 됐다. 일체의 정무판단 없이 계량화된 수치로 엄격히 블라인드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br/><br/> 김남일 기자 namfic

언론사: 한겨레-1-16.txt

제목: 민간의료보험 의존 ‘심각’…가입률 87%·보험료 29만원  
날짜: 20171217  
기자: 박기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7151814001  
ID: 01101001.2017121715181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각종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가 전체의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충분하지 않은 탓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29만원에 달했다.<br/><br/>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7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 비율이 86.9%였다. 이 조사는 지난 8~9월 20~69살인 전국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자신이 내는 민간의료보험료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66.1%로,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월평균 28만7천원이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20만~50만원이 52.0%로 가장 많았고, 월 50만원 이상을 낸다고 응답한 사람도 12.9%에 이르렀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0'>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가계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span>”고 분석했다.<br/><br/> 실제로 대표적인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83.5%, 이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14만7천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구의 69.2%는 가입 이유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라고, 28.4%는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많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률도 높았다. 반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이 의료 및 건강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201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4%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가입국 평균은 80%에 이른다.<br/><br/> 박기용 기자 xeno

언론사: 한겨레-1-17.txt

제목: 자유한국당, 친박 서청원·유기준 당협위원장 박탈  
날짜: 20171217  
기자: 김남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7112821001  
ID: 01101001.20171217112821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자유한국당이 17일 서청원(8선, 경기 화성갑), 유기준(4선, 부산 서구·동구), 배덕광(재선, 부산 해운대을), 엄용수(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 현역의원 4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했다. 배·엄 두 의원은 검찰에 기소돼 자동적으로 당협위원장직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 중에는 사실상 친박 중진 두 사람만 포함된 셈이다.<br/><br/>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들 현역의원 4명과 원외위원장 58명 등 62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워낙 위기에 처해 (당무감사 결과) 기준을 토대로 컷오프를 했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 이번 당무감사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계량화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적·조직 혁신을 예고했던 홍준표 대표도 당무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당협위원장 정비를 하게 됐다. 일체의 정무판단 없이 계량화된 수치로 엄격히 블라인드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br/><br/> 하지만 ‘현역 불패’라는 당협위원장 교체에 홍 대표가 “바퀴벌레, 고름, 암덩어리”라고 지칭했던 친박계 맏형과 중진 의원 2명이 들어가면서 ‘표적 감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주고받으며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다. 유 의원 역시 최근 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홍 대표의 막말을 지적하는 등 각을 세워왔다. <br/><br/> 서 의원은 5·9 대선을 앞두고 홍 대표가 직권으로 당원권 정지를 풀어줬지만 당협위원장직 중지는 해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용구 위원장은 “<span class='quot0'>서 의원은 당무감사 결과 (당협위원장을 맡을)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span>”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탈락자들로부터 재심 신청을 받는다. <br/><br/> 한편, 원외당협위원장 중에는 잦은 돌출 발언과 자질 부족 논란을 일으켰던 류여해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 ‘꽃밭’인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직에서 탈락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박민식 전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역시 탈락했다. 박 전 의원은 홍 대표의 부산시장 후보 전략공천 입장에 맞서 ‘후보 경선’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br/><br/> 바른정당 복당파 의원 지역구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상당수 탈락하며 복당파 의원들의 복귀 길이 열렸다. 홍 대표의 지원을 받으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무조건 복당’을 주장했던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가평) 등이다. <br/><br/> 김남일 기자 namfic

언론사: 한겨레-1-18.txt

제목: 하루에 환자 19명만 받는 치과의사 “왕따 되고 망해도 좋아”  
날짜: 2017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5184826001  
ID: 01101001.20171215184826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3년 전 과잉진료 심각성 깨닫고잇따라 방송 출연해 문제 제기치아 사진 비교 동영상 등으로유튜브·페이스북에 고발 이어가‘양심치과’ ‘왕따치과’ 상반된 평가<br/><br/> 서울대 치대 출신 개원 11년차가난 탓에 고등학교 진학 포기“장기려 박사 같은 사람 되고파…”27살 검정고시 거쳐 대학 진학졸업 때까지 스스로 학비 마련<br/><br/> <br/><br/>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가난과 불행은 한 사람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화인(火印)으로 남는다. 그것은 독성이 든 약재와 같다. 잘 쓰면 약이지만 통제가 안 되면 독이다. 가난과 불행을 떨치고 사회적으로 입신하기 위해서 맹렬히 달려온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성공한다. 경제적 안정, 번듯한 직함과 사회적 명예를 얻지만, 과거의 아픈 기억은 말끔히 지워지는 법이 없고 결핍에 대한 욕망은 무한하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높은 지위에 대한 갈망과 허기는 쉽게 충족되지 않는다. 전쟁과 빈곤의 상처를 깊이 간직한 중장년세대 가운데 입지전적 인물로 불리는 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성공한 이들이 우리 시대의 주류 질서를 만들고 사회적 좌표를 규정해왔다.<br/><br/> 다행히 세상에는 이와 다른 부류들이 있다. 가난의 비참함을 알면서 가난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 사회적 질시와 배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고립된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이들, 애틋하게 움켜잡아온 것들을 어느 순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아는 이들…. 이들은 자신에게 결핍되었던 것을 병적으로 채우는 데 연연하지 않고, 과거의 자신처럼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 남다른 연민과 진한 공감으로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기꺼이 그들의 편에 선다. 소수지만 이런 이들이 있어 우리가 숨 쉬고 살 수 있다.<br/><br/> 강창용(46)은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개원 11년차 치과의사다.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입학해 다닐 때, 그는 중졸 학력으로 자장면 배달과 신문 배달을 했다. 27살에 뒤늦게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대학 졸업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조달했다. 1970~80년대 고도성장과 유례없는 경기호황 시대에 그에겐 의지할 가족도, 도와줄 어른도 없었다. 궁핍하고 외로웠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돈 못 버는 의사로 산다. 그가 운영하는 병원은 ‘양심치과’ 혹은 ‘왕따치과’로 불린다. 그는 여전히 곤궁하고 외롭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대체 왜? 성직자도 사회운동가도 아닌 평범한 직업인으로 왜 그렇게 사는지, 뭘 위해 그렇게 사는지 묻고 싶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2017년 12월, 시류에 떠밀리는 부표가 아니라 온전한 자신만의 좌표를 찾아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br/><br/> <br/><br/> 하루 19명만 진료하는 이상한 치과<br/><br/> 그를 섭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병원으로 전화했지만 통화는 불가능했다. 진료시간을 안내하는 짧은 녹음 메시지만 반복되고 전화는 자동으로 끊겼다. 달리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 서울 마포에 있는 그의 치과를 찾아갔다. 평일 오후 3시30분인데 그의 병원문은 닫혀 있었다. 굳게 닫힌 철문 위에 “오늘 진료는 종료되었습니다”란 팻말이 붙어 있었다. 무작정 철문을 두드렸지만 기척이 없었다. 20여분을 기다리다가 쪽지를 써놓고 돌아서려 할 무렵, 육중하게 닫혔던 문이 열렸다. 계단참에 서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그가 “추운데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나를 병원 안으로 안내했다. 두어 시간 동안, 그는 속사포처럼 많은 얘길 쏟아냈다. 그와의 공식 인터뷰는 그로부터 이틀 뒤로 잡혔다. 지난 6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한 이야기는 자장면을 시켜 먹으며 밤 11시까지 길게 이어졌다.<br/><br/> ―건물 1층 입구부터 안내문이 붙어 있더군요. “<span class='quot0'>7시40분 접수, 19명 선착순</span>”이라고.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하고 일찍 닫으세요?<br/><br/> “환자들이 너무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잖아요. 새벽 3시에도 오시고 얼마 전엔 2시에 온 분도 있었어요. 최대한 일찍 당겨야 하는데 이 건물 자체가 오전 7시40분에 문을 여니까 더 일찍 시작하긴 어렵고…. 7시40분에 와서 진료 순서랑 시간 적힌 대기표를 열아홉분께 선착순으로 드리고 8시부터 진료 시작해요.”<br/><br/>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죠?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받으면 안 돼요?<br/><br/> “지금 이 상황에서 예약을 받으면 순식간에 앞으로 3~4개월분은 바로 다 차버릴 거예요. 그럼 꼭 진료받아야 할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잖아요. 환자가 많이 오길 바라지 않아요. 최대한 불편하고 힘들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하고 절실한 환자들만 오길 바라는 거예요.”<br/><br/> ―근데 왜 하필 19명으로 못박아둔 거죠?<br/><br/> “이게 여러 번 시행착오 거쳐서 조정된 시간표인데, 한 사람당 15분씩 네명 이어서 보고 30분간 여유시간 두고…. 그렇게 하면 오후 3시15분까지 딱 19명이 돼요. 네 명 진료하고 30분씩 시간을 두는 건 앞의 환자들 보다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자꾸 밀리면 뒷사람이 많이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3시 반이나 4시께면 진료가 끝나죠.”<br/><br/> ―왜 그렇게 일찍 닫아요? 직장인들은 못 오겠네.<br/><br/>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배가 고파서요.(웃음) 거의 2년 동안 점심을 못 먹었어요. 요즘엔 그래도 습관이 되어서 중간에 잠깐씩 뭘 좀 먹긴 해요. 나가서 먹을 시간은 없고 (원장실 창가의 백팩을 가리키며) 그 뒤에 보이시죠?”<br/><br/> ―아, 이게 원장님 도시락 가방이에요?<br/><br/> “아니에요. 아유! 그 큰 게 도시락 가방이면…. 제가 코끼리게요?(웃음) 그 가방 뒤에 비닐봉지 보이세요? 거기 빵이나 삼각김밥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둬요. 그런 건 잠깐씩 먹을 수 있으니까.”<br/><br/> <br/><br/> <br/><br/><br/><br/> 백팩을 치우자, 먹다 만 식빵 부스러기가 담긴 작은 비닐봉지가 보였다. 예전엔 환자들이 대기실을 꽉 채운 채 종일 진을 치고 있어서 물 마실 틈도, 화장실 갈 짬도 내지 못해 방광염까지 걸렸다고 한다. “<span class='quot0'>이젠 요령이 생겨 살 만해요</span>”라고 말할 때 그의 얼굴엔 스스로 기특하다는 듯 개구쟁이 소년 같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문득 그의 책상 앞에 놓인 탁상용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날짜별로 ‘40(7), 23(5)…’와 같은 숫자와 세모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br/><br/> <br/><br/> ―이 숫자는 무슨 의미죠?<br/><br/> “아이고 이거… 저희 치과 매출액이에요.(웃음) 괄호 안의 숫자는 환자한테 받은 돈, 전액 카드로만 받아요. 앞의 숫자는 보험청구액 포함한 총수입액.”<br/><br/> ―그럼 오늘은 환자들한테 총 5만원 본인부담금 받았고 보험수가 포함하면 23만원 수입이라고요? (놀라며) 그래서 병원 유지가 되나요? <br/><br/> “제가 잡은 기준치가 하루 70(만원)이에요. 그래야 고정지출 빼고 병원이 유지가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날은… 세모 표시 보이시죠?”<br/><br/> 그가 보여주는 12월 달력엔 거의 모든 날에 세모가 있었다. 지난 8월 이후 달력의 세모 표시는 점점 늘어나서 이젠 한 달 내내 세모가 이어진다. 그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치과의 과잉진료에 대한 고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이후, 그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적자 폭은 도리어 늘고 있다.<br/><br/> <br/><br/> 왕따가 되고 망해도 좋아요<br/><br/> ―유튜브에 치과의 과잉진료 행태를 고발하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계시죠? ‘치과 환자 눈탱이 치는 수법과 대응 매뉴얼’이란 제목으로 올린 영상을 봤어요.<br/><br/> “제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거 하나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페이스북 시작하고 나서도 ‘페친’ ‘페북’이란 용어가 뭔지 몰랐어요.(웃음) 누가 저더러 ‘밴드 좀 해보시죠’ 할 때도 ‘전 노래 못하는데요’ 했을 만큼(웃음) 에스엔에스(SNS)에 통 무식하던 사람인데 올해 6월 무렵부터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법을 배워서 시작했고 그렇게 해도 한달 내내 조회 수가 몇십건에 불과해서 낙담해 있으니까 누가 페이스북이랑 같이 연동해서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페이스북은 7월 무렵에 시작했죠. 제가 2014년에 <불만제로>란 티브이 프로그램에 치과 과잉진료에 대해 제보해서 방송하고 2015년에 <에스비에스(SBS)스페셜>에도 출연했는데, 제가 아무리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얘길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서 보여줘야겠구나 싶어서 시작한 일이죠.”<br/><br/> ―일부 치과가 환자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충치 치료나 금니 보철을 진행한 사례들을 열거하고 환자 입장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해주셨죠. 우선 치과 2~3군데에서 검진을 받고 진단서를 뽑아서 비교해보고 결정하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선 원장님 치과를 ‘양심치과’ 혹은 ‘왕따치과’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현에 동의하세요?<br/><br/> “둘 다 맞아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양심치과’란 표현은 제가 만든 말이 아녜요. 치과의사들이 하도 ‘너만 양심 있냐?’고 욕을 해서, 저도 오기로 ‘양심치과 강창용입니다’ 하는 거죠. ‘너 그렇게 잘났냐?’ 하면 ‘그래, 나 잘났다’ 하듯이.(웃음) ‘왕따치과’인 것도 맞아요. 치과에선 절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아파트 기둥에 철근이 적게 들어갔다고 누가 꼰질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럴 거 아녜요? ‘야, 너 때문에 집값 떨어지잖아. 너 살기 싫으면 조용히 팔고 나가지 왜 방송에 나가서 떠들어?’ 하겠죠. 너나 양심 있게 진료하면 되지, 왜 떠들고 다니느냐고요.”<br/><br/> ―그런 비난 받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br/><br/> “주변에 선후배 관계가 다 끊어지다시피 했어요. 댓글에 쌍욕 하는 사람도 많고, 제 부모님 욕하는 사람까지 있죠. 그렇다고 저에게 무슨 소송을 걸거나 하진 못해요. 증거가 명확하고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니까.”<br/><br/> ―지속적으로 음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br/><br/>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옳다면 그 일에 집중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덤빈다고 제가 고발하고 그러면 논점이 흐려질 거예요. 과잉진료의 문제가 아니라 ‘강 원장 대 치과의사들 싸움’으로 비칠 테니까요.”<br/><br/> ―언론이나 환자들로부터 ‘양심치과’로 호명되는 걸 병원 홍보에 전혀 이용하지 않으시더군요. 강남의 한 치과는 <불만제로>에 양심치과로 소개되었다는 걸 홍보 영상으로 퍼뜨리던데. 음식점들도 식당 입구에 ‘착한 식당’ 팻말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br/><br/> “전 싫어요. 낯부끄러운 짓은 안 합니다.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과잉진료의 현황을 전달하는 데 주력해야지, 이걸 사적으로 홍보하는 데나 쓰고 그러면 오래갈 수 있겠어요? 지금도 환자들이 많이 오니 ‘조인트’로 치과 차리자는 제안도 받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돈 벌면 더 욕먹어요. 돈을 못 버는 게 제가 사는 길이죠.”<br/><br/> ―그럼 이렇게 병원 재정이 악화되는데 다른 수익 전략이 있나요?<br/><br/> “….”<br/><br/> ―대책이 없어요?<br/><br/> “(한숨) 없어요. 어차피 제 병원은 ‘비정상치과’예요. 주로 오는 환자들이 ‘이거 보철해요, 말아요?’ ‘임플란트 하라는데 해야 해요?’ 이런 거 물으러 오죠. 저는 검진만 주로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만 해요. 안 그러면 하루에 이 정도 인원을 볼 수가 없어요. 저한테 매일 19명이 오지만 다 신환(초진환자)들이에요. 보통 병원은 신환 4~5명에 나머지가 신경치료나 보철, 임플란트처럼 보험 안 되는 치료 받으러 지속적으로 오는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야 수익이 나니까. 근데 전 그럴 수 없어요. 환자들한테도 말해요. 여긴 치과가 아니라 치과 검찰청이라고.(웃음) 잘못된 치과 진단 찾아내는 데지 여기서 다 치료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해요.”<br/><br/> ―공공기관도 아니고, 자선사업하는 데도 아닌데.<br/><br/> “난 망해도 괜찮아요. 미련 없어요. 우리 치과는 풍랑 속의 돛단배 같은 존재예요. 치과 잘되고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면 지금처럼 하면 절대 안 되죠. 병원 전화도 안 받고 금니 할 사람들은 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전 제 직업을 잃을 각오를 하고 이 문제를 개선해보자고 떠드는 거예요.”<br/><br/>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가 감정을 추스르는 동안 나도 더 질문을 하지 않았다.<br/><br/> <br/><br/> 선후배 관계 거의 끊어지고댓글 통해 쌍욕까지 들어병원 찾는 환자들 늘었지만병원 유지에 필요한 한달 수익채우지 못하는 날도 수두룩<br/><br/> “<span class='quot0'>문재인 케어 실행되려면과잉진료 막는 것이 중요암 환자 외과 진료처럼치과 치료에도 매뉴얼 필요해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span>”<br/><br/> <br/><br/> <br/><br/> 충치에 대해서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br/><br/> ―언제부터 치과의 과잉진료 문제에 이렇게 몰입하게 된 거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br/><br/> “저도 처음 개원할 땐 아무것도 몰랐어요. 2006년에 직원 둘 데리고 개원했는데 열심히 일하는데도 매출이 별로인 거예요. 다른 치과들 보면 하루에 금니를 열 개는 파는데, 난 일주일에 인레이(금속으로 때우는 것) 두세 개 해요. ‘아, 진짜 복도 지지리도 없지. 대체 이 동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치아가 좋은 거야? 병원 자리가 나쁜가?’ 생각했어요.(웃음) 결국 2011년 6월에 병원 문 닫을 생각을 하고, 직원들 다 내보냈어요. 병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잠시 동안 1인 치과를 하는데, 그 몇 달 동안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해보자 생각했어요. 다시 개업을 하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하니까.”<br/><br/> ―근데 알고 보니 장삿속 밝은 병원들이 문제였다?<br/><br/> “어느 날 여자 환자분이 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교정을 최근 2년 동안 받았고 3~4개월 전 검진 때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들었대요. 근데 어느 치과에 갔더니 충치가 열 개라고 다 금니를 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검사해보니 깨끗했어요. 아니, 2년 동안 교정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치과에 갔을 텐데, 충치가 열 개가 되도록 못 봤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디다 고발하지?’ 하다가 엠비시(MBC) <불만제로>에 제보했어요. 거기서 취재해서 같은 환자의 검진과 치료비에 치과마다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줬죠. 전 그런 방송 나가고 나면, 치과계에서 ‘아,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고쳐야겠다’ 할 줄 알았어요.”<br/><br/> ―근데 아니었나요?<br/><br/> “그런 환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정작 썩은 이뿌리는 찾지 못하고 전혀 다른 멀쩡한 어금니에 금니를 4개나 하게 한 곳도 있고, 6개월 전에 다른 병원에서 한 금니 열 개가 잘못되었다고 다 뜯고 다시 하라고 한 치과도 있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친하게 지내던 선배조차도 ‘그건 환자가 진상이라 그런 걸 거야. 네가 오버하는 거야’ 하더라고요. 치과협회나 치과신문에서도 절 비난했어요. ‘진료는 주관적 소견이니 의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요. ‘과잉진료도 문제지만 과소진료도 문제’라고 저를 과소진료로 규정했죠.”<br/><br/> ―원장님은 자기 이를 최대한 보전하는 보전적 치료를 권하시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미리 손봐서 나쁜 것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치료 시기나 범위에 대해서 의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요?<br/><br/> “암 환자의 경우를 봅시다. 종양 크기가 얼마가 되면 수술로 떼어내야 할지 의사들이 고민하겠죠. 종양이 1㎝ 정도일 땐 수술 안 하고 지켜볼 때도 있잖아요. 다른 치료 우선하면서. ‘종양이 작아도 어차피 커질 테니 배 엽시다’ 그러나요? 종양을 제거하는 것보다 배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의 위험이 더 크면 안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치과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충치 치료라고 하면 충치만 제거하고 덮어씌우는 줄 아는데 보철 재료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충치보다 몇 배로 파내야 하거든요.”<br/><br/> ―아, 그렇군요. 치아에 ‘뭘 씌운다’는 표현이 원래 치아는 그대로 두고 갑옷처럼 방패를 입힌다는 말로 들려서 오해했어요.<br/><br/> “금니 할 때 대개 신경치료를 하는데 그것도 실은 신경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거예요. 신경을 제거하면 치아에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까만 고목나무처럼 치아의 수명이 단축돼요.”<br/><br/> ―그래도 더 썩기 전에 치료해야 덜 아픈 거 아녜요?<br/><br/> “20대 이상 성인에게서는 충치 진행 속도가 느립니다. 60대 남자 환자가 오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금니 4개를 하라고 했대요. 이분이 30~40년간 충치가 있었는데 그동안 그만큼만 썩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50년 더 기다려도 그 정도 썩는다는 거니까 안 해도 되죠. 게다가 이분 잇몸이 안 좋아요. ‘할아버지, 금니 하더라도 잇몸 때문에 먼저 빼게 될 겁니다. 충치 걱정 마시고 잇몸 관리 잘하세요’ 그랬죠.”<br/><br/> ―그런 걸 다른 의사들이 모를 리 없는데 왜 과잉진료 행태가 나오는 거죠?<br/><br/> “치과 치료에도 암 환자들 외과 진료처럼 일정한 매뉴얼이 필요해요. 이 정도 충치면 냅두자, 깎자 하는…. 에나멜층의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제 나름대로도 만들어봤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치과계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만들까? 의지가 없는 거죠. 충치 치료는 주관적이어서는 안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어야 되니까 사람에 따라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치과에선 피부병도 고치고 불임도 고친다 하고, 뇌졸중을 고친다고 버젓이 광고하는 곳도 있어요.”<br/><br/> <br/><br/> <br/><br/><br/><br/> 왜 포기 안 하느냐고요?<br/><br/>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도 뭔가 기준안이 만들어져야 하겠어요.<br/><br/> “‘문재인 케어’가 되려면 과잉진료를 막는 게 더더욱 중요하죠. 문재인 케어를 해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하는 치과가 더 늘어날 테니까요. 지금 환자가 30만원씩 내는 것도 ‘안 하면 큰일납니다’ 해서 하게 하는데. 과잉진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고양이한테 생선 주는 격이죠. 그동안 가격 저항감 때문에 환자가 못 하던 것도 있는데, 과잉진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치과가 떼돈 벌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치아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치과에 안 가느니만 못한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고요.”<br/><br/>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원장님 혼자 그걸 감당할 순 없잖아요.<br/><br/> “보건소에 치과의를 확충하면 돼요. 뭐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으로 보건소마다 치과의사 두세 명 뽑는다고 죽어요? 100% 과잉진료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보건을 위해서 비영리적 관점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검사하고 진단해주는 보건소가 있다면 치과계의 경찰서 같은 역할이 되겠죠.”<br/><br/> ―지금 보건소에도 치과의사들이 군대를 대신해서 공중보건의 같은 걸 하잖아요? 보건소에 상주하는 치과의사를 더 늘릴 수 있나요?<br/><br/> “치과의사들도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육아를 위해서 계약직으로 들어올 의향이 있는 의사도 있을 거고요. 60대 이상으로 일반 치과에 근무하기 힘들어하는 의사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무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의사들에게도 괜찮은 기회죠.”<br/><br/> ―지난 4~5년간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오셨는데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격려나 지원을 받기는커녕 왕따가 되다시피 하셨어요. 그간 들었던 비난 가운데 가장 상처가 된 얘긴 뭡니까?<br/><br/> “절 똥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똥파리가 똥에 꼬인다’는 비난 댓글이 있었거든요. 내가 똥이고 날 찾는 환자들이 똥파리라는 거죠. 뭐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제일 가슴에 꽂힌 말은… ‘돈도 하나 없는 거지새끼들’이라고 환자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울먹거리며) 아 정말 그 얘기 읽고 원장실에 들어가 울었어요. 나를 똥 취급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환자를 ‘거지새끼’라고 하니까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 말인지 모르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돈을 기준으로 환자를 평가하는 거죠. 돈 없는 게 죄인가요?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요?”<br/><br/> <br/><br/> 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쏟아냈다. 그에게도 ‘거지새끼’ 취급을 받던 시절의 쓰라린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span class='quot0'>밖에서 노숙을 하고 일주일씩 밥을 굶던 시절</span>” 차디찬 냉대와 사회적 멸시가 ‘없는 사람들’에겐 얼마나 쓰라린 아픔인지 그는 안다. 뒤늦게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1년 동안, 학원에서 도강(盜講)을 하다가 배고픈 서러움에 모의고사 시험지가 다 젖도록 운 적도 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는 거의 매일 새벽 두시까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마련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껴안고 갈 아픔이란 삶의 교훈을 그는 지금껏 잊지 않고 있다.<br/><br/> <br/><br/> ―그렇게 힘들게 버텨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돈 벌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단 생각은 안 했어요?<br/><br/> “장기려 박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의사를 지망했어요. 내가 잘 먹고 잘살고 잃을 게 많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돈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기도 바쁠 텐데. 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하라고 그간 여러 가지로 힘든 시련을 줬던 걸지도 몰라요.”<br/><br/> ―욕먹고, 돈 못 벌고, 동조해주는 신실한 동료도 없는데 왜 포기 안 하세요?<br/><br/> “(눈을 동그랗게 뜨며) 틀렸으니까요! 틀린 걸 틀렸다고 하는 건데, 그걸 ‘왜 포기 안 하느냐?’는 말이 합당한가요? 잘못된 걸 제가 봤어요. 그걸 제가 고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포기한다? 거기서 포기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br/><br/>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하죠. ‘네가 옳아. 근데 너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냐. 혼자 나서지 마’라고요.<br/><br/> “결국 자신하고의 싸움이죠. 내가 단기간에 과잉진료 모든 걸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욕심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나는 갈 거야. 그러고 나면 누군가는 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겠어요? 근데요… 전 되든 안 되든 이거 계속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br/><br/> <br/><br/>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치과 안은 난방장치가 꺼진 지 오래인데, 춥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포기하지 않고…’ 심장에 뜨거운 물이라도 끼얹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녹취 심지연<br/><br/> <br/><br/>■ 강창용을 만든 시간들<br/><br/><br/><br/> <br/><br/> ▶ 이진순 풀뿌리정치실험실 ‘와글’ 대표. 언론학 박사. 새로운 소통기술과 시민참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다. 사람 사이의 수평적 그물망이 어떻게 거대한 수직의 권력을 제어하는지,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함이 어떻게 얼어붙은 세상을 되살리는지 찾아내는 일에 큰 기쁨을 느낀다.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한겨레-1-19.txt

제목: “엄마 살뜰히 챙기던 착한 아들이었는데”…철도사고 유가족의 눈물  
날짜: 20171214  
기자: 황금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4194848001  
ID: 01101001.20171214194848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span class='quot0'>엄마가 사준 타이즈 입으면 따뜻해.</span>”<br/><br/> 14일 새벽, 빨아둔 작업복이 채 마르지 않아 엄마가 사준 타이즈에 털바지를 입고 집을 나선 아들의 뒷모습이 마지막이었다. 이날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선로 옆 배수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일용직 노동자 전아무개(35)씨의 어머니 이아무개(63)씨는 “<span class='quot1'>추우니까 밖에서 일하는 게 항상 걱정이었는데…</span>”라며 연신 축축한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갔다. 서울 구로구 구로성심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아들의 빈소에서 이씨는 넋을 잃고 고인이 된 아들의 영정만 바라봤다.<br/><br/> 이씨는 6년 전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아왔다고 한다. 넉넉하진 않은 형편이지만 주위에서 “두 아들 보고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애틋한 세 식구였다. 전씨는 중소기업에 몸담아 일하다가 불경기에 일이 잘 풀리지 않자 2011년부터 일용직 노동을 시작했다고 한다.<br/><br/> 아들은 성실하고 꼼꼼하기로 유명한 일꾼이었다고 한다. “아들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인력시장에 굳이 안나가도 섭외 전화가 올 정도로 찾는 곳이 많았어요. 집에 오면 현장 소장이 다음에 또 오라고 돈 몇 만원 더 찔러줬다고 자랑도 자주 했죠.” 듬직한 아들 생각에 이씨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걸렸다.<br/><br/> 엄마는 일용직 특성상 아침 일찍 일을 나가 오후 3, 4시면 퇴근하는 아들이 ‘알뜰한 살림꾼’이었다고 기억했다. “엄마가 늦게까지 일한다고 빨래에 밥까지 싹 해두고 기다리던 착한 아들이에요. 흙 묻은 자기 작업복도 일일이 손빨래하고 김치찌개도 맛있게 끓이고….” 이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br/><br/> 대형마트 직원식당에서 일하는 이씨는 이날 아침 9시께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다가 119 구급대원의 전화를 받았다. 둘째 아들이 다쳐서 병원으로 후송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얼마나 다쳤냐고 묻는데 대답을 안하더라고요. 놀라서 큰아들 불러서 병원으로 왔는데 병원에 전○○이라는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씨는 두번 세번 확인한 끝에 둘째 아들 이름을 영안실에서 찾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br/><br/> 전씨의 어머니는 “전씨가 선로작업을 하러 나가는 줄 몰랐다”며 “위험한 작업인 줄 알았으면 미리 말렸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씨는 항상 밖에서 일하는 둘째 아들을 걱정했다고 한다. “아들이 평소에는 커피 공장에 커피를 나르거나, 빌라 짓는 건설 현장에 나갔어요. 열차 얘기를 했으면 못가게 했지.” 이씨가 흐느끼며 가슴을 꾹꾹 눌렀다. 작업하다 숨진 이날은 전씨가 온수역 선로작업을 나간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br/><br/> 전씨의 빈소는 형과 어머니, 작은아버지와 사촌 형만이 자리를 지켰다. 전씨의 발인은 16일 아침 8시.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br/><br/> 글·사진이지혜 기자 godot

언론사: 한겨레-1-20.txt

제목: [조한욱의 서양 사람] 세 편의 영화로 남은 사람  
날짜: 2017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4175814001  
ID: 01101001.20171214175814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조한욱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br/><br/> 연말연시에 방영하는 흘러간 영화를 통해 자주 만나는 배우 중 하나가 제임스 딘이다.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인 어머니가 일찍 암으로 사망한 이후 그는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 그렇다고 특별한 비운을 겪은 것은 아니어서, 고등학생 시절 그는 야구와 농구는 물론 웅변 팀에서도 능력을 보인 우수하고 인기 많은 학생이었다.<br/><br/> 대학에선 법학에서 드라마로 전공을 바꿨기에 아버지와 갈등을 겪었다. 어쨌든 연기가 천성이었는지, 연기 수업을 받던 그는 전업 연기자가 되려고 대학마저 중퇴했다. 그렇지만 성공 가도에 이르는 길은 순탄치 못했다. 그는 콜라 광고를 통해 텔레비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잡다한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단역으로만 등장했다.<br/><br/> <에덴의 동쪽>이 그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존 스타인벡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들려던 엘리아 카잔 감독은 남자 주인공 캘 트래스크의 복합적인 감정을 잘 표현할 배우를 물색하고 있었다. 카잔은 말런 브랜도급의 연기자를 원했으나 각색자는 당시까지 거의 무명이었던 제임스 딘을 추천했다. 원작자 스타인벡이 이 신인 배우가 그 역에 완벽할 것 같다고 인정하여 결국 딘으로 낙점되었다.<br/><br/> 촬영이 시작된 뒤 정확한 대본이 없이 연기는 거의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딘은 그것을 자신을 위한 최고의 기회로 만들었다. 마지막 장면의 원래 대본은 병상의 아버지가 아들 캘이 벌어온 돈을 거절한 뒤 아들이 낙담하여 떠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딘은 떠나는 대신 감정을 격발시켜 아버지를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역의 배우조차 이 반전에 깜짝 놀랐는데, 카잔은 딘의 이 즉흥 연기와 아버지의 반응까지도 그대로 영화에 살렸다.<br/><br/> <이유 없는 반항>과 <자이언트>로 인기의 최정상에 오른 그는 자동차 경주에서 스물넷의 삶을 마감했다. “<span class='quot0'>죽은 뒤에도 살아있을 수 있다면, 그가 위대한 사람이다.</span>” 그는 자신의 기준으로 위대한 사람이었다.

언론사: 한겨레-1-21.txt

제목: [세상 읽기] ‘사회 탓’을 해야 더 건강하다 / 김창엽  
날짜: 20171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3182815001  
ID: 01101001.2017121318281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br/><br/> 김양중 기자가 12월6일치 <한겨레>에 쓴 기사를 그대로 옮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생명표’를 바탕으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어떻게 앓는지 잘 요약했다.<br/><br/> “지난해 마흔살이 된 ㄱ씨(남성)는 80.4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27.5년밖에 남지 않았다. 나머지 12.9년은 병원을 들락거릴 가능성이 크다. ㄱ씨가 사망한다면 어떤 질환이 가장 위험할까? 2016년 현재 40살 남성의 사망 원인은 암(27.4%)과 심장질환(10.2%), 폐렴(8.4%), 뇌혈관질환(8.1%), 자살(2.8%) 등의 차례였다.”<br/><br/> 10년 전과 비교하여 기대수명이 3.6년 늘어난 것은 예상한 희소식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훌쩍 넘어 세계 최고 수준까지 접근했다. 나쁜 소식은 기대수명 증가보다 병을 앓는 기간이 더 길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생한 아이가 병을 앓는 기간은 2년 전보다 0.8년 늘었고 건강기간은 0.3년 줄었다. 이제 ‘유병 장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을까?<br/><br/>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통계와 기사가 밝히지 못한 현실이 여럿 있겠으나, 나는 두 가지 심층 구조에 주목한다. 첫째는 평균 속에 숨은 불평등한 분포다. 2009년 우해봉이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45세 여성의 건강한 기대수명은 고졸 미만과 고졸 이상 사이에 약 7.8년의 격차가 있다. 2016년 현재 40세 여성의 건강한 기대수명은 ‘평균’ 46.2년이니, 계산하건대 생사의 불평등은 엄청나다. 불평등이 지속하면 곧 평균까지 낮출지도 모른다.<br/><br/> 둘째로 주목할 것은 건강과 병의 원인. 현대 과학은 ‘다중’ 요인이 다차원으로 작용해 건강을 결정하는 것을 밝혀냈고, 유전, 행동과 생활습관, 환경, 사회적 조건, 의료, 스트레스 등이 고루 작용한다. 단순 목록보다는 이들 요인이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특히 강조할 것은 사회적 조건. 2010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생사와 건강에 미치는 의료의 기여도가 전체의 20%인 것과 비교하여 사회경제 요인은 그 두 배인 40%에 이른다.<br/><br/> 사회경제를 비롯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 ‘중요한 40%’를 흔히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 부른다. 앞서 기대수명 격차의 원인으로 등장한 교육수준도 그중 하나로, 이것 말고도 낮은 소득, 실업, 비정규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부실한 주거, 차별 등이 비슷한 범주로 묶인다. 이들 조건이 얼마나 우호적인지가 좋은 의사와 큰 병원, 첨단 의료기술보다 더 중요하다.<br/><br/> 평균과 불평등을 바꾸는 데 사회적 결정요인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요인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불평등과 그 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보통 사람의 생사와 건강은 역전한다. 지난 10월 중순 대니얼 김이 <예방의학>이라는 국제 학술지에 낸 논문의 분석결과는 예상보다 더 놀랍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정책이 연간 2만9천여명의 사망자를 늘릴 것이고, (가상이지만) 샌더스의 조세정책으로는 약 3만1천명의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br/><br/> 이런 시각으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보면? 최저임금과 비정규 노동도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이라면? 건강 운명을 바꾸려면 더 많이 ‘사회’를 탓할 수밖에 없다.

언론사: 한겨레-1-22.txt

제목: 형으로 갈아타거나 좀비로 떠돌거나…‘권불 14년’ 친박 생존법  
날짜: 20171213  
기자: 김남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3101845001  
ID: 01101001.20171213101845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디오에이(DOA). ‘도착 시 사망’(Dead On Arrival)의 약자다. 친박이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다. 중증외상이다. 여의도엔 ‘이국종’이 없다. ‘살려야 한다’는 이타적 제스처도 없다. ‘살아야 한다’는 각자도생의 본능만 번뜩인다. <br/><br/>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는 성공했지만 친박의 상징적 존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 제명 앞에 주춤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주최한 관훈토론회에서 “<span class='quot0'>두 사람은 자연소멸 절차를 가고 있다</span>”고 했다. 친박을 겨냥해 “암덩어리가 맞다”고 했다. 지난달에도 “자동사망 절차로 가고 있다”고 했다. 홍 대표가 꼽는 인생의 책은 <삼국지>다. 홍 대표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앞에 두고 “<span class='quot0'>차도살인(借刀殺人)이라는 말이 부담스럽다</span>”고 했다. <삼국지>엔 삼십육계 중 하나인 차도살인계가 즐비하다. 당내 친박을 일소할 힘이 달리는 홍 대표가 검찰의 적폐청산 칼날을 내심 즐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1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선 친박 중진 홍문종 의원이 35표를 얻는 데 그쳤다.<br/><br/>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사 최악의 정치세력으로 기록될 친박의 근황이 어지럽다. 일부는 회생이 어려워 보이고, 일부는 죽은 줄 모르는 좀비가 되어 여의도를 서성인다. 친박 부활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거나 화를 피해 지역으로 돌아가 후일을 도모하는 이들도 있다. <br/><br/> <br/><br/> <br/><br/> <br/><br/> ■ 자동사망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 최경환 의원의 말이 화제가 됐다. 지나치게 과격한 언사로 결백을 주장하는 그의 태도보다, 왜 자기 지역구도 아닌 ‘대구’냐는 힐난이 먼저 쏟아졌다. 이번에도 대구를 팔아서 뭘 해보려는 걸로 비친 거다. 서울에서 최 의원 지역구인 경북 경산으로 곧장 가는 케이티엑스(KTX)는 하루 두 편뿐이다. 동대구역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 나온 말인데, 사람들은 쉽게 ‘대구=박근혜=진박’이라는 자동 연관검색 기능을 작동시켰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티케이 진박 예비후보들의 선거사무실을 돌며 축사 지원을 하다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br/><br/> 12일 오후 최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왔다. 두 차례 출석 거부 끝에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타난 최 의원은 포토라인에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21일 박 전 대통령도 최 의원이 섰던 그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br/><br/> 박근혜 정부 실세로 군림했던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나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읍소와 경고를 섞은 도움을 구한 뒤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전달을 승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 의원 쪽은 돈을 받았다는 명목과 장소, 시간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br/><br/> 임시국회는 오는 23일까지다.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을 위한 두 차례 본회의 일정이 잡힐 경우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정치권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무기명 투표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체포동의 요구서를 내준 판사의 시각과 정치인은 다르다.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정치권의 시각은 이번엔 좀 다르다. 티케이(TK, 대구·경북) 쪽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라면 몰라도 최 의원을 옹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심지어 예상보다 반대표가 많이 나온다면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몰아가려는 “<span class='quot1'>민주당의 역공작을 의심해야 할 정도</span>”로 분위기는 냉랭한 편이라고 한다. <br/><br/>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친박 맏형이자 이 의원을 측근으로 두고 있는 서청원 의원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아직은 할 일 많아서 또 출마한다고 전해라”라며 트로트 ‘백세인생’을 즐겨 불렀던 서 의원에게도 정치인생의 겨울이 오고 있다. 이 의원은 12일 검찰 출석을 거부하며 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br/><br/> ■ 자기정치 “누님에서 형님으로 갈아탔다.”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 적이 있다는 얘기가 번지면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윤상현 의원은 한때 친박의 새로운 실세가 되는 듯했다. 박근혜 정부 첫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여야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다. 그의 출판기념회에 사람이 몰리며 국회 경내 교통을 마비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친박에서 친홍으로 갈아탔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span class='quot2'>이제는 누님 대신 형님을 부르고 다닌다더라</span>”며 여의도의 염량세태를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 이후 지역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집중할 뿐 당내 민감 현안에는 침묵하고 있다. 홍 대표가 ‘박근혜 출당’을 결정했을 때 김태흠·이장우 의원 등 19대 국회 ‘충청 친박 초선 돌격대’가 잠시나마 반발할 때조차도 윤 의원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총선에서 “김무성 죽여버려”란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천 배제됐지만, 그간 갈고닦은 인천 남구을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해 48%가 넘는 득표율로 무난히 3선에 오른 그다. 당 관계자는 “윤상현은 지역을 열심히 파고 있다. 윤상현이 정치의 흐름을 잘 본 것”이라고 했다. “<span class='quot3'>이런 때일수록 여의도를 떠나 지역구로 돌아가서, 지역을 보고 정치를 해야 오래간다는 것을 생리적으로 아는 사람</span>”이라는 것이다. <br/><br/>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 사람은 한선교 의원이다. 그게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친홍으로 갈아탔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홍 대표가 원내대표(2008년) 시절 원내부대표를 맡았었다”며 원래부터 친분이 있다고 했다. <br/><br/> 당내에서는 “윤상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초선의 민경욱 의원도 친박에서 친홍으로 갈아탄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재선의 김태흠·이장우 의원 등도 거론된다. 이들은 친홍으로 갈아타는 대신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친박으로 뭉쳤던 이들과의 도의적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본다. 당 최고위원인 김태흠 의원은 공개회의 자리에서 ‘홍준표 사당화’ 논란 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친박으로 불리는 것에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당 관계자는 “의원총회 등에서 ‘샤우팅’이 센 사람들은 여전히 친박 관계망에 있다. 그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br/><br/> ■ 좀비친박, 친박영생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대권을 향하고 있는데 무슨 계파냐. 친박은 모두 물러나고 나도 당직 근처에 얼쩡거리지 않겠다.” 2011년 12월 최경환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친박 해체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친박 해체를 선언한 지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또다시 친박 해체를 선언한다. “앞으로 당은 친박, 비박으로 패거리를 지어선 안 된다. 계파가 있으면 해체해야 한다. 이건 친박 해체 선언이라고 해도 좋다.” 친박 패권 공천 후폭풍으로 4·13 총선에서 패한 직후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패배 충격에 “<span class='quot4'>사실은 제가 친박을 만든 적은 없다</span>”고 발을 뺐다. <br/><br/> 친박 스스로 계파 해체나 2선 후퇴를 선언한 뒤 다시 살아난 것만 따져도 다섯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박근혜’ 이름 석 자가 사라진 뒤 친박의 생존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홍준표 대표는 “<span class='quot5'>친박 계파 수장이 출당됐는데 어떻게 계파가 있을 수 있느냐</span>”고 했다. 친박 중진들도 “대통령도 계시지 않는다. 친박 활동에 앞장서고,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다”며 “자유한국당에 친박이라는 것은 없다”고 한다. <br/><br/> 다만 극소수는 ‘좀비 친박’이 됐다. 대통령 탄핵 사태의 핵심 조연인 최순실씨의 태블릿피시 조작을 여전히 주장하는 김진태·박대출 의원 등이다. 김진태 의원은 자유한국당 태블릿피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의 팀장이다. 대구 친박의 계보를 잇는 듯했던 조원진 의원은 ‘박근혜 무죄’를 신봉하는 대한애국당 대표다. 대한애국당은 각종 공식 입장을 낼 때 “거대한 정권 찬탈 음모”를 주장하는데,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씨’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부른다. ‘박근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매주 토요일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하며 태극기를 흔든다. <br/><br/> 친박의 후기지수는 없다. “친노든 친이든 친박이든 한 번 힘을 가졌던 권력이 지고 나면 다음 세력이 오게 돼 있다. 대통령까지 사라진 친박이 다시 권력을 잡을 일은 없다. 한식이냐 청명이냐, 시기의 차이일 뿐 자동 사망한다. 그게 권력의 생리다.”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거친 나이가 지긋한 당료는 권력의 사망진단서를 본 게 여러 번이라 했다.<br/><br/> 김남일 기자 namfic

언론사: 한겨레-1-23.txt

제목: “이주노동자의 부정적 한국 경험 언젠가 부메랑 될 수도”  
날짜: 20171212  
기자: 전종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2191855001  
ID: 01101001.20171212191855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짬】 마석공단 이주노동자의 벗 이정호 신부<br/><br/> <br/><br/> <br/><br/> <br/><br/> 1990년 6월 이제 갓 성공회 사제 서품을 받은 이정호(60) 신부가 경기 남양주시 마치고개를 넘어 마석에 들어설 때만 해도 그곳은 한센인의 땅이었다. 이 사회에서 소외받은 병자와 가족들이 모여 마을을 이뤄 돼지와 닭을 키우며 살았다. 언제부터인가 동남아시아계 외국인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 신부가 “누구냐”고 묻자 “돈 벌러 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양계장을 빌려 기계를 들여놓고 가구를 만드는 공장의 노동자들이었다. 이렇게 소외된 이들 옆에 차별받는 이들이 터를 잡았다.<br/><br/> <br/><br/> 환란이 닥치던 1998년 즈음 마석가구공단의 이주노동자는 2000여명에 달했다. 고용허가제 이전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되던 시절, 이들은 대부분 미등록이었다. 국가는 비자 없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못박는다. 당시만 해도 한국인 사장이 이주노동자를 때리고 욕하고 임금을 떼어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공단에서 폭력을 말리고 떼인 임금을 받아주는 건 이 신부의 일이었다. 강제단속에 걸려 아이만 공단에 홀로 두고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일시보호 해제를 이끌어내는 것도 이 신부가 관장을 맡고 있는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가 할 일이었다.<br/><br/> 지난 27년 동안 공단에서 이 신부는 ‘이주노동자의 벗’이자 보호자, 질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8일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식에서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다. 이 신부는 12일 전화 인터뷰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제이기 때문에 한 일이다. 곤하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좌절하고 쥐어터지는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게 예수의 가르침이다”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주민’이란 표현이 없다. 이번 기회에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한 축으로 인식되고 마석을 비롯한 여러 곳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br/><br/> <br/><br/> <br/><br/> 성공회 사제 서품 뒤 27년 한길 처음 마석 찾을 땐 ‘한센인 땅’ 사장 폭력 말리고 임금 받아주고 공단서 이주민 보호·관리자 노릇<br/><br/> <br/><br/> “<span class='quot0'>이주민, 한국사회 한 축 인정을</span>” 8일 인권상시상식 국민훈장 받아<br/><br/> <br/><br/> <br/><br/><br/><br/> <br/><br/> 그동안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 와서 커피 한잔 마시며 노동의 고단함을 털어놓거나 아픈 동료의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하며 해결책을 찾은 이들은 줄잡아 수천명에 이른다. 24년 동안 공단에서 일하고도 체류권조차 얻지 못하고 2015년 고향 필리핀 민도로섬으로 돌아간 로저는 센터와 함께 필리핀 공동체를 관리했다. 서울 망우동 산부인과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부모 사이에 태어나 국적 취득은 꿈도 꾸지 못하고 2013년 부모 나라인 방글라데시로 떠난 ‘무국적 소녀’ 마히아는 센터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출신이다.<br/><br/> 이 신부는 성공회 소속이면서도 무슬림이 다수인 공단에서 종교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어울렸다. 방글라데시 출신 자카리아가 난치병에 걸려 숨졌을 때는 이슬람 성직자인 이맘과 함께 그의 장례를 치르고 기도했다. 공단의 형광등 제조공장에서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는 일을 하다 말기 암에 걸린 네팔 출신 노동자이자 불교신자인 람이 가톨릭 세례를 요구할 때는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세례명을 주었다. 이 신부는 “<span class='quot1'>그렇게 27년을 사목해도 (이슬람을 믿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지 못했다</span>”며 웃었다. 그는 “이슬람 신자인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 하지 않았다. 공존이라는 상생의 의미로 종교가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br/><br/> 이 신부는 이주노동자 200만 시대,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이 나라의 이주민 정책이 좀더 포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선진국처럼 한국에 별 탈 없이 오랫동안 머문 이들에게 체류권을 주는 방안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귀환한 노동자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을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아파요. ‘한국에서 장애를 얻었다, 전세금 떼이고 아직 못 받았다, 퇴직금 못 받았다’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는 “초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한국엔 이주민이 필요하다”며 “나중에 (선배 이주민의 경험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한국을 찾을 사람들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br/><br/> 이 신부는 내년 1월9일 방글라데시에 간다. 2년째 진행되는 ‘청소년, 다문화에 말을 걸다’ 프로그램을 위해서다. 청소년 25명을 포함한 40여명과 함께 공단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루하종, 문시간지를 찾아 교류 활동을 하고 쓰레기통 배분 사업을 한다. 방글라데시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곳이다. 이번에 훈장과 함께 받은 상금 200만원으로 빈민층에게 도시락을 나눠 주기로 한 것도 그의 가슴을 벌써 들뜨게 한다.<br/><br/> 그는 얼마 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너희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마라. 너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을 네 나라 네 사람처럼 대접하고 네 몸처럼 아껴라.”(레위 19:33-34절)<br/><br/> 전종휘 기자 symbio

언론사: 한겨레-1-24.txt

제목: 윤종광 민노총 전북본부장 별세  
날짜: 20171211  
기자: 박임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1220838001  
ID: 01101001.20171211220838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노동자 세상을 꿈꾸며 일생을 노조 활동에 투신한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10일 오후 10시48분 암 투병 중 별세했다. 향년 57.<br/><br/> 고인은 1987년 현대차노조 결성 발기인 참여를 계기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현대중공업 연대투쟁과 파업 등을 주도했다. 그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수석부본부장, 제10·11대 본부장을 지내며, 노동 차별 철폐와 조합원 단합에 힘썼다. 2014년에는 버스회사 노동자의 삭발과 단식투쟁을 벌여 사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br/><br/> 그는 지난해 촛불집회 도중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장례식은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으로 치른다.<br/><br/> 유족으로는 부인 서승미씨와 아들 민규, 딸 혜영·가람씨가 있다. 빈소는 전북대병원, 발인은 13일 오전 7시30분이다. (063)256-5000.<br/><br/> 박임근 기자

언론사: 한겨레-1-25.txt

제목: 문답으로 본 ‘의사들의 문재인케어 반대’  
날짜: 2017121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1162923001  
ID: 01101001.2017121116292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 10일 서울 도심에서 의사들이 4년 만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집회를 만들었고, 이 협의회가 주최해 경찰 추산 1만명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높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기존 건강보험 진료에 대해 병원이 받는 진료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고, 앞으로 병원비 부담이 더 낮아지면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의사들이 내놓은 주장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한다. <br/><br/> <br/><br/> <br/><br/> 건보 재정파탄?내년 2조 덜 지원 우려 키워 <br/><br/> 의사들 ‘비싼 밥그릇 지키기’?선진국 공공의료 비중 90% 넘어 <br/><br/> 대형병원으로 환자 몰릴것?의료전달체계 망가져 개선 시급<br/><br/> <br/><br/> <br/><br/> 문 : 의사들은 현재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하는 등 ‘저수가’라고 주장하는데?<br/><br/> 답 : 의료공급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예를 들어 일반적인 진찰이나 검사, 치료 등을 하는데 1만원을 투입했다면, 건강보험에서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6천~8천원 가량을 돌려 준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나온 자료를 봐도 고가의 영상비나 특정 시술은 원가에 견줘 진료비 보상이 크지만, 일반적인 진료나 수술, 검사 등은 병원 규모에 따라 70~90% 가량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1일 열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span class='quot0'>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span>”이라고 밝혔다. 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건강보험 적용 진료가 원가에 못 미친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br/><br/> <br/><br/> 문 :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진료비 보상이라면 의사들은 그동안 어떻게 높은 수입을 받으면서도 병·의원을 운영해 왔나? <br/><br/> 답 : 환자들이 100%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이 바로 그 이유다. 1977년 당시 의료보험(현재는 건강보험)이 탄생할 당시에도 10가지 항목에 대한 비급여가 인정됐다. 비급여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쓰였는지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심사 등을 통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비급여 가격은 의료공급자가 정할 수 있다. <br/><br/> 의료 공급자들은 사실상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에서 손해가 나는 부분을 비급여 진료로 메꾸도록 인정해왔다고 주장한다. 미용이나 성형 분야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됐다면 비급여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로 만들어와야 했던 정부로서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해소나 문재인 정부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놓을 때, 그동안 비급여를 방치해 온 정부의 잘못을 먼저 인정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가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비급여 진료 행위는 3800 항목에 이른다. <br/><br/> <br/><br/> 문 : 의사들의 주장에 쉽사리 동의하기가 어렵고 ‘밥그릇 지키기’로 보이는 데에는 의사들의 높은 수입이다. 환자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수익 앞에서는 흔들렸던 것이 사실 아닌가?<br/><br/> 답 : 의사들에게 높은 전문가 윤리가 요구되는 것도 올바른 지적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병의원을 경영하는 입장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10%를 넘지 않는다. 의사들은 대부분 의과대학을 다닐 적에도 높은 등록금을 내고 다녔고, 병의원을 개설할 때에도 자신들의 자본을 들였다. 그러면서 병원 경영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진료 행위를 늘리면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이다보니, 의사들이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 더 많이 환자 진료를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는 이른바 의료복지 선진국이라 꼽히는 스웨덴, 영국 등에서 공공의료가 90% 넘는 것과 대비된다. 참고로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30%는 된다. 공공의료 확충이 절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br/><br/> 의사의 적정 수입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논란이 있고, 나라마다 의사의 수입이 차지하는 위치가 제각각이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등과 같은데에서 논의해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br/><br/> <br/><br/> 문 : 저수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인식하면서 해결책을 찾겠다는데, 의사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왜 ‘사회주의 의료’라고 주장하는가? <br/><br/> 답 : 우선 저수가에 대해 얼만큼 보상해 줄 지에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당국의 심사라는 과정이 개입된다. 비급여일 때에는 환자의 재정적 부담만 크기 않다면 의사가 판단해 치료를 할 수 있었다. 물론 건강보험 당국의 심사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급여화되면 심사를 통해 적정한 진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삭감이 이뤄진다. 의사들 즉 전문가로서 판단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제한을 가하는 것을 사회주의 의료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평가를 통해 삭감이 이뤄지는 것은 미국 등 의료보험을 가진 어느 나라나 다 있는 일이다. 다만 건강보험 당국의 심사가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 즉 환자의 상태나 합병증, 질병의 위중도 등이 다른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br/><br/> ‘사회주의 의료’라는 주장에는 다른 요소가 들어 있기도 하다. 의사협회는 내년 초에 의협회장 선거를 치룬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명한 구호 등이 힘을 얻기 마련이며, 역대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이는 증명된 바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는 어느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요구하던 바이며, 당장 보수 정권이라고 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보장성 확대 정책이 시행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칫 선명한 구호 탓에 국민들에게 더 멀어지는 의사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br/><br/> <br/><br/> 문 : 병원비 부담이 줄다 보면 병원 문턱이 낮아져 3차 대형병원을 가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 의사들이 문제 삼는 것이 합리적인가?<br/><br/> 답 : 의료 분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거의 망가져 있다고 진단한다. 암 등 중병일 때 대형병원에서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단순 감기·고혈압·당뇨 등과 같은 질환은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체계는 가벼운 질환이라도 대형병원을 찾는다. 그동안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대형병원에 가면 진료비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 이 방법은 통하지 않게 됐다. 의사들이 지적하는 대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시급한 과제다. <br/><br/> <br/><br/> 문 :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더 투입하겠다고 한 정부가 내년에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돈마저 2조2000억원 넘게 덜 지원했는데,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다는 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지 않나?<br/><br/> 답 :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이 큰 빌미를 준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안을 짜면서 법에서 정한 국고 지원 비율인 14%를 지키지 않은 채 내년에 2조원 가량을 덜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2200억원을 더 깎았다. 참고로 이전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직접 발표한 정책에 대해 첫해부터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사들은 물론 국민들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에 명심해야 한다. <br/><br/> <br/><br/> 문 : 정부가 의료계와 협상을 진행하지도 않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지도 않는다는데?<br/><br/> 답 : 지난 10일 의사들의 집회가 열리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span class='quot1'>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하겠다</span>”는 입장을 냈다. 또 앞서 지난 1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밝힌 것처럼 “<span class='quot2'>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span>”며 “<span class='quot2'>국민 건강을 위한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 제도 전체를 바꾸는 정책이라는 데에는 의사들도 반대하지 않는다.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고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도 11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정부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26.txt

제목: 7년 만에 돌아온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날짜: 20171211  
기자: 김효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1121832001  
ID: 01101001.20171211121832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엠비시 뉴스 이용맙니다.”<br/><br/> 7년 만이었다.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 7층 보도센터에서 이용마 기자가 마이크를 쥐고 문화방송 이엔지 카메라를 바라보며 바이라인(뉴스 리포트 끝에 붙이는 기자 이름)을 말했다. 보도국 구성원들이 마련한 환영 행사에서 복직 소감을 말한 뒤다.<br/><br/> “<span class='quot0'>드디어, 상암 엠비시에 복직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span>”(허일후 아나운서) 이날, 문화방송 사옥 앞 광장 곳곳에 재회와 기다림을 상징하는 노란 손수건이 나붙었다. 문화방송 구성원들이 5년6~10개월여 만에 출근하는 ‘복직자들’을 위해 준비했다. 오전 8시35분께 복직자들이 레드카펫을 밟고 문화방송 사옥 1층 로비로 들어서자 박수와 함성이 노란 꽃가루와 함께 사옥을 가득 채웠다. 구성원 600여명이 이들의 첫 출근길을 축하하러 모였다. 지난 7일 문화방송 새 사장으로 선임된 최승호 피디는 8일 먼저 첫 출근을 시작했지만, 다른 복직자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도 최 신임 사장이 제공한 회사 차량을 이용해 환영 행사에 참여했다.<br/><br/> 복직자들은 지난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170일 파업’ 과정에서 부당 해고된 언론인 6명이다. 2012년 파업 돌입 초반에 당시 노조 집행부로서 파업을 이끌었던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기술감독), 강지웅 전 노조 사무처장(피디),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기자), 기자들의 제작 거부를 이끌었던 박성호 전 문화방송 기자협회장(기자)이 먼저 해고됐다. 뒤이은 2012년 6월, 백종문 전 문화방송 부사장이 “이유 없이 해고했다”고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던 최승호 피디, 박성제 기자도 해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br/><br/> <br/><br/> <br/><br/> <br/><br/> 행사의 첫 순서는 ‘사원증’ 전달식. 해직자들은 그동안 문화방송 사옥에 들어가려면 ‘출입(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회용 ‘방문증’을 이용해야만 했는데, 이제 사원증을 출입증으로 사용하며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복직자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눈물을 참으려 애쓰거나, 구성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둘러봤다. 이들은 입을 모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문화방송 구성원과 국민께 감사하다”, “앞으로 문화방송 재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br/><br/> 오전 9시10분께 전체 구성원 환영 행사를 마친 이용마·박성제·박성호 기자는 보도국에서 따로 마련한 환영 행사에 참여했다. 이용마 기자는 보도국과 주조정실, 뉴스 스튜디오 등을 둘러보고 10시께 자택으로 돌아갔으며, 나머지 복직자들은 제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아래는 복직자들의 소감 전문이다.<br/><br/> 김효실 기자 trans

언론사: 한겨레-1-27.txt

제목: 20대 자궁암 검진율 3년 전보다 3배 증가…이유는?  
날짜: 2017121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1111856001  
ID: 01101001.2017121111185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올해 20대 여성 3명 가운데 1명 가량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수년 사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젊은 나이에서 자궁경부암 발생이 다소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암 검진 가운데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는 종류는 여전히 위암 검진이었다.<br/><br/> 11일 국립암센터가 우리나라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암검진 수검행태 조사’결과를 보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율은 2014년 12.8%에서 해마다 늘어나 2015년 15.5%, 2016년 29.7%에 이어 올해는 33%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암검진사업에서 기존에 30살 이상 여성에게 제공되던 자궁경부암 검진을 2015년부터 20대 의료급여수급자 여성에게, 지난해부터는 전체 20대 여성에게 확대해 제공한 데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최근 자궁경부암 발생률은 40살 이상 여성들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20~30대 여성들에거서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율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등 서양 국가들과 일본에서도 자궁경부암검진을 20대부터 받도록 권고하거나 국가검진으로 제공하고 있다. <br/><br/> 이번 조사 결과 또 올해 암 검진 권고 대상 가운데 검진을 받은 비율은 65.1%로, 조사가 시작된 2004년에 견줘 26.3%포인트 늘었다. 암 종류별로 보면 위암이 7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궁경부암(66.8%), 유방암(63.6%), 대장암(56.8%) 순이었다. 암 검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국가암검진을 받은 경우는 올해 55.7%로 2004년에 견줘 38%포인트 늘었다. 암 종류별 국가암검진 비율은 위암이 6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방암(57.9%), 자궁경부암(57.1%), 대장암(47%) 순이었다. <br/><br/> 암 검진을 받게 된 주요 동기로는‘공단 또는 보건소의 검진 통보를 받고’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암검진 통보서가 국민들이 주기적으로 암검진을 받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0~10점 척도로 스스로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 ‘건강하기 때문에’가 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시간이 없어서’는 5.8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는 5.1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55%p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28.txt

제목: 408일을 했는데…다시, 갈 곳은 하늘밖에 없었다  
날짜: 2017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10094900001  
ID: 01101001.20171210094900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 다시 고공이 솟았습니다. 2년4개월 전 408일 굴뚝농성을 끝낸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들입니다. 파인텍으로 고용승계 된 지 2년이 못 돼 그들이 다시 굴뚝에 올랐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하늘 동료를 지키며 땅에서 하늘을 살았던 두 남자가 그 하늘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굴뚝 위에서 국내 최장기 고공농성을 했던 남자가 이젠 땅에서 두 동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돌아갈 곳이 없었고, 더 내려갈 곳도 없었으며, 다만 올라갈 곳만 남아 있었습니다. ‘408일+○○일째’ 계속되고 있는 그들의 굴뚝 이야기를 전합니다. <br/><br/> 하늘 75m 고공에서 두 남자가 어른거렸다.<br/><br/> 땅 차광호(47)와 조정기(35)가 물건들을 챙겼다. 12월6일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서울에너지공단) 옆 천막 안에서 추위가 펄펄 끓었다. 바닥 군데군데에 핫팩을 놓고 이불을 덮은 ‘핫팩 보일러’는 치밀어 오르는 냉기를 이기지 못했다. <br/><br/> “<span class='quot0'>이건 굴뚝 연기 막는 방진 마스크, 이건 소음 차단하는 귀마개, 이건 얼굴과 몸 닦는 물티슈, 이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배터리….</span>”<br/><br/> 오전 10시30분 김옥배(39)가 식당에서 사온 갈비탕을 들고 천막 안으로 들어왔다. 김옥배와 조정기가 갈비탕을 가방에 넣는 동안 차광호가 천막 구석에서 노끈 두 다발을 꺼냈다. 오전 10시35분. 차광호가 가방을 들고 발전소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어준 경찰(공단의 시설보호 요청)이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했다.<br/><br/> <br/><br/> 2년4개월 만에 다시 오른 굴뚝<br/><br/> 하늘 녹색 가방이 밧줄에 묶여 내려왔다. 맑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홍기탁(44·전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장)과 박준호(44·사무장)가 작은 점처럼 흐렸다. 11월12일 새벽 그들은 사다리를 타고 발전소 굴뚝에 올랐다. 굴뚝을 사선으로 휘감으며 허리께까지 두 사람을 안내한 사다리는 몸을 직선으로 펴 그들을 꼭대기로 올려 보냈다. 주위 굴뚝에서 빠져나온 하얀 연기 기둥이 바람에 쪼개져 산개했다. 굴뚝 5기 중 연기가 오르지 않은 한 굴뚝에 그들이 있었다. 서울에너지공단은 11월20일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으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br/><br/> 땅 차광호가 가방을 받았다. 전날 저녁 식사로 올린 가방에서 밧줄을 풀어 이날 아침 겸 점심 식사를 담은 가방에 묶었다. 차광호가 챙겨 온 노끈을 가방 한쪽에 연결했다. 홍기탁·박준호가 밧줄을 끌어당겼다. 한 끼를 지켜줄 밥과 물이 밧줄에 매달려 허공에 떴다. 차광호가 노끈을 당겨 가방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밧줄을 긴장시켰다. 굴뚝 중간에 설치된 도르래가 가시처럼 튀어나와 가방의 오르내림을 방해했다. 가방의 귀환을 도우려던 노끈마저 도르래에 걸려 공중에서 맴을 돌았다.<br/><br/> 하늘 차광호가 408일(2014년 5월27일~2015년 7월8일) 동안 45m 굴뚝에 매달려 있을 때 땅에서 그의 하늘을 지켜준 홍기탁과 박준호가 2년4개월 뒤 그 하늘에 올랐다. 차광호(당시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대표)가 땅으로 내려오며 합의했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자 그를 땅으로 내리기 위해 땅에서 하늘을 살았던 두 사람이 ‘하늘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다.<br/><br/> “<span class='quot0'>흔들리고 부식돼서 위험했던 스타케미칼 굴뚝보다 난간은 튼튼한데, 난간에서 굴뚝 내경(가스·연기 배출 통로)까지가 60~70㎝ 정도밖에 안 된다.</span>”<br/><br/> 차광호가 땅을 밟은 날 박준호는 그의 하늘 살림을 내리러 스타케미칼 굴뚝(통로 1m)에 올랐었다. 목동 굴뚝의 통로 너비 60~70㎝는 1인용 텐트도 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아슬아슬했다. 두꺼운 천을 두르고 비닐을 씌워 바람만 막은 ‘방’에서 그는 전화로 말했다.<br/><br/> “아래가 더 힘들 것이다.”<br/><br/> <br/><br/>11월12일 파인텍지회 홍기탁·박준호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농성 차광호의 408일 고공 지켜낸 그들 2년4개월 만에 “합의 지켜라” 농성 하늘·땅 역할 바꿔 차광호가 굴뚝지기<br/><br/> <br/><br/> 스타케미칼 11명 파인텍 고용승계 뒤 사쪽 ‘가동 당월 단협 체결’ 미이행 지난 8월 기계 철수하며 회사 증발 평생 폐업 겪으며 하늘로 몰린 그들 남은 5명 “굴뚝밖에 달리 방법 없다”<br/><br/><br/><br/> 땅 홍기탁과 박준호가 올려주는 밥으로 408일(국내 최장기 고공농성)을 견딘 차광호가 2년4개월 뒤 두 사람의 하늘을 지키며 25일째(12월6일 시점) 그들의 밥을 올렸다. 그는 굴뚝에서 내려온 직후 “누구든 하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도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장기 기록을 깨며 성과를 내는 건 성과가 아니다. 그렇게 만드는 희망은 희망도 아니다.”<br/><br/> 하늘과 땅의 역할이 역전될 수밖에 없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차광호가 말했다.<br/><br/> “왜 안 말렸겠나.”<br/><br/> 한국합섬 2공장이 1995년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영업을 개시(1공장은 1989년)했다. 그해 8월 서울에서 일하던 차광호가 고향으로 내려와 한국합섬 노동자가 됐다. 경북 상주에서 온 홍기탁이 입사동기가 됐다. 박준호(경북 예천)는 3조3교대가 4조3교대로 바뀐 2003년 입사했다. 2006년 3월 기계를 멈춘 한국합섬이 이듬해 5월 파산했다. 2005년 말 860여명이던 조합원 중 차광호·홍기탁 등 3명(조합원 자격은 108명이 유지)이 끝까지 남아 빈 공장을 지켰다. 2010년 7월 스타플렉스(스타케미칼 모기업)가 산업은행(주채권은행)과 합의해 옛 한국합섬을 인수했다. 스타케미칼(폴리에스테르 원사 제조)로 이름을 바꾼 공장이 2011년 4월 5년 만에 재가동(고용승계와 신규채용 합쳐 직원 230여명)했다. 공장 인수 1년8개월 만인 2013년 1월 시무식에서 김세권 사장이 회사 청산을 언급(1월23일 법인 해산)했다. 사쪽은 적자 누적을 이유로 댔고, 노동자들은 ‘먹튀’ 의혹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스타케미칼지회는 회사 청산에 반대하는 차광호 지회장을 불신임(1월3일)·제명(2월19일)했다.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28명이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대표 차광호)를 결성했다. 스타케미칼 노사가 공장에서 철수(2014년 5월26일)한 다음날 차광호는 “<span class='quot1'>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span>” 공장 안 45m 굴뚝에 올랐다. 공장엔 11명이 남아 있었다.<br/><br/> <br/><br/> 파기된 약속<br/><br/> 하늘 “그때나 지금이나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br/><br/> 구미 하늘에 있을 때 차광호가 했던 말을 박준호가 목동 하늘에서 했다. 목동은 스타케미칼과 파인텍의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있는 도시였다. <br/><br/> 차광호 착륙 하루 전 작성된 합의서는 고용 보장,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2016년 1월 내 단협 체결 완료), 생계 및 생활 보장을 약속했다. 고용은 구미가 아닌 “평택 지역 이하”에 신설법인을 세워 승계하기로 했다. 강민표 당시 스타케미칼 전무(현 파인텍 대표)는 “<span class='quot2'>노조 때문에 모기업까지 망하면 어떡하냐</span>”(2015년 3월 인터뷰)며 ‘스타플렉스로의 고용은 절대 불가’ 입장이었다. “<span class='quot0'>그들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운동만 하려는 사람</span>”이라고도 했다(2017년 12월6일 인터뷰에선 “<span class='quot0'>당시 신설법인을 통한 고용은 해고자들의 요구</span>” 주장). <br/><br/> 2016년 1월 충남 아산에서 파인텍(타폴린 생산)이 가동됐다. 직원은 해고자복직투쟁위 노동자 11명뿐이었다. 구미에 가족을 두고 갈 수 없는 3명이 ‘아산행’을 포기했다. 합의서에 명시된 임금은 ‘최저임금(6030원)+1천원’이었다. 하루 8시간 근무 외에 야근이나 잔업은 주어지지 않았다.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떼면 월 실수령액이 120여만원이었다. “<span class='quot0'>우리를 고립시키고 스스로 지쳐 떠나게 하려는 것</span>”(박준호)이라고 노동자들은 판단(사쪽 “<span class='quot0'>동일 업종 공장에 비해 직원들 생산성이 떨어졌다</span>”)했다.<br/><br/> 2016년 1월 안에 완료하기로 했던 단협(노조활동과 복지가 쟁점)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4월 18차례를 끝으로 교섭이 중단됐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2016년 10월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2017년 1월 1명, 2월 1명, 5월 1명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구미로 내려갔다. 5명만 남았다.<br/><br/> 8월30일 회사가 공장에서 기계를 들어냈다. 건물 임대기간은 연장하지 않았고, 건물주는 새 사업체를 입주시켰다.<br/><br/> 땅 한국합섬은 파산했다. 구미 스타케미칼 공장은 철거(차광호가 농성한 굴뚝도 해체)됐다. 파인텍 공장도 사라졌다. 두차례 공장 폐업과 한차례 증발을 겪는 동안 차광호·홍기탁·박준호는 20대 청춘에서 40대 중년이 됐다. 한국합섬 가동 중단 이후 11년 동안 그들이 일한 기간은 2년6개월뿐이었다. 그들에겐 돌아갈 곳이 없었고, 더 내려갈 곳도 없었으며, 다만 올라갈 곳만 남아 있었다.<br/><br/> 5명 중 2명(홍기탁·박준호)은 하늘 사람이 됐고, 1명(차광호)은 전국을 다니며 연대를 호소했다. 1명(김옥배)은 매일 밤 문화제마다 사회를 봤고, 1명은 음향부터 나머지 모든 일을 처리했다. “여기보다 땅이 더 걱정”(박준호)이라며 굴뚝 위가 굴뚝 아래를 보며 애태웠다.<br/><br/> 굴뚝농성 시작 16일째 날(11월27일) 차광호의 장모가 세상을 떠났다. 장모의 암은 그가 굴뚝에 있을 때 발견됐다. 사경을 헤매는 장모에게 그의 아내는 “남편이 외국으로 장기출장을 갔다”고 했다. 2015년 3월엔 그의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부러진 갈비뼈가 내장을 찔러 어머니는 장출혈을 일으켰다. “<span class='quot0'>부모가 다 죽어가는데 뭐 하고 있냐</span>”며 굴뚝으로 전화한 아버지가 호통쳤다. 2년 뒤 새로 솟은 굴뚝은 장모의 빈소에까지 드리웠다. 장모의 삼우제를 지낸 다음날 그는 굴뚝 밑으로 복귀했다.<br/><br/> 하늘 홍기탁과 박준호는 좁은 통로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제자리 뛰기와 푸시업을 했다. 운동을 마치면 물티슈로 땀을 닦고 땅에서 올려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차광호의 조언을 따라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 “<span class='quot0'>시간표를 짜서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무너진다</span>”고 ‘굴뚝 선배’ 차광호는 하늘에 당부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들은 “아직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br/><br/> “내 인생이고 내 삶이니까. 공장이 사라지는 일을 되풀이해 겪다 보니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바꾸지 않으면 계속 똑같이 살게 된다는 것을 안 이상 예전처럼 살 순 없다.”(박준호)<br/><br/> 땅 고공농성 이후 교섭은 열리지 않았다. 지회의 우선 요구사항은 차광호 농성 해제 때 합의한 ‘3승계’(고용·노조·단협) 이행과 공장 정상화였다. 회사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br/><br/> “단협을 체결하기로 하고 안 했다는 건데, 5명 회사에서 스타케미칼 수준의 단협을 요구(차광호 “교섭 당시 인원인 8명 수준으로 축소해서 제시”)한다. 적자가 계속 나는데 언제까지 평생직장을 보장해줘야 하나. 폐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걸 빌미로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 못하고 있다.”(강민표 파인텍 대표)<br/><br/> <br/><br/> “408일+○○일째”<br/><br/> 정치 고공농성 시작 5일 뒤 고용노동부에서 민주노총에 연락해 농성 이유와 상황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노정 협의체(양대 노총 각각 고용노동부와 별도 테이블)가 가동(7월)됐다. 민주노총의 경우 전국 100여개 사업장이 논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땐 없던 움직임이다. 10차례 회의가 열렸고 12월15일 11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 파인텍 고공농성을 의제로 올릴 계획(이승철 조직쟁의실장)이다.<br/><br/> 지난 두 정부는 고공농성을 방치했다. ‘노사관계’란 논리 뒤에 숨어 사실상 고사시켰다. 사용자의 불법을 처벌하라며 하늘에 올라도 농성의 대가(사법처리)는 노동자에게 집중됐다. 유사 이래 한국에서 벌어진 200일 이상 초장기 고공농성 7건은 모두 이명박(2건)·박근혜(5건) 정부에서 벌어진 ‘현상’이었다. 차광호의 408일 기록도 이 시기에 쓰였다. 파인텍 고공은 문재인 정부에서 솟아 한달(12월11일)을 채우고 있다.<br/><br/> “파인텍은 갈등이 오래된 사업장이라 고용노동지청(천안) 차원에서도 살펴보고 있다.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용노동부)<br/><br/> 하늘과 땅 “갔다 올게요.” <br/><br/> 굴뚝에서 내린 빈 그릇과 옷을 들고 김옥배와 조정기가 ‘꿀잠’(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으로 향했다. 비정규노동자 쉼터에서 그들은 설거지와 빨래를 하고 얼굴을 씻었다.<br/><br/> “<span class='quot0'>오늘(12월6일)은 25일째가 아니라 433일째.</span>”<br/><br/> 차광호가 날수를 세었다. 408일 고공농성을 했던 그때처럼 기계가 멈췄고, 그때처럼 공장이 없어졌고, 그때처럼 그들은 단협 체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평온해 보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굴뚝에서 박준호(12월5일 통화)가 말했다.<br/><br/> “<span class='quot0'>저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네.</span>”<br/><br/> 이문영 기자 moon0

언론사: 한겨레-1-29.txt

제목: 정두언 “홍준표 천박해…과분한 자리 앉아 신나 있어”  
날짜: 20171208  
기자: 이승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08115903002  
ID: 01101001.20171208115903002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계속되는 강경 발언에 대해 “<span class='quot0'>과분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신이 난 것이다</span>”고 8일 꼬집었다. <br/><br/> 정 전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막말이) 사실이다. 그런데 본인은 신났다. 뭐 한마디 하면 바로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며 이같이 말했다. <br/><br/> 그는 홍준표 대표가 당내 ‘친박계’를 겨냥해 ‘암덩어리’등의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습관이고 의도를 했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 자기 자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최근 홍준표 대표가 “다음 원내대표가 뽑히면 원내 일은 내가 관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자기가 대표가 되면 원내대표랑 잘 협의를 해서 당을 잘 이끌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지 그전에 원내대표가 내 말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되면 내 말 잘 듣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되게 천박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br/><br/> 정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구도에 대해서도 “원내대표라고 나온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 다들 마뜩잖기 때문에 예측 자체를 하기 싫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냉소했다. 특히 “친박이 없어졌다”고 하는 친박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 노릇 하면서 온갖 추태를 다 보이다가 이제는 다른 소리 하고…그런 사람들이 대표라고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br/><br/> 한편 그는 최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견 논쟁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스스로 커서 지도자가 되려는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면서도 “안희정 지사한테 충고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아직도 내공이 부족하더라. 콘텐츠가 없다.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br/><br/> 이승준 기자 gamja

언론사: 한겨레-1-30.txt

제목: [12월9일~10일 본방사수] 다람쥐의 귀여움에 빠져보자  
날짜: 20171208  
기자: 남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08115902001  
ID: 01101001.20171208115902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판타지 드라마 같은 ‘다람쥐 다큐’<br/><br/> 에스비에스 스페셜(에스비에스 일 아침 11시5분) ‘판타지 다큐 드라마-더(The) 람쥐’ 편. 다람쥐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다. 제작진은 “한국에서 다람쥐가 주인공인 다큐는 처음”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동물 다큐멘터리가 동물의 행동과 생활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면, ‘더 람쥐’는 영상에 이야기를 입혀 드라마적으로 재구성했다. 거대한 숲을 배경으로 다람쥐가 겪는 모험과 생존 경쟁 등 다양한 상황을 다람쥐의 시선으로 그린다. 1초에 180프레임을 찍을 수 있는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해 고화질이다. 도토리를 먹는 다람쥐의 치명적인 귀여움이 잘 담겼다. 제작진이 방송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영상을 올렸더니 하루 만에 댓글이 200개나 달렸단다.<br/><br/> <br/><br/>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다<br/><br/> 세계의 명화-허(Her)(교육방송 토 밤 10시55분) 손편지를 대필하는 일을 하는 테오도르(호아킨 피닉스)가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스칼릿 조핸슨)를 사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아내와 별거 중이고, 편지로 심금을 울리며 호평도 받지만 삶이 공허하다. 사만다와 여행도 가고, 음악도 들으며 외로움을 달랜다. 그러나 사만다가 수백명의 사람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는다. 2013년 미국 개봉작.<br/><br/> <br/><br/> 그 시절 관객 울린 정윤희 신파극<br/><br/> 한국 영화 특선-사랑하는 사람아(교육방송 일 밤 10시55분) 전형적인 신파극으로 1981년 개봉 당시 관객들이 너무 울어 화제가 됐다. 사랑하는 남자 강세준(한진희)과 헤어진 서영주(정윤희)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 세준의 부모(김진규, 사미자)는 며느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영주한테 아이를 달라고 요구한다. 영주는 장래를 생각해 아이를 세준한테 보내고 괴로워한다. ‘똑순이’ 김민희가 세준의 아이로 나온다.<br/><br/> <br/><br/> ‘말기암 엄마와 가족의 이별’ 리메이크 <br/><br/>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티브이엔 토 밤 9시) 1996년 방영한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를 21년 만에 리메이크한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온 중년 부인이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치매 시어머니, 남편, 두 자녀와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다. 가족이란 늘 함께라는 생각에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도 한다. ‘엄마의 병’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곱씹게 한다. 원미경, 김영옥, 최지우, 최민호 출연. 노희경 작가가 각색했다.<br/><br/> <br/><br/> 한샘 성폭력 사건의 진실<br/><br/> 그것이 알고 싶다(에스비에스 토 밤 11시15분) 일명 ‘한샘 성폭행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다. 지난 10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김지영(가명)씨의 글은 단숨에 화제가 됐다. 세번에 걸쳐 동료와 상사에 의한 성폭력을 겪었다는 것이다.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는데 누군가는 ‘꽃뱀’이라고 비난도 한다. 진실은 무엇일까. 사건을 추적하고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에 와 있는지, 성폭력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br/><br/> <br/><br/> ‘블랙’ 최종회, 저승사자는 어떻게 되나<br/><br/> 블랙(오시엔 일 밤 10시20분) 마지막 회. 20년 전 추악한 악행을 저지른 국회의원 김영석(이두일)을 잡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테이프는 어디에 있는 걸까. 형사 한무강의 몸을 빌린 저승사자 블랙(송승헌)의 정체는 무엇일까. 강하람(고아라)을 사랑하게 된 블랙은 어떻게 되는 걸까. 1회부터 궁금증을 증폭했던 퍼즐의 조각이 완성된다. <블랙>은 10월14일 시작해 세월호와 유병언은 살아 있다는 설정 등 현실을 접목한 내용으로 화제를 모았다. <br/><br/> 남지은 기자 myviollet

언론사: 한겨레-1-31.txt

제목: 삼성이 ‘가습기 살균제’ 파헤친 교수를 비판하고 나선 이유  
날짜: 20171207  
기자: 이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07165901001  
ID: 01101001.2017120716590100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삼성, 감광액 실험한 백도명 교수 실명 반박“<span class='quot0'>백 교수가 발암물질 검출 재검증을 거절</span>” <br/><br/> 법원은 삼성전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span class='quot1'>실험과정 등 잘못 있다고 볼 근거 없어</span>”<br/><br/> 노동부 보고서도 삼성 주장과 다른 결론 내놔“<span class='quot2'>삼성은 내부 문제 노출 않으려는 문화 강해</span>” <br/><br/> <br/><br/> 글로벌 거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산업보건학계에서 첫 손에 꼽히는 서울대의 한 노교수를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br/><br/>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누리집 ‘삼성 뉴스룸’에 <한겨레 ‘감광액 누출 ‘제2 황유미’ 만드나…’ 기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겨레>가 지난달 27일 보도한 <반도체 백혈병 논란 10년…끊이지 않는 ‘1급 발암물질’ 감광액 유출> 기사에 반박하는 내용입니다.<br/><br/> 삼성전자는 “<span class='quot3'>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린다</span>”며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09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감광액에서 벤젠을 검출한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한겨레>가 이를 인용한 것에 대해 “<span class='quot3'>당시 연구를 이끌었던 백도명 교수는 (재검증을) 거절했으며, 2012년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백 교수에게 감광액 분석결과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요청했으나 백 교수 쪽은 ‘자료가 없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span>”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감광액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 등이 검출되는 등 반도체 작업장 내 화학물질이 여전히 작업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기사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밖에도 △감광액은 중대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점 △감광액 유리병은 전용 플라스틱 케이스로 보호한다는 점 △근로자들이 화학물질 정보를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라인에 비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br/><br/> 삼성전자가 한 대학교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반박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백도명 교수는 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 및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을 지냈고, 최근에는 정부가 꾸린 폐손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폐를 손상한다는 인과관계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 확인한 바 있는 연구자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뒤 영국 런던대학에서 석사,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딴 백도명 교수는 국내 산업보건학계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권위자입니다. <br/><br/> 이런 백 교수 쪽 연구결과를 삼성전자가 극구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뒤집어보면 삼성전자 역시 권위자의 연구를 통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죠. <br/><br/> 반올림 활동가인 임자운 변호사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뒤 생긴 희귀질병에 대한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황상기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미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4년 8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엔 이렇게 나왔습니다. <br/><br/> “<span class='quot4'>피고(근로복지공단)는 삼성전자에서 사용한 감광액에 벤젠이 포함되어 있다는 서울대 보고서는 실험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삼성전자에 감광액을 공급한 업체들이 분석한 결과 및 삼성전자에서 감광액을 제공하여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분석한 결과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분석한 시료가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실험과정 등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span>”<br/><br/> 즉 앞서 삼성전자가 뉴스룸에 밝힌 “<span class='quot3'>감광액이 위험하다는 증거로 이 조사(서울대)를 인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span>”라는 주장은 법원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임자운 변호사는 “이 판결 이후 삼성이나 근로복지공단 모두 이 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다시 뉴스룸에 저런 글을 올리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br/><br/> 백도명 교수는 삼성전자가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 교수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벤젠의 검출량이 높다, 낮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유해물질이 과거에 사업장에 있을 수 있는데도 그동안 한번도 조사를 안했으니 해보라는 의미였다. 경각심을 주려는 것인데 삼성전자는 반박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br/><br/> 또 삼성전자는 뉴스룸에서 ‘감광액은 중대 유해물질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제조사로부터 (위험한) 규제물질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보증서를 받고 있으며, 자체 성분검사를 해서 중대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사용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를 시행중이라며 자신했습니다.<br/><br/> 이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엔지니어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감광액은 감광제를 용매인 솔벤트에 녹인 물질이다. (현재) 규제되고 있는 것은 단일 솔벤트에 대한 것이고, 감광액에 따라 2개 이상의 솔벤트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함께 사용할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광액 생산업체들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물질들을 넣고 있는데, 정작 회사는 안전하다고 장담만 하면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6년에 낸 <전자제품 제조업 안전보건 실무 길잡이>에도 감광액 취급과정에서 벤젠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br/><br/> 삼성전자의 주요 반박 가운데 또 하나는 “작업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작업자들은 안전 문제가 있거나 우려될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r/><br/>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지난해까지 삼성 반도체에서 일한 한 노동자에게 물었습니다. “라인에서 일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고 위에다 문제제기한 적은 없습니까?” 그는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감광액 등) 냄새가 심하다고 간부들에게 이야기하면, 간부들은 웃으면서 문제제기하는 것을 회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단체생활이니까, 남들은 다 들어가서 일하는데 ‘너는 왜 안해’ 라고 찍힐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그룹 차원에서 전근대적인 무노조 원칙을 지킨다며 노동조합을 만드려는 노동자들을 회사 간부들이 납치하다시피 끌고다니며 회유한 사실이 여러차례에 걸쳐 드러났고 현재 사원 다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도 없는 삼성전자가 하는 얘기치곤 궁색해 보입니다. <br/><br/> 고용노동부가 2013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진단한 <안전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사의 안전보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으며, 외부 지적에 대해 상당히 방어적이고 내부의 문제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강함. 근본적으로 개선과 발전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삼성전자가 2017년에 내놓은 반박글의 태도와 내용을 보면, 2013년 고용노동부 보고서의 진단에서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닐까요. <br/><br/> 삼성전자는 마지막으로 “<span class='quot3'>국내외의 기존 연구결과는 반도체 생산현장과 암 사망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span>”며 “<span class='quot3'>반도체 산업에 대한 근거없는 불안감 조장에 유감을 표한다</span>”고 글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직업환경전문의)는 “<span class='quot5'>기본적으로 어떤 연구도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span>”고 말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연관성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호도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삼성전자 외에 에스케이(SK)하이닉스나 엘지(LG)디스플레이 등 다른 기업들이 작업장에서 일하다 희귀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에게 지원과 보상을 하는 것도 ‘연관성’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br/><br/> 삼성전자는 자사를 비판하는 기사에 억지 논리로 반박을 하기보단, 작업 현장과 학계의 목소리, 그리고 여전히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차디찬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에 좀더 신경을 쓰는 게 나을 듯합니다. 세계 정상의 대기업이 하는 제대로 된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란 그런 게 아닐까요? <br/><br/> 이완 기자 wani

언론사: 한겨레-1-32.txt

제목: 러시아 도핑 스캔들을 밝혀낸 두 남자의 기막힌 이야기  
날짜: 2017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07160854001  
ID: 01101001.20171207160854001  
카테고리: 국제>러시아  
본문: 다큐멘터리 감독 브라이언 포겔은 몇년 전까지 그저 자전거를 잘 타고 싶었던 아마추어 사이클링 선수였다. 삼각형의 조그만 의자에 앉아 허벅지를 고문하기를 즐기는 대부분의 사이클리스트처럼, 암을 이겨내고 정상의 자리를 다시 차지한 랜스 암스트롱이 그의 영웅이었다. 그러나 그의 영웅은 2013년에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았다.<br/><br/> 2010년을 전후해 세계 사이클링계는 도핑 폭로의 폭풍에 휩싸였다. 암스트롱의 주변 동료였던 플로이드 랜디스 등이 암스트롱의 약물 복용 혐의를 폭로하면서부터다. 암스트롱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2012년 미국 반도핑기구(U.S. Anti-Doping Agency)는 투르 드 프랑스에서 7번이나 우승한 암스트롱의 도핑 사실을 적발해 발표했다. 그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던 암스트롱은 2013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던 브라이언 포겔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br/><br/> <br/><br/> “<span class='quot0'>랜스 암스트롱이 그동안 500번이 넘는 약물 검사에서 걸리지 않았다면 , 이건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 .</span>” <br/><br/> <br/> <br/><br/> ■ 다큐멘터리 감독이 러시아의 과학자를 섭외하다<br/><br/> <br/><br/> 포겔은 이후 자신의 몸을 이용해 이 시스템의 결함을 직접 증명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과학자의 가이드에 따라 자신의 몸에 약물을 주입하고 프랑스 알프스를 넘는 세계 최고 난도의 아마추어 사이클링 대회 〈오트 루트〉에서 높은 성적을 올려 이를 증명하기로 한다. 포겔은 이를 위해 먼저 2014년 〈오트 루트〉 알프스 대회에 약물을 주입하지 않은 상태로 출전해 14위를 기록했다. 이후 그는 UCLA 올림픽연구소의 창립자인 돈 캐틀린에게 ‘약물 검사에 걸리지 않는 도핑 프로그램’의 설계를 부탁한다. 포겔은 이 과정을 모두 영상 기록으로 남겼다.<br/><br/> 그러나 돈 캐틀린은 “몇 년간 쌓아온 내 명성을 해칠 수 있다”며 “참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통보한다. 제안을 거절한 캐틀린은 대신 “자신의 오랜 친구”라며 모스크바 올림픽연구소의 소장인 그리고리 롯첸코프를 소개한다. 러시아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몰아낸 주역 롯첸코프와 그 조연인 포겔 감독의 만남이 성사되는 순간이다.<br/><br/> <br/><br/> ■ 러시아 도핑 스캔들의 서막이 오르다<br/><br/> <br/><br/> 포겔은 미국 현지 의사의 협조를 얻어 롯첸코프가 모스크바에서 스카이프(인터넷 화상통화)를 통해 지시한 ‘프로그램’에 맞추어 착실하게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을 자신의 허벅지에 주사하기 시작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포겔은 “<span class='quot1'>소치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약물 검사를 담당했던 세계반도핑기구(WADA) 인증 모스크바연구소의 소장이 왜 이걸 수락했는지 모르겠다</span>”고 생각했다. 그가 생각하기엔 약물 남용을 막아야 할 방패가 자신의 제안에 응한 게 이상했을 터였다.<br/><br/> 그러나 롯첸코프는 그냥 과학자가 아니라 도핑 검사를 뚫는 세계 최고의 ‘창’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두 사람이 정답게 ‘랜스 암스트롱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 하며 테스토스테론을 주사하는 동안 독일의 지역 공영방송 컨소시엄인 ARD 방송국에서 러시아의 내부 고발자들을 취재원으로 롯첸코프의 주도 하에 러시아의 육상선수 대부분이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도록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러시아 도핑 스캔들의 본격적인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다.<br/><br/> <br/><br/> 올림픽 등을 위시한 세계 스포츠의 비리 방지 기구, 그중에서도 도핑 방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에 세계반도핑기구(WADA, World Anti Doping Agency)의 인증을 받은 도핑방지 연구소 등을 세우고 유지한다. 한국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있고 러시아에는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있다. 롯첸코프는 이 기구 산하 모스크바연구소의 소장이어서 세계반도핑기구에서 롯첸코프의 비리를 인정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 의혹이 터졌을 때 당시 세계반도핑기구의 위원장인 크레이그 리디(Craig Reedie)가 “<span class='quot2'>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span>”고 방어적 태도를 보인 이유 중 하나다.<br/><br/> 러시아 도핑 스캔들이 터지고 나자 포겔과 롯첸코프 두 사람이 진행하던 실험은 물론 세계 스포츠의 운명도 바뀌기 시작했다. 테스토스테론을 맞고 아마추어 사이클링 대회에 ‘합법적’으로 참가하기 위해 러시아와 미국을 오가며 근육의 힘을 측정하고 소변 검사를 진행하던 이 둘의 ‘작은 실험’은 점차 차선으로 밀렸다. 포겔이 첫해에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14위를 차지했던 〈오트 루트〉에서 오히려 한참 떨어진 순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이제 그리 중요한 게 아니게 됐다.<br/><br/> 대회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9월, 독일 ARD의 탐사 보도에서 제기된 혐의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했던 세계반도핑기구가 위임한 독립위원회 조사 결과, 롯첸코프가 있는 모스크바연구소 내에서 샘플이 폐기되고 도핑 검사 은폐를 위한 자금 지원의 흔적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독립위원회는 첫 조사 발표에서 “<span class='quot3'>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모스크바연구소장이 폐기한 1400개의 샘플</span>”이라며 “<span class='quot3'>그의 직위를 해제하고 러시아의 출전을 금지하기를 권고한다</span>”며 롯첸코프를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br/><br/> <br/><br/> ■ 러시아 정부가 꼬리를 자르려 하다<br/><br/> <br/><br/> 2015년 9월이면 2016년 리우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있던 상황. 러시아 정부와 당시 러시아 체육장관이던 비탈리 뭇코(현 부총리)는 조직적인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꼬리 자르기에 좋은 방향으로 상황을 몰아간다. 나중에 확인된 포겔의 다큐멘터리에서 궁지에 몰린 롯첸코프는 이 당시 자신의 목에 손을 긋는 제스처를 하며 이렇게 말한다.<br/><br/> <br/><br/> “<span class='quot0'>만약 내가 숙청당하면 러시아는 올림픽에 출전할 거예요 .</span>”<br/><br/> <br/> <br/><br/> 롯첸코프에게 있어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흘렀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은 2015년 11월 “<span class='quot4'>리우올림픽을 비롯한 모든 국제 육상경기에 러시아 육상연맹의 출전을 금지한다</span>”고 발표한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span class='quot5'>내부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5'><span class='quot5'>잘못을 저지른 개인</span>에게 확실히 책임을 물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부총리인 비탈리 뭇코 당시 체육장관 역시 수뇌부가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span class='quot5'>잘못을 저지른 개인</span>”과 ‘수뇌부 연루 부정’. 여러 정황상 러시아 정부가 롯첸코프라는 꼬리를 잘라서 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모습이 뚜렷했다. 포겔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 이때 롯첸코프는 자신과 당시 가장 친한 미국인 친구 포겔에게 말한다.<br/><br/> <br/><br/> “여기서 탈출해야겠어요 .”<br/><br/> <br/> <br/><br/> 2016년 5월 12일 <뉴욕타임스>는 ‘국가가 주도한 도핑이 러시아 금메달의 원천이었다고 내부자는 말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개한다.<br/><br/> 뉴욕타임스가 말한 ‘내부자’는 물론 롯첸코프였다. 해당 기사에서 그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금지약물 3가지를 섞은 칵테일 등을 최소 15명의 메달리스트를 포함한 선수들에게 제공했으며, 도핑 검사를 통과하도록 채취한 이들의 소변을 깨끗한 소변으로 바꾸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소변 샘플을 바꾸는데 러시아의 정보기구인 러시아연방보안국(FSB, 과거 ‘KGB’) 요원이 관여했으며, 자신이 약물 검사를 피하도록 도와준 15명 가운데 소치올림픽 봅슬레이에서 두 개의 메달을 딴 알렉산드르 줍코프,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알렉산드르 렉코프,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딴 알렉산드르 트레치야코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br/><br/> 이 기사에서 그는 흡수도를 높이고 검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남성 선수에겐 시바스 위스키에 타서, 여성 선수에겐 마티니 베르무스에 타서 제공했다며 자세한 방법까지 밝혔다. <가디언> 보도를 보면, 이 기사에 언급된 선수들은 러시아의 TV 방송에서 “말도 안 된다”며 “모략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혹은 적어도 진실에 더 가까운지는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롯첸코프가 “자신이 살기 위해 폭로한 비윤리적 가담자”라는 비판은 타당하다. 그러나 IOC와 미국 측은 그가 가담자이긴 하지만 ‘내부 고발자’이며 그가 밝힌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매우 중요한 증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br/><br/> <br/><br/> ■ 꼬리가 미국으로 망명하다<br/><br/> <br/><br/> 롯첸코프의 폭로 뒤에는 포겔이 있었다, 그는 롯첸코프의 망명 과정을 주도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가 국무부와 협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뉴욕타임스>에 자신의 존재를 공개해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협조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남겼는데, 최초의 기획대로라면 랜스 암스트롱의 시나리오대로 약물을 주사한 아마추어 사이클링 선수의 약물 체험기 정도로 끝났을 다큐멘터리 〈이카로스〉는 이제는 러시아의 도핑 스캔들을 파헤친 가장 심도 있는 작품 중 하나가 됐다. 2017년 선댄스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영화 〈이카로스〉는 특별상인 ‘오웰 어워드’와 첫 관객상을 받으며 넷플릭스에 500만 달러(약 50억원)에 팔렸다.<br/><br/>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7개월 동안 해당 사안을 조사해 지난 12월 2일 이사회 보고서를 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출전을 금지하는 징계를 확정 발표했다. 그리고리 롯첸코프는 모스크바 바스마니 법원이 2016년 1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 조정 기간을 거쳐 현재는 미국 법무부의 증인보호프로그램에 따라 은신 중이다.<br/><br/> 그는 은신 중인 지난달에도 <뉴욕타임스>를 통해 비탈리 뭇코 부총리와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적은 자신의 일기를 발표한 바 있다. IOC가 러시아의 출장 금지를 발표한 날 롯첸코프는 자신의 변호인 짐 월든을 통해 “<span class='quot6'>(롯첸코프가) 푸틴 정부가 자신과 가족들에 대해 보복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span>”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br/><br/> <br/><br/> 아래는 넷플릭스의 〈이카로스〉 예고편 영상.<br/><br/> <br/><br/> <br/><br/> <br/><br/> 박세회 기자 sehoi.park

언론사: 한겨레-1-33.txt

제목: [김종구 칼럼] ‘이용마법’ 제정과 암과의 싸움  
날짜: 20171206  
기자: 김종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06185855001  
ID: 01101001.20171206185855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김종구편집인<br/><br/> <br/><br/> 지난 1일 저녁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리영희상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상의 수상자는 <문화방송> 이용마 해직기자다. 복막암으로 투병 중인 그는 휠체어를 타고 시상식장에 나왔다. 부인, 쌍둥이 아들과 함께 시상식 연단에 오른 그는 수상 소감을 이어가다 말미에 이르러 “이제…”라고 말을 꺼내더니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span class='quot0'>생명의 불꽃이 조금씩 소진되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span>” 일순간 시상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찬비가 훑고 지나갔다.<br/><br/> 시상식을 지켜보면서 조급증이 밀려왔다. 그의 복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게 식장에 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이 기자를 비롯한 문화방송 해직 언론인 6명이 8일자로 모두 복직하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이 엊그제 전해졌다. 복직 조처가 이 기자의 생명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br/><br/> 그가 제안한 ‘국민대리인단 제도’를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안은 시상식 사전행사로 열린 방송사 노조 관계자들의 토크쇼 주제였다. 이 제안은 그가 병마와 싸우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화두의 결과물이다. 생명의 불꽃을 태우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 그의 혼이 느껴진다.<br/><br/> 이른바 ‘이용마법’의 제정 필요성은 최근 진행돼온 방송사 사장 선임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욱 절실히 다가온다. 요즘 언론계 사람들끼리 만나 방송사 사장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늘 ‘청와대의 의중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간다. 언론계 사람뿐 아니다. 어떤 지인은 며칠 전에 전화를 걸어 “<span class='quot1'>문화방송 사장으로 청와대가 점찍은 사람이 누군가요?</span>”라고 물었다. <와이티엔> 사장 선임 때도 그랬고, 이번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을 지켜봐도 청와대가 관여한 흔적은 전혀 없다. 이런 모습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별로 믿으려 하지 않는다. 방송사만이 아니다. 국가 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차기 사장 문제를 놓고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사전 내정설, 이사장과 사장의 동반자설 등 벌써부터 온갖 설이 난무한다.<br/><br/> 문화방송 전임 사장의 축출과 새로운 사장의 선출이라는 ‘응급조처’는 온당하고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운명을 응급조처로만 연명해나갈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튼튼한 건강 체질로 바꾸지 않으면 병통은 언제든지 재발한다.<br/><br/> 문화방송 사장을 추천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옛 여권 추천 이사 두 명이 사퇴한 뒤 자유한국당은 ‘보궐승계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이사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신들이 한 짓은 까맣게 잊은 억지의 극치였다. 하지만 새 여권이 이사 추천권을 가져야 할 정당성을 ‘과거 선례’에서 찾는 것을 보는 심정도 결코 편치 않았다. 영국 공영방송 <비비시>(BBC)의 경우 사장을 임명하는 ‘비비시 트러스트’ 위원 전원을 문화부 장관이 추천해 총리를 거쳐 왕이 임명하지만 정파성 시비가 없다. 오랜 기간 쌓인 관행과 문화가 올바로 정립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잘못된 관행과 문화가 더욱 굳어지는 느낌이다. 제도의 일대 혁신이 없이는 이 지긋지긋한 사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br/><br/> 이용마 기자가 제안한 ‘국민대리인단 제도’를 시행하려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 기본 정신을 살려 우리 현실에 적합한 안을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이 기자의 제안과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최선의 해법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느냐다.<br/><br/> 이용마 기자는 자연치료로 암과 싸워오다 최근 들어 항암제 치료를 시작했다. “더 늦기 전에 마지막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고요.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니까 운명을 하늘의 뜻에 맡기고, 또 운명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겸손함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가 수상 소감에서 끝맺은 말이다. 그가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이라는 고질적 암을 영원히 퇴치하기 위한 제도 혁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은 암과 처절한 혈투를 벌이는 이용마 기자를 향해 우리 사회가 보내는 최고의 응원이 아닐까 한다. <br/><br/> kjg

언론사: 한겨레-1-34.txt

제목: “개헌 반대” “대구 출마” 내걸고…홍준표 ‘보수재건’ 가능할까  
날짜: 20171206  
기자: 성한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06155905001  
ID: 01101001.20171206155905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지금부터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 공방이 한창일 때 홍준표 대표는 경남지사였습니다. 당시에는 경남지사가 보수세력을 대표해 구원투수로 나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당내 경선을 거쳐 5·9 대선에 출마했고 24%를 득표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7·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자로 복귀해 지금 자유한국당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br/> 홍준표 대표는 예순세번째 생일인 12월5일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0'>모든 환경이 최악인 조건에서 보수우파의 재건 여부는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열성에 달려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오로지 새로운 자유한국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span>”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이날 관훈클럽에서 토론도 했습니다. 기조 발언에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br/><br/> <br/><br/> “저는 우리 보수우파가 그동안의 과오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과감한 인적 혁신과 파격적인 정책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br/><br/>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보수우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역사적 책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 전심을 다 하겠습니다.”<br/><br/> <br/><br/> 혁신을 통해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이자 소망이라는 얘깁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소망대로 자유 한국당을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보수 정치를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보수 정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br/><br/> 하지만 저는 보수재건을 내세운 홍준표 대표의 최근 판단과 행보에서 두 가지 이상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개헌 반대입니다. 둘째는 대구 출마입니다.<br/><br/> 개헌 반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외교·안보·통일은 대통령이, 경제 등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 “개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면 안 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5일 관훈토론회에서 이 문제로 패널들과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br/><br/> <br/><br/> -대선 당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에는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왜 연기하려는 것인가.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br/><br/> =지난 대선 당시 우리는 대선 기획단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약속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개헌은 선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87년 체제 30년 만에 나라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헌법은 권력구조에 국한하지 말고 기본권 조항, 헌법 전문을 포함해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헌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30년 동안 나라를 운영했으니 앞으로 30년을 보고 만드는 게 옳지 않겠나. 지방선거에 곁다리 붙이는 곁다리 국민투표는 적절하지 못하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개헌하면 된다. 어차피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br/><br/> -2020년 20대 총선 때 같이 하는 방안도 가능한가.<br/><br/> =선거에 붙여서 개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개헌 국민투표는 국민이 열의가 있다. 70~80% 투표할 것이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축소하자고 하니까 국민이 동의한다. 그런데 축소한 권한이 어디로 가느냐. 국회로 간다.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있느냐. 지금 아마 최저일 것이다. 국회의원들한테 대한민국 권력의 절반을 주자고 하면 국민이 선뜻 동의하겠나. 분권형 대통령제라 말하면 찬성하지만,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갖는다는 것에 대해 조사해 본 일이 있나.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서두르는 것은 자기들이 권력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기본권, 지방자치, 통일 이후 상원 하원으로 나누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해야 한다. 양원제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30년을 내다보고 개헌의 틀을 짜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권한 많이 가지려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밀고 있는 것 아닌가. 종합 판단을 해야지.<br/><br/> -홍준표 대표가 선호하는 권력구조는?<br/><br/> =나는 의견이 없다. 국회의원이 아니다.<br/><br/> -제1야당 대표로서 성의가 없는 답변이다.<br/><br/> <br/><br/> 어떻습니까? 패널로부터 성의 없는 답변이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개헌에 대한 대답을 이리저리 피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자’는 말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에게 홍준표 대표가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span class='quot1'>개헌 국민투표로 투표율이 올라가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불리하기 때문</span>”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br/><br/> 홍준표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단체장을 하는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북 등 다섯 곳과 자신이 지사를 했던 경남까지 모두 여섯 곳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처지입니다. 최소한 여섯 곳을 방어하지 못하면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습니다.<br/><br/>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방선거 패배를 걱정해서 국가적 차원의 중대사인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br/><br/> <조선일보>가 10월12일 “洪 대표 ‘국민투표 지방선거 이후로’ 改憲 말자는 건가”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습니다.<br/><br/> <br/><br/>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때 홍 대표를 포함한 여야 후보 모두가 공약했던 내용이다.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도 믿고 있는 국민으로선 의아할 수밖에 없다. 홍 대표는 ‘개헌이 대선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 대사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 5월 대선 때 동시 투표하자고 요구했었다. 모순이다.<br/><br/> 지난 10여 년 동안 개헌의 당위성과 절박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던 것은 대선 때 공약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블랙홀’이니 뭐니 하면서 피해 갔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모든 대통령의 독주와 말년 불행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6월 개헌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야당 대표가 반대하니 어찌 된 일인가. 홍 대표 말대로 개헌과 지방선거를 섞어 놓으면 민심이 왜곡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헌은 선거 유불리 차원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한국당은 선거에서 불리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는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은 형식적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는 세력에 맞서야 할 때다.<br/><br/> 자유한국당은 원내(院內) 개헌 저지 의석(100석)을 넘는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다. 개헌 논의를 피하는 게 아니라 주도해야 한다. 불과 몇 개월 전에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방선거에 불리할지도 모른다고 말을 뒤집는다면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나.”<br/><br/> <br/><br/> 그렇습니다. 개헌은 선거 유불리 차원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보수층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막무가내로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세력 다수가 홍준표 대표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그보다도 보수세력 다수의 여론을 외면하고 개헌에 반대하는 홍준표 대표가 과연 보수세력 재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br/><br/> 두 번째 이상한 대목은 홍준표 대표가 다음 총선에 대구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1월30일 <영남일보> 지방선거 아카데미 특강에서 자신이 과거 대구 국회의원과 대구시장을 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사연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br/><br/> <br/><br/> “내가 대구에서 신천초등학교 다니고 신암초등학교 다니고 영남중고등학교 다니고 초중고학교를 다 대구에서 다녔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 정치 마지막은 대구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 대구에 당협위원장 자리가 2개 비어 있다. 달서병, 북을이 비었는데 둘 중 하나 연말에 조직개편 할 때 내가 당협위원장을 신청할 것이다. 이번에는 김상훈 위원장이 잘 봐준다고 하니까 막는 사람이 없지 않겠나.”<br/><br/>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섯 군데 다녔다. 1년에 한 번씩 초등학교를 옮기는 바람에 초등학교 친구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친구뿐인데 내 친구는 전부 대구에 다 있다.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다. 청년검사에서 나이 41세에 국회의원 되어 정치판에 들어간 이래에 이제는 마지막은 대구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br/><br/> <br/><br/> 참 솔직하고 당당한 발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마지막에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데 뭐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br/><br/>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정치인 개인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대표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를 보면 자유한국당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큰 격차로 밀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구·경북이 격차가 적은 편입니다.<br/><br/> 이대로 가면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에서만 의석을 갖는 대구·경북 지역당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처지의 정당에서 대표가 가장 유리한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당 대표가 외연확장을 외면하고 겨우 고향에서 국회의원 한번 더 하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br/><br/>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개헌 반대는 보수세력 전체나 자유한국당에 명분이 없습니다. 정치인 홍준표 개인의 대표직 보존용으로 읽힐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대구 출마도 홍준표 개인이 고향에서 안전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 이외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 없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br/><br/>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해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br/><br/> <br/><br/> “보수는 본래 국민화합과 통합에 앞장서는 합리적 보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지역에 기대고 권력을 누리는 쪽으로 갔다. 그 결과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약화되고, 따뜻한 보수는 점점 없어졌다. 대신 가진 자의 리그에 얹힌 웰빙 정당으로 바뀌었고, 때로는 사당화됐다. 보수가 살려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절 한번 하는 쇼가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새출발을 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지금 양태는 종잡을 수가 없다. 뭐가 변했고 뭐가 변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br/><br/> <br/><br/>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류석춘 교수는 대화방에 이런 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br/><br/> <br/><br/> “아마 저는 전사(戰死)하게 될 겁니다. 저는 살아남고 상대방은 다 섬멸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같이 죽어야 합니다. 같이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br/><br/> <br/><br/>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수재건은 두 사람의 표현대로 ‘종잡을 수’도 없고 ‘같이 죽을 각오’도 없는 것 같습니다.<br/><br/> 홍준표 대표의 이상한 행보가 더불어민주당에 반사이익을 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홍준표 대표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본래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었는데 대답이 하도 재미있어서 그대로 소개합니다.<br/><br/> <br/><br/> “일각에서는 ‘레드 홍’(홍준표 대표)이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이 지방선거 운동, 정당 지지율 관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여야 협조가 안 된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에는 도움이 안 된다.”<br/><br/> <br/><br/> 홍준표 대표 덕분에 여당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깁니다. 동시에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국정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br/><br/>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참 특이한 정치인입니다. 공격적 태도와 거친 언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12월5일 관훈토론회에서도 패널들이 태도와 언어의 품격을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반박했습니다. 품격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개로 비유한 것입니다.<br/><br/> 또 ‘특정 계파를 암 덩어리나 고름 덩어리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암 덩어리나 고름 덩어리는 보통명사다. 암 덩어리가 맞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나. ‘암 덩어리 님’이라고 하면 좋겠나”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독설가입니다.<br/><br/> <br/><br/> 지난 8월1일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칼럼에서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br/><br/> <br/><br/> “그의 이미지는 독불장군이었다. 혼자서 차(車) 치고 포(包) 치고 하는 식이었다. 이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국정의 파트너이며 견제 세력의 주자답게 행세했으면 한다. 막말은 듣기엔 시원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br/><br/> <br/><br/> 홍준표 대표는 곧바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br/><br/> <br/><br/> “저는 독고다이이지 독불장군은 아닙니다. 독불장군은 부하라도 있지만 저는 부하 한명 두지 않는 독고다이입니다. 이 나이 되도록 독고다이 정신으로 강인함이 없이 살았다면 저는 검사 때 이미 한국 사회에서 매장되었을 겁니다. 언제나 주변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고 결정하면 머뭇거림 없는 독고다이입니다.”<br/><br/> “한국 보수세력들의 특징인 가만히 있어도 알아주는 그런 가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견 품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박한 대중적인 언어구사와 행동이 점잖은 한국 보수세력들의 눈에 거슬릴지는 모르나 위선과 가식보다는 그것이 참된 국민과의 소통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br/><br/> <br/><br/>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반박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홍준표 대표는 정말 특이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좁지만 단단한 어깨에 우리나라 보수 세력과 보수 정당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홍준표식 보수재건’ 과연 성공할까요?<br/><br/> 성한용 선임기자 shy99

언론사: 한겨레-1-35.txt

제목: NXC, 제주 무료 호스피스 병원에 후원금 전달  
날짜: 20171206  
기자: 김재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06135853001  
ID: 01101001.20171206135853001  
카테고리: 지역>제주  
본문: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엔엑스씨(NXC· 대표 김정주)는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무료 호스피스 병원 ‘성 이시돌 복지의원’(원장 우정남 스바니야 수녀)에 후원 기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후원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br/><br/> 성 이시돌 복지의원은 아일랜드 출신의 성 맥그린치(한국명 임피제) 신부가 설립한 무료 호스피스 병원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임종기 노인과 치료를 포기한 무의탁 말기 암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다. ‘푸른 눈의 돼지 신부’라는 별명을 가진 임피제 신부는 1954년 제주에 정착해 목장을 일구면서 생활이 힘들었던 도민들에게 일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이시돌목장, 양로원, 신용협동조합, 가축은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br/><br/> 이재교 엔엑스씨 브랜드홍보본부장은 “<span class='quot0'>제주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서, 60여년간 혁신과 개척을 통해 제주에 이바지한 임피제 신부의 헌신에 동참하고자 후원을 결정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른 곳들의 추가 후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 김재섭 기자 jskim

언론사: 한겨레-1-36.txt

제목: ‘바나나 대학살’을 아시나요? 달콤함 뒤 씁쓸한 피의 역사  
날짜: 2017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05193846002  
ID: 01101001.20171205193846002  
카테고리: 국제>중남미  
본문: 1928년 12월6일, ‘바나나 대학살’이 일어나다<br/><br/> “피로 얼룩진 바나나의 역사”(켈시 티머먼). 바나나는 죄가 없다. 인간의 탐욕이 문제다. 중남미 역사의 끔찍한 세 장면.<br/><br/> ① 1928년 콜롬비아: 바나나 농장 노동자들(사진)이 처우 개선과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며 파업. 미국 회사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미군이 쳐들어갈 수도 있다”며 콜롬비아 정부를 압박했다. 12월6일 일요일, 광장에 모인 노동자 가족들을 향해 콜롬비아 군대가 기관총을 난사. 희생자 수는 아직도 논란. 미국 대사는 “1천명 넘게 죽었다”고 보고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백년 동안의 고독>에도 등장하는 ‘바나나 대학살’이다.<br/><br/> ② 1954년 과테말라: 합법적인 선거로 뽑힌 대통령 하코보 아르벤스가 농지개혁을 시도한다. 농장주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이런 개혁이 못마땅했다. 1954년에 과테말라 군부가 민주정부를 무너뜨린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원한 쿠데타였다.<br/><br/> ③ 1970년대 니카라과: 살충제 네마곤. 독성이 강하다며 미국은 1977년에 사용을 금지. 그런데 니카라과의 바나나 농장에서는 1993년까지 살포되었다. 불임과 암에 시달리던 니카라과 노동자들은 2002년부터 미국의 거대기업에 소송을 걸었다. ‘바나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 <br/><br/> 김태권 만화가

언론사: 한겨레-1-37.txt

제목: 40살 남성, 건강수명 68살까지…13년은 골골 앓다 떠난다  
날짜: 20171205  
기자: 정은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05185807001  
ID: 01101001.20171205185807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지난해 마흔살이 된 ㄱ씨(남성)는 80.4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27.5년(2016년 기준)밖에 남지 않았다. 나머지 12.9년은 병원을 들락거릴 가능성이 크다. ㄱ씨가 사망한다면 어떤 질환이 가장 위험할까? 2016년 현재 40살 남성의 사망 원인은 암(27.4%)과 심장질환(10.2%), 폐렴(8.4%), 뇌혈관질환(8.1%), 자살(2.8%) 등의 차례였다.<br/><br/>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수명은 한해 전보다 0.3년 길어진 82.4살로 추정됐다. 10년 전에 견주면 기대수명은 3.6년이 늘었다. 성별로 본 기대수명은 지난해 남성이 79.3살, 여성이 85.4살이었다. 남녀 격차는 1970년부터 벌어져 1985년 8.6년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5년 기준)보다 남성은 1.4년, 여성은 2.3년이 더 길다. 특히 여성은 일본과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오이시디 회원국 중 4위다.<br/><br/> 1970년부터 현재까지 고령층의 기대여명(특정 시점에서 앞으로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변화를 살펴보면, 65살 남성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1970년에 65살 남성은 75.2살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해 65살 남성은 83.4살까지 살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여명 증가 폭이 8.2년으로 같은 나이의 여성(7.7년)보다도 컸다.<br/><br/> 기대수명이 늘어난 데 견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 출생아의 유병기간은 2년 전보다 0.8년 길어진 17.4년, 건강기간은 0.3년 짧아진 64.9년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의 건강기간은 64.7년(기대수명의 81.6%), 여성은 65.2년(기대수명의 76.4%)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지난 2주간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느냐’고 질문해 유병기간을 파악한다.<br/><br/> 기존 출생자들이 살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도 늘어났다. 지난해 40살 남성의 기대여명은 40.4년, 여성은 46.2년으로 조사됐다. 50살 남성은 31.1년, 여성은 36.6년, 60살 남성은 22.5년, 여성은 27.2년 더 생존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보다 0.2~0.3년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이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40살은 27.7년, 50살은 18.9년, 60살은 11.4년 등이었다.<br/><br/>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span class='quot0'>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국민들이 병원에 내원하는 일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초고령층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기간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이 (유병기간 증가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span class='quot1'>사람들이 과거보다 오래 살기는 하지만 고혈압·당뇨·심장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사는 기간이 길어져 결국에는 노년층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는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각종 위험요인인 흡연, 고위험 음주, 잘못된 식습관, 운동하지 않음 등을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span>”고 설명했다.<br/><br/> 현재의 사망원인별 사망수준이 유지된다면 3대 사인(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의한 지난해 출생아의 사망 확률은 남성이 45.3%, 여성은 38.8%였다. 사망 확률이 가장 큰 사인은 여전히 암(남성 27.1%, 여성 16.4%)이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이 0.5%포인트 줄었고 여성이 1.2%포인트 늘었다. 만약 암이 정복된다면 2016년생 남성의 기대수명은 4.9년, 여성은 2.9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추정됐다.<br/><br/> 기존 출생자들은 40살 이후 나이가 많아질수록 암에 의한 사망 확률이 낮아졌다. 80살 남성은 20.7%, 여성은 11.4%로 40살보다 각각 6.7%포인트, 5%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심장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사망 확률이 증가했다. 특히 80살 여성의 사망 원인 1위는 심장질환(13.9%)이 암(11.4%)을 앞질렀다. 남성은 전 연령에서 뇌혈관질환보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더 높았다. <br/><br/> 정은주 김양중 기자 ejung

언론사: 한겨레-1-38.txt

제목: 21년만에 TV로 다시 만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날짜: 20171205  
기자: 남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05183813002  
ID: 01101001.20171205183813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정신 드실 때 혀라도 깨물어서 나 따라와. 애들이랑 아범 고생시키지 말고. 기다릴게.” 암에 걸린 며느리가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한테 건넨 이 말 한마디에 수많은 시청자가 눈물을 훔쳤다. 아들과 헤어지며 “정수야, 엄마 얼굴도 웃음도 다 잊어도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잊으면 안 된다”던 대화는 또 어떻고. 1996년 방영한 4부작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문화방송)은 모든 신이 명장면이자, 한마디 한마디가 명대사였다.<br/><br/>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그 드라마가 21년 만에 다시 찾아온다. <티브이엔>이 ‘리메이크 버전’을 9일부터 매주 토·일 밤 9시에 내보낸다. 원작을 쓴 노희경 작가가 직접 각색한 대본을 홍종찬 피디가 연출했다. 애초 <문화방송>에서 리메이크를 추진했는데, 파업으로 제작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티브이엔>에서 방영하게 됐다. 노희경 작가는 <티브이엔>을 통해 “이 작품이 방송된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 자체가 어머니인, 어머니만을 위한 드라마가 별로 없었다. 우리에게 부모는 삶의 좌표다. 그 좌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다”고 말했다.<br/><br/> <br/><br/> 드라마는 평생 가족 뒷바라지를 하며 살다가 말기 암 진단을 받은 인희가 치매 앓는 시어머니와 남편, 두 아이와 이별하는 과정을 그린다. 리메이크 버전은 이 구성은 고스란히 따르면서 21년 전과 달라진 여성상과 부모와의 친밀도 등을 반영했다. 노희경 작가는 “21년 전과 비교해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엄마와 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집중해 요즘 시대에 훨씬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원작에선 김영옥이 시어머니, 나문희가 며느리, 주현이 남편, 이민영과 이종수가 자녀로 나왔는데, 리메이크 버전에서는 원미경과 유동근, 최지우, 최민호가 출연한다. 김영옥은 리메이크 버전에서도 같은 역을 맡았다.<br/><br/>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드라마의 인기를 발판으로 2010년 연극, 2011년 영화로도 제작됐다. 2013년에는 극 중 대사가 고3 전국모의고사 독해 지문으로 출제되었는데, 절절한 대사에 문제를 풀다가 운 학생들이 많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케이블 드라마 피디는 “<span class='quot0'>노희경 작가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섬세한 표현은 엄마가 있는 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감성이어서 시대와 관계없이 통하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그러나 <사랑과 야망> <허준> 등 다시 만든 작품들이 원작보다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피디는 “<span class='quot0'>원작을 못 본 세대들한테는 신선한 작품이고, 본 이들한테는 향수를 자극할 수 있어 젊은층과 중장년층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지만 달라진 시대 분위기와 시청자의 정서를 얼마나 잘 반영했느냐가 관건</span>”이라고 말했다. <br/><br/>남지은 기자 myviollet

언론사: 한겨레-1-39.txt

제목: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뒤 전립선암 154%, 백혈병 54% 급증”  
날짜: 20171205  
기자: 송인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05175844001  
ID: 01101001.20171205175844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삼성 크레인선이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를 들이받아 비롯된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이후 충남 태안은 남성 전립선암과 여성 백혈병이 평균 발병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와 발병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br/><br/> 박명숙 태안군보건의료원 팀장은 충남연구원이 4일 연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10년 앞으로 과제’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팀장은 태안환경보건센터가 분석한 ‘태안지역 암 발생률 분석결과’를 통해 태안과 다른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표준화 발병률을 비교했다.<br/><br/> 태안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은 1999~2003년 10.7명, 2004~2008년 12.1명이었으나 사고 뒤 2009~2013년은 30.7명으로 1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7명, 19.0명, 26.5명이었다. 또 태안 여성의 백혈병 발생률은 1999~2003년 5.1명, 2004~2008년 5.6명이었으나 2009~2013년에는 8.6명으로 54%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은 3.9명, 4.0명, 4.1명이었다. 박 팀장은 “<span class='quot0'>원유 유출에 따른 건강영향 질환을 추적 조사하고 유전자 영향을 연구해 사고와 발병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환경보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장기 과제</span>”라고 밝혔다.<br/><b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류·유해물질연구실 임운혁 박사는 ‘해양오염 영향 조사’ 발표에서 “<span class='quot1'>조하대(간조에도 물에 잠겨있는 부분) 부유식물은 사고 1년 뒤, 바다 아래에 사는 저서생물은 4년 뒤 각각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span>”고 밝혔다. 임 박사는 “유출 유류가 해안에 집중돼 다양한 조간대 저서생물이 피해를 입었다. 조간대는 만조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공기에 드러나는 등 생물에 있어서는 혹독한 환경이다. 서식지 별로 회복하는데 차이는 있었으나 4년 뒤부터 회복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긴급해양오염영향조사의 법적 근거와 인프라 구축·사고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승일 충남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 사무처장은 “<span class='quot2'>무한책임주의에 입각한 환경책임법(가칭)을 제정해 유류오염피해 배상을 확대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br/><br/>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서해안 유류유출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가치와 교훈을 남겼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br/><br/> 한편 지난달 30일 현재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가 집계한 유류피해 배·보상 상황은 민사재판 기준으로 충남 99.92%(7만1506건 가운데 7만1451건), 전국 99.88%(12만7319건 가운데 12만7166건)가 완료됐다.<br/><br/> 송인걸 기자 igsong

언론사: 한겨레-1-40.txt

제목: ‘품격 논란’에 홍준표 “암덩어리를 ‘암덩어리님’이라 하면 되냐” 발끈  
날짜: 20171205  
기자: 정유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05162849002  
ID: 01101001.20171205162849002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사당화’ 반발이 거세지자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span class='quot0'>다음 원내대표가 되면 원내 일에도 관여하겠다</span>”고 침묵을 깼다. 이번 예산안 잠정 합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br/><br/> 홍 대표는 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예산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표결 전략을 묻는 질문에 “지금 원내대표는 제가 당대표가 되기 전 원내대표를 해, 기본 당론 정하는 외에 관여 안 했다. 이번 예산안에도 관여 않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또 “제가 원내 일 관여하면 그런 일(한국당 패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r/><br/> 그는 “탄핵당하고 대선 패배하고 내부 정비중이어서 연말까지는 당 내부 재건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 그 뒤에 직접 원내 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원내대표선거가 소위 ‘잔박’ 청산을 통한 당 내부정비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강경한 대여투쟁 방침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 대표는 서청원·최경원 제명 문제에 대해선 “의원들에게 동료 의원 제명 요구는 가혹하다. 서청원·최경환은 자연소멸절차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br/><br/> 홍 대표는 이후 원내 관여 방침에 대해 다시 기자들이 묻자 “<span class='quot0'>(원내대표와) 같이 하겠다는 뜻</span>”이라고 부연했고, 원내대표로 염두에 둔 인물이 따로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하면 싸움 난다”며 즉답을 피했다. <br/><br/> 한편 홍 대표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span class='quot0'>정부 여당이 ‘친북’ 말만 하면 알레르기를 보이면서, 이런 행태(국정원 개혁)를 하니 ‘주사파 정권’ 소리까지 나오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관련 질의 때도 “이게 새 정부 출범 뒤 금기사항이지만, 전대협 주사파들이 청와대 장악하고, 대통령 의사결정을 그분들이 거의 주도하지 않느냐?”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안 통치 시절 색깔론이라고 거꾸로 공격하는데 이해를 못하겠다”며 “자신없으면 전대협서 전향했고 친북좌파가 아니라고 선언하라”고 말했다. <br/><br/> 발언에 품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말을 해서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지적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암이 보통명사인데, 암덩어리를 뭐라고 표현해야 하냐. 암덩어리님이라고 하면 좋겠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검사 하고, (도)지사 2번에 대통령 후보까지 했는데 품격 운운은 어이가 없다. 흠잡을 게 없으니 품격까지 흠잡는다”며 “내 본질이 그것밖에 안 된다. 본질을 숨기면 죽을 때가 된 것인데,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br/><br/> 앞서 홍 대표는 원내대표선거를 앞두고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홍준표 사당화’ 등을 거론하자, 친박계를 겨냥해 ‘암덩어리’ ‘고름’ 등으로 비난하며 날카롭게 대립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친박계를 비롯해 중립지대를 표방한 의원들도 홍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 당 ‘내홍’ 우려가 커졌다. 이에 홍 대표는 지난 28일 이후 페이스북을 자제하며 한동안 원내대표 선거 등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꺼려 왔다.<br/><br/> 정유경 기자 edge

언론사: 한겨레-1-41.txt

제목: 석포제련소 주변에서 비소 먹는 신종 미생물 발견  
날짜: 20171205  
기자: 김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05120854002  
ID: 01101001.20171205120854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주변 퇴적토에서 중금속인 비소(As)를 산화시켜 독성을 낮춰주는 신종 미생물 7종이 발견됐다. 비소 산화능력이 발달된 이 신종 미생물들은 석포제련소 주변 중금속 오염의 살아있는 증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 3월부터 9개월 동안 경북 봉화군 낙동강 상류에서 비소를 산화시킬 수 있는 카에니모나스 속 균주 등 33종의 미생물을 찾아 유전자 분석과 비소 산화능력 실험을 실시해, 비소 산화능력이 뛰어난 신종 미생물 7종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카에니모나스 속 균주 SPR-03, 보세아 속 균주 SPR-06와 SPR-10, 로도슈도모나스 속 균주 SPR-07, 스핑고픽시스 속 균주 SPR-14, 폴라로모나스 속 균주 SPR-19, 마이코박테리움 속 균주 SPR-20으로 잠정 명명됐다. SPR은 석포제련소(Seokpo Refinery)의 약자로 이들이 발견된 지역을 의미하고, 뒤의 일련번호는 연구진이 발견 순서에 따라 임의로 붙인 것이다. <br/><br/> 비소는 간, 신장 등에 암을 유발하는 중금속으로 크게 3가 비소(As3+)와 5가 비소(As5+)로 나뉘는데, 3가 비소가 5가 비소에 비해 독성이 60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자원관 연구진이 1㎖ 당 1천만 마리의 농도로 맞춘 신종 미생물 7종을 325ppm 농도의 3가 비소에 넣고 72시간 동안 비소 산화능력을 실험해 본 결과, 산화 능력이 가장 뛰어난 SPR-07은 325ppm 농도의 3가 비소를 72시간에 걸쳐 128ppm 농도의 5가 비소로 산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산화능력은 대만의 비소 오염 토양에서 분리돼 2014년 3월 환경 독성물질 저감 기술을 다루는 국제전문학술지인 ‘저널 오브 해저더스 머티리얼(Journal of Hazardous Material)’에 보고된 슈도모나스 속 균주 ARS1에 비해 530배 강력한 것이다. 자원관 연구진은 금속 폐광산과 제련소가 있는 봉화군 석포 지역에 중금속 정화 능력이 뛰어난 미생물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서 석포제련소 주변에서 이들을 찾아냈다. 최경민 낙동강생물자원관 자원활용기반연구부장은 “<span class='quot0'>이들 미생물들의 뛰어난 비소 산화능력은 주변 토양 오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달됐을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br/> 안영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span class='quot1'>이번에 발견된 미생물들은 향후 중금속 오염 토양의 독성 저감용 미생물 제제 실증화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환경 속에 자생하는 미생물들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유용 미생물을 분리해 오염지역에 적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약 2천여 곳의 폐금속 광산과 제련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활동에 의해 많은 지역이 중금속에 의해 오염돼 있으나 자생 미생물을 환경 정화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다.<br/><br/> 김정수 선임기자 jsk21

언론사: 한겨레-1-42.txt

제목: 기대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수명은 줄어든다  
날짜: 20171205  
기자: 정은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05120853002  
ID: 01101001.2017120512085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016년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전년보다 0.3년 길어진 82.4살로 추정됐다. 그러나 유병 기간이 2년 전보다 0.8년 늘어난 17.4년이라서 건강수명은 64.9살로 0.3년 짧아졌다. <br/><br/> 통계청은 5일 발표한 ‘2016년 생명표’를 보면, 2016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의 경우 79.3년, 여자의 경우 85.4년이다. 전년보다 남자는 0.3년, 여자는 0.2년이 길어진 수치다. 10년과 비교하면 남자 3.9년, 여자는 3.3년씩 수명이 늘었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보다 남자는 1.4년, 여자는 2.3년이 더 길다. 이에 따라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한국인의 기대수명 순위는 남자의 경우 15위, 여자는 4위를 차지했다.<br/><br/> 2016년생 여자의 기대수명은 남자보다 6.1년 길다. 남녀 간의 기대수명 격차는 1970년부터 늘어나 1985년 8.6년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연령별로 보면, 2016년에 40살인 남자는 앞으로 40.4년, 여자는 46.2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한다. 60살 남자는 22.5년, 여자는 27.2년 더 살 것으로 보인다. <br/><br/> <br/><br/>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기간이 늘어나 건강한 상태로 보낼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었다. 2016년 출생아의 건강 기간은 남자 64.7년(기대수명의 81.6%), 여자 65.2년(기대수명의 76.4%)으로 나타났다. 유병 기간은 각각 14.5년과 20.2년이었다. 2012년과 견줘 유병 기간이 남자는 2.1년, 여자는 2.5년 증가했다. 2016년 출생아의 기대수명 중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기간도 남자 68.8년(기대수명의 86.7%), 여자 68.4년(기대수명의 80.1%)으로 여자가 더 짧다. <br/><br/> 3대 사인(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확률은 남자가 45.3%, 여자는 38.8%로 조사됐다. 사망 확률이 가장 큰 사인은 여전히 암이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만약 암이 정복된다면 2016년생 남자의 기대수명은 4.9년, 여자는 2.9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1996년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폐렴에 의한 사망 확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확률은 가장 많이 감소했다.<br/><br/> 정은주 기자 ejung

언론사: 한겨레-1-43.txt

제목: 나흘 동안 1시간 자고 근무…“9호선은 ‘기관사들의 지옥철’”  
날짜: 20171203  
기자: 남은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03225900002  
ID: 01101001.20171203225900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갑자기 ‘열차에서 얼른 내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명한 목소리였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버텼죠. 목소리는 계속 ‘이렇게 일하면 넌 죽을 거야. 지금 내려야 너라도 살 수 있다’고 속삭였어요.” 2016년 1월 어느 날 지하철 9호선을 운행하던 기관사 김아무개씨에게 환청이 찾아왔다. 어떻게 기지로 돌아왔는지 모른다. 당시 김씨는 나흘 동안 1시간밖에 자지 못한 채 열차를 탔다.<br/><br/> 승객들은 출퇴근 시간이면 숨 쉴 틈조차 없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지옥철’이라고 부른다. 기관사들은 3조2교대를 유지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열차를 몰아야 하는 이곳을 ‘기관사들의 지옥철’이라고 부른다. <br/><br/> 3일 오후 1시 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4일째 파업을 벌이는 9호선 기관사들을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만났다. 그들은 1주일에 2일은 새벽 4시, 2일은 오후 4시에 출근해 8~9시간을 일한다. 쉴 새 없이 바뀌는 근무시간과 혼잡한 지하철을 혼자 통제해야 한다는 불안으로 그들 대부분은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고 심한 경우엔 환각, 환청, 공황장애 증상, 우울증을 겪은 일이 있다고 호소했다.<br/><br/>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지하철 9호선 노동자 중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12명이다. 이 가운데 30대 젊은 남자 4명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개통 9년 동안 기관사 148명 중 88명, 절반이 이곳을 떠났다. 기관사 김아무개씨는 “회사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지친 사람들에게 당근을 줄 수 없으니 채찍을 휘둘렀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시험일과 같은 날 휴가를 내면 관리자가 불렀다. 다른 곳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배신자,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br/><br/> 9명밖에 되지 않는 여성 기관사의 건강 상태도 위험하다. 지난달 10일 개화기지에 도착한 열차에서 운전하던 여성 기관사가 실신한 채 발견됐다. 2015년에도 과로에 지친 한 여성 기관사가 운전을 마치자마자 기절하는 일이 있었다. 기혼 여성 3명 중 2명이 유산을 경험한 일이 있고, 그중 1명은 2번 유산했다. 한 기관사는 “휴게시간이 부족해 기관사들은 화장실에 가지 못한다. 남자들은 그나마 비닐봉지라도 들고 타는데, 여자들은 그럴 수 없으니 아예 물을 먹지 않고 터널에서 8시간을 버틴다”고 했다. <br/><br/> 박기범 노동조합위원장은 “몸이 좋지 않을 땐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절대인력이 부족해 아무도 쉰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다. 일하다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감보다 대형사고를 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크다”고 했다. <br/><br/> 노조는 49명 인력 충원을 요구해왔으나 회사는 2019년까지 15명을 충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남은주 기자 mifoco

언론사: 한겨레-1-44.txt

제목: 12월 4일 알림  
날짜: 20171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203190843006  
ID: 01101001.20171203190843006  
카테고리: 경제>취업\_창업  
본문: ◇ 협성대는 지난 30일 교내 이공관에서 ‘2017 사회봉사 페스티벌 사회봉사 특강 및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황유나(사회복지학)씨에게 대상을 줬다. <br/><br/> ◇ 삼육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30일 교내 창업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창업 육성프로그램인 ‘창업아이디어 전략수립 오디션’ 시상식을 열고 6개팀 15명에게 장학금과 상장을 줬다. <br/><br/> ◇ 기아 타이거즈는 1일 홈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임대아파트와 노후 주택에 사는 주민 235가정과 지역 아동센터 3곳에 쌀 4400㎏ 등을 전했다. <br/><br/> ◇ 통일부는 1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에 김진향 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를 임명했다.<br/><br/> ◇ 중소기업연구원은 한국씨티은행과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Citi-KOSBI 여성기업인상' 시상식을 열고 기업가 정신상에 에코트로닉스 성미숙 대표, 환경친화경영상에 아쿠아셀 김경희 대표, 사회적 기업상에 컴트리 이숙영 대표, 창업혁신상에 엔젤아로마스토리 윤경 대표를 뽑아 시상했다.<br/><br/> ◇ 한국기독언론인연합회는 최근 ‘2017년 한국기독언론대상’을 열고 대상에 <한국방송>스페셜 <앎> 3부작을 선정됐다. 암 4기라는 잔인한 선물을 받고 생과 사의 경계에 서게 된 암환자들의 깨달음을 전하고, 죽음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다큐멘터리다.<br/><br/>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14일까지 우수 국내공연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을 확대하기 위한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 사업' 공모 참가자를 모집한다. 누리집(ncas.or.kr) 참조. <br/><br/> ◇ 문화재청은 1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에 이상해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br/><br/> ◇ 관훈클럽은 5일 오전 10시 서울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초청해 적폐청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관훈토론회를 연다.

언론사: 한겨레-1-45.txt

제목: [조한욱의 서양 사람] 알찬 여자  
날짜: 2017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30175833001  
ID: 01101001.20171130175833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조한욱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br/><br/> 세 살배기 예쁘장한 소녀가 발레와 탭댄스를 배워 <호두까기 인형>의 공연에도 올랐다. 성인이 될 무렵에는 발레 학원을 차려 그곳에서 가르쳤다. 본인은 캉캉 무대에도 오르며 나이트클럽에서 백댄서로 일했다. 틈틈이 연기 공부도 해왔던 그가 단명했던 텔레비전 시트콤에서 배역을 맡았다. 머리가 텅 빈 금발 미녀의 역할이었다. 그 뒤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다 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맡은 역도 비슷했다. 다른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낄낄 웃다가 다음 순간에 정색을 하고 대사를 읊었던 것이다.<br/><br/> 이렇게 골디 혼에게는 멍청한 금발 미녀라는 이미지가 부착되었다. 비키니를 입고 찍은 포스터가 그런 이미지를 강화했다. 그렇게 고착된 고정관념이 그를 따라다니며 그에게 더 큰 영광을 안겨주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찍은 영화들마다 속된 말로 ‘예쁘지만 골이 빈’, 말만 잘하면 허락해줄 것 같은 캐릭터로 그를 부각하며 인기를 몰았다. 그는 흥행의 성공을 보증하는 배우가 되었고, 그런 영화 중 하나인 <선인장 꽃>으로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받았다.<br/><br/> 그런데 실생활의 그는 야무지다. 인기의 절정에 있다가 암으로 투병하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영화계를 떠났던 그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영화 제작자와 감독으로 은막의 세계에 돌아왔을 뿐 아니라 <조강지처 클럽>을 통해 연기자로도 복귀했다. 그러면서 케이트 허드슨을 비롯한 세 명의 자녀를 훌륭한 배우로 키웠다. 남성들이 지배하는 영화 산업의 세계에서 자신의 소명 의식과 신념 체계를 고수하면서도 “<span class='quot0'>덜 위협적인 방식으로 견해를 제시하는</span>” 신중함이 그의 비결이었다.<br/><br/> 2003년에 창설한 ‘골디 혼 재단’은 비영리기구로서 전 세계적으로 혜택이 박탈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통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알찬 여자다.

언론사: 한겨레-1-46.txt

제목: 장제원, 한선교 겨냥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가 뛴다”  
날짜: 20171129  
기자: 이유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29105832002  
ID: 01101001.20171129105832002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수석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면서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br/><br/> 장제원 의원은 28일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span class='quot0'>수석대변인까지 복당파로 임명하여 복당파와 홍준표 대표 간에 손익계산이 끝난 듯하다</span>”고 주장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원조 친박’이었던 한선교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광기어린 1인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를 막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관련 기사: 한선교 “광기 어린 1인독재 ‘홍준표 사당화’ 막겠다”)<br/><br/> 이에 수석대변인인 장제원 의원은 28일 밤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선교 의원의 말을 듣고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 또 다시 편을 나누어 그 반사이익으로 원내대표가 되어 보겠다는 얄팍한 출마의 변을 들으니, 이것이 4선 의원의 출사표인지 귀를 의심했다”고 썼다. 장 의원은 이어 ”수석대변인직을 감투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이것이) 당의 화합과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면 미련없이 사퇴하겠다. 자격없는 사람이 정치공학적으로 대표 사당화를 위한 도구가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반의적 표현까지 동원해 한 의원을 비판했다. <br/><br/> 29일 새벽에 다시 글을 올린 장 의원은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장 의원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자리가 ‘못 먹을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리인가”라고 물으며 한 의원을 두고 “정치판에 들어와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스캔들이나 일으키며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평했다. 장 의원은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가 뛴다’는 옛 속담이 딱 어울리는 (출마) 기자회견 잘 봤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br/><br/> 이번 충돌로 알 수 있듯 새달 12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은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친김무성계 의원들이 느슨하게 힘을 합쳐 친박근혜계 의원들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친박계를 겨냥해 ‘구체제 암 덩어리’라고 말하기도 했던 홍준표 대표는 한선교 의원의 출마 선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만 홍준표 5개월을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홍준표, 친박계 겨냥 “구체제 암덩어리”)<br/><br/> <br/><br/> 이유진 기자 yjlee

언론사: 한겨레-1-47.txt

제목: 한선교 “광기 어린 1인독재 ‘홍준표 사당화’ 막겠다”  
날짜: 20171128  
기자: 김남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28204906001  
ID: 01101001.20171128204906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4선)이 28일 다음달 12일 열리는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자유한국당이 광기어린 1인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 대표는 “<span class='quot0'>박근혜 사당화 때는 아무말 못하더니 이제와서 사당화 운운한다고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span>”며 즉각 반발했다. 첫 출마자부터 홍 대표와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홍준표 대 반 홍준표’라는 당내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br/><br/>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홍준표 사당화 두고 볼 수 없다’는 제목의 출마선언문 첫 머리부터 “홍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긴 지 오래다. 바퀴벌레로 시작해 이젠 암 덩어리, 더 나아가 고름이란 막말까지 나오고 말았다”며 최근 홍 대표가 옛 친박계를 겨냥한 비판을 하나하나 인용했다. 한 의원은 “당내 기반이 약한 홍 대표는 이미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복당파와의 손익계산이 끝난 듯하다”며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은 물론 수석대변인까지도 복당파로 채웠다. 원내대표마저 복당파로 내세워 화룡점정을 찍으려 한다. 그가 부인하려 해도 감출 수 없는 홍 대표의 사당화”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가 임명한 홍문표 사무총장, 장제원 수석대변인에 이어, 홍 대표가 원내대표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성태 의원 등 바른정당 복당파의 중용을 “홍준표 사당화”의 근거로 든 것이다. <br/><br/> <br/><br/> 한 의원은 “우리는 다시 또 소위 친박과 비박, 친박과 친홍(친홍준표), 친박과 복당파, 친홍과 복당파의 진흙탕 싸움 속에서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느냐.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를 막고 당의 옳지 못한 여러 행태에 대해 초·재선 의원들의 정풍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br/><br/> ‘원조 친박’이었던 한 의원은 출마선언 뒤 자신의 ‘계파’에 대해 “어느 시절부터 ‘밀박’(밀려난 친박)이 됐다. 여전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는데, 친박 핵심들이 저를 친박으로 끼워주지 않았고 멀리하며 어느 세력에도 끼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옛 친박계가 원내대표로 밀고 있는 홍문종 의원 등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의원은 “<span class='quot1'>홍 대표가 미는 후보,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 간에 접촉과 단일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span>”고 했다. <br/><br/> 홍 대표도 가만 있지 않았다. 한 의원의 출마선언이 있은 직후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만 홍준표 5개월을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당이 수렁에 빠질 때는 숨어 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사 나타나 원내대표를 출마하면서 당 대표를 욕하면 의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br/><br/> 김남일 기자 namfic

언론사: 한겨레-1-48.txt

제목: 영어공부·통역 왜 필요해? 구글 이어폰 하나면 되는데  
날짜: 20171128  
기자: 김재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28161821001  
ID: 01101001.20171128161821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아시아·남미·아프리카 지역 등의 소수 민족 사람들과 통역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산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좋아하는 새를 불러 함께 놀 수 있다면? 암 진단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br/><br/> 만화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생각됐던 일들이 ‘인공지능’(AI) 기술 덕에 머지않아 가능해질 수도 있다. 구글은 28일 일본 도쿄 모리타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는 세상’ 행사를 열어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했다. 전혀 다른 언어권 사람들간의 대화, 사람과 동물의 소리를 통한 소통 등 그동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도 상당부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br/><br/> 구글의 브레인팀·딥러닝팀·인공지능연구팀을 함께 이끌고 있는 제프 딘 구글 리서치그룹 시니어 펠로우는 기조연설을 하면서 실시간 통역 이어폰 ‘픽셀 버드’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인식·자연어처리·번역 인공지능 기술을 동시에 활용해 소수 민족 사람들과 통역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단다. 그는 “상대가 말하는 게 1초 정도 지연돼 들리는 불편만 감수하면 된다”며 “물론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 구글은 인공지능 기술을 의학에 적용해본 사례도 공개했다. 의사 출신의 릴리 펭 리서치의학영상팀 매니저는 “딥러닝 기술을 당뇨병성 안구질환 진단에 적용해 안과의사들보다 정확한 진단 결과를 얻었다. 이 기술로 유방암 진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br/><br/> 당뇨병성 망막증은 앞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병으로, 전세계적으로 4억명 이상이 이 병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병은 안구 뒤쪽(안저) 사진을 판독해 진단하는데, 숙련된 의료진이 필요하다. 유방암 역시 진단율이 73%에 그치고, 그나마 12건당 1건 꼴로 오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릴리 매니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숙련된 의료진(8명)과 인공지능에 진단용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진단을 해보게 했는데, 인공지능의 성공률이 의료진을 앞섰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의 유방암 진단율은 89%에 달했다. 릴리 매니저는 “<span class='quot0'>전세계 어디서나 숙련된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도 당뇨병성 망막증과 유방암 진단이 가능해진 셈</span>”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br/><br/>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새를 불러 대화를 나눈 사례도 소개됐다. 숲 속에서 새 소리를 녹음한 뒤 새의 종류별로 분류하고 각 소리별로 어떨 때 그런 소리를 내는지 등을 인공지능 기술로 찾았다. 뉴질랜드 숲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끈 빅터 안톤(웰링턴 빅토리아대 박사과정 재학)은 “2년 동안 녹음한 새 소리 분량만 1만5천시간에 이른다”며 “새를 불러 놀고, 개발 때 미리 새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멸종 사태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 인공지능 기술로 비행기에서 망망대해를 찍은 사진 속에서 고래를 찾아낸 사례도 소개했다. 이를 응용하면 조난당한 배나 실종자도 쉽게 찾을 수 있다.<br/><br/> 구글은 이날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 사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추가한 ‘구글 어시스트’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높이고, 식품 제조업체에서는 불량품을 줄이는 동시에 의학·환경분야의 전문성을 높인 사실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주면서 또다시 ‘인공지능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구글은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주도권을 쥐려고 했다.<br/><br/> 구글은 또 내부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던 머신러닝 기술 강좌를 내년부터 외부인들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텐서플로’, 데이터의 크기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타입의 머신러닝 모델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머신러닝 엔진’, 사진을 분석해 그 속에 담긴 개체 등을 찾아내는 ‘비전’, 음성인식·번역·자연어처리 등의 기술을 확산할 목적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들 기술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제프 펠로우는 “구글은 머신러닝에 집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직업들이 잇따라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br/><br/> 구글은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는 2000년 인공지능 시대를 내다보며 ‘인공지능은 구글의 최종 도착지가 될 것이다. 구글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장 정확한 답을 줄 것이다. 물론 그 지정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지만, 우리는 점차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다’고 말했는데, 구글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 도쿄/김재섭 기자 jskim

언론사: 한겨레-1-49.txt

제목: 신임 대법관 후보로 안철상·민유숙 제청  
날짜: 20171128  
기자: 여현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28152812001  
ID: 01101001.20171128152812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년 1월 초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임명제청으로,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는 비서울대 출신 법원장과 여성법관을 제청하면서 사법부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서울대·50대·남성’(서오남)으로 획일화됐던 대법원 구성에서 탈피해 다양화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br/><br/>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3일 추천한 후보자 9명 가운데 안 법원장과 민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br/><br/>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공정한 판단능력과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r/><br/>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비법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추천된 김선수(56·17기) 변호사는 야당 쪽의 반발 가능성과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제청 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br/><br/> 안 법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건국대 법대를 졸업한 뒤 30여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두루 맡아온 ‘정통 법관’이다. 2009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맡았으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은 없다.<br/><br/> 법원 안팎에선 행정법과 민사집행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로 5년간 근무하고, 서울고법에서도 행정재판부를 맡았다.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 법원 내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언론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박사학위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연구’로 받았으며,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비송’ 개정판 집필을 주도하고 단행본·논문·판례 평석 등을 여럿 냈다.<br/><br/> 안 법원장은 권리구제와 제도 개선 등을 이끄는 판결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중도 내지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2007년 암 수술 이후 복무에 장애가 없는데도 전역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직업군인의 직업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고,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불허 처분을 받은 재중동포의 귀화를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 2005년 행정기관의 사전 의사표시인 ‘확약’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했으며, 노랫말에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노래를 청소년 유예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도 했다. <br/><br/> 론스타의 스타타워 빌딩 매입에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판결도 했다.<br/><br/> 민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전담 판사를 지내는 등 민·형사 재판을 두루 맡아왔다. 남편은 국민의당 소속 문병호 전 의원이다.<br/><br/>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조와 형사조 조장으로 여러 어려운 사건을 연구하는 등 법률의 여러 분야에 걸쳐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의 유일한 여성재판장으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두차례 받았다.<br/><br/> 가족법 연구에 조예가 깊으며, 재산분할 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세우고 제도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의 정착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가하는 등 국제적 교류의 폭도 넓혔다.<br/><br/>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매몰된 피해자에 대해 구민이 아니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학교법인과 교사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해 책임을 부여하는 판결도 했다.<br/><br/> ◇ 안철상 후보자 = △경남 합천 출생 △대구고, 건국대 법대 △사법연수원 15기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법원도서관장 겸임 △대전지방법원장.<br/><br/> ◇ 민유숙 후보자 = △서울 출생 △배화여고·서울법대 △사법연수원 18기 △인천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부장판사.<br/><br/> 여현호 선임기자 yeopo

언론사: 한겨레-1-50.txt

제목: 홍준표, 친박계 겨냥 “구체제 암덩어리”  
날짜: 20171127  
기자: 김남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27213903001  
ID: 01101001.20171127213903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대표가 친박계를 ‘구체제 암 덩어리’로 규정하며 계파 논란에 가세하는 등 잡음이 커지고 있다.<br/><br/> 홍 대표는 27일 당 홍보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연말이면 새로운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아직도 구체제 잔재들이 준동하고 갈등을 부추기려 한다. 암 덩어리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옛 친박계인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대표를 앞에 두고 “<span class='quot0'>대표가 원내대표 경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계파를 없앤다면서 갈등을 야기한다</span>”고 비판했다.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1'>있지도 않은 계파 갈등을 부추겨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있다</span>”고 쓴 것을 지적한 것이다.<br/><br/> 원내대표 선거는 그간 친김무성계로 홍 대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복당파 김성태 의원(3선)과, 옛 친박계가 결집하는 홍문종 의원(4선)의 구도로 진행돼왔다. 이런 가운데 범친박으로 분류되면서도 홍 대표와도 관계가 나쁘지 않은 이주영 의원(5선)이 부상하며 출마 뜻을 굳힌 상태다. 한선교·나경원 의원 등도 거명된다.<br/><br/> 한편,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12일께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홍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이런 사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애초 원내대표 선거 날짜를 두고도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임기만료 하루 전인 ‘12월15일’을 주장하고, 홍 대표는 경선에 따른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에서 ‘12월7일’로 당겨야 한다는 방침이 확고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span class='quot2'>선거일 공고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span>”고 했다. 강효상 대표 비서실장은 27일 밤 “<span class='quot3'>홍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12월7일과 15일의 중간 정도에서 선거 날짜를 정했다</span>”고 전했다. <br/><br/> 김남일 기자 namfic

언론사: 한겨레-1-51.txt

제목: “암 환자도 완치 위한 권리를 외쳐보자”  
날짜: 20171127  
기자: 김기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27143806001  
ID: 01101001.20171127143806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span class='quot0'>암 환자도 완치를 위한 권리를 외쳐보세요.</span>”<br/><br/>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www.성남공공의료.org)이 건강권에서 소외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건강권 찾기 행사 ‘건강 샤우팅 카페’를 연다. 성남시민행동은 그동안 성남시의료원 설립과 개원을 위해 활동해 온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계승한 시민단체다.<br/><br/> 오는 12월9일 오후 5~7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커피마마’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 주제는 ‘암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생계지원대책’이다. 암 환자가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알 권리, 치료선택권 제한과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 활동의 어려움, 장애등급 신청 어려움 등 사례발표자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계획이다.<br/><br/> 이날 행사는 사례 발표에 이어 서울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 이보라(내과 의사)씨를 비롯해 법무법인 다산 조지훈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기선 과장,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박재만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한다.<br/><br/> 박 처장은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와 사회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보장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 경제적 빈곤, 사회 복지 부족, 열악한 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031)721-0250.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

언론사: 한겨레-1-52.txt

제목: “전설적 투사를 넘어 매력적인 인간 ‘김병곤’으로”  
날짜: 20171126  
기자: 김경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26184835002  
ID: 01101001.20171126184835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 검찰관님, 재판관님, 영광입니다. 유신 치하에서 생명을 잃고 삶의 길을 빼앗긴 민중들에게 이 젊은 목숨을 기꺼이 바칠 기회를 주시니 고마운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br/><br/> 1974년 7월9일 오전, 국방부 비상보통군법회의 법정에서 열린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김병곤(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의 최후진술은 지금껏 민주화운동사에 전설로 남아 있다.<br/><br/> <br/><br/> 하지만 <김병곤 평전>의 저자 김현서씨는 “<span class='quot0'>군사법정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대학 4학년의 그가 담담하게 영광이라고 말했다는 겨울공화국의 전설도, 요동치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여섯 번의 구속을 겪은 남다른 이력도 다만 그의 삶의 한 부분이었을 뿐, 김병곤이라는 한 인간을 다 담아내는 표지는 되지 못한다</span>”고 말한다. 그는 “<span class='quot0'>(김병곤은) 듬직하고 환한 산맥이었던 사람</span>”이라고 정의하고, ‘평전’은 “<span class='quot0'>(서른일곱살) 짧은 생으로 인해 여름날의 그 산맥은 완결되지 않았으나 그에게 한 번쯤 사로잡힌 기억을 가진, 내면의 떨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기억의 저장소</span>”라고 설명한다.<br/><br/> 1953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김병곤은 대학 1학년 때 광주대단지(성남)에서 도시빈민의 실상을 보면서 민중에게 쓸모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이래 73년 최초의 반유신 시위, 74년 민청학련, 84년 민청련 등 조직 활동, 79년 동일방직 사건, 87년 구로구청 사건 등으로 여섯 번의 구속을 겪으며 온몸으로 투쟁했다. 옥중에서 암 진단을 받은 그는 90년 12월6일 서른일곱 짧은 삶을 마감했다.<br/><br/> 저자 김씨는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1978년 이화여대에 입학해 역사를 전공한 뒤 95년 소설 <맞불>로 등단한 전업작가다. 고인과 특별한 개인적인 인연도 없고 민주화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이력도 없는 그가 ‘평전’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span class='quot1'>동세대로서 어떤 부채감 때문</span>”이라고 답한 그는 “<span class='quot1'>운동권의 전설로만 갇혀 있는 투사를 넘어서 매력적인 한 인간</span>”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br/><br/> 1992년 나온 <고 김병곤 추모평가관련 자료집>과 2010년 20주기를 맞아 출간된 <김병곤 약전>(현무환 엮음)을 통해 구속 투옥된 사건, 각 사건에 대한 지인들의 기억과 회상, 암 투병 중 구술한 고인의 회고 등 고인의 투쟁사는 이미 알려져 있기도 하다. 여기에 2013년 59살로 작고한 부인 박문숙(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에 대한 기억도 더해져 500쪽 넘는 ‘평전’이 탄생했다.<br/><br/> 실제로 ‘평전’에 실린 추천사에서, 민청학련 사형수 동지였던 이철 전 의원은 “<span class='quot2'>내가 만난 최고의 인물 김병곤, 박문숙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삶과 정신이 후세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인간의 표상이 되기를 기원한다</span>”고 썼다.<br/><br/> 실천문학의 역사인물찾기 시리즈의 30번째 권으로 나온 <김병곤 평전>의 출간기념회가 27일 저녁 7시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새달 3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묘역에서는 고 김병곤 27주기 추모식도 열린다. 고인의 고향 김해에서도 ‘추모 조형물 건립’을 추진 중이다. <br/><br/> 김경애 기자 ccandori

언론사: 한겨레-1-53.txt

제목: 최초 복제견 ‘스너피’의 복제견 탄생  
날짜: 20171123  
기자: 오철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23145908001  
ID: 01101001.2017112314590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2005년 최초의 복제견으로 태어난 ‘스너피(Snuppy)’를 다시 복제한 재복제견들이 태어났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진은 스너피의 체세포를 이용한 핵치환 복제 기법으로 스너피를 복제한 개 4마리를 생산했으며 이 가운데 3마리가 9개월째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네이처의 온라인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보고했다. 이 연구에는 미국 미시건주립대와 일리노이대학(어바나-샴페인) 소속 연구자도 참여했다.<br/><br/> 스너피는 아프간 사냥개인 ‘타이(Tai)’의 체세포에 있는 핵을 다른 개의 난자(핵 제거)에 집어넣는 ‘체세포 핵치환(SCNT)’ 방식으로 이병천 교수 연구실에서 2005년에 태어난 최초의 복제견이다. 스너피는 10살까지 살고서 201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번에 재복제견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체세포는 5살이던 스너피의 몸에서 얻어 보관해온 것으로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다.<br/><br/> 연구진은 스너피의 체세포를 다른 개들의 핵 제거 난모세포 112개에 집어넣어 체세포 핵치환 복제배아 94개를 얻어냈다. 이어 94개 복제배아를 다른 암컷 개들의 자궁에 이식했으며 이후에 4마리가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다. 이 중 한 마리는 태어난 지 사흘만에 심한 설사 증세로 숨졌으며, 나머지 세 마리는 9개월령 현재 건강한 상태로 자라고 있다고 연구진은 보고했다. 이로써 아프간 사냥개인 타이의 복제견은 스너피에 이어 재복제견 3마리로 2대째 이어지게 됐다.<br/><br/> 연구진은 지금까지 재복제 동물의 수명과 건강에 관한 연구 보고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면서, 스너피 복제견들이 복제 동물 건강과 수명에 관한 연구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했다.<br/><br/> 한편, 이 논문에서 연구진은 복제 동물이 노화의 가속화로 인해 수명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는지에 관해 여러 물음들이 제기되어 왔으나, 체세포를 공여한 타이와 그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한 스너피의 수명과 건강을 비교할 때 같은 품종의 다른 개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복제 동물은 많이 생산됐으나 그 수명과 건강에 관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아 비교할 자료가 부족하고 최초의 복제동물인 복제양 돌리가 6살 나이로 일찍 숨지긴 했지만, 10살과 12살까지 생존한 스너피와 타이의 수명은 같은 품종 개들의 수명 중간값인 11.9년과 비슷하고 별다른 건강 문제도 없었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br/><br/> <br/><br/> 논문 초록 (우리말 번역)<br/><br/> 동물 복제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동물 또는 연구나 산업 용도의 우수한 동물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복제된 동물이 노화 가속 현상을 겪는지 여부에 대한 오랜 물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 물음에 대한 답에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세계 최초의 복제견인 스너피(Snuppy)와 그 체세포의 공여 동물인 아프간 수컷 사냥개 타이(Tai)의 수명과 건강을 비교했다. 간략히 말해, 각각 10세와 12세 나이에 죽은 스너피와 타이는 암이 발전할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건강했다. 기증자와 복제된 개의 수명은 모두 아프간 사냥개의 수명 중간값으로 보고된 11.9년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공여자 세포로서 스너피의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사용해 복제견 4마리를 만들어냈음을 보고한다. 생애에 걸쳐 이들 재복제 동물에 대해 임상과 분자 추적을 수행한다면, 세포 공여 동물과 비교해 복제 동물의 건강과 수명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다. <br/><br/> 〔(Scientific Reports 7, Article number: 15235 (2017), doi:10.1038/s41598-017-15328-2〕<br/><br/> <br/><br/> 오철우 선임기자 cheolwoo

언론사: 한겨레-1-54.txt

제목: “병원노조 제 노릇 했다면 간호사 상대 갑질 없었겠죠”  
날짜: 20171119  
기자: 조일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19194759001  
ID: 01101001.2017111919475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그동안 한번도 안 쉬고 달려왔어요. 24시간이 모자랐는데, 이제 잠깐 쉬어가라고 몸이 보낸 신호 같아요.”<br/><br/> 지난 17일 서울 고대의료원 구로병원 병실에서 <한겨레>와 만난 유지현(50)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불과 사흘 전 수술을 받은 환자로 보이지 않을 만큼 씩씩하고 밝았다. 앞서 지난 6월초 난소암 3기 판정을 받고 9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고, 14일엔 주변 장기를 복원하는 수술을 받았다. 두 차례 수술 모두 성공적이라지만 다섯달 새 머리카락이 다 빠질 만큼 힘겨운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한동안 충분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상태다. 두번째 위원장직의 임기 만료까지 50일을 채 남기지 않은 그의 최대 관심사는 여전히 의료 공공성 확대와 보건의료 노동자의 권익개선이다. 그의 위원장 임기(2012~2017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과 겹친다.<br/><br/> <br/><br/> “임기 중 세 가지 과제가 있었어요.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인력 확충 그리고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이 그것이죠. 의료는 영리사업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인데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2012년)에 제1호 영리병원의 삽을 뜨겠다고 해서 투쟁으로 막았죠.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정규직화 등 국가 관리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커졌죠. 또 제대로 된 의료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진주병원 사례에서 보듯 공공병원을 적자를 이유로 폐업하면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커졌잖아요. ‘메르스의 숙주는 낙타가 아니라 한국 의료체계였다’는 걸 보여주었지요.”<br/><br/> <br/><br/> 2012년부터 연임해 6년째 이끌어 ‘9시간 암수술’ 뒤 항암치료중<br/><br/> <br/><br/> 수술 전날 마석묘역 시상식 참석 “그동안 한번도 안 쉬고 달려와 회복되면 ‘인도 여행’ 하고싶어”<br/><br/> <br/><br/> 그는 “병원 현장 노동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선 근무 조건과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근 성심병원이 간호사를 상대로 장기자랑에서 선정적 춤을 강요한 ‘갑질’과 관련해선 “<span class='quot0'>예전엔 이런 일이 병원들에서 흔했지만 노조가 생긴 뒤론 사라졌는데, (전국에 5곳이 있는) 성심병원은 노조가 없거나 ‘페이퍼 노조’(유령 노조)라서 그런 일이 생겼다</span>”며, 환자·노동·직원이 존중받는 ‘3대 존중병원’을 강조했다.<br/><br/> 유 위원장과의 인터뷰가 한창 이어지던 중,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깜짝 병문안을 오면서 병실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김 장관은 유 위원장의 손을 꼭 잡으며 “어서 쾌유하시라”고 빌었고, 유 위원장은 “제가 워낙 긍정적이라서요”라며 활짝 웃었다. 유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span class='quot1'>제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있다</span>”며 말을 꺼내자 김 장관은 “또 숙제를 주시려고요?”라며 놀라는 시늉을 해, 병실이 웃음으로 가득 차기도 했다. 유 위원장이 “<span class='quot1'>을지병원 파업 장기화와 성심병원 갑질 등 현안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span>”고 요청하자 김 장관은 “<span class='quot1'>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노사교섭을 지원하겠다</span>”고 약속했다.<br/><br/>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국내 최초로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노조로 출범해 노조운동과 연대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는다. 유 위원장의 삶 대부분은 보건의료노조운동의 역사와 겹친다. 1990년 모교 병원인 고대의료원에 간호사로 입사해, 1996~97년 고대의료원 노조위원장을 지낸 뒤 잠시 간호현장에 복귀했다. 1998년 보건의료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그는 상급단체 전임 활동가로 파견돼 서울지역본부장(2003~2008년), 사무처장(2011년)을 거쳐 2012년부터 6년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임기 3년)을 연임하면서 조직을 이끌고 있다.<br/><br/> 두번째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날인 13일, 유 위원장은 담당 의사에게 몇 시간의 외출을 요청해 허락받았다. 1970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한 청년 전태일 47주기를 맞아, 전태일재단이 보건의료노조를 제25회 ‘전태일 노동상’ 수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유 위원장은 병실이 아닌 경기 마석 모란공원의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5만5천명의 보건의료 조합원들을 대표해 상을 받았다.<br/><br/> 전태일재단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투쟁과 사회적 연대는 청년 전태일이 추구했던 인간사랑 정신이고,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만든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을 통해 95개 의료기관에서 신규 인력 2227명 충원과 비정규직 1만999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br/><br/> 유 위원장은 앞으로 몸을 추스르면 “<span class='quot1'>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미뤄뒀던 것들을 꼭 해보고 싶다</span>”며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희망을 하나둘 꺼내놨다. “<span class='quot2'>책읽기, 카페에서 ‘멍 때리기’, 바다 구경, 인도 여행….</span>”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린 삶’이다.<br/><br/> 글 사진 조일준 기자iljun

언론사: 한겨레-1-55.txt

제목: “삶으로 내 노래 책임지고 싶었으나…더는 못 버티겠다”  
날짜: 20171118  
기자: 김종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18092808001  
ID: 01101001.20171118092808001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 “30년에 걸친 제 민중가요 창작 인생을 당분간(?) 접을까 합니다.” 민중음악계의 대표적 작곡가 윤민석(본명 윤정환)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폐업신고, 혹은 아주 긴 휴업신고’라는 제목의 꽤 긴 글을 올렸다. 지난 2일과 9일 두차례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그를 만나 폐업을 결심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br/><br/><br/><br/> 지난달 말 윤민석(53) 작곡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폐업 신고’ 글을 보고 인터뷰를 청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지금은 기념할 때가 아니라 여전히, 아니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에…다시 노래를 만들고, 함께 촛불을 들면서 그저 힘닿는 데까지 싸워보려 한다”고 했던 그였기에 궁금증이 일었다. 그는 “들어봐야 답답하기만 할 것”이라며 극구 사양했다. ‘관두더라도 지난 30년을 정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거듭 설득해 겨우 만날 수 있었다.<br/><br/> <br/><br/> ―갑자기 작업실을 정리해야 한다고?<br/><br/> “후배가 지난 4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작업실을 내줬다. 그런데 이번에 임대료가 너무 올라 그 후배도 사무실을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늦어도 20일까지는 녹음 장비 등 짐을 다 빼줘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 막막하다. 비록 조악하기는 하지만 그런 장비가 있어서 지난해 촛불 때 등 그때그때 노래가 바로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짊어지고 있기에는 그 장비가 너무 큰 달팽이집이다.”<br/><br/> ―공익재단이나 이런 곳에라도 작업실을 마련해 계속할 수는 없나?<br/><br/>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늘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너무 싫다. 지쳤다.”<br/><br/> ―앞으로 계획은?<br/><br/> “당장은 사무실을 빼야 해서 정신이 없다. 그러고 나면 대리운전을 하든 식당의 홀 서비스를 하든 해야지. 그런 일에 비하면 노래 만드는 게 제일 쉽고, 잘할 수 있는데 이제 만들 수도 팔 수도 없으니 몸뚱어리라도 팔 생각이다.”<br/><br/> <br/><br/> 투쟁 대열의 맨 앞에 섰던 투사<br/><br/> ―우리 사회가 윤민석 작곡가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이렇게 훌쩍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운해할 텐데.<br/><br/> “빚이라니, 전혀 아니다. (노래 만든 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다. 이만큼 역할을 했으면 됐고, 이만큼 사랑받았으면 됐다. 내가 관두겠다고 하니까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느냐’는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데 그럴 때마다 속에서는 열불이 난다. 나에게 닥친 문제는 내 능력으로 내 앞가림을 못한 탓이다. 사실 지금까지 숙련공 인생으로 30년간 이 일을 해온 것도 기적이다. 아내 아플 때, 내가 고꾸라져 있을 때 나를 다독이고 살린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었는데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br/><br/><br/><br/>후배 사무실 한켠 무상 사용해와임대료 인상에 작업실 철수해야음악 장비 보관장소도 마땅찮아“민중가요 접어야” 눈물의 선언<br/><br/><br/><br/> 2012년 투병 아내 위한 성금 등시민 후원으로 활동 이어왔으나생활고 등 현실의 벽 부딪혀“후배들엔 민중음악 말리고파”<br/><br/><br/><br/> 윤민석이 민중음악에 첫발을 들여놓은 것은 1987년. 폭압적인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해 초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경찰의 고문에 의해 사망한 데 이어 6월에는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등(사망은 7월9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6월항쟁이 거세게 불붙던 때였다.<br/><br/> ―처음 만든 노래는 뭔가?<br/><br/> “첫 민중가요는 ‘사랑하는 동지에게’라는 거였다. 1987년 6월항쟁을 앞두고 단식하려는 총학생회장을 격려하기 위해 만든 노래였는데 좀 말랑말랑했다. 그래서 ‘가요스럽다’, ‘양아치 같은 딴따라가 들어와서 이상한 노래를 만들었다’고 욕을 바가지로 들었다. 스물한두살의 어린 학생들이 시대의 무게를 다 짊어지는 상황이었으니 다들 얼마나 두려웠겠나. 그걸 떨치려다 보니 허세 짱의 강한 노래를 원했다.”<br/><br/> 시대의 요구를 읽은 윤민석은 1980년대 후반 ‘전대협 진군가’와 ‘전대협 찬가’를 비롯해 ‘애국의 길’, ‘통일의 꽃’, ‘백두산’,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등 투쟁 현장을 달구는 노래들을 쏟아냈다. 이 중 1989년에 만든 ‘전대협 진군가’는 최고의 히트작이었다. “<span class='quot0'>(…) 강철 같은 우리의 대오/ 총칼로 짓밟는 너/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span>”라는 강렬한 가사에 오르내림이 화려하고도 강한 곡조를 붙였다. 학생들은 ‘전대협 진군가’를 함께 부를 때마다 비장함에 전율했다.<br/><br/> 그는 투쟁 대열의 맨 앞에 섰던 투사이기도 했다. 1987년 12월 대선 직전 공정보도를 요구하면서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을 점거했다가 붙잡혀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1989년 12월 임종석 당시 전대협 의장(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경찰에 붙잡힐 때도 맨 앞에서 화염병을 던졌다가 잡혀 3개월 옥살이를 했다. <br/><br/> <br/><br/> <br/><br/> <br/><br/> ―한발 떨어져 노래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br/><br/> “나름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성격이기도 하다. 노래에서 나가자, 싸우자고 해놓고 나는 안 나가고 안 싸우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위 현장에서도 늘 맨 앞에서 싸웠다. 딸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다. 아빠는 중간은 없이 모 아니면 도라고 말이다. 나의 롤모델은 실천적으로는 김남주 시인이었고, 정서적으로는 문익환 목사였다. 김남주 시인처럼 나도 기록자나 예술가에 머물지 않고 전사로 불리고 싶었다.” <br/><br/> ―무엇을 위한 전사였나?<br/><br/> “그때 나의 목표는 딱 하나였다. 광주항쟁을 폭압적으로 진압한 전두환을 반드시 손보겠다는 것이었다. 2006년에 나온 만화 (강풀)에서 나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뒤집힌 세상에서 그네들이 두려워하는 사례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게 비밀조직이든 종교단체이든 상관없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했지만 말이다.(웃음)”<br/><br/> <br/><br/> 데모 욕하던 모범생 바꾼 광주항쟁 사진<br/><br/> 그가 망했다고 표현한 것은 1992년 이른바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뜻한다. 당시 1심 법원은 남한 조선노동당의 실체 자체를 부인하고, ‘민족해방애국전선’(민애전)이라는 조직 사건으로 규정했다. 윤민석은 이 조직의 하부(애국동맹)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김일성 체제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 혐의로 3년간 옥살이를 했다. <br/><br/> ―그런 노래를 만든 건 사실인가?<br/><br/> “내가 가담했던 그룹의 부탁을 받고는 노래 두 곡을 만들어줬다. 그때는 내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면 뭐든지 다 했다. 누군가 찬불가를 만들어달라고 했다면 제가 천주교 신자였더라도 만들어줬을 것이다. 그때는 운동이 나였고, 내가 운동이었다.”<br/><br/>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공격받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입장은 뭔가?<br/><br/> “내 생각이 바뀌었건 달라지지 않았건 그런 얘기는 일체 안 한다. 생각이 바뀌었더라도 내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내가 그때 바보였고 또라이였다고 해봐야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br/><br/> ―뜨거운 불덩이였던 것 같다.<br/><br/> “그렇게 살았다. 활동하다가 잡히거나 하면 바로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에서 그때는 가슴속에 단검을 품고 다니기도 했다. 아침에 길을 나설 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늘 우선이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왠지 누군가에게 미안했다. 나는 행복하면 안 되고, 즐거우면 안 됐다.” <br/><br/> 어린 시절 윤민석은 못하는 게 없는 재간둥이였다.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대학 입시학원을 운영했던 아버지는 아들을 만능 슈퍼맨으로 키우고자 애썼다.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와 기타를 배우게 했고, 주산학원에도 보냈다. 음악에 재능이 뛰어났던 윤민석은 중학교 때부터 곡을 만들었다. 또 시를 쓰는 문학청년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음악을 전공하는 것은 강하게 반대했다. “음대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하하. 아버지에게 음악은 상것들이 하는 것이었죠.”<br/><br/> 고교(영주고) 때 그는 친구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와 1등 자리를 다퉜을 정도로 공부도 잘했다. 대학 입시 성적이 예상보다 낮아서 집에서는 재수를 권했지만, 오로지 아버지 곁을 벗어나고자 장학금을 주는 곳을 택해 서울로 올라왔다. 보수적 동네 출신인 윤민석은 대학 초반에 ‘어쩌다 니들과 같이 있게 됐지만 나는 다르다’고 여기면서 동문회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대신 입학하자마자 공인회계사(CPA) 시험 준비반에 들어갔고 행정고시 공부에도 몰두했다. <br/><br/> ―언제부터 바뀌었나?<br/><br/> “대학 1학년 때는 데모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주는 비싼 등록금 내고 헛짓한다고 속으로 욕했다. 대학 2학년 때 딴따라 병이 도져 학교 앞 음악다방 디제이와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에서 기타 연주 아르바이트를 할 즈음이었다. 흐릿하게 복사된 광주항쟁 사진을 봤는데 갑자기 충격으로 다가왔다. 국군이 빨갱이를 죽인 거라고 알고 있던 믿음이 무너지면서 혼자 두어달 동안 힘들었다. 그렇게 세상을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 앞가림만 하려고 공부하는 내 모습이 너무 혐오스럽게 느껴졌다. 견디지 못하겠더라. 결국 3학년 올라갈 때 휴학계를 내고 학생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때 시작한 게 학교 노래패(소리개벽)였다.” 2년 후배인 임종석도 소리개벽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전대협 진군가’로 대학가 석권노무현 탄핵 때 ‘헌법 제1조’ 이어세월호 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격동기마다 거리서 울고 웃어<br/><br/> <br/><br/> “<span class='quot0'>우리 세대 중에서 변하지 않는마지막 사람으로 남고팠는데…</span>”“<span class='quot0'>폐업은 경제능력 없는 내 탓30년간 사랑해준 시민에게 감사</span>” ‘퍼킹 USA’ 대박나도 살림은 더 곤궁<br/><br/> 윤민석이 노래운동에 뛰어든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민중가요 전성시대였다.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와 ‘광야에서’ ‘그날이 오면’ ‘잠들지 않는 남도’ 등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를 갖춘 노래를 만든 노래운동패 ‘노래를찾는사람들’(곡 문승현, 문대현, 안치환, 류형수), ‘파업가’와 ‘단결투쟁가’ 등 노동가요를 주로 만든 김호철, ‘참교육의 함성으로’의 주형신, ‘바위처럼’의 유인혁 등이 대표적인 민중음악가들이었다. <br/><br/> 윤민석이 민중음악가로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딘 계기는 1992년부터 95년까지의 감옥생활이었다. 그는 빈 라면상자의 골판지에 그린 피아노 건반으로 감옥에서 가상 연주를 하는가 하면 컴퓨터 음악을 책으로 독학했다. 1995년 출옥 전에 동료들이 열어준 ‘윤민석 통일음악회’(안치환, 꽃다지, 신형원 등 출연)도 그에게 큰 힘이 됐다. 공연 실황을 찍은 비디오를 교도소장 등과 함께 본 그는 감옥에서 다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때 완성해 숨겨나온 노래가 대략 30곡쯤 됐다.<br/><br/> 출옥 이듬해인 1996년에는 ‘윤민석과 함께 하는 몇가지의 실험’이라는 노래 테이프를 만들어 활동을 재개했다. 이때 노래패 `조국과 청춘’의 가수 양윤경을 만났다. 윤민석은 “<span class='quot1'>노래를 빡세게 부르는 다른 민중가수들과 달리 부드러우면서도 표현력이 뛰어난</span>” 양윤경과 1998년 백년가약을 맺었다. 2001년에는 민중가요를 보급하는 인터넷 사이트(송앤라이프)를 만들어 5년간 운영하기도 했다. 그가 만든 모든 노래를 저작권료 한푼 받지 않고 무료로 퍼가게 했다.<br/><br/> 이 시기에 그의 창작활동도 가장 왕성했다. 2002년 동계 올림픽에서 미국 선수인 아폴로 안톤 오노가 범한 반칙 행위를 소재로 만든 ‘퍼킹 유에스에이’(Fucking USA),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사건 때의 ‘헌법 제1조’와 ‘너흰 아니야’는 민중음악의 고전이자 불후의 명곡이다.<br/><br/> ―송앤라이프를 오래 운영하지는 못했는데.<br/><br/> “처음에는 후원금으로 버텼는데 갈수록 사무실 유지가 힘들었다. 게다가 ‘퍼킹 유에스에이’가 대박이 난 것도 한 원인이다.(웃음) 다운로드가 20만을 넘어갔는데 서버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그때 망하기 직전까지 몰렸다. 2006년에 문을 닫았으니 그래도 오래 버텼다.”<br/><br/> ―한때 곡을 공개하면서 자발적인 후원을 호소하는 이른바 감동후불제를 실시하기도 했다.<br/><br/> “공연계에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한번 시도해봤다. 처음에는 의미가 좋다면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대로 반짝했지만, 지속이 안 되더라.”<br/><br/> 자금난에 송앤라이프도 접은 윤민석은 대리운전을 하거나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꾸려나갔다. 2011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혼 전에 치료받았던 아내의 유방암이 재발했다. 그즈음 그도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의원 등 이른바 출세한 친구, 선후배들을 만나면 그들은 ‘너는 아직도 안 변했냐. 정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런 말은 그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다. 가장 힘들 때였다. 죽어가는 아내를 보다 못한 그는 2012년 8월 트위터에 “누가 1억만 빌려주세요. 아내 좀 살려보게요. 아내가 낫는 대로 집 팔아서 갚을게요”라는 글을 올렸다. 윤민석을 기억한 시민들이 순식간에 1억5천만원의 돈을 모았고, 동료들은 두번째 ‘윤민석 음악회’를 열어줬다.<br/><br/> “당시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음악회가 열린 한양대에는 가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그날부터 아내가 미음을 세 숟가락이나 먹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기운이 아내를 살렸다. 그 전까지는 매일 아침 눈뜰 때마다 ‘하느님 왜 안 데려갔어요’라고 얘기하던 아내가 거짓말처럼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윤민석을 기억해준 시민들이 정말 눈물겹게 고맙더라.”<br/><br/> 몸속에 암이 퍼진 상태이지만 아내는 2012년 말 기적처럼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윤민석은 가수 양윤경에게 2014년 첫 앨범(<우리 아가는>)을 만들어줬다. 엄마가 갑자기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의 트라우마를 달래주려고 만든 노래들이다. <br/><br/> 암과 싸우는 아내, 자신의 우울증, 생활고 등 3중고에 지친 윤민석에게 그의 유일한 무기인 민중음악을 다시 벼리도록 해준 것은 시대의 아픔이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는 고스란히 그의 고통이었다. <br/><br/> <br/><br/> <br/><br/> <br/><br/> <br/><br/> 아내 수면제 먹인 뒤 세월호 노래 만들어<br/><br/> “제 삶을 바꾼 두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광주항쟁이고, 다른 하나는 세월호였다. 세월호는 어떤 면에서는 광주보다 더했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는 아내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스트레스 안 받도록 집에서는 텔레비전도 안 켜고 지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바닷속에서 죽어가니까 미치겠더라. 도저히 못 견뎌서 수면제를 먹여 아내를 재워놓고는 작업실에 나와서 혼자 텔레비전을 봤다. 그러고는 미친놈처럼 꺼이꺼이 울면서 두 달을 지냈다. 그 슬픔이 제 안에서 부대끼다가 핏방울처럼 뚝 떨어지면서 노래가 됐다.”<br/><br/> ‘잊지 않을게’와 ‘약속해’ ‘얘들아, 올라가자’ 등 세월호 관련 노래 10여곡이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윤민석은 이 노래들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에 전달했고, 대책위는 2014년 11월 추모 음반(<잊지 않을게 끝까지>)으로 만들었다.<br/><br/>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도 세월호 참사 때 만들었는데 추모음반의 노래들과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br/><br/> “처음에는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희생자 이름 304명도 그냥 한 덩어리로 보였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쳐다볼 수 있었고, 아이들의 엄마도 시연이, 영석이 엄마 등으로 개별적으로 다가왔다. 그제야 현장에 가서 틀어놓으면 깃발이 되고 기도가 되고 주문이 되는 그런 희망적인 노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내 속에서는 선혈이 낭자한데 희망을 보여주려니 노래 만들기가 정말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광화문 앞에 머리 깎은 엄마 아빠들이 모였는데 짭새들이 둘러싼 채 압착해서 소변을 거기서 봐야 하는 모욕적인 상황이 일어났다. 그때 저들의 치밀함과 악랄함에 맞서는 것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지막 노랫말이 떠올랐다. 그러자 노래는 5분 만에 완성됐다.”<br/><br/> 윤민석은 자신의 많은 노래 중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가장 아낀다. <br/><br/> 지난 2월 윤민석은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30년 만에 처음 받은 음악상이다. ‘헌법 제1조’와 ‘이게 나라냐 ㅅㅂ’ 등 촛불집회에서 불린 노래로 받은 상이어서 그에게는 더 특별했다.<br/><br/> ―민중가요를 30년 동안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br/><br/> “제가 이념이나 신념이 투철해서가 아니다. 저는 생판 무식이고, 가진 것은 가슴밖에 없다. 짧게 얘기하면 우리는 4·19 세대의 변절을 욕하면서 운동했다. 그래서 우리 세대 중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다. 사람들이 ‘너 운동하고 조금 고생한 뒤 나중에 금배지 달려고 그러지?’라고 욕할 때 ‘아니야 저런 놈도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 하나가 됐으면 했다.”<br/><br/><br/><br/> <br/><br/> ―윤민석에게 노래는 뭐였나?<br/><br/> “나에게는 혁명의 도구였다. 평화로울 때는 평화로운 노래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싸워야 할 때는 싸우는 노래로서 내 노래가 무기가 되면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민중가요는 구리다거나 군가풍이다, 음악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속으로 민중가요 하는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다고 말한다. 레게가 필요하면 레게로, 투쟁이 필요하면 군가풍으로, 발라드가 필요하면 발라드로 자유자재로 구사해 왔다. 그리고 내가 만든 노래에 대해 내 삶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30년을 버텼다.”<br/><br/> ―‘전대협 진군가’ 등 예전 노래는 주로 군가풍이었다. 거기에 비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등 요새 노래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던데.<br/><br/> “사람의 정서적인 면도 달라졌으니 시대에 따라 민중가요도 바뀌는 게 당연하다. 다만, 어떤 노래가 맞는지를 알려면 사람들의 싸움 현장에 계속 있어야 한다. ‘헌법 1조’나 ‘이게 나라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모두 현장에서 탄생한 곡이다. 사람들의 구호나 손피켓 등을 보면서 그 내용들이 밥처럼 제 안으로 들어와서 툭 하고 노래로 떨어진다. 내 얘기가 되어야 가장 진솔한 노래가 된다.” <br/><br/> ―민중가요는 대중음악 등 다른 노래들과 어떻게 다른가?<br/><br/> “민중이 따로 있고, 대중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사람은 멀티모드다. 술을 마실 때는 술꾼, 집에 가면 아빠 또는 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친구 등등 그때마다 지위가 달라지는 멀티모드의 삶이다. 그런데 천민자본주의에 살다보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기본적 상식이나 양식, 그것을 계급성이라고 하든 민중성이라고 하든 그것이 저 밑으로 가라앉는다. 이것을 내세울수록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그러나 저 밑으로 가 있는 양심 또는 민중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한 계단 한 계단 불편하지만 자극해서 끌어올리는 게 바로 민중음악이다. 그렇게 노래하다 보면 지난해 촛불혁명처럼 어느 날 민중성이 확 올라오게 된다.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 이 작업을 계속해 왔다.” <br/><br/> 민중음악을 단지 노래로서만이 아니라 몸으로 헤쳐온 그이지만, 민중음악과의 작별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맘속에 자라고 있었던 듯하다. 그는 2015년 페이스북(8월21일)에 “<span class='quot1'>내 음악 인생을 후회해본 적은 결코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섭섭하거나 외로운 적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1'>만약 지금 누군가 민중가요 작곡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아마도 그를 아끼는 정도 만큼 말릴 것 같다</span>”고 적었다.<br/><br/> <br/><br/> “<span class='quot0'>‘3년간 상업용 노래 만들어 봤으면’ 망상도</span>”<br/><br/> ―민중음악 하는 게 힘들어서인가?<br/><br/> “아니다. 어떤 일이든 힘들지 않은 게 있겠나. 어떤 일이든 돈이 되거나 보람이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이 셋 중 하나는 있어야 자기 삶을 관통하면서 할 수 있다. 물론 민중가요는 보람이 있기는 하지만, 미래가 없다. 연극계만 하더라도 극단 청소하고 한 회당 3만~5만원 출연료 받으면서도 버티는 것은 그것이 커리어가 돼서 나중에 텔레비전으로 간다든가 하는 등의 한방이 있다. 이 동네는 그러지도 못한다. 민중가요 부르는 후배들이 그러더라. 해고자를 위한 노래를 부르고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 나는 돌아갈 공장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다고 말이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민중가요를 하고 싶으면 첫째 가진 돈이 많든가, 아니면 차라리 대중음악판에 가서 이름을 얻어서 한두 곡 노래를 적선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말이다. 그도 저도 안 되면 대학교수 등 자격을 얻으라고 말한다.”<br/><br/> 윤민석과의 두 번에 걸친 인터뷰는 그가 예고한 대로 힘들었다.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지만, 매번 가슴은 답답하고 마음은 무거웠다. 그래도 그를 음악 밖으로 떠나보내고 싶지는 않았다.<br/><br/> ―휴업을 하더라도 음악은 계속해야지 않나?(기자는 일부러 ‘휴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는 즉각 “폐업, 거의 폐업”이라고 정정했다.) <br/><br/> <br/><br/> “며칠 전에 딸이 한 대학이 주최하는 백일장에 나가서 난데없이 장원을 했더라. 2년 뒤에 그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4년간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솔깃했다. 그런 서글픈 내 모습을 바라보다가 지금까지의 견디는 삶 말고 단 몇년이라도 이겨내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다.”<br/><br/> ―무슨 뜻인가?<br/><br/> “망상이긴 한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민중음악을 했으니 앞으로 그 십분의 일인 3년 동안은 상업용 노래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10만원씩 천 명에게 1억원을 후원받아서 그 돈으로 판매용 노래를 만드는 거다. 평균 두 달에 한 곡씩 해서 삼 년 동안에 15~18곡쯤은 만들 것이다. 그중에서 한 곡쯤은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은 치지 않겠나. 그러면 원금은 돌려주고, 나는 저작권을 토대로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열심히 민중가요를 만드는 그런 망상 말이다. 그런 것을 하려면 지금보다 백 배는 더 뻔뻔해져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결국 이제 조용히 잊혀 가는 게 맞는 것 같다.”<br/><br/> 인터뷰를 마칠 즈음 한 부동산 소개업소에서 그에게 전화가 왔다. 윤민석은 “<span class='quot1'>감당할 수 있는 사무실인지 가봐야겠다</span>”며 서둘러 일어섰다. 노래, 그중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노래를 자신의 전부로 여겼던 뮤지션은 촛불혁명 1주년에 ‘30년 천직’과 작별하러 종종걸음으로 떠나갔다. (윤민석은 17일 통화에서 “<span class='quot1'>장비를 쌓아둘 공간은 집 가까운 곳에 구했다</span>”고 밝혔다.)<br/><br/>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

언론사: 한겨레-1-56.txt

제목: 여야 정치권, 일제히 포항행, 지진피해 점검  
날짜: 20171116  
기자: 송호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16113822001  
ID: 01101001.20171116113822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여야 지도부가 16일 지진이 발생한 포항으로 일제히 달려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여당은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국회에 ‘재난 지원 특별위원회’도 구성될 수 있도록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br/><b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해오던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하고,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 흥애읍사무소에서 긴급재난대책회의를 열었다. <br/><br/>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회의에서 “<span class='quot6'>눈앞에서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걱정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포항에 오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6'>민주당이 현장 상황을 본 뒤 (포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span>”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span class='quot0'>특별 지원금, 긴급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을 세우겠다</span>”며 “<span class='quot0'>국회에 ‘재난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구성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span>”고 밝혔다. <br/><br/>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원단이 주민 대피 시설인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주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 지진 피해를 입은 아파트 단지, 수능시험장 등을 둘러봤다.<br/><br/> 미국에 체류 중인 추미애 대표는 지진 피해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부상당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며 “앞으로 1주일 동안 정부는 수능시험장의 안전을 위한 점검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br/><br/> 영남이 지역 기반인 보수야당들도 앞다퉈 지진피해 현장을 찾았다. 애초 울산지역 방문이 예정돼 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북 안동이 지역구인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포항 흥해실내체육관과 대도중학교 지진피해대피소 등을 방문했다. 홍 대표는 “자연재해에는 여야가 없다”며 “합심해서 지원에 앞장서겠다.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당과 국회 차원에서 포항지역 특별지원대책 팀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span class='quot1'>정부도 소위 특별예산 편성에 쉬울 것</span>”이라고 덧붙여, 예산국회가 꾸려진 상황에서 제1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br/><br/>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span class='quot2'>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진설계, 대피시설 건설, 지진대책 예산 등을 꼼꼼하게 챙기겠다</span>”고 말했다. <br/><br/>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아침 항공편을 이용해 포항에 도착해 흥해실내체육관, 흥해읍사무소 등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안 대표는 “<span class='quot3'>피해를 입은 건물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3'>피해 지역을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자에서 재정을 포함한 맣은 지원을 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새벽 박인숙 최고위원과 경북도당위원장인 권오을 최고위원 등과 함께 포항으로 내려가 피해 지역 일대를 둘러봤다. 유 대표는 “<span class='quot4'>대피소에 말기암 환자나 만삭 임산부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더 편안한 곳으로 이송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4'>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서 남은 국비가 내려와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br/><br/> 정의당은 피해 지역 방문에 이어 원자력발전소 안전 상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span class='quot5'>포항 지진은 지난 해 경주 지진에 이어 한반도가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span>”며 “<span class='quot5'>특히 이번 지진 진앙지에서 불과 45km 떨어진 월성원전도 방문해 안전 상태를 점검할 것이다</span>”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span class='quot5'>탈원전을 비롯해서 노후 원전의 조속한 폐쇄 및 원전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진피해 대책</span>”이라고 강조했다. 송호진 김남일 기자 dmzsong

언론사: 한겨레-1-57.txt

제목: 백남기 농민 ‘병사→외인사’ 수정 늑장부린 서울대병원  
날짜: 20171115  
기자: 노지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15135822001  
ID: 01101001.2017111513582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는 과정에 늑장을 부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재확인됐다.<br/><br/> 감사원이 지난 7월3일부터 19일까지 서울대병원의 주요 업무와 조직, 인사 등 경영관리분야를 점검한 결과 모두 3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대학교병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br/><br/>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나와 있는 사망 종류를 2016년 9월 병사에서 9개월만인 2017년 6월 외인사로 수정하면서 이 업무를 2개월 동안 중단하는 등 늑장을 부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 고인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10월1일 곧바로 ‘고 백남기님의 사망진단서 관련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엔 고인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를 보직 해임했다. 올해 2월1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 청구소송 소장이 도착하자 병원의 의료윤리위원회는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 등을 열었지만 진단서 수정은 4개월이 지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야 완료했다. 병원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3월14일부터 5월 중순까지 두 달 동안 수정 업무를 중단하는 바람에 수정 업무 처리가 늦어진 것이다. 감사원은 “<span class='quot0'>서울대병원이 두 달 동안 논의를 중단하는 등 뒤늦게 사망 종류를 수정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병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span>”고 지적했다.<br/><br/> 고인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나갔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아스팔트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11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9월말에 숨졌다.<br/><br/> 한편, 이번 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나왔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진료교수 및 임상강사를 채용할 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 응시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응시자 간 경쟁 없이 진료 과장이 추천한 사람을 채용해왔다. 감사원은 “<span class='quot0'>진료과장 개인의 추천 여부가 진료 교수 채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러한 채용 절차 때문에 서울대에서 학부 과정을 거치지 못했거나 서울대병원과 분당병원에서 전공의, 임상강사 과정을 거치진 못한 다른 대학 출신 의사들이 진료 교수 채용 시 공정한 응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됐다</span>”고 지적했다.<br/><br/> 서울대병원이 응급 환자를 태운 차량이 가능한 한 응급실로 빨리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대병원에는 암 병원 등 건물 8개가 새로 지어지거나 면적이 늘어나면서 병원 안 유동 인구와 차량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병원 안팎에서 교통이 혼잡해졌고 구급차가 응급실로 들어오는 동선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병원은 도로 확충 등 긴급차량의 응급실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br/><br/> 서울소방재난본부가 2017년 측정해 본 응급환자 발생 장소에서 서울 시내 주요 6개 병원 응급실까지 환자를 이송하는데 걸린 시간 자료를 보면 서울대병원의 평균 이송 시간이 18분으로 다른 6개 병원 가운데 가장 길다. 다른 5개 병원은 환자를 병원까지 싣고 가는 데 적게는 11분에서 오래 걸려도 13.7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장에게 “<span class='quot0'>구급차의 원활한 진출입 및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서울대 치과병원과 의과대학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환자의 응급실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span>”고 통보했다.<br/><br/> 이 외에도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에서 의사가 판독 소견서를 내지도 않은 61만5000여건의 판독료 19억2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에게 부당 청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영상검사를 실시한 뒤 판독 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해 환자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br/><br/> 노지원 기자 zone

언론사: 한겨레-1-58.txt

제목: 손바닥 떠나지 않던 새…“우리 다신 만나지 말자”  
날짜: 2017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14112909001  
ID: 01101001.20171114112909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10월14일 구조된 지 한 달 남짓 만에 어린 물까치가 마침내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다. 구조한 동물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순간은 늘 떨리면서도 기쁘다. 야생으로 다시 돌아가면 잘 살 수 있을까, 혹시 야생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앞선다.<br/><br/> 물까치를 조심스럽게 잡아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날아가도록 했다. 잘 가라고 할 틈도 없이 우리에서 풀려나기 무섭게 자연으로 달아나는 게 방생의 일반적 모습이다. <br/><br/> 그런데, 이 물까치는 달랐다. 손바닥을 횃대로 알았는지 날아가기는커녕 그 위에서 몸단장하고 손을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으려 애쓴다. 난감한 상황이다. 다른 손으로 밀쳤더니 그 손을 깨물려 했다. 그러지 말라는 것처럼 보였다. 손에서 간신히 떼어놓았더니 이번엔 머리 위에 앉았다. <br/><br/> 한참이 지나서야 물까치는 힘차게 날아 근처의 나뭇가지에 앉았다. 나무 위에서 종종거리더니 곧 멀리 날아갔다. 먹이에 대한 기억 때문에 방생해도 며칠 동안 구조센터 주변에 머무는 새들도 있다. 하지만 어린 물까치를 센터 주변에서 다시 볼 수는 없었다.<br/><br/> <br/><br/> 어린 물까치가 전남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들어온 것은 8월30일이었다. 고라니, 너구리, 멧비둘기, 직박구리 등 다양한 새끼 동물이 구조센터로 들어와 매우 분주했다. 어린 새가 어느 정도 자라면 돌아다니거나 날고 싶어 한다. 둥지를 떠나는 이 시기가 매우 위험하다. 둥지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포식자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br/><br/> 둥지에서 떨어진 이 어린 물까치를 다행히 누군가가 발견해 신고했다. 어린 새가 둥지에서 떨어졌다고 무턱대고 동정심에 데려오거나 키워서는 안 된다. 가정집에서 보호할 경우 너무나 다른 환경, 올바르지 않은 먹이 등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 새를 발견하면 주변에 어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미가 없다면 구조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br/><br/> 물까치는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텃새로 아파트 단지 주변, 공원 등에서 시끄럽게 운다. 주로 물 근처의 숲에 서식하고 까치와 닮았다고 하여 물까치라 불린다. 물까치의 머리는 검은색, 몸통은 회색, 날개와 꼬리는 푸른색을 띠어 아름답다. 또 다른 새보다 매우 긴 꼬리로 몸의 균형을 잘 잡는다. 적게는 10마리에서 30마리까지 집단생활을 하며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는 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이 떼 지어 몰려와 사과, 배, 감 등을 먹어 농가에 큰 손해를 끼치기도 해, 유해 조류로 등록되어 있다. <br/><br/> 어린 물까치는 구조센터에서 주로 수평아리를 먹었다. 구조센터에는 맹금류나 너구리 등 육식, 잡식하는 동물이 많아 수평아리가 주 먹이이다. 암평아리만 산란계로 기르는 양계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평아리 처지는 안타깝지만 다친 야생동물들에게는 영양가 높은 먹이가 된다.<br/><br/> 구조된 어린 물까치는 아직 어미의 도움이 필요한 새끼여서 재활관리사가 어미 노릇을 해 주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밥 달라며 시끄럽게 울고 먹이를 입 근처에 대면 조그만 입을 크게 벌린다. “<span class='quot0'>배가 고프니 먹이를 빨리 달라!</span>” 라는 의미이다. 먹이를 넣어주면 입을 꼭 다물고 조용해진다. 먹이를 입 근처에 가져가도 입을 벌리지 않으면 배부르다는 뜻이다. 먹이 먹을 때의 행동은 어린 새라면 대개 비슷하다.<br/><br/> 많이 먹고 쑥쑥 자란 어린 물까치는 치료실 구석구석을 퍼덕이며 나는 연습을 했다.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먼 선반으로 날아보기도 했고, 가끔은 사람 머리에 날아와 앉았다. 제법 날기 시작했을 때, 먹이를 물어 구석에 숨기는 행동도 했다. 나중에 먹기 위해 보관하는 것 같았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날고 깃털을 다듬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다. 먹이를 먹고 나면 부리를 주변에 비벼 깔끔하게 닦았다.<br/><br/> 어린 물까치는 인큐베이터에서 보살핌을 받은 뒤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겨졌다. 야생 적응을 위해서다. 스스로 먹이를 먹는 연습을 하고 편하게 날아다니며 인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가지게 된다. 먹이를 받아먹은 기억 때문에 재활관리사가 오면 먹이를 달라고 울면서도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생겼는지 예전처럼 다가오지는 않는다. <br/><br/> 구조된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동물은 낯선 공간에 머무르며 눈앞에 돌아다니는 사람에 대한 공포감과 경계심이 더 생겼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먹이를 받아먹은 어린 동물은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친밀감은 나중에 야생으로 돌아갔을 때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야생동물들이 다가오면 크게 소리치는 등의 행동으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잊지 않도록 한다.<br/><br/> 다치거나 버려진 야생동물을 힘들게 보살핀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재활관리사들은 자연으로 동물을 돌려보낼 때 이렇게 말하곤 한다. <br/><br/> “<span class='quot0'>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span>”<br/><br/> 글·사진 김청아 통신원 hoogo12@naver.com

언론사: 한겨레-1-59.txt

제목: 이명박근혜 ‘MBC 장악’ 체제 끝, 돌아올 마봉춘을 위하여  
날짜: 20171113  
기자: 김효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13194824001  
ID: 01101001.20171113194824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13일 오후 3시50분께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800여명의 조합원이 숨을 죽이고 중계 화면을 지켜봤다. 10분 뒤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가결되는 순간 집회 현장은 “와” 하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회를 보던 허일후 아나운서는 동료와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김연국 노조위원장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김 위원장이 외치자 조합원들은 ‘김재철 구속’, ‘김장겸 구속’ 손팻말을 높이 들어올렸다.<br/><br/> 김 사장 해임으로 문화방송이 정상화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시청자들은 언제쯤 ‘만나면 좋은 친구, 마봉춘(문화방송의 영문 이름을 따 만든 애칭)’을 체감할 수 있을까. 지난 9월4일 총파업이 시작되고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등 주요 예능 프로그램과 라디오, 일부 드라마가 결방했으며, 초유의 ‘녹화 뉴스’가 등장하는 등 보도·시사 프로그램도 단축·파행됐다. 노조는 13일 낸 성명에서 “파업을 멈추더라도 현재의 적폐 경영진 체제에서 제한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언론장악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엠비시 비전을 선포하기 위한 투쟁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업을 풀긴 하지만, 부문에 따라 제한적 업무복귀 또는 업무거부로 공정방송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의미다.<br/><br/> 드라마·예능 부문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정상화될 전망이나, 보도·시사 부문은 정상화 과정이 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새 경영진이 구성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부당전보로 흐트러진 ‘인사 정상화’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과거 현업에서 배제된 100여명의 기자·피디·아나운서들은 하루빨리 ‘유배’ 이전의 제작부서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 왕종명 기자협회장은 “‘김장겸 체제 뉴스’는 당분간 진행될 수밖에 없다. 엠비시 재건을 위해 더 큰 싸움을 해야 한다”며 “과거 문화방송이 뉴스를 통해 저질렀던 과오를 반성하고, 새 저널리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 변화안을 담은 재건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구성원 설문 절차를 거쳐 완성된 보고서는 새 경영진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br/><br/> 특히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비롯해 2012년 파업 때 문화방송에서 해직돼 아직 회사로 돌아가지 못한 조합원이 6명에 이른다. 노조는 해고 무효 소송 1·2심에서 연달아 승소했지만, 회사 쪽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 판결이 나기 전에 새 경영진이 구성되어 소를 취하하면 2심 판결이 확정돼 해직자 복직이 가능해진다.<br/><br/> 이런 정상화 작업을 이끌 새 경영진 구성은 문화방송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다.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곧 사장 인사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새 사장 선임 때까지는 현재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대행을 맡게 된다. 이용마 해직기자는 “<span class='quot0'>난파선 선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span>”라고 말했다. “새 경영진을 중심으로 현업에서 쫓겨난 직원들을 정상화하고, 뉴스·시사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엠비시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프로그램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1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노조 활동과 방송 프로그램 재개 계획 등을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br/><br/>박준용 김효실 기자 juneyong

언론사: 한겨레-1-60.txt

제목: ‘존엄사’는 되지만 ‘웰다잉’은 못하는 사회  
날짜: 20171113  
기자: 박기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13184906001  
ID: 01101001.20171113184906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내년 2월부터 불필요한 연명의료 대신 ‘합법적인 존엄사’를 가능하게 할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좀더 시간을 갖고 영원한 이별을 준비하려는 ‘웰다잉’이 아직 우리한테는 낯설다. 법 시행 뒤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관련 시범사업의 안과 밖을 살펴봤다. <br/><br/> <br/><br/> “저도 암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준비할 기간이 있으니까. 생의 마무리도 준비하고 가족들과(의 이별)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br/><br/> 아내는 자신도 암으로 죽길 바란다. 남편은 위암 말기다. 친정 엄마도 한 해 전 암으로 세상을 떴다. 엄마가 머물던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에 남편이 입원했다.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강릉으로 마지막 가족여행을 떠난다. ‘예정된 죽음’은 시간과 관계의 밀도를 키운다. 남편은 말한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다. 가족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한다고 느낀다.”<br/><br/> 경기 포천시에 있는 ‘모현호스피스’(모현의료센터)를 다룬 다큐멘터리 <목숨>(2014년)의 일부다. 다큐멘터리는 “호스피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평균 생존기간은 21일”이란 자막으로 시작된다. 21일 동안 등장인물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과 이별한다. 영화는 ‘영원한 이별’을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을 담담히 기록한다.<br/><br/> <목숨>의 등장인물은 모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를 택했다. 관련 법이 내년 2월 시행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다. 2016년 초 제정돼 예고기간 2년을 채웠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세간의 관심은 합법적인 ‘연명의료 중단’에 쏠렸다. 법안의 핵심이라 할 호스피스엔 외려 관심이 적다. 호스피스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직 우리한테는 많이 낯설다.<br/><br/> 법이 만들어진 배경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이 있다. 두 사건 모두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선 퇴원을 요청한 보호자와 이를 허락한 의사가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반면 김 할머니 사건에선 대법원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한 보호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에서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였다.<br/><br/> 그때 만들어진 ‘연명치료 중단 기준’은 다듬어져 법이 됐다. △환자가 회생이 불가능한 임종기이거나, 수개월 안에 사망할 ‘말기환자’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전문의 2명의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하며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는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사전지시가 없는데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신념에 관한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 혹은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이 ‘의향’을 국민 누구나 미리 밝혀둘 수 있게 됐다.<br/><br/> 지난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사무실에서 만난 이인자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0'>시범사업 이후 70~80대 어르신들이 하루에도 30~40명씩 찾아온다</span>”고 했다. 이곳에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을 받고, 이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문서는 시범사업이어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 국장이 보여준 의향서 등록 대장엔 153번까지 순번이 기록돼 있었다. 상담만 한 뒤 돌아간 이들도 있었다.<br/><br/> 찾아오는 이들 중엔 홀로 사는 노인이 많았다. 그들은 대개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임종기’나 ‘말기’에 대한 지식도 없다. 한 노인은 이 국장에게 “<span class='quot1'>치료가 어려우면 괜한 돈 들이지 말고 그냥 죽여줬으면 좋겠다</span>”고 했다. 루게릭병 환자인 듯한 이는 전화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자연스레 생을 마감하는 존엄사와 죽음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안락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br/><br/> 실천모임에선 이미 2010년부터 의향서를 받았다. 벌써 30만명분이 작성돼 있다. 이곳에선 새 법정 양식에 맞춰 다시 쓰는 일도 돕는데, 이 국장은 “<span class='quot0'>상담 인력과 공간이 빠듯하다</span>”고 했다. 정부 예상보다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것이다. 특히 호스피스 홍보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의향서에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는데, 이 국장은 “<span class='quot0'>많이들 망설이거나 고민하다 번복한다</span>”고 했다. 호스피스는 지난 8월부터 기존 말기암에 더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으로 대상 질환을 확대했다. 해당자라면 호스피스 비용의 5~10%만 부담하면 되지만, 이를 아는 이가 드물고 상당수는 ‘괜한 비용’으로 여긴다.<br/><br/> 일반인의 인식과 달리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은 호스피스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펴낸 ‘죽음의 질’ 보고서(2015년)에서 조사 대상 80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한 영국은, 50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호스피스 개념을 도입했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2001년(한국은 2015년)부터 이뤄졌다. 영국이 2008년 만든 ‘좋은 죽음’ 개념을 보면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고통 없이 죽어가는 것’이다. 가족들과 제대로 된 이별도 못한 채 차디찬 병원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우리한테는 먼 나라 얘기다. 실제 우리 국민 대다수는 병원에서 숨진다.<br/><br/> 2014년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원하는 임종 장소를 ‘가정’이라 답한 이는 전체의 57.2%였다. 이어 19.5%가 호스피스, 16.3%가 병원, 5.2%가 요양시설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 임종 장소는 가정이 줄고 병원이 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1년까지만 해도 임종 장소의 74.8%가 가정이었다. 2014년엔 단 16.6%만 가정에서 숨졌다. 반면 1991년 15.3%에 불과했던 병원은 2014년 73.1%로 급증했다. 선진국과도 차이가 크다. 2011년 기준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13개 질환 기준)는 미국이 52%, 캐나다 40.8%, 영국 46.6%, 대만 39%였다. 한국은 5.6%다.<br/><br/> ‘죽음을 이야기하는 의사’로 알려진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호스피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웰다잉’ 문화 조성, 곧 ‘국가웰다잉책임제’를 강조한다. “핵심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둘러싼 의학적·법률적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가 불가능해져 죽어가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br/><br/> 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면, 호스피스는 질병보다는 ‘질병을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보살핌이 가능한 곳이다. 가족과 친구 등 남은 이들과의 관계나 경제적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게 돕고, 자서전 작성이나 심리치료 등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남은 가족도 보살핀다. 하지만 지금은 호스피스 환자의 50%가 입원 2주 안에, 75%는 한달 안에 숨진다.<br/><br/> 좀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려면 사회 전반의 인식과 인프라가 바뀌어야 한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합법화는 이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윤 교수는 “호스피스 확충을 위한 공익재단이 필요하다.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닌 ‘완성’이 되도록 우리 사회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 박기용 기자 xeno

언론사: 한겨레-1-61.txt

제목: 영국에선 말기암환자 95% 호스피스 이용  
날짜: 20171113  
기자: 박기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13184905001  
ID: 01101001.2017111318490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영국은 호스피스를 처음 제도화한 나라다. 1967년 런던에 세워진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가 시작이다. 호스피스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 높다. 자원봉사자가 전국에 12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환자를 위해 음악회를 열거나 미술치료를 돕는다. 국민의료보험에서 호스피스 운영비의 30% 정도를 지원하는데, 나머지를 모금으로 조달한다. 영국에선 말기 암 환자의 95%가 호스피스를 이용한다.<br/><br/> 대만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죽음의 질’ 1위(<이코노미스트> 2015년 조사)로 꼽힌다. 역시 호스피스 구실이 크다. 수도 타이베이 외곽에 위치한 ‘매케이 기념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 베란다가 딸린 널찍한 병실엔 환자를 최대 두 명까지 받는다. 가족들이 머물 공간도 있다. 병동 중앙엔 피아노와 소파, 책장이 놓여 병원이라기보단 고급 숙박시설을 떠올리게 한다. 환자와 간호사 비율이 1 대 1이고 의사 1명이 맡는 환자도 5명을 넘지 않는다. 대만 역시 말기암 환자의 절반 이상(56%, 2015년)이 호스피스에 머물다 세상을 떠난다. 암을 비롯해 루게릭병, 노인성 치매 등 8개 질환 환자의 호스피스 비용을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br/><br/> 일본은 가정 호스피스 수요가 많다. 최근엔 말기 암 환자들이 생의 끝에서 병원보다 집에 머물렀을 때 생존기간이 길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의사·간호사가 직접 말기 환자의 자택을 찾아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일본에서는 흔하다. 환자가 병원에 마련된 가정간호병동을 이용하기도 한다. 관련 비용은 역시 정부가 책임진다.<br/><br/> 한국에서도 지난해부터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의 5%만 내면 되지만 이용률은 아직까지 매우 낮다. 박기용 기자 xeno

언론사: 한겨레-1-62.txt

제목: [왜냐면]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라고요? / 백지현  
날짜: 2017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13175905001  
ID: 01101001.2017111317590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백지현 주부<br/><br/> 몇해 전 자주 목이 잠기고, 무언가 만져져 검진을 받았다. 갑상선암이었다. 그길로 수술을 받았다. 막내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세번을 울었는데 처음은 암 선고를 받은 날이었고, 두번째는 수술을 마치고 정신이 들었을 때였다. 입안 가득 건조했고 정신이 아득했지만 살았다는 기쁨에 눈물이 흘렀다.<br/><br/> 세번째 눈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흘렸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위해 아이들과 보름간 떨어져 지냈을 때였다. 알약 하나만 복용하면 되는 간단한 치료지만 방사능 물질이 있는 약이니 퇴원을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며칠간 지냈다. 첫날밤 첫째 딸이 전화를 걸었다. 늘 동생을 살뜰히도 챙겨 다 큰 줄만 알았던 첫째가 울며 떼를 썼다. “<span class='quot0'>며칠 밤을 더 자야 집으로 돌아오냐</span>”며. 이런 생이별이 또 있을까? 치료를 위해 2주 동안 저요오드 식단을 하고, 4주간 호르몬제를 중단하며 이미 육체적, 심적으로 지친 상태라 그리움은 더했다.<br/><br/> 갑상선암 환자 중에 수술 뒤 5년 안에 재발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다. 필자는 현재까지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커 일년에 두번씩 추적검사를 받고 있다. 갑상선암은 수술 뒤 관리가 더 번거로운 암이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할 때도 그렇지만 추적검사를 받을 때도 갑상선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호르몬제를 최대 한달간 끊어야 한다. 호르몬제를 끊지 않고 주사를 맞아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경험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나는 보험 대상자가 아니란다. 보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대부분의 환자가 큰 비용을 내야만 약을 쓸 수 있다.<br/><br/>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라던데?’라며 쉽게 말을 던진다. 이 말에 환자들은 더 상처를 받는다. 이제는 갑상선암 환자의 수술 뒤 치료나 검사할 때 받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언론사: 한겨레-1-63.txt

제목: 훔쳐왔다, 신이 사용한 가위를  
날짜: 20171109  
기자: 임종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09195826001  
ID: 01101001.2017110919582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김홍표의 크리스퍼 혁명<br/><br/> 김홍표 지음/동아시아·2만원<br/><br/> <br/><br/> DNA 혁명, 크리스퍼 유전자가위<br/><br/> 전방욱 지음/이상북스·1만8000원<br/><br/> <네이처> <사이언스>는 2015년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꼽았다. 그것은 분자 수준에서 쓰이는 초소형 가위인데, 긴 유전자 꽈배기 선에서 특정 부분을 잘라내 없애거나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효소를 말한다.<br/><br/> <김홍표의 크리스퍼 혁명>과 < DNA 혁명,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모두 국내 연구자의 저술. 독자를 흥미진진한 ‘유전자가위’ 세계로 안내한다. 전자가 개념과 원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자는 응용 실태와 사회적 파장에 무게를 두었다. 최신·심층기술인 만큼 불가피하게 비유법을 많이 쓴다.<br/><br/> 크리스퍼(CRISPR)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분포하는 짧은 회문구조 반복서열’을 뜻하는 영어의 첫 글자. 회문구조는 ‘소수 만 병만 주소’처럼 앞뒤로 읽어도 똑같은 구조를 말하는데, 이런 구조의 유전자는 표지 구실을 하며 유전자가위는 이를 인식하여 잘라내는 능력이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오자를 찾아내 바꾸는 아래아 한글의 ‘찾아바꾸기’ 기능을 떠올리면 된다. 유전병, 암 등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기존의 유전체에 새로운 유전자를 주입함으로써 해충, 침입종을 박멸하거나, 멸종 동물을 복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br/><br/> 혁신적인 만큼 위험도 크다. 질병 치료부터 ‘디자인 베이비’ 만들기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싼 가격과 함께 계급 분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감당할 능력이 있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은 복지·수명 차이는 물론 인종 자체가 달라질지도 모른다. ‘유전자가위’라는 명명은 가위가 일용의 쓸모와 인위적 조작을 내포하는 점에서 적절하다. 임종업 기자 blitz

언론사: 한겨레-1-64.txt

제목: 하늘의 별이 된 메이저리거들  
날짜: 20171109  
기자: 김동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09141317002  
ID: 01101001.20171109141317002  
카테고리: 스포츠>스포츠일반  
본문: 메이저리그 양대리그 사이영상 수상자이자 퍼펙트게임 달성자 로이 할러데이(40)가 8일(이하 한국시각) 비행기 사고로 숨진 데 이어 9일에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포수 유망주 대니얼 플로레스(17·베네수엘라)가 암 치료 도중 합병증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br/><br/> 하늘의 별이 된 메이저리거들의 갑작스런 죽음은 팬들을 큰 슬픔에 젖게 했다. 지난 시즌에는 카리브해 출신의 두 특급 유망주가 잇따라 숨지는 비보가 전해졌다. 2013년 내셔널리그 신인왕을 수상한 ‘쿠바 특급’ 호세 페르난데스(당시 24살·마이애미 말린스)가 지난해 9월25일 보트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올해 1월22일에는 100마일(시속 160㎞)을 던지는 강속구 투수로 2015년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한 축을 담당했던 요다노 벤추라(당시 26살)가 고국인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둬 메이저리그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br/><br/> 어처구니 없는 죽음도 종종 있었다. 메이저리그 초창기였던 1899년 타율 0.410으로 타격왕과 타점왕에 올랐던 에드 델라한티(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은퇴 무렵 열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다 쫓겨난 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끝내 의문사로 남은 그는 1945년 뒤늦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레이 채프먼(클리블랜드 냅스)은 1920년 8월16일,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 도중 칼 메이스가 던진 공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그의 죽음은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계기가 됐다.<br/><br/> 실력과 인성을 겸비해 명망이 높았던 로베르토 클레멘테(당시 38살)는 1972년 니카라과 지진 피해 현장에 구호물품을 싣고 가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바다에 떨어진 그의 주검은 끝내 찾지 못했고, 해마다 사회봉사에 적극적인 메이저리그 선수에게 주는 ‘로베르토 클레멘테상’으로 그의 발자취를 기리고 있다. <br/><br/>김동훈 기자 cano

언론사: 한겨레-1-65.txt

제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문제 제기 의사 부당해고 논란  
날짜: 20171107  
기자: 김영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07160854001  
ID: 01101001.2017110716085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방사선의학 암 전문 연구병원인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암 면역치료 임상연구의 문제점을 제기한 의사를 해고하자, 노조가 “내부고발에 따른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나섰다.<br/><br/>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를 받아 2011년부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수지상세포는 몸의 면역조절에 중추적인 구실을 하는 세포다. 암 환자의 수지상세포를 이용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유도하는 방법의 항암치료가 임상시험의 내용이다.<br/><br/> 이와 관련해 2015년 12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면역치료기법을 적용해 암 환자들이 4년째 재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다. 하지만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의학원 의사 김아무개씨는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담당 정부기관에 “내가 맡은 폐암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한 뒤 폐렴으로 숨지는 등 암 환자 2명이 숨졌고, 또 다른 환자의 암은 뇌 등으로 전이됐다. 하지만, 의학원은 언론 등에 이를 숨기고 거짓말했다.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임상시험은 중단해야 한다”고 제보했다. 이후 의학원은 지난 3일 2년 연속 저성과를 이유로 김씨를 해고했다.<br/><br/> 노조는 “의학원은 언론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실을 밝힌 김씨를 내부고발자로 규정하고 표적 인사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로 몰아 부당해고했다. 앞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잘못된 일을 보더라도 자신이 입을 불이익 때문에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고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br/><br/> 의학원은 “암 환자 2명은 면역치료 뒤 임상시험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질환으로 숨졌다. 암이 전이된 환자 2명도 면역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제보자가 김씨였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 김씨의 제보로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감사 등 내·외부 감사를 받았지만 부적합 사항은 없었다. 간호사 인격모독, 근무 태도 불량에 따른 징계처분, 의료과실 등으로 김씨를 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br/><br/> 이에 김씨는 “원인이 어떻든 해고 사유는 간단하다. 2년 연속 저성과다. 의학원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뒷받침하는 실체적 증거가 없는 등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문제의 본질은 세금이 들어가는 임상시험 연구의 진실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의학원이 해고 사유를 덧붙이는 것은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되받았다.<br/><br/> 김영동 기자 ydkim

언론사: 한겨레-1-66.txt

제목: 11월 6일 알림  
날짜: 2017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06011825001  
ID: 01101001.20171106011825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 평화통일시민연대는 동북아역사재단과 7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당에서 독도, 센카규제도 비교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논리를 반박하고, 한국의 정당한 입장을 정립하고자 ‘센카쿠제도를 통해본 독도문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제70회 평화전략학술포럼’을 연다. <br/><br/>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6∼17일까지 50+ 세대가 보유한 우수교육 콘텐츠를 공모한다. 누리집(50plus.or.kr/swc) 참조. <br/><br/> ◇ 인디하우스는 지난달 27일 전국 유일의 독립영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았다. 강원도 강릉시에서 독립영화 중심의 영상문화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br/><br/> ◇ 경기대는 3일 수원교정 종합강의동 최호준홀에서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에게 모교의 명예를 높이고 국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명예체육박사학위를 수여했다. <br/><br/> ◇수원대는 LA한인상공회의소와 지난달 31일 본교에서 학생들의 해외취업과 공동창업, 국제교류 등을 상호협력하기로 협의했다.<br/><br/> ◇ 성신여대는 3일 오후 2시 서울 미아동 운정그린교정 중강당에서 간호정신을 되새기고 희생과 봉사의 자세를 다짐하기 위한 ‘제1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열었다. <br/><br/> ◇ 삼육대 신학대학은 1일 교내 대학교회에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돌을 맞아 기념 신학포럼 ‘종교개혁과 재림신앙, 역사적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열었다. <br/><br/> ◇ 서경대는 성북구청과 공동으로 6일 본관 8층 컨벤션홀에서 기업의 현직 전문가들을 취업 멘토로 초청해 취업준비생 및 청년들에게 취업 비법을 전수하는 ‘현직 멘토와의 잡생각’을 연다. <br/><br/> ◇ 서울시는 한옥주거지 서울 북촌에서 11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북촌문화요일'을 열고 다양한 마을 안내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02)741-1033. <br/><br/>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서울 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직원과 직원 가족들이 직접 만든 경제·금융분야의 점자 도서 11권을 기부했다. <br/><br/> ◇ 도요타코리아는 오는 1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에서 ‘도요타 클래식' 자선공연을 연다. 공연 수익금은 모두 ‘도요타 자선 병원콘서트' 재원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연에서는 TV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에 출연한 듀에토(백인태·유슬기), 이동신, 손태진이 한국방송교향악단과 함께 공연을 펼친다. 입장권은 인터파크(1544-1555)에서 구매할 수 있다. <br/><br/> ◇ 경암교육문화재단은 3일 오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제13회 경암상 시상식을 열고 김경동 서울대 명예교수 등 5명에게 각각 상금 2억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인문·사회 부문 김 명예교수, 자연과학 부문 염한웅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생명과학 부문 윤태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공학 부문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수상했다. 또 승효상 동아대 석좌교수가 특별상을 받았다.<br/><br/> ◇ 유한재단은 3일 북한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수학 중인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북한 출신 대학생들에게 총 1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br/><br/> ◇ 서울대 평의원회는 3일 제15기 의장에 김병섭 교수를, 부의장에 이철수 교수를 각각 선출했다.<br/><br/> ◇ 코오롱사회봉사단은 4일 도보 코스인 삼남길에서 장애인과 함께 걸은 거리만큼 기부금을 적립하는 ‘꿈을 향한 삼남길 트레킹' 행사를 했다. 한 명이 1km를 걸을 때마다 코오롱사회봉사단이 1천원의 기금을 적립해 복지기관에 기부했다.<br/><br/> ◇ 두산연강재단은 5일 ‘두산연강학술상 외과학 부문' 수상자로 국립암셈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김영우 교수와 이대목동병원 외과 오보영 임상조교수를 선정했다. <br/><br/> ◇ 맘스터치는 지구방위대FC가 도전팀과 풋살 대결을 펼쳐 승리할 때마다 100만원의 기부금을 적립하는 ‘맘스터치와 함께하는 전국민 풋살 매치 프로젝트’를 통해 모은 기부금 2100만원을 3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br/><br/> ◇ 산업은행은 3일 서울 도봉구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발달장애인 30여명과 함께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행사를 했다.

언론사: 한겨레-1-67.txt

제목: 11월 3일 문학 새책  
날짜: 2017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02194828001  
ID: 01101001.20171102194828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꿈을 찍는 사진사 소설가 박완서가 1978년에 펴냈던 소설집을 새로운 편집과 장정으로 다시 출간했다. 표제작과 ‘창밖은 봄’ ‘꼭두각시의 꿈’ ‘우리들의 부자’ 등 네 작품이 묶였다. “<span class='quot0'>늙을수록 조금씩 더 나은 작품을 쓸 자신이 있고, 여사 티 안 나게 조촐하고 다소곳이 늙을 자신도 있다</span>”는 ‘작가의 말’이 인상적이다. /문학판·1만4000원.<br/><br/><br/><br/> 사라진 요일 늙지도 않고 암에도 면역력을 지니는 라론 증후군을 소재로 한 소설. 소설가 정원에게 어느날 익명의 협박 편지가 배달된다. ‘널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복수할 그날을 위해 난 또 오늘을 산다.’ 편지의 비밀을 풀고자 친구들과 고향으로 향한 정원은 그곳에서 늙지 않은 경훈과 맞닥뜨린다. 이현수 지음/자음과모음·1만3000원.<br/><br/><br/><br/> 안녕,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을 겪고 무미건조하게 살아오던 여자가 어느 날 외계 존재와 교신을 통해 실종된 사람을 찾아준다는 남자를 만난다. 외계 존재와 교신하는 ‘채널링’을 위해 서로의 상처를 솔직히 털어놓는 가운데 두사람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제대로 이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배지영 소설. /은행나무·1만3000원.<br/><br/><br/><br/> 배반 미국 국적으로는 처음으로 2016년 맨부커상을 받은 폴 비티의 수상작. 로스앤젤레스 교외 가상 마을을 무대로, 노예 제도와 인종분리 정책이 현대에 다시 도입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은근히 차별받느니 노골적인 노예 생활이 낫다고 판단한 흑인 주인공을 내세워 미국 사회의 허위의식을 신랄하게 까발린다. 이나경 옮김/열린책들·1만3800원.<br/><br/><br/><br/> 표절에 관하여 표절에 관한 책을 꾸준히 내고 있으며 표절 관련 인터넷 사이트(leplagia.net)도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문학 교수 엘렌 모렐앵다르의 저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표절의 약사, 표절 관련 소송의 전말, 표절에 관한 비판과 옹호, 저작권과 표절의 관계, 표절의 ‘이웃’ 패러디와 패스티시 등을 두루 다룬다. 이효숙 옮김/봄날의책·2만3000원.

언론사: 한겨레-1-68.txt

제목: 위 내시경 때 종양 제거, 암 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  
날짜: 20171102  
기자: 김경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02145807001  
ID: 01101001.2017110214580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ㄱ씨는 건강검진을 할 때 받는 위 내시경 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 <br/><br/> 금융감독원은 2일 암 보험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벌어지는 주요 분쟁 사례를 정리해 소개했다. 우선 ㄱ씨처럼 위 내시경 검사 단계에서 종양이 발견된 것만으로는 암 진단비를 받기 어렵다. 금감원은 “<span class='quot0'>암 보험 약관에서는 대부분 암 진단이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약관에 따른 방법으로 진단이 확정된 게 아닐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 진단 시점도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준다. 암 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 계약 체결 직후가 아닌 90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금 규모가 큰 만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면책 기간’을 둔 것이다. 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 이 면책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br/><br/> 유방암처럼 스스로 알아내기 쉬운 암은 면책 기간 90일 외에 추가로 90일 동안은 진단을 받더라도 진단비 보험금 10%만 받는다. 이 역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금감원 쪽 설명이다. 암 진단비 시점은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 기준이다. 조직검사를 한 날이나 진단서가 발급된 날이 아니다. <br/><br/> 암 입원비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할 때만 받을 수 있다. 통원치료가 충분한 사람이 입원하지 않도록 하려고 만들어진 약관 내용이다. 암 진단을 받고 종양 절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비를 받을 수 있으나 이후 항암 부작용이나 수술 부위 통증 등으로 다시 입원한다면 입원비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암의 직접적 치료 목적 입원은 아니라고 본다는 뜻이다. 종양 제거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치료 등에 따른 입원이 암 직접 치료에 해당한다.<br/><br/> 김경락 기자 sp96

언론사: 한겨레-1-69.txt

제목: 엄마곰, 아빠곰, 애기곰…정말로 함께 살아?  
날짜: 2017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101080811001  
ID: 01101001.20171101080811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곰 세 마리가 한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이란 노래가 있다. 아빠랑 엄마와 아기가 가족으로 함께 산다는 말이다. 정말 곰이 이렇게 살까? 아니다. 엄마 곰은 얘기 곰이랑 살다 다 커서 번식 시기가 도래하면 분가시킨다. 나중에는 엄마 곰 혼자 살거나 옆집 아줌마 곰들과 어울려 지낸다. <br/><br/> 그럼 아빠 곰은? 아빠 곰은 다른 수컷 곰이랑 함께 산다. 이 수컷 무리에는 결혼한 적이 있는 기혼도 있고, 총각도 있다. 수컷 무리에 살다가 발정기 때 암컷 무리에 불려가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만 ‘가족’이다. 코끼리도, 호랑이도, 말도, 대부분의 포유류가 이렇게 산다. 부부끼리 살지 않는다. 따로 사는 수컷은 자식이 태어나도 돌봐야 할 몫을 짊어지지 않는다. <br/><br/> 새도 그럴까? 아니다. 조류는 번식 기간에 부부가 함께 산다. 암수가 만나 부부가 되고, 서로 협력해서 둥지를 만들고, 번갈아 알을 품는다. 자식이 깨어나면 함께 먹이를 물어다 기르며 돌본다. 자식은 다 커서 스스로 살 수 있을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난다. 자식과 부모 관계는 이것으로 끝이다. 자식의 효도, 봉양 이런 것 없다. 자식의 독립과 동시에 금실 좋던 부부도 남처럼 본체만체하고 살다 다음 해 번식기에 다시 만나 인연을 이어간다. 간혹 다른 짝과 재혼하는 경우도 있다. <br/><br/> 갈매기처럼 바다에 사는 새들은 일부일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환경이 열악한 바다에서는 부부가 협력할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인간들은 경제적 여건이 나빠지면 이혼율이 높아진다. 다른 동물들보다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이해 안 된다. 1998년 구제금융 시기(IMF) 때부터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했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혼 시 경제적인 이유가 3.5%(1996년), 4.2%(1997년), 6.6%(1998년), 7.1%(1999년), 10.7%(2000년)로 계속 증가했다. 여러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동물에게 배울 게 많다. <br/><br/> 그럼, 늑대는? 늑대는 수컷 몇 마리와 암컷이 모여 무리 지어 산다. 우두머리 수컷과 함께 사는 서열이 낮은 수컷은 아직 가족을 꾸릴 능력이 안 된 어린놈들이다. 부부끼리만 살지는 않는다. 태어난 자식은 무리에서 살다 다 크면 무리를 떠난다. 여우도 그렇다. 다 큰 자식이 부모를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어도 어떻게든지 무리에서 내보낸다. <br/><br/> <br/><br/> 부부끼리 사는 동물 흔치 않다<br/><br/> 사람들만 부부끼리 산다. 인간은 번식기가 따로 없어 천생연분 배필로 만나 죽을 때까지 함께 산다. 태어난 자식은 부모랑 함께 살다 다 크면 분가한다. 다 큰 자식이 떠나지 않으면 다른 동물들처럼 등 떠밀어 내보내야 한다. 야생동물처럼 독립시키는 것이 자식이 잘 살길이다. <br/><br/> 동물원에 가 보면 돌산양, 염소, 등 초식동물들이 우글우글 많다. 조류인 홍학도, 원앙도 그렇다. 이런 종에서 부부 개념은 없다. 자연에서 떼 뭉쳐 사는 종이라 야생처럼 살게 해 준 것이다. 부부끼리 또는 단지 몇 마리씩 살게 하면 불안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br/><br/> 덩치가 가장 큰 코끼리는? 모계사회에서 사는 코끼리도 부부끼리 살지는 않는다. 곰처럼 엄마 코끼리가 자식들을 데리고 산다. 코끼리 사회에서 다 큰 아들은 무리를 떠나지만, 딸은 무리에 계속 남아 있다. 그래서 코끼리 가족은 할머니, 엄마, 딸과 어린 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야생에서 코끼리 수컷들은 ‘독신자 클럽’처럼 모여 산다. 그러다 운 좋게 암컷과 눈이 맞은 수컷만 무리에 합류할 특권을 얻지만, 사랑을 나눌 때뿐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동물원에서 암컷 코끼리를 중심으로 몇 마리씩 살게 해 놨다. 동물원에서 코끼리 새끼가 태어나면 무리에서 함께 살게 하다, 다 크면 분리해서 다른 동물원으로 보내든지 따로 옆집에 살게 한다. 다 큰 새끼를 그냥 뒀다간 어미가 독립하라고 괴롭히기 때문이다.<br/><br/> 국내에서 코끼리는 서울동물원에 가장 많다. 서울동물원 코끼리들이 쓰는 면적이 동양에 있는 다른 나라 동물원에 비해 넓은 편이다. 서울동물원 코끼리 있는 곳에 가 보면 칸을 나눠 따로따로 살게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코끼리의 특성을 이해하면, 왜 그렇게 옆집에 살게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br/><br/> <br/><br/> 동물원이 ‘방 배정’ 고민하는 이유<br/><br/> 동물원에서 야생과 달리 암, 수 한 마리씩 부부끼리 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멸종위기종이거나 개체 수가 부족해 새끼를 낳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합방시켜서 그렇다. 금실이 좋아 새끼가 태어나면 아빠를 얼른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아빠가 태어난 자식을 죽일 수도 있어서다. 야생동물 아빠들은 자식이 태어나도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br/><br/> 또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자식을 아빠와 함께 살 경우 아들이 커 가면서 아빠의 괴롭힘이 심해지니 서로 떨어져 살게 해야 한다. 아들이 다 크면 자식이 아니라 경쟁자로 여겨서 못살게 군다. <br/><br/> 동물원에 꽃말, 얼룩말 또는 몽고말이 있다. 어느 말이건 암컷 중심으로 사는 종으로, 수컷 1~2마리, 암컷 3~5마리와 그 자식이 한 무리를 이룬다. 말도 사람들처럼 부부끼리 살지는 않는다. 동물원에서 말을 야생처럼 구성원을 맞춰 살게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지키는 것이 있다. 암컷 무리에 수컷 여러 마리를 함께 살게 하지는 않는다. 발정기 때 우두머리 수컷이 다른 수컷을 괴롭혀서 그렇다. 우두머리 수컷이 암컷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이다. 야생에서 발정기가 끝나면 무리 구성원의 개념이 흐려지면서 말들은 흩어진다. 동물원에서도 발정기 이외의 계절에는 수말 여러 마리를 한 곳에 살게 하기도 한다. 이때엔 언제 싸웠냐는 듯 친하게 지낸다. 결국 수컷들 싸움의 원인은 암컷이다. 사람들도 그런가? <br/><br/> <br/><br/> 주변에서 야생동물을 찾아보자<br/><br/> 야생에서 동물들이 부부끼리 사는지 어쩐지 보려면 서식지에 가 보길 권한다. 영주 소백산 국립공원 종복원기술원 여우 증식장이나 구례 화엄사 근처 반달가슴곰이 있는 곳도 좋다. 야생과 똑같지는 않지만, 야생과 흡사하고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여름철새 번식지도 좋고, 겨울철새 도래지도 좋다. 연못 주위에 앉아 자세히 보면 식물이랑 수서곤충, 양서·파충류도 다 볼 수 있다. 외국의 멸종위기종 서식지도 좋다. 아시아에 서식하는 유인원으로는 오랑우탄이 유일한데, 오랑우탄 서식지인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탄중푸팅 국립공원도 좋다. <br/><br/> 동물의 자연스러운 생활을 보려면 서식지에 가라. 너무 멀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동물원도 좋다. 자연에 비하면 동물원이 인위적이긴 하나 최대한 야생처럼 생활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물에 관한 지식 없어도 눈만 살짝 돌리면 생태설명 안내판, 사육사 노트와 사육사들이 이끄는 설명회가 엄마, 아빠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이다. <br/><br/> 노정래/전 서울동물원장

언론사: 한겨레-1-70.txt

제목: “엄마 저 살고 싶어요” 맑은 아이 이슬이를 찾아온 골육종암  
날짜: 20171030  
기자: 허재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30172906001  
ID: 01101001.2017103017290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 19일 오후 3시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병동의 이슬이(14)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병실 한쪽 침대에 물기 빠진 이파리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침대 옆을 지키고 있던 엄마에게 이슬이가 물었다. “<span class='quot0'>엄마, 오늘 무슨 요일이야?</span>” 항암 치료가 길어져 입원실 생활이 잦은 이슬이는 가끔 날짜 감각을 잊는다. “오늘 목요일이야. 토요일에 챙겨 보는 게임방송 때문에 그렇지? 이슬이 수술 잘 마치고 깨어나면 꼭 게임방송 볼 수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잘 버텨야 해.”<br/><br/> 이슬이는 잠시나마 굳어진 얼굴을 폈다. 여느 또래들처럼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챙겨 보는 게 큰 즐거움인 10대 소녀 이슬이는, 매일 암과의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 한다. 이슬이는 이날도 종양 제거를 위해 수술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벌써 다섯번째 수술이다.<br/><br/>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사는 이슬이는 지난해 초부터 골육종암을 앓아왔다. 엄마 정순분(41)씨는 2015년 말 이슬이로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스스로 아픔을 조리있게 설명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 이슬이를 돌봐야 하는 정씨도 그때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지 얼마 안 되어 수술을 받고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통증이 있다는 허리에 파스를 붙여주며 버티길 3개월, 정씨는 그제야 아이의 몸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다. “<span class='quot0'>찐빵만한 게 등에 크게 올라와 있더라고요.</span>” 놀란 정씨가 급히 이슬이를 데리고 동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볼 것을 권했다. 종합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한 끝에 골육종암 진단을 받았다.<br/><br/> 골육종은 뼈에 생기는 암이다. 대부분 별다른 원인 없이 느닷없이 발병하곤 해서 예방이 쉽지 않다. 발생 부위와 암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다르지만, 진단 당시 다른 곳으로 암이 퍼져 있지 않으면 5년간 생존율이 7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특이하게 골육종암은 보통 청소년기에 많이 발병하는데 암으로 인한 통증을 성장통으로 오해하곤 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슬이 엄마 정씨가 딸의 암 발병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다.<br/><br/> 지난해 3월25일 이슬이는 종양 절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 뒤 이슬이의 폐까지 암이 번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암이 퍼져 있다’는 물리적인 상황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고통이 이슬이를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다.<br/><br/> “엄청 무서운 암이더라고요. 세균 감염이 확대되어서 맹장이 터지고 이슬이의 몸에 난 구멍이란 구멍은 다 헐었어요. 항문이랑 입이랑. 너무 수술을 많이 해서 온몸은 칼집투성이이고. 내 아이의 온몸이 걸레처럼 변해가는 걸 지켜보면서 그래도 부디 살아내기만 바랐어요. 한데 교수(의사)님이 그래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br/><br/> 정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자와의 인터뷰 때 이슬이는 수술실에 들어가고 옆에 없었다. 정씨는 아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는다고 했다. 정씨는 매일을 마음으로 울고 마음으로 암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고 한다. 아픈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다.<br/><br/> “차라리 내가 암에 걸려서 아픈 게 낫지 아이가 아픈 거를 보는 건 가슴이 찢어져요. 왜 하필 이런 병이 내 아이에게 찾아온 걸까. 아침 이슬처럼 맑은 아이로 자라달라는 마음에 이름을 이슬이라고 지었는데, 너무 맑고 깨끗한 아이라 그 무서운 암이 안심하고 찾아온 걸까요.” 이름자 하나에 암이 찾아오련만, 정씨는 아이가 아픈 게 그저 속상하고, 자신의 탓만 같다.<br/><br/> 암은 형편을 보고 찾아오지 않는다. 이슬이네 가정 형편은 아이의 암 치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이슬이 아버지 이희재(52)씨는 일용직 건설현장에서 월 130여만원을 번다. 이씨는 수년 전 교통사고로 아킬레스건을 다쳐 아주 가벼운 노동만 할 수 있다고 한다. 정씨도 고혈압, 목디스크, 당뇨 등을 앓아 진통제를 먹고 하루하루를 버틴다. 두 부부는 이슬이가 안 보이는 데서 매일 고통으로 울면서 산다.<br/><br/> 열심히 살았던 이씨 부부였다. 이슬이가 아프기 전까지는 없는 살림을 쪼개 은행에 2천만원짜리 적금도 들었다. 하지만 한달 100만원 이상씩 드는 이슬이 치료비 탓에 이씨 부부는 빚만 4000만원 넘게 졌다.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갚을 길이 막막했다. ‘카드 돌려막기’라는 굴레에 빠지고 말았다. 빚은 빚을 부른다. 이씨 부부는 사채로 1000만원을 빌려 쓰기도 했다. 이슬이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어쩔 수 없었다.<br/><br/> 다행히 얼마 전부터 이슬이네 가정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돼 약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친척들도 조금씩 이슬이 치료를 위해 돈을 보탰다. 그렇게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서 쓴 이슬이 치료비만 벌써 9000만원이다.<br/><br/> 어떻게든 이슬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내 보려 했지만 지난 8월 암이 다시 재발했다. 이씨 부부는 결국 소아암 어린이 후원단체에 손을 내밀게 됐다. 이슬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로서 무엇이든 하고 싶다. 다행히 이슬이는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항암 치료로 머리칼이 다 빠질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슬이지만, ‘죽고 싶다’는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단다. 지난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병이 깊었지만, 이슬이는 지금까지 병을 잘 이겨내고 있다. 이슬이는 입원해 있는 단국대병원에서 ‘대단한 아이’라고 불리고 있다.<br/><br/> “그렇게 강한 이슬이가 이번에 또 암이 생기니까 ‘엄마, 나 이번에는 죽는 거야?’라고 묻더라고요. 평소에도 늘 밝게 웃으려 노력하던 아이였는데 이번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그래요. 이슬이는 (미술관)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했는데 자신은 꿈이 있으니까 ‘엄마 나 꼭 더 살게 해달라’며 부탁했어요. 어떻게든 이슬이를 살려야 해요.” 정씨는 다시 한번 왈칵 눈물을 쏟았다.<br/><br/> “이슬이는 어려서 철이 되게 빨리 들었어요. 이슬이가 네살 때였는데 제가 몸살로 아파 누워 있었어요. 이슬이가 밖에 나가서 쌍화탕을 사 온 거예요. 식을까봐 품에 꼭 안고 왔더라고요. 돈은 엄마 서랍을 뒤져서 알아서 찾았대요. 엄마 아빠 일 나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제 동생들 다 챙겨서 먹이고 그랬던 애인데, 저렇게 착한 애가 지금 아파서 누워 있어요.” 엄마의 말 마디마디에 이슬이에 대한 사랑과 자랑스러움, 미안함이 섞여든다.<br/><br/> 며칠 전 이슬이는 정씨에게 “엄마 미안해”라고 귓속말을 했다고 한다. 엄마가 진통제를 먹어가며 자신의 병수발을 드는 것을 지켜보는 게 이슬이도 힘겨웠나 보다. 정씨는 그럴수록 더욱 힘을 낸다. “<span class='quot0'>사람들은 저더러 애를 요양병원에 보내보라고 하던데 어떻게든 제가 돌볼 거예요.</span>” <br/><br/> 미국 작가 오 헨리의 소설 <마지막 잎새>에는 폐렴을 앓는 존시가 늦가을 창밖의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며 자신의 생명도 곧 꺼져갈 거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온다. 존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고 삶을 포기해 간다. 하지만 창밖의 담쟁이덩굴에 마지막으로 걸려 있던 잎새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살아 있는 걸 보고 삶의 용기를 되찾는다. 그 잎새는 한 노인이 그린 벽화였지만, 병마에 시달리던 존시에게는 병을 이기게 해준 가슴 따뜻한 치료제였다.<br/><br/> 정씨 부부는 기도한다. 부디 이슬이의 병실 창문 밖에도 생명의 잎새가 그려지기를. 늦가을 존시가 겪은 것 같은 기적이 이슬이의 마음에도 일어나 주기를. 이슬이의 작고 연약한 폐 18군데에 자리잡고 있는 암 덩어리가 제발 이슬이의 몸에서 떠나가 주기를.<br/><br/> 이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정씨 부부는 아이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이슬이가 왈칵 눈물을 쏟자 엄마가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다. 이슬이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씩씩하게 수술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슬이를 찾아온 추운 가을·겨울이 따뜻한 봄으로 이어지길.<br/><br/> 허재현 기자 catalunia

언론사: 한겨레-1-71.txt

제목: 발암물질 비소 함유 엘이디 조명 폐기물 관리 구멍  
날짜: 20171030  
기자: 김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30101919001  
ID: 01101001.20171030101919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엘이디 조명이 환경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아무 조처 없이 그냥 버려지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br/><b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환경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환경부가 엘이디 조명에 생산량과 배출량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엘이디 조명 생산·배출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도 없고, 산업매출액에 대해서만 2012년 약 4조3천억원, 2020년 15조5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란 것이다. <br/><br/> 정부는 2011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2020년까지 엘이디 조명 보급률을 국가 전체로는 60%, 공공기관은 100%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 ‘녹색 엘디디 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br/><br/> 엘이디 조명은 일반 백열등은 물론 형광등보다 전력 소모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이 노출되면 메스꺼움, 구토, 심장 박동 이상, 혈관 손상, 폐암, 방광암, 피부암 등 각종 암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들어 있어 폐기 때 주의가 필요하다. 2015년 5월 환경부의 ‘형광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서도 2020년에 기존 엘이디 교체로 엘이디 조명기기 폐기물이 다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재활용과 유해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br/><br/> 하지만 환경부는 중금속인 수은이 포함된 형광등은 2014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리 수거함에 버리도록 해 수은이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고 있으나, 엘이디 조명을 별도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일반 폐기물과 함께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이 지적이다.<br/><br/> 임 의원은 “<span class='quot0'>환경부가 연구 용역을 통해 엘이디조명 재활용과 유해물질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1급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엘이디 조명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엘이디조명 내 유해물질 처리방법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엘이디조명을 조속히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김정수 선임기자 jsk21

언론사: 한겨레-1-72.txt

제목: [본방사수] 어금니 아빠를 파헤친다  
날짜: 20171027  
기자: 남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27163839001  
ID: 01101001.20171027163839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어금니 아빠’ 카메라 뒤 진짜 모습은?<br/><br/> 그것이 알고 싶다(에스비에스 토 밤 11시5분) 여중생 살해범 이아무개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파헤친다. 수많은 방송에 나와 희귀난치병인 ‘거대 백악종’이 유전된 딸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그는 왜 살인자가 됐을까. 방송의 달콤한 유혹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일까. 그의 중학교 동창들은 어린 시절에도 성폭행으로 의심되는 수많은 비행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의 과거에 대한 여러 증언을 듣는다. 부인 최아무개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도 풀어본다. 전문가들은 화장실 창문에서 수직이 아닌 사선 방향으로 떨어진 추락 지점에 고개를 갸웃한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다이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지점이라는 것이다. 아내를 성매매에 내모는 등,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겉모습과 달랐던 가족의 실상도 들여다본다. 이와 더불어 그의 딸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등 남은 과제도 알아본다.<br/><br/> <br/><br/> 히말라야에 개척한 코리안웨이<br/><br/> 영상앨범 산(한국방송2 일 아침 7시35분) ‘코리안웨이 인도 원정대 2부작’ 중 1부. 산악인 김창호와 안치영, 김기현, 구교정, 이재훈으로 구성된 ‘2017 코리안웨이 인도 원정대’가 인도 히말라야 고산 거벽에 ‘코리안웨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차가 다니지 못하는 히말라야 아랫마을인 토시(2450m)에서 시작해 해발 4270m까지 오른다. 추위와 눈보라 등 거친 자연과 싸우며 길을 개척하는 모습 등이 생생하게 그려진다.<br/><br/> 고통스런 연명치료만이 답일까<br/><br/> 다큐공감(한국방송1 토 저녁 7시10분)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 중 24%가 사망 2주 전까지 항암제를 투여받는다. 사망자 3명 중 1명은 끝까지 연명 치료를 한다. 이별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치료받느라 고통 속에 떠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폐암 말기 환자와 아내의 삶을 들여다보며, 죽음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한다.<br/><br/> 왕가위 액션영화에 선 송혜교 <br/><br/> 세계의 명화-일대종사(교육방송 토 밤 10시55분) 왕자웨이(왕가위) 감독이 6년간 기획하고 3년간 촬영해 2013년 개봉한 중국 영화. 중국 마지막 왕조인 청이 몰락한 이후 혼란의 시기를 배경으로, 영춘권의 일대종사인 엽문의 생애를 다룬다. ‘일대종사’란 무술 문파에서 한 시대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스승을 일컫는다. 엽문은 량차오웨이(양조위), 그의 아내 장성은 한국 배우 송혜교, 엽문과 무술로 교감했던 궁이는 장쯔이가 연기한다. 현란한 액션이 볼거리다.<br/><br/> 위기의 소상공인 생존법 찾기<br/><br/> 인터뷰 다큐-우리, 지금 행복한가요(교육방송 토 밤 9시5분) ‘소상공인으로 살아남기’ 편.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21.7%로, 약 557만명에 불과하다. 1963년 이후 가장 수치가 낮다. 줄줄이 이어지는 폐업이 원인이다. 창업 이후 1년 이내 폐업률이 40%를 웃돈다. 전통시장 옆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자신만의 레시피와 철학 갖추기 등 소상공인으로 살아남기 위한 비법을 알아본다.<br/><br/> 또, 또, 또 아이돌을 뽑는다고?<br/><br/> 더 유닛(한국방송2 토 밤 9시15분) 한번의 실패를 경험한 이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꿈을 이룰 수 있게 손을 내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투표하고, 최종 선발된 이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하는 등 여러 설정에서 <프로듀스 101>(엠넷) 등 익히 봐온 프로그램이 연상된다. 가수 비가 진행하고, 샤이니 태민, 현아, 어반자카파 조현아 등이 출연한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

언론사: 한겨레-1-73.txt

제목: “친형 최종길 교수 의문사 밝힌 ‘수기’ 항아리에 숨겨준 의인”  
날짜: 2017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26195851001  
ID: 01101001.20171026195851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가신이의 발자취]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김아멜리아 수녀 영전에<br/><br/> <br/><br/> “1973년 10월26일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정신병동.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이곳을 선택했다. 지금의 나에게 있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후일을 위해 형님의 죽음에 대한 오늘의 한을 생생히 남겨 두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형님에게 반역자의 누명을 씌워 대대적으로 보도한 어제 저녁, 쇼크를 가장하여 이곳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들의 감시 범위 속에 남아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뜻하는 글을 제한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앞으로 우리 가족 또는 고인의 동료 교수, 제자들에게 또 다른 위해가 가해질 경우 공개될 것으로서, 나의 최후의 글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글은 진실 이외 아무 가식도 없는 나의 유언인 것이다.”<br/><br/> 이 글은 1973년 10월19일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사에서 숨진 나의 형,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고문치사 진상을 밝힌 나의 ‘양심선언 수기’ 첫머리다. 나는 1974년 12월31일 자정 무렵, 천주교 응암동 성당으로 숨어들어가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함세웅 신부에게 ‘수기’를 전달했다. 하지만 그 자신 이미 독재정권의 감시 대상이었던 함 신부는 75년 여름께 성당에서 시무하던 수녀에게 맡겼다.<br/><br/> 40여년 전 박정희 군사독재 체제에서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문서를 간직해 세상에 무사히 공개하게 해준 김아멜리아(김옥기·85) 수녀님이 지난 22일 오전 주님 곁으로 떠나셨다. 20여년 전 고국을 떠나 미국에 사는 까닭에, 비보를 듣고도 달려갈 수 없어 짧은 글로나마 추모하고자 한다.<br/><br/> <br/><br/> 1973년 10월 몰래 쓴 ‘최종선 수기’ 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부에 맡겨 75년 응암동성당 시무 수녀들 ‘보관’ 다시 명동성당 홍인수 신부에 전달 89년 ‘최 교수 첫 추도회’ 무사히 공개<br/><br/> <br/><br/> 말기암 연명치료 않고 선종…향년 85 “삶과 죽음 초월한 맑은 모습에 경건”<br/><br/> <br/><br/> ‘그해 여름 피정을 다녀와서 정멜라니아 수녀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샬트르 수녀원의 선임으로서 제가 서류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고심 끝에 ‘양심선언’을 비닐로 여러 번 싸맨 뒤 성당의 수녀원 옆에 있던 장독대의 소금 항아리 속에 깊숙이 묻어 두었습니다.’ ‘1976년 ‘3·1 명동성당 구국선언’으로 함 신부님이 도피하다 구속된 뒤 중정 요원들의 압수수색과 사복경찰들의 감시망을 뚫고 사과상자에 문제 될 만한 서류와 양심선언문을 넣어 비밀리에 명동성당 주교관으로 가져갔어요. 함 신부님의 동기동창이자 김수환 추기경님의 비서였던 홍인수 신부님에게 전달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아슬아슬하게 양심선언문이 살아남은 것 같아요.’<br/><br/> 지난 5월 출간된 <만들어진 간첩-유럽거점간첩단 사건, 그리고 최종길 교수 죽음의 진실>(김학민 지음, 서해문집 펴냄)에 실린 김아멜리아 수녀님의 증언이다.<br/><br/> 그런 숨바꼭질 15년 만인 1989년, 나의 수기는 다시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승훈·함세웅 신부님을 거쳐 <평화신문> 편집국이던 김정남 선생님에 의해 햇빛 속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archives.kdemo.or.kr/isad/view/00480350)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수기 원문을 공개 열람할 수 있다. 여기에 어찌 천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함께하지 않으셨다 할 것인가?<br/><br/> 2001년 봄 서울시청 앞에서 ‘박정희기념관 건립반대’ 1인시위를 할 때, 고 장준하 선생님의 둘째 아들 장호성씨의 탄식도 새삼 떠오른다. “<span class='quot0'>고 최종길 교수님께서는 동생의 ‘양심선언 수기’가 남아 있어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한을 풀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게 없어 진상을 밝히기 어려우니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네요.</span>”<br/><br/> ‘박정희 독재정권 의문사 1호’인 형님의 죽음이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에 작은 초석이나마 될 수 있었다면, 그때 그 시절 김아멜리아 수녀님 같은 분들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임을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br/><br/> 훗날 함 신부님께 전해 들은 김아멜리아 수녀님의 삶은 열린 신앙과 역사적 소명을 위해 헌신한 한평생이셨다. 전남 광주에서 태어난 수녀님은 53년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원에 입회하셨고, 1974년 지학순 주교 구속을 비롯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옥바라지는 물론 가족들의 아픔까지 껴안아 주신 민주화운동의 유공자이셨다. 하지만 한번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적도, 조명을 받은 적도 없으셨다.<br/><br/> 지난 1월 초, 잠시 한국에 머물며 여주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뵌 아멜리아 수녀님의 마지막 모습도 잊을 수 없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도 항암치료는 물론 아무런 생명 연장 노력을 하지 않고 계셨다. 그저 조용히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다. 맑고 깨끗하게, 아름답고 품위 있게, 죽음 앞에 서는 모습에 옷깃을 여미며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br/><br/> 마음이 아프다. 좀 더 사실 줄 알았는데, 아니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기를 기대했었는데….<br/><br/> 제게 죽음을 맞는 자세까지 가르쳐주신 김아멜리아 수녀님, 이제는 주님 곁에서 행복하옵소서. <br/><br/> 워싱턴디시/최종선

언론사: 한겨레-1-74.txt

제목: 사람 무는 ‘문제견’은 행동교정 뒤 입양할 수 있는 독일  
날짜: 2017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26080826001  
ID: 01101001.20171026080826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해가 채 뜨지 않은 아침 7시, 내복 세 겹으로 무장하고 일주일에 세 번씩 집을 나섰다.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30분 걸려 도착한 곳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보트낭 티어하임(동물보호소)다. 이곳에서 한 달 동안 보호견 산책 봉사를 했다. <br/><br/>다리를 절뚝거리던 암브로와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걷던 데릭 그리고 사일라, 라콘차, 피코, 네테. 지난겨울 독일 슈투트가르트 티어하임에서 함께 산책한 보호견들이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약 2시간 남짓 보호견과 산책했다. 이른 아침 눈이 자욱하게 쌓인 숲길과 목줄을 잡느라 빨갛게 얼어버린 손, 다른 봉사자들과 나눴던 인사, 종종걸음으로 따라오던 보호견들과 나눈 추억이 선명하다. <br/><br/>슈투트가르트 티어하임은 개, 고양이, 염소, 양, 파충류와 외래동물, 야생동물 등 총 600~800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개는 실내외를 오갈 수 있는 집에서 지낸다. 일정 시간 돌아가며 더 큰 공간에 머문다. 염소와 양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방목한다. <br/><br/>이들 중 95%가 새로운 집을 찾는다. 암 또는 질병으로 고통이 심한 동물 말고는 안락사는 없다.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사정상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될 때에는 보호소에 약 100~300유로를 지불하고 다시 맡긴다. <br/><br/> <br/><br/>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br/><br/>독일 티어하임(Tierheim)은 ‘동물(Tier)의 집(heim)’이라는 뜻이다. 약 1000여 개의 티어하임이 독일 전역에 퍼져있다. 티어하임은 대개 독일동물보호연합 소속이다. 독일동물보호연합은 전국협회 16곳, 지역협회 740곳과 동물보호소 550곳이 소속되어 있다.<br/><br/> <br/><br/> 동물보호소는 민간이 운영하지만, 슈투트가르트, 뮌헨 등에서는 지자체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다. 슈투트가르트 티어하임은 총 운영비 160만유로의 3분의 1정도를 지자체에게 받는다. 뮌헨 티어하임도 같은 비율의 지원을 받는다. 나머지 운영비는 회원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회원은 연회비로 약 60유로를 지불한다. 미혼이거나 자식이 없는 노년층에서 재산 모두를 기부하는 일도 잦다고 하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을 겪은 세대 여성 중 홀로 지냈거나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재산을 환원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br/><br/>독일은 동물을 생명으로 바라보고 동물에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나라다. 독일 기본법은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2002년 재정)를 명시하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은 1990년 민법에 추가됐다. 가축전염병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동물단체인 ‘세계동물보호’(WAP)가 2014년 발표한 ‘세계동물보호지수’에 따르면, A~G 등급 중 독일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뉴질랜드(A등급) 다음으로 높은 B등급을 받았다. <br/><br/>특히 티어하임은 독일의 동물보호운동에도 앞장선다. 슈투트가르트에 머문 5개월 동안 독일 티어하임을 조사했다.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뮌헨 보호소를 차례로 둘러봤다. 175년 된 베를린 티어하임은 유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보호소다. 뮌헨 티어하임은 독일에서 그 다음으로 유명하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동물보호소는 무엇이 다를까?<br/><br/> <br/><br/>뮌헨: 문제견은 훈련 뒤 입양 가능<br/><br/>뮌헨 티어하임은 각 동물에 맞는 입양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뮌헨 티어하임을 총괄하는 매니저 산드라 길트너는 “입양 절차가 너무 철저하고 엄격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어쩔 수 없다. 입양된 동물들이 행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r/><br/>고양이, 개, 토끼, 햄스터 등 주로 반려동물로 키우는 동물을 입양하려면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5~6주가 걸린다. 토끼와 햄스터 등 설치류, 고양이는 대부분 당일 입양이 가능하다. 특이사항이 없는 고양이는 보호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 본 뒤 입양이 가능하다. <br/><br/>그러나 개 입양은 더욱 꼼꼼히 따진다. 개가 입양후보자와 잘 어울리는지, 얌전하게 구는지를 본다. 몇 가지를 입양후보자에게 질문하고 함께 산책을 나가게 한 다음 결정한다. 질문에는 개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지, 거주지가 어딘지, 마당은 있는지, (노견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는 높은 층의 집인지, 아이 또는 다른 반려동물이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강아지나 훈련이 어려운 개를 입양할 때는 티어하임 관리자가 직접 입양인 집을 방문한다. <br/><br/> 공격성이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개를 입양할 땐 훈련을 받아야 데려갈 수 있다. 처음 2~3시간은 무료로 제공되고 그 후 회당 20유로 정도를 내고 3~5회 훈련을 받게 된다. 길트너는 “한 달에 두 번씩 받는다면 40유로다. 그 정도를 지불할 수 없다면 동물도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티어하임에서 입양할 때 동물에게 심리적 문제가 있는지 많이 물어본다. 맞다. 버려지고 소외되는 등 아픈 사연을 가진 동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동물이 잘못된 행동을 익히는 일도 많다”고 설명했다. <br/><br/>뮌헨 티어하임에서는 정년퇴직 등으로 쉬고 있는 노인층의 반려동물 복지도 지원한다. 반려동물의 먹이와 예방접종, 건강관리를 책임진다. 반려동물이 급히 수술해야 한다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추가 비용은 반려인이 분할 지불할 수 있게 한다.<br/><br/>뮌헨 티어하임은 현재 800여 마리 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 사람이 일반적으로 키우는 반려동물과 오리, 염소, 새, 다람쥐 등 농장·야생 동물도 관리한다. 고양이는 실내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개는 실내외를 오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주어진다. 오리에게는 작은 호수가, 그 외의 동물에게도 특성에 맞는 보금자리가 마련된다. 수의사 및 관리사는 총 60명으로 10~15명이 일하는 대부분 동물보호소에 비해 많다. <br/><br/> <br/><br/>베를린: 시민들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br/><br/>짚으로 안락하게 꾸며진 철장에서 관리자가 토끼를 꺼내 들었다. 여자아이와 부모가 미소 지었다. 토끼를 안은 관리자가 토끼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 한참을 설명했다. 가족 모두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가족은 토끼 두 마리를 입양했다. 베를린 티어하임은 활기찼다.<br/><br/>축구장 21개의 면적(16만㎡)인 베를린 티어하임은 개, 고양이, 양, 돼지, 파충류, 원숭이 등 약 1400마리를 관리하고 있다. 고양이 약 400마리, 개 360마리, 설치류 및 토끼류 100마리, 원숭이 14마리와 돼지, 염소, 양, 닭, 오리, 파충류 등 동물들은 각 종에 따라 분리된 건물 또는 공간에 머무르고 있다. 실험 및 서커스에서 구조된 원숭이 14마리를 제외한 동물 대부분은 시간 차는 있더라도 모두 새로운 가족을 찾는다. <br/><br/> 티어하임에서 일하는 모이에르는 “가족 단위에서는 원숭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찾을 수 없고 동물원 또한 보살필 공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원숭이를 제외한 모든 동물은 나이와 종류를 불문하고 짧게는 며칠 만에도 새로운 가족을 찾는다"라고 말했다. 티어하임은 입양을 위해 찾은 가족과 연인, 봉사자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br/><br/>베를린 티어하임은 약 8백만 유로(약 99억원)가 연간 운영비가 필요한데, 대부분은 기부금과 회비로 충당된다. 회원이 15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후원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독일 동물보호단체 중 가장 많은 회원 수를 자랑하며 유럽 내에서도 잘 관리된 동물보호소로 인정받고 있다. <br/><br/>베를린 티어하임은 동물 보호·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출연을 통해 동물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동물복지 관련 현안에 목소리를 낸다. 티어하임에서는 주말마다 투어가 있다.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두 명의 가이드가 티어하임 곳곳을 돌며 설명해준다. ‘동물수업’(Tierischen Klassenzimmer)이라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수업에서는 동물복지에 관해 배우며 동물을 체험할 수도 있다. <br/><br/><br/><br/>개·고양이 팔지 않는 이유<br/><br/>독일에는 개나 고양이 등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가게가 없다. 티어하임에서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 브리더와 개인 브리더에게 입양하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크게 상업화되어 있지 않다. 전문 브리더에게 입양하면 2000유로에 달하는 큰 비용이 들며, 개인 브리더에게 입양하는 건 신뢰하기 힘들어 보편적이지 않다고 한다. <br/><br/>슈투트가르트 티어하임의 티나 그로스는 “독일에선 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다. 비싼 값을 주지 않고 입양할 수 있고, 해당 동물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얻기 때문에 티어하임에서 입양하는 게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br/><br/>독일 티어하임이 동물복지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유는 동물보호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의식 때문이다. 티어하임 시설이 낙후될 경우 시의 자문위원회와 면담을 통해 수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대개는 수용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티어하임이 뮌헨을 대표하는 시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길트너는 “만약 시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론에 이를 알린다. 시민들은 이에 분노한다. 170억 유로가 교육에 쓰이는데 동물보호소에 고작 200만 유로조차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br/><br/>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1000만을 넘었다. 여전히 서울 충무로 애견거리엔 사각형 유리에 똑같이 생긴 강아지들이 갇혀 진열돼있다. 연간 버려지는 유기견은 9만 마리로 추정된다. 그 중 35%만이 새로운 가족을 찾는다. 동물보호단체나 일부 사설 보호소가 아닌 지자체 보호소로 간다면 약 10~20일 이내에 안락사 된다. 반려동물 수요는 늘어나고, 강아지들은 생산된다. 쉽게 구매할수록 버려지는 동물도 늘어난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br/><br/>글·사진 임세연 객원기자 seyounyim@gmail.com

언론사: 한겨레-1-75.txt

제목: 문제는 사람인데, 모든 개에 입마개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날짜: 2017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24134909001  
ID: 01101001.20171024134909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의 학명은 카니스 루푸스 파밀리아리스(Canis Lupus Familiaris)입니다. 이름에 ‘가족’이 들어가는 이 동물은 적어도 1만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다른 가축을 지키거나 인간의 사냥을 도우면서 시작된 개와 인간의 관계는 점차 다양한 목적으로 세분되었습니다. 인간은 개의 뛰어난 후각과 청각을 이용해 마약이나 폭발물을 탐지하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맡기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개는 먹기도 했고 투견이나 경주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br/><br/> 21세기인 지금 개는 ‘반려동물’의 대명사나 마찬가지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사회에서만 1000만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동물이 어쩌다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요?<br/><br/> 지난 몇 달 사이에 개에게 인간이 물린 사고가 수차례 일어났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이 ‘개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간을 문 개를 안락사시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심지어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목소리가 퍼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의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어느새 ‘위험한 개’라는 문제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br/><br/> 실제로 ‘위험한 개’를 법으로 더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간 법안도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개에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씌우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과연 우리 인간은 개라는 동물과의 오랜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다시 설정해야 할까요? 진짜 문제가 개들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관계를 맺은, 그들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br/><br/>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는 1000만 마리의 반려견이 인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보자면 한국인 다섯명 중 한 명은 개와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통계로만 보면 한국인은 개와 꽤 친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개의 수에 비해 정작 우리의 문화나 태도는 그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개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문제부터 짚어봐야겠네요. 사실 이 모든 것은 개와 함께 사는 사람, 다시 말해 ‘주인’의 문제니까요. <br/><br/> 목줄을 안 한 상태로 개와 산책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들이 취하는 태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을 장담할 때 언제나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개에 물린 사고 중 상당수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개에게 물린 인간이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회복 불가능한 심신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br/><br/>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우리 사회 공동체 내에서 함께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목줄을 하지 않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개의 주인들도 많고, 하루에 한 번씩 산책하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br/><br/> 다른 개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경우도 많이 목격됩니다. 여기에 흔히 불임 수술이라 알려진 중성화 수술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 인식도 한몫합니다. 개 물림에 관한 미국의 누리집을 보면, 개가 인간을 물거나 다른 개를 무는 사고의 80%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수컷입니다. 여기엔 또 사회적 제도와 장치들이 부재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br/><br/> 독일에서는 옆집 개가 하루라도 산책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이웃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동물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베를린 시민들은 하루에 세 번 정도 산책을 시킨다고 합니다. 직장 출근 이후 퇴근 전까지는 산책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뉴욕에는 2017년 기준으로 맨해튼에만 29개의 반려견 운동장이 있습니다. 뉴욕주 전체로 넓히면 무려 100개가 넘습니다. <br/><br/>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엔 약 80만 마리의 개와 인간이 함께 살고 있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견 운동장은 네 곳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곳들입니다. 그러니 개와의 산책은 대부분 일반공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원은 개를 키우는 사람, 개를 싫어하는 사람,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두 이용합니다.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br/><br/> <br/><br/> 모든 개에게 입마개를 씌운다거나 위험한 개와 그렇지 않은 개를 종으로 구분한다는 식의 접근은 아무래도 틀렸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의 태도가 그대로인데, 개와 함께 사는 문화가 그대로인데, 개와 우리 사회가 맺은 관계가 그대로인데 당장 입마개를 씌우는 것이나 법으로 특정 견종을 위험한 개로 규정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 반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r/><br/> 우선 개를 사거나 입양 받는 과정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개를 키우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 마트에서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이 과정이 충동적일 경우, 그렇게 데려온 개가 유기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 장치를 둘 수 있을 것 같군요. 우선 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와 함께 살고자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거죠. 지자체는 관련 시민단체나 수의사 등의 도움을 받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겠고요. <br/><br/> 그렇게 해서 마련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들에게만 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허가된 업체에서만 개를 번식시킬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일반적인 가정의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면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한 개체 수 증가와 유기견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격적인 성향을 띄는 개들도 크게 줄어들겠죠.<br/><br/> 당연히 반려견들을 위한 운동장 등의 시설을 두루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선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시민들과 개들을 물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마찰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개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전반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게 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종국엔 구 단위로 운영해야겠네요. 개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 운동장으로 가는 것은 알레르기 유발 등 다른 문제를 빚을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어디서나 접근하기 쉬운 동네운동장이 필요하다는 말이죠.<br/><br/> 현재 지구 위에 존재하는 개들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그리고 견종의 약 90%는 고작 지난 100년 이내에 새롭게 만들어진 종이라는 사실은 그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순수 혈통의 개’라는 허울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br/><br/> 그 때문에 모든 견종은 저마다의 유전적 결함을 지닌 채 태어납니다. 리트리버는 대부분 암으로 사망하고, 그레이트데인은 자기 몸집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크기의 심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킹찰스스파니엘의 3분의 1은 자신의 뇌보다 작은 두개골을 가지고 태어나며 퍼그나 불도그 같은 개들은 제대로 호흡조차 하지 못하는 구강구조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모두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br/><br/> 인간은 동물의 목숨을 담보로 관계를 맺습니다. 인간은 이 관계에서 아주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일련의 사건·사고들은 우리가 개와 맺은 관계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급하고 감정적인 판단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br/><br/> 글·사진/최황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활동가, 애니멀피플 통신원

언론사: 한겨레-1-76.txt

제목: “‘호스피스 100일’ 촬영 하루만에 내 오만함 깨졌다”  
날짜: 20171019  
기자: 곽윤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19210903001  
ID: 01101001.20171019210903001  
카테고리: 문화>미술\_건축  
본문: [짬] 사진집단 ‘꿈꽃팩토리’ 대표 성남훈 작가<br/><br/> <br/><br/> 사진가 성남훈(54·사진)씨는 지난 7월부터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과 춘천기독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일간 사진과 동영상으로 환자과 가족들을 기록했다. 오는 29일까지 서울 류가헌에서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 전시를 통해 그 일부를 소개한다.<br/><br/>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되면서 호스피스 서비스의 대상이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에이즈, 만성간경화 등 비암질환 말기환자까지 확대되었다. 호스피스·완화 의료란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어려움을 돕는 의료 서비스다.<br/><br/> 18일 전시장에서 성씨를 만나 사진을 찍었던 과정과 이 작업의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br/><br/> <br/><br/> 보건복지부 ‘호스피스’ 홍보 의뢰 “전형적 임종 사진과 달리 찍으려…” 가족·의료진 초인적 희생에 ‘경건’ “숱하게 다닌 전쟁 현장보다 치열”<br/><br/> <br/><br/> 가족들 ‘작별 추억’ 기록 요청하기도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 29일까지 <br/><br/> <br/><br/> 성씨는 전주대 객원교수이며 사회공익적 사진집단 ‘꿈꽃팩토리’를 이끌고 있다. 월드프레스포토에서 두번 수상한 국내 유일의 사진가이기도 한 그에게 이번 호스피스 사진 작업은 어떤 의미였을까?<br/><br/> “처음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사진 작업을 의뢰해 왔을 때는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임종에 관한 전형적인 사진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찍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나의 오만함이 사라지는 데 이틀이 채 걸리지 않았다. 나는 숱한 내전, 분쟁 현장을 다녔다. 1990년대 초반 르완다 내전이 종식되고 후투족 난민의 자이르 캠프를 취재하러 간 적이 있다. 키상가니 지역에서 대학살이 벌어졌고 유엔의 긴급의료팀과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인 활동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호스피스의 일상은 그 내전 현장 이상이었다.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이 초인적인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달이면 이삼십번 이상 죽음과 마주치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은 기본인데다가 오랫동안 누워 있는 환자들을 뒷바라지하는 손길은 경건하기까지 했다.”<br/><br/> 그는 촬영 기획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꼬박 100일이 걸리는 동안 사진 이상의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은 대개 누워 있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녀 의사소통 자체가 쉽지 않다. 어렵사리 촬영 허락을 받은 분을 다음날 촬영하러 가보니 침상이 빠져 있기도 했다.”<br/><br/> 그런데 어떻게 허락을 받았을까? “사진은 내가 맡았지만 동영상 담당 2명과 초상권 허락을 구하는 행정업무를 맡은 사람까지 4명이 한팀이 되어 병동을 누비고 다녀야 했으니 환자와 가족들에게 불편했을 것이다. 첫날엔 카메라 메고 침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저 사람들 뭐야?’ 시선을 끌어 익숙해지도록 해야 했다. 그러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다.”<br/><br/> 호스피스 병동에서 2주일 정도 계시다가 8월13일 74살의 나이로 세상을 뜬 박옥자 할머니는 친구들과 잘 놀러 다니시고 일상생활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발병한 사례였다. 사진 촬영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메, 이게 무슨 난리랑가? 이제 스타가 되었네! 어머 또 찍네! 그려, 암 4기 여자가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암 4기는 아무나 하나? 암 4기 여자가 카메라가 3대가 되니까 정신이 없네. 병원에선 혼자 심심했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단다.<br/><br/> 성씨 일행은 찍은 사진을 이틀 뒤엔 꼭 인화해서 당사자들에게 건네줬다. 박 할머니 덕분에 주변의 다른 환자들도 점차 마음을 열면서 환자 가족이 먼저 찍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사랑하는 이와의 마지막 순간으로 남겨놓고 싶었던 것이다. 한 환자의 딸은 동영상도 같이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전시장에서 상영중인 동영상에서 그 딸의 육성이 나왔다. “아빠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나 어렸을 때 아빠가 나 자전거 뒤에 태우고 핫도그 사주고 시장 가서 빨간 구두 사준 거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아빠가 나를 제일 예뻐했는데…. 둘째 딸을 제일 예뻐하는 게 제일 비밀이었지….” 한 관객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보고 있었다.<br/><br/> 성씨는 “연명치료와 달리 호스피스에선 이런 작별이나마 가능하더라. 그게 참 좋더라”라고 했다.<br/><br/> 이번 전시는 류가헌의 2층과 지하층 양쪽에서 모두 열리고 있다. 2층에는 환자 사진이 한 장도 없고 풍선, 새, 구름, 제주 바다, 복숭아 등을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다. 성씨는 “환자들이나 가족의 얼굴이 너무 강렬해서 대신 그분들의 꿈을 형상화하여 걸었다”고 했다. 한 가족이 남긴 이야기다. “엄마는 새가 되고 싶었는데 아들 때문에 재가도 못 하시고…. 그놈의 밥 때문에, 아들 밥 챙겨주느라….”<br/><br/> 21·28일 오후 4시에는 전시장에서 ‘첫 호스피스 기록 100일의 일화’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한다.<br/><br/> 글·사진 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

언론사: 한겨레-1-77.txt

제목: [정혜윤의 새벽세시 책읽기] 위로가 아닌, 용기와 품위를  
날짜: 2017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19195840002  
ID: 01101001.20171019195840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1, 2가즈오 이시구로 지음, 김석희 옮김/민음사(2011)<br/><br/> 늦여름 명동에서, 다리가 뒤틀린 중국인 여행자를 본 일이 있다. 청바지를 입은 젊은 아가씨였고 적어도 그 순간은 혼자였다. 내 친구와 나는 그녀를 스쳐지나갔다. 친구가 말했다. “저만큼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혼자 노력했는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거야. 설사 그녀가 말해준다 해도.” 우리는 우리 곁을 걷는 사람들이 어떤 슬픔을 가졌는지, 어떻게 용기를 끌어올리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한다. 혹시, 알고 싶다고 생각해서 뒤돌아보면 이미 멀어져 가고 있다.<br/><br/>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가즈오 이시구로는 우리의 슬픔은 어느 하루 동안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초기작 <창백한 언덕 풍경>이 슬픈 것은 실패 때문이다.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잘 해내고 싶었던 일의 실패,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힘을 쏟았을 일의 실패,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좋은 부모가 되리라는 꿈의 실패다. 주인공의 딸은 영국 낯선 방에서 홀로 자살해버린다. 평생 헌신하려던 일이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살까? 어머니는 가끔 상상한다. 딸의 시신이 며칠간이나 방치되어 있었을까.<br/><br/> <위로받지 못한 자들>이 슬픈 것은 상실과 후회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책 속에서 혼란스럽게 불쑥불쑥 등장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옛날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책 제목처럼 위로는 없다. 대부분의 위로는 찰나의 일이거나 빈말일 뿐이고 누군가 다시 시작한다면 그것은 잘 위로받았기 때문은 아니다. 가즈오 이시구로는 위로가 아니라 다른 것, 굳이 말하자면 용기와 품위를 말한다.<br/><br/> 세 친구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성장소설인 <나를 보내지 마>에서 성장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클론이다. 심장병이나 암에 걸린 인간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 배양된 클론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어디를 여행할 것인지 저마다 신나는 꿈을 꾸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미래는 하나다. 아무도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아무도 여행을 갈 수 없고 장기 기증을 몇 번이고 죽을 때까지 하다가 죽는 길 하나뿐. 이 작품에 클론의 시원한 탈출 이야기는 없다. 유일한 희망은 서로 사랑하는 두 클론은 기증이 몇 년간 연기된다는 소문 하나뿐이다. 그런데 둘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지? 소문이 사실이기나 할까? 나와 친구는 몇 년에 걸쳐서 이 작품으로 여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주제일 때도 있었고 왜 상황을 더 낫게 바꾸는 선택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일까가 주제일 때도 있었다.<br/><br/> 그러나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다른 생각도 든다. 기증을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일’로 받아들인 친구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간다. 기증수술로 이미 약해진 친구의 거칠어진 숨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부축하는 것, 서로 어깨를 끌어안는 것, 한때 서로에게 의미 있었던 것을 죽음 앞에서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 것,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한 것, 아직 살아있는 친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한 것. 그들은 진짜로 자신을 나누어 줄 줄 알았고 어둠 속에서 더 사랑할 줄 알았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유한한 생명체라는 것을 새삼 떠올리게 되는 날, 지는 해를 배경으로 이 책을 다시 읽고 싶어졌다<br/><br/>정혜윤 <시비에스>(CBS) 피디

언론사: 한겨레-1-78.txt

제목: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11.4% 증가, 앞으로 건보재정 전망 더 어둡다?  
날짜: 20171017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17224826001  
ID: 01101001.20171017224826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약 64조5800억원으로 2015년 57조9500억원에 견줘 11.4% 가량 늘었다. 이 증가폭은 약값을 크게 낮춰 전체 진료비 증가폭이 이전해에 견줘 3%대를 기록한 2012년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약 6%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런 예외적인 증가폭과 관련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진료비 증가폭이 더 커져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건강보험 보장비율이 크게 확대되기는 하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큰 적자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크게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대 들어 보기 힘들었던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폭인 11.4%의 진실은 무엇일까?<br/><br/> 11.4%의 증가폭에는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해 오던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비율 확대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으로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폭은 2013년 5.9%였지만,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4년에는 9.4%로 크게 높아졌으며, 비급여가 더 크게 줄어들기 시작한 2015년에는 10.6%, 지난해 13.1%로 상승했다. 2014년부터는 전체 진료비 증가폭보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015년부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해마다 8~9%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됐다</span>”고 말했다. <br/><br/> 그렇다면 전망치보다 2.4~3.4%포인트 가량 높은 11.4%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에 대해서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사태에 따른 병원 이용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2015년부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비율 확대 정책이 본격 시행됐지만 2015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이전해 증가폭에 견줘 1.2%포인트, 전체 진료비는 0.1%포인트만 늘었을 뿐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잘 알려져 있다시피 메르스 유행으로 예정된 수술이나 검사도 미루는 등 병원 방문이 크게 줄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실제로 2015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증가율이 6.7%지만, 메르스 유행 영향을 적게 받은 상반기에는 8.5%로 높았다가 하반기에는 5%로 크게 감소했다</span>”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건강보험 진료비가 8~9%는 늘어나야 했지만 메르스 영향으로 6% 증가폭을 보였기 때문에, 2016년에 증가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는 설명인 셈이다. <br/><br/> 11.4%가 예외적인 상승폭이라는 설명이지만,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전망치인 8~9%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빠르게 늘고 있는 노인의료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가벼운 질환자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비가 더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며, 지나치게 높은 약값 및 치료재료 가격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에 견줘 낮은 건강보험 보장 비율로 건강보험료보다 3~4배 가량 더 내는 민간의료보험 문제도 개선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정부나 기업이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더 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79.txt

제목: “식도암·대장암 등 소화기계 암 예방하려면 아예 금주해야”  
날짜: 20171017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17110806003  
ID: 01101001.20171017110806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소주 1∼2잔(약 30g)의 가벼운 음주도 식도암이나 대장암 등 소화기 계통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술을 조금씩 마시는 ‘절주’보다는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r/><br/> 17일 최윤진·이동호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20살 이상 성인 약 2332만명을 대상으로 5년 5개월 가량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주 1~2잔 또는 그 이하를 마시더라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견줘 식도암 등 소화기 계통의 암 발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를 1회 음주량에 따라 비음주자, 가벼운 음주자(하루 알코올 30ｇ 미만 섭취), 과음자(하루 알코올 30ｇ 이상 섭취) 등으로 나눴다. 그 결과 가벼운 음주자가 전체의 38.8%, 과음자 7.7%, 비음주자는 53.5%로 나타났다. 음주와 암 발병 위험의 통계적인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가벼운 음주자 집단의 식도암 발병 위험은 비음주자보다 50%, 대장암과 위암도 각각 12%, 5% 높았다. 이런 관련성은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10g(소주 1잔)미만으로 극소량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경우 위험도는 식도암이 20%, 위암·대장암이 각 8%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음자는 식도암·위암·대장암 발병 위험이 비음주자보다 각각 3.1배, 1.2배, 1.3배 높았다.<br/><br/> 연구팀은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 가벼운 음주가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국내에서는 소화기계 암 발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팀은 “한두 잔의 음주가 심장 및 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벼운 음주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이들 연구는 주로 서양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80.txt

제목: 일 자민당, 아베 지지도 낮지만 조기총선 300석 압승 전망  
날짜: 20171016  
기자: 조기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16155820001  
ID: 01101001.20171016155820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는 22일 조기총선에서 의석 수를 늘려 30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판세대로면 아베 신조 정부의 인기는 높지 않은데도 선거에서는 압승하는 기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br/><br/> <마이니치신문>은 16일 유권자 7만3087명 대상 전화 여론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자민당이 선거 전 284석(전체 465석)보다 많은 281~303석을 획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아오모리·아키타·군마·야마구치·에히메·나가사키·가고시마에서 앞서는 등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소선거구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비례대표 176석 중에서도 3년 전 중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68석을 뛰어넘는 7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4일 발표된 <아사히신문> 예측에서도 267~303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 단독으로 300석 이상 획득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결과를 확신하기는 어렵다.<br/><br/> 선거 압승 전망에 견주면 아베 정부 인기는 신통치 않다.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가 계속 총리를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계속하지 않는 게 좋다’고 대답한 이들이 47%였다. ‘계속하는 게 좋다’고 답한 이는 37%에 그쳤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평가한다’는 응답자는 44%였다. ‘평가하지 않는다’(41%)보다는 높았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br/><br/> 자민당의 압승 전망은 야권 분열에 근거를 둔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사실상 해체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대표인 신당 ‘희망의 당’ 합류를 결정했으나, 이후 고이케 지사의 극우적 태도에 반발한 이들이 입헌민주당을 따로 꾸려 나왔다. 그 결과로 소선거구 289곳 중 80%에서 여당 후보 1명과 야당 후보 여러 명이 싸우는 구도가 형성됐다. 도쿄 16구의 자민당 후보 오니시 히데오는 간접흡연 방지 대책 회의 자리에서 “<span class='quot0'>암 환자는 일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span>”고 말해 물의를 빚은 인물이지만, 야권 분열 덕에 우세를 점하고 있다. 진보(리버럴)의 대안으로 부상한 입헌민주당이 의석 수를 선거 전보다 배 이상 늘린 30석 이상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자민당 1강 구도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br/><br/>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

언론사: 한겨레-1-81.txt

제목: 국가대표팀이 시차 10시간 원정지에 열흘 전 가야 하는 이유  
날짜: 20171016  
기자: 오철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16103851001  
ID: 01101001.2017101610385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멀리 해외여행을 떠나면 낮밤이 바뀌는 ‘시차’ 때문에 고생하죠? 그게 바로 우리 몸에 따로 도는 ‘생체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낮밤에 맞춰 적응하기도 하지만, 밤인데도 낮인 것처럼 돌아가는 생물학적인 시계가 우리 몸에 있지요. 몸 안의 생체시계와 몸 밖의 지구 환경 시계가 엇박자가 될 때 몸은 시차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br/><br/> 생체시계를 연구해온 손기훈 고려대 의대 교수(의과학)는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의 수상 업적인 생체시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서 몸이 겪는 시차 문제가 곧 생체시계의 존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몸이 현지의 낮밤에 맞춰 서서히 시차에 적응해가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생체시계가 대략 하루에 1시간 남짓씩만 점차 재조정되기 때문”이라며 “국가대표팀이 시차가 10시간인 곳에서 원정경기를 한다면 적어도 10일 전쯤 현지에 도착해 적응훈련을 하는 전략이 이런 점에서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1980년대에 실험동물 초파리를 통해 생체시계를 작동하는 주요 유전자(단백질)들을 찾아내고서 그 기본 메커니즘을 처음 규명한 제프리 홀, 마이클 로스배시, 마이클 영 교수 등 미국의 초파리 유전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br/><br/> <br/><br/> 생체시계 작동하는 유전자 연결망<br/><br/> 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의 홍성현 박사(섹션리더)는 식물에서 생체시계와 노화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지구의 밤낮 주기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화적 산물인 생체시계는 박테리아부터 식물, 동물까지 대부분 생명체가 가지고 있다”며 “구성 요소에선 동식물이 각각 다르지만 조절 메커니즘은 매우 비슷하다”고 설명했다.<br/><br/> <br/><br/> 노벨상위원회가 펴낸 설명자료를 보면, 생체시계의 개념은 식물 실험에서 먼저 확인됐다. 18세기 호기심에 가득 찬 프랑스의 한 천문학자가 낮엔 잎을 펼치고 밤엔 시들듯이 처지는 식물 미모사를 계속 캄캄한 어둠 속에 두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했다. 놀랍게도 어둠 속에서도 미모사는 며칠 동안이나 낮 시간대엔 잎을 펼치고 밤 시간대엔 잎을 닫았다.<br/><br/> 뇌 건강과 생체시계의 관계를 연구하는 김경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한국뇌연구원장)는 “<span class='quot0'>낮밤 변화와 무관하게 생물 안에 무언가 자율적인 생체시계가 있음을 보여준 실험</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후에 많은 실험이 있었지만 중요하게는 이번 노벨상 수상자들이 잇따라 생체시계 관련 유전자들을 찾아내면서 ‘유전자가 시간에 따라 행동을 조절한다’는 개념이 확인됐다</span>”고 말했다.<br/><br/>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기본적인 생체시계의 분자 메커니즘은 ‘피리어드(period) 유전자’의 진동으로 설명된다. 이 유전자가 발현해 단백질(PER)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이 계속 만들어져 축적되면 이젠 자신을 만드는 유전자의 활성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단백질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점차 분해된다. 이제 다시 피리어드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 활성 상태가 된다. 이런 한 바퀴의 순환이 24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는 것이다.<br/><br/> 지난 20여년 동안 이런 기본 유전자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여러 유전자가 규명되었고, 또한 생체시계가 간의 해독 기능, 일주기 호르몬 분비 등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많이 연구돼왔다. 손 교수 등 국내 연구진이 부신피질의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에 생체시계가 관여한다는 것을 밝힌 2008년 논문은 이번 노벨상 설명자료에 주요한 연구 중 하나로 꼽혔다.<br/><br/> <br/><br/> 24시간 주기로 도는 인체의 생리대사<br/><br/> 우리 몸의 생체리듬은 이런 생체시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체온, 혈압, 호르몬 분비뿐 아니라 여러 생리대사가 24시간 주기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위 그림 참조) 그 덕분에 ‘시간치료법’이라는 낯선 분야도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br/><br/> 김경진 교수는 “혈압이 밤에 떨어졌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20%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이때 많이 일어난다. 가려움증이나 천식은 밤과 새벽에 심해진다. 따라서 혈압약과 천식 치료제는 잠자기 전에 먹어야 효과가 있다”며 “질병에 따라 투약 시간을 달리하는 생체리듬치료의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br/><br/> 당연히 생체리듬이 깨지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실제로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생체시계 교란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야간교대근무를 발암성 추정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후에도 심장질환이나 암이 생체시계 교란과 상관성을 지닌다는 연구결과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손 교수는 “<span class='quot1'>야간근무가 불가피하다면 어떤 식으로 야근교대를 설계해야 생체시계 교란을 줄일 수 있을지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생체시계는 수면 패턴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수면장애나 우울증, 자폐증, 퇴행성 신경질환 등과 관련해서도 여러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br/><br/> <br/><br/> 중앙 표준시간과 지방 현지시간 동기화<br/><br/> 몸의 모든 세포, 조직에서 국지적인 생체시계가 작동한다. 그런데 이를 조율하는 중추적인 생체시계가 따로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면서 몸 전체에서 시계 동기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관심 대상이 된다.<br/><br/> 김경진 교수는 “<span class='quot2'>비유하면 뇌의 시상하부 부위(SCN)에 있는 생체시계가 그리니치 표준시이고, 각 세포, 조직에는 조금씩 어긋날 수 있는 현지 시계들이 있는데, 몸 전체의 생체시계를 일정하게 맞추는 데에 뇌의 중추 생체시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span>”고 말했다. 특히나 빛 정보는 생체시계를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조율하는 데 중요한데, 빛에 민감한 시상하부에서 중추 생체시계를 맞추고서, 빛 정보를 얻지 못하는 간이나 내장 같은 곳의 세포들에다 내부와 외부를 조율하는 시간 정보를 전한다는 것이다.<br/><br/>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우리 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에 24시간 주기가 중시되는 것을 두고 생체시계 연구자들은 ‘시간생물학’이라 부른다. 김경진 교수는 “<span class='quot2'>시간을 중시하는 시간생물학은 지구 생명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span>”이라고 강조한다. 홍성현 박사는 “<span class='quot3'>예컨대 식물에서 광합성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해 뜨기도 전에 생체시계에 의해 활성화해 낮 동안 빛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한다</span>”며 “<span class='quot3'>외부 자극 없이도 미래를 예측해 적응하는 생명 현상은 놀라운 일</span>”이라고 말했다.<br/><br/> 오철우 선임기자 cheolwoo

언론사: 한겨레-1-82.txt

제목: 신고리 5·6호기 ‘운명의 주말’…시민참여단 마지막 숙의 돌입  
날짜: 20171014  
기자: 노지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14144815001  
ID: 01101001.20171014144815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주말’이 왔다. 2박3일 합숙토론에서 중단-재개 쪽 전문가는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두고 격론을 펼쳤고, 시민대표참여단은 이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br/><br/>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시민참여단 471명이 참여하는 2박3일 종합토론회 첫 세션이 열렸다. 이 내용은 케이티브이(KTV)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 됐다.<br/><br/> 첫 세션의 주제는 ‘총론 토의: 중단 및 재개 이유’였다.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공사를 각각 중단 또는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의 발표와 시민참여단 분임토의, 시민참여단과 전문가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br/><br/> 1시간 가량 이뤄진 발표에서부터 중단-재개 쪽은 치열하게 맞섰다. 재개 쪽 발표를 맡은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주로 중단 쪽에서 만든 동영상 내용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임 이사는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가 없어져야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등이 줄어든다는 중단 쪽의 주장을 지적하며 “<span class='quot0'>원전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보다 온실가스가 적게 나온다</span>”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원전 수출이 ‘속 빈 강정’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해서 20조원 계약도 맺었다”고 했다. <br/><br/> 중단 쪽 발표를 맡은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주로 서울시가 시도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030 에너지 자립 계획’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핵발전소를 대체할 ‘대안’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대안이 있는데 위험한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며 “한국은 좁은 국토에 너무 많은 원전을 지었다. 신고리 5·6호기까지 지으면 한 지역에 원전 10기가 들어선다”고 지적했다.<br/><br/> 시민참여단은 전문가의 발표가 끝난 직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1시간 동안 분임별 토의를 이어갔다. 시민참여단 471명은 48개 조로 나뉘어 참여단끼리 토의하고 전문가에게 던질 질문을 만들었다.<br/><br/> 11시 40분부터 1시간 20분정도 진행된 질의응답에는 중단-재개 쪽 발표자를 비롯해 각 3명씩의 전문가가 더 투입됐다. 중단 쪽에서는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선임연구위원,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고리원전 인근 주민 이진섭씨가 참여했다. 2014년 부산지법은 이씨의 아내가 고리 원전으로부터 10km 안팎 지역에서 20년 이상 살며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개 쪽에서는 정범진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배성만 한국수력원자력 처장이 답변에 나섰다.<br/><br/> 연단 위에 중단 쪽 전문가 4명, 재개 쪽 4명, 모두 8명이 자리하고, 시민참여단이 돌아가며 조별로 미리 준비한 질문을 양쪽에 각각 10개씩 던졌다. 시민참여단은 핵폐기물 관리 비용 등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부터 신고리 5·6호기 중단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등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탈원전 과정에 다리 역할을 할 액화천연가스(LNG)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하는 질문도 나왔다.<br/><br/> 한 시민이 중단 쪽 전문가에게 “후쿠시마 피해복구비용이 215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전 폭발로 인한 피해인지 쓰나미 피해가 포함된 비용인지 궁금하다”고 묻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215조원은) 후쿠시마 원전 재염 해체 복구에 든 순수한 비용”이라며 “하지만 215조원에는 빠진 부분이 있다. 물 속에 있는 삼중수소를 회수하는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는 700조원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한다. 원전 사고는 안 일어나는 게 좋지만 일어나면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민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대정전 사태가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 섞인 질문을 던지자 중단 쪽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2050년까지 현재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펼쳐도 문제가 없다”며 “전력수급 안정을 희생시키면서 에너지 정책을 하는 국가는 없다”고 답했다. <br/><br/> 한편 재개 쪽에 “원전이 안전하다는데 수도권에 건설하는 건 불가능하냐”고 물은 시민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범진 위원은 “<span class='quot1'>수도권에 지을 수 있지만 짓지 않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서울 같은) 비싼 땅에 원전을 지으면 아마도 건설 단가가 3∼4배 비싸진다</span>”고 설명했다. 한 시민은 세션 초반에 진행된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원전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이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높다고 들었다.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배성만 한국수력원자력 처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하면서 반복적인 업무는 아웃소싱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러면서 외주를 주기 시작했다. 이번 정부에서 한수원 내부 정규직화를 검토,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br/><br/> 참여단의 질문 20개에 대한 답변이 끝난 뒤에는 중단-재개 쪽에서 상대편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2분 동안 반론을 펼치면, 상대 쪽에서 1분 동안 재반론을 했다. 이때 고리원전 인근 주민 이진섭씨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시민참여단에게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나도 암에 걸리고 아내도 암에 걸렸다”며 “우리 지역에 암 환자가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원자력이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됐다. 우리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나. 지역 주민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했다. 재개 쪽 정범진 위원은 이씨의 반론을 재반박하며 “암이 원자력, 방사선에 의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기적으로 서울대에 위탁해서 주민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개 쪽 배성만 처장이 “<span class='quot2'>중단 쪽에서 2020년에 미국, 영국에서 원전 발전 단가보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태양광 패널이 공짜가 되도 가격은 24%만 줄어든다</span>”고 반론을 폈다. 중단 쪽 이유진 위원은 “<span class='quot3'>우리나라 원전이 싼 것은 안전 규제가 약하고 안전 설비 보강이 덜 됐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3'>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실제로 반영하다보니 (원전의 발전단가가) 비싸진 것</span>”이라고 재반론했다. 중단-재개 전문가 간의 반론-재반론은 5차례 진행됐다.<br/><br/> 앞으로 시민참여단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제별 세션에 3차례 더 참여한다. 15일까지 핵발전소의 안전성·환경성·경제성 등에 대한 발표 청취, 토의,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고 난 뒤 15일 오후에는 모든 숙의를 마치고 최종조사에 임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최종조사 결과를 분석해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이날 진행된 총론 토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singori56)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br/><br/> 노지원 기자 zone

언론사: 한겨레-1-83.txt

제목: 나는 어떤 미래에서 살게 될까?  
날짜: 20171012  
기자: 김지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12201855001  
ID: 01101001.2017101220185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SF 크로스 미래과학김보영·김창규·곽재식·박성환 지음/우리학교·1만4000원<br/><br/> ‘4차 산업혁명이 온다’, ‘특이점이 온다’…. 인공지능과 나노기술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미래는 지금과는 엄청나게 다른 모습일 거라는 이야기가 쏟아져나온다. 하지만 정작 그런 미래를 살아갈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이 주제와 관련해 읽을 만한 책은 많지 않았다. 〈SF 크로스 미래과학〉은 그런 점에서 자라나는 세대와 학부모들이 반가워할 만한 책이다.<br/><br/> 이 책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소재로 한 25편의 공상과학(SF) 이야기로 이뤄져 있다. 공상과학 작품을 주로 써온 작가 4명이 돌아가면서 짧은 이야기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피부에 와닿는다. 그렇게 이야기가 6편씩 끝날 때마다, 등장했던 과학기술을 설명하고 실현 전망을 담은 해설 글이 이어져 좀 더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br/><br/> 미래의 어느 날, 학습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으로 가동되는 ‘스마트 하이웨이’가 깔린다. 컴퓨터가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와 연결돼, 길이 덜 밀리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량을 자동으로 운행한다. 이 때문에 도로관리기관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뿐이라 보고서를 예쁘게 만들고, 회식에서 사람들을 웃길 개그를 연습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br/><br/> <br/><br/> 또 다른 미래, 몸속에 단백질로 만든 나노미터 크기의 칩으로 매초 신체 상태를 검진해, 사실상 암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150~200년을 살게 된다. 건물 붕괴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2~4년간 나노기계로 재건 치료를 받으면 사고 이전의 다리로 돌아갈 수 있어, 이 시대엔 사실상 장애인이 사라지게 된다. 눈에 인공감각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별을 보며 황홀해하고, 커피 가게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는 코가 유전자 개량으로 개보다 민감한 후각을 지니게 돼 다양한 커피의 향을 엄청나게 섬세하게 구분한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달로 아기들은 ‘욕심 많지 않은’ ‘키는 중간보다 큰’ ‘면역력이 강한’과 같이 부모들이 미리 선택한 신체와 정신,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다. “원하시는 아이를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날개 달린 아이? 다리가 여덟 개인 아이? 영원히 사는 아이? 그것을 과연 인류라고 할 수 있을까?”<br/><br/> 인간의 정의를 뒤흔드는 과학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그때 인간의 자리는 어디인지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문제다. 이 책을 읽은 미래 세대들은 자신이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낙담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렐까. 청소년.<br/><br/> 김지훈 기자 watchdog

언론사: 한겨레-1-84.txt

제목: 스트레스, 삶의 유쾌한 선물  
날짜: 20171012  
기자: 한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12195906001  
ID: 01101001.2017101219590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E형 인간-성격의 재발견, 변광호 지음/불광출판사·1만5000원스트레스는 어떻게 삶을 이롭게 하는가, 우르스 빌만 지음, 장혜경 옮김/심심·1만6000원<br/><br/> 우리나라에 스트레스 면역학을 처음 도입했다는 변광호 전 한국뇌신경과학회 회장은 40여 년간 많은 환자들을 만났다. 그 중 암 같은 큰 병에 걸리고도 유독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사해 했으며, 배려를 잃지 않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일상에서 부정적인 스트레스(distress)를 만날 때마다 이를 긍정적 스트레스(eustress)로 빠르게 전환했다는 것이다.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일에 화내는 대신 바로 생각을 바꿨고, 그에 따라 분비 호르몬도 빠르게 균형을 되찾았다.<br/><br/> 이들이 변 박사가 정의하는 ‘E형 인간’이다. 그의 책 은 건강심리학계에선 그동안 4가지 성격유형이 통용돼 왔다고 말한다. 완벽주의 A형, 낙천주의 B형, 소심하고 착한 C형, 적대적인 D형이 그것이다. 그런데 A형은 심장병 확률이 높고, B형은 사회적응이 원만하지 않다. 또 내성적인 C형은 암 발생률이 높고, D형은 관상동맥질환 심장병 우울증 등으로 조기사망률이 높다. E형은 합리적 긍정을 통해 그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변 박사는 인간의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 50%, 성장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 10%, 나머지 약 40%는 통제할 수 있다며, 이 40%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E형 유형을 닮으려 노력하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자신한다.<br/><br/> 독일 과학전문 저널리스트 우르스 빌만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삶을 이롭게 하는가>에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현대인의 ‘상식’은 잘못됐다고 얘기한다. 나쁜 건 스트레스에 대한 편견이며, 스트레스는 오히려 생활필수품이자 인생을 유쾌하게 만드는 선물이란다. 책에 인용된 스탠퍼드대 신경학자 로버트 새폴스키는 치타의 발톱을 피하는 영양은 스트레스 시스템 활성화 덕에 살아남을 수 있다며 이런 말을 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종의 99%에게 스트레스는 사바나에서 경험하는 3분 동안의 충격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그 스트레스는 저절로 사라진다. 아니면 당신을 데리고 사라진다.”<br/><br/> 한승동 선임기자 sdhan

언론사: 한겨레-1-85.txt

제목: [김진영, 낯선 기억들] 댈러웨이 부인의 꽃  
날짜: 201710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12195905001  
ID: 01101001.20171012195905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김진영<br/><br/> 낯선 기억들<br/><br/> <나 없는 내 인생>이라는 영화를 다시 보았다. 이제 겨우 스물셋인 젊은 여자가 주인공이다. 벌써 아이가 둘이고 능력 없는 남편 대신 대학의 청소부로 일하지만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상상하지 않았던 불행이 찾아온다. 남겨진 시간이 두 달뿐인 말기 암 판정이 그것이다. 영화는 그녀가 이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br/><br/> 그녀는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을 두 개의 인생을 위해서 나누어 쓴다. 우선 그동안 살아보지 못했던 자기만의 생을 위해서 쓴다. 우연히 시작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전 같으면 포기했겠지만 이번에는 온몸으로 받아들여 주체적인 사랑으로 실현한다. 동시에 남은 시간을 가까운 타자들, 즉 자신이 없어져도 여전히 세상에 남게 될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우울한 유서를 쓰는 대신에 그동안의 기쁜 추억들과 사랑과 부탁의 목소리를 담아서 두 아이와 남편 그리고 어머니에게 특별한 선물로 마련하는 세 개의 녹음테이프가 그것이다.<br/><br/> 극적인 서사와 구성 때문에 특별해 보여도 사실 이 영화는 모두가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두 개의 인생을 산다. 하나는 나 있는 내 인생, 나의 현재적 삶이고, 다른 하나는 나 없는 내 인생,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될 사후의 삶이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서도 가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떠난 후 남겨질 가족의 삶을 준비하고, 명망이 중요한 사람은 사후에 그 대신 살아가게 될 이름을 준비하고, 신앙인은 내세의 다른 세상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현세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애쓴다.<br/><br/> 개개의 삶은 모두가 필연이고 귀해서 그 값을 비교해 따질 건 아니다. 하지만 좀 더 잘 사는 삶은 무엇일까 묻지 않으면서 매일을 사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그 답들이야 천차만별이겠지만 앞서 말한 두 개의 삶이 저마다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지는가의 차이를 통해서도 하나의 답을 얻어 볼 수도 있겠다. 만일 두 개의 인생이 오로지 나와 내 집단의 이해관계망 안에서만 살아질 때 그 생은 다만 이기적인 삶의 한계와 구속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해서 제 가족에게 남기고자 하는 상속의 욕망, 금욕 대신 금력과 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종교계의 몰골들, 인간과 세상의 미적 가치와 권리를 지키겠다는 예술과 문화영역에서 목격되는 이권투쟁의 추한 모습도 그런 하류의 삶을 보여준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그러한 이기적 삶이 이제는 저질적 특권 집단만이 아니라 모든 이의 평범한 삶으로 고착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보편적 인생론일 것이다.<br/><br/>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나 없는 내 인생을 준비했던 이들도 있다. 비록 소설적 인물이기는 해도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이 그렇다. 여러 독법이 있겠지만 이 소설 또한 나 없는 내 인생을 준비하는 한 우아한 여자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span class='quot0'>댈러웨이 부인은 파티의 꽃은 자기가 직접 사겠다고 말했다</span>”라는 이 소설의 첫 문장은 너무나 유명하다. 그 안에는 소설의 주제가 함축되어 있지만 이 우아한 19세기 여인의 특별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질문도 들어 있다. 그건 그녀가 스스로 사겠다고 선언하는 그 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이다.<br/><br/> 그 답은 조금만 더 읽으면 마주치게 되는 그녀의 짧은 독백 안에서 들을 수 있다. 맑은 날 아침 런던의 대기를 마시며 걷다가 그녀는 이렇게 독백한다: “나는 죽으면 런던의 대기가 되고 싶어. 사람들이 숨 쉬며 그 대기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파티를 준비하는 거야. 나 스스로 이렇게 꽃을 사러 가는 거야.” 댈러웨이 부인의 꽃은 분명 그녀의 두 인생을 위한 꽃이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세계대전의 상처로 얼룩진 당대의 암울한 런던을 위한 꽃이다. 댈러웨이 부인이 그토록 아름답고 우아한 건 그녀가 이 두 인생의 꽃을 다 알고 있고 그 두 꽃을 모두 ‘스스로’ 사려고 하는 특별한 욕망의 여인이기 때문일 것이다.<br/><br/> 그런데 돌아보면 댈러웨이 부인처럼 우아한 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도 숨은 꽃들처럼 존재한다. 아이들을 찾아서 바다로 투신했던 세월호의 잠수사와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고 주변부 삶의 모습들을 기록하고자 했던 어느 다큐 영화인도 그런 숨은 꽃들이다. 불화와 모순으로 팽배한 세상이 오늘도 무사한 건 이처럼 소리 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 없는 내 인생들의 공력 때문이리라.<br/><br/> 철학아카데미 대표

언론사: 한겨레-1-86.txt

제목: 현미경으로 본 생명의 속살  
날짜: 201710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12070839001  
ID: 01101001.2017101207083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카메라업체 니콘이 현미경 사진 공모전인 '니콘 스몰 월드 2017'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 공모전은 자연과 생명체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197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가 43번째다.<br/><br/> 올해는 88개국에서 2천여점이 출품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사진은 우리 몸의 피부 각질세포를 40배 확대해 촬영한 것이다. 노란색 형광물질로 채색된 부분이 과도하게 형성된 케라틴 단백질이다. 사진을 촬영한 네덜란드 암연구소는 "<span class='quot0'>인간에게는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각질 단백질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종종 피부 종양 세포에서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케라틴 같은 단백질이 변화하는 방식을 연구하면 암을 비롯한 질병들의 진행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span>"고 밝혔다.<br/><br/> 2위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국화과의 개쑥갓의 씨앗이다. 사진에 보이는 흰색 관모는 바람을 타고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br/><br/> 3위는 민물녹조류 볼복스의 무성생식 과정 중 어미 몸체에서 새끼들이 방출되고 있는 장면이다.<br/><br/> <br/><br/> <br/><br/> 가장 특이할 만한 것으로는 18위에 뽑힌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마치 작은 곡괭이 그림들이 일정한 무늬 패턴처럼 배열돼 있는 듯한 모습인데, 놀랍게도 이 사진의 주인공은 해삼의 피부다. 편광현미경으로 100배 확대해 찍은 것이다.<br/><br/> <br/><br/> <br/><br/> 이밖에 본상에는 들지 못했지만, 눈을 부릅뜨고 있는 듯한 깡충거미의 머리를 6배 확대해 촬영한 사진도 인상적이다. 거미의 눈은 8개다. 털이 짙고, 몸빛이 선명한 이 거미는 거미줄을 치지 않고 먹이가 될 만한 것을 보면 덤벼든다 해서 깡충거미라 불린다.<br/><br/> 니콘은 웹사이트를 통해 본상 수상작 20점과 가작 10점을 포함해 모두 88점의 우수작을 공개했다.<br/><br/> <br/><br/> 곽노필 선임기자 nopil

언론사: 한겨레-1-87.txt

제목: 노화 늦추는 최고 생선은 역시 고등어  
날짜: 20171010  
기자: 홍용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1010102848001  
ID: 01101001.20171010102848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생선 가운데 고등어의 셀레늄 함량이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셀레늄은 노화속도를 지연시키는 항산화 효과가 높은 물질이다. <br/><br/>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9월 이른바 삼치, 대구, 꽁치 등 생선 35종을 조사한 결과, 고등어의 셀레늄 함량이 0.66mg/kg으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고등어에 이어 우럭(0.54mg/kg), 방어(0.49mg/kg), 삼치(0.42mg/kg), 조기(0.42mg/kg), 청어(0.39mg/kg), 가자미(0.36mg/kg), 대구(0.35mg/kg), 꽁치(0.34mg/kg), 아귀(0.33mg/kg) 순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78년 필수영양소로 지정한 셀레늄은 1일 섭취 권장량이 성인 기준 50~200㎍이다. 과산화질 분해제거와 활성산소 제거로 항산화 효과, 심장 기능 향상, 심근 퇴행성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고등어는 껍질 안쪽 붉은 살 부위의 셀레늄 함량이 평균 0.76 mg/kg으로 흰 살 부위 0.54 mg/kg보다 4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 이번 조사에서 고등어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납(Pb) 0.05mg/kg, 카드뮴 0.01mg/kg, 수은(Hg) 0.04mg/kg으로, 이는 중금속 허용기준치 납(0.5mg/kg), 카드뮴(0.2mg/kg), 수은(0.5mg/kg)보다 낮은 수치다. 연구원 쪽은 “<span class='quot0'>고등어는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뿐만 아니라 필수미네랄인 셀레늄의 함량도 높아 노화를 방지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웰빙식품</span>”이라고 밝혔다.<br/><br/> 홍용덕 기자 ydhong

언론사: 한겨레-1-88.txt

제목: 식약처 “생리대, 하루 7.5개씩 평생 써도 안전”…시민들 “못믿겠다”  
날짜: 20170928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28222849001  
ID: 01101001.20170928222849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리대를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 동안 평생 사용하더라도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건당국이 발표했다. 하지만 애초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 쪽에서는 생리대가 인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r/><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에 들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의 인체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검출량이 미미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28일 밝혔다.<br/><br/> 이번에 식약처가 조사한 제품은 2014년 이후 국내에 유통 중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666종, 기저귀 10종이다. 8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가운데 생식에 문제를 나타내거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벤젠·톨루엔 등 10종에 대해 우선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br/><br/> 식약처는 생리대를 초저온(-196도)으로 얼려 부순 뒤 고온(120도)으로 가열해 나온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해 분석했다. 지난 3월 생리대 위해성 문제를 제기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팀의 경우 인체 온도에서 방출된 유기화합물 양을 측정했다. 식약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검출 가능한 최대치를 뽑아내기 위해 120도까지 높여 추출했다고 설명했다.<br/><br/>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 참고치를 평가했다. 전신노출량은 생리대를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 동안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평생 쓰는 경우로 가정했다. 아울러 유기화합물이 100% 흡수된다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조사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조사한 10종을 뺀 나머지 7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4종의 농약류 등에 대한 조사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역학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용 원료, 제조공정 분석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업계와 함께 유기화합물의 양을 줄이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br/><br/>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에 대해 여성들과 시민단체 쪽은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아무개(33·서울 마포구)씨는 “문제가 된 생리대를 쓴 뒤 생리량이나 생리기간이 변화가 생긴 것을 겪었고 주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이 많다”며 “식약처가 한 조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br/><br/> 여성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여성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잔류농약, 다이옥신,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아 이번 조사는 한계가 많으며, 생리대와 여성 질환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span class='quot0'>만약 생리대가 남성이 사용하는 제품이었다면 현재와 같은 의혹 수준으로 갈 수 있었을까</span>”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span class='quot0'>생리대에 든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생리대 위해성을 다 밝힐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에 젠더 전문가가 참여해 생리대의 위해성에 대한 통합적인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br/><br/> 오송/박기용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최민영 기자 xeno

언론사: 한겨레-1-89.txt

제목: 동네 인조잔디 축구장 ‘납 범벅’  
날짜: 20170928  
기자: 김창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28203855001  
ID: 01101001.201709282038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2010년 이전 지어진 동네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조잔디 시설 15%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br/><br/>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7~10월 지자체가 관리하는 전체 인조잔디 시설(2703곳) 가운데 유해성 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전에 설치한 933곳 중 512곳(55%)에서 중금속이 검출됐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136곳(15%)으로 나타났다.<br/><br/> 서울 목동야구장은 납이 기준치(90㎎/㎏ 이하)의 3배가 넘는 311을 기록했고, 서울 구의야구공원과 신월야구공원도 납 성분(2000 이상)이 크게 높았다. 두 곳의 6가크롬도 기준치(25㎎/㎏ 이하)를 초과했다. 김포 개곡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에서는 납(8765)이 기준치의 97배에 이르렀고, 서귀포 대정문화센터 축구장 역시 납(5466)이 나왔다. 전문인증기관이 인조잔디의 잎을 뽑아 측정한 이들 136곳의 납 오염도는 평균 수천 단위였고, 64개 운동장의 6가크롬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6가크롬은 기관지나 폐의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시도는 광주, 세종, 충북 3곳뿐이었다.<br/><br/> 지자체 체육시설의 우레탄 바닥이나 트랙 63%도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 공사 시점과 관계없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전체 1332개의 우레탄 시설을 조사한 결과 835곳에서 납과 카드뮴, 6가크롬 등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서울 망원배드민턴장은 납(9597)과 6가크롬(250)이 검출됐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우레탄에서도 납(3438)과 카드뮴(1220)이 나왔다. 서울 서초 잿말어린이공원의 배드민턴장에서는 납(1만4980)이 대량으로 확인됐고, 충북 청주체육관 농구장에서는 기준치의 431배에 이르는 납(3만8800)이 측정됐다.<br/><br/> 각 지자체는 문제의 인조잔디 운동장이나 우레탄을 교체하고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개보수가 미뤄지고 있다. 앞서 2013년 문제가 됐던 학교 관리 인조잔디나 우레탄은 대부분 교체됐다.<br/><br/> 김병욱 의원은 “시민들이 건강을 돌보려 공공체육시설을 찾았다가 오히려 중금속에 노출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자체는 시설별로 오염 정도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또 개보수 작업에 박차를 가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br/>김창금 기자 kimck

언론사: 한겨레-1-90.txt

제목: “‘가장이혼’ 의심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안 돼”  
날짜: 20170928  
기자: 여현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28120818002  
ID: 01101001.20170928120818002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기 위한 이혼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가장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성립한 법률상 이혼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과대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따져 적절한 재산분할을 넘어선 부분만큼만 과세하면 된다는 이유다.<br/><br/>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아무개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br/><br/> 대법원은 “<span class='quot0'>이혼은 원고와 죽은 남편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남편 사망 뒤 전처소생 자식들과의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의견을 조율해 남편의 사망이 임박한 때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정 또는 이혼 후에도 같이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span>”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br/><br/>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다만 그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에 반해 지나치게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제로 증여라고 봐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부분을 넘는 액수에 한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이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한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법률상 이혼의 외형만 갖춘 가장이혼’이라고만 잘못 전제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br/><br/> 원고인 김씨는 남편 이아무개씨와 30년간 부부로 살다, 전처소생 자녀 5명과의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기 위해 당시 82살이던 남편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 중 현금 10억원과 40억원의 채권을 넘겨받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고, 재산이 넘겨졌다. 이혼 뒤에도 김씨와 같이 살며 수발을 받았던 남편 이씨는 이혼 7개월 뒤 암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세무서가 ‘가장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br/><br/> 여현호 선임기자 yeopo

언론사: 한겨레-1-91.txt

제목: 10명 중 7명 “칫솔질 때 잇몸은 신경 안써”  
날짜: 20170928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28101849001  
ID: 01101001.2017092810184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칫솔질을 할 때 잇몸 관리에 주의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br/><br/> 대한예방치과학회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필립스 소닉케어가 우리 국민의 칫솔질 습관 실태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25일~9월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칫솔질을 할 때 잇몸 관리까지 신경쓴다는 응답자 비율은 29.1%에 불과했다. 칫솔질이 단순히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잇몸까지 닦아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다. 칫솔질을 하는 동안 잇몸 증상을 겪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잇몸 출혈이 66.2%, 치아 마모 및 시림 41.9%, 잇몸 통증이 33.1%, 치아 통증 20.6%, 치아 흔들림 11%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 가운데 48.3%는 ‘잇몸이 아파도 참거나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74.7%가 잇몸병이 전신질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응답자의 64.8%는 잇몸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올바른 칫솔질 습관’을 선택했다. <br/><br/>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받은 비율도 높지 않았는데,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칫솔질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는 1~2번이 4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3번 43.1%, 4번 이상 7.1%였다. 하루 평균 칫솔질 시간은 3분 미만이 51.1%로 가장 많았고, 3분 이상이 34.4%, 4분 이상 12.8% 등이었다. 이규환 분당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치과클리닉 교수는 “<span class='quot0'>잘못된 칫솔질은 치주질환을 일으키고 이 치주질환은 심장과 뇌혈관질환, 당뇨, 폐질환, 암, 치매, 조산, 발기부전 등 수많은 전신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칫솔질을 할 때 잇몸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92.txt

제목: “삼중수소 대책 없다” 하나로 재가동 절대 불가  
날짜: 20170927  
기자: 송인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27174853001  
ID: 01101001.20170927174853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하나로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시민단체가 ‘절대 불가’ 태도를 분명히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재가동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br/><br/>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는 27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pan class='quot0'>삼중수소 대책 없는 하나로 재가동은 절대 불가하다</span>”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원연)은 ‘동위원소 생산과 기초과학 연구, 산업용 시험에 차질을 빚을 수 없다’며 하나로원자로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으나 생산과 연구보다 중요한 것은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지적했다.<br/><br/> 이 단체는 “하나로는 30㎿ 출력 규모에 비해 많은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한다. 기체성 폐기물 가운데 삼중수소는 이렇다 할 포집 장치 없이 배출돼 발전소보다 최대 2~3배 많이 배출된다. 2012년에는 4조2천억 ㏃(베크렐), 2013년 5조1천억 ㏃, 2014년 6조4천억 ㏃에 달한다”고 주장했다.<br/><br/> 이어 이 단체는 “삼중수소는 인체에 유입되면 수소 대신 자리 잡아 물질 구조 변형의 원인이 돼 암, 백혈병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체에서 탄소와 만나 탄수화물 성분으로 결합하면 더 오랫동안 몸 안에 머물게 된다”며 “위험한 삼중수소에 대한 대책 없이 하나로가 재가동된다면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방사성 요오드와 크립톤 가스 등 또 다른 기체성 방사성 폐기물도 발전소보다 더 많은 양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br/><br/> 이에 대해 원연은 설명자료를 내어 “삼중수소는 무해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원연은 하나로의 삼중수소 유도 방출한도는 법적 기준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실제 방출량은 이 기준보다 훨씬 적다고 밝혔다. 원연은 “예컨대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가 밝힌 2014년의 배출 베크렐 수준은 유도 방출한도의 4천분의 1 수준이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하나로는 중수를 사용하는데 경수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설명했다. 원연 관계자는 “하나로는 2014년 내진 설계 문제가 발견돼 보강공사를 하면서 3년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그동안 기초 연구와 산업 응용연구가 중지되고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도 중단돼 피해가 있다. 이른 시일 안에 하나로를 재가동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 송인걸 기자 igsong

언론사: 한겨레-1-93.txt

제목: 치매 사망률 10년새 2배 늘어…자살은 3.4% 감소  
날짜: 20170922  
기자: 노현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22120850001  
ID: 01101001.2017092212085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고령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지난해 치매에 의한 사망률이 10년 전보다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은 지난해 다소 떨어졌지만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취업난 등 팍팍한 청년층의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br/><br/>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치매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은 17.9명으로 10년 전인 2006년(8.7명)에 비해 10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치매에 의한 사망자수는 9164명으로 10년 전보다 114.1% 늘었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의한 사망도 급증한 것이다. 치매에 의한 사망은 혈관성 치매·알츠하이머병·상세불명의 치매에 의한 사망을 집계한 것으로, 치매에 의한 사망률이 공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br/><br/> 지난해 10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기관지염·천식 등), 간 질환, 고혈압성 질환, 운수 사고 등의 차례였다. 전체 사망원인의 69.5%를 차지하는 이들 10대 사인에 큰 변동은 없었고, 2015년과 비교하면 9·10위 사망원인인 고혈압성 질환과 운수 사고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수는 28만827명으로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래 가장 많았다.<br/><br/> 사망원인 1위인 암에 의한 사망률은 153.0명으로 전년 대비 2.1명 늘었다. 암 사망률은 폐암(35.1명), 간암(21.5명), 대장암(16.5명), 위암(16.2명), 췌장암(11.0명) 순이었다. 대장암의 사망률은 처음으로 위암보다 높아졌다. 전년 대비 간암, 위암, 자궁암 등의 사망률은 줄었고, 폐암, 췌장암 등의 사망률은 늘었다. <br/><br/>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5.6명으로 전년보다 0.9명(-3.4%) 줄었다.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는 1만3092명으로 421명 줄었다. 그러나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의 평균 자살률은 11.8명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자살률이 전년보다 13.5% 줄고, 60대와 80대 이상도 각각 6.1%, 6.6% 줄었다. 그러나 10대와 20대 자살률은 2015년보다 16.5%, 0.1% 늘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실업률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br/><br/> 시도별로 보면 암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표준인구 10만명당 106.8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반면 서울은 91.4명으로 가장 적었다.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울산(35.6명)이 가장 높고, 제주(23.1명)가 낮았다. 자살은 충북이 27.5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9.8명으로 낮았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span class='quot0'>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폐렴, 고혈압성 질환, 치매로 인한 사망 등 노인성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자살률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span>”고 말했다. <br/><br/> 노현웅 기자 goloke

언론사: 한겨레-1-94.txt

제목: [ESC] 결혼 후 오누이가 된 부부  
날짜: 201709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20193821002  
ID: 01101001.20170920193821002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우리 이게 뭐니. 우리 왜 이러고 사는 거니. 도대체 뭣 때문에 사는 거니”, “그게… 다들 비슷비슷하게 살아.” (<제이티비시> 드라마 ‘네 이웃의 아내’) ‘섹스리스’(sexless)는 일본을 통해 처음 개념이 수입된 1990년대 중반 이래, 20년을 줄곧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문제로 다뤄졌다. 다양한 조사기관이 수차례 발표한 통계자료를 요약하면 한국 부부의 3분의1가량이 섹스리스 상태이며,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 이어 2위라는 결과다. 이제 와서 새삼스레 놀라기도 뭣한 통계치는 묘한 안도감마저 준다. ‘일본이 더하네, 다들 안 하고 사네,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었네, 평범하네.’<br/><br/><br/><br/> 실제로 섹스에 구애받지 않는 부부가 있고, 섹스 외의 다른 가치를 찾아내 배우자와 동지 같은 사이로 지내기도 한다. 또한 섹스를 성기 결합에 한정할 필요도 없다. <한국방송>(KBS)의 ‘생로병사의 비밀’ 100회 특집을 정리해 출간한 은 실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실험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정기적인 성행위가 ‘심장병 예방, 체중 감소, 우울증 예방, 분노 완화, 면역력 증진, 암 예방, 장수’까지 가져온다면서도 ‘섹스=삽입’의 등식을 깨라는 조언을 덧붙인다.<br/><br/> 수많은 부부의 인터뷰 중에서도 제일 공감하게 되는 건 이 대목이다. “어느 일정 기간 성관계를 안 하면 서로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오르가슴을 느끼든 안 느끼든 잠자리를 갖고 나면 그런 부분이 사라지면서 정서적 유대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지곤 하더라고요.” 사실 장기 파트너와의 섹스는 대단한 쾌락이나 무병장수를 기대하기보다 긴장의 해소, 유대감으로 얻는 만족감이 크다. 생로병사의 비밀을 섹스 하나로 다 털어버릴 셈인가 싶던 이 책에서도 친밀감을 형성하는 포옹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를 확인하려는 시도들이 꺾일 때, ‘내 이웃의 아내’ 송하(염정아)처럼 관계에 근본적인 회의가 찾아온다.<br/><br/> 세간에 떠도는 말.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에 번번이 정색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섹스리스 상태로 대치하는 두 사람 간의 사적인 갈등에서 가족이라는 사회적 울타리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이 말은 섹스 외의 유대감으로 부부를 묶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불만이 있는 쪽이 입을 다물어야 유지되는 안정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부부 연예인들이 섹스리스 상태뿐 아니라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을 구하는 배우자를 무안하게 하는 표현으로 대중의 공감을 사는 것 역시, 불만을 가진 개인을 고립시킨다.<br/><br/>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가 가리키는 가족이란 성적인 관심과 접촉을 소거한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것일까? 앞서 섹스하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있다고 했다. 여성학을 전공한 조주은이 쓴 <기획된 가족>은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맞벌이 화이트칼라 여성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며 기획하는지를 말하면서 ‘경제적 동맹자’로 거듭나는 부부관계에 한 챕터를 할애한다. <br/><br/> 친밀성은 감정이나 정서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거론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제적 관계는 친밀성과 더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된다. ‘매달 일정한 소득을 각자 관리하면서도 (일정한 금액은) 공유하는 현실이 화이트칼라 정규직 노동자 부부에게 친밀감을 가져다’주고, 싸울 시간조차 없이 바쁜 이들에게는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자원’인 것이다. 이 책의 인터뷰이로 참여한 이들은 “서로 힘들어해서 남편과 성관계를 거의 갖지 않지만 불만이 없고 거기서 큰 의미를 찾지 않는다”고 말한다. 부부간의 섹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와중에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다. 섹스리스는 일종의 잠정적 합의 상태일 수도 있다.<br/><br/> 섹스리스의 원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둘째로 긴 노동시간, 잦은 야근과 회식 등이 꼽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시간의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섹스의 물리적, 심리적인 장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문은 이어진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성 매수 수요의 대부분이 미혼 무직자에게서 발생하는가? 그럴 리가. <br/><br/> 전·현직 <한겨레> 기자가 쓴 <은밀한 호황-불 꺼지지 않는 산업, 대한민국 성매매 보고서>에는 2010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성 매수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조사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성 구매 비율을 보이는 남성 집단은 ‘30대 대졸 학력의 사무직 남성’으로 표준화된다. 또한 미혼 남성의 비율이 50.7%로 가장 높았지만 배우자가 있는 남성의 비율도 43.7%에 달한다.<br/><br/> <br/><br/> <br/><br/>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는 표현의 정확한 시작점은 불분명하지만,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 계기는 2005년 방송된 <한국방송> 드라마 ‘장밋빛 인생’이다. 외도 중인 반성문(손현주)이 아내 맹순이(최진실)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 맹순이는 뜸했던 부부관계가 문제인가 싶어 침대에서 남편의 몸을 더듬고, 반성문은 정색한다. “소망이 엄마. 우린 가족이지? 가족끼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래. (중략) 무슨 여자가 이렇게 질척대고 밝혀. 가족끼리 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혼을 하자면서 가족을 들먹이는 아이러니는 시간이 흐르며 옅어지고, 섹스를 하지 않는 ‘평범한’ 부부의 공감을 사는 우스갯소리로 바뀌었다. 하지만 ‘가족과 안 한다면, 누구와 그러는가?’라는 질문은 아직 유효할 것이다. 반성문처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쭉 섹스를 하지 않은 채로 살아도 괜찮다고 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혼자’ 해결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가끔 일탈을 실행하는 이도 있겠다. 답은 한 가지가 아니지만, 성 구매자의 수와 비율을 제외할 수는 없다.<br/><br/> ‘성 매수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성 구매 남성의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한 특성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혼자보다는 다른 남성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과 경로를 통해 성매매를 하러 간다는 것’이었다. 성 구매를 합리화하는 논지의 뿌리는 ‘연대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일상적인 경제행위’라는 인식이다. 또한 이들은 가정 밖에서 하는 ‘연애’보다 성 구매 쪽이 위험 요소를 줄인다고 판단한다. 앞서 <기획된 가족>에서 저자 조주은이 조명한 중산층 부부를 보자. ‘함께 임금 소득을 벌어들이고 일부일처제 결혼제도에 의해 금원의 외부 유출 없이 그것을 공유’하는 ‘동지적 관계이자 경제적 동맹자’로서 배우자의 의미를 강화해가는 이들을 나란히 놓아보자. 한편에선 성 구매를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이유로 합리화하고, 다른 한편에선 섹스 이외의 부분에서 가족과 부부의 가치를 강조하고 내면화한다. 후자가 일방적으로 부부간 섹스를 거부해서 섹스리스 상태가 되고, 하는 수 없이 성 구매를 한다고 책임을 돌리고 싶은 이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성 매수자들의 대부분은 다른 남성들과 ‘연대감’을 핑계 삼는다.<br/><br/> 알다시피 부부관계에서 성욕을 외주화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거부가 힘의 행사인지, 불평등한 상황의 저항인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누군가는 거절하지 않는 여성을 돈으로 사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거절하는 기술로 침대 모서리에 리본을 묶어놓으란 조언 따위를 읽는다.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주 봉화를 올리라지? <br/><br/>유선주(드라마 칼럼니스트)

언론사: 한겨레-1-95.txt

제목: [편집국에서] ‘이놈아, 너도 늙고 병든다’ / 신승근  
날짜: 20170920  
기자: 신승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20183842001  
ID: 01101001.2017092018384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신승근정치에디터<br/><br/> 그 눈빛이 뭘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눈물이 맺힌 듯도 한데…. 그 눈조차 똑바로 맞닥뜨리지 못했다.<br/><br/> “아이들은?”<br/><br/> “<span class='quot0'>아~ 네, 애들, 다 학원 갔어요.</span>”<br/><br/> “너도 먹어라.”<br/><br/> 자식은 어미에게 가족과 떨어져 요양병원에 가라는데, 손주의 안부를 묻고 바나나 조각이 담긴 접시를 힘겹게 밀어주면서 50살을 넘긴 아들을 살뜰히 챙긴다. 소설 속 장면 같았다.<br/><br/> 어머니의 암 투병 1년여, 고비가 많았다. 한쪽 콩팥을 떼어냈다. 계속 재발하는 뇌종양의 고통에 힘겨워하며 입·퇴원을 거듭했고, 빈 병실을 찾아 전전했다. 그러는 사이, 조금씩 무심해졌다. 온 가족이 나름 힘을 보탰다. 하지만 팔순 노모의 암 투병은 어느새 일상이 됐고, 생계를 핑계로 자식들의 발걸음은 뜸해졌다. 병구완은 늙은 아버지의 몫이 된 지 오래다.<br/><br/> 이제 늙은 아버지마저 병들었다. 그나마 곁에서 버텨주던 아버지 입에서 한 달 전쯤부터 “어쩔지, 나도 모르겠다. 힘들다.” “네 엄마, 치매가 오는지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50살을 훌쩍 넘긴 누나와 머리를 맞댔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를 두고 얘기했다.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 결국,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다. 좀 널찍한 방, 창밖으로 짙은 녹음이 우거진 풍경이 펼쳐진 곳이라는 걸로 서로 미안한 마음을 달랬다. 죄책감은 각자 더 깊숙한 곳에 감췄다.<br/><br/>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올해 8월 말로 65살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유엔 기준)에 진입했다. 2025년이면 65살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된다. 빈곤과 질병, 무관심과 차별에 직면하는 노인도 늘어간다. 환자 개인과 그 가족에 맡겨두면 ‘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다.<br/><br/> 마침 문재인 정부가 지난 18일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입원·외래 등 치료비 부담이 큰 치매 중증 환자들의 병·의원 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환자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span class='quot0'>어르신들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결할 책무</span>”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정책이다.<br/><br/> 그런데, 벌써 막대한 예산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필요한 재원만 약 5조원으로 추산되는데, 고령화에 따른 환자 증가 등으로 향후 천문학적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한다. 현재 72만5천명 수준인 치매 환자가 2050년에는 271만명까지 늘어, 치매 관련 비용만 106조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br/><br/> 예산을 허투루 낭비하는 건 막아야 한다. 하지만 노인의 존엄을 지키고 질병과 빈곤의 고통을 분담하는 일을 회피해선 안 된다. 나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span class='quot0'>1년에 피부과 몇 번 가는 나에게 무슨 건보료를 이리 많이 떼냐</span>”는 볼멘소리를 한 적 있다. 지난 1년여 어머니의 암 투병이 내 생각을 바꿨다. 지난 20여년 동안 내가 낸 건보료가 가족의 고통을 어떻게 완화시켰는지 깨달았다. 환자 부담금을 대폭 낮춘 ‘암 환자 산정특례’가 없었다면 우리 형제는 벌써 배은망덕한 자식이라 손가락질받았을 것이다. 엄청난 치료비 분담 문제로, 큰 분란에 휩싸였을 수도 있다.<br/><br/> 건보료 인상, 증세는 민감한 문제다. 저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상투적이지만, ‘누구도 세월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부모세대보다 더 긴 시간을 이른바 ‘늙은이’로 보내며, 수많은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br/><br/> 퀭한 눈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요양병원의 많은 노인, 그들에게도 분명 ‘찬란했던 젊은 날’이 있었다. 어머니를 모실 요양병원을 찾은 나를 지켜보는 그들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br/><br/> “<span class='quot0'>이놈아, 너도 늙고 병들어, 언젠가는.</span>” <br/><br/>skshin

언론사: 한겨레-1-96.txt

제목: 기린은 왜 목이 길까, 끝나지 않는 논쟁  
날짜: 20170920  
기자: 조홍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20121802001  
ID: 01101001.2017092012180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기린은 왜 목이 길어?” 아이가 동물 그림책을 보기 시작한 뒤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일 것이다. ‘목이 길면 다른 동물은 닿지 못하는 나무 꼭대기의 잎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라는 당연한 답이 뒤따른다. 과연 그럴까.<br/><br/> 19세기 초 프랑스 박물학자 라마르크는 점점 더 높은 곳의 잎을 따먹느라 기린의 목과 다리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다윈과 월러스는 획득형질이 유전된다는 라마르크의 주장을 반박해, 긴 목의 기린이 먼저 출현했고 그런 기린은 짧은 기린보다 높은 곳의 잎을 먹을 수 있어 번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r/><br/> 그런데 다윈 이후에도 기린 논란은 계속됐다. 1949년 채프먼 핀처는 다리가 먼저 길어졌고 물을 마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목이 길어졌다는 기발한 가설을 제기했다. 그렇지만 현재의 기린 이전에 목이 짧고 다리는 긴 기린이 잘 살았음이 화석 기록으로 증명되면서 이 가설은 생명이 다했다.<br/><br/> 수컷이 경쟁자를 제압하는 무기로 긴 목을 쓰고, 암컷도 목이 긴 수컷을 매력적으로 간주한다는 성 선택 가설도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은 암컷이 목이 긴 수컷을 특히 좋아한다는 증거가 없고, 암·수 사이에 목 길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약점으로 제기된다.<br/><br/> 키가 큰 기린이 먹이 획득에 유리하다는 다윈 가설은 가장 큰 수컷에만 해당하지 종 전체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키가 작은 암컷과 어린 기린에게는 그런 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영국 생물학자 브라운리는 1964년 덥고 건조한 지역의 인종이 키가 크고 마른 데 착안해 기린은 체온조절과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쉽게 목과 다리가 긴 체형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했다.<br/><br/> 최근까지도 동물학자와 진화생물학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체온조절 가설의 핵심은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큰 길고 마른 체형일수록 열을 쉽게 방출한다는 것이다.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결과 체중 1611㎏의 기린 표면적은 17.7㎡로 같은 무게의 포유류보다 25%나 컸다.<br/><br/> 당연해 보이는 이런 사실에 의문을 품은 과학자가 있었다. 그레이엄 미첼 미국 와이오밍대 교수 등 국제 연구자들은 짐바브웨에서 도살되는 기린 암·수 각 30마리의 가죽을 벗겨 표면적을 직접 측정했다.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기린의 표면적은 같은 체중의 포유동물에 견줘 크지 않았다. 가늘고 긴 다리와 목은 당연히 체중 대비 표면적이 컸지만 짤막한 몸통은 오히려 같은 크기의 포유류보다도 표면적이 작아,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다.<br/><br/>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표면적 자체는 특별히 크지 않아도 기린의 체형이 체온조절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가는 다리와 목은 몸보다 열전달 효율이 매우 높고, 이동할 때 바람이 부는 효과까지 더해진다. 다리와 목에 많이 분포하는 땀샘도 도움이 된다.<br/><br/> 연구자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기린의 행동이었다. 아무리 열전달이 뛰어나도 체온보다 기온이 높으면 역효과가 날 터이다. 이럴 때 기린은 태양을 향해 머리를 뻗는 행동을 한다. 나미비아 에토샤 국립공원에서 관찰했더니, 이런 행동은 기온이 20도일 때 기린의 35%에서 나타났지만 37도에서 60%로 치솟았다. 태양을 향해 목을 뻗으면 햇볕이 쬐는 단면적이 줄어든다.<br/><br/> 이 연구는 브라운리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브라운리의 주장으로 논문을 마무리했다. “날씬하고 키가 큰 체형은 열 손실을 돕는다. 덕분에 덩치와 키를 이렇게 키울 수 있었는데, 그 결과로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고 자신을 지키는 능력도 얻고 또 그렇지 않았으면 엄두도 못 냈을 먹이를 확보할 수 있었다.”<br/><br/>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br/><br/> Mitchell, G., et al., Body surface area and thermoregulation in giraffes, Journal of Arid Environments (2017),<br/><br/> http://dx.doi.org/10.1016/j.jaridenv.2017.05.005<br/><br/> 조홍섭 기자 ecothink

언론사: 한겨레-1-97.txt

제목: 곰팡내 심해 온종일 방향제 뿌려야 하는 그 방에, 6살 아이가…  
날짜: 20170920  
기자: 박기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20050959001  
ID: 01101001.2017092005095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 하지만 정작 그 성장의 토대가 돼야 할 집 때문에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알지 못한다. 저소득 가구 가 ‘부담 가능한’ 주택은 점점 줄고, 가난한 이들은 지하 와 옥탑, 고시원, 비닐하우스로 밀려난다. 어린 시절 열악 한 주거환경은 어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린이·청소년들 의 오늘을 위협하는 주거빈곤 상황의 개선이 절실하다.<br/><br/> ‘치익, 칙’. 희미한 커피향이었다. 벽에 붙은 방향제 자동분사기는 15분마다 인공향을 뿌려댔다. 20㎡ 남짓한 정사각 실내에 곰팡내가 일순 지워졌다 다시 일었다. 냄새를 의식하자 마른기침이 났다.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한 지하 단칸방에서 <한겨레>와 만난 안주철(37·가명)씨는 배에 보조기를 두른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br/><br/> 안씨는 3년 전 허리를 다쳐 온전히 서지도, 제대로 앉지도 못한다. 볕이 들지 않는, 심하게 경사진 언덕의 2층 단독주택 지하방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 안씨는 “<span class='quot0'>이 집의 곰팡이는 좀체 사라지질 않는다</span>”고 말했다. 자고 일어나면 바닥의 습기로 베개가 젖고, 젖은 베개에 다시 곰팡이가 슬었다. 6개월마다 도배를 했고, 화장실에서나 쓰는 자동방향제로 냄새를 덮었다. 곰팡내 가득한 단칸방과, 옆집과 같이 쓰는 집 밖 공용 화장실, 현관이면서 부엌이자 욕실이기도 한 기이한 공간이 이 집의 전부다. 안씨와 아내, 6살 딸은 살림이 차지하고 남는 자리에 겨우 눕는다. 이곳에서 안씨네는 7년을 살았다.<br/><br/> 안씨는 조건부 수급자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대신 정부 자활사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주거급여를 포함해 세 식구의 월 소득은 110만원. 각종 고정비용을 뺀 30만~40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br/><br/> <br/><br/>기침감기 달고 사는 딸 돈없어 가족외출도 못해 종일 방에 어린이집서 또래의 말도 이해 못해 여섯 식구가 단칸방에 살림 빼곡한 방, 보채는 네 아이 “다자녀 혜택? 전기·가스 3천원뿐” 이혼한 이주여성 가정 남편 폭력에 애들 데리고 집 나와 아이들 눅눅한 반지하방서 TV만<br/><br/><br/><br/> 곤궁해 외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부모와, 전 생애를 이 집에서 보낸 아이는 온종일 집에 머문다. 기침감기가 끊이지 않는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만난 또래의 말을 해독하지 못해 언어치료를 받는다. “제가 진짜 우울증도 왔었어요.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그런 적도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안씨가 살짝 말을 더듬었고, 당뇨와 신부전이 있어 남편을 돕지 못하는 아내가 고개를 떨구고 씁쓸히 웃었다.<br/><br/> 안씨네처럼 최저주거기준을 밑도는 주거빈곤 가구의 어린이·청소년은 2015년 현재 94만4천명, 만 19살 이하 전체 어린이·청소년의 9.7%다. 춥고 습하고 어두운 방에서 매일 아침을 맞는 아이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삶을 시작한다. 어릴수록, 또 위험 요소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빈곤의 위협은 커간다.<br/><br/> <br/><br/> 먼지나 석면, 해충, 납이 포함된 페인트, 곰팡이는 아이에게로 와 알레르기나 천식, 심장질환, 암이 된다. 과밀하고 불결한 환경, 환기와 채광, 냉난방의 어려움은 스트레스가 돼 우울증과 분노, 사기저하, 과잉행동 같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 더러 아이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을 강화하기도 한다.<br/><br/> 더 큰 문제는 대물림의 악순환이다. 외부 도움 없이 주거비 압박이 가중되면 저소득 가구는 더 과밀하고 더 열악한 주거로 내몰린다. 각종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더러 비닐하우스나 고시원 같은 ‘집 아닌 집’을 집으로 삼는다. 건강, 교육, 음식, 난방에 필요한 지출을 줄여 신산한 삶을 이어가지만, 일련의 선택은 이들의 미래인 어린이·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으로 되돌아온다.<br/><b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도시연구소가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읍면동 단위로 분석해 2013년 내놓은 결과를 보면, 주거빈곤 어린이·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이었다. 2010년 기준 이곳 어린이·청소년 10명 중 7명(69.4%)은 주거빈곤 상태다.<br/><br/> <br/><br/> 여섯 식구가 한방 ‘과밀가구’<br/><br/> 지난 6일 정왕본동에서 만난 윤성학(35·가명)·권경인(30·가명)씨 부부도 최저주거기준(6인 가구 55㎡ 이상, 방 3개·식사실 겸 부엌)을 한참 밑도는 26.4㎡ 크기 단칸방에서 네 명의 아이와 살고 있었다. 이 방에서 7살인 둘째부터 3살인 막내까지 세 아이가 태어났다. 9살인 첫째는 월세 38만원짜리 인근 원룸이 고향이다. 부부는 돈을 빌려 보증금 3300만원의 전세로 옮겼지만 단칸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br/><br/> 네 명의 아이들은 인터뷰 중 계속 보채고, 방안을 돌고, 냉장고 문을 여닫고,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 사방 벽은 각종 살림과 빨래, 아이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뒤덮였다. 벽은 이따금 갈라졌고, 겨울엔 곰팡이가 ‘꽃처럼’ 피었다. 바퀴벌레도 무시로 드나들었다. 아이들은 자주 코피를 흘렸고, 방역업체 사람은 “건물 전체를 소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받은 돈을 돌려줬다.<br/><br/> 이 지역은 인근 시화·반월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많다. 윤씨와 권씨 부부도 공단 내 한 제조업체에서 일한다. 부부의 한 달 소득은 330만원가량. 대출받은 집 보증금과 이런저런 빚 탓에 한 달 상환액만 150만원가량이지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엔 소득이 많다. 4대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가장 높은 교육급여 수급의 내년 기준은 6인 가구가 309만6천원(중위소득 50%)이다.<br/><br/> 부부는 “<span class='quot1'>아이 넷이면 흔히들 받는 게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받는 다자녀 혜택은 한 달 전기·가스비 3천원뿐</span>”이라고 했다. 이들은 두 차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했지만 모두 대기 순위를 받았다. 윤씨가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다자녀 가점은 ‘3자녀 이상 2점’뿐이었다. 윤씨는 “<span class='quot2'>아이들이 더 크면 ‘좁아서 못 자겠다’는 얘길 듣게 될 텐데, 그게 가장 두렵다</span>”고 말했다.<br/><br/>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의 고주애 연구원이 낸 보고서 <아동 주거빈곤 정책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보면, 과밀한 집에서 사는 아이들은 감기와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많이 앓는다. 과밀 주거환경이 결핵이나 뇌수막염, 위암과 소화기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결핵은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치명적이고, 천식은 성인기에 재발하면 폐기능을 비정상으로 만든다.<br/><br/> <br/><br/> <br/><br/> 어둑하고 습한 반지하 집<br/><br/>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 한 반지하 집에서 만난 결혼이주여성 권지숙(35·가명)씨도 아이가 셋인 ‘다자녀’였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2005년 한국으로 시집왔고, 생수 배달을 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 셋을 낳았지만 올해 초 이혼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지 2년여 만이다. 위자료는 못 받은 채 아이들 양육권만 가져왔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이 집에서 2년째 산다.<br/><br/> 주인집과 따로 난 철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면 어둑한 복도가 나오고, 한 집을 지나쳐야 권씨 집 현관에 이른다. 큰방, 작은방에 부엌과 화장실까지 30㎡가량의 지하 공간에서 각각 11살, 9살, 8살인 세 아이들이 자란다. 권씨는 인근 미싱공장에서 봉제일을 해 매달 120만원가량을 벌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으로 36만원을 받지만 일이 불규칙해 수입도 일정치 않다. 통장엔 60만원이나 80만원이 찍힌다.<br/><br/> <br/><br/> 권씨의 집엔 살림이랄 게 딱히 없었다. 집에 오면 텔레비전만 본다는 아이들도 인근 아동센터에 가고 없었다. 둘 곳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 입구에 버텨 선 세탁기와, 휑한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제습기가 ‘웅웅’ 소리를 내며 아이들의 옷을 빨고, 지하의 습기를 빨아들였다. “월세가 부담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다른 거 밀려도 월세 꼬박꼬박 내요. 아이들 때문에 집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애 셋 키우는데 월세 어떻게 내냐며 쫓아내요”라고, 권씨는 조사를 뺀 채 말했다.<br/><b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도시연구소가 2013년 발간한 아동 주거빈곤 실태 보고서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를 보면, 미국 보스턴의 의사들은 임대료 보조를 못 받는 가구의 아이들이 일반 가정 아이들보다 철분 결핍이 50% 이상 더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또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에 속한 아이들의 연령 대비 저체중 비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견줘 2.11배 높았다. 다른 연구에선 수입의 절반 이상을 주거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에 견줘 식비 31%, 교통비 70%, 의복비 47%를 덜 소비했다.<br/><br/> 안씨와 윤씨, 권씨네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br/><br/>박기용 기자 xeno

언론사: 한겨레-1-98.txt

제목: [현장에서] 검찰 ‘과거사 청산’ 진정성 보이려면  
날짜: 20170918  
기자: 김민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18210840001  
ID: 01101001.20170918210840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검찰이 지난 17일 독재정권의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과거사 사건의 대표적 가해자인 검찰의 첫 공식 사과다.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검찰의 ‘반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지금이 2017년이기 때문이다.<br/><br/> 이용훈 대법원장이 “<span class='quot0'>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span>”고 사과한 게 2005년 9월이다. 사과 두 달 전인 2005년 7월 서울고법은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인 함주명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12년이 지난 지금도 재심 무죄 판결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이 법원을 찾고 있다.<br/><br/> 정작 그 12년 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나. 검찰은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항고, 재항고로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며 맞섰고, 무죄 판결이 나면 기계적으로 항소, 상고를 해왔다. 2012년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도 검찰이었다.<br/><br/> “<span class='quot1'>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span>”는 문무일 총장의 말이 2005년에 나왔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2017년의 사과에는 반드시 지난 12년 검찰이 했던 일에 대한 반성도 담겼어야 했다. 지난 8월 문 총장의 사과나 검찰의 이번 직권재심 청구 발표를 보면, 마치 지난 1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한 6건의 사건 중에도 검찰이 무죄 판결에 항소·상고하지 않은 건 아람회, 태영호 사건뿐이다.<br/><br/> 검찰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 피해자 유가족인 이명재씨에게서 18일 연락이 왔다. 이씨의 아버지 이강복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1971년 암으로 숨졌다. 이씨는 2009년 아버지의 재심을 청구해 2011년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상고로 2014년에야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재심에서 무죄가 나도 무조건 상고해서 3년을 기다렸거든요. 학수고대하던 무죄였는데 상고하면서 국가를 원망하고, 땅을 치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데…. 검찰이 우리한테도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발 늦었지만, 검찰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10년 뒤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다. <br/><br/> 김민경 기자 salmat

언론사: 한겨레-1-99.txt

제목: 자유한국당 “김명수 임명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몰락”  
날짜: 20170918  
기자: 김남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18184852001  
ID: 01101001.20170918184852001  
카테고리: 국제>중남미  
본문: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여성들이 성매매로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가 차베스·마두로 두 독재정권이 친정부 성향의 이념적 코드가 맞는 대법관 12명을 임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로 대법원을 다 채웠기 때문이다.”<br/><br/>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며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이 급기야 베네수엘라 대법원까지 김 후보자 반대 이유로 끌어들였다. <br/><br/> 18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이종혁 최고위원은 “차베스 정권이 집권하는 기간 4만5000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차베스 정권에 거슬리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사법부 장악의 독재 전횡이 베네수엘라가 몰락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 잘 참조하라”고 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span class='quot0'>대법원장 한 명 잘못 뽑으면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민들이 삐뚤어지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지탄도 달게 받을 용의가 있다</span>”고 주장했다.<br/><br/>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2013년 사망)은 2002년 반 차베스 쿠데타 당시 대법원이 반정부 세력을 옹호한 이후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새 대법관을 자신의 지지자로 채워 넣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2013년 1월 차베스가 암 투병으로 인해 대통령 취임 선서 없이 4번째 임기를 시작한 데 대해서 합헌 판결을 하기도 했다. <br/><br/> 하지만 14년 장기집권한 사회주의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빗대며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을 넘어 ‘막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은 홍 대표는 “<span class='quot1'>최근 우리 당에서 한 말 중에 최고의 발언</span>”이라고 치켜세웠다.<br/><br/> 김남일 기자 namfic

언론사: 한겨레-1-100.txt

제목: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2024년까지 52조원 국내투자  
날짜: 20170918  
기자: 최하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18104848001  
ID: 01101001.20170918104848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2024년까지 국내에 51조9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br/><br/>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 박성욱 부회장, 엘지(LG)디스플레이 한상범 부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투자계획을 밝혔다. <br/><br/> ‘상생협력 간담회’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삼성전자는 2021년까지 경기 평택·화성과 충남 아산 등에 메모리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21조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2024년까지 충북 청주에 15조5천억원 규모의 낸드(NAND) 관련 반도체 투자를 하고, 엘지디스플레이는 2020년까지 경기 파주와 경북 구미에 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1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br/><br/> 업계는 대규모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인프라 확보와 안전·환경 규제 확대,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산업부에 호소했다. 이에 백 장관은 “<span class='quot0'>실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해 협의해 맞춤형 해결책을 모색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업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각 회사는 이날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6월부터 7천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 지원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회사와 임직원이 재원을 조성해 협력사 직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임금 공유제를 3년째 하고 있고 협력사 지원펀드를 1천4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엘지디스플레이는 1천억원 규모의 상생기술협력자금을 조성해 2·3차 협력사에 금융지원을 하고 엘지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일한 협력사 직원이 암이나 희귀질환 발병하면 업무연관성과 관계없이 의료복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 산업부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간담회에 앞서 ‘반도체 성장펀드 1호 투자 협약식’을 진행했다. 2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성장펀드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각 500억원과 250억원을 출자했고 나머지는 성장 사다리펀드 750억원과 운영사 매칭 금액 500억원으로 조성됐다. 펀드는 올해 1호 투자 대상 기업으로 인투코어테크놀로지를 선정하고 투자를 개시하게 됐다. <br/><br/> 간담회에는 이들 외에도 이용한 원익아이피에스(IPS) 대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박경수 피에스케이(PSK) 대표, 박재규 동아엘텍 대표, 백충렬 한국알박 사장, 전선규 미코 대표, 남기만 반도체협회 부회장, 서광현 디스플레이협회 부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br/><br/> <br/><br/> 최하얀 기자 chy

언론사: 한겨레-1-101.txt

제목: 암세포 진단 10초 만에 ‘뚝딱’  
날짜: 20170917  
기자: 곽노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17162852001  
ID: 01101001.2017091716285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국 텍사스오스틴대 연구진이 수술을 하는 동안 암세포 조직을 단 10초 만에 판별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br/><br/> 이는 현재 30분 이상 걸리는 동결절편분석법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연구진은 매스펙 펜(MasSpec Pen·사진)이라는 이름의 이 기기를 이용하면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경계 부위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 수술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25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펜을 시험한 결과 96%라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연구진은 내년에 시행되는 암수술에서 실제로 이 기술을 시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대사산물이라 불리는 작은 분자들을 생산한다. 그런데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은 마치 지문처럼 특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이용해 환자의 조직에서 작은 분자를 추출해 펜에 갖다 대면 곧바로 암세포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된다.<br/><br/> 매스펙 펜의 작동 방법은 이렇다. 우선 의사가 펜을 잡고 환자의 조직에 갖다댄다. 그런 다음 발쪽에 있는 페달을 밟아 자동분석 지시를 내린 뒤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 사이 펜에서는 한 방울의 물이 환자의 조직에 떨어진다. 환자 조직에 있던 작은 분자들이 이 물을 타고 분자지문을 분석하는 '질량 분석기'를 통과하면서 암 세포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 결과는 컴퓨터 화면에 '정상' 또는 '암'이라는 글자로 표시된다. 이 연구 내용은 9월6일치 저널 <사이언스 트랜스레이셔널 메디신>에 실렸다.<br/><br/> 곽노필 기자 nopil

언론사: 한겨레-1-102.txt

제목: [세상 읽기] “대북 제재가 영아사망률 증가에 미친 영향” / 김창엽  
날짜: 201709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13175819001  
ID: 01101001.20170913175819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br/><br/> “<span class='quot0'>대북 제재가 영아사망률 증가에 미친 영향</span>”<br/><br/> 몇 년 뒤라도 이런 제목이 붙은 건조하고 우울한 조사 결과는 보고 싶지 않다. ‘원인 행위’가 없으면 저절로 그리되겠으나, 솔직히 비관적이고 무력하다. 지난 월요일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는 최악의 상황을 조금 늦춘 것에 지나지 않는다. “<span class='quot0'>끝 볼 때까지 더 빨리 가겠다</span>”는 북한이 물러설 것 같지도 않으니, 역사적 비극을 마주할 마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br/><br/> 나도 어지간히 게을렀음을 고백한다. 북핵 문제가 워낙 엄중했던 탓에 마음이 딴 데 갔다고 하고 싶지만 변명이다. 강한 경제제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뻔히 알면서도, 이번에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병원 때문에 원유 수출 금지에 반대한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아차 싶었다. 이런, 이란이 그랬고, 시리아가 어쨌다는 소리를 하고 다녔으면서도, 코앞의 북한 주민은 놓쳤다.<br/><br/>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는 외교, 군사, 국방 전문가가 말할 테니 무슨 말을 보탤까만, 지금 돌아가는 형편에서는 그 ‘전문성’도 믿지 못하겠다. 경제제재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내 나름으로 열심히 뒤졌는데도 초강경 제재가 정답이라는 결론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희망이나 가정이 아니라 실제 최선의 해결 방법이라는 튼튼한 근거를 가진 분은 알려주길 부탁한다. 머뭇거리지 않고 생각을 바꾸겠다.<br/><br/> 나는 국제사회가 정설로 받아들이는 한 가지 효과, 아니 ‘부수적 피해’를 말하려 한다. 역사와 경험이 증명한바, 강력한 경제제재는 보통사람들의 삶과 생명을 확실하게 파괴한다. 미국의 금수 조치로 쿠바의 에이즈와 암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라크에서는 경제제재 때문에 죽은 사망자가 미국-이라크 전쟁의 전사자보다 더 많다. 과거 유고슬라비아도 경제제재 때문에 전체 사망률이 10%, 병원 사망률이 30% 증가했다.<br/><br/> 약품과 병원 시설이 받는 영향은 일부일 뿐, 더 중요하게 삶과 죽음, 질병을 가르는 것은 일상의 물질 조건이다. 굶주림, 추위, 더러운 물, 오염된 공기, 불결한 위생이 사람을 집단으로 죽이고 병들게 한다. 주민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제제재? 집권층만 목표로 하는 ‘핀셋’ 제재? 불가능하다. 개인이 죽고 병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살해’, ‘사회적 감염병’이라 불러야 마땅하다.<br/><br/> 피해가 ‘핀셋’이라는 것도 가볍지 않다. 사회적 죽음은 당연히 사람을 차별하고, 비슷하게 나쁜 조건에도 어떤 사람은 더 취약하다. 여성과 어린이, 노인이 그렇고, 본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위험하다. 강력한 경제제재가 주민들, 그중에서도 더 약한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권력층을 압박하는 ‘전략’이란 말인가?<br/><br/> 대북 제재는 이제 ‘생명윤리’ 문제가 되었다. 며칠 전 세계적인 보건분야 학술지 <랜싯>의 편집 책임자인 리처드 호턴 교수가 대북 제재의 정당성을 거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목조르기 전략은 정치적으로 잘못되었고 도덕적으로는 비인도적이다. 김정은을 벌하는 것과 2500만 북한 주민을 벌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북한은 정치체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이기도 하다. 서구 지도자들이 한 국민국가를 악마로 만들기 쉬우나, 이미 고통 상태에 있는 주민들을 악마로 만드는 것은 비윤리적이다.”<br/><br/>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수적 피해’는 명확한, 단순하고 나태한 해결 방법, 그중에서도 바닥으로 향하는 질주를 멈추어야 한다.

언론사: 한겨레-1-103.txt

제목: [유레카] 인공지능의 시력 / 구본권  
날짜: 20170911  
기자: 구본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11174856001  
ID: 01101001.20170911174856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란 말처럼, 사람 두뇌의 60% 이상은 시각 처리를 담당하고 외부 정보의 90% 가까이를 시각에 의존한다. 기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이미지를 인지하고 식별하느냐는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핵심이다. 자율주행 기술, 위성이미지 분석, 암 진단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최근 괄목할 성과를 내놓는 것도 기계 눈(머신 비전)의 이미지 처리 기능이 개선된 영향이 크다.<br/><br/> 미국 스탠퍼드대 미할 코신스키 교수는 최근 얼굴 사진을 분석해 그가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를 높은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다고 학술논문에서 공개했다. 연구진은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이용해 미국의 유명 데이트 사이트에 공개된 사진 3만5000장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91%, 여성은 83%의 정확도로 동성애 여부를 식별해냈다. 사람의 식별률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다. 코신스키는 적합한 데이터가 있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의 지능이나 정치적 견해 같은 민감 정보도 사람보다 높은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구진은 공개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만을 활용했다.<br/><br/> 머신 비전 기술은 인공지능과 산업 발달의 동력인 만큼 막을 길이 없다. 이용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사진과 동영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화폐로 기능한다. 구글의 페이스넷은 99.96%, 페이스북의 딥페이스는 97.25%의 얼굴인식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얼굴 인식을 열쇠와 결제 수단으로 쓰고 있다.<br/><br/> 사상, 신념, 종교, 노조 가입, 성생활, 건강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 정보로 규정해 처리와 활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만 최근의 기술은 기존 법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용자가 중심이 되어 미래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새로운 논의 틀이 요청된다.<br/><br/>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starry9

언론사: 한겨레-1-104.txt

제목: 중국, 보이차 발암물질 함유 논란…판매량 ‘급감’  
날짜: 20170911  
기자: 김외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11161857002  
ID: 01101001.20170911161857002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대표적인 발효 차로 건강에 좋다고 해 원산지 중국뿐 아니라 한국 등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있는 푸얼차(보이차)에 발암물질이 함유됐다는 주장이 나와 판매가 급락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br/><br/> 중국의 유명한 과학저술가 팡저우쯔는 <과학세계> 잡지 7월호에 실린 ‘차를 마시면 암을 예방할까, 아니면 암을 일으킬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푸얼차의 발효 및 저장 과정은 황곡곰팡이, 푸모니신(곰팡이독소), 보미톡신(구토독소) 등 각종 독성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며, 그 중 황곡곰팡이는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푸얼차를 결코 마시지 않는다고 밝힌 팡은, 2010년 광저우 질병관리센터 조사 때 시중의 푸얼차 상품 70종에서 모두 황곡곰팡이가 발견됐고, 2012년 난창대 조사 때도 푸얼차 60종에서 황곡곰팡이가 모두 검출됐고 7종은 표준치를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br/><br/> 푸얼차의 유해성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인터넷에서는 “푸얼차에 발암 성분이 있다”는 주장과 “인체에 유익한 곰팡이만 자란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그러나 팡은 후자를 일컬어, “푸얼차에 특수한 지능이 있어서 인간을 위해 곰팡이를 구분해 좋고 나쁨을 가린다는 듯한 설명”이라며 “푸얼차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집단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br/><br/> 이 글이 화제가 되자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선 ‘황곡곰팡이’와 ‘팡저우쯔’가 상위 검색어로 떠오를 만큼 논란이 달아올랐다. 한 저명 영양사는 푸얼차는 습한 창고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슬 위험이 있는 만큼 독성 곰팡이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발암물질 함유량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푸얼차 업계에서는 심각하게 곰팡이가 낀 푸얼차에 미량의 황곡곰팡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암을 발병시킬 만큼은 아니라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br/><br/> 그러나 논란 과정에서 푸얼차 시장은 즉각 타격을 받았고 판매량은 40%가량 급락했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했다. 중국 최대 차 산지인 윈난성의 푸얼차협회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팡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600만위안(약 10억406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br/><br/>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

언론사: 한겨레-1-105.txt

제목: 알 바꾸고 내는 뻐꾸기 ‘최후의 웃음’의 비밀  
날짜: 20170909  
기자: 조홍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09090852001  
ID: 01101001.2017090909085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이른 여름 숲을 울리는 ‘뻐꾹∼’ 소리는 사람에게는 평화롭게 들리지만 개개비나 뱁새 등 뻐꾸기에 탁란 기생을 당하는 새에게는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다. 뻐꾸기가 슬그머니 낳은 알을 품고 뻐꾸기 새끼를 키우느라 자신의 새끼는 모두 또는 대부분 잃을 수 있다.<br/><br/> 그러나 실험을 해 보았더니 탁란 숙주 새들이 ‘뻐꾹∼’ 소리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무서운 건 ‘킥-킥-킥∼’ 하는 뻐꾸기 암컷이 내는 소리이다. 이 소리가 탁란을 완성하는 뻐꾸기의 두 번째 속임수임이 밝혀졌다.<br/><br/> 천적의 새끼를 힘들여 키우는 결과를 빚는 탁란은 당하는 새들에겐 너무나 치명적이다. 그래서 다양한 대응 전략이 나타났다. 먼저 둥지 주변을 철저히 감시한다. 뻐꾸기가 얼씬거린다면 덩치가 크지만, 목숨을 걸고 공격해 쫓아낸다.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 둥지에 낯선 알이 나타난다면 밖으로 내던진다.<br/><br/> 뻐꾸기라고 손 놓고 당하지는 않는다. 암컷은 숙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잽싸고 은밀하게 둥지에 침입한다. 이어 자기 덩치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 숙주가 미리 낳아놓은 알과 크기와 색깔이 비슷한 알을 하나 얼른 낳고 달아난다. <br/><br/> 그런데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뻐꾸기의 새로운 전략이 있었다. 연구자들은 암컷 뻐꾸기가 탁란한 직후 ‘킥-킥-킥’하고 운다는 데 주목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자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 소리가 탁란의 성공률을 높이는 최후의 무기임이 드러났다고 과학저널 <네이처 생태학 및 진화> 7일치에 실린 논문에서 밝혔다.<br/><br/> 연구자들은 암·수 뻐꾸기의 울음소리, 천적인 새매의 소리, 멧비둘기의 소리 등을 주요 숙주인 개개비와 탁란을 당하지 않는 박새에게 들려주고 각각 다른 반응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실험했다. 무엇보다 개개비가 수컷 뻐꾸기가 내는 유명한 ‘뻐꾹∼’ 소리에 무덤덤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멧비둘기가 우는 소리보다도 덜 반응했다.<br/><br/> 사실 수컷 뻐꾸기는 잘 드러난 장소에서 경쟁 상대인 다른 수컷 뻐꾸기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운다. 그러나 종종 주변에 암컷이 없어도 운다. 탁란 숙주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안다.<br/><br/> 그러나 개개비는 암컷 뻐꾸기가 내는 ‘킥-킥-킥’하는 소리에는 새매가 내는 소리만큼 예민하게 반응했다. 사람이 듣기에는 새매와 암컷 뻐꾸기의 소리는 전혀 다르다. 새매는 ‘키이-키이-키이’ 하고 운다. <br/><br/> 연구자들이 암컷 뻐꾸기의 소리를 박새에게 들려주었더니 새매 소리 때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박새는 탁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뻐꾸기를 경계할 필요가 없지만, 소리 자체는 새매와 비슷한 효과를 냈다. 연구자들은 “<span class='quot0'>피식자는 포식 위험을 나타내는 아주 미묘한 단서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span>”라고 논문에서 설명했다. 천적이 내는 소리와 똑같지 않더라도 특정 양상이 비슷해도 대응하기엔 충분하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주변을 한 번 더 경계하는 편이 현명하다.<br/><br/> 연구자들은 암컷 뻐꾸기가 내는 소리가 알을 품는 개개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 어미가 자리를 비웠을 때 마지막인 네 번째 낳은 알을 꺼내 갈색으로 칠하고 다시 넣은 뒤 녹음한 소리를 들려줬다. 반응은 놀라웠다.<br/><br/> 낯선 알이 들어온 둥지 70개 가운데 한 곳은 어미가 둥지를 버리고 떠났고 32곳에서는 낯선 알만 둥지 밖으로 내버렸다. 그러나 둥지 주변에서 암컷 뻐꾸기 소리를 들려준 둥지에서는 낯선 알을 버린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다. 새매 소리가 난 곳과 비슷한 비율이었다. <br/><br/> 포식자는 은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피식자는 한동안 경계를 늦추지 못한다. 암컷 뻐꾸기가 노린 것은 바로 이것이다. 탁란한 직후 새매와 비슷하게 들리는 소리를 냄으로써 둥지에 돌아온 개개비가 포식자를 경계하느라 정신이 팔려 낯선 알을 가려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br/><br/> 연구자들은 “<span class='quot0'>암컷 뻐꾸기는 숙주의 방어와 기생자의 속임수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에서 ‘최후의 웃음’을 날리는 셈</span>”이라고 논문에서 밝혔다.<br/><br/> 뻐꾸기의 깃털 무늬가 맹금류와 비슷한 이유가 숙주의 반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연구로 탁란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br/><br/>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br/><br/> Jenny E. York and Nicholas B. Davies, Female cuckoo calls misdirect host defences towards the wrong enemy, Nature ecology & evolution, DOI: 10.1038/s41559-017-0279-3<br/><br/> 조홍섭 기자 ecothink

언론사: 한겨레-1-106.txt

제목: MBC 부당전보·해고가 “정의”라니…한국당의 적반하장 ‘방송 토론회’  
날짜: 20170907  
기자: 송호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07212838001  
ID: 01101001.20170907212838001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맞은편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했다.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날 따로 ‘방송장악저지 대토론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은 <문화방송>(MBC), <한국방송>(KBS) 파업에 동참한 기자·피디 등을 비난해온 이상로 전 문화방송 부국장 겸 전 문화방송 공정노조위원장, 성창경 한국방송 국장 겸 한국방송 공영노조위원장을 강연자로 불렀다. 두 사람은 현재 회사 쪽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들이다.<br/><br/> 이 전 부국장은 토론회에서 문화방송 기자·아나운서들의 해고·부당전보가 이어졌던 2012년 파업을 거론하며 “<span class='quot0'>그 파업은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파업이었다</span>”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국을 ‘사회적 병원’이라고 비유하며, 파업 참여자들을 “<span class='quot0'>암이 아닌 사람들을 수술해서 죽였거나 죽음에 몰고간 사이비 의사</span>”라고 비난했다. 이 전 부국장은 “<span class='quot0'>그 사람들을 다시 현업에 서게 하면 대한민국이 혼란해진다</span>”며 문화방송 기자들의 해고와 부당전보가 정당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br/><br/> 이 전 부국장이 당시 문화방송의 조처를 “정의”라고 지칭하자, 강연을 듣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잘했어!”라고 맞장구를 쳤다. 이 전 부국장은 “‘(방송사) 블랙리스트’는 (오히려) 좌파가 만들었다. 우파 성향을 가진 언론인들이 훌륭한 보직,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문화방송이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r/><br/> 자유한국당은 오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5천만 핵인질·공영방송 장악 저지’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하고, 의원들에게 인원 동원을 요청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

언론사: 한겨레-1-107.txt

제목: 연인이 기록한 올리버 색스의 마지막 나날들  
날짜: 20170907  
기자: 김지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07185830001  
ID: 01101001.20170907185830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인섬니악 시티-뉴욕, 올리버 색스 그리고 나빌 헤이스 지음/알마·1만7500원<br/><br/> ‘의학계의 계관시인’으로 불리는 신경학자 올리버 색스(1933~2015)의 연인 빌 헤이스가 그들의 만남부터 사랑, 죽음을 섬세한 감각과 언어로 기록했다. 사랑에 빠진 76살 색스의 다정하고 소년 같은 모습들이 가득 담겼다. 그가 82살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6년간 그의 파트너였던 지은이는 그와 함께 한 내밀한 순간들과 뉴욕 생활의 일상들을 솔직담백하게 적고 있다.<br/><br/> “일기는 꼭 적어야 해요!” 16년간을 함께 한 파트너를 심장마비로 잃고 뉴욕으로 이주한 헤이스에게 색스가 한 조언. 그렇게 일기장에, 냅킨에, 영수증에 혹은 카메라 필름에 기록한 뉴욕과 색스에 대한 편린들은 연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고스란히 삶과 상실의 기록이 됐다. 그들의 대화를 옮긴 헤이스의 일기는 그대로 ‘색스 어록’이 된다. “<span class='quot0'>걸어 다니는 옥스퍼드 영어사전</span>”이란 별명처럼 그의 한 마디 한 마디는 연인을 향한 애정과 통찰을 담은 찬사가 된다. “당신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갑자기 깨달았어. 욕구를 일으키고는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 허기지게 만들어놓고는 그것을 달래주는 사람. 예수 같고 키르케고르 같고 훈제연어 같은 사람…”<br/><br/> 연인에게는 ‘불면증’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오랜 불면증에 시달린 헤이스는 불면증의 과학과 역사에 관한 책＜불면증과의 동침＞을 썼다. 색스 또한 평생 불면증을 겪었다. 헤이스에게 ‘밤’은 상실의 아픔을 떠올리게 했다. 하필 수면유도제를 먹고 깊은 잠에 빠졌던 밤, 옆자리의 연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 그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불면의 도시’ 뉴욕으로 떠나오게 된 이유일 것이다.<br/><br/> “이 도시는 생기에 넘친다. 나는 친절함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보상이 돌아온다는 것, 외롭거나 뼛속까지 피곤하거나 우울할 때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뉴욕이-말하자면 뉴욕 사람들이-다 해결해준다는 것을.” 특히 그는 뉴요커들의 사진을 찍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노숙인, 공원의 연인, 지하철 승객, 택시 기사, 불법체류 노동자 등 대부분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었다. 생생한 표정이 담긴 그들의 사진과 일상은 헤이스의 따뜻한 시선과 담담한 어조와 만나 매혹적인 도시, 뉴욕의 얼굴로 거듭난다.<br/><br/> 책은 죽음으로 시작해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암 선고를 받은 뒤 6개월여 동안 올리버 색스는 ‘연명 자체를 위한 연명’을 거부하며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글쓰기에 집중한다. “<span class='quot0'>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게이 남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힘으로써 생을 ‘완결’할 시간</span>”을 갖는다. 여행과 친구, 친지들과의 만남, 수영과 피아노 연주도 멈추지 않는다. 헤이스의 말마따나 “총명하고 다정하고 겸손하고 잘생겼고 느닷없이 소년 같은 뜨거운 열정을 폭발하는 올리버 색스”는 죽음을 앞두고도,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8개의 ‘희망의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에는 ‘허락된 쾌락-마리화나 이제 합법’이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의 추억에 자주 등장하는 ‘와인 병나발’과 ‘맨해튼 야경 보며 대마 피우기’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면서도 한없이 찡하다. 올리버 색스가 헤이스에게만 보여줬을 친밀한 모습을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훔쳐볼 수 있는 것은 소중한 덤.<br/><br/> 김지숙 기자 suoop

언론사: 한겨레-1-108.txt

제목: 죽음을 부르는 약을 만드는 조직범죄  
날짜: 20170907  
기자: 조일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07185829001  
ID: 01101001.20170907185829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위험한 제약회사 - 거대 제약회사들의 살인적인 조직범죄피터 괴체 지음, 윤소하 옮김/공존·2만5000원<br/><br/> 오늘날 유럽과 미국에서 주요 사망 원인 1, 2위는 심장질환과 암이다. 3위는 뭘까? 놀랍게도 의약품이라고 한다. 대학에서 생물학·화학·의학을 공부한 내과 전문의이자 거대 제약회사 영업직 경험도 있는 지은이가 “<span class='quot0'>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계산한</span>” 결과다. 근거중심의학 연구기관인 코크란 연합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한 지은이가 쓴 <위험한 제약회사>(원제:치명적 의약품과 조직범죄)는 제약사들이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약의 유익성을 과장하고 위해성은 축소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과학을 왜곡하고 악용한 사례”들을 신랄하게 고발한다.<br/><br/> 지은이가 보기에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조직범죄의 기준에 부합”한다. 화이자의 전 글로벌마케팅 부사장은 “<span class='quot1'>제약회사와 갱단 사이엔 무서울 정도로 유사점이 많다</span>”고까지 고백했다. 터무니 없이 많은 수입, 살해와 사망이라는 부작용, 유력집단에 뇌물 공세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 약은 천사의 얼굴을 한 죽음으로 다가온다. 너무 느슨한 규제와 너무 복잡한 경고들, 과잉 의료, 다중약물요법, 약의 위해성에 대한 무지 등이 약으로 인한 죽음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다.<br/><br/> 지은이가 ‘의약품 무용론자’인 것은 아니다. 의사로서 일부 의약품의 혜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이 책은 “이미 잘 알려진 약의 유익함에 대한 책이 아니라 약의 개발·제조·마케팅·규제를 비롯한 시스템 전체의 부실함에 대한 책”(머리말)이다. 지은이는 약에 대한 ‘그릇된 믿음’ 10가지를 꼽은 뒤, 보건의료 시스템의 적폐를 청산할 혁명적 대안들도 제시한다. <br/><br/><br/><br/>조일준 기자 iljun

언론사: 한겨레-1-109.txt

제목: [ESC] 지리산 자락 마을여행 지루할 틈 없네  
날짜: 20170907  
기자: 이병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07113848001  
ID: 01101001.20170907113848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함양은 산청·하동·구례·남원과 함께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다섯 시·군 중 하나다. 칠선계곡과 백무동계곡으로 드는, 지리산 북동부의 관문이 되는 고장이다. 지리산 고장답게 함양엔 경관 좋은 물길 산길이 수두룩하고 오지 마을도 많다. 함양읍내에서 ‘지리산제일문’ 문루가 세워진 오도재를 넘어 엄천강변 상류의 산촌생태체험마을 송전리를 찾아갔다. 백무동 들머리의 전망 좋은 암자 금대암, 칠선계곡 입구의 고찰 벽송사 등도 지리산 북동부 여행길에 빼놓을 수 없는 곳들이다.<br/><br/> 지안재~오도재~금계마을 고갯길은 길도 전망도 멋진 드라이브 코스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오른 산길이다. 지안재 경관이 가장 먼저 다가온다. 가파른 산비탈을 일고여덟 번이나 좌우로 급회전하며 오르는 고갯길이다. 고개 위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겹겹이 쌓인 굽잇길이 아름답다. 사진작가들이 모여들어 밤에도 찍고 새벽에도 찍는 ‘출사 명소’다. 지안재(지안치)라는 이름은 ‘제한치’가 변한 것이다. 고개 밑 조동(대추징이) 마을에, 말을 쉬어 가게 하던 조선시대 역인 제한역이 있었다.<br/><br/> ‘도를 깨친다’는 뜻을 지닌 고개 오도재(773m)엔 ‘지리산 제일문’이라 현판을 내건 대형 문루가 세워져 있다. 옛날 벽소령·장터목을 거쳐 온 하동·광양의 소금과 해산물이 이 고개를 넘어 경북 지역으로 운송됐다고 한다. 조선 중기의 승려인 청매 인오조사가 이 고개를 넘나들며 도를 깨쳤다는 데서 고개 이름이 유래했다. 고개 넘어 ‘조망공원 휴게소’에서 장엄하게 펼쳐진 지리산 능선을 감상할 수 있다. 왼쪽 천왕봉(1915m)에서 오른쪽 반야봉(1732m)까지 27㎞에 이르는 고봉준령이 한눈에 들어온다.<br/><br/> 고갯길을 내려가 금대암으로 향한다. 지리산 조망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금대(암)다. 흔히 지리산 조망 명소로 금대·마적대·문수대·연화대·묘향대·만복대·수성대·청신대 등 ‘지리산 8대’를 꼽는다. 이곳에 모두 올라봐야 비로소 ‘지리산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금대 전망을 제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오도재에서 내려가 마천면 소재지를 지나 인월 쪽으로 가다 보면 금대로 오르는 비탈길 입구가 나온다. ‘다랭이 논’ 경치로 알려진 도마마을 건너편이다.<br/><br/> 금대암은 신라 때 처음 창건된 사찰 터에 자리한 암자다. 높이 40m에 이르는 500여년 수령의 전나무와 나한전 뒤 바위 밑에 놓인 작은 삼층석탑이 인상적이다. 석탑은 받침돌 없이 너럭바위 위에 바로 1층 탑신을 올린 모습이다. 지리산 능선을 바라보기 좋은 장소는 나한전 옆 커다란 너럭바위다. 하봉·중봉·천왕봉이 정면으로 손에 잡힐 듯 다가와 감동을 준다. 암자 앞에 솟은 늘씬한 전나무가 경관을 돋보이게 해준다. 종무소 문에 내붙인 글귀가 귀에 박혀 빠지지 않았다. ‘말의 화살을 가벼이 던지지 말라. 한번 사람 귀에 박히면 힘으로는 빼낼 수 없다.’<br/><br/> 칠선계곡 초입엔 고찰 벽송사가 있다. 한국전쟁 때 빨치산 근거지로 이용되자 이를 막기 위해 불태워졌는데, 1960년대 중건 때 절터에선 수많은 유골이 나왔다고 한다. 벽송사의 볼거리는 100년쯤 된 목장승 2기와 고려시대 삼층석탑, 300여년 된 소나무 등이다. 금호장군·호법대신 두 고색창연한 목장승을 들여다볼 만하다. 악귀를 막기 위해 절 입구에 세웠던 것으로, 훼손이 심해져 경내에 전각을 지어 옮겨놓았다.<br/><br/> 절을 지키는 건 도인송이라 불리는 300여년 된 소나무다. 축대 위의 또 다른 늘씬한 소나무가 이 소나무를 향해 기울어진 모습이다. 옛날 이 절의 한 고승과 고승을 사모했던 보살이 환생한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 벽송사 들머리의 서암정사는 한국전쟁 희생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조성한 석굴 사찰이다. 아미타불을 모신 굴법당, ‘금니사경’(아교 섞은 금가루를 붓으로 찍어 불경을 베껴 쓴 것) 등을 전시해 놓은 ‘사경수행 참배관’을 둘러볼 만하다.<br/><br/> 엄천강 물길 따라 내려가 용유교 건너면 송전리다. 송전리는 세동·송대·마적동·고양터·모전 5개 마을로 이뤄졌다. 지리산 둘레길 금계~동강 구간(제4구간)이 지나는 곳이다. 모전마을 앞 물길의 커다란 소가 송전리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용유담이다. 다리(용유교) 위에서 보면 특별할 것 없는 물길이다. 반야정사 쪽으로 내려서 물가로 다가서야 기암괴석 우거진 용유담의 제 모습이 드러난다. 바위 여기저기에 지리산을 찾았던 옛 선비들의 자취가 새겨져 있다. ‘일두 정여창, 탁영 김일손, 남명 조식 장구지소’란 글씨 옆엔 점필재 김종직 이름도 보인다. 정여창과 김일손은 함양 출신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이다. 함양군수를 지낸 김종직은 가뭄이 들었을 때 이곳을 찾아와 직접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br/><br/> 용유담 등 송전리 주변에선 마적도사와 아홉마리 용 이야기가 전해온다. 마적동은 말발굽 자국이 있는 커다란 바위가 있던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신라 무열왕 때 마적사라는 절이 있던 곳이다. 지금 마적사 터 부근엔 방치된 대종교(단군을 교조로 삼는 전통 종교) 시설이 남아 있다. 마적동 오르는 길에 절벽 너럭바위인 세진대가 있다. 400여년 수령의 멋진 소나무가 볼만하다.<br/><br/> 세동마을에서 마적동을 지나 더 오르면 일고여덟 집이 사는 송대마을, 펜션 건물을 개조해 법당으로 쓰는 견불사를 거쳐 모전마을로 내려서게 된다. 송전리의 송대마을과 마적동은 1967년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화전민들을 철수시켜 한데 모여 살게 했던 이른바 ‘독가촌’의 일부다. 현재 마적동에 2가구, 송대마을에 7~8가구가 산다. 송대마을 이름은 ‘송은대’라는 바위에서 나왔다. 견불사 법당 뒤 바위에 ‘송은대’ 글씨가 보인다.<br/><br/> 세동마을 주민들은 지리산 자락 여느 마을들이 그렇듯,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 지리산 빨치산과 국방군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밤낮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다. 밤엔 빨치산들이 내려와 곡식·가축을 빼앗아가거나 주민을 끌고 갔고, 낮엔 경찰이 찾아와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주민을 닦달하고 잡아갔다고 한다.<br/><br/> 세동마을의 과거를 지배하는 또 다른 단어가 ‘닥종이’다. 40여년 전까지 닥종이(한지) 생산으로 이름난 마을이었다. “하이고 마, 참말로 고되다. 추수 끝나모 닥나무 해와 가, 삶아 가 방에 앉아 종일 껍디를 뻬끼냈다. 그래 가 넙덕한 바우에 올려 큰 몽디로 뚜디리가지고 딱풀 삶은 물에 섞어 풀어 종이를 뜨는 기라.” 주민 석달막(72)씨의 말이다.<br/><br/> 초겨울이면 온 마을 주민이 달라붙어 공동 작업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잡아당기면 쇳소리가 팡팡 나는 질긴 한지”는 전국 곳곳으로 팔려나갔다고 한다. 구덩이 파고 커다란 쇠솥을 묻어 닥나무를 쌓은 뒤, 가마니 씌우고 흙을 덮은 다음 불을 때서 닥나무를 찌던 시설이 세동마을 길가에 방치돼 있다. 이름났던 ‘한지 마을’의 소중한 마을 유산이다. 불을 때던 쪽 석축 일부는 최근 훼손됐다. 석재로 쓰기 위해 누군가 돌을 빼냈다는데 보존이 필요해 보인다.<br/><br/> 송전리는 최근 산촌생태마을로 거듭났다. 도시민을 맞아 철마다 농산물 수확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펼친다. ‘쪽’을 이용한 천연 염색 체험도 진행한다. 손수건·스카프나 옷에 직접 물을 들이고 말린 뒤 가져갈 수 있다. 박달나무로 만든 방망이로 다듬잇돌을 두드리며 음악을 연주하는 ‘다듬이 공연’도 이 마을의 자랑거리다. 군 지역 축제가 벌어질 때마다 초청돼 공연을 펼친다. 세동마을에선 지금 오미자 수확이 한창이고, 앞으로 호두 수확도 이어질 예정이다. <br/><br/> <br/><br/> <br/><br/> Jirisan<br/><br/> 지리산. 1967년 12월 한국 최초로 지정된 국립공원 1호.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 남악, 두류산, 방장산으로도 일컬음.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1915.4m의 천왕봉.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3개 도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483.022㎢에 이름. 동식물 1200여종이 서식하는 한반도 생태계의 보고이자 등산 애호가들의 성지. <br/><br/>함양/글·사진 이병학 선임기자 leebh99

언론사: 한겨레-1-110.txt

제목: 레지오넬라증 신고 58% 증가…노인·만성질환자 ‘조심’  
날짜: 20170907  
기자: 박기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07112820002  
ID: 01101001.20170907112820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공기 중에 떠도는 균에 의해 감염되고,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증 신고가 늘고 있다. 보건당국은 병원 급수시설, 목욕탕 욕조, 분수대 등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을 철저히 관리해달라 당부했다.<br/><br/>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레지오넬라증 신고 건수가 120건으로 한 해 전 76건보다 58% 많았다고 7일 밝혔다.<br/><br/> 레지오넬라증은 말라리아나 결핵처럼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3군 법정 감염병이다. 통상 분수대나 욕조 등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이 비말(날아 흩어지는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와 발생한다. 50살 이상이거나 만성폐질환자, 면역저하자, 당뇨, 암 등 만성질환자가 주로 감염되며 치명률은 10%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2016년까지 보고된 레지오넬라증 사례 중 266건을 뽑아 분석한 결과, 환자는 남성(71%), 50살 이상(82%), 당뇨·암·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면역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81%)가 많았다. 레지오넬라균은 섭씨 25∼45도에서 번식하고 37∼42도에서 급증한다.<br/><br/> 질병관리본부 쪽은 “고위험군이 많은 병원과 요양시설, 목욕탕 등에서 더욱 철저한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br/> 박기용 기자 xeno

언론사: 한겨레-1-111.txt

제목: [김종구 칼럼] 이용마의 생명, 김장겸의 생명  
날짜: 20170904  
기자: 김종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04172836001  
ID: 01101001.20170904172836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김종구 편집인<br/><br/> <br/><br/> #이용마 문화방송 해직기자가 복막암 선고를 받은 것은 지난해 9월 초였다. 그를 진단한 의사는 “<span class='quot0'>12~16개월 정도 살 수 있다</span>”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암 투병을 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그동안 수술도, 항암치료도 받지 않고 오직 자연요법으로 견뎌내고 있다.<br/><br/> 지난해 겨울 촛불시위 때 광화문 광장에서 이 기자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12개월 정도를 무사히 넘기면 살아날 수 있다’는 뜻으로 잘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버티면 희망이 엿보이는구나, 조금만 잘 견뎌달라고 기원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확인해보니 꼭 그런 말은 아니었다. “<span class='quot1'>의사의 말은 12~16개월 정도를 생존 연한으로 본다는 뜻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span>” 여전히 그는 삶과 죽음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놓여 있다.<br/><br/> 이 기자는 그동안 몸무게는 20㎏ 정도가 빠졌고, 복수도 계속 차오르고 있다. 상태가 악화하면서 한 달 전쯤부터는 아예 관을 몸에 차고 집에서 복수를 빼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는 안 된 상태다. 그런데 이 기자는 그 대목에서도 담담하다. “<span class='quot1'>정확히 말하면 그것 역시 의사들의 추정이에요.</span>” 그는 마치 남의 말 하듯 말했다.<br/><br/> 이 기자는 요즘 매일 새벽 1시간 정도씩 명상을 한다. ‘화두’ 같은 것은 없다. “그냥 무념무상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네요. 온갖 잡념이 쉬지 않고 떠올라요.” 그에게 ‘삶과 죽음, 생명 등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별로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운명이지요. 주변을 봐도 곧 죽을 것 같던 사람이 오래 살기도 하고, 오래오래 살 것 같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인명은 재천이라고 생각해요.” 놀라울 정도로 의연하고 담담한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에 빗물이 흐른다.<br/><br/> #김장겸 문화방송 사장 쪽에서는 얼마 전 국민의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안철수 대표에게 ‘엠비시가 뭘 도와드릴 게 없느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안 대표는 이 문자에 응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노골적인 정치개입이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그의 집착 앞에서 그런 원칙론 따위는 무용지물이다. 그 생명은 고결한 생명이 아니다. 권력한테서 하사받은 문화방송 사장 생명이라는, 어찌 보면 더럽고 유치한 생명이다.<br/><br/> 그의 사장 수명 유지 전략은 탄압받는 언론인, 핍박받는 방송인이라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맞장구를 치는 최대의 조력자다. 김 사장이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특히 언론계 출신 국회의원들과 끈끈한 ‘특수관계’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김 사장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까지 손길을 뻗치는 것은 정치권의 우군을 확대해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저지하고, 문화방송 정상화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가증스러운 의도다.<br/><br/> 김 사장의 야심은 단지 현재의 문화방송 사장 수명 연장 정도에 머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권에 맞서는 투사,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신을 포장해 정계 진출의 꿈을 키우고 있다고 주변에서는 관측한다. 그것은 이미 전임자인 김재철 사장도 시도했던 정치 행로다. 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span class='quot2'>앞으로 큰 역할을 할 우익 인사의 출현</span>” 따위의 칭찬이 태극기 부대 인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에 그는 크게 고무돼 있을 것이다.<br/><br/> 김 사장의 생명 유지 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암과 사투를 벌이는 이 기자의 생명에 비하면 김 사장의 생명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허접한 생명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허접한 생명을 위해 진짜 고귀한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는 김 사장의 행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업’으로 기록될 것이다.<br/><br/> #이용마 기자는 몇 달 전부터 글을 차곡차곡 써왔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쌍둥이에게 줄 글인데 벌써 책 한권 분량이 됐다. “애들이 스무살이 되면 볼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 나이가 되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을 할 때인데, 아빠가 무슨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알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애들이 스무살 때까지 제가 살아 있으면 말로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삶과 인생, 사람이 올바로 산다는 것의 의미 등을 다시금 생각하며 옷깃을 여미는 오늘이다. <br/><br/> kjg

언론사: 한겨레-1-112.txt

제목: 떡, 과일·채소 가공품 등 6개 식품에도 사카린 사용 허가돼  
날짜: 2017090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01152807001  
ID: 01101001.20170901152807001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사카린)의 사용이 허용되는 식품 종류가 추가된다. <br/><br/>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말을 종합하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해 행정 예고하면서 사카린을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에 떡류와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일·채소 가공품, 당류 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 등 6개 품목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의견을 듣고서 고시 시행 뒤 제조·가공·수입된 식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사카린을 쓸 수 있는 식품은 기존 29개 품목에서 35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절임 식품, 음료류(발효 음료류 제외), 어육 가공품, 영양보충용 식품, 식사대용식품, 젓갈, 김치, 잼, 소주, 빵, 과자, 캔디, 초콜릿, 코코아 가공품, 빙과류, 아이스크림, 과실주, 조미건어포류 등에 쓸 수 있었다. <br/><br/> 사카린은 19세기 말 처음 발견된 이후 1960∼1970년대초만 해도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다. 하지만 사카린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이후 국제식품규격위원회나 미국 국립보건원, 국제암연구센터 등에서 사카린이 발암성 물질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계속 나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현재 모든 식품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113.txt

제목: 법정 출석한 안봉근·이재만…“국회 불출석 혐의 인정”  
날짜: 20170901  
기자: 현소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901113900001  
ID: 01101001.20170901113900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 재판을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조사 때를 빼곤 사실상 잠적 상태였던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br/><br/>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은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과 22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7)씨와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9명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다른 피고인들과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br/><br/> 이날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건강상 이유 등 불출석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장자씨 쪽은 “<span class='quot0'>암 수술과 고령으로 인해 심신이 쇠약하고, 청각이 최악의 상태에 있어 의사소통이 불안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들을 수가 없는데 청문회에 출석해 앉아 있으라는 것은 매우 가혹한 요구</span>”라며 무죄 주장을 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00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진 전 사장,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관련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숙 전 학장,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수술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댔다. 한편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은 “<span class='quot1'>출석 요구를 받은 당시에 정보기관 현직 국장 지위에 있는 자가 공개된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span>”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댔다.<br/><br/>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며 국조특위에 의한 고발 경위 등의 적법성에 대해서만 재판부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자신들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은 국조특위 활동 기간 종료 이후라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br/><br/>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공판준비절차를 열고 쟁점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론이 분리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물론, 한일(47)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52)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정아무개(51) 박근혜 전 대통령 분장사 등도 이날엔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소은 기자 soni

언론사: 한겨레-1-114.txt

제목: [정찬, 세상의 저녁] 공영방송 총파업과 민주주의  
날짜: 201708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31183857002  
ID: 01101001.20170831183857002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정찬소설가<br/><br/> “<span class='quot0'>대통령께서 언론을 망친 파괴자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span>”<br/><br/> “<span class='quot0'>그게…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span>”<br/><br/> 다큐 영화 <공범자들> 시퀀스의 대사이다. 질문하는 이는 <공범자들>의 감독이자 해직언론인 최승호이고, 답하는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질문을 듣는 순간 그가 짓는 얼굴 표정이 압권이다.<br/><br/> 돌이켜보면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이명박의 집착은 특별했다. 권력을 사유화하려면 먼저 언론을 장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언론 장악의 첫 번째 작업이 2008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자신의 측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이었다. 그해 7월 역시 측근인 구본홍을 <와이티엔>(YTN) 사장으로 앉힌 이명박은 8월에는 정연주 <한국방송>(KBS) 사장을, 2010년 2월에는 엄기영 <문화방송>(MBC) 사장을 끌어내린 후 권력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이들을 앉혔다. 사기업 메이저 언론들이 그들의 상업적·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들이 무너진 것이다.<br/><br/> 언론은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보다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담론을 생산해야 한다. 이 담론들의 건강한 순환이 민주주의라는 생명체를 건강하게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부역 언론들은 거짓 담론을 생산하여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였다. 이명박 정권이 집요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야당과 시민단체,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자 종북좌파라는 거짓 담론을 유포시켜 반대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다.<br/><br/> 2009년 쌍용차 노동자 2646명의 정리해고와 77일의 파업, 경찰의 폭력적 강제진압에 뒤이은 해고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은 한국 사회가 건강한 생명체로 기능하기 위해 지녀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무너졌거나, 무너지고 있는 표징이었다. 그것에 대해 몇몇 진보 언론들은 현실에 접근하는 담론을 생산해내려고 애를 썼으나 공영방송을 비롯한 메이저 언론들이 기존의 정치적·이념적 잣대로 보도함으로써 깊이 병든 한국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담론의 확산을 막았다.<br/><br/><br/><br/>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황폐해진 저널리즘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극적인 몰락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언론이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 공급상’의 역할을 하는 동안 박근혜와 최순실은 국정을 마음껏 농단했다. <br/><br/><br/><br/> 민주주의의 무너짐은 국민의 불행만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정권에도 불행이다. 언론의 건강한 담론은 과거와 현재를 올바르게 연결시킴으로써 미래를 비추는 등불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언론이 제대로 했다면 이명박 정권이 브레이크 없는 권력열차를 타고 국민과 국토를 그토록 폭력적으로 헤집고 다니지 못했을 것이다.<br/><br/>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황폐해진 저널리즘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극적인 몰락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메이저 언론들이 대선 후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얼마나 휘황하게 미화했는지 생각해보라. 언론이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 공급상’의 역할을 하는 동안 두 여인은 국정을 마음껏 농단했다. 언론이 생산하는 담론에 국민이 성찰하고 질문하기 시작한 것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였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들의 희생이 캄캄한 한국 사회에 빛을 비춘 것이다.<br/><br/> 공영방송 수장과 간부들이 공영방송을 되찾으려는 언론인들에게 가한 행위,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내팽개친 그들의 참담한 행위들과, 저항 언론인들의 치열하고 끈질긴 싸움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인으로서 ‘상식적인 소명’을 지키고자 권력과 싸워온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신들의 싸움이 국민으로부터 잊히는 것이었다.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상영 중인 <공범자들>과 2017년 1월에 상영한 을 만들게 한 것이다. 언론 부역자들의 전횡으로 공영방송이 황폐화되어가는 과정과 방송 언론인들의 고통스러운 저항의 역사가 두 다큐 영화에 생생히, 아프게 담겨 있다.<br/><br/> 2012년 12월 대선에서 박근혜의 당선이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에 저항하고 있던 언론인들을 얼마나 절망케 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나의 절망과는 두께와 깊이가 다른 절망이었다. 이용마 엠비시 해직기자의 암 투병은 그들의 절망을 상징한다. 언론인의 절망은 민주주의의 절망이다. 케이비에스, 엠비시 두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결의한 9월 총파업에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공영방송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언론사: 한겨레-1-115.txt

제목: 박기영 후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대식 카이스트 교수  
날짜: 20170831  
기자: 정유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31100807002  
ID: 01101001.20170831100807002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문재인 대통령이 박기영 사퇴로 공석이 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대식(52)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31일 임명했다. <br/><br/> 임대식 신임 본부장은 현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미생물학과 학사·석사 과정을 졸업한 뒤 뒤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생화학 및 분자유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히포(Hippo) 세포분열·분화창의연구단 단장이며,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포럼’의 과학기술분과에서 활동해 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임 본부장에 대해 ”암 억제 유전자 기능을 규명한 생명과학분야 권위자로서, 뛰어난 연구 역량과 관리 역량을 겸비하여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br/><br/> 청와대는 이날 차관급인 임 본부장 외에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통령 자문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염한웅(51)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물리학자로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과학자들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염 부의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거쳐 포항공대, 일본 도호쿠대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았다. 현재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대선 당시 경선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의 과학기술 자문을 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을 관례적으로 과학기술계 원로가 맡아왔는데 현역 과학자가 맡은 것”이라며 “(염한웅 부의장 임명으로)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세계적인 첨단 연구 진행하는 현역 과학자의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br/><br/>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예산 배분과 조정 등을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는 백경희(51)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 출신으로 숙명여고,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거쳐 미 매사추세츠 공대 분자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식물학회 및 한국식물병리학회 이사를 지냈다. <br/><br/>정유경 기자 edge

언론사: 한겨레-1-116.txt

제목: 핵폐기 운동에 일생 바친 ‘피폭 소년 우체부’ 다니구치 사망  
날짜: 20170830  
기자: 박민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30212848001  
ID: 01101001.20170830212848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1945년 8월9일 미군이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16살의 우체부 다니구치 스미테루는 우편배달을 하러 자전거를 타고 폭심지에서 1.8㎞ 떨어진 곳을 지나고 있었다. “<span class='quot0'>갑자기, 등 뒤에서 무지개 같은 섬광이 번쩍인 것을 본 뒤, 몸이 강력한 폭발에 날아가 땅 위로 떨어졌다.</span>” 피폭을 당한 소년의 등과 왼쪽 팔의 살점이 녹아내려 시뻘건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 상처가 너무 심해 그는 1년9개월 동안 눕지 못하고 엎드린 채로 지내야 했다. 3년7개월이 흐른 뒤에야 퇴원할 수 있었다. 그의 끔찍한 모습을 찍은 사진은 피폭의 참상을 증언하는 상징이 됐다.<br/><br/> 피폭의 고통을 딛고 핵폐기 운동에 일생을 바친 다니구치 스미테루가 30일 암으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8.<br/><br/> 다니구치는 자신의 사진을 들고 전세계를 돌며 핵무기의 위험을 일깨웠다. 2015년 나가사키에서 인터뷰를 하며 그는 이렇게 원폭의 풍경을 증언했다. “깨어났을 때, 어깨부터 손가락 끝까지 왼쪽 팔의 피부가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등을 만져보니 옷은 없어졌고 끈적끈적하게 타버린 피부가 손 전체에 묻어났다.” “검게 타버린 주검들, 무너진 건물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목소리, 살이 벗겨지고 내장이 쏟아져나온 사람들. 온통 불바다였다. 그것은 지옥이었다.” 1945년 8월 미군의 원폭 투하로 히로시마에서 14만, 나가사키에서 7만4천명이 숨졌다. 다니구치의 증언은 숫자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희생자들의 엄청난 고통을 전달했다. <br/><br/> 1955년 만들어진 나가사키원폭청년회 등에 참가했고, 2010년에는 일본피폭단체협의회 대표를 맡았다. 피폭 70년이던 2015년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 피폭자 대표로 참가해 “<span class='quot1'>핵무기는 인간과 공존할 수 없다</span>”고 호소했다. 같은 해 8월 나가사키 평화기념식전에는 피폭자 대표로 ‘평화에 대한 맹세’를 읽었다. <br/><br/> 2003년 인터뷰에선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잃는 것이 두렵다. 젊은 세대가 핵무기는 결코 인간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핵우산이 우리를 보호할 거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라고 했다.<br/><br/> 지난 7월 유엔총회에서 핵확산금지조약을 대체할 ‘유엔 핵무기금지협약’이 채택됐을 때,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각국이 핵무기를 없애려 노력하지 않으면 조약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br/><br/> 박민희 기자 minggu

언론사: 한겨레-1-117.txt

제목: 남녀는 자살 시도 이유도 달라…남성은 암, 여성은 스트레스  
날짜: 2017083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30145845001  
ID: 01101001.2017083014584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자살을 시도하는 위험요소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남성은 암에 걸린 적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경우가, 여성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살 시도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 30일 김덕원 연세대의대 의학공학과 교수팀이 2007~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자살을 시도했다고 응답한 294명(남 106명, 여 188명)을 대상으로 자살 위험요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은 암에 걸린 적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견줘 자살 시도 위험이 2.4배 높았다. 반면 여성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다고 답한 여성에 견줘 자살 시도 가능성이 3.6배 높았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흡연도 자살 시도와 관련성이 있었는데, 여성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자살 시도 가능성이 2.3배 높았다.<br/><br/> 이번 연구에서 남녀 공통으로 나타난 자살 위험요소는 ‘낮은 학력 수준’과 ‘우울증’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까지 졸업한 남성과 여성은 대학을 졸업한 남성과 여성보다 자살 시도 위험이 각각 5.8배, 3.8배 높았다. 또 우울증이 있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견줘 자살 시도 가능성이 각각 3.3배, 3.1배였다. 김덕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실제 자살을 시도했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span>”고 밝혔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118.txt

제목: “콩 많이 먹으면 대장암 예방에 도움된다”  
날짜: 2017083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30142821001  
ID: 01101001.20170830142821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콩에 함유된 식물성 여성 호르몬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 30일 유근영 서울대의대·고광필 가천대의대 교수팀이 1992~2004년 모집된 한국인(대장암 환자 102명, 정상인 408명)과 2003~2007년 모집된 베트남인(대장암 환자 222명, 정상인 206명)을 대상으로 핏속 이소플라본 농도와 대장암 발병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소플라본의 핏속 농도가 높은 한국인 집단(상위 25%)은 낮은 집단(하위 25%)에 견줘 대장암 발병 위험이 50% 낮았다.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이소플라본의 대장암 예방 효과는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교수팀은 이소플라본이 암세포의 증식 등을 억제하고, 대변 배출을 촉진하는 구실을 해 대장암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고광필 교수는 “<span class='quot0'>콩 섭취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위암 발생 위험도 줄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조리 방식에 따라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 유근영 교수는 “<span class='quot1'>아시아권에서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콩의 대장암 예방 효과를 검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span>”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영양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임상영양> 최근호에 실렸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119.txt

제목: [조동진 다시듣기] 시처럼, 가을처럼 젖어들다  
날짜: 20170829  
기자: 석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29171835001  
ID: 01101001.20170829171835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span class='quot0'>여름은 벌써 가버렸나/ 거리엔 어느새 서늘한 바람/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우린 또 얼마나 어렵게 사랑해야 하는지</span>” (‘나뭇잎 사이로’ 일부)<br/><br/> <br/><br/> 조동진(1947. 9. 3~2017. 8. 28). 한국 포크음악의 거장이 꼭 이맘때 떠났다. 바람이 서늘해지다가 이제 9월이 오면, 암 투병 중이던 그는 후배 뮤지션들과 13년 만의 무대에 오를 참이었다. 특유의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노랫말에 깊이를 더하는 이 음악가가 무대에 서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들은 이제 그를 ‘어렵게 사랑해야 하는’ 시간을 맞았다. <br/><br/> 1집 <조동진>(1979)을 시작으로 2집 <조동진2>(1980), 3집 <조동진3>(1985), 4집 <조동진4>(1990), 5집 <조동진5>(1996), 6집 <나무가 되어>(2016)를 세상에 남긴 조동진은 “<span class='quot1'>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한길로 죽 가서 자신의 흐름을 만들고 음악적인 성찰을 이뤘다</span>”(가수 이장희)는 평이 지배적이다. 문학평론가 함돈균은 조동진 음악의 특별함을 “<span class='quot2'>어떤 종류의 전형적 문학적 서정이 두르는 신비주의나 상투적 휴머니즘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배반하고 도취나 나르시즘 없음</span>”으로 표현하며 “<span class='quot2'>밥 딜런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런 형태의 상이 있다면 수상자로 마음속에 조동진을 품고 있었다</span>”고 말한 적도 있다. <br/><br/> 시집을 내기도 했던 조동진 곡은 가사가 각별히 아름답다. ‘나뭇잎 사이’를 지칭하는 한국어 단어는 마땅치 않아도 70·80년대는 조동진을 통해 나뭇잎 사이라는 어떤 ‘작지만 확실한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을 얻은 셈이다. 날카로운 감각을 둥글려 표현하던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다시 들어본다. <br/><br/> <br/><br/> “<span class='quot0'>아주 한밤중에도 깨어 있고 싶어</span>”<br/><br/> 한국방송 유튜브 계정<br/><br/> <br/><br/>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땐/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제비꽃/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날으고 싶어<br/><br/>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땐/ 너는 많이 야위었고/ 이마엔 땀방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br/><br/> 내가 마지막 너를 보았을 때/ 너는 아주 평화롭고/ 창 너머 먼 눈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span class='quot0'>아주 한밤중에도 깨어 있고 싶어</span> (‘제비꽃’ 1985)<br/><br/> <br/><br/> <br/><br/> 그의 대표곡으로 ‘제비꽃’을 기억하는 이가 많다. 가수 장필순, 이은미 등이 리메이크해 인기를 이어가기도 했다. 포크음악의 살아 있는 전설 중 하나인 장필순은 조동진의 음악적 직계로 불린다. 조동진이 80년대를 대표하는 레이블 ‘동아기획’을 이끌 때 장필순을 비롯해 들국화, 어떤날, 시인과 촌장, 김현식 등이 등장하면서 한국 대중음악사의 명반들이 쏟아져 나왔다. <br/><br/> <br/><br/>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br/><br/> <br/><br/> <br/><br/>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br/><br/>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아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 있으니/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눈이 있으니 (‘행복한 사람’ 1979)<br/><br/> <br/><br/> <br/><br/> ‘행복한 사람’은 조동진 음악의 ‘서시’ 격이다. 1집 1번 트랙에 수록된 곡으로 많은 이에게 조동진을 각인시킨 노래. 당시 어두웠던 시대 상황에 비춰 ‘언더그라운드’에선 저항성 깃든 대중음악이 한 부류를 이루는 와중에 다른 한켠에선 시대 때문에 시든 마음을 다독이는 음악이 조동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조동진은 1966년 미8군 밴드로 음악을 시작해 록그룹 ‘더 쉐그린’ ‘동방의 빛’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로 활동했다. 포크로 건너간 조동진의 음악은 ‘서시’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음악적 일탈로 대중을 놀라게 하는 대신 익숙한 감동을 더 깊이 뿌리내리는 ‘나무’처럼 대중과 함께했다. <br/><br/> <br/><br/> <br/><br/> <br/><br/> 나뭇잎 사이로 파란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지붕들 사이로 좁다란 하늘/ 그 하늘 아래로 사람들 물결<br/><br/> <span class='quot0'>여름은 벌써 가버렸나/ 거리엔 어느새 서늘한 바람/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우린 또 얼마나 어렵게 사랑해야 하는지</span><br/><br/> 나뭇잎 사이로 여린 별 하나/ 그 별빛 아래로 너의 작은 꿈이/ 어둠은 벌써 밀려왔나/ 거리엔 어느새 정다운 불빛<br/><br/> 그 빛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 우린 또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br/><br/> 나뭇잎 사이로 파란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나뭇잎 사이로’ 1980) <br/><br/> <br/><br/> <br/><br/> “<span class='quot0'>네가 나의 밤을 모두 알고 있듯이, 나는 너의 푸른 새벽을 알고 있지</span>”<br/><br/> <br/><br/> <br/><br/> 네가 나의 밤을 모두 알고 있듯이/ 나는 너의 푸른 새벽을 알고 있지<br/><br/> 소낙비 내리던 그 한낮의 어둠 속에서/ 우리 말하던 사랑과 자유 이제 아무 의미 없어도<br/><br/> 걷잡을 수 없는 외로움에 잠깐씩 들렸던 바다/ 그 파도 소리 그 저녁 노을 우리 함께 기억하리 <br/><br/> 네가 나의 밤을 모두 알고 있듯이/ 나는 너의 푸른 새벽을 알고 있지 (‘친구들에게’ 1996)<br/><br/> <br/><br/> <br/><br/> 동아기획의 시절을 지나 1992년께 조동진과 그의 동생인 조동익을 주축으로 ‘음악 친구들’이 모여 세운 ‘하나음악’은 전설의 음악공동체였다. 단순한 음반사를 넘어 구성원들이 가족처럼 어울리며 음악을 했다. <br/><br/> “이런 곳이 하나쯤은 있어야겠다 싶어 겁없이 만들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우리가 좋아하면 남들도 좋아하겠거니 했죠.” 골수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던 하나음악은 90년대 중후반 들어 가요계가 거대 기획사 위주로 급격히 쏠리면서 위기를 맞았다. 하나음악은 2003년 문을 닫았다. “막판에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 다들 3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어요. 내가 미안해서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

언론사: 한겨레-1-120.txt

제목: 8월 29일 동정  
날짜: 201708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28213842001  
ID: 01101001.20170828213842001  
카테고리: 지역>강원  
본문: ⊙ 손병호 배우는 28일 서울 종암경찰서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젠더 폭력 근절, 학대·실종대책 강화,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홍보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br/><br/> ⊙ 이문세 가수는 26일 강원도 평창 허브나라에서 열린 ‘제9회 이문세 숲속 음악회'의 공연 수익금과 성금 등 모두 3500만원을 아프리카 케냐의 어린이 교육에 기부했다. 초등학교의 급식소 건립과 식기, 식료품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br/><br/> ⊙ 이근호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는 27일 강원도 강릉시 강남축구공원에서 열린 ‘이근호 자선축구대회'에서 약정식을 열고 푸르메재단에 장애어린이를 위해 1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해 ‘더미라클스의 14호 회원이 됐다.<br/><br/> ⊙ 승효상 건축가는 28일 동아대 석좌교수로 선임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의 설계했으며 건축가로서는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 2002년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빈 공과대학 객원교수를 겸하고 있다.<br/><br/> ⊙ 곽진태 세종대 교수(컴퓨터공학과)는 최근 미국국립보건원 연구진과 공동 연구한 논문이 영상의학계에서 저명한 <레디올로지> 저널에 실렸다. 연구는 MRI를 활용해 암 세포의 전이 상황, 세포의 자세한 상태 등의 특징을 파악가능하다고 밝혔다.

언론사: 한겨레-1-121.txt

제목: ‘집단 암 발병’ 익산 장점마을…지하수서 ‘타르’ 성분 나와  
날짜: 20170828  
기자: 박임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28160815003  
ID: 01101001.20170828160815003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주변 비료공장이 의심을 사는 가운데, 이 마을 지하수에서 암을 유발하는 타르 성분이 나와 대책이 요구된다.<br/><br/> 익산시와 장점마을주민대책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장점마을 주변 환경조사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23개 항목 중에서, 암 유발이 가능한 타르 성분이 있는 피렌과 크리센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9가구의 지하수를 조사했는데, 1곳에서 피렌 3136ng(나노그램)/ℓ와 크리센 2217ng/ℓ가 나왔다. 탄화수소화합물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주로 생기는 물질로, 산소가 모자라는 상태에서 불완전연소할 때 만들어진다. 피렌은 타르에 들어 있는 유독성 물질이고, 크리센은 타르에 함유된 탄화수소의 하나다.<br/><br/> 또 조사 지점 2곳에서 어린이에게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질소가 각각 18.1㎎/ℓ와 13.4㎎/ℓ 검출됐다. 먹는 물의 경우 질산성질소 기준치는 10㎎/ℓ 이하다.<br/><br/> 그동안 집단 암 발병 문제를 제기해온 주민들은 환경부가 근처 비료공장을 비롯한 장점마을 주변 역학조사를 서두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재철 대책위원장은 “발암성이 높은 물질의 검출로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마을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여러 차례 문제 제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전북도와 익산시 등 행정의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br/><br/> 익산시는 “오는 10월부터 환경부가 장점마을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1년간 실시한다. 조사가 끝나면 주민 건강과 비료공장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br/><br/>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장점마을은 혼합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비료공장과 600ｍ가량 떨어져 있다. 80여명이 사는 이 마을에선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주민 23명이 암 진단을 받아 1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투병 중이다. 익산시는 지난 4월 환경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이 업체에 대해 공장폐쇄명령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부분가동을 허락해 달라며 최근 다시 가처분신청을 냈다. <br/><br/>박임근 기자 pik007

언론사: 한겨레-1-122.txt

제목: ‘차라리 벼룩의 간을 내먹지’....암 환자 등친 30대 구속  
날짜: 20170828  
기자: 안관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28134848001  
ID: 01101001.20170828134848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암 투병을 하는 환자한테 접근해 진단 뒤 받은 보험금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덜미를 잡혔다.<br/><br/> 전남 여수경찰서는 28일 암 투병 환자들에게 접근해 증권에 투자하면 4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아무개(30)씨를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 2015월 8~9월 여수시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암 투병 환자 3명에게 ‘현금으로 갖고 있는 보험금을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 주겠다’고 속여 79차례에 걸쳐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br/> 경찰 조사 결과, 온라인 도박에 빠진 전씨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span class='quot0'>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받았다</span>”는 환자들의 대화를 엿듣고, 이를 가로채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무직인 전씨는 병 문안을 다니며 자신을 유능한 증권 투자상담사로 소개하고, 식사와 음료 등을 사주며 가까워졌다. 특히 범행 초기 “주식에 투자하면 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말고 100만원만 해보라”며 이들에게 100만원씩 받아 140만원씩 돌려주는 수법으로 환심을 사 투자금을 늘리게 한 뒤 야금야금 가로챘다.<br/><br/> 전씨는 또 자신의 돈 47억원이 압류된 것처럼 허위 공문서 17장을 만들어 보여주며 재력가임을 과시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환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가 압류 공문서를 다량 위조하고, 거래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br/><br/> 안관옥 기자 okahn

언론사: 한겨레-1-123.txt

제목: [강준만 칼럼] 왜 ‘갑질 근절’이 개혁의 ‘킹핀’인가?  
날짜: 2017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27183819001  
ID: 01101001.20170827183819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br/><br/><br/><br/> 나는 우리 사회의 암적 요소라 해도 좋을 갑질을 근절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개혁의 킹핀이라고 생각한다. 갑이 되기 위한 각자도생적 투쟁은 고도성장이 끝난 오늘날 한국인 대다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재앙이 되고 있다. 갑질은 어느덧 한국적 삶의 기본 문법이 되고 말았다.<br/><br/> 볼링을 할 때엔 10개의 볼링핀 가운데 숨어 있는 5번 핀, 즉 킹핀을 공략해야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트려 스트라이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치를 국가 정책에 적용해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 가운데 킹핀을 찾아내 집중 공략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거두는 걸 가리켜 ‘킹핀 이론’이라고 한다. 과연 현실 세계에 그런 킹핀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정책엔 집행의 우선순위와 더불어 자원집중의 경중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이론의 신봉자라고 해서 최근 다시 화제가 되었는데, 부디 그가 킹핀을 제대로 찾아내 잘 공략하길 바란다.<br/><br/> 킹핀 이론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사회적 신뢰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역사적 축적과 구조적 구축의 결과로 나타난 이런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킹핀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킹핀 이론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엔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우리 사회의 암적 요소라 해도 좋을 갑질을 근절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개혁의 킹핀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단순히 사회정의 구현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상이다. 왜 그런가?<br/><br/> 지난 7월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 사업자 단체 간담회에서 갑질의 본질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말을 했다. 그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79%가 중소 사업자”라며 “중소 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 사업자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br/><br/>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한국의 기업 생태계는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걸 전제로 형성된 것이어서 갑질을 하는 것을 무슨 경제법칙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갑질이 사라지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갑은 을을 착취하고 을은 병을 착취하고 병은 정을 착취하는 연쇄적 먹이사슬 구조하에선 법과 윤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br/><br/> 사실 돌이켜보면 한국의 근대화 자체가 그런 약육강식의 문법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었음을 어찌 부정할 수 있으랴. 개인과 가족 차원에선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을 따라 떵떵거리며 살아보자는 꿈을 안고 전투적인 삶을 살아온 게 아니었던가. 신분제는 120여년 전에 철폐되었다지만, 신분제의 껍데기만 바뀌었을 뿐 그 알맹이는 지금도 건재하다. 한국의 성공한 엘리트들이 평소엔 제법 점잖은 척하는 모습을 유지하다가도 자신의 신분이 인정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입버릇처럼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말을 거칠게 내뱉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br/><br/> 갑이 되기 위한 각자도생적 투쟁이 무조건 나쁘기만 했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고도성장이 끝난 오늘날엔 한국인 대다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재앙이 되고 있다. 갑질은 조직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도 존재하며, 조직과 무관한 개인들 사이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갑질은 어느덧 한국적 삶의 기본 문법이 되고 말았다.<br/><br/>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오늘도 수많은 직장인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이유로 갑질을 견뎌내고 또 그 원리에 따라 갑질을 하고 있다. 그런 삶에서 자라나는 건 ‘학습된 무력감’이다. 시민들이 능동적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 대신 포기, 체념, 냉소주의를 습관적으로 갖게 되는 ‘무력감의 사회화’야말로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사회적 신뢰도를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트린 주범 중의 하나다.<br/><br/> “<span class='quot0'>자기 권리를 옹호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짓누르는 힘은 사실상 무한하다</span>”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갑질이 창궐하게 된 결정적 이유이다. 갑질을 해도 괜찮더라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갑질의 빈도를 늘리고 강도를 높여 나가기 마련이다. 어느 대기업 임원은 갑질과 일탈을 일삼는 재벌 2·3세를 두고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규정했다는데(<조선일보> 2016년 7월13일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본의 아니게 그런 ‘체제 전복 세력’에 가담하는 보통사람이 많다. 무력한 개인이 갑질에 저항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저항을 돕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갑질 근절’을 사회개혁의 킹핀으로 삼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언론사: 한겨레-1-124.txt

제목: 해태 킬러, NC 마운드의 마법사가 되다  
날짜: 20170826  
기자: 김양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26060842001  
ID: 01101001.20170826060842001  
카테고리: 스포츠>야구>한국프로야구  
본문: 그에게 야구는 “<span class='quot0'>사랑</span>”이다. “야구를 <span class='quot0'>사랑</span>해서 선수가 됐고, 선수 때도 야구를 <span class='quot0'>사랑</span>했으며 선수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span class='quot0'>사랑</span>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br/><br/> 한때는 일본 고시엔(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의 에이스였고 한때는 ‘해태 킬러’였다가 지금은 투수 키우기 장인이 된 최일언(56) 엔씨(NC) 다이노스 투수코치. 오비(OB·옛 두산) 코치 시절 진필중, 이혜천, 박명환 등이 그의 손을 거쳐갔고 에스케이(SK)에 몸담았을 때는 김광현, 정우람 등이 그와 함께했다. <br/><br/> 2013년 1군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엔씨가 신생팀답지 않게 안정된 마운드를 구축할 수 있던 데도 베테랑 최 코치의 지도력이 한몫했다. 엔씨의 팀 평균자책점은 데뷔 시즌 3위를 거쳐 2014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1~2위를 기록 중이다.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데도 김진성, 원종현, 임창민 등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등장해 마운드를 책임지고 있다. 방출, 트레이드 등의 이력을 갖고 엔씨에 둥지를 튼 투수들의 재발견에 최 코치는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 프로야구 첫 포크볼러이기도 한 최일언 코치의 야구 <span class='quot0'>사랑</span> 이야기를 풀어본다. <br/><br/> <br/><br/>명문 시모노세키상고 에이스 출신3학년 때 고시엔 1·2라운드 완투봉황기 초청돼 ‘조부모 나라’ 찾아실업입단 앞두고 한국 프로행 결심<br/><br/>프로 통산성적 평균자책점 2.8786년 선동열 이어 다승 2위 차지32살 이른 나이에 지도자 길 나서신생팀 엔씨 마운드 다지는데 초석 <br/><br/><br/><br/> 스파이크 케이스에 고시엔 흙 담아와 <br/><br/> 그의 야구 시작은 이랬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야구 명문 시모노세키상고 교문 앞에서 힘차게 외쳤다. “<span class='quot0'>나 고시엔 대회에 설 거야!</span>” 당시 그는 야구부 소속도 아니었다. 다만 매일 밤 야구를 시청하던 아버지를 따라 야구를 즐겨 보던 아이였을 뿐이다. 중학교 때도 정식 야구부가 아닌 동아리 야구부에서 연식 야구를 했다. 야구를 꽤 잘하면서 알음알음 소문이 났고 원하던 대로 시모노세키상고에 진학했다. 신입생 360명 중 11등의 성적이었으니까 공부도 꽤 잘했다.<br/><br/> 3학년 때 그토록 원했던 봄 고시엔(여름 고시엔만 알려져 있지만 고시엔은 봄, 여름 두 차례 열린다) 본선 무대에 섰다. 시모노세키상고 에이스는 그였다. 개막전으로 진행된 1라운드에서 다르빗슈 유(LA 다저스)의 모교이기도 한 도호쿠고에 6-1로 이겼다. “<span class='quot0'>1회초 몸에 맞는 공으로 처음 타자를 출루시켰는데 이를 잊고 와인드업하고 공을 던져 1루 주자가 도루하면서 2루로 서서 들어갈 정도로 긴장했던</span>” 경기였다. <br/><br/> 2라운드 때는 강호 미노시마고를 상대로 3회까지 1-0으로 앞서다가 4회에만 실책 4개가 겹치는 불운 속에 5점을 내주며 4-10으로 패했다. 최 코치는 “고시엔 지역 예선 때 연습경기를 포함해 내 평균자책점이 0.57에 불과했다. 그런데 한 회에 5점을 내줬으니 이후에는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던졌다”고 했다. 시모노세키상고를 꺾은 미노시마고는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1, 2라운드 모두 완투했던 그는 경기가 끝난 뒤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스파이크 케이스에 고시엔 흙을 담아왔다. 최 코치의 청춘이 담긴 그 흙은 아직도 그대로 보관돼 있다.<br/><br/> 봄 고시엔이 끝난 뒤 투구 속도를 올리려고 투구폼을 스리쿼터형에서 오버스로형으로 바꿨다. 하지만 역효과가 났다. 제구가 나빠진 것. 최 코치는 “볼 빠르기에 욕심을 내다가 다른 것이 망가졌다”고 했다. 스스로의 경험상 그는 젊은 투수들에게 속도에 대한 강박증을 털어내라고 주문한다. “<span class='quot0'>야구는 볼 빠르게 던지기 대회가 아니기 때문</span>”이다. <br/><br/> 해태 타자들이 꼼짝 못했던 투수 <br/><br/> 조부모의 나라,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고3 여름방학 때였다. 재일동포 야구팀으로 봉황대기에 초청됐다. 임시 여권을 하루 만에 만들 정도로 급박하게 참가를 결정했다. 당시 팀을 이끌던 한재우 감독과의 인연은 한국 프로리그 진출 때도 이어졌다. 센슈대 4학년 때 2년 뒤 프로에 도전하기로 하고 좋은 조건으로 실업팀 입단을 앞두고 있었는데 한 감독의 끈질긴 설득으로 한국 프로행을 결정지었다. 최 코치는 “한 감독이 ‘한국에도 프로리그가 생겼으니 구경하러 가자’고 해서 왔을 뿐이었는데 입국 다음날 두산과 계약했다. 가기로 했던 일본 실업팀에는 참 미안했다”고 돌아봤다. <br/><br/> 그는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오비, 엘지, 삼성 등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했다. 통산 성적은 78승57패11세이브, 평균자책점 2.87. 강속구로 상대를 윽박지르기보다는 변화구 제구와 수싸움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신인 때는 몸쪽 속구를 많이 던졌는데 삼진을 잡는 결정구는 포크볼이었다. 고시엔 때만 해도 커브를 주로 던졌는데 고3 때 처음 포크볼을 연습했다. 포크볼 연마를 위해 공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고 테이프를 감은 채 잠을 자기도 했다.”<br/><br/> 86년에는 19승4패, 평균자책점 1.58의 성적으로 선동열(해태·24승)에 이어 다승 2위에 올랐다. 승률은 1위(0.826)였다. 시즌 중반에 배운 싱커 제구가 기가 막혔다. “몸쪽 속구는 자신있게 던졌지만 바깥쪽 속구를 잘 못 던졌다. 대신 속구보다 시속 1~2㎞ 정도 느린 싱커를 던졌는데 바깥쪽으로 휘어 날아가면서 맞아도 땅볼이 나왔다. 싱커 던지고 ‘이번에는 유격수 땅볼이 되겠다’ 하면 진짜로 유격수 땅볼이 될 정도로 제구가 잘되던 시절이었다.” <br/><br/> 포크볼에 이어 싱커까지 구종을 추가하면서, 86년부터 88년까지 최일언 코치는 해태 타이거즈(기아 타이거즈 전신)를 상대로 13연승을 거뒀다. 김봉연, 한대화, 김성한, 김종모, 이순철 등 해태 타자들을 꽁꽁 묶었다. 최 코치는 “당시 해태 타자들이 몸쪽 속구에 약점이 있었다. 그들의 타격폼으로는 절대 몸쪽 속구를 못 쳤다”고 했다. <br/><br/> 이순철 <에스비에스스포츠> 해설위원은 “최 코치가 현역 때 커브를 많이 던졌는데 타자 앞에서 큰 폭으로 빠르게 꺾였다. 칠 수 있는 변화구가 아니었다”며 “변화구 각도에 몸쪽 제구도 잘되다 보니까 속구가 더 빨라 보이는 효과까지 있었다. 해태 타선에 좌타자가 별로 없던 것도 일방적으로 13연패를 당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 코치는 “사실 바깥쪽 제구가 안 돼 일부러 몸쪽을 공략한 것도 있었다. 나 스스로는 제구가 좋은 투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점을 극대화해 약점을 가리는 것, 그것이 그가 프로에서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br/><br/>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야구를 제일 못하는 선수는 아픈 선수</span></span>” <br/><br/> 32살. 최 코치가 처음 지도자의 길로 들어선 나이다. 다소 이른 나이처럼 보이지만 평소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던 그였다. 최 코치는 “코칭은 선수가 얼마나 코치를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코치가 ‘이건 다이아몬드야’ 하고 가르치는데 선수가 다이아몬드라고 안 믿으면 끝이다.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도 옆에서 석탄만 부지런히 캐고 있는 선수도 더러 있다”고 했다. 그는 “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제”라고 표현했으나 결국 ‘신뢰’의 문제다.<br/><br/> 김진성이 그렇다. 2005년 프로에 데뷔해 두 차례 방출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냈던 김진성은 2012년 엔씨에 둥지를 튼 이후 비로소 빛을 냈다. 최 코치는 “김진성의 경우가 이전까지 열심히 ‘석탄’만 판 경우였다. 공 잡는 법, 어깨 회전 하는 법도 정확하게 몰랐다. 그나마 마지막 기회를 만나 포크볼도 배우는 등 진짜 열심히 했다. 김진성만큼 공들인 선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3년 28살의 나이에 1군 무대에 오른 김진성은 현재 공룡군단의 든든한 ‘믿을맨’이 돼 있다. <br/><br/> ‘파이어볼러’ 원종현 또한 최 코치를 만나 사이드스로 투수로 변신하며 재발견됐다. “원종현은 처음 우리 팀에 테스트를 받으러 왔을 때 포수 뒤에서 볼 때는 시속 130㎞대 공으로 보였는데 스피드 건에는 시속 143㎞로 찍혔다. 밸런스는 좋았는데 볼을 전혀 채지 못하고 밀어서 던지고 있었다. 스리쿼터로 던져보라고 하니 그때서야 손목을 쓰면서 볼을 챘다. 그때부터 아예 사이드로 던지자고 제안했고 연습 끝에 2012년 2군에서 시속 153㎞가 나왔다.” 뒤늦게 꽃을 피운 원종현은 암 수술로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지난해 성공적으로 팀에 복귀해 역시 불펜의 한 축으로 활약 중이다. <br/><br/> 2015년부터 엔씨 뒷문을 책임지고 있는 임창민 또한 넥센 시절에는 별다른 활약이 없었다. “임창민의 경우 김경문 감독께 직접 트레이드를 부탁했다. 그런데 처음 팀에 왔을 때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투수의 기본은 하체인데 하체 쓰는 법을 잘 몰랐다. 2군에서 열심히 내 훈련 방식대로 하체운동을 시켰더니 첫날 하체운동 뒤에는 아예 일어나지도 못했다. 선발로 생각했는데 어느날 불펜으로 쓰니 잘했다. 자기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갔다.”<br/><br/> 최 코치는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야구를 제일 못하는 선수는 아픈 선수</span></span>”라면서 가깝게는 윤호솔(윤형배에서 개명), 멀게는 김경원을 예로 들었다. 윤호솔은 2013년 엔씨에 우선 지명(계약금 6억원)되며 큰 기대를 모았으나 팔꿈치 수술과 군입대 등으로 지금껏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김경원은 90년대 오비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으나 부상 때문에 전성기가 짧았다. 최 코치는 “김경원은 무릎, 발목 등이 안 좋았는데 축이 되는 오른쪽 다리가 아프니까 야구가 잘 안 됐다”고 했다. 수많은 제자 중 가장 아픈 손가락은 구자운(은퇴)이다. “<span class='quot0'>소질은 제일 많았는데 팔꿈치·어깨가 안 좋은 상태로 프로에 와서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왔다</span>”고 한다. <br/><br/> 윤호솔처럼 갓 입단한 투수들조차 수술대 위에 오르는 프로야구 현실을 그는 어떻게 바라볼까. “일단 우리나라는 어깨 좋은 선수 순으로 신인 지명을 한다. 그렇다 보니 어깨가 강하다는 장점만 있을 뿐 투수로서 완성된 선수는 거의 없다. 투수라기보다는 강하게 던질 줄 아는 선수라고 봐야 한다. 그저 힘껏 던지려고만 하다 보니 부상이 많다. 지금 아마추어 현장에 90년대 초반 미국 야구처럼 ‘스텝을 짧게 해서 위에서 꽂아라’라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 시대의 이론은 지금 맞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던져야 한다.”<br/><br/> 최 코치는 투구 때 중심이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야구는 기본적으로 땅을 밟고 하는 운동이다. 땅에서 나오는 힘을 그대로 몸에서 받아 손끝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아무리 어깨가 강한 상대 선수라도 이길 수 있다. 공 던질 때 힘은 없는데 중심이동이 잘돼 있는 선수들도 있고 힘은 있는데 중심이동이 엉망인 선수도 있다. 전자는 힘만 키우면 금방 큰 선수가 될 수 있는 데 반해 후자는 기복이 크고 부상 위험도 높다. 선수 개개인의 골격, 근육, 관절 등을 모두 고려해 투구할 때 최대한 가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맞춤식 지도를 해야만 한다. 투수의 경우 웨이트트레이닝보다는 러닝이나 유연체조에 더 신경써야만 한다.”<br/><br/> <br/><br/> ‘코칭’을 ‘서랍 여는 법’에 비유하는 이유<br/><br/> 최일언 코치는 어린 선수들에게 종종 “<span class='quot1'>젊을 때 흘리지 않는 땀은 늙어서 눈물로 나온다</span>”는 말을 해준다. 그가 다녔던 센슈대 합숙 장소에 붙어 있던 문구였다. “<span class='quot0'>스스로 야구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span>”는 말도 한다. 어린 선수에게 가장 큰 적은 자만심일 수 있다는 뜻이다. <br/><br/> 그에게 ‘코칭’이란 무엇일까. 최 코치는 ‘코칭’을 ‘서랍 여는 법’에 비유했다. “서랍마다 여는 방법은 다양한데 흠집 없이 잘 열려면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서랍 종류가 다르듯 선수들 특성도 제각각이다. 미리 결론 내서도, 성급해서도 안 된다. 지도란 것은 결국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보태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일언 코치는 오늘도 매의 눈으로 선수를 지켜본다. 더 잘할 수 있게 보태줄 방법을 고민하면서. 그가 정말 <span class='quot0'>사랑</span>하는 야구를 위해. <br/><br/> 김양희 기자 whizzer4

언론사: 한겨레-1-125.txt

제목: 가천대 길병원 국내 첫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의료기관 지정  
날짜: 20170825  
기자: 김영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25224838001  
ID: 01101001.2017082522483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이근)이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국내 첫 ‘외국인환자유지 우수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가천대 길병원은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서를 받았다. 이번 평가·지정은 2016년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 <br/><br/>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해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전국 1560여 개 병원 중 63개 병원이 신청했으며, 130개 조사항목 평가를 거쳐 가천대 길병원 등 4개 병원이 지정병원으로 선정됐다.<br/><br/> 가천대 길병원은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국가 환자 유치에 주력해 왔으며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 치료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오고 있다. 전체 유치 환자의 30%가 암 환자로, 우수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특화 병원으로 해외에서 알려져 있다. <br/><br/> 가천대 길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 마크 사용을 비롯해 ‘국가대표 명품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근 병원장은 “가천대 길병원은 외국인 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대표 명품 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외국인 환자들이 더욱 믿고 만족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

언론사: 한겨레-1-126.txt

제목: ‘맨스플레인’ 리베카 솔닛 “남성의 여혐은 위기감 느낀다는 것”  
날짜: 20170825  
기자: 김지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25170815001  
ID: 01101001.20170825170815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맨스플레인’이란 용어를 유행시키며 새로운 페미니즘의 기수로 떠오른 리베카 솔닛이 한국을 찾았다.<br/><br/>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창비)라는 신간과 <어둠 속의 희망>(창비), <걷기의 인문학>(반비) 개정판 출간에 맞춰 방한한 것이다.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한 그는 2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창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에게 “우리가 승리하는 중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br/><br/> 그는 “한국의 강남역 살인사건 등에 관해 들었다. 남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적들이 페미니즘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일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남성들도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고, 이를 인정해줄 때가 됐다. 우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힘도 더 커질 것”이라며 “수천년간 지속되어온 여성차별 문제를 50년 사이에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긴 시간이 흘러 더 큰 그림을 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 솔닛은 현상을 정확히 명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엄중히 남성의 책임을 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성 인권을 위한 입법 활동과 살해 위협을 범죄로 다루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솔닛은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집단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혁명과 이후의 비폭력 혁명, 베를린 장벽 붕괴 등을 보면, 사람들 간에 차이가 사라지고 두려움을 극복한 순간에 큰 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했다”고 덧붙였다.<br/><br/> 솔닛은 “친구들에게 한국에 가서 대통령 탄핵하는 방법을 배워오겠다고 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거침없이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백악관은 여성혐오와 강간의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다. 여성의 권한을 빼앗아서 여성을 과거의 성역할로 복귀시키려는 문화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부끄럽다”는 것이다.<br/><br/> 그는 지난 미국 대선의 ‘공정성’에 의문도 제기했다. “왜 힐러리가 패배했냐고 묻는데, 많이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투표권을 억압하는 정책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할 정황이 있다. 러시아의 개입, 해킹, 가짜뉴스, 마피아의 개입 등이 제대로 수사되면 트럼프는 탄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공화당에선 젊고 진보적이고 백인이 아닌 유권자들의 투표를 저지하려 했고, 많게는 2천만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결과를 봐도 힐러리가 300만표를 더 받았다. 힐러리가 패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다.” 이어 그는 “제 파트너가 의사인데, 의사가 암에 걸릴 확률이 10~20%라고 하면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10~20%라고 했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며 “다만 이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미국 시민들이 깨어나게 됐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더 깊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br/><br/> 페미니즘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안에서의 운동이자 중산층 지식인의 운동으로 변질할 가능성과, 페미니즘과 사회주의의 관계를 묻는 말에 그는 “<span class='quot0'>(사회주의를 표방한) 버니 샌더스의 경제적 재분배 공약 등엔 동의하지만, 샌더스는 민주당 경선에서 크게 패배했고, 당선 가능성도 희박했다</span>”고 말했다. 이어 “페미니즘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 해방을 위한 운동의 한 부분이다. 여성문제는 인종, 성 소수자 문제와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 페미니즘이 여성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 인종 문제 등 여러 문제와 통합적으로 연대해 움직이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r/><br/> 솔닛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저녁 7시30분 서울 화양동 건국대 새천년관, 27일 오후 5시 북티크 서교점에서 강연을 한다. 26일 저녁 강연은 당초 창비 서교동 사옥(130석)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청자가 1300여명이나 몰려 창비는 급히 800석 규모의 건국대로 장소를 옮겼다. 가히 ‘솔닛 현상’이라고 부를 만하다. 여성을 가르치려는 남성의 태도를 꼬집는 ‘맨스플레인’이란 기존의 신조어를 전세계적으로 알린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창비)는 3만부가량 팔려, 출판사들은 그의 후속작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는 2014~2017년에 쓴 글들로 최근의 페미니즘 물결을 반영한 후속작이다.<br/><br/> 김지훈 기자 watchdog

언론사: 한겨레-1-127.txt

제목: 이보미, 13개월 만에 KLPGA 출전한다  
날짜: 20170822  
기자: 김경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22103905001  
ID: 01101001.20170822103905001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엄마 내가 언제 이렇게 컸지? 생일초도 정확히 30개 꽂아주는 엄마 고마워. ㅋㅋㅋ 29개이길 바랐는데... 사랑해요♥”<br/><br/> 지난 20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CAT 레이디스에서 뒤늦게 2017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보미짱’ 이보미(29). 그는 다음날 세는나이 서른살 생일을 맞아 인스타그램에 일본에서 자신을 뒷바라지해주는 어머니(이화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남겼다. 지난해 11월 일본 투어 통산 20승 고지에 오른 이후 올해는 한번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해 애를 태웠던 그였기에 생일 전날 우승은 더욱 뜻깊었다. 3년 전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늘 그의 버팀목이었다. “<span class='quot0'>마음이 약해질 때 항상 엄마가 도와주세요.</span>”<br/><br/> 그런 이보미가 13개월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출전해 국내 팬들과 만난다. 출전 무대는 24~27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컨트리클럽(파72·6516야드)에서 열리는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이다. 그의 국내 대회 출전은 지난해 7월 비엠더블유(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후 처음이다. 이보미와 함께 일본 투어에서 뛰며 통산 3승을 올린 강수연(41)도 나온다.<br/><br/> 지난 2010년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4관왕(대상,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 업적을 달성한 뒤 이듬해 일본 투어에 진출한 이보미는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올해의 선수상과 시즌 상금왕을 거머쥐었다. 일본에서 활약하며 이따금 국내 투어에도 출전했지만,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지난해 비엠더블유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도 공동 26위로 부진했다. <br/><br/>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

언론사: 한겨레-1-128.txt

제목: 판매 금지 DDT, 어떻게 친환경 달걀에서 발견됐을까  
날짜: 20170821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21172909001  
ID: 01101001.20170821172909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다섯살 자녀를 둔 ㄱ씨는 최근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의 달걀에서 38년 전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됐다는 공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평소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비싸지만 친환경 달걀만을 구입해 왔던 ㄱ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아이에게 더 비싼 돈을 주고 농약이 든 계란을 먹인 셈이 됐다”고 토로했다. 해당 달걀은 한살림이 판매하는 유정란 중에서도 가장 비싼 가격인 10알에 7500원에 판매돼 왔다.<br/><br/> 맹독성 살충제이자 제초제인 디디티가 달걀에서 발견돼 소비자들이 충격에 빠졌지만 어떤 경로로 ‘달걀’이 오염됐는지는 지금껏 누구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디디티는 1970년대까지 농업분야에 널리 사용됐고 인체에 흡수되면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로 확인되면서 197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38년 동안이나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 농약이 친환경 달걀에서 검출된 경위에 궁금증이 이는 까닭이다. <br/><br/>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17일 전국 683곳 친환경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320종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두곳(경북 영천·경산)에서 디디티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320종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안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영천과 경산 농장의 달걀에서 각각 0.047㎎/㎏, 0.028㎎/㎏의 디디티가 검출됐지만 잔류 허용 기준치 (0.1㎎/㎏)이하여서 친환경 인증만 취소하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시키도록 조처했다. <br/><br/> 그러나 달걀에서 디디티가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는 농장주, 전문가, 정부 어느 쪽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설명은 농장을 짓기 전 뿌렸던 디디티가 토양 속에 잔류해 있다가 닭이나 달걀을 오염시켰으리란 추정이다. 디디티는 반감기가 최대 24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 디디티가 검출된 경북 영천의 한 산란계 농장주 ㄴ씨는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디디티 농약을 구할 수도 없고 친 적도 없다”며 “친환경 농장을 만드는 데 모든 혼을 들였는데 이렇게 나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달걀을 판매하고 있는 한살림 관계자도 “<span class='quot0'>디디티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염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친환경 농장이라 케이지가 아닌 운동장에서 풀어놓고 닭을 기르는데 이 과정에서 닭이 흙을 쪼아 먹다가 토양에 잔류한 디디티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중</span>”이라고 말했다. <br/><br/> 그동안 디디티를 왜 검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span class='quot1'>친환경 검사는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해왔지만 (정부)관리지침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닭을 키우는 농장의 경우 처음 농장 설립때 토양 잔류 농약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지 않다보니 미처 이 부분까지 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span>”고 말했다.<br/><br/> 농식품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디디티는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검사대상에서 아예 빠졌던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농식품부와 토양조사 결과를 분석해 토양에서 검출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반 계란의 잔류농약 검사 항목에 디디티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 이재호 기자 ph

언론사: 한겨레-1-129.txt

제목: [정희진의 어떤 메모] 아픈 몸을 살다  
날짜: 2017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18194840001  
ID: 01101001.20170818194840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아픈 몸을 살다>, 아서 프랭크 지음, 메이 옮김, 봄날의책, 2017<br/><br/> 책의 지은이 아서 프랭크는 서른아홉에 심장마비로 거리에서 쓰러졌는데, 15개월 뒤엔 고환암에 걸렸다. 내 친구는 12년 동안 우울증의 손아귀에서 가쁘게 삶을 이어가던 중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식도까지 전이되었단다. 동행한 나는 “그렇게 멀리요?”라고 물었다. 의사는 말했다. “<span class='quot0'>자궁에서 식도가 서울 부산 거리는 아닙니다.</span>” <br/><br/> 그간 그녀는 우울증보다는 암이 낫다고 ‘노래를 불렀었다.’ 우울증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다. 우울증은 ‘죽어가는’ 몸이고, 말기 암은 ‘죽을지도’ 모른다. <br/><br/> <아픈 몸을 살다>는 고통이 앎의 수원임을 증명한다. 한 문장도 놓칠 부분이 없다. 독자의 삶만큼 읽을 수 있다. 나는 김광석의 노래 “매일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를 타인과의 헤어짐으로 생각했다. 그게 아니었다. 어제 나의 몸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내 몸과 다시는 만날 수 없구나였다. <br/><br/> “경험은 살아야 하는 것이지 처리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25쪽) “질병은 누군가에 맞선 싸움이 아니라 길고 고된 노력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승리한다.”(143쪽) “아픈 사람들은 이미 아픔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이 질병이 무엇인지를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책임감이 있느냐다.”(202쪽)<br/><br/> 원제는 ‘몸의 의지로’(At the will of the body)이다. 나는 의지라는 말을 싫어한다. 대개 신경정신과 계통의 질병인, 의지가 고장 난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치료는커녕 숨 쉬는 것도 귀찮은데…. 침대가 생활의 전부인 ‘베드 아일랜드’(bed island)에서의 인생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말 <아픈 몸을 살다>는 원제보다도 책의 주제를 잘 전달하고 있다.<br/><br/>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윤리 중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나는 내 몸의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나도 지병이 있는데, 이전의 사고방식은 ‘다 나은 다음에 책 쓰기, 여행, 운전 배우기, 운동을 하자’였다. 아픈 시간은 삶의 대기실,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몸이 가르쳐 주었다. 병은 낫지 않았다. 도대체 완치는 누가 만든 말인가. 죽을 때까지 재발되지 않을 뿐 어떤 병도 완치되지 않는다. <br/><br/> 세상은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완벽하게 건강한 몸은 없다. 아픔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다. 이 차이는 위중 여부가 아니다. 아픈 사람마다 증상과 기능이 모두 다르다. 앞에 쓴 심장마비, 고환암, 우울증, 자궁암이 다른 질병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문제는 같은 병도 증상이 다르며,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같은 사람도 매분마다 증상이 다르지 않은가. <br/><br/> 아서 프랭크는 차이가 인식되어야 돌봄이 가능하다고 본다. ‘암 환자에게 해주기 적당한 말’은 없다. ‘암환자’는 포괄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느낌표는 필자). 의학이 환자를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진단 범주는 질환(disease)에 쓰이는 것이지, 질병(illness)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br/><br/> 하지만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차이와 독특성을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차이를 파악하려면 아픈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75쪽). 치료와 돌봄은 다르다. 돌봄…. 내가 엄마를 간병할 때 가장 많이 한 말(짜증)은 “엄마, 정말 원하는 게 뭐야?”였다. 그녀가 원하는 가제의 촉감을 찾기 위해 몇 종류의 가제를 샀는지 모른다. <br/><br/> 이 책은 번역서 같지 않다. 번역(메이), 표지 디자인(김효은), 추천사(김영옥, 전희경)가 본문보다 심오하다. 특히 번역은 원래 능숙한 한국어 사용자가 쓴 문장 같다. <아픈 몸을 살다>는 아서 프랭크의 첫 번째 저서로, <몸의 증언>(최은경 옮김, 갈무리, 2013)도 권하고 싶다. 위에 언급한 이들은 모두 페미니스트다.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br/><br/>정희진 평화학 연구자

언론사: 한겨레-1-130.txt

제목: 10년을 그려도 모자란, 시바견의 심쿵 매력  
날짜: 20170817  
기자: 김지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17192843002  
ID: 01101001.20170817192843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통통한 볼과 엉덩이. 진돗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더 작아 귀여운 몸집. 요즘 인기 절정인 시바견 이야기다.<br/><br/>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260만명에 이르는 일본 시바견 ‘마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에선 시바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왔다. 특히 최근 가수 김희철의 ‘조르’, 탤런트 정유미의 ‘탁구’, 양현석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대표프로듀서의 ‘홍순이’ 등 연예인들의 시바견이 방송을 타면서 시바견 인기가 상한가를 쳤다. 네이버카페 ‘시바나라’에는 2만5000명이 가입해 있을 정도다. 반면, 시바견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파양하는 경우도 늘어나, 일본에선 천연기념물인 시바견을 한국 사람들에게는 분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는 브리더(개나 고양이의 혈통 관리와 분양을 하는 사람)도 나타날 정도다. <br/><br/> 이런 시바견 열풍 속에서 최근 출간된 <시바견 곤 이야기>(한겨레출판)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저자인 가게야마 나오미는 2006년 같이 살던 시바견 곤(당시 9살), 테쓰(당시 1살)와의 이야기를 담아 ‘시바견의 급소’란 제목으로 출간했다. 지인들에게 여름철 문안 인사로 키우는 시바견 이야기를 4컷 만화로 엽서에 그려 보내주던 것이 시바견 전문 잡지 편집자의 눈에 띄어 연재를 시작하게 됐다. 그 후 지금까지 이 시리즈로 모두 10권의 만화책을 냈다. <br/><br/> ‘시바견의 급소’란 원제처럼, 이 만화는 같이 사는 곤과 테쓰의 다양한 특징과 습성을 놓치지 않고 집어낸다. 역시 시바견이 돌아볼 때 살짝 접히는 도톰한 볼. 볼 때마다 손으로 죽 늘여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다. 또 통통한 엉덩이 덕분에 밤 산책을 나온 곤의 ‘엉덩이빛’이 환하다.<br/><br/> 시바견은 고집이 세다. 시바견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느라 목줄에 볼이 접힌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자주 올라온다. 곤도 동물병원 가는 길은 용케 기억했다가 그쪽으로 갈라치면 역시 버티기에 들어간다. 결국 안아서 들고 가야만 한다. 가게야마는 “테쓰가 밤바람을 쐬는 것을 좋아해서, 비가 내리는 날에도 밖에 서 있다가 홀딱 젖는다. 그래도 억지로 집 안에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테쓰 곁에 우산을 들고 서 있는다”고 말했다.<br/><br/> 하나 더. 시바견은 겁이 많다. 폭죽 소리를 무서워해 가족들은 축제 기간이 되어도 폭죽놀이를 즐기지 못하고, 대신 문을 전부 닫고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놔야 한다. 코가 철책에 끼면 한 발짝만 물러서면 빠지는데도 다칠까 무서워 주인을 불러댄다.<br/><br/> 곤은 연재를 하던 중인 2013년 암에 걸려 죽었다. 이후에 출간된 9, 10권에는 10살이 된 테쓰와 새로 입양한 암컷 시바견 고마(1살)가 등장한다. 가게야마는 “상실감이 싫어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곤을 잃은 것은 나에게 매우 괴로운 경험이었지만, 곤이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다.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줬다”고 말했다.<br/><br/> 가게야마는 마지막으로 시바견을 키우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개에게 ‘이 집에 와서 즐겁고 기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며 “책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즐겁게 읽어주시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br/><br/> 김지훈 기자 watchdog

언론사: 한겨레-1-131.txt

제목: ‘살충제 달걀’ 지적에 “대책 마련하겠다” 말뿐이었던 국정감사  
날짜: 20170817  
기자: 이승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17093814001  
ID: 01101001.20170817093814001  
카테고리: 정치>행정\_자치  
본문: ‘살충제 달걀’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전에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해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언론보도(<노컷뉴스> 2016년 8월7일 ‘닭 진드기, 살충제 살포...정부, 계란 위해성 알면서도 방치’) 이후 10월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충제 달걀’ 문제를 이미 지적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전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논란이 되고 있다.<br/><br/> 2016년 10월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회의록을 살펴보니 기동민 의원은 “<span class='quot0'>일부 계란 농가들이 닭의 진드기 발생을 막는다면서 맹독성 농약을 닭과 계란에 살포하고 있다</span>”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당시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 의원의 지적에 “<span class='quot1'>21개 농장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저기만 해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60개 농장에서 생산된 닭고기하고 계란하고 현재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번 기회에 계란과 관련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span>”고 답했다. 즉 정부가 농가에서 진드기 퇴치를 위해 계사에 살충제를 뿌리는 실태와 문제의 심각성을 지난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손 처장의 발언과 달리 정부는 살충제 사용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셈이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문 속에 기동민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작년 국정감사 이후,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작했지만 미흡했다. 시기도, 방법도 문제가 있었다”며 “이전 정부에선 농약 잔류 검사 실시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함께 반성하고, 또 함께 대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기 의원은 “<span class='quot2'>소 잃고 외양간 고친 셈이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할 때다</span>”고 이전 정부의 책임과 함께 발빠른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br/><br/> <br/><br/> <br/><br/> <br/><br/> ◎2016년 10월7일(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br/><br/> <br/><br/> ○기동민 위원 조금만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제가 답변할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br/><br/> 진짜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전 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br/><br/>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문하려다 말았던, 이것도 계란 문제인데요. PPT 계속 띄워 보세요.<br/><br/> (영상자료를 보며) <br/><br/> <br/><br/> 저게 까만 게 전부 다 진드기라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1100여 개 계사에서 한 7200만 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20×25㎝ 케이지에 한 20주부터 60～80주까지 알 낳는 기계로 닭을 저렇게 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드기를 털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허용 기준치 내에 포함되어 있는 농약도 있을 거고……<br/><br/>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내가 구체적인 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에서 쓰지 않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썼던 것이 너무 약해서 워낙 독한 농약들을―소위 심하게 얘기하면 살충제들이에요―혼합해서 막 쓰다 보니까, 계사 다 비우고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니까 닭에다 직접 뿌리는 데도 있는 거예요. 2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직접 계사를 비우지도 않고 닭들한테 뿌려 대는 거지요.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란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br/><br/> 여러분들, 언론보도 8월 중순에 일어났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료도 구하지 못했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있을 거라고요. 내부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에 사정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요.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답이 없어요.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사정은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해명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면……<br/><br/> 제가 자료가 많이 있는데 더 이상 보여 드리지 않을게요. 국민들이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일상화되어 있는지도 아직은 제가 확신이 없고 다만 몇몇 농가에서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 양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도저히 양심상 더 이상 못 하겠다’, 어떻게 이런 열악한 환경……<br/><br/>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br/><br/> <br/><br/>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br/><br/> 그리고 금지된 약물까지 쓰고 허용치를 5배 이상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 양심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차장님, 처장님, 한번 다 말씀 줘 보세요. 이것도 좋고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좋고 좀 얘기를 해 봅시다.<br/><br/> (중략)<br/><br/> <br/><br/>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그리고 두 번째, 진드기 농가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br/><br/> 생산 단계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21개 농장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저기만 해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60개 농장에서 생산된 닭고기하고 계란하고 현재 수거검사를 하고 있고요. <br/><br/>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동물용 의약품이나 농약에 대한 부분에서 저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해서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아직 구체적인 실적들이 안 나오고 있지만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고 이번 기회에 계란과 관련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br/><br/> <br/><br/> ○기동민 위원 다시 토론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br/><br/> <br/><br/> <br/><br/> 이승준 기자 gamja

언론사: 한겨레-1-132.txt

제목: [왜냐면] 어서, 부디, 암환자 신약 보험 적용해주길 / 정미영(가명)  
날짜: 2017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14180900001  
ID: 01101001.2017081418090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정미영(가명) 경기도 부천시<br/><br/> 5년 전 나는 위암 4기로 진단받았다.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돼 위를 절제해야 했고, 암이 나팔관까지 전이돼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 후로 8개월 정도 독한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50㎏대 후반이었던 몸무게는 43㎏까지 빠졌다.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 간판만 봐도 구토가 올라오고, 면역력이 약해져 면장갑을 끼고 물건을 집을 만큼 하루하루가 불편했지만, 점차 몸이 회복되면서 몸무게도 제자리로 돌아왔고 건강도 되찾았다고 느꼈다. <br/><br/> 그렇게 3년이 지났다.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으로 정기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길어야 6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아들의 결혼식을 딱 1년 앞둔 때였다. 재발한 암이 다른 부위로 많이 퍼졌다고 했다. 장 외벽에 부스럼처럼 따닥따닥 붙은 암세포들은 수술로도 떼어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수술은 포기하고, 내 기억에 고통으로 남아 있는 항암치료를 다시 해야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새로 시작한 신약 치료 덕분에 나는 1년의 고비를 넘겼고,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아들 결혼식에서 가족과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었다.<br/><br/> 그러나 이 치료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나마 개인적으로 들어둔 실비보험이 있지만 이마저도 지난 1년여 항암치료를 받으며 거의 바닥이 났다. 남편이 간병을 위해 직장을 집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면서 가계수입도 줄었다. 암투병 중인 내가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주는 것 같아 더 이상 이 치료를 이어가는 일이 정말 막막하게 느껴진다.<br/><br/> 암 병동에서 만나는 다른 위암 말기 환자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요즘 다른 암종은 신약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와 같은 위암 말기 환자들은 현재 이 치료제 외에는 딱히 다른 대안이 없다. 게다가 이 치료제는 허가를 받은 지도 몇년이 지났고, 나도 일년이 넘게 이 약을 써왔지만 여전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의아할 뿐이다. 정부 입장에서 몇개월은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나와 같은 말기 암 환자, 특히 재발 암 환자들에게 이 시간은 아들의 결혼식과 같은 일생일대의 순간을 앞두고 암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힘겨운 하루하루다.<br/><br/> 새 정부가 우리와 같은 환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발표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새로운 희망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론 이러한 정책도 나와는 무관한 일이 될까 조바심도 난다. 그저 나와 같은 환자들이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특히 말기 위암 환자들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펼쳐주기를 간곡히 소망해본다.

언론사: 한겨레-1-133.txt

제목: [최현숙의 말 쓰기] 사적이고 정치적인 늙어죽음  
날짜: 2017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13175826002  
ID: 01101001.20170813175826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최현숙 구술생애사 <할배의 탄생> 저자<br/><br/> 다른 죽음들 말고, 늙어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여든 근처 노인들을 위한 돌봄 노동 현장에서 죽음은 흔한 이야깃거리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는데 머가 무서워?”, “<span class='quot0'>치매랑 중풍이 겁나지, 죽는 거는 하나도 안 겁나</span>”, “<span class='quot0'>딱 3일만 아프고 죽으면 젤로 큰 복이지</span>”, “<span class='quot0'>제발 좀 부탁이니 살리지 좀 말라 그래.</span>”<br/><br/> 김 할머니의 새벽기도는 늘 “하느님, 왜 지난밤에도 나를 안 데려가셨나요?”란다. 세 종류의 암을 거쳤던 옥탑방 독거노인 이 할아버지는 “<span class='quot1'>이병철 죽는 거도 봤고, 이건희도 죽었대나 어쨌대나 하는데, 나 죽는 게 머가 억울해?</span>” 하며 웃더니, 세 번째 암 수술도 공짜로 받고 곧 죽었다. 위암 말기 33㎏의 황 할머니는 “어떡해야 죽냐?”가 입에 붙어 있고, 그 “어떡해야”에 답이라도 하듯 김 할아버지는 간단하게 죽음을 집어먹었다. “별일 없어”, “걱정해봐야 소용없어”, “보이고 싶지 않아”, “<span class='quot0'>너희끼리 잘 살고 우린 내버려둬</span>”. 프랑스 상위계층 늙은 부부의 죽어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 <아무르>(미하엘 하네케 감독)에서, 먼저 죽어가는 아내를 돌보는 남편이 자식들과의 통화나 대화에서 하는 말이다. 소외든 외로움이든 이왕 닥친 김에, 그 속에서 자유와 자존을 발라낸다.<br/><br/> 사적 관계만 넘어서면 늙어죽음은 감사하고 필수적인 일이다. 죽음 근처의 갖은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모두 죽는다는 면에서 공평하기까지 하다. 죽음에 바짝 다가간 노인들은 말이 없다. 산 자들만 쑥덕대는 죽음에 관한 소문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무섭다느니 외롭다느니 슬프다느니 모두 산 자들의 느낌이다. 늙어죽음은 거듭되는 소멸과 해체, 노쇠와 병증들과 통증들과 느려짐과 불가능해짐에 이어 오는 것이어서, 마침내 죽음에 닿음을 마음으로 치하하게 된다. 하물며 심히 고통스러운 생애였다면 더더욱, 죽음은 보는 이에게도 위안이자 희망이다. 젊은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까지 여럿 듣는 요즈음, 잠자리에 눕고 일어서며 ‘안 깨어날 수 있다’와 ‘깨어났구나’를 자주 떠올린다. 멀지 않은 장차에 죽음을 떠올려놓고 사느라, 욕망과 일상은 점점 단출해진다.<br/><br/> 한편, 죽기 직전까지는 인구(人口)다. 먹고 말할 입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여서, 정치다. 가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고독사는 다반사다. 고령화로 인한 배우자의 죽음, 중년의 이혼, 청년의 결혼 안함 등으로 1인 가구는 급증하고 있다. 변두리에서 중심까지, 가족주의는 성큼성큼 허물어지고 있다. 복지를 여전히 가족에게 떠넘기는 한, 빈곤 가구한테 가족은 갈수록 덫이다.<br/><br/> 지난 8월2일치 영국 <가디언>은 ‘한국의 불평등 모순: 장수, 좋은 건강 그리고 빈곤’ 제목의 기사에서, 기대수명도 세계 최고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도 최고 수준인 “특이하고 명백한 모순”의 한국을 다루고 있다. 복지 없는 장수는 이미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재앙이다. 8월9일 발표한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빈곤 노인들의 생애 마지막 궁지를 더 깊게 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원인에 대한 대책은 없이 일단 자살과 고독사는 막으라는 독거노인 복지 현장의 최우선 업무지시 ‘안전 확인’은, 산 자들의 낯이나 세우자는 거다.<br/><br/> 8월2일치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빈곤 노인들의 해부용 시신 기증이 포화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많은 빈곤 독거노인들 역시 ‘대학병원 시신 기증’을 서로 이익인 시신 처리로 여긴다. 모두가 죽는다는 것만 공평하지, 인구(人口) 너머까지도 계급 차별은 이어지고 있다. 오로지 사적인 죽음은, 이후까지도 여전히 정치다.

언론사: 한겨레-1-134.txt

제목: 밀양 소년과 후쿠시마 소녀에게서 본 두리 얼굴  
날짜: 2017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12133810001  
ID: 01101001.20170812133810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지엠오(GMO) 라면’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6월13일 방영된 문화방송(MBC) <피디(PD)수첩> ‘GMO 그리고 거짓말’ 편에서 라면 매출 상위 1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2개 회사)에서 GMO가 검출되어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이 과정에서 ‘GMO 완전표시제’와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한 논점이 널리 알려졌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수입국이며 ‘식용 GMO’ 수입량은 2015년 기준 214만5천톤으로 세계 1위(일본은 주로 사료용 GMO 수입)라는 사실이 알려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r/><br/> <br/><br/> 식용 GMO 수입국 1등의 비결<br/><br/> 아무리 그래도 세계 1위라니. 그 많은 식용 GMO는 누가 다 먹는 걸까요? 결국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이 세계 제일의 GMO 소비자란 뜻입니다. 대체 한국의 1등 비법은 무엇일까요? <br/><br/> 제가 짧은 국회의원 생활 동안 확실히 깨달은 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사람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업 활동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온갖 규제를 완화해줍니다. 규제를 풀다 못해 이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규제 없는 사회를 합법적으로 건설하려고 하죠.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그렇습니다.<br/><br/> 규제 없는 사회란 신호등 없는 건널목, 건널목 없는 도로, 속도 제한 없는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속도를 위해서라면 차에서 안전벨트도 떼어낼 기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도에 눈이 멀어, 이미 너무나 많은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요. 정부·여당은 엊그제까지 적폐라 부르던 규제프리존법을 이제 와 말을 바꿔 도입을 추진하기 전에, 잊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양복 옷깃에 달려 있던 노란 리본들이 단지 액세서리는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br/><br/> 한국이 식용 GMO 수입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건 ‘GMO라도 괜찮아’라는 우리의 너그러운 식성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뭘 먹고 사는지 모르는(알 수 없는) 현실이 원인입니다.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식품업계의 ‘팔 권리’를 옹호해왔기 때문입니다. <br/><br/><br/><br/>밀 가공품에서 GMO 검출 충격 내가 뭘 먹고 사는지 알 수 없고알권리보다 팔권리 보장하는 나라 어린이집 가면 대책없을 두리 음식 <br/><br/> <br/><br/>GMO, 전자파, 가습기 살균제 등 국민에게 닥칠 위험 예방 대신기업 이윤이 우선인 사회에서는 일상과 도처가 엄마를 떨게 한다<br/><br/><br/><br/> 이번 ‘GMO 라면’ 사태에서도 식약처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데요. 6월말 식약처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라면의 주재료인 밀과 밀가루를 추적 조사한 결과 GMO 콩과 옥수수가 미량 혼입되었으나, 식약처 고시(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비의도적 혼입의 경우 3% 이하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니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은 0.9%로 국내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고, 무엇보다 콩 가공품에서 GMO 콩이 검출된 것이 아니라 밀 가공품에서 GMO 콩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br/><br/>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식용이 승인된 GMO는 2016년 기준 7개 작물(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감자, 알팔파, 사탕무)이고, 이 가운데 실제 수입되는 식용 GMO는 2014년 이후 콩과 옥수수가 전부입니다. 저는 GMO를 피하려면 국산 콩과 국산 옥수수만 잘 찾아 먹으면 된다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왔죠. 그런데 GMO 수입 품목이 아닌 밀에도 GMO가 섞인다니, 라면은커녕 잔치국수도 못 사먹게 된 겁니다.<br/><br/> 지금은 두리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노력으로 GMO가 거의 없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수입된 GMO 콩의 99%는 콩기름으로 가공된다고 하니 모든 볶음류와 튀김이 문제고, 기름을 만들고 남은 GMO 콩 찌꺼기는 간장, 된장 제조에 활용된다니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할 지경이죠. <br/><br/> <br/><br/> 국민과 싸우는 식약처<br/><br/> GMO 옥수수는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등 액상과당의 원료로 쓰이는데요. 액상과당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서 빵,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주스, 맥주에 들어가고, 소주와 막걸리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합성 비타민에 들어가는 포도당에도 섞여든다니 세계 1위의 수입국이 될 만도 하지요. <br/><br/>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는 원료가 아닌 완성품 기준이라서 GMO 가공품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유지류·당류·장류는 GMO 표시 자동면제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 1위 국가이면서 GMO 표시 식품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초에는 두리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생각 중인 우리 부부에게는 GMO 완전표시제밖에 답이 없습니다. <br/><br/> 식약처는 이런 저희 부부의 고민을 읽기라도 한 듯이, 지난달 17일 유투브에 ‘[식약처] GMO A to Z ?1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더군요.<br/><br/> “과학자들은 이런 우려가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합니다. 최근 노벨상 수상자 123명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식량 수요를 감당하려면 GMO가 필수적이라고 말했고 세계보건기구(WHO), 미국과학한림원, 미국의사협회 등의 단체도 GMO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br/><br/> 식약처의 의도적인 사실 왜곡에 화가 납니다. 지난해 말 대만에서는 학교 급식에서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죠. 왜 저는 식품회사도 아니고 몬샌토도 아닌 우리나라 식약처와 싸워야 하는지 예나 지금이나 허탈하고 서글플 따름입니다. <br/><br/> GMO 식품의 안전성에서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다국적 농약·종자기업인 몬샌토가 1974년 개발한 비선택성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상품명 라운드업)입니다. 몬샌토는 글리포세이트와 이것의 독성을 견디는 GMO를 개발해 ‘세트상품’으로 전 세계에 수십년간 판매해왔죠. 2015년 3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리포세이트를 2A등급(probable carcinogen, 거의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평가 분류해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글리포세이트 판매 금지 온라인 청원 서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자 글리포세이트의 사용허가 기간 연장을 사실상 보류했습니다. <br/><br/> 세계 최대 GMO 재배 국가이자 몬샌토의 모국인 미국에서도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아칸소주는 몬샌토의 신제품 제초제 디캄바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하네요. <br/><br/> 물론 GMO가 안전하다는 과학자들도 있고, 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식약처는 어느 한편의 주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까요? <br/><br/><br/><br/> <br/><br/> <br/><br/> 사전예방 원칙을 무시하는 원칙<br/><br/> 한국이 ‘식용 GMO 수입 1위 국가’가 된 또 하나의 비법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무시하는 원칙’입니다. ‘사전예방의 원칙’이란 환경 사안이나 보건 사안처럼 문제 발생 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성을 지니는 경우,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적인 조치와 규제를 사전에 도입하는 행정 원칙을 말합니다. 현대과학은 확실성보다 불확실성을 입증하는 추세이며, 따라서 정책이나 법안을 입안할 때 사전예방의 원칙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br/><br/> 실제로 2000년 1월, 국제사회는 GMO의 국가 간 이동·사용 등을 규제하는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를 채택했고, 이 의정서는 당사국들이 GMO의 위해성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 증거 없이도 그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즉 GMO 수입국은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없어도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br/><br/> 저는 지난 국회의원 임기 내내 ‘사전예방은 없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원칙’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 전부를 걱정했습니다. ‘국민’이라니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건 제 자신과 우리 가족 그리고 이 글을 읽는 평범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이야기란 뜻이죠. <br/><br/> 세계 1위의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충남 당진의 주민들은 이미 수십년간 더러운 공기 때문에 건강 피해를 입어왔고, 고압 송전선로 주변은 전자파에 따른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는 ‘암 마을’이란 끔찍한 별칭이 붙여지기까지 했죠. 그러나 산업부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는 경남 밀양에도 756㎸ 초고압 송전탑 수십기를 세웠고, 밀양 사람들은 목숨 건 저항을 했지만 결국 사지로 내몰리고 말았죠.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인체 전자파 노출 기준 833mG(밀리가우스)가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의 권고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노출과 생활공간에서의 지속적인 노출을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833mG는 스웨덴(2mG)의 416배, 네덜란드(4mG)의 108배, 스위스(10mG)의 83배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기준치이고, 한국의 아이들이 특별히 전자파에 강한 인체를 타고나는 게 아니라면 엄마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죠. <br/><br/> ‘설마 우리 집 주변에 발전소나 송전탑이 지어지겠어?’ 하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서울·수도권의 대도시들은 송전선로가 대부분 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발밑에 이미 송전탑이 늘어서 있으니까요. 제가 2014년 국정감사에서 서울 노원구의 한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150mG의 전자파가 측정된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영유아·어르신·환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만이라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괜찮다’는 답변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후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영유아 노출 기준만이라도 상향하기 위해서 전파법 개정안도 발의했지만 전자파의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들도 통과되지 못했죠. <br/><br/> 밀양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는 세상에서 경찰이 제일 싫고 마을 앞산과 뒷산에 늘어선 송전탑이 괴물 같다며 자기가 그린 그림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두리를 본 것만 같았습니다.<br/><br/> 핵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의 국토 면적당 설비용량 세계 1위, 원전단지 밀집도 세계 1위, 원전 주변 인구수 세계 1위 등 모든 면에서 원전 위험도 세계 1위 국가인데도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있죠. 고리 원전단지 반경 30㎞에 380만명이 살고 있는데, 핵사고 발생 시 대피 시나리오조차 없는 용감한 나라입니다.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면 유전자에 변이가 일어나고 대를 이어 고통스러운 질병이 전해집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만난 열살 소녀는 ‘엄마가 될 수 있는지, 엄마가 되어도 괜찮은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하루가 다르게 소녀가 되어가는 두리에게서 가끔 그때 그 소녀를 느낍니다. <br/><br/> <br/><br/> 국민 안전 담보로 도박하는 나라<br/><br/> 가습기살균제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폐섬유화로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화학물질에 대해서 ‘흡입독성 자료가 없으니 흡입해도 괜찮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었죠. 입증되지 않은 위험은 위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갓난아이와 아내를 잃은 아빠로부터 ‘아이는 잘 크죠?’라는 질문을 듣는 일, 그리고 ‘잘 큰다’고 대답하는 일은 말 못 할 감정을 일으키더군요. <br/><br/>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들이 일터에서 사용한 화학물질과 백혈병 간의 인과관계를 노동자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삼성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그들이 일터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지 못한다고 했죠. 두리처럼 작고 어린 딸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삼성이라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엄마 아빠는 딸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런 딸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 아빠의 심정은…. <br/><br/> 우리는 안전이 입증된 나라가 아니라, 위험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없이 사전예방을 이유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면 ‘절대로’ 안 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라면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딴 데 가서 키우든지 아니면 이 나라를 싹 바꾸든지. 후자를 엄마 정치라고 부릅니다. <br/><br/> <br/><br/> <br/><br/> ▶ 장하나 두리 엄마,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 전직 국회의원.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사는 건 참으로 이상하고 슬픈 경험입니다. 엄마는 가장 멋진 일인데도 가장 괄시받는 직업이 됐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시간과 장소를 빼앗겼습니다. 20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 41억원, 평균 연령 55.5살, 83%가 남성입니다. 우리 정치는 너무 노쇠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엄마의 눈으로 보고 엄마의 마음으로 길을 내는, 엄마를 위한, 엄마에 의한, 엄마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언론사: 한겨레-1-135.txt

제목: “당신만의 꽃을 그려드립니다”  
날짜: 201708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11204819001  
ID: 01101001.20170811204819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한 달여 전 이 지면에 ‘당신 인생의 꽃을 그려드립니다’ 이벤트를 하겠다고 알렸다.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 꽃 이야기를 써 보내면, 2명을 뽑아 그려주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스무 명 남짓 사연을 보내왔다. 그냥 휘리릭 넘기기엔 소중한 사연들이 많아 뽑는 데 애를 먹었다.<br/><br/> 가슴 훈훈해지는 사연을 담은 꽃 2개를 뽑았다.<br/><br/> 석류나무꽃.<br/><br/> 어린 시절, 같은 학년의 부잣집 남자애 집에서 셋방살이를 했다. 창고를 개조해 양철 여닫이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부뚜막, 그걸 딛고 올라가면 어른 두어 명 누울 수 있는 쪽방에서 살았다. 학교만 가면 주인집 아들이 ‘○○은 우리 집 창고에서 산다’고 놀려댔다. 그 친구를 흠씬 때려주고 선생님께 크게 혼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아버지가 앙상한 나무 한 그루를 안고 오셨다. 양철 여닫이문 앞에 손바닥만한 화단을 만들어 그 나무를 심고, 그 옆에 채송화도 심으면서 아버지가 말했다. “<span class='quot0'>이 석류나무가 네 키보다 크면 우리 집으로 이사 갈 것</span>”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밤 자면서 기도했다. “내 키는 이대로 크지 않고 석류나무만 어서 쑥쑥~! 자라게 해”달라고….(임○○/부산시 수영구)<br/><br/> 그 석류나무꽃이 피어 있으면 부산까지 그리러 내려갈 요량이었지만, 아쉽게도 석류나무꽃은 다 져버렸다. 이리저리 사진을 찾아 보고 그렸다.<br/><br/> 접시꽃.<br/><br/> 3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우리는 경북 영주시에 살았는데 영주역전에는 중앙선을 타고 오는 해물과 인근의 농산물이 펼쳐지는 ‘번개장’이 섰답니다. 네댓 살이 된 딸과 장에 가는 길에 접시꽃이 붉게 피었어요. 저는 쫄랑쫄랑 걷는 아이에게 ‘저게 접시꽃이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산책 삼아 번개장을 도는 데 1시간 남짓 걸렸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접시꽃 옆을 지나게 되어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br/><br/> “음~ 그릇꽃!”<br/><br/> 그 뒤로 우리에게 그 꽃은 그릇꽃이 되었습니다. 딸이 집을 떠나 살게 된 지 16년, 저는 해마다 그해 처음 만나는 그릇꽃 사진을 찍어 보내고 딸은 ‘그릇꽃’이라는 답신을 보냅니다. 올해 같은 가뭄에 그릇꽃은 어찌 이리 고운 색을 낼 수 있는지 장하기도 하지요. 저에게 그릇꽃 한 점 주시면 사랑과 그리움의 증표로 제 딸에게 바치고?! 싶습니다.(표○○/대구광역시 달성군)<br/><br/>‘당신만의 꽃 그려주기’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아주 소박한 나만이 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다 ‘당신만의 꽃’을 그려주는 그런 화가이고 싶다<br/><br/> 접시꽃을 그릇꽃으로 기억하고, 그 추억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너무 사랑스러워 뽑았다. 아 그런데 그리러 나갔더니, 동네 여기저기 길쭉한 키를 자랑하며 피어 있던 접시꽃이 거의 다 져버렸다. 문득 한 달여 전 인왕산 성곽을 배경으로 피어 있던 접시꽃이 생각나 올라갔다. 접시꽃만 그리려다가, 남산까지 내려다보이는 시원한 풍광에 홀려 배경까지 그려 넣었다. 그리는 와중에 보초 서던 군인들이 잡초를 제거하면서 접시꽃을 잘라버려, 아쉽지만 마무리는 사진을 보며 했다. 하여간 꽃만 그리려다 풍경을 넣은 꽃 그림을 처음 그려보는 뜻밖의 소득을 얻은 셈이다.<br/><br/> 2명만 뽑기로 했는데, 원추리꽃 사연도 재미있어 내친김에 하나 더 그렸다. 한란인 줄 알고 키우던 게 원추리꽃인 줄 뒤늦게 알게 된 김○○(광주광역시 북구)님의 사연이다. 아 그리고 서울과 지방에서 1명씩 뽑겠다고 했는데, 뽑고 보니 모두 지방인 걸 뒤늦게 알게 됐다. 최근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작약 그림을 드리고 싶다는 박○○(서울시 강남구)씨 사연을 하나 더 선택했다. 내년 봄 작약이 필 때 그려드릴 참이다.<br/><br/> ‘당신 인생의 꽃을 그려드립니다’ 이벤트는 2015년 페이스북에서 처음 시작했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고구마 농사 짓는 분의 “고구마꽃을 그려주세요!” 사연에 홀려, 해남 고구마밭을 헤치며 고구마꽃을 찾아 그려줬다. 층간 소음 때문에 관계가 나빠진 동네 이웃 간의 화해를 위한 꽃을 그려달라는 요청에, ‘채송화’를 그려 선물하기도 했다.<br/><br/> 얼굴 캐리커처를 그려 척척 선물하는 화가 친구들이 부러웠다. ‘나도 저렇게 빨리 얼굴을 그려 선물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싶었다. 100시간 정도 천천히 그린 그림을 선뜻 선물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꽃 그림은 될 것 같았다. ‘당신만의 꽃 그려주기’. 작지만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아주 소박한, 그림 그리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다. 그림 팔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쓱쓱 그려줄 순 없지만, 뚜벅뚜벅 찾아가 ‘당신만의 꽃’을 그려주는 그런 화가이고 싶다.

언론사: 한겨레-1-136.txt

제목: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환자들의 의료비 어떻게 달라지나  
날짜: 20170809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09161852001  
ID: 01101001.2017080916185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그동안 고가의 항암제, 수술비, 검사비 부담에 시달렸던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특진)비나 간병비 등 환자들의 부담도 대폭 감소한다. 하지만 전체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2022년 약 70%로 예상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80%에 못 미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손보험료를 크게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br/><br/> ■ 대장암 환자 약값 한해 4590만원→1380만원<br/><br/> 대장암을 앓고 있지만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가 듣지 않은 환자 ㄱ씨는 본인 부담 100%인 새 항암제를 쓰고 있다. 그는 4주에 353만원, 한해 4590만원에 이르는 약값을 내고 있지만, 이번 대책으로 이 항암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30%만 내면 된다. 4주에 106만원으로 약 250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한해 약 3200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br/><br/> 전립선암으로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 ㄴ씨는 병원비 총액 1612만원 가운데 1202만원을 내야 했다. 입원비 등 일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로봇수술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로봇수술에 대해 예비급여 형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내는 병원비는 628만원으로 절반가량으로 떨어진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해 특진비로 부르는 선택진료비도 없어져 진료비의 15~50%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2~3인실에 입원할 때 하루 평균 10만~20만원씩 내야 했던 상급병실료도 없어진다.<br/><br/>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 항목이 많아 환자가 100% 부담하는 의료비가 주요국가보다 훨씬 많다. 이렇다 보니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36.8%로 오이시디 평균치인 19.6%에 견줘 1.9배나 된다. 오이디시 회원국 순위로는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결국 의료비가 가계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리는 가구는 최근 들어 전체 가구의 4.5%로,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 위험에 처해 있다. 이번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전면 급여화로 현재 63%에 이르는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2022년 70%로 오를 전망이다.<br/><br/> <br/><br/> ■ 여전히 오이시디 평균치 밑도는 보장률<br/><br/>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어 “2022년 보장 비율이 70%인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목표 비율 80%,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75%와 비교해도 낮다”고 비판했다. 또 환자 부담 비율이 50~90%에 이르는 예비급여는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문에서 “<span class='quot0'>환자 본인부담금이 절반에 이르는 임플란트 등 환자가 전체 비용의 50%나 80%를 내는 기존의 선별급여(고가의 치료에 대해 일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인 5~20%보다 높게 받는 것)도 고소득층이 더 많이 이용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span>”고 지적했다. 한개당 100만원이 넘는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본인이 치료비 절반만 내면 되지만 저소득층은 그 비용이 부담돼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br/><br/> 2015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 보장 비율은 63%로, 전체 의료비의 37%는 환자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질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달 건강보험 급여비는 지난해 기준 하위 20% 세대가 약 18만4천원으로 상위 20%의 27만2천원에 견줘 크게 낮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는 저소득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이용을 덜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비급여의 경우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 실손보험료 인하 목소리 커질 듯<br/><br/>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하면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높아져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지급하게 된다. 민간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험사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높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보험사의 손해율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span class='quot2'>예비급여라도 환자가 최고 90%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여전히 가입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단기적으로 실손보험료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을 퇴출시켜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137.txt

제목: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최고 권력기관’ 셀프 선포  
날짜: 20170809  
기자: 정의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09155857002  
ID: 01101001.20170809155857002  
카테고리: 국제>중동\_아프리카  
본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구성한 제헌의회가 스스로 최고 권력기관임을 선포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마두로 정권의 권력 굳히기 또는 실각으로 가는 기로로 접어들고 있다.<br/><br/> 베네수엘라 제헌의회는 8일 모든 정부 기관보다도 제헌의회가 우위에 있다는 내용의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는 우파 야권이 장악한 기존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제헌의회에 있음을 의미한다. <br/><br/> 제헌의회는 마두로 정권이 지지자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한 7월30일 선거를 통해 구성됐다. 마두로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의회 등 기존 헌법기구를 무력화하며 개헌 권한까지 틀어쥐게 되면, 마두로 정권의 독재적인 권력은 굳어지게 된다.<br/><br/> 길게는 2013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짧게는 지난 3월29일 대법원의 의회 권력 박탈 결정으로 격렬해진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 사태는 제헌의회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br/><br/> ■ 차베스주의 세력 대 친미우파 세력 베네수엘라 사태는 차베스주의 세력 대 친미우파 세력의 대결 전선이다. 전통적으로 친미우파 정부가 집권해온 베네수엘라에서는 1990년대 초 우고 차베스가 등장하면서 중남미 전역의 정치지형 지진의 근원이 됐다. 반미좌파 민족주의 성향의 차베스는 1992년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가 실패해 투옥됐다. 그는 출옥 2년 뒤인 199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며, 중남미의 정치 태풍이 됐다.<br/><br/> 당시부터 오르기 시작한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속에서 베네수엘라에 풍부한 석유를 수출한 자금으로 전례 없이 관대한 복지정책을 펼쳐, 빈민 및 중하류층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그는 기존 기득권 세력 등 친미우파 세력들의 반격으로 2002년 4월 군부쿠데타로 한때 연금되며 실각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를 분쇄하고 권력에 복귀했다. 차베스는 사망한 2013년까지 4선의 대통령을 지내며 차베스주의 세력을 공고화했다. 차베스가 암으로 갑자기 사망한 뒤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은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그를 계승했다. 하지만, 차베스 사망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석유 값은 베네수엘라의 재정을 압박하며, 마두로 정권의 기반인 복지정책을 뒤흔들고 물가를 앙등시켰다. 이는 반정부 시위 사태의 배경이다. <br/><br/> ■ ‘석유의 저주’ 차베스 및 마두로 정권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 석유에서 비롯됐다. 베네수엘라에 풍부한 석유는 값이 오르면 정부의 경제 및 재정 정책을 순항시켰다. 하지만, 석유에만 기댄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다른 산업 육성을 위축시켜, 석유 값이 떨어지면 재앙적인 상황에 직면했다.<br/><br/> 석유는 베네수엘라 수출의 95%를 차지한다. 2008년 금융위기 전에 한때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던 석유 판매 수입으로 차베스 정권은 빈민과 중하류층을 위한 주택, 의료,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빈민들에게는 전례가 없던 관대한 각종 보조금 등 혜택을 베풀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석유 값이 20달러 선으로 떨어지자 베네수엘라 경제는 파산 위기에 들어섰다. 복지 혜택은 위축되고 수입에 의존하던 각종 생필품 값은 앙등했다.<br/><br/> 카라카스의 안드레스벨로대의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사제인 루이스 우갈데는 베네수엘라를 ‘의도는 좋으나 무능한 의사들에 맡겨져 죽음의 벼랑 끝에 있는 환자’로 비유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문제의 중심에는 그 나라가 부자 나라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차베스 이후 정권은 베네수엘라가 석유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인데도 급등한 석유 값에 기대어 아무런 산업도 육성하지 않고 석유 판매 수입을 탕진했다는 것이다.<br/><br/> 과거 친미우파 정권에서는 석유 수입을 엘리트가 독점한 반면에 차베스 이후 정권은 그 수입을 중하류층들에게 대책 없이 살포했다는 것이다.<br/><br/> 2013년 차베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친미우파 세력들은 대중들의 불만을 업고 본격적으로 반정부 투쟁에 나섰다. 마두로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집권한 데다, 차베스에 비해 카리스마도 부족했다. 하지만 마두로는 차베스 정권 이후 시혜를 받은 빈민 등을 중심으로 한 차베스주의 세력에 기대어 반정부 세력과 그 시위에 강경대처했다. 우갈데 교수는 마두로가 민주적으로 당선된 것은 분명하나 “<span class='quot0'>베네수엘라는 지금 독재정권이다</span>”라고 지적했다.<br/><br/> ■ 의회 권력 박탈 결정으로 반정부 시위 격화 마두로 정권 출범 이후 잦아지던 반정부 운동은 지난 3월29일 대법원의 의회 권력 박탈 결정으로 폭발했다. 앞서 친미우파 세력이 주축이 된 야권연대인 민주연합원탁테이블은 2015년 12월 총선에서 압승했다. 의회를 장악한 친미우파 야권 세력들은 마두로를 권력에서 축출하려는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를 조직하며 마두로 정권과 격렬하게 맞섰다.<br/><br/> 이에 마두로 정권은 대법원을 내세워 의회의 권한을 박탈하고 이를 법원으로 이양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3일 뒤 대법원은 논란이 된 결정들을 다시 취소했으나, 이는 반정부 시위에 기름을 붓는 사태로 발전했다.<br/><br/> 야권이 장악한 의회 무력화에 실패한 마두로 정권은 지난 5월초에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발표했다. 마두로 정권의 제헌의회 구상은 결국 7월30일 선거로 관철돼, 현재 마두로 정권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으로 떠올랐다.<br/><br/> ■ 빈민과 군부가 사태 향방의 관건 야권은 △친정부적 대법원 판사의 축출 △2017년 총선 △모든 정치범 석방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의료 등 인도적 지원 허용 등을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3월 이후 베네수엘라 전역으로 반정부 시위가 번져, 매일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br/><br/> 하지만 마두로 정권이 곧 무너질 조짐은 아직 없다. 굳건한 차베스주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차베스주의 세력의 본산은 빈민층과 군부다. 차베스 이후에 관대한 정부 혜택을 맛본 빈민들은 마두로 정권 붕괴로 얻을 것이 별로 없다. 또 군부는 차베스 정권 이후 실패한 쿠데타 등으로 반차베스 세력이 완전히 숙청되고 차베스주의 세력으로 채워진 상태이다.<br/><br/> 마두로 정권이 붕괴되려면 반정부 시위가 빈민가인 ‘바리오’로 번져야 한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지적이다. 또 군부가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여야 한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관은 지난 5월20일 트위터에서 시위대들이 무정부 상태를 부추기고 폭력을 비난하지 않는 국제적인 공모 세력이 있다고 비난했다. 군부는 현재까지 마두로 정권을 지켜주는 충실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br/><br/> 야권 내부도 단결이 공고하지는 않다. 제헌의회 선거 이후 야권연대에 참여 중인 주요 정당이 오는 12월10일 치러질 23개 주의 주지사 선거에 참여하기로 해 반정부 시위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br/><br/> 마두로 정권은 느슨한 야권연대를 파고들며 주요 야당 지도자들을 각개격파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반정부 시위의 중심지로 떠오른 차카오시의 라몬 무차초 시장에 대해 징역 15개월형을 선고했다. 대표적 반정부 인사로 가택연금중인 레오폴도 로페스가 전임 시장이었던 차카오시는 수도 카라카스 동부에 있는 도시로 반정부 시위대의 주요 집결지다.<br/><br/> 정의길 선임기자 Egil

언론사: 한겨레-1-138.txt

제목: 문재인 정부 의료케어 발표…비급여 전면 건강보험 적용  
날짜: 20170809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09151818001  
ID: 01101001.2017080915181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자기공명영상촬영(MRI·엠아르아이), 로봇수술, 2인실 등 그동안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br/><br/>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서울 강남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들이 100%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들이 전체 비용의 30~9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 혜택 대상에 ‘예비급여’로 넣기로 했다. 이런 예비급여로 포함되는 비급여 항목은 환자들의 부담이 큰 검사나 수술인 엠아르아이검사, 로봇수술, 고가의 항암제 등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예비급여는 3~5년 뒤에는 건강보험에 적용해 환자 부담 비율을 5~20%로 떨어뜨릴 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고가의 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가격에 견줘 효과가 큰 약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br/><br/> 의료비 부담을 크게 만드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담도 더 줄이기로 했다. 선택진료(특진)를 받으면 현재 추가로 진료비의 15~50%에 이르는 비용을 더 내야 하는데, 이는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또 현재 주로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2019년부터는 중증호흡기질환자나 산모 등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면 이 역시 걱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에 대해서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지난 7월 기준 전국 2만3460개에서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br/><br/> 이와 함께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에 한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에 속하면 모든 질환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br/><br/> 이번 대책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대책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br/><br/>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span class='quot0'>오이시디 회원국의 건강보험 보장비율이 평균 81%인 것에 견줘 보장률 목표 70%는 적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0'>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던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환자들이 내는 병원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를 실시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기용 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139.txt

제목: ‘소록도 천사’ 노벨평화상 추천한다  
날짜: 20170807  
기자: 노지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07220902001  
ID: 01101001.2017080722090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40여년 동안 한센인을 돌본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안느 스퇴거(83), 마가렛 피사렉(82) 간호사가 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 전남도청 등 민간에 의해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될 전망이다. 두 간호사가 보여준 헌신과 자원봉사 정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다.<br/><br/> 국무총리실은 7일 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과 전남도청이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황식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를 명예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정부, 지자체, 국제기구 등에서 50여명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꾸리자는 민간 의견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br/><br/> 고흥군과 전남도는 이미 2015년 6월부터 ‘마리안느-마가렛 도로’ 지정, 선양조례 제정, 사택 문화재 지정, 기념우표 제작 등 민간 차원에서 각종 선양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소록도 성당 김연준 신부는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만들어 상영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스퇴거 간호사를 만난 적이 있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은 소록도 병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있었던 스퇴거 간호사의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식에 참석해 그를 면담했다.<br/><br/> 스퇴거, 피사렉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간호대학 동기로 각각 1962년·1966년부터 43년·39년간 소록도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40여년 동안 무보수로 한센인을 치료하고 한센인 자녀 영아원을 운영했으며, 의료시설을 위한 모금활동도 했다. 한센병과 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에도 기여했다. 이들은 건강 악화로 2005년 고국으로 돌아간 뒤 현재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 머물고 있다. 스퇴거 간호사는 암, 피사렉 간호사는 치매로 투병 중이다.<br/><br/>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이며, 수상자 발표는 내년 10월이다. <br/><br/> 노지원 기자 zone

언론사: 한겨레-1-140.txt

제목: “실험동물에도 암수 균형 필요하다”  
날짜: 20170807  
기자: 오철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07085905002  
ID: 01101001.2017080708590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문화적인 젠더의 남녀 차이를 과학기술에 올바로 반영해 편견 없는 연구를 하자는 게 젠더 혁신이지요. 실험동물의 성별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금은 성별 데이터를 밝히고 암·수컷 균형을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지요.” 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 부설 젠더혁신연구센터의 백희영 센터장(서울대 명예교수)은 “국제사회에서 연구 과정에 성·젠더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곳이 늘고 있어 우리도 젠더 혁신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br/><br/><br/><br/>수컷동물에게만 실험한 신약여성에게 부작용 일어날 수도<br/><br/><br/><br/> 젠더 혁신은 2005년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론다 시빙어 교수가 주창하고, 이후에 확산한 과학·공학의 새로운 연구 태도 또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에 스며 있는 남성 중심에서 벗어나 편견 없는 지식을 얻자는 제안으로 요약된다. 국내에선 2013년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심이 일기 시작해 2015년 국제 행사인 ‘젠더서밋’을 서울에서 연 데 이어 지난해 젠더혁신연구센터가 정식 출범했다.<br/><br/> 젠더 혁신의 동향을 담고 있는 누리집(genderedinnovations.stanford.edu)을 보면, 성·젠더 차이를 과학기술에 반영해야 하는 근거를 밝히는 연구나 젠더 혁신을 통해 이룬 연구 사례들은 그동안 많이 쌓여 왔다. 널리 알려진 사례로, 수컷 동물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신약이 여성들에게 효과가 더 낮거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1990년대부터 제기됐다. 2014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실험에서 동물과 세포를 쓰는 모든 전임상 연구에서 양성 균형을 맞추도록 지침을 공고한 바 있다.<br/><br/> 자동차 충돌 실험에 남자 인체 모형만 쓰다 보니 실제 사고에서 목뼈를 다칠 위험이 남자보다 여자가 2배 높다는 분석도 있었고, 이후에 충돌 실험에 여자·임신부의 인체 모형을 쓰는 자동차회사도 생겨났다. 기계번역에선 남성 위주의 언어 번역이 나타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통증 메커니즘에도 남녀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 통증의 성별 차이 연구도 불가피해졌다. 젠더 분석은 사회문화적인 성별 차이가 중요한 의생물학, 보건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조된다.<br/><br/> 백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최근엔 통증 실험에서 연구자 성별에 따라 실험동물이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캐나다 맥길대학의 연구도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실험 대상을 대하는 연구자 자체에도 양성 균형이 필요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오철우 선임기자 cheolwoo

언론사: 한겨레-1-141.txt

제목: 자유한국당 “‘알쓸신잡’ 탈원전 사실 왜곡” 방송심의 신청  
날짜: 20170806  
기자: 김남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06104810002  
ID: 01101001.20170806104810002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자유한국당은 6일 인기 케이블채널 프로그램인 <티브이엔>(tvN)의 ‘알쓸신잡’이 방송한 ‘탈원전’ 내용이 “<span class='quot0'>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span>”며 지난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여야 당대표들이 정치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적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정당이 특정 예능 프로그램을 겨냥해 방송심의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br/><br/>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 6월30일 방송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span class='quot0'>해당 방송 출연진은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논란이 있는 내용을 100% 확정된 사실이거나 정설로 느낄 만한 발언을 했다</span>”며 출인진인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span class='quot0'>(소련)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수천 명이며 피해자는 수십만 명이 넘는다</span>”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은 “국제원자력기구 등 유엔 기구와 주요 3개 피해국 정부가 주도해 설립한 체르노빌포럼의 2005년 보고서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인한 직접적 사망자 수가 50여 명이며 4000명이 피폭에 따른 암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고와 암 발병이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r/><br/> 자유한국당은 또 유시민 작가가 “<span class='quot1'>원자력발전 단가가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경제적이지 않다</span>”고 한 주장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원전발전 단가에는 원전해체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및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비용 등 사후처리비용까지 반영돼 있다. 2016년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발전원 별 구입단가는 kwh 당, 원자력 68원, 석탄 74원, LNG 121원”이라고 덧붙였다.<br/><br/> 자유한국당은 방송심의 신청의 이유로 “<span class='quot0'>현재 탈원전 논란이 불거지고 국가의 에너지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부정확한 내용의 방송이 국민여론 형성과 국가의 정책 방향 설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span>”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언론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br/><br/> 김남일 기자 namfic

언론사: 한겨레-1-142.txt

제목: 엄마와의 여행, 마지막 날에야 ‘친밀한 적대감’이 싹텄다  
날짜: 2017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05111829001  
ID: 01101001.20170805111829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른 봄날이었다.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나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꽤 오랫동안 요양원에서 입원해 계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 일로 엄마는 이제 당신의 엄마가 세상에 없다는 슬픔과 돌아가신 분을 향한 죄책감, 미안함으로 힘들어했다. 엄마가 잠깐이나마 슬픔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는 난이도 최상의 효도 퀘스트인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두번이나 암수술을 받은 엄마의 건강 또한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등을 떠민 탓도 있었다. <br/><br/> 자식들이 부모님과의 여행을 어려워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모님들이 여행을 즐길 정도로 여행에 익숙하지 못한 점, 들인 비용에 비해서 기대가 너무 커서 자연히 실망도 큰 점, 놀면서 돈을 쓰는 행위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는 점 등등. 그러나 3박4일 모녀여행의 활시위는 이미 당겨졌고 그날이 오고 말았다.<br/><br/> <br/><br/> 딸이었다 친구였다 근심거리로<br/><br/> 우리의 목적지인 방콕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관광지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성업 중이고 구경거리와 쇼핑할 곳도 많은데다 음식과 향신료, 다양한 열대과일과 마사지가 오감을 자극한다. 그럼에도 물가가 서울에 비해서 싼 편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엄마와 나처럼 함께 다니는 모녀 여행객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br/><br/> “배부르니까 조금만 시켜. 다 못 먹는다.” “바로 저긴 거 같은데 걷자. 택시비 나간다.”<br/><br/> 환전해온 돈을 일단 쓰고 보려는 나에게 엄마는 아무리 여행이지만 돈을 아끼라고 했다. 또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뙤약볕이 수직으로 내리 꽂히는 길을 무작정 걷자고 했다. 방콕에서도 엄마는 내가 아는 우리 엄마, 평상시의 엄마 그대로였다. 그러면서도 엄마는 내 눈치를 살폈다. 엄마에게 나는 더는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 어쩌다가 집에 다니러 오는 손님과 같은 존재가 된 지 오래다. 엄마가 당신 딸을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한 지가 십년도 더 됐다.<br/><br/> <br/><br/>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엄마와 떠난 3박4일 방콕행‘예의바른’ 사이가 된 지 15년엄마는 내 눈치를 살폈다“<span class='quot0'>빨리 좋은 남자를 찾아</span>”그 잔소리가 싫어 피해왔다엄마와 할머니가 살아온 삶나의 낯선 삶은 그 덕분인 건데…<br/><br/><br/><br/> 나에게 엄마는 열아홉살까지 살았던 소도시만큼이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다. 결혼하자마자 아버지와 함께 장사를 하면서 두 아이를 길렀고 여느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잘못인지 알면서도 딸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던 나의 엄마.<br/><br/>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굽은 소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속담의 굽은 소나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 속담을 처음 들을 때만 해도 내가 굽은 나무가 될 줄은 몰랐다. 너무 올곧은 나무와 함께 자라면 상대적으로 굽은 나무가 되는 것을 어린 내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오빠는 나뿐만 아니라 동네와 학교 아이들까지 굽은 나무로 만드는 사람이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세상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인 것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br/><br/> 이런 이유로 자라는 내내 좌절감만 쌓아 올린 나는 스무살이 되자마자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향을, 집을, 그리고 엄마를 떠났다. 그 이후로 엄마를 그리워하다가 가끔 궁금해했고 나중에는 적당히 무심해지는 법을 익혔다. 아이러니하게도 엄마와 물리적으로 멀어질수록 관계는 오히려 호전됐다. 기억에 따르면 엄마의 그늘 아래서 살던 나는 ‘고집이 세고 좀처럼 말을 안 듣는 계집애’였다. 집을 떠났더니 ‘타지에서 고생하는 딸’이 됐고 완전히 독립한 뒤에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됐다. 엄마는 딸이 없는 친구들에게 여자한테는 딸이 있어야 한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뜬금없는 전개로 관객을 당황케 하는 영화처럼 희한한 일이었다.<br/><br/>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호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서른여섯살인 딸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시로 엄마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급기야 엄마는 나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다.<br/><br/> “눈을 크게 뜨고, <span class='quot0'>빨리 좋은 남자를 찾아</span>!”<br/><br/> 엄마가 그 끔찍한 잔소리가 적힌 티셔츠라도 입고 나타날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엄마를 피해버렸다. 사실은 친구에서 근심거리로, 근심거리에서 애물로 내 지위가 자꾸만 추락할까봐 두려웠다. 이제 더 이상 ‘엄마의 무엇’ 같은 것은 되고 싶지 않다. 누구의 무엇도 아닌, 오직 나인 채로 살고 싶다. <br/><br/> 여행 둘째 날 밤, 우리는 센타라 그랜드 호텔 56층에 자리한 칵테일 바로 갔다. 이름이 ‘레드 스카이’인 이 바는 방콕의 멋진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붉은 조명이 비추는 바에서 엄마와 단둘이 칵테일을 마신다는 사실, 게다가 이곳이 외국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낯설어서 신기할 지경이었다. 어쩌면 우리가 극적으로 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는 남녀처럼. <br/><br/>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비혼은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롭고 비참함을 견뎌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자유롭고,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일 수 있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상대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받을 것이며 내가 믿는 진짜 사랑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나는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엄마가 살아본 적 없는 낯선 삶’에 대한 변호였다. <br/><br/> 그러자 이번엔 엄마가 내가 살아본 적 없는 삶을 내세워서 나를 공격했다. <br/><br/> “<span class='quot0'>네가 딸을 낳아 키우는데 그 딸이 결혼도 않고 혼자 산다면 그땐 너도 내 마음을 알 거다.</span>” <br/><br/> 바로 옆자리에 앉은 중국 남자들이 담배를 피워댔고 연기가 바람을 타고 우리가 앉은 자리로 날아들었다. 붉게 물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았다. 다만 ‘살아보니 결국엔 남편과 자식밖에 없다’는, 엄마 인생의 교훈이 가슴에 박혔다. 엄마가 그 교훈을 얻기까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도. 결국 56층에서의 극적인 교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틀의 시간이 더 남아 있었다.<br/><br/> 여행 마지막 날 드디어 우리 사이에도 ‘친밀한 적대감’이 싹텄다. 짧은 여행이지만 외국에서 모든 일정을 함께했더니 마치 함께 살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엄마는 실로 오랜만에 나를 나무랐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다. <br/><br/> “이리 가는 거 맞니? 넌 길을 잘 못 찾는 거 같다.” “네가 살찐 걸 어떻게 날씬하게 찍어?”<br/><br/> 그리고 엄마는 향이 강한 타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수영장에서 엉터리 헤엄을 치다가 셀카를 여러 장 찍었다. 타이 마사지를 받고 나서는 공주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br/><br/> <br/><br/> 내가 피하려던 엄마의 삶<br/><br/> 그런데 그 순간에 즐거움 때문에 슬퍼지는 구태가 연출되고 말았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없는 우리들의 엄마,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렸다. 엄마는 제주도 여행이 할머니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 됐다고, 이미 아는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따지고 보면 엄마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내와 엄마로서 헌신하는 삶, 그것은 내가 은연중에 때로는 드러내놓고 피하려던 삶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포함돼 있다. 내가 엄마는 모르는 낯선 삶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할머니와 엄마의 삶 덕분이다. 지반처럼 나를 떠받친 그 삶을 딛고 나는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br/><br/> 다시 한번 더 해가 뜨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제야 우리의 간격을 조금이라도 좁힐 방도를 알 것 같았다. 이제 와서 어떻게 선산을 지킬 것이며 애써 선산을 지킨들 무슨 소용인가? 그보다 엄마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으로 엄마를 데리고 가야겠다. 자유와 즐거움과 오직 나만을 위한 사치가 있는 곳으로, 가벼운 산책을 하듯, 먼 곳으로 떠나듯 둘이서 그렇게. <br/><br/><br/><br/>All Alone

언론사: 한겨레-1-143.txt

제목: 이건 전문가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날짜: 2017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04205848001  
ID: 01101001.20170804205848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span class='quot0'>김익중이란 분이 정말 엉뚱하게 숫자를 부풀리고 아이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반과학적, 마녀사냥적, 결벽증적 강의를 하고 다닌다는 게 이제 나온 겁니다.</span>”(2017년 7월17일 정규재TV)<br/><br/> <br/><br/>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해서 화제가 되었던 인터넷방송의 진행자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고문은, 그를 가리켜 ‘광우병이나 메르스 사태 때처럼 공포, 스릴러물을 과장되게 퍼뜨리고’ 다니는 ‘정신착란적’ 인사라고 지칭했다. 같은 날 아침, <조선일보>에서도 “탈원전 공약 만들었다는 미생물학 교수의 황당주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익중을 맹비난했다. 주류언론과 경제지에서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 ‘탈원전 괴담의 유포자’로 김익중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br/><br/> 김익중(57)은 동국대 의대 교수로,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4명 중 한 사람이다. 공직에 있지도 않은 그가 탈핵 반대파의 집중 표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주류 매체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공민왕을 홀린 요승 신돈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이끌어낸 핵심 인물일 것이다. 김익중은 문재인 정부의 배후 실력자인가, 약한 고리인가? 원자력 전문가도 아닌 그는 어떻게 탈핵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으며, 그의 발언을 둘러싸고 이렇게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탈핵을 주장하는 많은 환경운동가가 있는데, 특별히 그의 발언이 꼬투리 잡히기 좋은 먹잇감이었다면, 혹 그의 주장에 어떤 비약이나 과장이 있는 건 아닐까? 차라리 그런 점을 확인하게 된다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기도 했다. 폭염으로 아스팔트가 후끈 달아오른 지난달 26일, 한겨레신문사 앞 카페에서 김익중 교수를 만났다. <br/><br/> <br/><br/> 내 얘기가 괴담이라고? 그 얘기가 괴담!<br/><br/> -경주에서 올라오시는 길입니까?<br/><br/> “네, 아침에 올라왔어요. 요즘엔 서울에 일이 많아서요.”<br/><br/>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경주에 거주하지만, 요즘엔 각종 인터뷰며 강연과 회의 일정 때문에 서울에 오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그의 강연 얘기부터 물었다.<br/><br/> -7월13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했던 강연 내용이 ‘근거 없는 괴담’으로 큰 비난을 샀습니다. ‘앞으로 300년 동안 고등어, 명태, 대구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br/><br/> “맞습니다.”<br/><br/> -‘300년’이라는 건,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가요?<br/><br/> “비유가 아닙니다. 방사능 오염이 300년 간다는 건 원자력계에서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방사능 물질인 세슘의 반감기가 30년인데, 반감기가 10번은 지나야 위험을 무시할 정도로 적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300년입니다. 북태평양 수산물이 오염되었다는 건 정부 조사에서 다 나온 바 있고요. 그래서 방사능 오염이 300년은 가니, 먹지 말라고 한 거죠.”<br/><br/> -탈핵 반대를 주장하는 서울대 주한규 교수는 “<span class='quot1'>오염 기준치에 걸리는 고등어를 1년 내내 먹어도 시티(CT) 한번 받는 방사능량의 10분의 1</span>”이라고 주장했는데요. <br/><br/> “그런 계산방법엔 동의할 수 없어요. 시티 촬영할 땐 방사능이 내 몸 밖에 있습니다. 쪼이는 동안만 피폭이 되죠. 이걸 외부피폭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이 몸안에 들어오면 24시간, 1년 내내 먹으면 1년 내내 쪼이는 거예요. 이런 내부피폭을 외부피폭으로 환산하는 건 말이 안 돼요.”<br/><br/> -강연은 글을 쓰는 것과 달라서 현장에서 말로 하는 거니까, 일부 표현상의 문제에 있어서 오해를 살 만한 대목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br/><br/> “(단호하게) 없어요. 전 강의를 할 때 피피티(PPT)를 보여주며 하는데 슬라이드 한 장 한 장마다 자료 출처와 근거자료를 모두 써놨어요.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br/><br/>“<span class='quot0'>공포를 조장하는 반과학적 강의</span>”“미생물학 교수의 황당 주장” 그를 ‘탈원전 괴담 유포자’라며주류언론·경제지, 정조준 나서<br/><br/> 문 대통령, 2012년 대선 탈원전 공약처음 만난 건 공약하고 난 뒤의 일“<span class='quot2'>공론화위원회가 막 시작됐잖아요 친원전 세력들이 전략 짠 거 아닌가</span>”<br/><br/>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span class='quot4'>대통령이 김익중 교수의 제2의 광우병 괴담 수준의 말에 현혹되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span>”고 비난했는데요.<br/><br/> “전 미생물학자로서,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괴담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자력에 대해 제가 하는 얘기도 괴담이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하신 얘기가 괴담이죠.(웃음)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이미 탈원전 공약을 하셨어요. 그때까지 난 그분과 만난 적이 없어요.”<br/><br/> -일면식도 없었다고요?<br/><br/> “없었어요. 그때 탈원전 공약을 일본 가서 선언하셨는데, 나중에 들으니 주변에서 말릴까봐 일본에서 말리는 사람 없을 때 발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br/><br/> -정치적 득실 때문에 반대하는 정치인들 피해서요?<br/><br/> “그렇죠. 탈원전 주장하면 표가 안 된다고 만류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공약 발표하고 난 뒤에 제가 만난 거거든요. 제 영향으로 그분이 탈원전을 생각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br/><br/>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그간 탈핵 관련 저술 활동이나 강연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왜 이번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작은 강연을 두고, 일제히 서로 다른 매체와 정당과 보수 논객들이 똑같은 논리로 총공격을 해온 걸까요?<br/><br/> “저도 그게 궁금해요. 똑같은 강의를 6년째 하고 있는데 왜 새삼 공격 타깃이 된 건지…. 지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막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친원전 세력들이 전략을 짠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여러 개 언론기관이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지…. 저 갑자기 유명인사가 됐어요.(웃음)”<br/><br/> -왜 하필 그 타깃이 선생님일까요?<br/><br/> “그러게요. 문재인 캠프에서 탈원전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이 줄잡아서 20~30명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되신 분도 관여를 하셨고요. 그런데 왜 나를 갖고 그래?(웃음) 내가 뭐라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그 스토리텔링을 왜 나로부터 시작을 할까? 전문가도 아닌 의대 교수가 뭐라 한다는 게 약점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려면 여기가 제일 약점이다, 여기서 시작해서 키워가자… 이런 전략? 아, 잘 모르겠어요.”<br/><br/> <br/><br/> 후쿠시마의 충격<br/><br/> 김익중은 서울대 의대에서 미생물학·면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광주에서 나고 서울에서 자랐지만 동국대 의대 경주캠퍼스에 임용이 된 1991년 이후 경주 시민으로 줄곧 살아왔다. 등산과 음악을 좋아하고 유유자적하는 삶에 만족하며 사는 평범한 연구자였다. 특별히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표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해본 적도 없었다. 그러던 삶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건 2009년 경주환경운동연합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부터였다.<br/><br/> -환경운동은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어요?<br/><br/> “처음엔 그냥 회비 꼬박꼬박 내는 평범한 환경운동연합 회원이었어요. 자연을 좋아하고 환경운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한 10년, 회비만 열심히 냈죠. 그러다가 경주환경운동연합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수원하고 방폐공단에서 후원금을 받았대요. 그게 문제가 돼서 집행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리는데, 첫날 모임에 가서 보고 경주에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서 기분이 퍽 좋았어요. 기분 탓에 말을 많이 했던가 봐요.(웃음) 날더러 비대위원장을 맡으라 하데요. 그렇게 시작했다가 상임위원장까지 하게 되었는데 경주 방폐장 문제로 기자회견을 한 100번은 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후쿠시마 사고가 난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죠. 아,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게 2011년인데, 그 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br/><br/> -어떻게요?<br/><br/> “애들 잘 키우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는데 50살 넘어서 내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생겼다고 할까. 그 전까진 교수생활 하면서 시간 여유 날 때 조금씩 봉사활동 하는 식이었다면, 후쿠시마 이후에는 거의 전적으로 이 일이 내 인생의 메인 메뉴가 된 것 같아요.”<br/><br/> -후쿠시마 사고에서 제일 충격적인 점이 뭐였는데요?<br/><br/> “거짓말.”<br/><br/> -거짓말이요?<br/><br/> “거짓말, 은폐… 그게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사고 이후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꼼꼼히 찾아 읽고, 방사능 오염이 되면 인체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큰일이 나게 생겼는데 일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니, 국민들 피폭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험지역으로 들여보내고 있더라고요. 소련 체르노빌 사고 때는 3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주시켰는데, 일본은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밖에 있으면 정부가 생활비를 대줘야 돼요. 그 돈 대기 싫다는 거죠. 심한 곳은 20㎞ 안쪽까지 사람들을 집어넣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혼자 여러 번 분노하고 여러 번 깜짝 놀랐어요.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할 수가 있나? 오염수를 바다에 확 버리고, 후쿠시마 근처에 해수욕장 개장했어요. 그거 홍보한다고 아가씨들 빨간 옷 입혀서 사진 찍어 홍보하고.”<br/><br/> 후쿠시마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세계 450기의 원전 가운데 지금까지 사고가 난 원전은 미국의 스리마일과 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를 합해 총 6기. ‘원전 사고율은 100만분의 1’이라는 가설은 황당한 옛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더구나 한국은 원전 밀집도 세계 1위국으로, 2024년까지 총 42개로 원전을 늘려 ‘세계 3위의 원자력 대국’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매진하는 핵사고 고위험국이다. 지하수가 흐르는 불안정한 암반 위에 설치한 경주 방폐장, 안전기준 규정을 위반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전력이 남아도는데도 강행되는 원전과 화력발전소 증설정책…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엄청난 일들이 소수에 의해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br/><br/> <br/><br/> 방사능 안전 기준치는 없다<br/><br/>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한동안 국내에서도 소금이나 건어물 사재기 열풍이 있었어요. 방사능 오염이 걱정된다고요. 그러다가 한해 두해 지나면서 곧 무감각해졌죠. 경주 지진 이후에 다시 불안감이 커지긴 했지만,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걱정 말라고 하니 긴가민가하면서도 그 말을 그냥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방사능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br/><br/> “핵반응이라고 하는 게 우라늄 원자를 중성자로 깨는 거거든요. 깨지는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두 조각이 나기도 하고 열 조각이 나기도 하고 제멋대로 깨지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화학체계 주기율표 있잖아요. 거기 있는 물질이 150개 정도라면 거기서만 한 1000가지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br/><br/> -그럼,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건 쉽지 않겠네요?<br/><br/> “불가능하죠. 그걸 측정하는 게 불가능해요.”<br/><br/> -세슘이나 요오드만 방사능 물질인 줄 알았어요. <br/><br/> “그게 원자력계가 지금 내세우는 프레임이에요. 난 그런 논리가 아주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슘하고 요오드는 측정이 가장 용이해요. 세 시간 만에 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사능 물질은 한가지 재는 데 한 달씩 걸려요. 100가지 재려면 100달이 걸리니 일상적으로 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슘만 재는 거거든요. 세슘은 1000가지 방사능 물질 중에 딱 한 가지일 뿐이에요.”<br/><br/> -그럼 세슘은 일종의 지표물질 같은 건가요? 세슘이 나올 때는 다른 1000가지 물질도 오염됐을 것이다?<br/><br/> “그렇죠. 같이 있다고 봐야죠.”<br/><br/> -검출량이 안전 기준치 이하면 인체에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br/><br/> “방사선 안전 기준치라는 건 현실에 없습니다. 의학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안전 기준치를 굳이 들라면 0이 돼야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라는 기구에서 내놓은 보고서에도, ‘기준치 이하에서도 위험이 있다’ ‘피폭량과 암 발생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어요. 한국 원자력계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 기관의 보고서도 왜곡한단 말예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니? 안전 기준치라는 건, 정부의 의무한도를 표시하는 숫자지, 의학적 기준치가 아녜요.”<br/><br/> -정부의 행정적 기준이다? <br/><br/> “그렇죠. ‘그 이상은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 아래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기준, 정부의 의무한도 혹은 책임한도를 설정하는 숫자예요.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10배 이상씩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도 370㏃(베크렐)이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이 나고 나서 국무총리가 100으로 낮췄어요. 국무총리 한마디에 4분의 1 가까이로 줄었어요. 과학적 근거가 없단 얘기죠.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는 얘긴 틀렸고, ‘기준치 이하니까 법적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br/><br/> <br/><br/> 이권으로 묶인 원전 커넥션 <br/><br/> 1989년 영광 원전 경비원의 부인이 무뇌아를 두 번이나 임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원전 주변에 기형송아지와 기형식물들이 잇따라 발견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정부는 원전 주변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고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보고서의 결론은 ‘원전 주변에서 암 발병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br/><br/> -이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죠?<br/><br/> “그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이 수천명인데 당사자들에게 안 알리고 2011년 12월에 어디 호텔에서 보고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우연히 알게 돼서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연락해서 발표회장에 찾아가 항의를 한 끝에, 어렵사리 원자료를 입수해서 ‘반핵의사회’의 역학 전문가들에게 재조사를 의뢰했죠.”<br/><br/>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br/><br/> “원래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원전 주변에 갑상선암 환자가, 특히 여성에서 다른 지역보다 2.5배 발생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원전 때문인지는 모르겠다’는 결론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검증단은 ‘2.5배 증가와 원전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낸 거예요.”<br/><br/> -같은 데이터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군요. <br/><br/> “이 보고서를 근거로 원전 주변에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 한 사람이 소송을 내서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원전 주변 갑상선암 환자들이 싹 모였어요. 지금 600명 정도 되는 암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br/><br/> -7월5일 417명의 이공계 교수들이 탈원전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br/><br/> “비전문가 맞아요. 저 원자력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역할은 정보를 공유하고 설명하는 것이지 최종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녜요. 원자력의 혜택도 국민이 보는 거고, 사고가 나면 그 위험도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가요. 최종 이해당사자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의사결정 해야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위험한 수술 받을지 말지 의사가 결정하나요? 전문가인 의사는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을 뿐, 최종 결정은 환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의료윤리의 제1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자력 전문가들은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죠. 정보공개도 안 하고, 모든 걸 비밀리에 하고, 그리고 결정을 자기들끼리 했어요.”<br/><br/> -그동안 정보공개를 안 하거나 비밀리에 했다는 건 저희가 잘 모르는 사실이에요. 소위 전문가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겠거니 믿어왔죠.<br/><br/> “다른 나라는 원자력 안전성 보고서를 인터넷에 다 공개해요. 한국에 앉아서도 미국 원전의 안전성 보고서를 다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안전성 보고서는 공개가 안 됩니다. 어떤 부품이 어디에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br/><br/> 회비만 내던 환경운동연합 회원 “<span class='quot3'>후쿠시마 이후 내 인생의 메인 메뉴</span>” 뉴스 찾아 읽고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 “<span class='quot3'>거짓말, 은폐 그게 가장 충격이었다</span>”<br/><br/> 원전 밀집도 1위의 핵사고 고위험국 소수가 엄청난 일을 속전속결 처리 “시민대표참여단 결과에 승복해야죠난 탈원전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br/><br/>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안 나옵니까?<br/><br/> “안 나와요. 법에 이상한 걸 하나 만들어놨어요. ‘지적 소유권이 있는 부분은 보호할 수 있다’고. 2년 전쯤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걸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지적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대요.”<br/><br/> -그걸 2년째 지우고 있다고요?(웃음) 그럼 언제 공개한대요?<br/><br/> “얼마 전 한수원 사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빨리 공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빨리’가 언제인고? 10년 내로? 아니면 100년 내로?(웃음) 이러면 안 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의견을 듣는다니까 ‘전문가도 아닌 일반 사람들이 뭘 아냐’고 하는데, 전문가는 정보 공개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의사결정 할 권리는 국민들에게 있다고요.”<br/><br/> -최근 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 ‘탈핵이냐? 찬핵이냐?’ 하는 논쟁은 과학적 논쟁입니까? 정치적 논쟁입니까?<br/><br/> “과학적 논쟁이 되려면 적어도 팩트 왜곡은 없어야 하거든요. 근데 원자력계에서 하는 얘기 중에는 팩트 왜곡이 너무 많아요. 이건 과학적 논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과학적 논쟁은 이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을 때 가능해요.”<br/><br/>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수, 특히 과학을 한다는 이공계 교수들은 정치적으로 순수하고 과학자로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br/><br/>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예산을 보면 원자력 연구 예산이 1년에 5600억원이에요. 재생에너지 연구비는 230억원이니까, 한 25배쯤 되죠. 정부 정책이 탈원전으로 바뀌면 원자력 연구비는 줄고 재생에너지 연구비가 늘지 않겠어요? 요즘엔 연구비를 얼마나 따느냐가 교수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원자력계 교수들이 두 번에 걸쳐서 탈핵 반대 성명을 낸 것도 전 그런 이해관계와 관련 있다고 봅니다.”<br/><br/> <br/><br/> 탈핵 60년? 그 안에 끝날지도…<br/><br/> -원전산업이 수출 효자상품이란 인식이 있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경수로 4기를 수주받기도 했고요. “<span class='quot0'>40년간 육성한 원전기술을 폐기하잔 말이냐</span>”는 반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br/><br/> “그게 이익이 될지 적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 세계 보험회사가 원자력발전소 보험을 다 끊었어요. 어떤 회사도 원전은 보험을 안 들어줘요. 사고가 나면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지,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책임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계약서를 공개 안 했으니까.”<br/><br/> -그럼 모든 원전은 무보험이에요?<br/><br/> “무보험이죠. 사고가 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해요. 한수원에서 5천억원까진 내는데, 후쿠시마 경우엔 사고 후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200조원이래요. 5천억원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가 내는 거죠.” <br/><br/>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br/><br/> “지난 30년간 유럽에선 원전이 50개 줄고 미국에선 10개가 줄었어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적어도 150개 이상의 원전이 줄어들 거예요. 세계적으로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전세계 전기 생산량에서 원자력이 10%, 재생에너지가 25%인데 이게 해마다 1%씩 늘어서 15년 후에는 재생에너지가 약 40%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30%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1%예요. 재생에너지 세계 꼴찌, 세계 추세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br/><br/> -앞으로 핵발전 단가는 높아지고 태양광 비용은 낮아질 거라고 주장하셨어요.<br/><br/>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데이터를 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태양광발전 단가가 핵발전보다 낮아져요. 미국 데이터라서 우리랑 같을 순 없지만 거의 같은 패턴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최근 30년 사이 태양광 패널 값이 100배 이상 낮아지고 효율도 매년 1%씩 향상되고 있거든요. 수십년 안에 재생에너지가 거의 100%에 육박하게 될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점진적으로 탈핵을 하는 데 6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때쯤이면 원전을 돌리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 그 전에 전 세계 원전이 다 없어질지도 몰라요.(웃음)”<br/><br/>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추진 쪽으로 의견을 모으게 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실 겁니까?<br/><br/> “승복해야죠. 난 할 거예요. 전 탈원전보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믿어요. 탈원전이 되려면 민주주의는 꼭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지금 원전 짓고 있는 나라들 보세요. 모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아, 그리고 ‘과거의’ 한국!”<br/><br/> 김익중은 핵발전소를 ‘화장실 없는 맨션아파트’에 비유했다. 처치 못 할 오물을 요강에 잔뜩 쌓아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재앙덩어리. 이제 오래 묵혔던 숙제에 손댈 때가 되었다. 진짜 집주인들이 나설 차례이다. <br/><br/> 녹취 심지연<br/><br/>▶ 이진순 풀뿌리정치실험실 ‘와글’ 대표. 언론학 박사. 새로운 소통기술과 시민참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다. 사람 사이의 수평적 그물망이 어떻게 거대한 수직의 권력을 제어하는지,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함이 어떻게 얼어붙은 세상을 되살리는지 찾아내는 일에 큰 기쁨을 느낀다.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한겨레-1-144.txt

제목: [기고] 방사능 사망자 없다고? / 김익중  
날짜: 2017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03181830001  
ID: 01101001.20170803181830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김익중탈핵에너지 교수모임 공동대표, 동국의대 교수<br/><br/>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신규 원전의 건설과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여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원전 개수를 줄인다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록 대선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공론화라는 방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완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이 공론화와 관련하여 최근 <제이티비시>(JTBC)에서 열린 토론회 도중에 친원전 측 토론자 중 한 명이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났지만 방사능 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일본 아베 총리가 했던 너무나 황당한 발언이라 짚고 넘어가겠다. 과연 이 발언은 옳은 것일까?<br/><br/>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 최초로 여러 개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고다. 3기의 원자로에서 핵연료가 녹아내렸고(노심용융), 이들을 포함한 총 4기의 원전에서 수소 폭발이 발생했다. 막대한 양의 방사능 물질이 공기, 토양, 바다를 오염시켰다. 이 방사능 오염은 일본인 전체에게 피폭을 일으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인 전체가 6년 이상 지속적으로 피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폭자들, 즉 일본인 전체의 사망자 수를 조사하고, 이 사망자 중 몇 명이 방사능 피폭에 의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조사한 것은 오직 후쿠시마현 내 18살 이하 어린이 갑상선암 발병자 수뿐이다.<br/><br/> 의학 교과서는 방사능 피폭이 실로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고 기술한다. 다양한 부위에서의 악성종양(암), 유전자 질환, 심근경색, 백내장, 소화기 증상, 신경계 질환, 폐 질환 등등 정말로 다양한 질병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암이 증가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유전자 질환 중 가장 흔한 것은 자연유산이라고 되어 있다. 현재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span class='quot0'>핵사고와 방사능 피폭에 의한 건강영향은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피해자 수를 알 수 없다</span>”고 말해야 옳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span class='quot1'>방사능 피폭에 의한 사망자는 한명도 없다</span>”고 말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어떻게 ‘모르는 것’과 ‘없는 것’이 동일할 수 있단 말인가?<br/><br/> 자동차 사고만 발생해도 정부는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수를 조사하여 발표해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역할이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정부가 이 사고에 의한 사망자, 발병자 수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게다가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본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유엔과학위원회는 체르노빌 핵사고에 관한 보고서에서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약 1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회’(IPPNW)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추정했다. 그런데 4기의 원전이 폭발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br/><br/>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사고에 의한 피해 규모를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전세계 앞에서 밝혀야 한다. 또한 무책임한 일본 총리의 황당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한국 원자력계 일부 인사들도 태도를 수정해야 옳다.

언론사: 한겨레-1-145.txt

제목: 에이즈·만성간경화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날짜: 20170803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03161831002  
ID: 01101001.20170803161831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말기 암 환자만 받을 수 있었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말기 환자에게도 확대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전문기관이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br/><br/>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해 2월 제정돼 호스피스 분야는 이달부터, 연명의료 분야는 내년 2월에 시행된다. 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과 다른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나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이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 진단하도록 했다.<br/><br/> 이와 함께 생존 기간이 길고 질환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에이즈·만성간경화 등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4일부터 시행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1년 동안 운영한 뒤 제도 등을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146.txt

제목: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폐암보다 무서웠어요”  
날짜: 20170803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03152829001  
ID: 01101001.2017080315282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운동 중독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막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젊은 시절부터 피운 담배가 폐 건강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많이 늦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br/><br/> 지난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시오피디)을 진단받은 이아무개(67)씨는 20대부터 등산을 꾸준히 다녔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에는 회사 산악회에도 가입해 산을 찾았으며, 모임이 없는 날에는 혼자 다닐 정도로 산에 빠져 살았습니다. 30~40대까지만 해도 국립공원에 있는 산을 갈 때 텐트나 식기 등에 대한 규제가 그다지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이면 온갖 등산 장비를 챙겨 산에서 살다시피 주말을 보냈습니다. 국내에서 주요한 등산 코스로 꼽는 지리산 종주나 설악산, 한라산 등 국내 유명한 산 가운데 가 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등산 외에도 탁구나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도 좋아해 평일이나 날씨가 좋지 않아 산을 가지 못할 때에는 이런 운동도 자주 했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주변 친구들보다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체력이나 건강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50대까지는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 줬기 때문에 술자리에서도 주변 사람들보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자랑삼을 정도였다</span>”고 말했습니다.<br/><br/> 하지만 그는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흡연이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하루에 한갑씩 40년 넘게 피워온 것입니다. 그는 “<span class='quot0'>젊었을 때에는 담배 피우는 것을 다들 멋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남자답다’는 얘기도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1990년대 중후반쯤 되니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는 등 담배가 각종 질병의 온상이라는 말들이 나왔다</span>”고 말했습니다. 이씨 역시 부인 등 가족의 성화로 담배를 끊어 보려고 몇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금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담배에 중독된 상태였기 때문에 금연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span class='quot0'>담배의 해악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일부 해악이 나타난다고 해도 꾸준한 운동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여겼다</span>”며 “<span class='quot0'>직장에서 받는 건강검진에서도 폐를 비롯해 다른 이상이 나온 적도 없었다</span>”고 말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리거나, 심지어 위암 등 암에도 걸렸는데도 그는 아무런 이상이 없게 나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담배를 피우는 것이 몸에 좋을 리는 없겠지만 예외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운이 좋게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믿었다</span>”고 말했습니다.<br/><br/> <br/><br/> 등산으로 체력 길러온 60대 원인 모를 기침과 숨 찬 증상 노화 탓이려니 했지만…<br/><br/> <br/><br/> 감기 걸리며 호흡곤란 겪고서야 병원서 폐건강 잃었다는 진단 주원인은 40년 넘게 피워온 ‘담배’<br/><br/> <br/><br/> 당장 담배 끊고 폐활량 운동 “더 심한 경우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라니 여전히 겁나”<br/><br/> <br/><br/> 가래가 남들보다 더 많이 생기는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탈이 없었던 그에게 숨이 차는 증상과 이유를 잘 모르는 기침이 찾아온 것은 정년퇴직을 앞둔 60살 무렵이었습니다. 여전히 등산 등과 같은 운동을 즐겼지만, 40~50대에 견줘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숨이 차는 것을 느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변 친구들보다는 산을 더 잘 다녔기 때문입니다. 원인 모를 기침으로 다소 불편하기는 했지만, 이런 증상 역시 병원을 찾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담배를 계속 피웠고 술도 일주일에 2~3번은 마셨습니다. 그는 이미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질환이 진행되면서 숨이 차고, 만성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나타난다</span>”며 “<span class='quot1'>숨을 쉴 때 천식같이 ‘쌕쌕’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가래의 색은 희고 끈적끈적해서 잘 뱉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span>”고 설명했습니다.<br/><br/> 그러다가 3년 전쯤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 자녀들의 권유로 몇몇 암 검사가 포함된 종합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위암이나 대장암, 간암 등과 같은 검사에서는 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며,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검사에서도 각각 혈당과 혈압이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의심된다며 병원을 찾아 추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말이 생소하기는 했지만, 당장 암처럼 죽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병원까지 찾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span>”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숨차는 증상이나 기침, 가래 등은 다소 심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담배를 끊거나 별도의 치료 역시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br/><br/> 그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크게 고생한 것은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숨이 차는 증상이 계속 나타나 과거와 같은 높은 산을 오를 수 없었지만 산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었는데, 감기에 걸린 것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을 크게 악화시킨 것입니다. 윤호일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호흡곤란, 가래 등만 있다가 감기 같은 상기도감염에 걸리게 되면 갑자기 숨이 찬 증상이 심해져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span>”고 설명했습니다. 이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1'>숨이 막혀 죽는다는 공포를 그때 처음 겪었고 아내 말에 따르면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아내와 함께 119를 불러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span>”고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은 뒤 입원하게 된 그는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와 각종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호흡하는 통로 즉 기관지 등을 넓힌다는 몇 가지 약을 흡입하거나 먹기도 했습니다. <br/><br/> 이틀가량 지나 감기 기운이 다소 잦아들면서 숨차는 정도가 평소처럼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 폐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컴퓨터단층촬영(CT·시티) 검사로 폐 전부를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시티 검사 등 영상 검사에서는 폐의 부피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는 폐기종 소견이 보였습니다. 오랜 기간 폐 조직이 망가지면서 호흡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머니 모양의 폐기종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퇴원 뒤에는 당장 담배부터 끊도록 권고받았습니다. 또 흡입하는 기관지 확장제 등을 처방받았습니다.<br/><br/>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직업적으로 분진이나 화학 물질에 오랜 기간에 노출되는 경우, 실내외의 대기 오염, 호흡기 감염 등으로 생길 수 있으나, 역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흡연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미 폐 조직은 망가져 있으며, 이는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금연이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윤호일 교수는 “<span class='quot2'>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렸다고 해도 담배를 끊으면 기도 폐쇄가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고, 폐기능이 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퇴원 뒤 바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2'>호흡곤란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겪은 뒤로는 담배 생각조차 나지 않고 사실 숨차는 증상만으로도 담배 피우기가 쉽지 않았다</span>”고 말했습니다.<br/><br/> 이씨는 퇴원 뒤에는 흡입하는 기관지 확장제를 꾸준히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제는 숨이 차는 증상을 막고 폐기능을 호전시켜 일상생활에서도 숨이 차지 않도록 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창훈 교수는 “<span class='quot3'>기관지 확장제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의 중심이 되는데, 약물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적은 것을 감안하면 흡인제를 쓰는 것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3'>환자가 다소 사용하기 쉽지 않은 점이 있어 의료진과 상의해 사용 방법을 잘 익혀야 한다</span>”고 설명했습니다. 이씨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쉬어야 하며, 화장실을 가거나 청소 등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심하면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으면서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퇴원 뒤에도 여전히 얕은 산을 오르거나 산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걷는 운동 등으로 폐활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는 크게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의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걷는 운동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산에서는 숨이 차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지 몰라 사람들이 많은 공원 등에서 걷는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br/><br/> 문제는 봄철이 되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았고, 걷는 운동을 하는 장소로 이동할 때에도 간접흡연을 겪게 될 때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고령자나 아이들은 물론 평소 만성폐질환이나 심장 및 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호흡 이상으로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외에서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3'>어쩔 수 없이 집 가까운 헬스클럽에 등록했다</span>”며 “<span class='quot3'>담배를 피울 때에는 몰랐는데, 길거리에서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span>”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폐렴 예방접종도 챙겼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3'>사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노인이나 환자들만 받는 것으로 생각해 그동안 맞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3'>입원 치료를 받은 뒤로는 폐렴에 대한 공포가 생각나 예방접종을 챙기지 않을 수 없게 됐다</span>”고 말했습니다. 감기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크게 악화돼 입원까지 하게 된 경험이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는 것이 요즘 이씨의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 담배를 더 피우다가는 폐가 더 망가졌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건강 상태를 과신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담배 피운다고 하면 폐암부터 걱정하는데 한편으로는 폐암에 걸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느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숨을 못 쉬게 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생각까지 해봤다</span>”고 말했습니다. 평소 등산 등으로 꾸준히 폐활량 등을 키워 왔기 때문에 흡연으로 망가진 폐가 다른 이들보다 적었을 수 있다는 말에 다소 안심하기도 했지만, 그는 “<span class='quot0'>운동도 여전히 꾸준히 하고 담배도 끊었지만 어느 때 갑자기 폐렴 등이 나타나 호흡곤란 상태로 빠질지 사실 여전히 겁이 난다</span>”며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꾸준히 운동하면서 폐활량을 잘 유지해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기를 기원합니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147.txt

제목: 폐 망가지면 회복불능, 금연밖에 답 없다  
날짜: 2017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03152828001  
ID: 01101001.2017080315282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호흡곤란, 만성 기침 등이 주요 증상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숨이 차 화장실을 가기 힘들 정도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나이대도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며, 70대가 가장 많은 것도 특징이다. 전문의들은 흡연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오랜 기간의 흡연은 폐 조직을 아예 망가뜨리기 때문에 조기 금연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br/><br/> ■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은 60대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관지나 폐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폐 기능이 망가진 상태로, 만성 기침이나 호흡곤란, 폐활량 감소가 주요 증상이다. 주로 고령의 흡연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최근 5년 동안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60대 이상 환자 수가 18만6천명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은 60대 이상인 셈이다. 나이대별로 나눠보면, 70대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25%), 80살 이상(20.2%) 차례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의 70%로 여성보다 2.3배 많았다.<br/><br/> 국내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 인원 수는 최근 들어 감소 추세인데, 2015년 23만2천명으로 2011년보다 2만7천명이 줄었다. 관련 전문의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진료인원이 감소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환자 1인당 한해 평균 진료비는 2011년 56만6천원에서 2015년 74만8천원으로 32%가 늘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노인이 될수록 악화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로 과거보다 중증인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br/><br/> ■ 호흡곤란은 수년을 걸쳐 서서히 진행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초기에는 환자가 자각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질환이 진행되면서 숨이 차거나 만성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을 느낄 수 있다. 가래 색은 희고 끈적끈적해서 잘 뱉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호흡곤란은 숨을 쉴 때 천식같이 ‘쌕쌕’ 소리가 나기도 한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갑자기 숨이 찬 증상이 심해져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다. 호흡곤란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며, 움직이거나 운동을 할 때 증상이 더욱 심해져 결국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일으킨다. 심한 경우에는 쉴 때도 호흡곤란을 느끼며, 입술과 손끝이 파랗게 보이는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심장질환 또는 호흡기질환이 있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찰을 통해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br/><br/>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는 기관지확장제 등을 써서 호흡곤란과 만성 기침 등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감소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종류의 먹는 약이나 흡입제 등이 사용될 수 있다.<br/><br/> ■ 담배 일찍 끊을수록 폐활량 보존 커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범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량이 많고 길수록 발병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오랜 기간 흡연이 정상 폐조직을 파괴해 폐 기능을 하지 않는 공기주머니 같은 곳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흡연은 또 다른 폐질환이나 심장질환, 각종 장기의 암, 혈관질환의 위험 또한 높여 호흡곤란 증상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다.<br/><br/> 흡연자가 담배를 끊으면 감소된 폐활량은 일정 기간을 거쳐 개선되기는 하지만, 담배를 피우면서 망가진 폐 조직은 다시 회복되지 않아 폐활량 회복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금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으면 감기나 폐렴 등에 의해 증상이 갑자기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담당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등에 의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함께 해마다 가을철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등 실외 공기오염이 호흡곤란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황사 주의보 등이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148.txt

제목: 여름 서귀포의 숲, 피톤치드 쏟아지는 거대한 천연 에어컨  
날짜: 20170803  
기자: 허호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03100827002  
ID: 01101001.20170803100827002  
카테고리: 지역>제주  
본문: “숲에 가서 그 기운을 흠뻑 마셔라. 햇빛이 나무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것과 같이 자연의 평화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바람이 신선함을 그리고 에너지와 열정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이다.” 서귀포시 치유의 숲에는 미국 국립공원의 아버지이자 자연보호운동의 선구자 존 뮤어(1838~1914)의 글이 붙어 있다. 제주의 숲 가운데 ‘서귀포 치유의 숲’은 ‘치유’라는 이름을 붙인 유일한 곳이다.<br/><br/> ‘서귀포 자연휴양림’에서 1100도로를 따라 산록도로와 만나는 곳에서 다시 돈내코 방면으로 가다 보면 서귀포 치유의 숲을 만날 수 있다. 해발 320~760m에 있는 치유의 숲 코스는 모두 11㎞로, 수령이 60년에 가까운 편백과 삼나무 길이 있다. ‘엄부랑 치유숲길’(0.7㎞)에 들어서면 거대한 삼나무 군락지를 만날 수 있다. 들머리에서 200여m를 올라가면 주차장과 방문자센터가 나온다. ‘가멍오멍 숲길’(1.9㎞)을 따라 걸으면 힐링센터가 있다. ‘치유의 숲’답게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의 육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 짜여 운영된다. 마을해설사와 동행하면 치유의 숲에 얽힌 제주 사람들의 삶과 역사와 문화를 들을 수 있다.<br/><br/> 치유의 숲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산림녹화 차원에서 조림이 이뤄졌다. 그 무렵 이곳은 화전민들이 밭을 일구던 화전 터였고, 그 뒤는 목장 터였다. 인근 서호동 주민들은 ‘총각 화전 터’라고 한다. 소나 말의 방목을 위한 ‘캣담’(잣성)도 남아 있다. 이곳에서 숲 해설을 하는 서호동 주민은 1960년대 초 초등학생 시절, 한라산에 소를 방목한 뒤 학교에 갔다 한다. 이를 ‘상산 보낸다’고 표현했다.<br/><br/> 매표소 앞 ‘노고록(‘편안한’의 제주 말) 무장애 숲길’(870m)은 휠체어를 타는 보행 약자도 삼림욕을 즐기며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든, 경사가 완만한 숲길이다. 생수병을 하나씩 든 노부부가 천천히 걷고 있었다. 치유의 숲 광장에서는 나무로 만든 긴 의자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치유의 숲길은 제주도 숲길 가운데 프로그램이 가장 잘 마련돼 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숲속 힐링콘서트 쓰담쓰담’이 여름철 무더위를 잊고 사색하는 탐방객들을 맞는다. 4월부터 시작한 이 콘서트는 이달 30일 오후 6시30분과 9월27일 오후 4시 등 두 차례 남아 있다. 치유의 숲을 걷다 보면 오감을 자극하는 숲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고, 산새 소리와 푸르디푸른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대는 소리가 들린다. 돌담과 숯가마 등 옛 제주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숨결도 만날 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놀멍 치유숲길’(2.1㎞) 끝자락에 있는 시오름 주변은 제주 4·3사건 당시 피신처와 주둔소가 있었다. 치유의 숲길은 추억과 역사가 묻어나 더 아름답다. <br/><br/> <br/><br/> 천연림 향기가 담긴 서귀포 자연휴양림<br/><br/> 편백숲 야영장은 상쾌한 피톤치드 천국<br/><br/> <br/><br/>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아요. 휴양림 자체가 천연 에어컨인데, 틀 필요가 없어요.”<br/><br/> 전화기 너머에서 서귀포 자연휴양림 김익형 계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말 그럴까? 한낮 온도가 34도 가까이 되던 지난 22일,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가기 위해 제주시에서 출발해 운전하면서 본 승용차 안의 온도계는 1100도로 따라 한라산으로 가까이 갈수록 뚝뚝 떨어졌다. 영실 입구를 지나 해발 700~800m 지점에 있는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도착하니 28도로 내려가 있었다.<br/><br/> 휴양림 매표소 옆 생태관찰로로 발을 옮기자 싱그러움이 몰려왔다. 숲은 천연 에어컨 구실을 했다. 마침 불어온 바람은 선선한 느낌마저 들었다. 관찰로로 들어갈수록 선선한 기운이 몸을 감싼다. <br/><br/> 255ha의 서귀포 자연휴양림에는 세 갈래의 생태탐방 코스가 있다. 생태관찰로와 건강산책로를 잇는 ‘어울림 숲길’(2.2㎞), 숲길 산책로~생태 관찰로 건강 산책로를 잇는 ‘숲길 산책로’(5㎞), 서귀포 자연휴양림을 차량으로도 한 바퀴 (3.8㎞) 돌 수 있는 ‘차량 순환로’ 코스다. 차량 순환로도 숲과 숲이 맞닿아 있다. 숲길 산책로에서 ‘법정악 전망대’로 가는 길은 졸참나무·굴거리나무·서어나무·대팻집나무·소나무·편백 등이 줄 맞춰 있다. 표고버섯을 재배했던 표고사의 흔적도 있다. 한라산 등산길에 볼 수 있는 천연림의 모습이다. <br/><br/> 법정악 전망대에선 서귀포시 남원읍 지귀도에서부터 대정읍 마라도까지 서귀포의 3분의 1 이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곳에 서면 한라산 정상도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 짙푸른 융단이 사방에 깔린 것처럼 전망대에서 바라본 제주의 여름은 온통 짙푸른빛이다. 한라산과 가까워 노루는 늘 나타나고, 족제비와 다람쥐 등도 탐방객들의 눈에 띈다. <br/><br/> 편백숲 야영장은 이곳의 명물이다. 기자가 찾은 야영장에는 데크 곳곳에 텐트가 쳐져 있었다. 데크 밑에는 편백 톱밥이 깔려 은은한 피톤치드 향이 묻어났다. 잎이 부드러운 편백은 바람이 불자 편백의 향기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감쌌다. 편백숲에서 뿜어져나오는 피톤치드 향을 마시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심폐 기능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각종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뿜는 방향성 물질로 살균·살충 성분이 포함돼 있다. 야영객 가운데는 편백숲의 공기를 마시며 요양을 하는 암 환자들도 있다. 최대 3박까지 할 수 있다. <br/><br/> 숨을 들이쉬자 훅하고 상쾌한 공기가 온몸에 스며든다. 데크에는 담소를 나누거나 잠을 자는 이들, 아예 책상을 펴서 부지런히 책을 읽는 중년의 남성도 보였다. 가족이 이곳에 텐트를 치고 제주도 여행에 나서는 이들도 있다.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편백숲 군락지는 광범위하다. 후문에서부터 전망대까지 편백 숲길이 이어진다. 나무는 늘 거기에 있다. 숲은 여유롭고 사람을 품어준다. 여름은 초록이다.<br/><br/> ▶가려면<br/><br/> -서귀포 자연휴양림(서귀포시 1100로 882, 064-738-4544):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740번 버스를 탄다. 40분.<br/><br/> -서귀포 치유의 숲(서귀포시 산록남로 2271, 064-760-3067):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 제주공항-1100도로-옛 탐라대 입구 사거리-산록남로(1115도로)-서귀포 치유의 숲<br/><br/> ▶체험하려면<br/><br/> -서귀포 치유의 숲: 제주도 숲길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풍부하다. 3개 코스의 숲길 힐링 프로그램과 3개 과정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모두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숲길 힐링 프로그램은 1시간 간격으로 출발한다.<br/><br/> ▶숲을 즐기려면<br/><br/> -여름철에도 긴바지와 긴소매 옷이 좋다. <br/><br/> -모자와 물을 챙기고,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는다.<br/><br/> -탐방로 이 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br/><br/> -식물을 꺾지 않는다. 쓰레기만 갖고 온다.<br/><br/> -반려동물을 데려가지 않는다.<br/><br/> -취사 행위나 음주, 흡연을 하지 않는다.<br/><br/> -스마트폰은 가방에 두고 자연과 교감한다.<br/><br/> 서귀포/허호준 기자 hojoon

언론사: 한겨레-1-149.txt

제목: “또라이·암싸이·꼰대…지치지 않고 꿈꾸게 하는 공동체 꿈꿔요”  
날짜: 20170801  
기자: 이길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801203819001  
ID: 01101001.20170801203819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짬】 아침편지문화재단 고도원 이사장<br/><br/> 몽골 초원에서 말 타는 것은 그의 젊은 시절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 단순히 말을 타보는 것이 아니라 칭기즈칸 부대처럼 전속력으로 초원을 질주해보는 것이다. 그는 15년 전부터 해마다 여름 몽골 헨티아이막 빈데르 마을에 간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버스를 타고 16시간 가야 하는, 칭기즈칸이 태어난 마을이다. 한국에서 100여명의 일행이 함께 간다. 그리고 10일간 말을 탄다. 처음엔 안장에 오르는 것조차 서툰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의 구령에 따라 좌우로 열을 맞춰 달릴 만큼, ‘기마민족’의 본색을 드러낸다. 그러면 말문이 열리고, 가슴이 열린다. 그것이 그가 몽골 초원에서 말을 타는 이유다.<br/><br/> 그는 말을 잘 탄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릎을 굽혔다 펴며 두 팔을 앞으로 뻗는 스쾃 동작을 하루 1천번씩 ‘꼭’ 할 정도다. “<span class='quot0'>매일 아침 죽기 살기로 합니다.</span>” 틈나는 대로 팔굽혀펴기도 한다. 독하다.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쓰는 고도원(65)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은 ‘엉뚱’하기도 하다.<br/><br/> <br/><br/> “<span class='quot0'>어릴적 왕따 홀로 책읽고 독서카드</span>” ‘아침편지’ 16년째 362만명 받아봐 충주 ‘깊은산속옹달샘’ 연 10만명 힐링<br/><br/> <br/><br/> “<span class='quot0'>상처받은 이들 멍때릴 수 있도록</span>” 젊은 예술인·암환자와 간병인·청소년 8년안에 ‘한울타리 소울 패밀리’ 목표<br/><br/> <br/><br/> 그가 조성한 명상치유센터인 ‘깊은 산속 옹달샘’의 도서관에 있는 수천 권의 분류는 독특하다. 주제별로 나뉜 것이 아니다. 책 표지의 색깔별로 책장에 꽂았다. 그러니 책장이 아름답다. 그의 아이디어다. 이름도 그가 붙였다. ‘무지개 책장’이다. “재미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책에 손이 가잖아요.”<br/><br/> 그는 꼭 16년 전인 2001년 8월1일, 지인 250명에게 이메일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아침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 주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의심스러워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지상의 길과 같아서…”라는 중국 작가 루쉰의 단편소설 <고향>의 한 구절을 소개하는 글로 시작한 그의 아침편지를 받아보는 이는 현재 362만명을 넘어섰다.<br/><br/>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을 5년간 썼던 그가 정치권에서 벗어나, 2009년 충주시 자주봉산 중턱에 ‘깊은 산속 옹달샘’을 지을 때도, 역시 주변에서는 그 미래를 의심했다. 하지만 현재 센터에는 일년에 10만명이 찾아와 힐링의 시간을 보낸다. 청소년 멘토 프로그램인 ‘링컨학교’와 기업 및 단체를 위한 힐링연수 프로그램 ‘휴잠’ 등 명상치유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국내 웰니스 관광 25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됐다. 웰니스 관광은 관광과 힐링(치유)을 결합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br/><br/> 고 이사장은 요즘 또 다른 ‘엉뚱한 생각’을 현실에 옮기고 있다. “세상의 젊은 ‘또라이’들을 다 모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그냥 온종일 ‘멍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에 지치지 않는 젊은이들을 만들고 싶어요.” 예술적 소질이 있는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창작혼이 활활 타오르도록 무료로 숙소와 작업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br/><br/> 또 왕따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은 젊은이들이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다고 했다. “전 어릴 때 철저히 왕따를 당했어요.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라 전학을 자주 다녔어요.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어요.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는 예외 없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심지어 인분통에 빠뜨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이겨야 했으니까요.” 그는 태권도 같은 무술을 배우진 않았지만 혼자 발차기를 수련해, 누구와의 싸움에도 지지 않을 배짱과 싸움 기술을 터득했다. 그리고 고립된 시간에는 책을 읽었다. 그때부터 만들었던 수많은 독서카드가 아침편지를 쓰는 토대가 됐다.<br/><br/>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아널드 토인비 박사의 <역사의 연구>를 소개하시더군요. 이미 15번 그 책을 읽었다고 하니 깜짝 놀라셨죠.”<br/><br/> 40대 중반 가벼운 뇌졸중을 경험한 뒤 그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바쁘기만 했던 청와대 사무실에서 새소리와 빗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놓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는 그때부터 명상을 공부하고, 세계적인 명상센터를 살펴보며 한국적 힐링센터를 구상했다. “이제는 유기농이 아니라, 자연농 시대입니다. 그냥 자연에서, 어떤 인위적인 손길도 닿지 않은 채 자란 야채 등을 보급하려 합니다.”<br/><br/> 그는 ‘암싸이’(암과 싸워 이긴 이)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간병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한다. 청소년 꿈수련센터와 삶에 지친 아버지들이 활력을 찾을 아버지센터, 디지털 산업의 메카도 준비하고 있다.<br/><br/> 고 이사장은 이런 아이디어를 묶어 ‘한울타리 소울 패밀리’라는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원대한 구상도 갖고 있다. “<span class='quot0'>처음엔 꿈이었던 ‘아침편지’나 ‘깊은 산속 옹달샘’이 현실화된 것처럼, ‘소울 패밀리’의 꿈도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것입니다.</span>”<br/><br/> “8년 안에 16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실현되는 꿈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는 꿈 너머 꿈을 꾸고 있습니다.”<br/><br/> 젊은 시절의 굳은 표정을 미소 띤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했다는 그가 환하게 웃는다. 넉넉하고 자연스럽다. <br/><br/> 충주/글·사진 이길우 선임기자 nihao

언론사: 한겨레-1-150.txt

제목: [시론] 또 다른 박종필들 / 태준식  
날짜: 2017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31181813001  
ID: 01101001.20170731181813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태준식 공공운수노조 교육센터 교육국장, 다큐멘터리 감독<br/><br/>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너무나도 황망한 죽음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20년 넘게 활동해온 영상활동가 박종필 감독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특히나 고인과 같은 일을 해왔던 영상활동가들은 소리 죽여 깊게 슬퍼했습니다. 아니, 슬퍼할 틈도 없이 고인이 해왔듯 그이의 생전 모습을 모으고 편집하며 슬퍼하는 이들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편집 모니터 속에 나타난 고인의 모습과 말들을 들으며 빈소 귀퉁이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박종필들… 영상활동가들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br/><br/> 많이 참담한 건 ‘연분홍치마’ 김일란 활동가의 투병 소식이 전해진 이유도 있습니다. 김일란과 박종필은 영상활동가들에게는 하나의 나침반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나침반이 흔들리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두 활동가는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에서 위원장 역할을 담당했었고 지난겨울 광장의 촛불을 기록하는 퇴진행동본부 미디어팀에서 활동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바로 얼마 전까지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게도 이 두 활동가는 같은 시기 암을 얻었고 그중 한 명의 소중한 동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혹한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외로움과 상실감에 몸서리치는 이들 옆에서 조용히 그들의 친구가 되었던 영상활동가들.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실어 날랐고 종국에는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쥐여 주기 위해 헌신해왔던 영상활동가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것일까요?<br/><br/> 정작 영상활동가들은 자신이 외롭고 힘든 존재임을 몰랐습니다. 몸은 거리에 있었으며 마음은 전이된 민중들의 고통 때문에 언제나 아팠습니다. 그것을 숙명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회의 선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자신의 노동이 소중한 사회적 노동임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말해 뭐 할까요. 문화산업의 종사자로 창작자들을 대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나마 가늘게 있던 공적 지원을 끊어 생존의 위협을 가했던 국가의 폭력이었습니다. 영상활동가들의 친구들은 어떠했을까요?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로 영상활동가를 대할 뿐, 헌신적인 활동가임을 인정할 뿐, 처지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에 관심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활동가들 마음속에 있는 그 순수한 뜻과 열정을 모른 척 ‘사용’만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노동’을 ‘활동’으로 치켜세우며 우리들은 너무나도 긴 시간을 잃어왔습니다. 속으로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br/><br/> 또 다른 박종필들…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활동가들과 고 박종필 감독의 ‘다큐인’ 후배들. 그리고 독립다큐 창작자들은 다시 거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나타날 것입니다. 슬픔을 가슴에 묻고 고 박종필 감독의 말처럼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해 다시 녹화 버튼을 매만지고 있을 겁니다. 영상활동가들의 친구들께 부탁드립니다. 잠시나마 그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연대해 주십시오.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세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은 이런 독립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노동으로 대우받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한 나라의 소중한 문화자산이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다큐 창작자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또 다른 박종필’들이 고인의 뜻을 부침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늘한 여름. 소중한 동지들을 더 이상은 잃고 싶지 않습니다.

언론사: 한겨레-1-151.txt

제목: 엘지디스플레이 희귀질병 지원 상담하세요  
날짜: 20170731  
기자: 이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31121906001  
ID: 01101001.2017073112190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엘지(LG)디스플레이가 사업장 내 특이질병 발병자를 위한 ‘산업보건 지원보상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br/><br/> 엘지디스플레이는 산업보건 지원보상 운영위원회에 상담을 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게 전용 누리집과 대표전화 등 온오프라인 상담창구를 만들었다고 31일 밝혔다. 엘지디스플레이는 지난 5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전현직 임직원과 상주 협력사 직원 가운데 암이나 특이질병이 발병할 경우, 업무연관성과 관련없이 지원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br/><br/> 엘지디스플레이는 산업보건 지원보상운영위원회(위원장 한성대 박두용 교수)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한국산업보건학회에 의뢰해 산업 보건, 직업의학, 노동법률 및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등 제3자 기구형태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원보상운영위는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br/><br/> 엘지디스플레이에 근무했던 직원 가운데 질병 발병 사례가 있을 경우 누리집(www.ohcare.org)과 지원보상운영위원회 대표전화(1566-4416)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상담(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66 트윈시티남산 5층 ‘LG디스플레이 산업보건 지원 보상운영위원회’)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br/><br/> 지원 대상 질병은 일부 암이나 희귀질환, 생식질환 그리고 만 19살 전에 발병한 자녀의 소아암 및 선천성 심장질환이 포함되며,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엘지디스플레이는 이를 위해 1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향후 10년동안 운영하기로 했으며 필요에 따라 재원을 증액할 계획이다.<br/><br/> 신청기간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은 2018년 3월 30일까지 인터넷,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2017년부터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발생일 기준으로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br/><br/> 이완 기자 wani

언론사: 한겨레-1-152.txt

제목: 유전자가위가 넘어야 할 문턱 ‘표적 안전성’  
날짜: 20170731  
기자: 오철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31111834001  
ID: 01101001.2017073111183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이른바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혁신적인 유전자 편집 기법인 ‘크리스퍼/카스9’ 기술은 이제 실험실의 기초연구뿐 아니라 농수축산물의 품종 개량이나 유전질환 치료 임상시험에 쓰일 정도로 응용 분야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세포핵 안에 들어가 디엔에이(DNA) 중에서 표적(타깃)으로 삼은 염기서열 지점을 찾아가는 ‘안내자 아르엔에이’(gRNA)와 그 지점을 자르는 ‘절단효소’(Cas)가 짝을 이룬 복합분자가 그 기술의 핵심이다.<br/><br/> 그런데 유전자 가위가 유전자 치료로 나아가는 데엔 넘어야 할 ‘안전성’ 검증의 문턱이 놓여 있다. 특히나 표적 아닌 곳에서 의도하지 않은 변이를 일으키는 이른바 ‘표적 이탈’(오프타깃) 문제의 검증은 그 문턱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유전자 가위는 표적 유전자를 정확히 절단하고 교정할 수 있지만, 또한 표적 아닌 지점에도 변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span class='quot0'>표적 이탈을 줄이는 기법들이 이미 충분히 개발됐다</span>”는 주장과 함께, 안전성을 위해 ‘용인될 수 있는 표적 이탈 수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br/><br/> <br/><br/> 최근 관심사 된 ‘표적 이탈 변이’ 효과<br/><br/> <br/><br/> 유전자 가위의 표적 이탈 효과를 줄이려는 여러 연구가 성과를 내면서 가라앉는 듯하던 이 문제를 새삼 부각시킨 것은 지난 5월 과학저널 <네이처 메소드>에 실린 논문 한 편이었다(go.nature.com/2tXKOq8). 미국 스탠퍼드대와 아이오와대 등 소속 연구진은 1.5쪽의 짧은 연구 보고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성공적인 유전자 치료를 마친 실험동물 생쥐 두 마리의 유전체 염기서열 전체를 분석해보니 흔히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의도하지 않은 변이들이 곳곳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표적 이탈 변이에 대한 기존의 검증방식이 제한적이었다면서 자신들은 살아 있는 개체의 전체 유전체에서 단일 염기 변화까지 세세히 분석했다고 주장했다.<br/><br/> 논문은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 주식시장에선 유전자 가위를 다루는 생명공학 기업들의 주가가 한때 떨어질 정도로 표적 이탈 문제는 민감한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나 곧이어 논문의 허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거센 반박이 이어지자 논문을 실었던 네이처 쪽은 비판을 받아들여 해당 논문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편집위원의 알림을 온라인에 실었다.<br/><br/> 유전자 가위 분야의 권위자인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서울대 교수)는 “<span class='quot1'>논문의 실험 방법과 해석에 많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span>”며, 특히 “<span class='quot1'>부모 세대에도 존재하는 자연 변이를 유전자 가위에 의한 변이로 오인했다</span>”고 비판했다. 김 연구단장 연구진을 비롯해 각지 연구그룹이 4편의 반박 논문을 공개형 생물학술 데이터베이스(BioRxiv.org)에 잇따라 게시하고, 원논문의 연구진도 재반박 논문을 공개했으나, 네이처 논문의 파문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bit.ly/2uV16EO).<br/><br/> <br/><br/> 표적이탈 줄이기 연구 어디까지 왔나<br/><br/> <br/><br/> 유전자 가위의 표적 이탈 효과를 줄이려는 연구는 지금 어느 정도 진전해 있을까? 방향은 크게 보아 두 갈래로 요약된다. 하나는 유전자 가위의 구성품인 절단효소 분자와 안내자 아르엔에이 분자 각각의 성능을 개량해 표적 절단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는 방식이다. 김진수 연구단장은 “<span class='quot2'>새로운 기법들이 등장하면서 표적 이탈 변이는 관찰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라져, 표적 이탈을 더 줄일 방법을 개발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하다</span>”고 주장했다.<br/><br/> 다른 갈래에서는 유전자 가위의 작동을 필요할 때 제어하는 새로운 분자를 찾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유전자 가위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이른바 ‘스위치 분자’에 관한 연구가 지난해 12월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최근엔 한국 연구자인 신지영 연구원(박사)이 참여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에 달라붙어 그 작동을 가로막는 스위치 분자의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해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다(bit.ly/2tMtMP1). 스위치 분자가 마치 표적인 양 행세하면서 유전자 가위에 달라붙어 유전자 가위가 실제 표적에는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br/><br/> 공동 제1저자인 신지영 연구원은 “<span class='quot3'>유전자 가위 분자가 디엔에이 표적을 절단하기 시작하고서 6시간가량 지난 뒤에 스위치 분자(AcrⅡA4)를 넣어주었더니 유전자 가위의 표적 이탈 효과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span>”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세포에다 수많은 유전자 가위 분자를 넣어주는 현재 방식에선 유전자 가위를 일일이 완벽하게 제어하기 어렵기에, 유전자 가위를 정교화하는 연구 외에 유전자 가위를 제어하는 분자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br/><br/> <br/><br/> 안전성 평가 원칙 마련 논의도 활발<br/><br/> <br/><br/> 표적 이탈 ‘제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안전성을 위해 표적 이탈은 어느 수준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 유전자 가위 기술이 주는 잠재적 혜택과 위험을 두루 고려하면서, “표적 이탈 효과의 수용 가능한 수준과 유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정식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 20여 나라 연구자들은 이달 초 과학저널 <트랜스제닉 리서치>에 발표한 ‘책임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를 위한 합의문서’에서 인간 체세포에 적용될 유전자 치료술로서 유전자 가위의 혜택과 위험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용인될 수 있는 표적 이탈의 수준과 유형’에 대한 평가를 논의 대상 목록에서 앞순위에 꼽았다(bit.ly/2tB75L5). <br/><br/> 아시아생명윤리학회 회장인 전방욱 강릉원주대 교수(생물학)는 “<span class='quot4'>유전체와 유전자를 변화시킬 기술은 손에 넣은 반면에,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표적 이외 지점에 생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에 임상 적용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김진수 연구단장은 “<span class='quot2'>미국 규제 당국에서 하듯이 표적 이탈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실제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에 평가 기준을 두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 유전자 가위 연구가 유전자 치료술로 나아갈수록 표적 이탈 효과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점점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br/><br/> 오철우 선임기자 cheolwoo

언론사: 한겨레-1-153.txt

제목: 최다빈, 아픔 딛고 비로소 웃었다  
날짜: 20170730  
기자: 김경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30172006001  
ID: 01101001.20170730172006001  
카테고리: 스포츠>올림픽\_아시안게임  
본문: 4분10초 남짓 동안의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큰 실수 없이 마치자, 그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다. 대회 전 공식 인터뷰에서 “1~2주 동안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바꾼 부츠도 잘 맞지 않는다”고 걱정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대회 한달 전 어머니가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나 깊은 슬픔에 잠긴 그였지만, 막상 아이스링크 위에선 멋진 연기를 펼치며 ‘피겨 여왕’ 김연아를 이을 기대주임을 다시 입증했다.<br/><br/> 30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18 평창겨울올림픽 파견 선수 1차 선발전 겸 ‘케이비(KB)금융 피겨스케이팅 코리아 챌린지’ 마지막날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 최다빈(17·수리고3)은 118.75점을 얻어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63.04점)를 합쳐 합계 181.79점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169.15점을 기록한 2위 김하늘(15·평촌중3)과의 점수 차도 컸다. 3위는 162.44점을 따낸 안소현(16·신목고1)이 차지했다.<br/><br/> 최다빈은 지난 2월 삿포로겨울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아시안게임 여자싱글 금메달을 따내며 일약 한국의 간판스타로 떠올랐으며, 지난 4월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는 10위를 차지해 한국에 2018 평창겨울올림픽 티켓 2장을 안긴 바 있다.<br/><br/> 이날 프리스케이팅에 나선 12명 중 11번째로 출전한 최다빈은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을 배경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첫 과제인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시작으로, 트리플 플립과 더블 악셀까지 안정적으로 연기를 소화했다. 이어 레이백 스핀, 플라이 카멜 스핀 등을 무난히 마친 뒤 더블 악셀,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루프, 트리플 살코까지 ‘마의 4연속 점프’를 깔끔하게 처리했다. 그리고 스텝 시퀀스에 이어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다만, 처음에 애초 의도한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수행하지 못한 게 옥에 티였다.<br/><br/> 곽민정 <한국방송(KBS)> 해설위원은 경기 뒤 “시합전 최다빈이 불안해하더니, 링크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달랐다. 연기를 잘했다”고 칭찬했다. 최다빈은 경기 뒤 공식 인터뷰에서 “출전 때부터 경기내용과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출전 자체에 의미를 뒀다”며 “2, 3차 선발전 때는 더욱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연아가 시상식에 참여해 후배들에게 평창겨울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인형을 주며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br/><br/> 최다빈은 우승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발목 수술 뒤 돌아온 박소연(20·단국대2)은 전날 2위를 차지했던 쇼트프로그램(60.51점)과 달리 이날 점프 시도 중 3번이나 넘어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6위(149.15점)로 마쳤다. 점수 발표 전 그는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여자싱글은 이번 선발전을 포함해 12월 회장배 랭킹대회와 내년 1월 종합선수권대회까지 세차례 대회를 통해 평창에 나갈 2명을 결정한다.<br/><br/> <br/><br/> 이어진 남자싱글에서는 이준형(21·단국대3)이 228.72점(쇼트프로그램 77.72+프리스케이팅 151.00)으로 1위를 차지하며 오는 9월27~29일 독일 오베르스트도르프에서 열리는 2017 네벨호른 트로피 출전권을 확보했다. 김진서(21·한국체대2)가 2위(223.49)를 차지했고, 차세대 유망주 차준환(16·휘문고1)은 3위(206.92)에 그쳤다. 차준환은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첫 점프 과제인 쿼드러플 토루프 점프를 깔끔하게 소화했지만, 이어진 쿼드러플 살코 점프에서 넘어지는 등 잇단 실수를 범하며 무너졌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

언론사: 한겨레-1-154.txt

제목: 내 아이 밥, ‘무상’이라 말하지 말라  
날짜: 2017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30092852001  
ID: 01101001.20170730092852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무상, 말 그대로 공짜라는 뜻이죠. 무상급식은 공짜급식이라는 뜻이고요. 내던 급식비를 안 내기 시작하면서 무상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재를 털어 급식비를 대납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외 원조를 받아서 아이들 급식이 제공되는 게 아닌데,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은 가당치 않죠. 당장 폐기하고 싶은 말입니다. 만약 (120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자에 한해 만 60세 이후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만 65세 이상 어르신(소득 하위 70%)들께 일괄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무상연금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무상은 곧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 높이는 세력들이 과연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내라는 대로 꼬박꼬박 세금 낸 우리들에게 무상은 없습니다. 무상이라는 말로 쓸데없이 감사한 마음 들게 하지 말고 친환경 공공급식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의무교육·공교육이라는 표현은 써도 무상교육이란 말은 잘 안 쓰잖아요.<br/><br/> <br/><br/> 내 세금은 어쩌고 공짜라니<br/><br/> 사실 문제의 근원은 헌법 제31조 3항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해당 법조문 때문에 무상이란 표현을 무조건 쓰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최초의 무상급식 논쟁 때 ‘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역시 무상으로 제공함이 옳다’는 주장이 꽤 힘을 얻었죠. 문제가 헌법이라면 답은 개헌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민참여 개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저도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겠네요. ‘무상’이 과연 적확한 표현인지 토론을 제안하고 대안으로 ‘의무교육은 국가 재정으로 실시한다’는 개정안을 주장해봐야죠. 물론 개헌이 되든 안 되든 무상급식·무상보육의 ‘무상’을 대체할 만한 표현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br/><br/> 친환경 무상급식. 사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무상’이 아니라 ‘친환경’입니다. 공짜(무상)가 아니라 내 돈(세금) 내고 내 아이 먹이는 건데 주는 대로 아무거나 받아먹게 할 순 없죠. 대한민국 아이들은 무얼 먹고 사는가? 그게 두리 엄마의 고민거리, 골칫거리입니다. <br/><br/><br/><br/>내 돈 내고 먹이는 아이 급식 아무거나 먹게 할 수는 없다 지자체장 의지에 좌우되지 않게 조례 대신 법적 근거 갖춰야<br/><br/> <br/><br/> 내 고향 제주, 아토피 1위 ‘충격’ ‘전국 맞벌이 1위’와 무관치 않아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엄마 칼퇴근이 아이 건강과 직결<br/><br/><br/><br/> 우리 부부는 지난 28개월간 두리에게 ‘친환경 무상식사’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두리가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보다 먹을거리 문제에 부딪혔죠. 초등학교에서는 친환경 급식을 주지만 두리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남은 4년간은 어린이집에서 주는 ‘그냥 급식’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제한된 예산이 문제라면 중학교 대신에 유해인자에 취약한 영유아기 아이들 먼저 친환경 급식을 먹이는 게 당연한 일 같은데요. 현실은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은 오히려 기약 없는 후순위가 돼 있습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는 사립 시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급식은 물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은 규모가 대체로 작기 때문에 학교 급식소처럼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br/><br/> 눈치채셨겠지만, 두리 엄마아빠는 두리의 식생활을 매우 중시합니다. 즉 까다롭고 유난스러운 부모죠. 친환경 인증(유기농·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농 유제품을 먹이고 주스 대신 오미자청이나 매실청을 물에 타줍니다. 화학첨가물이나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대추·생강을 푹 끓인 물이나 배·도라지청, 무말랭이차를 마시게 하는 대신 감기약은 조금만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두리에게 당장 아토피나 비염 증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토피와 같은 비감염성 질환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는 환경 속에서 평생 살아야 하니까 예방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br/><br/>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어차피 학교 가면 친구들이랑 과자, 패스트푸드 사 먹기 때문에 헛고생이라는 말과 친환경 식단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는 질문인데요. 태아·영유아 시절의 아기 신체가 환경유해인자에 더 취약하므로 그 시절에 안 좋은 음식을 가려 먹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영유아기에 식단 관리를 안 하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친환경 급식을 먹이는 현실이 저로선 너무 답답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br/><br/> 왜 이 대답을 여기에 쓰고 있냐면요. 사실 두리 먹는 것 가지고 까다롭게 굴 때마다 매우 눈치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부쩍 소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너무 일찍 알파벳이나 숫자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못마땅한데요. 그렇다고 그런 말을 내뱉진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두리 음식을 가리는 걸 보면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안 그래도 돼, 괜찮아, 쓸데없는 일이야’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두리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것보다 두리의 세포를 무엇으로 채워줄지, 그리고 두리의 근육에 어떤 기억을 심어줄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러나 뇌세포보다 체세포를 중시하는 육아 방침은 문화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지지받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br/><br/> 급식비도 따로 안 받는데 진짜 친환경은 맞을까요? 친환경 급식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고 또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친환경 급식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은 식재료의 70% 이상을 친환경 인증 농수축산물로 채우고 채소 위주의 식단,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저염분 건강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br/><br/> <br/><br/> 엄마 노동시간부터 보장돼야<br/><br/> 2017년 기준으로 서울 관내 초·중학교 940개교(공립초 558개교, 국·공·사립중 381개교, 지구촌학교 1개교)에 다니는 학생 63만2천명(초등 40만9천명, 중등 22만3천명) 전원이 매일 무농약·유기농 쌀로 지은 밥을 먹고 있죠. 제가 정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집이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부모가 바쁘거나, 식생활에 관심이 없거나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하루 한 끼는 건강한 밥을 먹일 수 있는 정치가 너무 좋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급식 정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말고 전국 어디에 살든지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좋은 밥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친환경 급식 조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에 따라 친환경 급식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더 많은 엄마아빠들이 친환경 급식에 관심을 갖고 예산 확대와 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인다면 무상급식을 반대해온 보수정당들도 뜻을 굽힐 것입니다.<br/><br/> 제가 먹을거리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첫째, 저 자신이 아동·청소년기에 늘 비만이었기에 다시 비만이 되는 게 싫었기 때문이고, 두리는 저처럼 소아비만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둘째는 제 고향인 제주도가 청소년 아토피 전국 1위 도시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서울과 같은 대도시보다 환경적 여건이 훨씬 좋은 제주에서 아토피가 가장 많이 발병한다니, 원인이 궁금했습니다. 예전에는 아토피, 비염, 천식, 비만,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암, 우울증, 공황장애, 치매와 같은 비감염성 질환이 증가하는 이유는 단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염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수질, 토양, 대기뿐 아니라 사람의 몸이 오염되죠. 당연히 질병에 취약해지고요. 그런데 오염 과정에서 외부 요인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먹을거리와 같은 내부 요인도 영향이 크다는 사실에 뒤늦게 주목한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맞벌이가구 비율이 44.9%인 데 반해 제주도는 60.3%로 전국 1위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외식 횟수와 가공식품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죠.<br/><br/> 그래서 엄마가 일을 그만둬야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칼퇴근하고 엄마아빠에게 저녁시간을 돌려준다면 아이들의 식생활이 바로 나아질 겁니다. 칼퇴근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실 서울·수도권은 오후 6시 칼퇴근을 한다 해도 집에 오면 7~8시, 장 보고 밥 차려 먹으려면 9시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나 가공식품을 이용할 수밖에요. 가족 공동체가 복원되고 사람답게 살려면 이번 정부 내에 주 40시간, 칼퇴근을 실현하는 동시에 주 35시간으로 가는 청사진도 그려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그런 점에서 엄마 정치의 핵심 요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br/><br/> 당장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친환경 급식 실시가 시급합니다. 보통은 정부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촉구하는데, 이 문제는 상황이 좀 다르네요. 지난번 글에서 아동수당 10만원을 주기 전에 국공립 시설부터 확충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2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유치원·어린이집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형·다수 시설 운영 기관 95개소(유치원 55곳, 어린이집 40곳)를 종합점검 한 결과인데요. 유치원은 55곳 중 54곳에서 위반사항 398건, 부당 사용금액 182억원이 적발되었고, 어린이집은 점검 대상 40곳 중 37곳에서 위반사항 211건, 부당 사용금액 23억원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참 가관인데요. 유치원 설립자가 개인 외제차량 3대를 유치원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차량 보험료 140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거나, 유치원 원장 아들의 대학등록금 및 연기 아카데미 수업료 3900만원 지출, 어린이집 대표가 자기 부인을 취사부로 채용하여 인건비 5400만원을 지급한 사례 등 엄마아빠들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죠.<br/><br/> <br/><br/> 회계비리와 친환경 급식의 관계<br/><br/> 유치원·어린이집 회계비리와 친환경 급식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친환경 급식뿐 아니라 일선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던가, 교사 1인당 담당 아동수를 줄이는 등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돈이 어떻게 잘못 쓰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무조건 예산을 늘려 달라고 주장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정부가 제안한 개선 방안대로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인사관리를 국공립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좋고요. 민간 시설을 국가가 매입해서 국공립 전환하는 방안도 엄마들은 환영합니다. 국공립 비율을 50% 이상(문재인 대통령 공약 40%)으로 확충해야 나머지 절반의 민간 시설도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더군요. 프랑스의 유아학교는 100% 공립이고 일본의 경우 국공립 보육소가 48.6%, 민간은 51.4% 비율이지만 민간 시설 가운데 90%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과는 차이가 큽니다. 애초에 유아교육?보육을 시장에 맡긴 것이 실패한 정부 정책인 거죠. 현 정부가 국공립 40%를 공약했지만 바로잡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br/><br/> 지난 25일 언론에도 보도됐다시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소속 원장들의 무력행사로 무산됐는데요. 한유총이 유명세를 탄 것은 지난 4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한유총이 개최한 ‘2017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석해서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을 했다가 지지율에 타격을 입은 이른바 ‘단설 사태’ 때문이었죠. 한유총과 같이 조직적으로 국공립 확대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저지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 맞은편에 바로 엄마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저처럼 밥이 가장 중요한 엄마도, 돌봄이 중요한 엄마도, 배움이 중요한 엄마도, 놀이가 중요한 엄마도, 공공성 강화에 동의한다면 모두가 뜻을 모을 때입니다. 엄마의 정치세력화 없이는 국공립 40% 공약은 달성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br/><br/> 공공성 강화부터 하다가는 어느 세월에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급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지난 6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서울 관내 모든 어린이집(2016년 기준 6363개소, 23만4천명)에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는 2016년 11월 전국 최초로 ‘논 지엠오(Non-GMO)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한 바 있고요. 이런 바람직한 흐름에 엄마 정치가 가세하면 전국 어디서나 영유아 친환경 급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정치를 고민하는 순간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br/><br/> <br/><br/>▶ 장하나 두리 엄마,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 전직 국회의원.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사는 건 참으로 이상하고 슬픈 경험입니다. 엄마는 가장 멋진 일인데도 가장 괄시받는 직업이 됐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시간과 장소를 빼앗겼습니다. 20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 41억원, 평균 연령 55.5살, 83%가 남성입니다. 우리 정치는 너무 노쇠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엄마의 눈으로 보고 엄마의 마음으로 길을 내는, 엄마를 위한, 엄마에 의한, 엄마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언론사: 한겨레-1-155.txt

제목: [정희진의 어떤 메모] 아만자  
날짜: 2017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28203850001  
ID: 01101001.20170728203850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아만자 1· 2>, 김보통 지음(글·그림), 예담, 2014<br/><br/> 통증은 소통이 어려운 영역이다. 결국 내가 아파 봐야 남 사정도 안다. 윤리나 정의감으로 가능하지 않으니, 동병(同病)만한 언어가 없다. 그러다 보면 경험 여부를 따지고 불행을 경쟁하게 된다. 그다음 단계는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 중 하나인, 타인의 고통과 비교하면서 위로받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가(죄의식)에 비해 효과(위안)가 크다. ‘가성비’….<br/><br/> 고된 하루. 나는 오늘도 고통을 잊으려고 어느 포털사이트의 미아 찾기 기사를 읽는다. “<span class='quot0'>네 살 여아, 거리에서 실종, 현재 스물네 살.</span>” 그 부모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다시 정신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타인과 비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변화를 찾자. 고통을 다룰 능력을 기르자! 이를테면 클라이브 스테이플스(C. S.) 루이스의 “지금 고통은 그때 행복의 일부이다(The pain now is part of the happiness then).”<br/><br/>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만 ‘죽을 만큼’ 아픈 상태가 아니라 실제 ‘죽기 위해서’ 아픈 말기 암환자에게 이 말이 들릴까. 작가 김보통의 <아만자>(암환자)는 스물여섯에 위암이 척추까지 전이된 말기 암환자 청년의 일상을 그린다. 문체도 그림도 담백하지만, 폭발적으로 눈물이 나다가 다시 담담해진다.<br/><br/> 암,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정말 ‘보통의 경험’이다(동명의 성폭력 관련서가 있다). “<span class='quot0'>아프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 중의 하나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span>” 평소에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막상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죽는 상황이 오면, 인류는 이제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는 근본적인 역사의식(분노)이 든다.<br/><br/> 흔한 대화. “<span class='quot0'>환자분, 통증이 1부터 10까지로 쳤을 때 어느 정도 아프세요?</span>” 고통을 수량화한 척도(尺度) 질문인데, 고통이 계량화될 수 있겠는가. 이 물음은 필요하지만 환자를 위한 말이 아니라 치료자를 위한 것이다.<br/><br/> <아만자>의 주인공은 간호사가 묻자,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린다. “(아, 하느님, 상제님, 부처님. 제발. 죽여주세요.) 백이라고 이 씨××아!”(1권 140쪽) 유머와 기품이 어우러진 이 책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욕설이다. 얼마나 아파야 생목숨이 사라지겠는가.<br/><br/> 인간 행동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 육체적 고통(pain)이란 이런 것이다. 이 권력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래서 고문은 최고의 악이다. 고문은 국가만 행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 학교, 군대, 직장 도처에 고문이 있다.<br/><br/> 동물도 자살하는가? 한다! “자살은 엄청난 ‘인간적 고뇌’가 있는 매우 고차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물들의 보편적인 습성이 아닐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돌고래의 떼죽음,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도마뱀, 위기 상황에서 기절해버리는 염소처럼. 개체가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면 선택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해.”(2권 34장)<br/><br/> 내게 가장 꽂힌 말, “하나도 안 궁금해. 내 인생.” 누구나 이럴 때가 있지만 지속되면 살 수 없다. 생명의 보편적 습성이다. 여전히 자살을 정신력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야 가능한 인식이다.<br/><br/> 보들레르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이유는 “<span class='quot1'>잠이 드는 것의 피곤함과 깨어나는 것의 피곤함을 견딜 수 없어서</span>”였다고 한다.(2권 189쪽) 시인이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인생 많다.<br/><br/> 삶이 생사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생·노·병·사다. 시간은 나이 듦과 병듦으로 채워진다. 이 책을 읽은 암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작가에게 말했다고 한다. “<span class='quot0'>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전해달라.</span>”<br/><br/> 누구나 아프고 죽는다. 슬프고 두려운 것은 ‘인간’이어서 그렇다. 인간은 의미 중독자다. ‘자연’이라면 순리다.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나 안도감이 아니라 의료보험 개혁뿐이다.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아픈 사람을 루저로 대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는 자연에서 다시 만난다.<br/><br/>정희진 평화학 연구자

언론사: 한겨레-1-156.txt

제목: 엄마 잃은 최다빈 “힘든 시기 이겨낼 것”  
날짜: 20170727  
기자: 김경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27184815001  
ID: 01101001.20170727184815001  
카테고리: 스포츠>올림픽\_아시안게임  
본문: “평창행 티켓을 잡아라!”<br/><br/> 2018 평창겨울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한 국내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27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실내빙상장)는 오전 주니어 선수들, 오후엔 시니어 선수들의 연습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9~30일 이틀 동안 이곳에서 평창겨울올림픽 파견 선수 1차 선발전인 ‘케이비(KB)금융 피겨스케이팅 코리아 챌린지’를 개최한다.<br/><br/> 한국은 지난 3월 최다빈이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싱글 10위를 차지하면서 평창겨울올림픽 본선 출전권 2장을 확보했다. 여자싱글은 이번 대회를 포함해 12월 회장배 랭킹대회와 내년 1월 종합선수권대회까지 세 차례 대회를 통해 평창에 나갈 2명을 결정한다. 그러나 남자싱글, 아이스댄스, 페어는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27~29일 독일 오베르스트도르프에서 열리는 2017 네벨호른 트로피를 통해 평창행 막차를 노려야 한다. 이 세 종목은 이번 코리아 챌린지에서 우승한 선수가 네벨호른 트로피 출전권을 얻게 된다.<br/><br/> ■ 모친 여읜 최다빈 “힘들지만 최선” <br/><br/> 이날 연습 뒤 오후 2시 넘어 열린 미디어데이에서는 여자싱글에 나오는 4명의 국가대표가 저마다 선전을 다짐했다. 그러나 한달여 전 자신을 뒷바라지하던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간판스타 최다빈(17·수리고3)은 그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최다빈은 “<span class='quot0'>거의 훈련을 못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다</span>”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그는 “이번 선발전을 앞두고 1~2주밖에 훈련을 못했다. 기술적으로 손을 못 보고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출전을 결정했다. 교체한 부츠도 편하지 않다. 선수로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겨내려 하고 있다.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했다.<br/><br/> 여자싱글 선발전에서는 최다빈을 비롯해 김나현(17·과천고3), 박소연(20·단국대2) 등 3파전이 예상되는데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 결과는 예측불허다. 김나현은 지난 2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발목 부상에 시달렸고, 어렵사리 출전한 2월 2017 삿포로겨울아시안게임에서도 부상 때문에 제대로 된 연기를 펼치지 못했다. 그러나 김나현은 “부상에서 회복 중이다. 잘 마무리해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보여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박소연은 지난해 12월 훈련 도중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려 왼쪽 복숭아뼈 부근의 뼈가 부러졌다. 뼈에 철심을 덧대는 수술을 받느라 삿포로겨울아시안게임 출전도 포기했다.<br/><br/> 세계랭킹은 최다빈이 18위로 가장 높다. 박소연은 23위, 김나현은 41위다. 국제빙상경기연맹 공인 최고점 역시 최다빈이 191.11점으로 가장 높고, 박소연(185.19점)과 김나현(177.27점)이 뒤를 잇고 있다. 최다빈은 박소연 대신 삿포로겨울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냈고, 김나현이 부상으로 포기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도 대타로 나서 종합 10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국가대표인 안소현(16·신목고1)과 김하늘(15·평촌중3)도 도전장을 냈다.<br/><br/> ■ 차준환 ‘4회전 점프’ 3번 시도한다 <br/><br/> 이날 남자 싱글에서는 차세대 기대주 차준환(16·휘문고1)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016~2017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 주니어 그랑프리 3차와 7차 시리즈에서 우승했고,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기 때문이다. 차준환은 이번에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3차례나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프리스케이팅에서만 시도했는데, 쇼트프로그램에서도 쿼드러플 살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쿼드러플 토루프에 이어, 쿼드러플 살코-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보여줄 예정이다.<br/><br/> 차준환은 “<span class='quot1'>캐나다에서 새 프로그램을 중점 연습했다</span>”며 “<span class='quot1'>무조건 올림픽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애썼던 만큼 매 경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span>”고 했다. 그의 새 시즌 쇼트프로그램은 원리퍼블릭이 리메이크한 루이 암스트롱의 ‘왓 어 원더풀 월드’(What a Wonderful World), 프리스케이팅은 구스타브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더 플래닛’(The Planets)에 맞춰 구성됐다. 남자 싱글에는 김진서(21·한국체대2)와 이준형(21·단국대3)도 나온다. <br/><br/>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

언론사: 한겨레-1-157.txt

제목: IMF때 쓰러져 약탈금융 수렁에…‘추심 유령’ 20년째 따라다녀  
날짜: 20170727  
기자: 정세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27002824001  
ID: 01101001.20170727002824001  
카테고리: 경제>취업\_창업  
본문: 서울 강서구 ㄱ씨(61) 월셋집에는 최근에도 독촉장이 어김없이 날아들었다. 380만원 원금에 1300여만원의 이자와 법적 조처 비용을 갚으라는 채무 독촉장으로, 빨간 직인이 찍힌 누런 봉투에 담겨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즈음에 생긴 빚이다. ㄱ씨가 운영하던 수출업체가 도산할 때 직원들 의료보험료가 두어 달 치 밀렸던 탓이다. 이 빚은 자그마치 20년째 그를 따라다닌다. 그는 1997년 당시 충남에서 직원 120명 정도를 두고 연매출 100억원을 올리는 중소 수출업체를 5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천막지·방수포 등을 생산해 100% 수출하는 업체였다.<br/><br/> 위기가 닥친 것은 그해 8월쯤이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여신을 무자비하게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신규 대출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대금이 들어와도 기존 대출을 회수한다면서 무조건 빼 가 버립디다. 그러면 자재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외국 거래처에서 오더는 넘치는데 제조를 할 수가 없고, 돈 흐름이 막히며 흑자 도산하는 상황으로 가버린 겁니다.”<br/><br/> 중고등학생인 딸들과 아내와 함께 생활하던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 그는 빚쟁이들을 피해 서울로 도망가고, 식구들도 친척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살던 집도 잃어버렸고, 선산도 날아가 버렸다.<br/><br/> 마흔이 넘은 나이에 신용불량 처지가 되고 보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긴 어려웠다. 당시 사업체가 도산하고 월급쟁이가 평생직장에서 쫓겨나는 사연은 흔하디흔했다. 일용직에도 나섰지만 재기는 쉽지 않았다.<br/><br/> 당장 아이들 생활비와 학비가 다급한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 산와머니·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들이 손을 내밀었다. 당시 대부업 이자율은 연 60%대였다. 구제금융 사태 직후 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금리 상한이 아예 없어졌다가, 2002년 10월 대부업법 제정으로 금리 상한이 정해진 게 연 66% 수준이었다. 당시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6.9%였지만 그가 은행 문턱을 넘기는 어려웠다. <br/><br/>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급할 때 대부업체에 전화를 해봤어요. 당시에 1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30만원 떼고 줘요. 그리고 대출조건을 만드느라, 자기들이 유령법인을 세워놓고 직장인 등록을 해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만든 뒤 대출을 해줬어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몇번 갚다가 포기했던 것 같아요. 이자로 낸 돈만 원금은 넘어갈 거에요. 그 이후엔 그냥 추심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br/><br/> ㄱ씨는 이런 과정에서 정부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기회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몇 차례 통장이 압류되는 경험을 겪고 나니, 정식 금융거래를 할 길이 없었다. 자기 이름으로 월급계좌를 열어야 하는 제대로 된 직장엔 다닐 수 없게 된 셈이다. 앞서 2014년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개정 전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 연체 기록만 있어도 통장 거래를 막는 등 연체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많았던 탓이다.<br/><br/> 40대와 50대 내내 사실상 신용불량이란 ‘경제적 처벌’에 갇혀 취업을 못했던 ㄱ씨는 환갑을 넘어선 올해서야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 경비원 일자리다. ㄱ씨는 “월급이 180만원으로 괜찮은 데다 전임자가 70대 초반까지 자리를 지킨 전례가 있는 자리”라면서 “국민연금도 없는 처지인데 성실히 일해서 노후자금을 조금이라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br/><br/> ㄱ씨는 빚 추심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재계약이 안 될까 봐 두렵다고 했다. 현행 제도상 채무불이행(옛 신용불량) 기록은 최대 7년간만 유지되지만, 빚 추심은 계속 따라다닌다. “신용불량이었던 게 직장에 알려지면, 재계약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하고 싶다는 사람이 널렸는데 왜 저를 써주겠어요. 신용회복 상담도 받아봤지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렵고, 월급에서 얼마가 떼일지 몰라서 포기했습니다. 소액씩 나눠 갚기로 약정을 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리면 계속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애써 갚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니까요.” <br/><br/> 그는 노후에 자식들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누구는 돈 버는 자식도 있고, 월급도 나오는데 왜 빚을 안 갚냐고 하겠지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아비 빚을 갚으라곤 못 해요. 애들 대학 등록금도 딱 한 학기씩밖에 못 대줬고, 다들 학자금 대출로 어렵게 졸업했어요. 남은 나날 벌 수 있는 한 벌어서 집세도 내고 자식들 짐을 좀 덜었으면 합니다.”<br/><br/> 환갑 직후 암 수술까지 받았지만 일흔까지만 일하고 싶다는 그에게 지금껏 날아오는 채무 독촉은 20년 전 의료보험료 건을 포함해 총 4건, 5400만원 정도다. 대부업 채권만 3700만원인데 독촉장만 봐선 원금이 얼마인지조차 모른다. 이런 연체기록을 무덤까지 안고 가거나, 노후를 빚 청산과 맞바꾸는 것,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 정도뿐이다. <br/><br/> 정세라 기자 seraj

언론사: 한겨레-1-158.txt

제목: IMF때 쓰러져 약탈금융 수렁에…‘추심 유령’ 20년째 따라다녀  
날짜: 20170727  
기자: 정세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27000832001  
ID: 01101001.20170727000832001  
카테고리: 경제>취업\_창업  
본문: 서울 강서구 ㄱ씨(61) 월셋집에는 최근에도 독촉장이 어김없이 날아들었다. 380만원 원금에 1300여만원의 이자와 법적 조처 비용을 갚으라는 채무 독촉장으로, 빨간 직인이 찍힌 누런 봉투에 담겨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즈음에 생긴 빚이다. ㄱ씨가 운영하던 수출업체가 도산할 때 직원들 의료보험료가 두어 달 치 밀렸던 탓이다. 이 빚은 자그마치 20년째 그를 따라다닌다. 그는 1997년 당시 충남에서 직원 120명 정도를 두고 연매출 100억원을 올리는 중소 수출업체를 5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천막지·방수포 등을 생산해 100% 수출하는 업체로 잘 나갈 때는 연매출이 150억~200억원씩 나왔다. <br/><br/> 위기가 닥친 것은 그해 8월쯤이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여신을 무자비하게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신규 대출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대금이 들어와도 기존 대출을 회수한다면서 무조건 빼 가 버립디다. 그러면 자재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외국 거래처에서 주문은 넘치는데 제조를 할 수가 없고, 돈 흐름이 막히며 흑자 도산하는 상황으로 가버린 겁니다. 누구는 사업이 망해도 오너는 재산을 챙긴다 뭐한다 하는데,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났어요.”<br/><br/> 중고등학생인 딸들과 아내와 함께 생활하던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 그는 빚쟁이들을 피해 서울로 도망가고, 식구들도 친척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살던 집도 잃어버렸고, 선산도 날아가 버렸다.<br/><br/> 마흔이 넘은 나이에 신용불량 처지가 되고 보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긴 어려웠다. 당시 사업체가 도산하고 월급쟁이가 평생직장에서 쫓겨나는 사연은 흔하디흔했다. 서울에서 지인 사무실 일을 돕기도 했고 일용직에도 나섰지만 재기는 쉽지 않았다.<br/><br/> 당장 아이들 생활비와 학비가 다급한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 산와머니·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들이 손을 내밀었다. 당시 대부업 이자율은 연 60%대였다. 구제금융 사태 직후 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금리 상한이 아예 없어졌다가, 2002년 10월 대부업법 제정으로 금리 상한이 정해진 게 연 66% 수준이었다. 당시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6.9%,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9.6%이던 시절이었지만, ㄱ씨가 은행 문턱을 넘기는 어려웠다. <br/><br/> “애들 하고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급할 때 대부업체에 전화를 해봤어요. 당시에 1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30만원 떼고 줘요. 그리고 대출조건을 만드느라, 자기들이 유령법인을 세워놓고 직장인 등록을 해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만든 뒤 대출을 해줬어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몇번 갚다가 포기했던 것 같아요. 이자로 낸 돈만 원금은 넘어갈 거에요. 어차피 신용은 망가져서 은행 대출은 꿈도 못 꿨고, 그 이후엔 그냥 추심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br/><br/> ㄱ씨는 이런 과정에서 정부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기회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몇 차례 통장이 압류되는 경험을 겪고 나니, 정식 금융거래를 할 길이 없었다. 자기 이름으로 월급계좌를 열어야 하는 제대로 된 직장엔 다닐 수 없게 된 셈이다. 앞서 2014년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개정 전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 연체 기록만 있어도 통장 거래를 막는 등 연체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많았던 탓이다.<br/><br/> 40대와 50대 내내 사실상 신용불량이란 ‘경제적 처벌’에 갇혀 취업을 못했던 ㄱ씨는 환갑을 넘어선 올해서야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 경비원 일자리다. ㄱ씨는 “월급이 180만원으로 괜찮은 데다 전임자가 70대 초반까지 자리를 지킨 전례가 있는 자리”라면서 “국민연금도 없는 처지인데 성실히 일해서 노후자금을 조금이라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br/><br/> ㄱ씨는 빚 추심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재계약이 안 될까 봐 두렵다고 했다. 현행 제도상 채무불이행(옛 신용불량) 기록은 최대 7년간만 유지되지만, 빚 추심은 계속 따라다닌다. “신용불량이었던 게 직장에 알려지면, 재계약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하고 싶다는 사람이 널렸는데 왜 저를 써주겠어요. 신용회복 상담도 받아봤지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렵고, 월급에서 얼마가 떼일지 몰라서 포기했습니다. 이 나이에 소액씩 나눠 갚기로 채무조정 약정을 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리면 계속 갚을 길도 없어요. 그러면 조금씩 갚았던 게 아무 소용 없게 되니까요.”<br/><br/> 그는 노후에 자식들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누구는 돈 버는 자식도 있고, 월급도 나오는데 왜 빚을 안 갚냐고 하겠지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아비 빚을 갚으라곤 못 해요. 애들 대학 등록금도 딱 한 학기씩밖에 못 대줬고, 다들 학자금 대출로 어렵게 졸업했어요. 남은 나날 벌 수 있는 한 벌어서 집세도 내고 자식들 짐을 좀 덜었으면 합니다.”<br/><br/> 환갑 직후 암 수술까지 받았지만 일흔까지만 일하고 싶다는 그에게 지금껏 날아오는 채무 독촉은 20년 전 의료보험료 건을 포함해 총 4건, 5400만원 정도다. 대부업 채권만 3700만원인데 독촉장만 봐선 원금이 얼마인지조차 모른다. 이런 연체기록을 무덤까지 안고 가거나, 노후를 빚 청산과 맞바꾸는 것,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 정도뿐이다. <br/><br/> 정세라 기자 seraj

언론사: 한겨레-1-159.txt

제목: IMF때 쓰러져 약탈금융 수렁에…‘추심 유령’ 20년째 따라다녀  
날짜: 20170726  
기자: 정세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26235858001  
ID: 01101001.20170726235858001  
카테고리: 경제>취업\_창업  
본문: 서울 강서구 ㄱ씨(61) 월셋집에는 최근에도 독촉장이 어김없이 날아들었다. 380만원 원금에 1300여만원의 이자와 법적 조처 비용을 갚으라는 채무 독촉장으로, 빨간 직인이 찍힌 누런 봉투에 담겨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즈음에 생긴 빚이다. ㄱ씨가 운영하던 수출업체가 도산할 때 직원들 의료보험료가 두어 달 치 밀렸던 탓이다. 이 빚은 자그마치 20년째 그를 따라다닌다. 그는 1997년 당시 충남에서 직원 120명 정도를 두고 연매출 100억원을 올리는 중소 수출업체를 5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천막지·방수포 등을 생산해 100% 수출하는 업체로 잘 나갈 때는 연매출이 150억~200억원씩 나왔다.<br/><br/> 위기가 닥친 것은 그해 8월쯤이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여신을 무자비하게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신규 대출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대금이 들어와도 기존 대출을 회수한다면서 무조건 빼 가 버립디다. 그러면 자재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외국 거래처에서 주문은 넘치는데 제조를 할 수가 없고, 돈 흐름이 막히며 흑자 도산하는 상황으로 가버린 겁니다. 누구는 사업이 망해도 오너는 재산을 챙긴다 뭐한다 하는데,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났어요.”<br/><br/> 중고등학생인 딸들과 아내와 함께 생활하던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 그는 빚쟁이들을 피해 서울로 도망가고, 식구들도 친척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살던 집도 잃어버렸고, 선산도 날아가 버렸다.<br/><br/> 마흔이 넘은 나이에 신용불량 처지가 되고 보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긴 어려웠다. 당시 사업체가 도산하고 월급쟁이가 평생직장에서 쫓겨나는 사연은 흔하디흔했다. 서울에서 지인 사무실 일을 돕기도 했고 일용직에도 나섰지만 재기는 쉽지 않았다.<br/><br/> 당장 아이들 생활비와 학비가 다급한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 산와머니·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들이 손을 내밀었다. 당시 대부업 이자율은 연 60%대였다. 구제금융 사태 직후 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금리 상한이 아예 없어졌다가, 2002년 10월 대부업법 제정으로 금리 상한이 정해진 게 연 66% 수준이었다. 당시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6.9%,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9.6%이던 시절이었지만, ㄱ씨가 은행 문턱을 넘기는 어려웠다. <br/><br/> “애들 하고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급할 때 대부업체에 전화를 해봤어요. 당시에 1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30만원 떼고 줘요. 그리고 대출조건을 만드느라, 자기들이 유령법인을 세워놓고 직장인 등록을 해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만든 뒤 대출을 해줬어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몇번 갚다가 포기했던 것 같아요. 이자로 낸 돈만 원금은 넘어갈 거에요. 어차피 신용은 망가져서 은행 대출은 꿈도 못 꿨고, 그 이후엔 그냥 추심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br/><br/> ㄱ씨는 이런 과정에서 정부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기회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몇 차례 통장이 압류되는 경험을 겪고 나니, 정식 금융거래를 할 길이 없었다. 자기 이름으로 월급계좌를 열어야 하는 제대로 된 직장엔 다닐 수 없게 된 셈이다. 앞서 2014년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개정 전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 연체 기록만 있어도 통장 거래를 막는 등 연체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많았던 탓이다.<br/><br/> 40대와 50대 내내 사실상 신용불량이란 ‘경제적 처벌’에 갇혀 취업을 못했던 ㄱ씨는 환갑을 넘어선 올해서야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 경비원 일자리다. ㄱ씨는 “월급이 180만원으로 괜찮은 데다 전임자가 70대 초반까지 자리를 지킨 전례가 있는 자리”라면서 “국민연금도 없는 처지인데 성실히 일해서 노후자금을 조금이라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br/><br/> ㄱ씨는 빚 추심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재계약이 안 될까 봐 두렵다고 했다. 현행 제도상 채무불이행(옛 신용불량) 기록은 최대 7년간만 유지되지만, 빚 추심은 계속 따라다닌다. “신용불량이었던 게 직장에 알려지면, 재계약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하고 싶다는 사람이 널렸는데 왜 저를 써주겠어요. 신용회복 상담도 받아봤지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렵고, 월급에서 얼마가 떼일지 몰라서 포기했습니다. 이 나이에 소액씩 나눠 갚기로 채무조정 약정을 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리면 계속 갚을 길도 없어요. 그러면 조금씩 갚았던 게 아무 소용 없게 되니까요.” <br/><br/> 그는 노후에 자식들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누구는 돈 버는 자식도 있고, 월급도 나오는데 왜 빚을 안 갚냐고 하겠지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아비 빚을 갚으라곤 못 해요. 애들 대학 등록금도 딱 한 학기씩밖에 못 대줬고, 다들 학자금 대출로 어렵게 졸업했어요. 남은 나날 벌 수 있는 한 벌어서 집세도 내고 자식들 짐을 좀 덜었으면 합니다.”<br/><br/> 환갑 직후 암 수술까지 받았지만 일흔까지만 일하고 싶다는 그에게 지금껏 날아오는 채무 독촉은 20년 전 의료보험료 건을 포함해 총 4건, 5400만원 정도다. 대부업 채권만 3700만원인데 독촉장만 봐선 원금이 얼마인지조차 모른다. 이런 연체기록을 무덤까지 안고 가거나, 노후를 빚 청산과 맞바꾸는 것,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 정도뿐이다. <br/><br/> 정세라 기자 seraj

언론사: 한겨레-1-160.txt

제목: IMF때 쓰러져 약탈금융 수렁에…‘추심 유령’ 20년째 따라다녀  
날짜: 20170726  
기자: 정세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26183848001  
ID: 01101001.20170726183848001  
카테고리: 경제>취업\_창업  
본문: 서울 강서구 ㄱ씨(61) 월셋집에는 최근에도 독촉장이 어김없이 날아들었다. 380만원 원금에 1300여만원의 이자와 법적 조처 비용을 갚으라는 채무 독촉장으로, 빨간 직인이 찍힌 누런 봉투에 담겨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즈음에 생긴 빚이다. ㄱ씨가 운영하던 수출업체가 도산할 때 직원들 의료보험료가 두어 달 치 밀렸던 탓이다. 이 빚은 자그마치 20년째 그를 따라다닌다. 그는 1997년 당시 충남에서 직원 120명 정도를 두고 연매출 100억원을 올리는 중소 수출업체를 5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천막지·방수포 등을 생산해 100% 수출하는 업체였다.<br/><br/> 위기가 닥친 것은 그해 8월쯤이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여신을 무자비하게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신규 대출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대금이 들어와도 기존 대출을 회수한다면서 무조건 빼 가 버립디다. 그러면 자재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외국 거래처에서 오더는 넘치는데 제조를 할 수가 없고, 돈 흐름이 막히며 흑자 도산하는 상황으로 가버린 겁니다.”<br/><br/> 중고등학생인 딸들과 아내와 함께 생활하던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 그는 빚쟁이들을 피해 서울로 도망가고, 식구들도 친척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살던 집도 잃어버렸고, 선산도 날아가 버렸다.<br/><br/> 마흔이 넘은 나이에 신용불량 처지가 되고 보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긴 어려웠다. 당시 사업체가 도산하고 월급쟁이가 평생직장에서 쫓겨나는 사연은 흔하디흔했다. 일용직에도 나섰지만 재기는 쉽지 않았다.<br/><br/> 당장 아이들 생활비와 학비가 다급한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 산와머니·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들이 손을 내밀었다. 당시 대부업 이자율은 연 60%대였다. 구제금융 사태 직후 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금리 상한이 아예 없어졌다가, 2002년 10월 대부업법 제정으로 금리 상한이 정해진 게 연 66% 수준이었다. 당시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6.9%였지만 그가 은행 문턱을 넘기는 어려웠다. <br/><br/>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급할 때 대부업체에 전화를 해봤어요. 당시에 1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30만원 떼고 줘요. 그리고 대출조건을 만드느라, 자기들이 유령법인을 세워놓고 직장인 등록을 해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만든 뒤 대출을 해줬어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몇번 갚다가 포기했던 것 같아요. 이자로 낸 돈만 원금은 넘어갈 거에요. 그 이후엔 그냥 추심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br/><br/> ㄱ씨는 이런 과정에서 정부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기회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몇 차례 통장이 압류되는 경험을 겪고 나니, 정식 금융거래를 할 길이 없었다. 자기 이름으로 월급계좌를 열어야 하는 제대로 된 직장엔 다닐 수 없게 된 셈이다. 앞서 2014년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개정 전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 연체 기록만 있어도 통장 거래를 막는 등 연체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많았던 탓이다.<br/><br/> 40대와 50대 내내 사실상 신용불량이란 ‘경제적 처벌’에 갇혀 취업을 못했던 ㄱ씨는 환갑을 넘어선 올해서야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 경비원 일자리다. ㄱ씨는 “월급이 180만원으로 괜찮은 데다 전임자가 70대 초반까지 자리를 지킨 전례가 있는 자리”라면서 “국민연금도 없는 처지인데 성실히 일해서 노후자금을 조금이라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br/><br/> ㄱ씨는 빚 추심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재계약이 안 될까 봐 두렵다고 했다. 현행 제도상 채무불이행(옛 신용불량) 기록은 최대 7년간만 유지되지만, 빚 추심은 계속 따라다닌다. “신용불량이었던 게 직장에 알려지면, 재계약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하고 싶다는 사람이 널렸는데 왜 저를 써주겠어요. 신용회복 상담도 받아봤지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렵고, 월급에서 얼마가 떼일지 몰라서 포기했습니다. 소액씩 나눠 갚기로 약정을 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리면 계속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애써 갚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니까요.” <br/><br/> 그는 노후에 자식들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누구는 돈 버는 자식도 있고, 월급도 나오는데 왜 빚을 안 갚냐고 하겠지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아비 빚을 갚으라곤 못 해요. 애들 대학 등록금도 딱 한 학기씩밖에 못 대줬고, 다들 학자금 대출로 어렵게 졸업했어요. 남은 나날 벌 수 있는 한 벌어서 집세도 내고 자식들 짐을 좀 덜었으면 합니다.”<br/><br/> 환갑 직후 암 수술까지 받았지만 일흔까지만 일하고 싶다는 그에게 지금껏 날아오는 채무 독촉은 20년 전 의료보험료 건을 포함해 총 4건, 5400만원 정도다. 대부업 채권만 3700만원인데 독촉장만 봐선 원금이 얼마인지조차 모른다. 이런 연체기록을 무덤까지 안고 가거나, 노후를 빚 청산과 맞바꾸는 것,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 정도뿐이다. <br/><br/> 정세라 기자 seraj

언론사: 한겨레-1-161.txt

제목: [한겨레 사설] 담뱃값 다시 내리자는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  
날짜: 201707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26180834002  
ID: 01101001.20170726180834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4500원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는 방안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인 2015년 1월 담뱃값을 올렸던 걸 다시 원상복구 하자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공당이 세금 문제에서 2년 만에 태도를 싹 바꿔 ‘담뱃값 인상’을 없던 일로 하자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br/><br/>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렸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은 줄지 않고 세수만 늘어, 담배 세수는 지난해 5조원이 더 걷히면서 12조원을 돌파했다. 담뱃값 인상의 명분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서민들 호주머니 돈을 거둬들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담뱃값을 내리자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적극 나서 세금을 걷어놓고선 정권을 내놓자마자 선심 쓰듯 담뱃값을 내리자는 건 자가당착에 가깝다.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인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br/><br/>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주장은 정부여당의 초고소득자 증세에 맞불을 놓으려는 얄팍한 노림수라는 지적도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확장 재정을 추구하자, 감세안을 내놓음으로써 정부여당 흔들기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2년 전 자신들이 내놓은 명분이 허구였다는 사실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인 셈이다.<br/><br/> 담뱃값 문제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강력한 금연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다. 담뱃값을 다시 내리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span class='quot0'>담뱃값을 내리진 않지만 어르신과 저소득층 일부에 담배를 싸게 파는 쿠폰 등의 발행을 검토하겠다</span>”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선 당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암 치료 비용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br/><br/> 담뱃값 문제는 금연 정책과 연계해서 합리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략적으로 손바닥 뒤집듯 이랬다저랬다 할 사안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먼저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부터 고민해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언론사: 한겨레-1-162.txt

제목: 7월 26일 동정  
날짜: 2017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25202813001  
ID: 01101001.20170725202813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 최만식씨는 25일 부산 사하구 자택에서 3년 전 암으로 사별한 부인 서정남씨의 유언에 따라 1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최씨는 후두암·간암·당뇨합병증으로 손·발가락 10개를 자를 정도로 18년간 힘겹게 투병한 부인이 "<span class='quot0'>더 아픈 이웃을 위해 써달라</span>"고 남긴 돈이라고 전했다.<br/><br/> ⊙ 박용안 서울대 해양학과 명예교수는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44차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서 의장으로 당선됐다. CLCS는 연안국이 제출한 200해리 바깥 대륙붕 외측 한계에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 명예교수는 6월 CLCS 위원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하는 등 그간 위원회 활동에 대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br/><br/> ⊙ 박현종 bhc치킨 회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청주 지역을 방문해 수해복구 성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은 복구 활동 자원봉사단에 치킨 500마리를 지원했다.<br/><br/> ⊙ 최경호 육군 상사는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딸의 저축금과, 남은 치료비를 합친 200만원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조혈모세포 1차 이식 후 재발 등으로 2차 이식이 필요한 환자 4명에게 각 5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br/><br/> ⊙ 곽홍길 건원엔지니어링 회장은 25일 건축관 건립과 후배 건축인 양성을 위해 모교인 한양대에 1억원을 기부했다.

언론사: 한겨레-1-163.txt

제목: 치매를 유발하는 9가지 요인  
날짜: 20170721  
기자: 정의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21110813001  
ID: 01101001.2017072111081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3명의 치매 환자 중 1명은 자신의 두뇌건강을 보살폈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 최근 런던에서 열린 알츠하이머학회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는 청각손실, 교육부족, 흡연, 육체활동 부족 등 9가지 치매 유발 요인과 그 치매 발생율을 적시했다고 <비비시>(BBC)가 20일 보도했다. 이 연구는 학술지 <랜셋>에서도 발표된 국제 공조 연구이다.<br/><br/> 이 연구에 따르면,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청각 손실이다. 청각 손실은 약 9% 확률로 치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중동교육 미이수(8%), 흡연(5%), 우울증에 대한 조기 치료 실패(4%), 육체활동 부족(3%), 사회적 고립(2%), 고혈압(2%), 비만(1%), 당뇨(1%) 순이다.<br/><br/> 생활 속에서 대처 가능한 이런 치매 유발 요인들은 모두 35%이다. 치매를 유발하는 나머지 65%의 요인들은 현재로서는 대처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br/><br/> 연구자인 질 리빙스턴 런던유니버시티대 교수는 “<span class='quot0'>치매는 노년에 진단되나, 뇌의 변화는 보통 그 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지금 대처하는 것은 치매를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폭넓게 개선시킨다</span>”고 지적했다. 각국의 24명의 전문가가 작업한 이 연구는 생활습관 요인들이 개인들의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br/><br/> 이 연구는 뇌의 신경망 강화를 의미하는 ‘인지 유지력’을 구축하면 노년에 뇌손상에도 불구하고 뇌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지 유지력은 뇌 손상에 대한 저항력이다.<br/><br/> 연구자들은 또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치매 유발의 큰 요인이라며, 평생 동안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인지유지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 중년의 청각손실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를 못하게 해서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유발해, 치매 유발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br/><br/> 이 연구의 또다른 핵심 메시지는 심장에 좋은 것은 두뇌에도 좋다는 것이다. 금연,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고혈압 및 비만 치료는 모두 치매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암 발생 위험을 줄인다.<br/><br/> 연구자들은 식습관이나 알콜이 치매에 정확히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면서도 두 요인은 중요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br/><br/> 현재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는 4700만명으로 추정된다. 2050년이 되면 치매 환자는 1억3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br/><br/> 정의길 선임기자 Egil

언론사: 한겨레-1-164.txt

제목: ‘동래야류 인간문화재’ 김경화씨 별세  
날짜: 2017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20225836001  
ID: 01101001.20170720225836001  
카테고리: 지역>부산  
본문: 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보유자인 김경화씨가 20일 오전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65.<br/><br/>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예대에서 연극을 전공했고, 72년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에 가입하며 동래야류와 긴 인연을 맺었다. 경기도의 봉산탈춤을 먼저 접한 뒤 민족의 원형 연극을 찾다가 부산에서 150년 전통의 동래야류를 만나 빠져들었다. 이수자와 전수조교를 거친 그는 2008년 동래야류 보유자(기·예능: 모양반)로 인정받았다.<br/><br/> 동래야류는 부산 동래 지방에서 정월 대보름 저녁에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고 풍작을 기원하던 탈춤이다. 문둥이춤, 양반과 말뚝이의 재담, 영노춤, 할미와 영감춤 등으로 구성된다. 고인은 ‘양반 과장'에서 개탈을 쓰고 등장하는 ‘모(毛)양반’의 역으로 유명하다.<br/><br/> 그는 극단 ‘맥'과 인형극단 ‘까치'를 창단하고 지난 1월 나온 <모함>까지 희곡집 다섯 편을 펴내는 등 연극 활동에도 참여했다. 부산연극협회장, 부산예총 사무처장과 기획위원,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연출가로도 인정받은 그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제작단 제작감독,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 사무국장,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 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보존회장 등을 지냈다.<br/><br/> 유족으로는 부인 신영식씨와 1남1녀가 있다. 빈소는 부산 침례병원, 발인은 22일 오전 8시다. (051)923-1334. <br/><br/> 김경애 기자

언론사: 한겨레-1-165.txt

제목: 아픈 사람이 잃는 것과 얻는 것  
날짜: 20170720  
기자: 이유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20194828002  
ID: 01101001.20170720194828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아픈 몸을 살다 아서 프랭크 지음, 메이 옮김/봄날의책·1만3000원 <br/><br/> 서른아홉, 앞날 창창한 사회학자였던 그는 달리기를 하다가 돌연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이듬해에는 암이 발병했다. <br/><br/> “<span class='quot0'>몸이 고장 나면 삶도 고장 난다.</span>” 캐나다 캘거리 대학 명예교수인 지은이 아서 프랭크(71)는 <아픈 몸을 살다>에서 한창 때 꺾여버린 자신의 질병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 자신 암환자이자 의료사회학자로서 현장연구하듯 “삶의 모든 측면을 건드”리는 질병 문제를 들여다본 것이다. 진단과 치료, 진료비와 의료시스템, 병과 낙인, 환자·의료진·보호자의 관계, 아픈 사람이 느끼는 절망감과 상실감을 섬세하게 밝히면서도 질병 자체가 “위험한 기회”일 수 있다는 점까지 아울러 설명한다.<br/><br/> 1991년 발간된 책의 문제의식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의학적 언어로 측정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질환’(disease)을 다루는 의료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개인이 감내하는 ‘질병’(illness) 경험은 크게 변하지 않은 탓일 것이다. 거대한 종양이 있다고 말하는 의사의 기계적인 음성을 들은 순간을 지은이는 이렇게 표현한다. “<span class='quot0'>내 몸은 바닥이 없는 모래 수렁으로 변했고, 나는 자신 안으로, 질병 안으로 가라앉고 있었다.</span>”<br/><br/> 수술과 거듭된 화학요법치료를 견디며 환자인 자신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아내도 지쳐갔다. 아픈 몸을 다루는 무대의 주인공은 의료진이었고 환자의 생애사는 병원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픈 몸만 똑 떼어 기계적으로 대상화하는 의료시스템, 병자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비난하는 주변 사람들, ‘암을 부르는 성격’이 따로 있다며 감정이나 생활방식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손가락질하는 사회적 낙인도 어려움을 더했다.<br/><br/> 더욱이 암환자들은 분노와 절망감을 억누르고, 용감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았다. 왜 화를 내서는 안되는가? 왜 아픈 사람은 사력을 다해 명랑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가? 지은이는 이런 환경과 조건들이 환자가 주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치러야 하는 ‘거래’의 일종이라고 본다. “힘든 순간에 필요한 것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다. 아픈 사람의 고통은 치료될 수 있든 없든 인정되어야 한다.” 아픈 사람과 돌보는 사람을 죄책감 안에 가두고 “진짜 위험을 지속시키는 사회”에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병듦과 고통을 ‘비정상’으로 여기는 은유적 관념, 노화·질병·장애·죽음을 은폐하고 외면하는 사회적 시각에도 이의를 제기한다.<br/><br/> 질병을 경험하면서 자신도, 세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는 지은이는 주변을 천천히 집중해서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격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때로 반짝이는 햇살을 느끼고 비를 맞으며 몸의 경이로움을 인식한다. 배우자의 돌봄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가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한다. 나아가 아픈 사람과 돌보는 사람의 경험은 소중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설명한다. 아픈 사람들은 표현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쌍방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고통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공유함으로써 인간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연결돼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span class='quot0'>질병은 이 ‘우리 이상인 우리’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깨달음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span>” <br/><br/> 이유진 기자 frog

언론사: 한겨레-1-166.txt

제목: 아프니까 공감한다  
날짜: 20170720  
기자: 이유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20185829001  
ID: 01101001.2017072018582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오래전 배운 명상법 가운데 지금도 잘 이해되지 않는 건, 병원에 갔을 때 다른 환자들이 나보다 먼저 나을 수 있도록 쾌유를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픈 건 나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br/><br/> 삶과 죽음, 환자와 병원에 대한 책들이 나왔습니다. <아픈 몸을 살다>(아서 프랭크 지음, 메이 옮김, 봄날의책)는 심장마비와 암을 겪은 환자이자 의료사회학자로서 지은이가 경험하고 관찰한 질병 이야기를 적은 것이고 <지독한 하루>(남궁인 지음, 문학동네)는 삶의 위기를 만나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을 치료해온 의사의 기록입니다.<br/><br/> 지은이들의 위치가 다른 만큼 내용도 차이가 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은 차갑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통째로 외면하고 병에 걸린 몸만 수치화·계량화하는 의료진을 보면서 아픈 사람은 무릎 꺾이는 좌절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반면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의 폭언과 난동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지만 병원 내 폭력에 관한 인식이 제자리걸음이라며 개탄하기도 하죠. <br/><br/> 하지만 둘은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인간은 깊은 절망을 겪으면서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비로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아프고 절박하다며 남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부당한 일까지 무조건 참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닐 겁니다. 아픔을 치유하려면 때론 폭력과 불통에 맞선 저항과 비판도 잇따라야 할 테니까요. 유발 하라리의 명상 스승 고엔카의 가르침을 담은 <고엔카의 윗빳사나 명상>(윌리엄 하트 지음, 담마코리아 옮김, 김영사)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무장한 권력 앞에선 때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맨주먹의 용기와 현실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br/><br/>이유진 책지성팀장 frog

언론사: 한겨레-1-167.txt

제목: 하루 ‘한 잔’ 맥주가 건강에 좋은 10가지 이유  
날짜: 20170720  
기자: 김양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20142855001  
ID: 01101001.201707201428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시원한 맥주가 끌리는 계절. 한 두잔의 맥주는 건강에도 좋다. 뇌줄중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수많은 ‘맥덕’(맥주덕후)을 위한 ‘맥주가 건강에 좋은 10가지 이유’를 영국 <텔레그래프>가 최근 소개했다. 물론 조건은 ‘하루 맥주 1~2잔’(1000㎖ 안팎)이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 <br/><br/> <br/> <br/><br/> <br/><br/> 1. 맥주는 신장 결석의 위험을 낮춘다<br/><br/> 지난해 핀란드 헬싱키 국립공중보건소의 테로 히르본 박사 연구팀은 “중년 남성 2만7000명을 상세하게 조사한 결과 하루 소비되는 맥주 1병 당 신장 결석 발병 위험을 4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맥주에 함유된 물과 알코올이 소변 흐름을 증가시키고 소변을 묽게 해 돌(결석)의 형성을 줄여준다. 또한 알코올은 신장 결석의 주요 성분인 칼슘의 배설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br/><br/> <br/><br/> 2. 맥주는 심장마비로부터 당신을 보호한다 <br/><br/> 펜실베니아 스크랜턴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흑맥주 등이 심장 마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콜레스테롤 및 지방성 물질 때문에 동맥이 막혀 심장마비가 일어나는데 조 빈슨 박사는 2000명을 연구한 결과 맥주가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br/><br/> <br/><br/> 3. 맥주는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킨다<br/><br/> 하버드 의과대학과 미국 뇌졸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적당량의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최대 50%의 확률로 뇌졸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허혈성 뇌졸중은 혈액 응고가 혈액과 뇌의 흐름을 차단할 때 발생하는데 맥주를 마시면 동맥이 유연해지고 혈류가 아주 좋아진다. 결과적으로 혈전이 형성되지 않으며 뇌졸중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br/><br/> <br/><br/> 4. 맥주는 당신의 뼈를 강화시킨다<br/><br/> 맥주는 뼈의 성장을 촉진하는 높은 수준의 규소를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균형’이 중요하다. 메사추세츠 터프스대학의 연구진은 “<span class='quot0'>하루에 한 두잔의 맥주를 마시면 골절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span>”고 밝혔다. 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뼈가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적당한 양의 맥주가 당신의 뼈와 품위를 지켜줄 수 있다. <br/><br/> <br/><br/> <br/><br/> <br/><br/> 5. 맥주는 당뇨병의 기회를 감소시킨다<br/><br/> 2011년 하버드대학의 연구진들은 매일 한 두잔의 맥주를 마시는 중년 남성의 경우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5%까지 줄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버드 공중 보건 대학의 마이클 주스텐 객원교수는 3만8000명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알코올 함량이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맥주는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인 수용성섬유의 괜찮은 공급원이 되기도 한다. <br/><br/> 6. 맥주는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도를 줄여준다<br/><br/> 1977년 36만5000명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맥주를 마시는 사람은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병 또는 치매의 발병 가능성을 23%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정확한 이유는 안 밝혀졌으나 맥주가 뇌 혈류와 뇌 대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맥주에 함유된 실리콘 또한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중 하나인 알루미늄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br/><br/> <br/><br/> 7. 맥주는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다<br/><br/> 맥주는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에일, 라거, 스타우트 등의 맥주는 뇌에서 의사가 불면증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화합물인 도파민의 생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디애나 의과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맥주를 시음하면 두뇌의 도파민이 증가해 술꾼이 차분하고 편안해진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맥주의 양은 15㎖. 즉 한 스푼(!)이다. <br/><br/> <br/><br/> <br/><br/> 8. 맥주는 백내장을 멈출 수도 있다<br/><br/> 맥주를 적당량 마시면 눈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웨스턴 온타리오대학의 연구진은 맥주, 특히 에일과 스타우트에서 발견되는 산화방지제가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백내장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세포의 일부인 미토콘드리아가 눈의 바깥 렌즈에 손상됐을 때 형성되는데 산화방지제는 이 손상으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준다고 한다. <br/><br/> <br/><br/> 9. 맥주는 암을 치료할 수도 있다<br/><br/> 맥주가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 아이다호대학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지난 1월 미국화학학회 전체회의에서 연구자들은 맥주의 주요 성분이 암 및 염증성 질환과의 싸움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한 결과를 발표했다. 홉에서 발견되는 후물론과 루플론이라고 불리는 산은 세균의 성장과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암 치료제의 활성제 개발을 위해 이 화합물을 추출하거나 합성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br/><br/> <br/><br/> <br/><br/> <br/><br/> 10. 맥주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br/><br/> 일반적으로 맥주를 마시면 배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오레곤 주립대 연구진은 맥주로 몸무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연구진은 올해 초 연구를 통해 흔히 홉으로 불리는 맥주의 화합물이 비만, 혈압 상승, 혈당 증가, 고밀도 지단백질 등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맥주의 기적을 느끼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맥주를 마셔야 한다. 맥주로 살을 빼려다가 건강만 해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고로 맥주로 살을 빼겠다는 생각은 접는 게 낫다. <br/><br/> 김양희 기자 whizzer4

언론사: 한겨레-1-168.txt

제목: “류샤오보 사망, 민주주의 국가들도 책임”  
날짜: 20170719  
기자: 전정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19195847001  
ID: 01101001.20170719195847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류샤오보 사망의 주요 책임은 중국에 있다. 하지만 할 일 안 한 (민주주의 국가) 정부들도 류샤오보의 상황에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눈을 뜨고 중국의 양심적 반체제 인사가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었다. 그의 아내 류샤를 구출하는 데도 실패한다면 세상을 뜬 류샤오보에게 미안함을 느껴야 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다 책임이 있다.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다.”<br/><br/> 1989년 중국 천안문 시위의 학생 대표였던 우얼카이시(49)는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한 기자회견에서 “선생님이자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류샤오보의 죽음을 막지 못한 국제사회를 질타하며 열변을 토했다. 당시 베이징사범대 학생으로 리펑 총리와 면담하면서 거침없이 발언해 세계적 주목을 끈 28년 전 열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대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우얼카이시는 국경없는기자회 명예이사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했다.<br/><br/> 우얼카이시와 동료들은 중국 정부가 ‘류샤오보가 위중하다’고 발표했을 때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천안문 시위의 또다른 학생 대표로 대만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왕단 등과 함께 류샤오보의 임종과 류샤의 신변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대만 국회에 요청해, 류샤오보가 대만에서 치료받게 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까지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으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전 류샤오보가 세상을 떠났다.” <br/><br/> 우얼카이시는 “천안문 사태 이후 28년 세월에서 가장 슬펐다”고 참담한 심정을 표현했다. 그는 “류샤오보는 암 말기로 숨지기 3주일 전에야 가석방돼 치료를 받았고, 의료진을 만나 자유로운 국가에서 죽고 싶다는 마지막 희망을 말했다”며 “그의 사망은 (중국의 방치에 의한) 암살이라는 단어 이외에 어떤 단어로도 적당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br/><br/> 류샤오보의 동료들은 이제 류샤의 가택연금 해제와 해외 출국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우얼카이시는 “서방 국가들은 경제적 피해를 입을까봐 중국을 직접 압박하지 못한다”며 “시민단체들이 선봉에 서서 공개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에 촉구를 하면, 지도자들이 (여론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류샤를 출국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br/><br/> 그는 대만이나 미국 등에서 류샤오보를 추억할 수 있는 추모비 건립과 추모거리 조성, 추모일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얼카이시는 “중국 정부는 류샤오보를 두려워한다”며 “중국엔 수장이라는 풍속이 없는데, 류샤오보를 추모할 곳이 생기는 걸 막고 싶어 풍속이라고 둘러대고 바다에 뿌린 것”이라고 꼬집었다.<br/><br/> 우얼카이시는 천안문에서 각별했던 류샤오보와의 추억도 털어놨다. 미국에 있던 류샤오보는 1989년 4월 천안문 시위가 시작되자 급거 귀국했다. 시위가 무력으로 진압된 6월4일까지 우얼카이시와 늘 함께했다. 우얼카이시는 “류샤오보는 당시 학생운동의 중요한 고문 역할을 했다”며 “학생 지도부가 외친 구호들도 류샤오보가 직접 귀엣말로 전해준 것”이라고 회고했다. 학생들이 천안문에서 가장 많이 외친 ‘화평이성’(평화적이고 이성적인 시위) 역시 류샤오보한테서 나왔다고 했다. 우얼카이시는 “전국 수백개 도시에서 수천만명이 동참한 큰 규모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시위가 폭력적, 비이성적으로 흐르면 사상적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우려됐다”며 “류샤오보는 (천안문) 운동 초기에 학생들이 잘못하지 못하게 하는 선생님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br/><br/> 이날 ‘탈진실 시대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국경없는기자회 회견에는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과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 명예이사 및 김주언 한국기자협회 고문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류샤오보의 죽음을 ‘민주주의 정부(국제사회)의 나약함’ 탓으로 돌리며 살아남은 류샤를 위해서라도 국제사회가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란의 인권변호사인 에바디는 “<span class='quot0'>우리의 의무는 류샤오보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전정윤 기자 ggum

언론사: 한겨레-1-169.txt

제목: [시론] 합리적 의심을 말살하는 검사들 / 이재승  
날짜: 201707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19182853001  
ID: 01101001.20170719182853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br/> 1991년 5월 서강대에서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투신하며 남긴 유서로 인해 운동권은 도덕적 치명상을 입었다. 검찰은 어떤 시인이 말한 죽음의 굿판 프레임으로 전쟁을 완성하였다. 재판 결과 강기훈은 유서를 대신 써주고 동료의 죽음을 방조한 비정한 인물로 전락하였다. 이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기까지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였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검찰의 대필조작 사건임을 밝히고 재심을 권고하였다. 2015년 대법원은 강기훈씨에게 마침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사이 강기훈의 부모는 한을 품고 스러져갔고 본인도 옥살이 후 암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br/><br/> 이제 죄와 책임을 계산해야 할 시간이 왔다. 2017년 7월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기훈씨가 조작사건에 관여한 검사와 감정인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감정인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작의 핵심인 검사들에게는 고의나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에서 검사에게 책임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이 있다는 말인가! 이 판결이 선배 법률가들에 대한 동업자적 배려의 결과가 아닌지 의문을 가진다.<br/><br/> 실제로 재판에 관여한 법률가들이 잘못된 판결을 이유로 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독일에서도 법을 왜곡하여 부정의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을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있지만 동료 법조인들을 상대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판사들은 전문용어의 안개 속에서 법조인의 책임을 마사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고의와 중과실이 바로 그러한 장애물로 작동하였다.<br/><br/> 강기훈 사건은 검사의 과오와 판사의 오판이 빚어낸 불행이 아니라 정권을 구하고 운동권을 파괴하기 위해 정치적 각본에 따라 진행된 국가범죄였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이 체포감금죄의 교사범이나 간접정범이라면, 허위감정을 한 감정인은 종범이고 판사들은 정범이나 책임 없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 <br/><br/> 어쨌든 판사에게는 오판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이와 같은 사건에서 검사의 고의는 피할 수 없다. 그는 인과관계의 일부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총연출자이기 때문이다. 운동권을 상대로 한 검찰의 성전에서 검사에게는 고의를 초과하는 적대성 의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강기훈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법정에 현출하지 않거나 유리한 증거를 불리한 증거로 둔갑시키는 행위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는 이러한 적대성의 부수 행태들이다.<br/><br/> 이 사건에서 검사의 모든 행태는 공직자의 객관의무를 위반한다. 잘못된 범죄 프레임과 양립할 수 없는 증거들이 수차례 나왔는데도 검찰은 강기훈을 자살관여죄로 몰고 갔다. 검찰은 강기훈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거나 유야무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법원의 오판을 유도하였다. 검사가 자신의 확신에 따라 직무에 충실하게 행동했으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검사는 확신범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의도에 영합하며 범죄적 확신을 추구하는 확신범 검사를 원치 않는다. <br/><br/> 이번 판결은 모든 합리적 의심을 말살하고 그릇된 범죄적 프레임을 관철시킨 검사를 면책시켰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무엇인가? 공직자의 책임을 냉정하게 추궁하는 법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어쨌든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조작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의 지향과 행위를 정확하게 포착하기를 기대해 본다.

언론사: 한겨레-1-170.txt

제목: 빠르다고 다 빠른 것은 아니다…볼끝 좋은 투수는?  
날짜: 20170719  
기자: 김양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19104824001  
ID: 01101001.20170719104824001  
카테고리: 스포츠>야구>한국프로야구  
본문: 투수의 손 끝을 떠나 포수 미트로 날아가는 공. 초속 150㎞가 찍혀도 통타 당하기 쉽고 초속 140㎞여도 타자들의 방망이는 헛돈다. ‘종속’ 때문이다. 타자는 결국 홈플레이트를 통과하는 순간의 공을 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일언 엔씨(NC) 투수코치는 “<span class='quot0'>타자는 공을 예측하고 치는데 초속과 종속 차이가 많이 나면 그만큼 타자가 예측하기 쉽다</span>”고 말했다. 차명석 <엠비씨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span class='quot1'>국내 선수들 중에는 초속, 종속 차이가 15㎞가 넘는 선수들이 많은데 초속과 종속 차이가 10㎞ 안팎이면 아주 좋다</span>”고 말했다. <br/><br/> 한국야구위원회(KBO) 공식기록업체이자 스포츠 통계분석 전문회사인 스포츠투아이 자료에 의하면 17일 현재 규정이닝을 채운 선수들 중 속구(투심, 커터, 싱커 포함) 초속이 제일 빠른 선수는 헨리 소사(LG)다. 소사의 속구 초속은 평균 149.14㎞에 달한다. 종속(136.12㎞) 또한 제일 빠른데 초속, 종속 차이는 13.03㎞다. 홈플레이트 부근에서 속도가 꽤 줄어드는 편이다. <br/><br/>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메릴 켈리(SK)다. 켈리는 속구 초속 순위에서는 3위(145.99㎞)지만 종속 순위는 2위(135.21㎞)에 올라 있다. 초속과 종속 차이가 10.78㎞밖에 되지 않아 초속 순위 2위(147.10㎞)인 더스틴 니퍼트(두산)를 종속에서는 앞선다. 니퍼트의 종속은 134.12㎞로 초속과는 12.98㎞ 차이가 난다. 켈리의 공에 좀 더 힘이 실린다고 할 수 있다. <br/><br/> 켈리의 경우 커브의 초속, 종속 차이 또한 크지 않다. 커브 초속 1위(128.78㎞)인데 종속 또한 1위(119.82㎞)로 그 차이가 8.96㎞에 불과하다. 커터·체인지업이 주무기인 켈리는 “<span class='quot2'>올해 커브 제구가 좋아졌고 각도 예리해졌다</span>”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최일언 코치는 “구속이 느린 변화구의 초속, 종속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공이 홈플레이트에서 빠르게 휜다는 뜻도 된다”라고 설명했다.<br/><br/> 규정이닝을 채우지 못하는 구원 투수들 중에는 암 투병 끝에 그라운드로 복귀한 원종현(NC)이 속구 평균 초속 147.93㎞의 공을 뿌린다. 종속은 135.60㎞. 구원왕을 향해 달려가는 임창민(NC)의 속구는 초속 142.71㎞, 종속 130.63㎞의 속도를 보인다. 롯데 마무리 손승락은 초속(142.11㎞)과 종속(132.38㎞) 차이가 9.78㎞에 불과하다. 눈여겨볼 선수는 5월 이후 삼성 마무리를 꿰찬 장필준이다. 장필준은 초속 평균 144.25㎞의 속구를 던지는데 종속 또한 133.71㎞로 구원 부문 상위 5명 마무리 투수들 중 가장 빠른 종속을 자랑한다. <br/><br/> 시범경기 동안 시속 157㎞의 공을 던져 야구계를 놀라게 한 한승혁(KIA)의 경우 평균 초속은 151㎞에 이른다. 종속(139.4㎞) 또한 꽤 빠르다. 제구만 보완된다면 타자를 옴짝달짝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br/><br/> 최일언 코치는 “종속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공이 회전하면서 타자 앞으로 계속 살아온다는 뜻”이라며 “하체의 힘이 낭비없이 제대로 공에 전달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하체 힘 전달뿐만 아니라 마지막 손끝에서 어떻게 공에 회전을 주느냐에 따라 종속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선수들이 자신에게 맞는 그립을 잘 찾아서 회전을 많이 줄 수 있는 릴리스 포인트를 계속 연구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br/><br/> 김양희 기자 whizzer4

언론사: 한겨레-1-171.txt

제목: “아내는 말기암 고통에도 밤새 논문 쓰던 ‘투철한’ 학자”  
날짜: 20170717  
기자: 강성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17210906001  
ID: 01101001.20170717210906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짬】 고 사진실 교수 유고전집 펴낸 주형철 대표<br/><br/> <br/><br/> “아내는 말기암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도 밤새워 논문을 썼죠. 소명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학자였어요.”(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 “그는 광화문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축제를 꿈꿨어요. 살아 계셨으면 지금쯤 광화문 축제판을 만들었을 겁니다.”(최원오 광주교대 국어교육과 교수)<br/><br/> 2년 전 여름 만 50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뜬 고 사진실 전 중앙대 전통예술학부 교수 얘기다. 서울대 국문학과 84학번인 고인은 같은 과 대학원 석사를 거쳐 박사를 딴 지 2년 만인 1999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6년 뒤인 마흔살 때 말기암 판정을 받았지만 10년을 더 투병했다.<br/><br/> 최근 사 교수의 저작집이 <전통연희 시리즈>(태학사 펴냄)란 이름으로 출판됐다. 고인의 남편 주 대표가 발간을 제안하고, 대학 1년 후배인 최 교수가 흔쾌히 편찬의 수고로움을 떠안으면서 유고들이 빛을 보게 됐다. 전 9권 가운데 전통연희와 관련된 문화콘텐츠 개발 수업 자료집이 두 권이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br/><br/> ‘16년 투병’ 아내 사 교수 2년전 떠나 영화 ‘왕의 남자’ 원작 사료 제공 ‘유명’ 고인의 대학 후배 최원오 교수와 함께 ‘전통연희 시리즈’ 유고전집 9권 펴내<br/><br/> <br/><br/> 서울대 동문 선후배로 “첫눈에 반해” 대기업 대표 그만두고 ‘간병 사부가’<br/><br/> <br/><br/> 오랜 기간 병마와 싸우면서도 사 교수는 만만치 않은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한국의 전통연극을 전공한 그는 생전 펴낸 두 권의 저서(<한국연극사 연구>, <공연문화의 전통 악·희·극>)에서 고려부터 조선 시대까지 궁과 시정 등의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의 연희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런 노력은 탈춤이나 판소리 정도로 치부되는 한국의 전통공연에 대한 통념을 깨부수는 데 기여했다. 궁중 광대 공길과 장생의 이야기로 인기를 끌었던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이 사 교수의 강의노트에서 출발한 것은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2008년 국립국악원이 광화문 앞 전통축제 ‘산대희’를 되살려 공연한 것도 그가 열정적으로 파고들었던 산대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조선 시대 원행 나갔던 임금의 환궁 행렬이 광화문에 도달하면 거대한 산대가 눈앞에 나타났다. 산을 본떠 만든 가설 공간인 산대는 춤과 노래, 놀이 등 종합예술 연희가 펼쳐지는 무대이면서 동시에 무대 배경이었다. 선조 때는 광화문 좌우에 모두 8개의 산대를 세워 사계절 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br/><br/> 사 교수는 우리 전통연극을 악·희·극의 갈래로 나눠 셋이 경쟁하며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발전했다는 학설을 새로 제시하기도 했다. 악은 노래, 희는 놀이, 극은 이야기가 중심인데, 정재와 탈춤, 판소리가 악·희·극의 대표적인 공연 양식이다. 그는 전통연희 연구가 주로 ‘희’에만 치중했고, 근대극 연구는 ‘극’ 중심이었다면서, 셋을 모두 균형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br/><br/> “아내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엄청난 공연문화 전통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아내의 꿈은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한국연희사를 쓰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연극사까지 쓰고 싶어했죠. 준비를 많이 했는데….”<br/><br/>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83학번으로 사 교수의 1년 선배인 남편 주 대표는 “직장 다닐 때 서울대 도서관에 갔다가 매점에서 대학원을 다니던 아내를 우연히 보고 한눈에 반했다. 그 하늘빛 눈이 너무 매력적이었다”고 추억했다.<br/><br/> 주 대표는 40대 초반에 직원 2천명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사장을 지낼 정도로 잘나가던 경영인이었다. 아내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회사를 그만두고 1년가량 전북 무주로 내려가 간병을 했다.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출신인 사 교수는 노래 부르기를 무척 좋아했다. 2013년 부부는 한겨레 평화의 나무 합창단 오디션(6기)을 통과해 알토와 베이스로 화음을 맞추기도 했다. 그가 2년 전 서울시 산하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에 공모한 것도 아내의 권유 때문이었다. 아내 임종 한달 전쯤 임기 3년의 대표직에 취임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돈의 가치만 추구하지 말고, 사람과 사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을 하면 어떻겠느냐고요. 그 충고를 따랐지요.”<br/><br/> 그는 아내가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방문교수 시절에 함께 미국의 박물관을 찾아다녔던 기억을 떠올렸다. “피보디박물관에서 아내가 한국 전통공연 그림을 찾아내고 ‘내 생각이 맞았다’며 무척 기뻐했어요. 한국에 엄청난 공연 문화가 있었다는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주는 자료였거든요. 서울 도심에서 빛으로 꾸민 축제 조형물을 볼 때마다 산대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는 전집을 본 공연기획자들에게서 아내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보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br/><br/> “사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만 자족하지 않았어요. 공부가 다시 현대 문화콘텐츠로 재생산되는 데 많은 신경을 썼어요. 또 이전에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주목하지 않은 분야를 개척한 학자입니다. 그가 그렸던 로드맵에 비춰 보면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후학들이 이어받아야겠지요.”(최원오 교수)<br/><br/> 최 교수는 오는 12월 부산교대에서 열리는 한국공연문화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전통공연 문화와 교육’을 주제로 사 교수의 연구 업적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br/><br/> 강성만 선임기자 sungman

언론사: 한겨레-1-172.txt

제목: ‘2·3차 협력사 지원’ 대기업 움직이나  
날짜: 20170717  
기자: 이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17181856001  
ID: 01101001.20170717181856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엘지(LG)디스플레이가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2·3차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재벌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2·3차 협력사 지원방안을 챙겨보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가운데, 대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인지 주목된다. <br/><br/> 엘지디스플레이는 17일 기존 1차 협력사 위주의 금융·기술·의료복지 분야 상생프로그램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1차 협력사 지원을 위한 400억원 규모의 상생기술협력자금을 1000억원으로 늘려 2·3차 협력사에도 금융 지원을 한다. 2·3차 업체가 설비투자·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엘지디스플레이에 직접 신청하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br/><br/> 또 엘지디스플레이는 5105건의 특허를 2·3차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개하고 유·무상 양도한다고 밝혔다. 의료복지 지원도 폭을 훨씬 넓혔다. 암이나 희귀질환 등 포괄적 상관성에 기반을 둔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 엘지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2·3차 협력사 직원에게도 자사 임직원과 차별 없이 의료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엘지디스플레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상생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껴왔는데, 새 정부 기조도 협력사 지원을 강조해 시기가 맞아떨어졌다</span>”고 말했다.<br/><br/> 엘지디스플레이의 상생협력이 주목받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3일 4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span class='quot1'>1차 협력사는 개선됐지만 아직 크게 미흡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기업 간) 거래조건과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상위 그룹이 자발적으로 2차·3차 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달라</span>”고 당부했다.<br/><br/> 재벌들은 새 정부의 메시지를 읽는 중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새 정부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고, 우리도 2·3차 협력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임을 안다</span>”며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쪽은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대신 6월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물품대금으로 어음 대신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었다고 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일부가 아닌 모든 반도체 협력사에 상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했다.<br/><br/> 하지만 이런 협력사 지원 방식이 소득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10대 그룹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수출 대기업은 국외에서도 납품을 받아 납품단가 현실화의 기준을 가늠하기 어려워, 우선 간접적으로 협력사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3'>정부도 협력사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임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span>”고 했다. <br/><br/>이완 기자 wani

언론사: 한겨레-1-173.txt

제목: 주요국들 류샤오보 사망에 애도 속 ‘수위 조절’  
날짜: 20170714  
기자: 정의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14175812002  
ID: 01101001.20170714175812002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류샤오보의 사망을 놓고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반응들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지만, 중국 정부와의 갈등은 피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br/><br/> 중국과 가장 각을 세워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류샤오보의 사망을 애도하면서도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비난을 삼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성명에서 “<span class='quot0'>트럼프 대통령이 류샤오보의 죽음을 알고 깊이 슬퍼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대통령이 류샤오보의 부인 류샤와 가족, 친구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했다</span>”고 밝혔다. 성명은 “류샤오보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데 삶을 바쳤다”고 평가하면서도, 그의 해외 치료가 불발된 것을 비판하거나 부인의 가택연금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span class='quot1'>류샤의 희망에 따라 그를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어주고 중국을 떠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span>”고 밝혔다.<br/><br/>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그는 내 친구다. 매우 존경한다”며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북핵이나 무역 등 현안을 놓고 한 말이지만, 류샤오보의 사망 직후 나온 발언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br/><br/> 반면 미국에 비해 중국과의 관계를 증진해오던 유럽 주요국들은 중국 당국에 책임을 묻는 반응을 보였다. 류샤오보의 망명 후보지로 거론됐던 독일의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span class='quot2'>암이 더 빨리 발견될 수 없었다는 것에 의문이 있고,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고 납득할 만한 답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span>”며 그의 이송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br/><br/>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도 류샤오보의 해외 치료를 막은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프랑스도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평화적 투쟁을 해온 이 지성인은 미래 세대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br/><br/> 역사 문제를 놓고 대립해온 일본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3'>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인생을 바친 류씨의 서거 보도를 접하고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span>”며 “<span class='quot3'>정부는 계속 <span class='quot3'><span class='quot4'>높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인권 상황을 주시하겠다</span></span></span>”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span class='quot4'>자유와 기본적 인권 존중, 법의 지배는 보편적 가치로, 중국에서도 보장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3'><span class='quot4'>높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인권 상황을 주시하겠다</span></span>”고 말했다.<br/><br/>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도 중국 당국의 책임을 거론했으나, 총리 등 정상 차원이 아닌 외무장관의 성명에 그쳐 중국 당국과의 전면적 대립을 회피하는 모습이다.<br/><br/> 반면 민간단체 쪽은 중국 당국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거론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중국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노벨위원회는 중국이 해외 이송을 거부한 것은 “극히 실망스럽다”며, 이런 문제로 그의 사망이 앞당겨졌다고 지적했다.<br/><br/> 한편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br/><br/>정의길 선임기자 Egil

언론사: 한겨레-1-174.txt

제목: 류샤오보 사망...투병과정 공개·아내 연금해제 이뤄질까?  
날짜: 20170714  
기자: 김외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14113822001  
ID: 01101001.20170714113822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중국의 가장 저명한 양심수로 평가받는 민주화운동가 류샤오보가 13일 61살을 일기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달 26일 중국 당국이 말기 간암에 걸린 그를 ‘병 보석’으로 입원 조처했다고 밝힌 지 1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 당시 그는 시상식 참석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시상식에는 그의 부재를 상징하는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에는 끝내 누구도 앉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몇가지 문제들을 짚어봅니다.<br/><br/> <br/><br/> ■ 발병 원인과 투병 과정은 공개될까<br/><br/> 류샤오보의 암 투병 사실이 발표된 뒤 그의 신체검사 및 치료, 운동 등의 옥중생활 동영상이 갑자기 공개되는 등, 중국 당국은 그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왔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선양시 사법국은 13일 밤 9시께 발표한 통지문에서 “복역 도중 간암에 걸렸고,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았으며, 중국의과대학부속제일병원은 여러차례 국내 저명 종양 전문가의 진료를 요청했고, 미국과 독일의 권위있는 간암 전문가도 진료에 참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br/><br/> 하지만 류샤오보는 투병 과정에서 부인 류샤와 함께 치료를 위한 출국을 원한다고 밝혔고, 진료에 참가한 미·독 전문가는 각각 자신이 속한 시설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류샤오보의 상태는 출국이 가능하며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류샤오보 사망 당일인 13일 밤 기자회견에서 병원 쪽은 류샤오보 쪽이 애초 아무런 얘기를 않다가 외국 의료진이 방문하자 국외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혈종 탓에 이송은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입원 뒤 병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외부 접촉의 엄격한 통제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br/> 하지만 병원 쪽은 장례, 부검 등 류샤오보 주검의 후속조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어떻게 발병했는지, 왜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는지, 치료는 적절했는지 등을 묻습니다. 2011년 당시 80살이었던 류샤오보의 아버지 류링도 간암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과연 그동안 공개된 것들 이외에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지 의문시됩니다. <br/><br/> <br/><br/> ■ 남은 사람들, “호의를 고마워했다”?<br/><br/> 올해로 복역 생활 9년째였던 류샤오보는 지난 5월31일 신체검사 도중 간에 종양이 발견됐고, 6월7일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이후 부인 류샤와 처남 류후이, 맏형 류샤오광 부부와 동생 류샤오쉬안 부부 등 가족이 달려와 그를 간병했다고 합니다.<br/><br/> 가족들은 류샤오보의 상황이 외부에 철저히 통제돼 있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가 입원해있던 랴오닝성 선양시 중국의과대학부속제일의원이 누리집 게시물을 통해 그의 치료 상황을 전한 것이 사실상 외부에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12일 오후 “환자의 병세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은 현재 전력을 다해 구호조처를 취하고 있다. 가족들은 호의를 고마워하며 서명했다”는 글을 올린 뒤 13일 하루종일 아무런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날 일각에선 이미 그의 죽음을 예감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쪽은 기자회견에서 류샤오보의 의식은 이날 새벽부터 희미했으며, 오후 5시35분 가족들의 작별인사 속에 결국 숨을 거두면서 6시30분께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br/><br/> 가족들, 특히 부인 류샤의 근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이자 화가로 1996년 류샤오보와 재혼한 류샤는, 류샤오보의 수감 생활 탓에 20년 결혼 생활 가운데 정작 함께 산 것이 9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게다가 류샤오보가 201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뒤로는 삼엄한 경계 속에 가택연금 생활을 해왔습니다. 류샤는 지난해 아버지의 사망, 올해 4월 어머니의 사망 등을 겪으며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류샤오보는 숨을 거두기 전, 아내 류샤에게 “잘 살아가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 누리꾼은 “류샤가 잘 살아갈 수 있는지는, 안타깝게도 그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댓글을 관련 기사에 남겼습니다. 과연 류샤를 포함한 류샤오보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br/><br/> <br/><br/> ■ 국제사회의 반발 양상은? 그리고 한국은?<br/><br/> 류샤오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는 “<span class='quot0'>류샤오보의 사망은 중국 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가 말기 상태에 이르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옮겨지지 않은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span>”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이드 알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도 “<span class='quot1'>중국은 물론 세계의 인권운동에 헌신했던 투사를 잃었다</span>”면서 류샤의 출국 허용을 촉구했습니다.<br/><br/> 그의 마지막 투병을 직접 목격했던 외국인 의사 2명 가운데 1명의 조국인 독일은, 주중대사관이 외국인 의사의 방문을 편집해 특정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내보낸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편집된 동영상에선 독일 의사가 중국 의료진의 치료 과정을 칭찬하면서 “<span class='quot2'>우리가 더 잘 할 것 같지 않다</span>”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들은 국외 이송 및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악의적’ 편집 탓에 뜻이 왜곡됐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br/><br/> 중국은 최근 류샤오보 입원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span class='quot3'>관련국들이 중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하기 바라며, 개별 사안을 이용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 바란다</span>”는 입장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내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보편적 인권을 강조해온 류샤오보가 옥중에서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건은 미국 등 서구권이 으레 소리 높여 중국을 규탄할 일입니다.<br/><br/>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응 추이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류샤보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도를 표했다”면서도, 중국 당국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 내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 배경 때문은 아닌가 의심하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막대한 규모의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이어오면서 축적한 막강한 자본과 그 영향력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성공담이 됐고, 그동안 서방이 ‘인권 탄압’, ‘비민주성’ 등을 지적해온 ‘중국 모델’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희석시킨 것도 사실입니다.<br/><br/>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청와대 또는 외교부가 ‘중국의 내정’이라며 언급을 피할까요, 아니면 보편적 인권 수호의 입장을 천명할까요?<br/><br/> <br/><br/> ■ 중국 민주화 운동은 어디로<br/><br/> 류샤오보는 ‘국가정권전복선동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명과 달리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줄곧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을 고수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천안문 사건 당시 무력진압 조짐이 커지자 류샤오보를 포함한 4명이 진행한 ‘4군자 단식투쟁’ 당시, 그는 “우리가 학생들과 똑같은 위험에 맞닥뜨리지 않는 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광장을 떠나라고 권하는 한편, 진압부대를 설득해 퇴로를 열어주도록 했습니다.<br/><br/> 동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2008년 ‘08헌장’은 그가 주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애초 303명에 지나지 않았던 서명자 수가 그가 동참해 유명 작가와 변호사, 학자, 전직관료 등에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8600명(외국 체류자 포함)까지 늘었습니다. <br/><br/> 중국의 이른바 ‘이견인사’(민주화를 주장하면서 공산당 일당독재의 문제를 비판하는 이들)들은 한편으로는 상징적 인물을 잃었다는 허탈감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큰 분노를 느끼는 듯합니다. 류샤오보 부부의 친구들이 만든 ‘자유 샤오보 공작조’는 13일밤 부음을 내어 류샤오보를 “중국 민주화 운동의 순교자”로 이름짓고, 중국 당국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류샤오보 추모회’의 성립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추모식을 열겠다고 발표하고, 인터넷 추모관 및 류샤오보기금회 설립 계획도 밝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추모회 시간과 장소가 트위터에서 공유되고 있기도 합니다.<br/><br/> 하지만 트위터에선 “더욱 명확해진 것은 비폭력 비협조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기를 들고 반항하는 것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글도 눈에 띕니다. 중국 민주화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br/><br/>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

언론사: 한겨레-1-175.txt

제목: 법원 “삼성 반도체·엘시디 난소암 이례적으로 높아”  
날짜: 20170711  
기자: 김민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11164824001  
ID: 01101001.20170711164824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서울고법이 삼성의 보상 신청 통계 등을 근거로 1심에 이어 난소암으로 숨진 삼성 반도체 노동자 고 이은주(사망 당시 36살)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삼성 보상위원회의 보상 신청 통계를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br/><br/> 11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엘시디(LCD)에서 근무하다 암 등으로 투병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삼성전자 협력사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 12월 무렵까지 총 165명이 신청했고 그 중 난소암을 이유로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10명이다. 중앙암등록본부의 암 등록통계에 따르면 전체 암 중 난소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불과한 데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보상위를 꾸려 일부 질병에 대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2003년 내지 2005년 난소암은 연평균 1512건으로 전체 암(13만2941건) 중 약 1.1%였다. 우리나라 난소암의 표준화발생률은 십만 명당 5.7건이며 20대의 난소암 발생률은 십만 명당 약 2.5건으로 보고된 사례가 있다”고 인정했다. 1993년 4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온양사업장에 입사했던 이씨는 건강 악화로 1999년 퇴소했다. 그러나 1년 뒤 난소의 경계성종양 진단을 받았고 치료 뒤 재발로 2012년 세상을 떠났다. 이씨가 난소암 진단을 받은 때는 20대로 재판부는 “<span class='quot0'>망인의 경우 이른 나이에 이례적으로 난소암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span>”고 판단했다.<br/><br/>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난소암 등 희귀질환처럼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질병에는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업무 연관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난소암같이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희귀성 질환도 현재의 의학적·자연 과학적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이 업무환경에 존재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병원인을 가지게 되었다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추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산재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씨가 “<span class='quot0'>발암물질과 생식독성 물질인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됐고, 주·야간 교대 근무를 했으며, 난소암을 일으킬만한 다른 건강상의 결함이나 유전적 요인이 밝혀진 바도 없다</span>”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br/><br/> 김민경 기자 salmat

언론사: 한겨레-1-176.txt

제목: 인천대, 세계적 학자 5명 교수로 초빙  
날짜: 20170710  
기자: 김영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10170816001  
ID: 01101001.2017071017081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천대가 글로벌 석학 5명을 초빙해 세계 수준의 바이오 연구중심 대학에 도전한다. <br/><br/> 조동성 인천대 총장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pan class='quot0'>바이오를 첫번째 연구 봉우리로 선택했고, 향후 로봇·드론, 미래도시, 녹색기후기금(GCF)과 연계한 기후변화, 중국, 통일 후 남북통합 등 이공계와 인문사회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 봉우리를 순차적으로 세워나가겠다</span>”고 밝혔다.<br/><br/> 인천대가 초빙한 글로벌 석학 5명은 한국계 미국인 2명, 인도계 미국인 1명, 유럽인 2명이다. 김성호 석좌교수는 미 듀크대 의대 생화학 교수 때 전이 리보핵산의 3차원 입체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한 데 이어 유시(UC)버클리대학 교수로 옮긴 후 암 발생 중요 인자인 라스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밝혀낸 생체 고분자 결정구조분야 권위자다. 1994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학술원 정회원에 선출됐다. 한국계 미국인인 이민섭 초빙교수는 유전체 연구의 권위자이다.<br/><br/> 우니 카루나카라 예일대 연구교수는 ‘국경없는 의사회’ 대표를 지냈고,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도계 미국인이다. 유엔 산하 국제백신연구소 과학자문위원장과 빌 게이츠재단 수석고문을 맡고 있는 랄프 클레멘스 교수는 독일인이고,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원 출신으로 네덜란드 빈데샤임대 총장과 위트레흐트대 생명대 학장을 역임한 알버트 코넬리슨 교수는 네덜란드인이다.<br/><br/> 인천대는 김성호 석좌교수에게 신설될 융합과학기술원장을 맡겨 20여명의 조교수급 연구자들을 두고 세계 굴지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송도에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인천 송도 바이오산업의 다양성이 인천대 융합과학기술원이 계획하는 프로젝트들이 산업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이상적인 조건</span>”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ywkim

언론사: 한겨레-1-177.txt

제목: 류샤오보 마지막 순간 임박했나…가족들 ‘임종 대비’  
날짜: 20170707  
기자: 김외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07152807001  
ID: 01101001.20170707152807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2010년 옥중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중국 반체제운동가 류샤오보의 숨길이 많은 이들의 탄식 속에 마지막 순간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br/> 간암 말기 확진을 받고 랴오닝성 선양의 중국의과대부속제1병원에 입원했던 류샤오보가 간 기능 저하로 더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가족들은 24시간 그의 곁을 지키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명보> <빈과일보> 등 홍콩 매체들이 보도했다. 혹시 모를 임종에 대비한 조처라는 생각에, 그의 지인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작가 예두는 "<span class='quot0'>곧 샤오보를 잃게될지도 모른다</span>"라며 탄식했다. 병세가 6일부터 급속도로 악화한 탓에, 의료진은 항암제 등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진통제만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 류샤오보가 이대로 사망한다면 중국 당국은 인권 탄압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류샤오보는 1935년 카를 폰 오시에즈키(독일), 1991년 아웅산 수찌(미얀마)에 이어 세번째로 옥중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귀화 또는 망명하지 않은 유일한 중국인 노벨상 수상자이건만, 그 영광은, 적어도 지금은, 아무런 빛이 나지 않는다.<br/><br/> 1955년 지린성 창춘에서 태어난 류샤오보는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1977년 지린대 중문과에 입학했고, 1984년 베이징사범대 중문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대학 강단에 섰다. 1986년부터 여러 잡지에 기고한 체제 비판적 글로 주목받았고, '문단의 흑마'라는 별칭을 얻었다. 1987년 유교 전통을 비판하며 저명한 사상가 리쩌허우에 도전한 첫 책 <선택적 비판 - 리쩌허우와의 대화>는 베스트셀러가 됐다.<br/><br/> 박사 학위를 마치고 미국 콜럼비아대 방문학자로 체류중이던 1989년 천안문(톈안먼) 시위가 벌어지자, 그는 즉각 귀국해 천안문으로 향했다. '천안문 사군자 단식농성'으로 주목받으며 학생들의 신뢰를 얻었고, 정부-학생 모두의 반성을 요구하며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다. 그해 6월3일 류샤오보는 군과 학생 지도부의 합의를 이끌어내 일부 학생들의 철수를 실현시켰지만, 4일 끝내 무력진압이 벌어졌다. 5일 그 또한 당국에 체포돼 '반혁명 선전선동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의 책들은 금서가 됐지만, 19개월 뒤 형사처벌 면제 처분을 받고 석방돼 집필 활동을 재개했다.<br/><br/> 류샤오보는 1993년 천안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태평천국의 문> 촬영을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에 초청됐고, 당시 많은 친구들은 그에게 망명을 권했지만 그는 중국을 떠나지 않았다. 1995년 5월 천안문 사건 재평가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하다가 9개월 가택연금을 당했고, 풀려난 지 8개월이 지난 1996년 9월 중국의 위협적인 대만 정책을 비판하며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가 노동교화 3년형을 받았다. 풀려난 뒤에도 당국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는 2008년 12월8일 민주화를 요구하는 '08헌장' 발표를 준비하던 중 발각돼 '국가정권 전복선동' 혐의로 가택연금당한 뒤 2009년 6월 정식체포돼 11년형을 받았다.<br/><br/> 랴오닝성 진저우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류샤오보가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초청받은 나라들을 압박해 참석 취소를 종용했고, 노벨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에는 무역 보복을 강행했다. 시상식은 그가 앉았어야 했을 '빈 의자'와 함께 진행됐다.<br/><br/> 이후 국제사회는 꾸준히 그의 석방을 요구해왔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5월23일 말기 암 진단을 받고서야 류샤오보는 감옥을 나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그의 아내 류샤는 그가 중국을 떠나 서구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한다고 밝혔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br/><br/> 류샤오보는 2009년 옥중에서 발표한 '나에겐 적이 없다'는 글에서 "적도 없고 원한도 없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원한은 한 사람의 지혜와 양식을 갉아먹고, 적 의식은 한 민족의 정신을 중독시킨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잔혹한 투쟁을 선동시켜, 한 사회의 관용과 인성을 훼손시키고 한 나라의 자유 민주의 길에 장애가 된다. 나는 개인의 처지를 넘어서 나라 발전과 사회 변화를 보면서, 최대의 선의로 정권의 적의를 대하며, 사랑으로 원한을 녹이고 싶다.”<br/><br/>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

언론사: 한겨레-1-178.txt

제목: 경제난 속에서도 여유와 인정 넘치는 나라  
날짜: 20170706  
기자: 최재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06191848001  
ID: 01101001.20170706191848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그리스는 달랐다 백가흠 지음/난다·1만3000원<br/><br/> 백가흠의 신작 <그리스는 달랐다>는 출판사 난다의 여행서 시리즈 ‘걸어본다’의 열네번째 책으로 나왔다. 이 시리즈의 여느 책들이 사진을 곁들인 에세이인 데 견줘 <그리스는 달랐다>는 소설 형식이어서 이채롭다. 짧은 소설 21편으로 그리스의 경관과 속살, 역사와 현재를 소개하는 방식이다. 여행지에 관한 정보가 소략한 반면, 인물의 삶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결 실감나게 대상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br/><br/> ‘세상의 끝에 깊고 깊은 물빛’은 그리스 중서부 도시 이오안니나의 호숫가 식당이 무대다. 주인공 ‘그’는 넉달 전 한국을 떠나왔다. 완치 판정을 받았던 암이 재발하자 치료를 포기하고 여행을 택한 것. “길에서 떠돌다 죽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그리스 지사에 근무하던 젊은날 사랑했던 여자 아나스타샤와 이름이 같은 웨이트리스가 있는 식당에서 오랜만에 와인을 마신 그는 호숫가를 산책하던 중 물속에 잠기듯 몸과 의식이 가라앉으며 바랐던 대로 길 위에서 마지막을 맞는다.<br/><br/> 절벽 수도원으로 유명한 메테오라를 배경 삼은 ‘하늘에 매달린 도시’에서 제이(J)는 9년 전 기억을 더듬어 거대한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호위하듯 지켜선 호텔을 찾아 나서지만, 호텔이 있었다고 기억하는 자리에는 호텔 대신 바위 하나가 서 있을 뿐이다. ‘그리스에서 가장 그리스적인’의 주인공 민우는 유학 온 지 8년째지만 학위는 사실상 포기하고 여행 가이드로 생계를 잇는 중이다. 손님들을 데리고 북부 도시 테살로니키에 온 그는 한때 사랑했던 여자 안젤라를 찾지만 그 곁에는 이제 낯선 남자가 서 있다….<br/><br/> ‘취업을 시켜드립니다’는 아테네를 무대로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를 풀어 놓은 이색적인 작품이다. 스물다섯살 청년 ‘김’은 세계한인무역협회와 한국 정부의 주선으로 아테네의 한 한국인 회사에 취직이 되는데, 와서 보니 하는 일이란 게 게스트하우스 청소 같은 허드렛일일 뿐. 정부가 지원하는 임금으로 청년 인력을 착취하는 구조라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리 선택할 여지도 마땅치 않다.<br/><br/> <그리스는 달랐다>에 실린 소설들에 한국인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때 아테네 중심가를 주름잡는 마피아였던 마흔세살 남자 요르고스는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 주기를 즐기는 친절한 이웃이며(‘요르고스의 아버지인…’), 중부 산골 마을 메초보의 식당에서 51년간 고기 굽는 일을 한 일흔살 또 다른 요르고스는 은퇴 뒤 남쪽 섬들로 여행을 떠날 꿈을 키운다(‘메초보는 우연히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간호대학을 졸업했지만 병원에 취업하는 데 실패한 아나스타샤는 카페 입구에 서서 하루 종일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일자리를 가까스로 구하고, 그런 그를 위해 오빠와 아버지는 원피스를 선물하기로 한다(‘아나스타샤의 첫 직장’).<br/><br/> 이런 그리스 사람들과 함께, 불가리아에서 온 이민자 소피아(‘태양으로 날아간 풍선’),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브라엘과 남수단 출신 난민 제임스(‘두 사람은 함께 신타그마 광장에서 바람개비를 팔았다’), 시리아 팔미라 출신 난민 가족(‘해변의 난민 가족’) 등 이주민과 난민 들도 등장해 그리스 사회의 다층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국가부도사태와 구제금융 여파로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인간에 대한 철학과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장”(‘그곳엔 없고 그곳엔 있는’) 덕분에 인정과 여유를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스는 달랐다’고 백가흠은 파악한다.<br/><br/> 여행의 궁극은 길을 잃는 것, 돌아오지 않는 것, 이 책 속 어떤 인물처럼 길을 가다 쓰러져 소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개의 여행에는 끝이 있고 여행자는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span class='quot0'>떠도는 것과 머무는 것의 차이에 대해 골몰하고 남겨진 것들과 기다리는 것들을 떠올리며 쓸쓸함이 더해</span>”질 무렵, “<span class='quot0'>아쉬움보다는 안도감이, 설렘보다는 익숙함이 여행의 끝을 일러준다.</span>”(‘국립미술관은 공사중이었다’) 그렇게 종국에는 되돌아오는 요요 운동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span class='quot0'>지중해의 진짜 삶을 보고 싶다면 그리스로 가라</span>”고 동료 작가 천명관은 추천사에 썼다.<br/><br/> 최재봉 선임기자 bong

언론사: 한겨레-1-179.txt

제목: 여성 갑상선암, 임신·출산 염려 마세요  
날짜: 2017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06111013001  
ID: 01101001.2017070611101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갑상선암 발생이 최근 줄어들고 있다. 중앙암등록통계를 보면 갑상선암 발생자 수는 2010년 약 3만7천명에서 2014년 3만1천명으로 약 6천명이 줄었다. 그동안 갑상선암에 대한 지나친 검진에 의한 결과이며, 이에 대한 일부 의사들의 비판이 작동했다는 추정도 있다. 즉 갑상선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덜 받다 보니 발견이 덜했다는 것이다. 갑상선암은 비록 암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진단 뒤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100%로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은 암이다. 여성 환자가 많다 보니 수술을 받은 뒤에는 임신, 출산 등이 가능한지 염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련 전문의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br/><br/> ■ 갑상선암 발생은 가파르게 감소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의 자료를 보면 갑상선암 발생자 수는 2010년 3만6728명에서 2012년 4만4561명까지 증가했으나, 2013년 4만2823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4년에는 3만806명으로 내려앉았다. 대장암, 위암, 간암 등도 일부 감소했지만 갑상선암처럼 감소폭이 크지는 않다. 갑상선암 감소에는 갑상선에 대한 초음파 검진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의사 내부에서 나와 검진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과다검진으로 갑상선암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논문에도 실린 바 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건강검진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도 갑상선암 발생은 증가하고 있어 다소 논란이 일고 있다.<br/><br/> 갑상선암과 관련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갑상선암 치료 뒤에도 생존자 수가 많다 보니 갑상선암 재발 방지나 갑상선 호르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경우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갑상선암 진료인원은 2012년 약 24만5천명에서 지난해 약 33만명으로 한해 평균 7.7%씩 증가했다. 성별로는 지난해 기준 여성 환자가 27만3천명가량으로 남성의 5만7천명보다 5배가량이었다. 나이대별로는 50대가 약 10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60대, 30대 차례였다.<br/><br/> ■ 수술 뒤 방사성 요오드 치료 필요하기도 갑상선의 어느 한 부위가 커져 혹이 생기는 경우를 갑상선 종양이라고 하는데, 양성종양, 악성종양(암), 물혹(낭종)으로 나눈다. 양성종양의 경우 아무런 해가 없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관찰만 하면 되지만, 크기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약을 먹기도 한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저절로 크기가 줄어들기도 한다. 조직검사로 악성종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체로 수술이 권장된다. 크기가 크지 않고 전이도 없는 초기 단계에서는 갑상선의 반만 절제하기도 한다. 수술 뒤에는 암 덩어리의 크기, 세포 형태, 확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발 가능성에 따라 중·고 위험군의 경우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기도 한다. 방사성 요오드의 경우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에 이용되기도 하며, 이때는 갑상선암의 경우보다 용량을 적게 한다.<br/><br/> <br/><br/> ■ 몸무게 관리에 노력해야 갑상선암 수술 뒤에 목 통증을 느끼거나 몸무게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우선 갑상선 수술은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수술 뒤 목과 어깨 부위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가벼운 목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목을 너무 심하게 젖히면 수술 상처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뒤 몸무게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위해 갑상선호르몬 복용을 중단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 갑상선호르몬이 부족해 탄수화물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돼 자주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한 원인이다. 정기적으로 갑상선호르몬 수치를 점검하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br/>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곤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집중력과 끈기가 없어지고, 화를 참지 못하는 등의 정서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갱년기 여성일수록 증상이 심각한데,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 등 정상적인 생활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갑상선호르몬을 복용 중인 경우는 물론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료 1년 뒤에는 정상적으로 임신, 출산, 모유 수유가 가능하므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180.txt

제목: “내가 왜 갑상선암? 혹 과잉진단?…자꾸만 의심 들었죠”  
날짜: 20170706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06111012001  
ID: 01101001.2017070611101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수술 받으러 병원 갔더니 남성 환자는 별로 없어서 제가 왜 이런 질환에 걸렸는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수술받은 뒤에 마음이 편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과다검진이라는 말이 언론에 나오자 괜히 수술했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암을 갖고 살 만큼 용감하지는 않아서요.”<br/><br/> 이아무개(50·남)씨는 5년 전인 2012년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몇 가지 검사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에서 혹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이전 해에 위장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이 나왔기에 특별히 갑상선에 이상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갑상선 검사를 선택할 때도 별생각이 없었습니다.<br/><br/> 하지만 검진 결과에서 혹이 관찰됐고, 크기가 1.5㎝로 작지 않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검진 의사의 설명은 “물혹일 수도 있지만 혹시 암일 수도 있다”면서도 “갑상선암이야 워낙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암으로 나와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씨는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적지 않게 당황했고 분노를 느끼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5년 전 암 진단 받은 50대 남성 목 안의 1.5cm 자란 혹 발견 평소 운동·금연으로 몸 챙기고 남성 환자도 드물다는데… “<span class='quot0'>두렵고 허탈, 분노마저 느꼈죠</span>”<br/><br/> <br/><br/> 갑상선암 5년 생존율 거의 100% 큰 고민없이 절제 수술받아 매일 먹는 호르몬약, 4cm 목 흉터그 불편함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br/><br/> <br/><br/> 국내 과다진단 논란 불거질 땐 나도 불필요한 수술이었나 혼란 완치 판정받고 맘 편해졌지만 유전이면 어쩌나…발병 원인 궁금해요<br/><br/> <br/><br/><br/><br/> 그는 평소 일주일에 3~4번씩 헬스클럽을 찾아 달리기나 빠르게 걷기를 비롯해 근육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건강에는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도 별다른 질병치레 하나 하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소주 2병가량을 마실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었지만, 일주일에 2차례를 넘지 않았기에 그리 과음을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 다닐 때까지 피우던 담배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끊었기에 암이 생기리라고는 크게 염려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가족 중에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br/><br/> 임치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갑상선암의 경우 현재 과학적으로 밝혀진 가장 명백한 위험인자는 방사선 노출</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그 밖에 유전자 돌연변이, 호르몬, 식이요법, 생활습관 등이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span>”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공장 등 제조업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컴퓨터로 일하고 있어 방사선에 많이 노출될 일도 없기 때문에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은 쪽에 들어간 것입니다.<br/><br/> 이씨는 아내나 자녀가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변 사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갑상선에 생긴 혹에 대해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조직검사는 암이 의심되는 혹 일부를 떼어내어 암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span class='quot1'>암이 생길 만한 생활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아 양성종양이나 물혹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추가 검사를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1'>하지만 악성이라는 소견이 나와 눈앞이 캄캄했다</span>”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없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주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운동도 하지 않고 술이나 담배는 맘껏 하는 이들도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나름 건강한 습관을 유지해도 암이라니 허탈한 마음마저 들었다</span>”고 말했습니다.<br/><br/>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조직검사 뒤 만난 외과 의사가 갑상선암은 거의 대부분 완치되고 생존율이 100%에 가깝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펴낸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갑상선암의 경우 20여년 전인 1993~1995년에도 암 진단 및 치료 뒤 5년 이상 생존해 완치됐다고 판정받은 비율(5년 생존율)이 94%일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갑상선암 환자가 같은 나이대의 일반인보다 5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뒤 금연, 절주 등을 실천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거나 식사 관리를 하는 등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br/><br/> 갑상선암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씨는 별다른 고민 없이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뒤 2주 만에 암 환자가 됐고, 다시 2주 만에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전신마취 뒤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고, 회복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의사 설명이 암 덩어리 크기가 1.5㎝여서 갑상선을 전부 들어내는 ‘전절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갑상선 없이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준영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갑상선암의 경우 심하지 않으면 반만 절제하는 반절제를 하기도 하는데, 재발 가능성을 생각하면 전절제가 필요하기도 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암 덩어리가 1㎝ 이상이거나 다른 조직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전절제를 한다</span>”고 설명했습니다.<br/><br/> 갑상선을 모두 제거한 뒤 이씨는 처음에는 여러 걱정을 했지만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1'>갑상선이 만들어내는 호르몬은 약으로 먹을 수 있어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1'>갑상선이 아예 없으니 이제 다시 갑상선암에 걸릴 일도 없는 것 아니냐</span>”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최준영 교수는 “<span class='quot2'>갑상선암의 재발 가능성이 중간 이상인 경우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2'>알약으로 된 방사성 요오드를 섭취하면 요오드가 갑상선으로 향해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제거한다</span>”고 설명했습니다.<br/><br/>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등 생활습관병이 없어 약을 규칙적으로 먹을 일이 없었던 그는 갑상선암 수술 뒤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약을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불편이 생겼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2'>약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약을 먹는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를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약을 챙겨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약을 먹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span>”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을 먹었다고 여겨 먹지 않다가, 약을 처방받기 위해 예약한 날에 병원을 찾아갈 때 약이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2'>약을 빼먹었을 때는 평소보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는 배고픔으로 약을 먹었는지 여부를 알아채곤 한다</span>”고 말했습니다. 실제 갑상선호르몬이 부족하면 자주 배고픔을 느끼고 과식을 하게 돼 비만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br/><br/> 약 먹기와 더불어 한 가지 괴로움이 더 있었는데 바로 수술 흉터였습니다. 목 부분에 옆으로 4㎝가량의 흉터가 있어 주변에서 자꾸 물어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나 주변 질문에 다소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그를 만나 흉터를 볼 때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수술 흉터라고 여겨 굳이 물어보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br/><br/> 갑상선암 수술 뒤에도 2년 가까이 건강하게 지내던 그가 갑상선암에 대해 저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갑상선암 과다검진 논란이 벌어진 때였습니다. 2014년 3월 안형식·신상원 고려대 의대 교수, 서홍관 국립암센터 의사, 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 8명이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를 만들어 국내에서 갑상선암에 대한 과다검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많은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이 세계 평균의 10배나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상선암에 많이 걸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진으로 많이 ‘찾아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암 검진과 달리 초음파 검사로 쉽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갑상선암 발생률이 59.5명인데 세계 평균인 4.7명에 견줘 10배가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상선암을 빨리 발견하면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검진 효과가 없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이후 의사연대 소속인 안형식 고려대 의대 교수팀은 갑상선암 과다검진이 이뤄지고 있음을 통계적으로도 증명해 같은 해 11월 세계적인 논문집에 싣기도 했습니다.<br/><br/> 이런 논란이 알려지면서 과다검진이 줄어든 까닭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 갑상선암 발생자 수와 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중앙암등록통계를 보면 국내 갑상선암 발생자 수는 2012년 4만4561명에서 2014년에는 3만80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갑상선암을 수술하는 의사들은 과도한 검진은 당연히 하지 않아야겠지만, 갑상선암을 수술해야 하는 환자들도 병원을 찾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br/><br/> 이씨의 경우 우연히 발견되기는 했지만 크기가 1.5㎝로 작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등 치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과다검진 논란으로 혹시 불필요한 수술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이씨는 “<span class='quot0'>이미 지난 일인데다가 수술도 잘됐으니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다는 의심은 하지 않고 잊고 지내려 한다</span>”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한 지 5년이 지나 나름 완치 판정을 받은 이씨는 헬스클럽 등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금연과 절주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0'>완치라고 해도 어찌 됐든 병원에 입원해 수술받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일 아니냐</span>”며 “<span class='quot0'>의사들이 갑상선암의 발병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 알려주면 좋겠다</span>”고 말했습니다. 다른 원인이 없어 유전이라면 혹시라도 자녀들도 갑상선암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br/><br/> 갑상선암에 대한 과다검진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건강검진 항목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는 발단이 됐다는 점에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유방암, 폐암 등 몇몇 암이나 잠복결핵 검진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런 논란을 통해 검진 대상 결정이나 방법 등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은 검진 항목에서 퇴출되기를 바랍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181.txt

제목: 말기 암 ‘나쁜 소식’ 귀띔 환자에게 절망일 뿐일까  
날짜: 2017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05133904001  
ID: 01101001.2017070513390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말기 환자들에게 병의 상태나 향후 진행 방향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을 통상 ‘나쁜 소식 전하기’라고 말한다. 난 이 말이 마음에 안 든다. 물론 병이나 죽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병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고 또 그 병이 앞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을 나쁜 소식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나쁜 소식을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불편해하기 마련이다.<br/><br/> 죽음 교육이나 호스피스 강의를 가서는 늘 강의를 듣는 대상자에게 물어본다. ‘당신들이 어느 날엔가 질병에 걸리거나 혹 죽음에 이르는 임종 말기가 되면 여러분에게 가족이나 의료진이 진실되게 상태를 이야기해주기를 원합니까?’ 거의 예외 없이 ‘예’라고 대답한다. 그럼 또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이 그런 상황일 때 100프로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까?’ 그러면 대답은 거의 ‘아니요’이다. ‘나쁜 소식’을 못 전하겠단다. 왜 그럴까. 분명히 그 사람들도 당신들처럼 알고 싶었을 텐데….<br/><br/> 위암으로 사망하신 배씨 아저씨는 기존의 병원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31년 동안 내 아내와 두 아들에게 권위 있는 남편, 아버지로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병에 걸리니까 특히 치유할 수 없는 암에 걸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만 빼놓고 지들(의료진과 가족들)끼리 수군거리고 결정한다. 나는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껴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마치 내가 집 안의 붙박이장이나 통나무로 취급당하는 것 같아 31년 동안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생이 허무해진다.’ <br/><br/> 왜 우리와 함께 살았던 가장을, 아버지를 우리 집안의 대들보로, 기둥으로, 삶의 중심으로 이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쁜 소식이라며 질병이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스스로를 붙박이장이나 통나무로 취급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떠나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가족을 떠나보내고서는 남겨진 이들은 늘 후회를 한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용서를 청했어야 하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보냈어야 하는데….<br/><br/> 사망자의 27.9%가 암으로 사망한다. 암이라는 병은 치료할 기회도 주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부터 가족들과 함께 이별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사별가족 모임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나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한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호스피스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을 부러워한다. 당신들은 치료라도 받게 해줬고 떠날 것을 알고 이별 준비도 하지 않았느냐면서 부러워하던 그들은 나중에는 그들을 원망하기까지 한다. 할 것 다하고 보낸 당신들은 뭐가 그리 아쉽냐고…. 내 남편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하여 돌아오지 못했다고, 등산을 가겠다고 힘찬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선 딸이 실족사로 영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수학여행을 가던 아이들이 3년이 지나도 그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지 않았다고….<br/><br/> 아쉬운 이별이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떠나가는 이와 남는 이를 위해 진실을 공유하며 그 시간을 잘 보내야 하지 않을까.<br/><br/> 손영순·까리따스 수녀(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언론사: 한겨레-1-182.txt

제목: 대니엘 강, 먼 길 돌아 LPGA ‘메이저 퀸’ 등극  
날짜: 20170703  
기자: 김경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03094900001  
ID: 01101001.20170703094900001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어릴 적 미국에서 태권도, 골프와 인연을 맺게 해준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2013년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를 그리워한 그는 지난달 미국 ‘아버지의 날’에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은 아빠와 떨어져 있지만 아빠의 사랑을 매일 느낄 수 있어요. 항상 저와 함께 계시죠”라는 글을 남기며 애틋한 망부가를 불렀다. 항상 ‘있는 그대로의 네가 되어라’고 하는 부모님 말씀에 17살 때는 ‘just be’(저스트 비)라는 영어 문신을 오른쪽 검지에 새겼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오른 손등 오른쪽 끝부분에 한글로 ‘아빠’라고 새겼다. “<span class='quot0'>누군가와 악수를 하면 그 사람도 우리 아빠를 만날 수 있기 때문</span>”이라는 생각에서였다.<br/><br/> 199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재미동포 대니엘 강(25). 2010~2011년 연속으로 미국여자아마추어골프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기대주로 떠올랐던 그가 먼 길을 돌아 6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시즌 두번째 메이저 대회에서 일궈냈다. 그것도 통산 144번째 도전 만에.<br/><br/> 2일(현지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올림피아필즈의 올림피아필즈컨트리클럽(파71·6588야드)에서 열린 2017 케이피엠지(KPMG) 위민스 피지에이(PGA) 챔피언십(총상금 350만달러) 최종 4라운드. 대니엘 강은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 최종합계 13언더파 271타(69+66+68+68)를 기록해, 지난해 이 대회 챔피언 브룩 헨더슨(20·캐나다)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상금 52만5000달러(6억원). 이번 시즌 상금은 80만6828달러, 통산 상금은 238만1795달러로 늘어났다.<br/><br/> 2011년 퀄리파잉스쿨(39위)을 거쳐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 데뷔한 대니엘 강은 공식 데뷔 이후로는 138번째 대회 출전 만에 우승 감격을 누렸다. 아마추어 시절 출전한 대회까지 합치면 만 15살 때 출전한 2007년 유에스(US) 여자오픈과 2011년 5개 대회 등 총 144번째 대회에서 거둔 첫 우승이다. 생애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달성한 것은 2014년 브리티시 여자오픈의 모 마틴(미국) 이후 약 3년 만이다.<br/><br/> 대니엘 강의 아버지(강계성)는 부산 출신이며, 어머니(그레이스 리)는 한의사로 알려져 있다. 오빠(앨릭스)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부(웹닷컴 투어)에서 활약 중이다.<br/><br/> 3라운드까지 최운정(27·볼빅)과 10언더파 공동선두였던 대니엘 강은 경기 뒤 “10번홀(파4)이 터닝 포인트였다”고 털어놨다. 이 홀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헨더슨, 최운정에게 1타 뒤진 3위로 내려섰으나, 이후 심기일전해 11번홀(파4)부터 14번홀(파4)까지 4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승세를 굳힌 것이다. 특히 13번홀(파4)에서는 7ｍ 가까운 긴 버디 퍼트까지 성공시켰다. 그는 10번홀 상황과 관련해 “3피트(약 1m)의 퍼트를 놓쳤는데 거기서 배운 게 있었다”고 했다. <br/><br/> 막판까지 우승은 확실하지 않았다. 지난해 만 19살도 채 안 돼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헨더슨이 18번홀(파5)에서 이글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러나 8ｍ 거리에서의 그의 이글 퍼트는 홀 앞에 멈춰섰다. 대니엘 강은 18번홀에서 두번의 샷으로 공을 그린 위에 올린 뒤 나흘 연속 버디를 잡으면서 헨더슨을 1타 차로 극적으로 따돌리고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br/><br/> 최운정이 10언더파 274타로 3위. 김세영(24), 양희영(28), 이미향(24)은 9언더파 275타, 공동 4위로 마쳤다. 박인비(29)는 7언더파 277타로 렉시 톰슨(미국)과 함께 공동 7위를 차지했다.<br/><br/>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

언론사: 한겨레-1-183.txt

제목: 한-미 정상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북핵 해결”  
날짜: 20170701  
기자: 이세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701081818001  
ID: 01101001.20170701081818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초해 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경제적 번영을 이뤄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br/><br/>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span class='quot0'>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span>”고 밝혔다. 북한의 핵 폐기를 무력이 아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span class='quot1'>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span>”는 점을 분명해 했다. 두 나라가 합의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대화의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열기로 했다.<br/><br/>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정부의 주도성’ 에 대한 합의도 도출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span class='quot1'>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지지도 확인했다</span>”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와 관련해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장관회의’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br/><br/> 두 정상은 이날 회담 뒤 별도의 언론발표문을 통해 공동성명의 합의 내용과 관련한 각자의 구상을 솔직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span class='quot2'>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span>”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수 년 간 이어졌지만 실패했다. 역내 모든 강대국들과 책임 있는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북한 정부를 향해 보다 나은 길, 또다른 미래를 신속하게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span class='quot0'>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공정한 부담이 이뤄지도록 하겠다</span>”며 우리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br/><br/> 공동성명은 두 나라의 “<span class='quot3'>미래지향적·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span>”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교역분야에서는 “양국 간 호혜와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고 “철강 등 원자재의 전세계적 과잉 설비 감축 및 비관세 무역장벽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두 나라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 양국간 투자를 늘리고 협력을 촉진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두 정상의 이런 합의를 두고선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요구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언급하며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뜻이다.<br/><br/> 양국 정상은 또 지속적인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해 이어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대비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여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방한하는 데도 합의했다.<br/><br/> <br/><br/> 아래는 ‘한-미 공동성명’의 전문이다.<br/><br/> <br/><br/>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간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br/><br/> <br/><br/> ◇한·미 동맹 강화<br/><br/>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br/><br/>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br/><br/> <br/><br/>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br/><br/>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br/><br/>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span class='quot1'>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span>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br/><br/>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br/><br/> 양 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책임 규명 및 북한의 개탄할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br/><br/> 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암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br/><br/> <br/><br/>◇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br/><br/>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br/><br/> 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br/><br/> <br/><br/>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br/><br/> 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하였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과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약속하였다.<br/><br/> <br/><br/>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br/><br/>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 감지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ISIS가 초래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反IS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000만불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br/><br/> <br/><br/> ◇동맹의 미래<br/><br/>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조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이야말로 결국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점을 확인하고, 170만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국인들, 그리고 문화 및 학생·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등 인적 유대가 양국의 미래를 상호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함으로써 공동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역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경제 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데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우정과 파트너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br/><br/> <br/><br/>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br/><br/><br/><br/>워싱턴/이세영 기자 monad

언론사: 한겨레-1-184.txt

제목: 노벨평화상 수상 중국 반체제인사 류샤오보 ‘말기 암’  
날짜: 20170626  
기자: 김외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26171827001  
ID: 01101001.20170626171827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수감중인 상태에서 201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62)가 말기 암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고 그의 변호사가 밝혔다.<br/><br/> 류는 지난 5월23일 간암 말기 확진을 받았으며 지금은 랴오닝성 선양의 중국의과대부속제1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홍콩 언론들이 류의 변호사인 모사오핑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랴오닝성 진저우교도소에 수감중인 류의 보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성명을 내어 “중국 당국은 즉각 류샤오보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를 비롯해 인권 관련 활동을 하다 수감된 이들이 즉시 조건 없이 석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br/><br/> 류는 2008년 중국공산당의 일당 독재 종식과 정치적 자유를 요구한 ‘08헌장’ 서명운동을 주도했다가 이듬해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돼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10월 노벨위원회는 그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며 “<span class='quot0'>중국의 근본적 인권을 위한 오랜 비폭력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span>”고 했다.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도 투옥된 적이 있는 그는 “<span class='quot0'>노벨평화상을 천안문 사건 희생자들에게 돌린다</span>”고 답했다.<br/><br/> 중국 당국은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가족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시상식장에서는 빈 의자가 그를 대신했다. 중국은 당시 류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데 대한 보복으로 노르웨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고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br/><br/>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

언론사: 한겨레-1-185.txt

제목: “꿈꿔온 직업이 사라지면…” 울어버린 초등생  
날짜: 20170626  
기자: 구본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26165835002  
ID: 01101001.20170626165835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2011년 미국 노동부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게 될 미래에는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미래 직업시장의 변화 전망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201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칼 프레이와 마이클 오즈번은 현재의 직업 47%가 컴퓨터와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높다고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br/><br/> 지금 학생들은 평균수명이 100살을 넘을 것이고, 앞선 어느 세대보다 오랜 기간 일자리를 유지해야 할 처지이지만, 어느 때보다 미래 직업 전망은 불안하다. 미래의 일자리 불안은 일자리 자체의 감소보다 높은 변동성이다. 평생직장과 평생직업은 사라질 것이고 늘어난 수명에 따라 60~70년을 일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가속화하는 기술 발전과 생산방식 변화로 과거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필요와 직무가 생겨나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누구나 계속 새로운 직무와 기능을 학습해서 전과 다른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평생 일할 하나의 직업을 꿈꾸거나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된다. 60~70년 일하게 된다면 10여개의 직업을 경험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 <br/><br/> 최근 한 평생학습관에서 인공지능과 직업의 미래를 주제로 저녁강의를 했는데, 엄마와 함께 온 초등학생이 강의 도중 울어버린 일이 있었다. 많은 전문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현실과, 국내 대학병원에도 암진단 로봇이 투입되어 환자들로부터 전문의보다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던 상황이었다. 의사가 되는 걸 꿈꿔온 학생인데, 어른이 되면 그 꿈을 이루는 게 불가능한 미래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br/><br/>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학생 엄마가 아이에게 침착하게 설명해줬다. “아들아, 커서 의사가 되고픈 너의 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다. 앞으로 너희 세대가 10개의 직업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살면서 10개나 되는 다양한 직업을 해볼 수 있는 멋진 세상이라는 말이기도 해. 네가 꿈꿔온 대로 평생 의사로 사는 대신 처음에 의사로 일하다가 나중에 다른 일을 해보는 세상이지. 엄마·아빠는 한가지 직업밖에 못 해보는 세상을 살았지만, 너는 살면서 10번이나 다른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살게 될 거야.” 아이의 불안을 달래준 엄마의 임기응변일 수 있지만, 이러한 관점은 미래의 직업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현명하고 올바른 방향이다. <br/><br/>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starry9

언론사: 한겨레-1-186.txt

제목: 트럼프-공화, 트럼프케어 상원 처리 총력전  
날짜: 20170626  
기자: 이용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26155851001  
ID: 01101001.20170626155851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건강보험법)의 이번주 상원 처리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전운이 돌고 있다. 트럼프케어 처리가 또다시 미뤄지거나 상원 통과에 실패하면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br/><br/> 공화당 상원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비밀 작업 끝에 트럼프케어 상원 법안을 지난 22일 공개한 뒤 이번 주 안에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케어는 하원에선 지난 5월 재수 끝에 가까스로 통과한 바 있다. <br/><br/> 상원 법안이 통과돼야 하원 법안과 최종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트럼프케어가 처리된다. 상원 법안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되돌리고,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즉각 폐지하지 않고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해 하원 법안보다는 다소 유연해졌다.<br/><br/> 그럼에도 트럼프케어의 상원 처리 전망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민주당이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이자 ‘부자를 위한 제도’라고 비판해온 트럼프케어에 찬성할 리가 없다. 따라서 다수당인 공화당 상원의원 52명 가운데 3명 이상의 이탈표가 생기면 처리가 어렵다. 현재 테드 크루즈를 비롯해 5명의 상원의원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br/><br/>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빌 캐시디 상원의원 등도 우려를 표하거나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캐시디 의원은 빈곤율이 높은 지역구의 특성상 메디케이드를 축소하는 내용이 지역에서 역풍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br/><br/> 트럼프케어에 대한 정치권 외곽의 우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암 협회’는 “암은 무서운 병”이라며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반대편에선 공화당을 후원하는 큰손인 코크 형제가 되레 메디케이드 등을 더 축소해야 한다며 보수적 견지에서 반대하고 있다.<br/><br/>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트럼프케어 통과를 독려하고 있다. 그는 25일(현지시각)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헬스케어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아주 아주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 대안은 죽은 시체가 된 오바마케어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br/><br/> 상원 통과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일부에선 표결 연기론도 솔솔 나오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 쪽 입장을 두둔해 왔던 제리 모런 의원도 “<span class='quot0'>이번주 말까지 투표가 진행될지 잘 모르겠다</span>”고 말했다. 콜린스 의원도 “<span class='quot1'>이번주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span>”고 진단했다.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회유·설득하지 못한 채 무리한 상정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br/><br/>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

언론사: 한겨레-1-187.txt

제목: 서류 변조해 고객 보험금 챙긴 설계사 등 170명 적발  
날짜: 20170626  
기자: 김기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26134824002  
ID: 01101001.20170626134824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특별 단속을 벌여 151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168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br/><br/> 이번 단속에 적발된 범죄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134명, 고의 사고 20명, 운전자 바꿔치기 9명, 렌터카 비용 허위청구 3명, 진단서 위조 1명, 음주 면책금 편취 1명, 담보특약 위배 1명, 사기 교사 1명 등이다. 또 이들이 범행으로 챙긴 보험료만 1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br/><br/> 구속된 한 보험설계사(30)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고객이 암 진단이나 사고 등으로 신청한 보험금 수령업무를 처리한 뒤 의무기록지와 보험금 신청서를 포토샵 등으로 변조해 자신이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험 가입자의 가족이 보험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질병 진단을 받거나 사고를 당한 고객이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범행을 저질렀다.<br/><br/> 또 ㄱ아무개(34)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10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25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span class='quot0'>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br/><br/>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

언론사: 한겨레-1-188.txt

제목: [본방사수] 한국전쟁 67돌, 전장을 돌아보다  
날짜: 2017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23172828001  
ID: 01101001.20170623172828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발굴추적, 전장의 숨은 영웅들 지게부대(한국방송1 일 오후 8시10분) 한국전쟁 67돌을 맞아 특집 다큐를 방영한다. <발굴추적, 전장의 숨은 영웅들 지게부대>(사진)는 지게 하나로 전장을 누빈 30만명의 지게부대를 발굴해 추적한다. 한국전쟁 승리를 도왔지만, 군번이나 계급장 하나 없이 참전한 탓에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전쟁의 분수령, 장진호 전투>(교육방송 일 오후 4시15분)는 참전자들의 증언과 전사학자들의 분석 등으로 미군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장진호 전투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다. <전쟁과 기억>(에스비에스 일 오전 7시40분)은 참전자들의 전우애와 한국전쟁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조명한다. 그밖에도 <운명의 여섯 시간 오산 전투, 현장을 가다>(한국방송1 일 오전 10시40분), <미네소타 아리랑>(문화방송 토 밤 12시45분) 등을 방송한다.<br/><br/> <br/><br/>범인 쫓는 시사교양 첫선<br/><br/> 강력반 엑스파일-끝까지 간다(한국방송1 토 밤 10시30분) 지난 2월 4부작 맛보기(파일럿)로 선보였다가 반응이 좋아 정규 편성됐다. 첫회로,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을 방영한다. 2002년 4월과 7월 아산 갱티고개와 인접한 거리에서 차례로 여성의 주검이 발견된다. 범행 수법은 다른데 사망 직전 경부압박으로 가사상태에 빠졌다. 범인은 무주에서 4월 사망한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범인을 추적한다.<br/><br/> <br/><br/>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의 힘<br/><br/> 한국영화특선-웰컴 투 동막골(교육방송 일 오후 1시55분) 1950년 11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동막골이 배경이다.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연합군 병사 스미스(스티브 태슐러)가 동막골에 들어온 뒤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여느 전쟁영화와 달리 치열했던 전쟁조차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에 집중한다. 정재영, 신하균, 강혜정, 류덕환 주연. 2005년 개봉작. <br/><br/> <br/><br/> 열심히 사는 다영네를 응원합니다<br/><br/> 나눔 0700(교육방송 토 오후 2시30분) ‘우리 동네 억척 아가씨, 다영씨’ 편.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과 사는 다영(30)씨네 가족은 아직도 직접 손으로 모내기를 한다. 보금자리는 곳곳이 낡아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비가 새고 쥐와 지네도 들어온다. 지난해 8월 엄마가 암 수술을 받은 뒤 두 딸의 어깨는 더 무겁다. 그러나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한 네 식구는 안전하고 깨끗한 집에서 마음 편히 사는 게 꿈이다. <br/><br/> <br/><br/> 캬조리 북서벽 최초 등정에 도전한다<br/><br/> 영상앨범 산(한국방송2 일 오전 7시25분) 암벽 등반가 김세준, 암벽 사진가 염동우, 스포츠클라이머 한정희가 네팔 쿰부 히말라야 지역에 위치한 캬조리 북서벽에 도전한다. 높이 6186m, 평균 경사 약 80도에 이르는 거대 암벽이다. 아직 단 한 팀도 등정한 적 없는 난코스다. 남체 바자르(3440m)에서 출발해 렌조 협곡(5417m), 8가구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 룽덴(4375m), 하이캠프(5000m)를 거치는 일정이다. <br/><br/> <br/><br/>대성과 노래하자<br/><br/> 판타스틱 듀오 시즌2(에스비에스 일 오후 6시25분) 일반인들이 가수와 호흡을 맞춰 노래하는 프로그램. 빅뱅 대성이 4년 만에 예능에 출연한다. 노래와 춤은 물론 특유의 능청스러움과 예능 멘트로 녹화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한다. 대성과 입을 맞추려는 도전자들이 넘쳐났다. 누가 선택됐을까. 설운도와 홍진영도 나온다.

언론사: 한겨레-1-189.txt

제목: ‘정유라 입시·학사 특혜’ 김경숙 전 학장 징역 2년  
날짜: 20170623  
기자: 현소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23113835001  
ID: 01101001.2017062311383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숙(62)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화여대 학사 특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성(54) 교수에겐 징역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br/><br/>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23일 열린 김 전 학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span class='quot0'>김 전 학장은 이화여대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고,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뒤로했다</span>”며 이같이 선고했다.<br/><br/> 재판부는 김 전 학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학장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으로부터 정씨의 이화여대 지원 사실을 듣고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게 최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정씨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정씨가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과 교수들이 거짓으로 출석을 인정하거나 성적 평가를 하도록 한 뒤,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입시·학사 특혜 의혹이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br/><br/> 재판부는 “김 전 학장은 평소 친분 관계에 있던 고위공무원으로부터 입시 관련 청탁을 받아 수락했고, 자신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초빙교수와 시간강사에게까지 정씨에 대한 허위 출석 인정 및 성적 평가를 하도록 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이어 “범행 결과가 상당히 중한데도 김 전 학장은 모든 책임을 학부장과 학과장에게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학장이 암 진단을 받았고 장기간 구금 생활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br/><br/> 법원은 이 교수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 교수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가 2016년 1학기와 여름 계절학기 때 출석하지 않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3과목에 대해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대학교수로서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고 공명정대하게 학사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학적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br/><br/> 이날 김 전 학장은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비니모자를 쓰고 나와 눈을 감은 채 선고 공판에 임했다. 김 전 학장에 대한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선 “교수님 힘내세요”, “말이 안되고 기막힌다”는 소리와 함께 흐느낌이 흘러나오기도 했다.<br/><br/> 현소은 기자 soni

언론사: 한겨레-1-190.txt

제목: “닫혔던 목소리도 암도 ‘백범의 기상’으로 이겨냈지요”  
날짜: 20170622  
기자: 김경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22220901001  
ID: 01101001.20170622220901001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백범 선생님의 일생을 판소리로 담아내겠다는 구상을 한 건 지난 2009년 서거 60주기 때였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경교장 답사를 갔어요. 선생의 체취를 맡아보고 안타까운 서거의 현장을 목도하자는 뜻에서였지요. 그날 차를 타고 막 경교장에 도착하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치검찰’의 압박을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경교장 2층 창문에 남아 있는 60년 전의 흉탄 자국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우리나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br/><br/> 2010년 <창작 판소리 백범 김구>를 만들어 공연해온 소리꾼 광대 임진택(67) 명창이 2013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100년 편지’를 통해 백범 선생에게 전한 창작 일화의 한 대목이다.<br/><br/> “지난해 11월 위암 판정을 받고 서둘러 녹음을 했어요. 혹여 수술한 뒤 소리를 더 이상 할 수 없을까봐 노심초사하다 미리 완창을 해놓고 수술을 받았지요.”<br/><br/> 그가 오는 26일 백범 서거 68주기를 앞두고 <창작 판소리 백범 김구>(고수 이규호) 시디를 발매한 사연이다.<br/><br/> <br/><br/> 2009년 김구 선생 60주기때 첫 구상 경교장 답사때 ‘노무현 대통령’ 부음 “<span class='quot0'>백범 꿈꾸던 ‘아름다운 나라’ 아득해</span>”<br/><br/> 2010년부터 ‘뜻있는 날’ 전국순회공연 지난해 위암판정에 서둘러 ‘완창’ 녹음 “청소년 축약본 구성해 학교순회 계획”<br/><br/> <br/><br/><br/><br/> “2000년대 들어 근 10년 가까이 판소리를 작파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한 ‘창작 판소리 12바탕’ 시리즈 첫 작품이 ‘백범’이었어요. 소리꾼으로 복귀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아마도 백범의 기상 덕분에 소리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 처음 공연 때는 3시간이 넘는 대작이어서 나까지 3명의 소리꾼이 나누어 했지요. 이번 최종 음반은 1·2·3부 총 2시간40분짜리로 혼자 완창을 해냈지요.”<br/><br/> ‘판소리 백범’은 김구 선생의 파란만장한 일생이자 곧 항일독립운동에서 분단에 이르는 우리 근대사를 모두 담고 있다. ‘1부 빼앗긴 나라-청년역정’은 황해도 아기접주에서부터 나라의 치욕을 씻고 새로운 독립정부를 세우려 애쓰던 투쟁기, ‘2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인애국단 특무공작 등 조국 광복 투쟁기, ‘3부 갈라진 나라’는 해방을 맞아 자주독립국가 수립과 남북협상,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던’ 마지막 암살 순간까지를 토해낸다.<br/><br/> 그동안 ‘판소리 백범’ 공연은 주로 역사적으로 기념이 될 만한 날에 꾸준히 전국을 돌며 이뤄졌다. 삼일절에는 만세운동의 본고장 충남 천안에서,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 전후해서는 경교장에서 가까운 서울 정동극장에서, 석가탄신일인 초파일 즈음에는 백범이 젊은 시절 잠시 머물렀던 공주 마곡사에서, 6월26일 서거일에는 서울 효창동 묘소 참배와 더불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판을 열었다. 경술국치 100년 때 국회의사당 안 헌정기념관에서 열었던 공연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 제헌국회에 불참했던 백범을 처음으로 국회 안으로 모시는 상징적인 뜻도 있었다. 인천문예회관 공연에서는 젊은 시절 백범이 두 번이나 갇혔던 인천감옥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다.<br/><br/> 애초 서울대 문리대 정치외교학과를 다녔던 그가 소리꾼 광대로, 문화운동가로 변신하게 된 계기는 1974년 악명 높은 ‘긴급조치 4호 민청학련 사건’으로 양심수 낙인이 찍히면서부터였다. 이듬해 졸업 뒤 <동양방송>(TBC) 프로듀서로 일하며 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심청가(예능보유자 고 정권진)를 이수한 그는 81년 언론통폐합으로 이적한 <한국방송>(KBS)에서 ‘국풍81’ 추진을 거부해 강제 사직했다. 판소리를 배우며 전통연희에 바탕한 민중연극인 ‘마당극 운동’에 관심을 가진 그는 80년대 중반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실행위원을 맡아 마당극 전문극단 ‘연희광대패’를 창단하고 본격적인 소리꾼으로 나섰다. 이미 대학 때인 74년 <소리내력>을 선보였던 그는 85년 <똥바다>와 90년 <오월광주>로 이름을 알렸다. <백범 김구>를 계기로 <남한산성>, <다산 정약용> 등 역사 인물 이야기를 소리로 풀어내고 있다. <안중근>, <전봉준>, <전태일과 어머니>, <윤상원>, <판소리 한글>(훈민정음), <현대판 흥보가> 등으로 ‘12바탕’을 채워갈 예정이다.<br/><br/> “이번 백범 판소리 시디 발매를 기점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판본을 축약본으로 따로 구성해 초·중등 각급 학교를 순회공연하는 계획도 세워보려 합니다. 일찍이 선생님께서 건국실천원양성소를 세우시고 또 백범학원과 창암학원을 세우신 그 취지를 되살려 지금 우리의 청소년·학생들이 올바른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br/><br/> 그는 암과의 기약 없는 싸움도 백범의 기상으로 이겨낼 각오를 다지고 있다. <br/><br/> 한편, 창작판소리12바탕 추진위원회는 시디 보급을 위해 단체나 기념선물 제작 주문을 받고 있다. 전자우편(gillayang@hanmail.net), 010-3675-1518.<br/><br/> 김경애 기자 ccandori

언론사: 한겨레-1-191.txt

제목: 홍삼 섭취하면 항암 치료 때 피로감 덜하다  
날짜: 2017062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22105831001  
ID: 01101001.2017062210583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홍삼을 섭취한 암 환자는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쌓이는 피로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22일 김열홍 고려대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팀이 항암 치료를 받는 대장암 환자 438명을 대상으로 홍삼 섭취가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홍삼을 섭취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로도가 낮게 나왔다. 연구팀은 연구 참여자를 219명씩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은 16주에 걸쳐 하루 2회씩 홍삼 1000㎎을 복용하게 했다. 다른 집단은 홍삼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가짜 약을 먹게 했다. 이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피로도 지표로 설문조사를 이용해 두 집단의 피로 점수를 분석했다. 이 지표는 수치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홍삼을 복용한 집단의 점수가 평균 81.07점으로 가짜 약을 먹은 집단(78.1)보다 높아 피로를 덜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보행능력에 따른 피로도는 홍삼 섭취 집단이 88.33점, 그렇지 않은 집단이 83.73이었고, 기분에 따른 피로감의 경우 각각 83.93점, 80.98점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홍삼이 암 환자의 피로감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항암 치료에 있어 홍삼이 효과적인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길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15개 대학병원이 참여했으며,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암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192.txt

제목: 한해 20%씩 뛰던 실손보험료 수술대로  
날짜: 20170621  
기자: 박기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21190853002  
ID: 01101001.2017062119085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큰 폭으로 오른 실손보험 보험료를 규제하기로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 데 따른 반사이익을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부담해왔는데, 같은 항목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항목으로 바뀌면서 그만큼 민간보험사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br/><br/> 2013년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자기공명영상(MRI)을 예로 들면, 이전엔 (본인부담률이 20%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엠아르아이를 촬영하는 경우 촬영비 40만원 중 80%인 32만원을 보험사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엠아르아이가 급여화된 이후엔 비용의 80%인 32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민간보험사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8만원의 80%인 6만4천원만 내면 돼 그만큼 비용이 줄게 된다. 지난해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을 급여로 바꾸면서 민간보험사들이 5년 동안 얻은 반사이익이 1조5244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br/><br/> 사정이 이런데도 민간보험사들은 그동안 “손해율이 100%를 넘는 등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해왔다. 지난해 11개 손해보험업체가 공시한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9.5%였다. 삼성화재(24.8%), 현대해상(26.9%), 동부화재(24.8%), 케이비(KB)손해보험(26.1%), 메리츠화재(25.6%) 등 주요 손보사의 인상률이 모두 20%대였고, 롯데손해보험은 인상률이 32.8%에 이르렀다.<br/><br/>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른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총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관리할 법적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계법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등을 반영해 민간의 의료보험료 인하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올 하반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꾸린 뒤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료 가격자율화 방침도 폐지해 35%의 현행 인상폭 제한을 2015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고, 정작 실손보험이 필요하지만 가입할 수 없었던 유병자나 노년층이 자유롭게 가입하도록 해 실손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br/><br/> 국정기획위는 가계 의료비 경감의 핵심이라 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에 대해선 올해 말 관련 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이행하겠다고 했다. 정책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그동안 의료보험상품 규제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br/><br/> 보험업계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의 과잉의료는 관리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보험업계에만 묻는다는 주장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인 도수치료(손으로 근육통 등을 풀어주는 치료)가 (2006년 이후) 비급여 항목이 되고 나선 사실상 미용 마사지에 가까운 행위까지 보험금을 타가고 있다. 반사이익이 반영됐다 해도 여전히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br/><br/> 박기용 김양중 정세라 기자 xeno

언론사: 한겨레-1-193.txt

제목: 경기 의왕경찰서 고천동에 새 둥지  
날짜: 20170621  
기자: 김기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21142916002  
ID: 01101001.20170621142916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경기도 의왕경찰서가 의왕시 오봉로 10(고천동 231-1)에 새로 건물을 지어 둥지를 틀었다.<br/><br/> 1만3200㎡의 터에 새로 지어진 의왕경찰서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 본관과 2층 규모 민원동 등 2개 건물로 꾸려졌다. 청사 내에는 시뮬레이션 사격장과 다기능 강당 등 최신 시설이 갖춰졌으며, 민원동에는 23면의 민원인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됐다.<br/><br/> 의왕서는 2009년 4월 문을 열어 지금껏 의왕시청 인근 고천동 소재 공장 건물을 임대해 사용해 왔다. 하지만 청사 인근에 아스콘 공장이 있어 악취가 심한 데다 일부 경찰관이 잇따라 암 진단을 받으며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주변 환경이 열악했다.<br/><br/> 오문교 의왕서장은 “<span class='quot0'>의왕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경찰이 될 것을 약속하겠다</span>”고 말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양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김성제 의왕시장과 지역 주민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br/><br/> 김기성 기자 player009

언론사: 한겨레-1-194.txt

제목: 건보료 한달 평균 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날짜: 20170614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14120857001  
ID: 01101001.2017061412085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해 세대당 건강보험료는 평균 10만4천원을 내고, 보험 혜택은 약 18만4천원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거나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을 앓는 환자가 있는 세대는 낸 보험료에 견줘 보험 혜택이 훨씬 컸다. <br/><br/>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2016년 세대 당 건강보험료는 한달 평균 10만4062원을 내고 보험 혜택은 18만3961원을 받아 보험료 부담 1.8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대비 보험 혜택은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에서 더 컸는데, 소득구간을 5개로 나눠 분석한 결과 하위 20%는 5.3배로 집계돼 상위 20%의 1.1배보다 훨씬 높았다. 하위 20%는 평균 한달 2만7천원 가량을 내고 보험혜택은 14만1천원을 받았으며, 상위 20%는 한달 평균 24만1천원을 내고 27만2천원의 보험혜택을 봤다. <br/><br/> 질환별 분석에서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세대가 보험료 대비 보험혜택이 컸다. 심장질환이 있는 세대는 한달 보험혜택이 평균 83만5천원으로 낸 보험료보다 8배 가량이었고, 뇌혈관질환은 7.7배, 희귀질환 4.1배, 암 3.7배 순이었다. 중증질환이라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보험혜택은 더 커 하위 20%의 경우 심장질환이 있는 세대는 낸 보험료보다 30.8배의 보험혜택을 봤다. 나이대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역 및 직장 가입자 모두 60살 이상에서 보험료 대비 보험혜택이 컸는데, 노인들이 각종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 등을 많이 앓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br/><br/> 지난해 병원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62만명으로 전체 분석 대상 3855만명의 6.8%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15년 7.1%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병원을 가지 않은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아 하위 20%는 8.4%로 상위 20%의 5.3%보다 높았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195.txt

제목: ‘임재범 부인’ 뮤지컬 배우 송남영씨 별세  
날짜: 201706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13001849001  
ID: 01101001.20170613001849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가수 임재범씨의 부인인 뮤지컬 배우 송남영씨가 암 투병 끝에 12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45.<br/><br/> 고인은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했으며, 뮤지컬 <명성황후> <페임> <겨울 나그네> <하드록 카페> 등에 출연했다. 2011년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송씨의 암 투병 사실을 공개하고 기적을 기원했던 남편 임씨는 최근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부인 병간호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br/><br/> 부부는 2001년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있다.<br/><br/> 빈소는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4일 오전 예정이다. (02)2227-7500.<br/><br/> 김경애 기자

언론사: 한겨레-1-196.txt

제목: 팀 쿡 “기술이 문제 해결하지만 때론 기술이 문제”  
날짜: 20170612  
기자: 구본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12163842002  
ID: 01101001.20170612163842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정보기술이 인공지능을 동력으로 삼으면서 발달 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애쓰던 일이나 복잡한 작업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처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류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긍정적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인공지능 기술경쟁에 뛰어든 미국의 정보기술업체들의 한결같은 비전이다.<br/><br/> 하지만 모두가 한 방향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애플의 최고경영자 팀 쿡은 최근 매사추세츠공대를 방문해 차별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쿡은 지난 9일 매사추세츠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기술에 대한 성찰적 접근을 강조했다. 쿡은 “기술은 암, 기후변화, 교육불평등과 같은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기술이 항상 해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때로 기술은 문제의 일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지만 오히려 사람이 컴퓨터처럼 사고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거나, 가치관이나 공감 없이 사고하고 실행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컴퓨터 같은 인간에 대한 우려다.<br/><br/> 쿡은 이번 매사추세츠대학 방문 때 저명한 미디어랩을 찾아 감성 컴퓨팅 기술을 만났다. 감성 컴퓨팅 연구를 이끄는 이 대학 로절린드 피카드 교수는 쿡에게 “<span class='quot0'>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실제 우울증에 걸리기 전에 그걸 예측하는 게 목표</span>”라고 설명했다.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사람을 사전 예측하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센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하고 개인적인 정보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쿡의 입장에서는 ‘기술이 문제의 일부분’이 되는 상황일 수 있다. 사람 감정에 접근하기 위한 과정 자체도 다르게 볼 수 있다. 피카드 교수 연구팀은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애플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달리 애플은 사용자의 개인적 데이터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br/><br/> 나의 감정 상태 데이터를 제공해 미래 내가 어떤 정서적 상태에 처할지 기계가 예측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일까, 아니면 정보기술 업체가 나의 내밀한 정보 영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게 좋은 것일까? 기술이 지닌 두 얼굴이 드러나고 있다. <br/><br/>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starry9

언론사: 한겨레-1-197.txt

제목: 저체중에 간 수치 높으면 식도암 발병 위험 3.7배 높아진다  
날짜: 2017061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12112804001  
ID: 01101001.2017061211280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몸무게는 정상보다 낮으면서 간 기능 수치가 높으면 식도암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이거나 간 기능 수치가 높기만 해도 식도암 발병 위험은 높았다. <br/><br/> 12일 최윤진·이동호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2007년~2008년)에 나온 40살 이상 838만825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체질량지수가 18.5 미만으로 저체중에 속하는 사람은 정상 몸무게(18.5~23)인 경우보다 식도암 발병 위험이 1.4배 높았다. 대표적인 비만 지표 가운데 하나인 체질량지수는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또 간 기능 수치 가운데 하나인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가 40단위 이상인 집단은 16단위 이하인 사람들보다 식도암 발병 위험이 2.2배 높았다. 여기에 저체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간 기능 수치까지 높으면 식도암 발병 위험은 3.7배 높아졌다. <br/><br/> 식도암은 전 세계에서 암 사망률 순위 중 6위를 차지하는 암으로 음식물을 삼켰는데도 잘 내려가지 않는 것 같은 증상을 느낀 뒤에 병원을 찾으면 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또 식도 주변 림프절을 통해 주변 장기와 기관으로 빠르게 전이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최윤진 교수는 “<span class='quot0'>약 84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식도암 발병률과 체질량지수·간 수치의 관련성을 분석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저체중이거나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 수치가 높은 사람은 식도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주의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 최근호에 실렸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198.txt

제목: MBC가 삭제한 ‘사장 퇴진’ 내부 성명을 공개합니다  
날짜: 20170610  
기자: 김효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10150845001  
ID: 01101001.20170610150845001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문화방송>(MBC)이 사내 게시판 글을 지난 7일 대거 삭제했다. 삭제된 글은 모두 김장겸 문화방송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명 성명이었다.<br/><br/> <br/><br/> 문화방송 사쪽은 글을 삭제한 이유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사생활 침해 및 인신공격성 내용을 담으면 안 된다는 사내 ‘전자게시판 운영 지침’ 위반을 들었다. 사쪽은 또 “(게시물들이) ‘조직 내 건전한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라는 게시판 운영 취지에 위배된다”고 했다. 사쪽은 게시물을 올린 직원의 게시판 사용 권한을 1개월 동안 제한하기도 했다. <br/><br/> <br/><br/> 사내 전자게시판 글을 심의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곳은 문화방송 내 ‘전자게시판 운영위원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사내 언로를 틀어막고도 공영방송을 자임하는가’ 성명에서, 해당 위원회 구성이 사쪽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일반 사원들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br/><br/> <br/><br/> 시청자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한겨레>는 사쪽이 삭제한 성명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공개한다. 아래 성명들의 전문은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블로그(▶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다.<br/><br/> <br/><br/> 1. “<span class='quot0'>30대 초반에 마이크를 빼앗긴 후배는 이제 30대 후반이 됐다</span>”<br/><br/> <br/><br/> <br/> 어느 후배를 생각한다. <br/><br/> <br/><br/> 2009년인가 입사한 이 후배는 여느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부에서 일을 시작했다. 회사는 점점 집처럼 편해졌고 일은 손에 붙어 갔다. 깨지고 욕먹고 하나라도 더 건져보겠다고 원치 않는 숱한 술자리에 끼어 앉은 3년어치만큼 기사는 볼 만해졌다. 친한 취재원도 늘어나 가끔 자잘한 단독이나마 챙겨올 수 있었고 그런 날 퇴근하는 뒤통수에 선배의 “수고했어!” 한 마디가 날아들면 복도에 서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길 기다리며 혼자 슬며시 웃었다. <br/><br/> <br/><br/> 후배의 생활은 2012년 여름부터 많이 달라졌다. 취재수첩도 노트북도 필요하지 않은 날들이 시작됐다. 얼떨떨했지만 그 땐 아무튼 이런 생활이 아주 길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기자로 입사했으니 다시 기자질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믿었던 것 같다. <br/><br/> <br/><br/> 하지만 긴 보도국 밖의 생활은 사실 그 때부터가 시작이었다. 일정도 목표도 없는, 회사와 계약했던 기자라는 직업과는 한참 먼 일상이 이어졌다. 성실한 성격이라 이것저것 배워 보기로 하고 중국어랑 영상편집을 한동안은 열심히 해봤다.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배는 금세 부유했다. 무엇보다 리포트가 너무 하고 싶었다. 그게 내 일이니까. 내가 배운 게 그 것뿐이니까. 너무 일하고 싶어 뉴스를 보는 게 괴로웠다. <br/><br/> <br/><br/> 그렇게 5년. <span class='quot0'>30대 초반에 마이크를 빼앗긴 후배는 이제 30대 후반이 됐다</span>.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이 쉽게 흘러갔다. 지난 겨울 후배가 문득 “기자로 산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걸 세고 있었구나. 왜 세 봤을까. 농담을 들은 것처럼 선배도 마주 웃었다.<br/><br/> <br/><br/> 후배의 세 번째 인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유가 없었고 전격적이었다. 선배는 그 속에서, 다시는 이 자에게 기자를 시키지 않겠다는, 기자의 명줄을 잘라 놓겠다는 살의를 느꼈다. 무덤 위 잡초를 베는 낫질의 무심함과 부지런함으로 70명 기자들의 생명이 시시때때로 뎅겅 뎅겅 잘려 아무데나 던져졌다.<br/><br/> <br/><br/> - ‘[보도부문 35기 성명] 김장겸은 MBC를 떠나라’ 중에서 <br/><br/> <br/> <br/><br/> 2. “<span class='quot0'>정치적 외풍이 아니라 MBC 정상화를 염원하는 구성원의 총의</span>”<br/><br/> <br/><br/> <br/> 김장겸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는 진영논리나 이념 때문이 아니라, 김사장과 그 체제가 반민주적이고 무능하기 때문이다. 또 MBC의 살 길은 도모하지 않고, 오히려 MBC를 이용해 일신의 영달과 사익을 챙긴 결과이다. ‘정치적 외풍’이 아니라 MBC 정상화를 염원하는 구성원의 총의이다. <br/><br/> <br/><br/> - ‘[보도부문 34기 성명] 김장겸 사장은 퇴진하라’ 중에서 <br/><br/> <br/> <br/><br/> 3. “<span class='quot0'>균형이 맞지 않는 주장을 5대5의 주장인 것처럼 보도해오지 않았는지</span>”<br/><br/> <br/><br/> <br/> “<span class='quot0'>그런 주장이 있는 건 어쨌든 사실이지 않냐</span>”<br/><br/> MBC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 중 하나입니다.<br/><br/> 뉴스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고, <br/><br/> 기사에 굳이 안넣어도 되는 내용인데도, <br/><br/> 그걸 기어코 총을 쏘고 리포트 안에 끼워넣으면서 <br/><br/> 윗분들은 저 얘기를 했습니다.<br/><br/> <br/><br/> (...)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과<br/><br/> 공영방송 MBC가 그들의 주장을 뉴스로 전하는 것은 <br/><br/>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br/><br/> <br/><br/> 시청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br/><br/>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MBC뉴스에는 부족했습니다.<br/><br/> <br/><br/> 탄핵 찬반 여론이 8대2의 압도적인 차이로 <br/><br/> 6개월 넘게 이어져왔는데도,<br/><br/> 마치 국민이 둘로 분열된 것처럼<br/><br/> 균형이 맞지 않는 주장을 5대5의 주장인 것처럼<br/><br/> 보도해오지 않았는지..<br/><br/> <br/><br/>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는 친박단체의 주장에,<br/><br/> 대선 국면에서는 특정 정당의 주장에 비중을 두지는 않았는지..<br/><br/> 반성하고 자성해야 합니다<br/><br/> <br/><br/> - ‘[보도부문 조합원 1인 성명] 김장겸 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중에서<br/><br/> <br/> <br/><br/> 4. “<span class='quot0'>‘MBC스페셜’만 촛불시위와 탄핵을 방송하지 못했다</span>”<br/><br/> <br/><br/> <br/> 지상파 3사의 다큐멘터리 중 만이 촛불시위와 탄핵을 방송하지 못했다. 6월 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마저 제작이 중단되었다. 일련의 사건들은 MBC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콘텐츠제작국 PD들은 시청자보다 경영진의 입맛에 맞춰 방송소재를 찾아야 하는 절망적 상황이다. 시청자를 외면하고, 콘텐츠 제작의 자율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와 회사의 위상 강화는커녕,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br/><br/> <br/><br/> - ‘[콘텐츠제작국 PD 성명] 방송을 막고 PD들을 모욕한 경영진은 MBC를 떠나라!’ 중에서 <br/><br/> <br/> <br/><br/> 5. ‘강한 야당방송’ 되겠다고요?<br/><br/> <br/><br/> <br/>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김장겸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강한 야당방송이 되겠다”고 천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 이왕이면 그 이야기가 김장겸 사장 취임 직후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 MBC를 제외한 모든 언론이 박근혜 정권의 비리와 오류, 무능에 대해 맹렬하게 보도했던 지난 해 하반기에, 300여명의 목숨이 진도 앞바다에 수장됐던 2014년 4월에, 거슬러 올라가 김장겸 사장이 정치부장을 맡고 있던 2012년 대선과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야당’의 시선으로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감시자와 비판자의 역할로 보도에 임했으면 더더더 좋았을 것이다. <br/><br/> <br/><br/> -‘[보도부문 36기 성명] 김장겸 사장의 유일한 기여는 퇴진 뿐이다’ 중에서<br/><br/> <br/> <br/><br/> 〔알려드립니다〕<br/><br/> 이 기사가 보도된 뒤인 6월23일, 엠비시 홍보국 정책홍보부는 <한겨레>에 김장겸 문화방송 사장이 “강한 야당방송이 되겠다”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br/><br/> <br/><br/> 6. “<span class='quot0'>그가 꽃길을 걷는 동안, MBC는 몰락했다</span>”<br/><br/> <br/><br/> <br/>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br/><br/> 사장의 약력이다.<br/><br/> 2011년 2월 보도국 정치부장 <br/><br/> 2013년 5월 보도국장 <br/><br/> 2015년 2월 보도본부장<br/><br/> 2017년 2월 MBC 대표이사 선임. <br/><br/> <br/><br/> 정확히 <span class='quot0'>그가 꽃길을 걷는 동안, MBC는 몰락했다</span>.<br/><br/> <br/><br/> (…) 그 사이 해고자들의 고통은 심대해졌다. 이용마 기자는 암과 싸운다. 마이크를 빼앗긴 기자들은 여전히 영업부서로, 자회사로, 지원부서로 떠돌고 있다.<br/><br/> <br/><br/> 음수사원 굴정지인(飮水思源 掘井之人). <br/><br/> 우물이 말랐다. 우물 판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 이제 진짜 뉴스를 하자.<br/><br/> <br/><br/> -‘[보도부문 42기 성명] 김장겸 사장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용퇴하라’ 중에서 <br/><br/> <br/> <br/><br/> 7. “<span class='quot0'>품격있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span>”<br/><br/> <br/><br/> <br/>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에서도 경영성과가 저조하면 수장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br/><br/> 하물며 언론사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신뢰도와 영향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현 경영진은 그 職의 무거움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br/><br/> ‘품격있는 젊은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br/><br/>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 주십시오.<br/><br/> <br/><br/> - ‘[보도부문 41기 성명] 물러나야 합니다’ 중에서<br/><br/> <br/> <br/><br/> 8. 언론 적폐 한가운데 MBC가 있다<br/><br/> <br/><br/> <br/> 국민은 적폐 청산을 명령했다. 국민의 가장 큰 분노는 언론 적폐를 향해 있다. 그 한가운데 MBC가 있다.<br/><br/> (…) 김장겸 사장과 그 부역자들은 알아서 떠나라!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br/><br/> <br/><br/> -‘[보도부문 40기 성명] 알아서 떠나라!’ 중에서 <br/><br/> <br/> <br/><br/> 김효실 기자 trans

언론사: 한겨레-1-199.txt

제목: 세월호 특조위, 못다 한 이야기  
날짜: 2017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09203812001  
ID: 01101001.20170609203812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치아를 7개나 뽑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심코 이 닦다가 이빨 하나가 툭 빠지는데, 아프지도 않았어요. 안 아프고 빠지니까 좋기는 한데….(웃음)”<br/><br/> 잇몸과 치골이 망가지면서 치아 전체에 손상이 왔다. 의사 말로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할 때 치아 하나가 빠졌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하는 동안 두번째 치아가 빠졌다. 건성으로 붙어 있는 몇 개도 제 기능을 못하니 모두 빼고 인공치아로 갈아 넣으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다 뺄 수가 없어 망설이고 있다면서, 그가 겸연쩍게 웃었다. 지난 3년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듯했다.<br/><br/> 박종운(52) 변호사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이자 안전사회소위원장으로,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과 함께 특조위의 구성부터 강제해산까지 전 과정을 일선에서 겪은 ‘특조위 트로이카’ 중의 한 사람이다. 세월호 특조위원으로서의 공식 활동은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에 세월호는 여전히 무거운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지난 활동을 회고하는 그의 얼굴엔 만감이 교차했다.<br/><br/>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600만여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그 가운데 1차 수합분 350만1266명의 서명이 국회에 전달된 게 2014년 7월15일,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 그해 11월7일이다. 특별법의 시행일은 2015년 1월1일부터지만,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하기로 한 특조위는 출범부터 휘청거렸다. 정부는 특조위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발목을 묶는 시행령을 내놓았고, 8월4일이 되어서야 당초 요구액의 44%를 삭감한 예산을 배정했다.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줄줄이 사퇴했고,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노골적인 태업과 지시 불이행으로 특조위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해 6월30일자로 조사활동이 강제 종료되고 석 달 후인 10월1일 최종보고서도 내지 못한 채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세월호 참사 900일 만이었다.<br/><br/> 속절없이 무너지던 세월호의 불꽃을 다시 살려낸 건 촛불시민들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5월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span class='quot0'>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다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span>”며 은폐된 진상을 재규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지난 특조위 활동에서 얻어낸 성과는 무엇이고, 은폐된 진실은 무엇인가? 설립부터 해산까지 1년9개월간 세월호 특조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난달 31일 서초동 ‘법률법인 하민’ 사무실에서 박종운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br/><br/> <br/><br/> 특조위는 해산되었어도 우린 끝내지 않았다<br/><br/>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해산된 게 지난해 10월1일입니다. 그 이후 어떻게 지내셨어요?<br/><br/> “특조위가 종료되었다는 것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하려면 인적, 물적 준비가 끝나야 하잖아요. 특조위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첫 출근 한 게 2015년 7월27일이고, 국무회의에서 특조위 예산안이 통과된 게 8월4일이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그때 정도 되어야 설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날로부터 치면 원래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 시한은 올해 5월3일까지거든요.”<br/><br/> -원래 1년6개월까지 조사활동이 보장되고 추가 3개월간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br/><br/> “네, 다 합쳐서 1년9개월이에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무조건 1월1일을 개시일로 보고, 10개월밖에 활동 못한 특조위를 강제 종료시킨 거죠. 특조위가 해산된 뒤 저도 일종의 트라우마 상태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을까, 분노하고 좌절했죠.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직후에 구성된 대한변협의 ‘세월호 태스크포스팀’ 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변협 산하 세월호특위를 거쳐서, 세월호 특조위까지 근 3년을 세월호에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br/><br/> -트라우마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났나요?<br/><br/> “아…. 기억의 단절이 좀 있어요. 2014년 4월16일 이전과 이후 3년 동안 시간 사이에 군데군데 어떤 단절이…. 아마 제 마음속에서 충격이나 울분을 무의식적으로 지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br/><br/> 그는 처음 팽목항을 찾았을 때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세월호 특조위원이 돼서 간 건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전에 처음 참사현장을 찾았을 때 기억은 지워진 것 같다고.<br/><br/> -요즘엔 조금 나아지셨나요?<br/><br/> “마음속의 울분을 어쩌지 못해서 몇달을 고민했는데, 최근 5월3일이 지나면서부터 조금 짐을 던 느낌이에요. (박근혜) 정부는 인정을 안 하지만, 특조위 활동을 제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겐 강제 해산이 됐든 어쨌든 올해 5월까진 특조위 사람이란 정체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원 중 9명은 강제 해산 이후에도 최근까지 매달 만나 회의를 했고, 조사관들도 그냥 헤어질 수 없다고 따로 조사관 모임을 꾸렸어요. 저도 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을 하기는 부담스럽더라고요. 5월3일 활동 종료일이 지나기 전까지는.”<br/><br/> -마음속 임기가 안 끝나서요? 특조위에서 임금은 제대로 받았나요?<br/><br/> “지난해 7월1일 이후 특조위 조사관들 월급이 끊겼어요. 상임위원들에겐 그래도 7, 8, 9월 석 달간 급여가 나왔는데, 그걸 따로 모아서 특조위 활동 비용으로 쓰기도 했죠.”<br/><br/> -사비를 털어서 특조위 일을 했단 말씀이세요?<br/><br/> “특조위에서 청문회를 세 번 했는데 9월1~2일에 한 3차 청문회는 우리가 돈을 모아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특조위 조사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정부 측 사람들은 증인으로 안 나올 게 뻔했고, 예산도 없고, 심지어 장소도 없었어요. 국회가 장소 이용을 불허해서, 하는 수 없이 사학연금회관 강당을 예약했는데 그마저도 교육부가 압력을 넣어서 취소되었죠. 결국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을 빌리기로 하고 청문회를 준비했지만, 장소 없지, 돈 없지, 증인 없지, 그 상태에서 청문회를 강행하는 게 맞을까, 아예 항의성 사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도 큰 논쟁이 있었어요.”<br/><br/> -사퇴하지 않고 강행한 이유는요?<br/><br/> “7월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농성도 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퇴하고 나가면 그나마 10개월 정도 진행한 특조위 결과물들조차 보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자료들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고 나면 쉽게 찾아보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남은 기간 이걸 잘 정리해서 서울시 추모관에 한 부, 안산시에 한 부, 국회 농해수위에 한 부….”<br/><br/> -믿을 수가 없으니까, 조선왕조실록 분산 보관하듯이….(웃음)<br/><br/> “이 정부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니 끝까지 남아서 그간의 자료라도 남겨둬야 정권이 바뀌든 새로운 특조위가 생기든 계속해서 그걸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br/><br/>2000년 변호사 생활 시작하면서난민·장애인 등 돕는 공익활동우여곡절 끝 특조위 출범했지만박근혜 정부, 활동 방해 ‘시행령' 종합보고서도 못 내고 강제해산<br/><br/>특조위 종료 도저히 동의 안돼 특별법 개정 등 촉구 단식농성예산 지원도 없이 3차 청문회 “10개월 활동 자료라도 남겨둬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br/><br/> <br/><br/> ‘마이너스통장이 있어서 괜찮아요.’<br/><br/> -지난해 7월 이후 특조위원이나 조사관들은 어떻게 생활하셨죠? 일은 일대로 하면서 봉급은 못 받았으니.<br/><br/> “그래도 변호사들에겐 마이너스통장이라는 게 있어요.(웃음) 제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아서 첨엔 근근이 버티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었는데 부모님이 그걸 모아뒀다가 보태주시기도 했고요.”<br/><br/> -가족들도 고생이 많았겠어요. 자녀는 어떻게?<br/><br/> “<span class='quot1'>고3 딸, 고2 아들 있어요.</span>”<br/><br/> -고3 아빠시군요.<br/><br/> “뭐, 고3이라고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어요. 저나 아내나 공부하라고 닦달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살아보니 공부 잘한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한 우병우 같은 사람 보세요.(웃음)”<br/><br/> -수험생 뒷바라지에 돈도 많이 들 텐데요.<br/><br/> “제가 변호사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강남 살지 말고 사교육에 몰빵하지 마라.’ 그거 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해요. 그럼 변호사들이 공익활동 하기 어려워집니다. 선배들 보면 강남에 아파트 얻느라 돈 쏟아붓고, 사교육비에 엄청 돈 들이고, 그 결과는 뭐냐? 기러기아빠 되는 거예요.(웃음) 부인 딸려서 애들 유학 보내고, 자기 혼자 술 먹다가 암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아요.”<br/><br/> -아이들은 불만 없대요?<br/><br/> “아빠가 변호사라고 특별할 건 없다고, 돈 많이 버는 변호사 아니니까 한 과목에 몇십만원짜리 과외 같은 건 못 시킨다고 했어요. 그런 돈 있으면 다른 데 도와야지. 애들도 얼추 동의하고요, 학원에서 시간 뺏기는 거 싫대요. 딸애는 고3이지만 사물놀이도 하고(웃음) 혼자 알아서 그럭저럭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니까.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그렇게 공부했고요.”<br/><br/> 박종운은 전남 함평 태생이다. 학다리초등학교, 학다리중학교, 학다리고등학교까지, 넉넉지 못한 소농 집안이라 도시로 유학 갈 생각은 못하고 고등학교까지 함평에서 나왔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97년 사시에 합격해서 2000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했다. 보험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난민과 이주노동자, 장애인과 탈북자들을 돕는 공익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모태신앙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에게 변호사로 일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좇아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br/><br/> <br/><br/> 기우는 천칭 떠받쳐야 평화가 온다<br/><br/> -하나님나라 운동이 뭐죠?<br/><br/> “가장 높은 가치가 전 평화라고 생각해요. 평화롭고 안전하게 잘 사는 것. 이 세상을 하나님나라가 되게 한다는 건, 사랑과 공적인 정의를 통해서 ‘형평’케 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부자하고 같은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끌어올려주는 게 형평이죠. 단순한 공산주의적 평등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거요.”<br/><br/> -세월호 특조위 일에 나선 것도 그런 맥락이었나요?<br/><br/> “변호사를 애드버킷(advocate)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지지 옹호한다는 뜻이잖아요?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천칭을 들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기울면 그걸 이렇게(손바닥을 위로 올리며)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대등한 당사자를 만들어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죠.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대개 그 가해자는 국가거나 대기업 혹은 지방자치단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참사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사람은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가해자와 대등한 당사자로 협의할 수 있게끔 법률지원을 해주는 일, 그게 변호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br/><br/> -지난 3월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도회에서 ‘세월호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시며 오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봤습니다.<br/><br/> “제가 원래 대중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고요, ‘할렐루야’ 이런 것도 잘 못하는데, 제 바로 앞 순서로 박은희 전도사, 단원고 예은이 엄마죠, 그분이 5분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그분 얘기 들으면서 이미 울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거고, 갚아주실 거다’ 생각하니 그렇게 북받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좀 창피하데요.(웃음)”<br/><br/> -그 기도가 통했나 보네요. 며칠 뒤 박근혜 파면 결정이 났으니까.(웃음) 그런데 개신교 대형교회를 필두로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집회가 격렬하게 벌어졌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br/><br/> “개신교 안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어요. 오늘도 바로 이 앞(법원 앞)에서도 시위하고 있어요. 태극기 들고 우리 대통령 석방하라고. 그럴 자유가 있죠. 존중해야 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견을 신앙적으로 발언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발언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빙자하지만 개인적인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는 거죠. 전 그게 개신교 문제라기보단 사회문제라고 봐요.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은 서로 맞물려 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깨끗해지려 해도 박근혜 정부 아래선 잘 안 움직여요. 권력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회가 개혁되면 그 개혁된 사회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죠.”<br/><br/> -박근혜가 파면되었으니 좀 달라질 거란 말씀인가요?<br/><br/> “제가 성대 84학번인데 87년에 ‘박종철을 살려내라’고 시위에 나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니네 때문에 장사 안된다’며 우리를 발 걸어 넘어뜨리고 경찰에 넘겼어요. 후배들이 그걸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죠. 이른바 ‘민중’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위에 나간 건데, 그런 우릴 잡아다가 경찰에 넘기다니…. 근데 그로부터 불과 몇달 후에 6월항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보통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행동하죠. 그러다 어느 시점에선가 이기적 욕망엔 반하지만 사회 전체, 더 큰 자아를 위해서 변하게 되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전 촛불도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촛불 든 사람들이 옛날부터 다 그랬던 사람들인가? 아니거든요. 소시민적으로 내 일상의 삶을 위해서 살아오고 웬만한 건 참고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른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br/><br/> 이기적인 욕망에 휘둘리던 소시민들이 불의에 맞서서 성난 노도처럼 일어서는 장면은 장엄하고 강렬하다.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3년 전 무고한 생명들이 세월호 밑바닥에 갇혀 산 채로 수장되는 걸 목격했을 때도 그랬다. 많은 이들이 노란 리본으로 긴 띠를 이루며 ‘잊지 않겠다’ ‘뭐라도 하겠다’고 눈물로 맹세했다. 그러나 그때 눈물 흘린 사람들이 끝까지 모두 세월호를 지킨 것은 아니었다. 특조위 사람들이 정부의 강제 해산에 반대해 단식농성을 벌일 때 광장에 모인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적어도 촛불광장이 다시 불을 밝히기 전까진 그래 보였다.<br/><br/> <br/><br/> 세월호의 ‘세’자도 싫다던 박근혜<br/><br/> -결론부터 여쭙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실패한 건가요?<br/><br/> “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에서는 실패라고 봅니다. 종합보고서를 내지 못했으니. 특조위가 종합보고서를 내려면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선체조사라는 핵심적인 대목이 빠진 상황에서 결론을 낼 수 없었습니다. 조사활동 기간 1년6개월이 다 채워졌으면 또 모르겠는데 10개월 정도밖엔 일을 못하고 조사활동이 종료된 것도 문제고요.”<br/><br/> -가장 큰 패인이 뭡니까?<br/><br/>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청와대에서는 세월호의 ‘세’자만 들어가도 뭐라고 한다, 최순실은 지나가다가 노란색만 봐도 노란 리본 생각나서 싫다고 한다… 그런 거예요. 통상적인 정부라고 하면 해결이 되었을 거예요. 박근혜 정부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언급조차 하기 싫어하고, 참사 관련해서 뭐가 올라오면 거부하고,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위원회의 한계가 있더라도 특조위에서 상당 부분 해결했을 겁니다. 권력이 지지해주면 공무원들 태도가 달라지니까요.”<br/><br/>조직 인력·예산 갖추는 데 8개월청와대 세월호 언급조차 꺼리고해경 공무원은 ‘왜 날 부르나’ 대응조사 돕던 공무원들 어려움 호소지시 따르지 않는 파견공무원들도<br/><br/>2기 특조위 만들려면 법 제정 필요여야간 협상 등에 시간 걸릴 듯참사에서 교훈 못 얻는 게 ‘비정상’“<span class='quot2'>돈으로 끝내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진실 밝히고 안전사회 길 찾아야</span>”<br/><br/> -세월호 진상규명소위원장을 한 권영빈 변호사는 최근에 발간한 책 <머나먼 세월호-세월호 특조위와 함께한 시간>에서 “<span class='quot3'>특조위 활동의 성과 중 하나는 정부 여당이 특조위 활동의 가장 큰 방해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다</span>”라고 썼어요. 그들이 이럴 줄 몰랐던 건가요?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본 건 아닌가요?<br/><br/> “양극단의 평가는 피하는 게 좋겠어요. ‘특조위가 한 게 뭐 있어?’ 식의 평가나 ‘그래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얻은 최선의 결과물이야’ 같은 평가, 둘 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실패라고 말한 건, 종합보고서가 만들어져서 그게 국회나 정부에 정책권고 형태로 가고 그걸 이행하게끔 만들었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거죠. 어떤 핑계를 대도 못한 건 맞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일을 할 만큼 인적 물적 토대가 갖춰지는 데만 8개월이 걸렸고, 정원이 120명인데 100명을 채워본 적도 없어요. 그나마 배치된 파견공무원들도 2015년 1월16일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는 세금도둑’이라고 발언하고 나서 태도가 싹 달라졌어요. 뭔가 라인이 있었던가 봐요. 대놓고 ‘세월호는 일반 사고인데 뭘 조사할 게 있다고 날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한 해경 소속 공무원도 있었어요. 가만 놔두면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일은 해요. 개중엔 우릴 진짜로 도우려는 직원도 있었고요. 근데 청와대 라인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우는 거야. 왜 우냐고 하면, 자긴 할 일을 한 건데 ‘너 왜 특조위 일을 그렇게 하냐?’고 지적받는다고…. 그러니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있었겠죠.”<br/><br/> -내부 기강을 확실히 잡을 방법은 없었나요? 열심히 일하는 별정직 조사관들도 그런 느슨한 관리 구조에 불만이 많았다던데.<br/><br/> “충분히 그런 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조위 지시를 따르지 않는 파견공무원들을 최대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말곤 달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어요. 특조위가 파견공무원들을 징계할 권한이 없거든요. 징계하라고 소속 기관에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 징계를 안 하겠죠. 오히려 영웅 대접 할걸요.(웃음) 자기들 말 잘 들어서 징계권고 받아 왔다고.”<br/><br/>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박근혜는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방어적이고 적대적이었을까요?<br/><br/> “글쎄요, 숨겨야 할 만한 엄청난 비밀이 있어서 그렇다는 가설이 가능하죠. 그 비밀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br/><br/> -세월호 특조위는 반민특위하고도 다르잖아요. 반민특위는 친일파의 정치적 단죄를 목적으로 한 거라서 이승만과 기득권층이 기를 쓰고 와해한 건데, 세월호는 조사할 것 조사하고 해경이든 해수부든 처벌할 것 처벌하고, 대통령이 당일 날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그렇게 처리해도 될 일 아닌가요?<br/><br/>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만큼 감추려 들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지 않나 추정이 되는 거죠.”<br/><br/>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문서의 목록조차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밀로 봉인되어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어 이 문건들은 최장 30년간 공개가 금지된다. 현재 이 기록물의 봉인 해제를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br/><br/> <br/><br/>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기<br/><br/> -이제 2기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br/><br/> “2기 특조위가 있어야지요. 근데 그걸 하려면 다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br/><br/>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연장할 순 없고요?<br/><br/> “아예 활동시한이 끝났으니 그건 어렵죠. 새로 법안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야간 협상도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이전에 우선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로 세월호에 대한 자문기구라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기 특조위 출범을 전제로 하되, 1기와 2기 사이에서 과도기적으로 청와대와 정부 수준에서 지시하거나 감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하면, 2기 특조위 출범 전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br/><br/> -미완의 1기 특조위원으로, 가장 회한이 남는 점이 있다면?<br/><br/> “저는 사실 특조위 들어갈 때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생각했어요. 지금 와선 그 역할에 대해 회의가 들어요. 어떻게 하든 결론은 똑같은데, 내가 왜 그렇게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하고 잘해보려고 그들에게 공을 들였나 싶고요.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고 좀 더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br/><br/> 그가 다음 약속을 위해 떠나기로 한 시간이 살짝 넘었다. 서둘러 인터뷰를 정리하려는데, 그가 꼭 덧붙일 말이 있다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br/><br/>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왜 이렇게 오래 끄냐?’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과거처럼 참사 발생하면 피해자들한테 위자료나 주고 끝내버려서 사실상 참사로 인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 그게 ‘비정상’입니다. 과거에 서해훼리호 사건이 나서 사람이 꽤 죽었죠. 그냥 배상해주고 끝났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502명이 사망했어요. 그거 고치려면 건축과 관련된 제도 확 뜯어고쳐야 하는데, 처음에만 떠들다가 ‘다 배상받았대, 그러면 끝났네’ 그랬어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끝까지 싸워가는 근력이 약했던 거죠. 세월호처럼 돈으로 끝내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진실 밝히고 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해요. 그런 점에서 난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가족들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br/> 녹취 심지연<br/><br/> ▶ 이진순 풀뿌리정치실험실 ‘와글’ 대표. 언론학 박사. 새로운 소통기술과 시민참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다. 사람 사이의 수평적 그물망이 어떻게 거대한 수직의 권력을 제어하는지,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함이 어떻게 얼어붙은 세상을 되살리는지 찾아내는 일에 큰 기쁨을 느낀다.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한겨레-1-200.txt

제목: “뱃속에 돌 품고산지 10여년…통증 탓 제거하니 맘은 편해요”  
날짜: 20170607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07212838001  
ID: 01101001.2017060721283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몸 안에 돌이 있다니까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도 아무런 일 없기를 바랐는데 결국 극심한 통증을 겪었고, 그 뒤 복강경 수술로 제거하니까 이제 맘은 편하네요.”<br/><br/> 주부 이아무개(67)씨는 2년 전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소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가족 중에 비(B)형 또는 시(C)형 간염을 앓거나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이 없어 간 건강은 나름 자신 있었습니다. 게다가 30여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활동하거나 주말에는 등산을 다니는 등 운동도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체력도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건강검진에서도 재검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흔한 당뇨나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도 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br/><br/> 그러던 그가 50대에 접어들면서 몸무게가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에는 평소보다 거의 10㎏이 늘었고, 이 때문인지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날도 잦았습니다. 물론 배드민턴이나 등산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몸이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여성은 폐경 뒤에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다는데 아마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몸무게도 많이 늘고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 혹시 중병이 생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침 남편이 종합건강검진 상품을 구입해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100만원에 가까운 검진을 집에서 가까운 한 대학병원에서 받았는데,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 값비싼 영상검사가 많이 포함돼 있었지만 다행히 암 등 중증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의 기준이 되는 혈당이나 혈압 수치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에서는 골다공증과 담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간 등 소화기 계통의 장기를 살펴보는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담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의사가 ‘담석이 쓸개를 막아 급성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가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span>”고 말했습니다. 그가 담석이 있는 위치까지는 기억을 못 했을 수 있지만, 아마도 담낭(쓸개) 안에 있는 담석으로 추정됐습니다. 권국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담석증은 간, 담관, 담낭에 돌이 생기는 질환으로 생기는 위치에 따라 간 내 담석, 담관 담석, 담낭 담석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담낭 담석이 전체의 65%로 가장 많고, 대부분 담낭 담석은 증상이 없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span>”고 설명했습니다.<br/><br/>꾸준한 운동으로 체력 관리하며 주위 부러움 사던 직장 여성 50대 폐경 뒤 체중 10㎏ 늘어 건강 이상신호로 종합검진 받아<br/><br/> 복부 초음파로 담석 의심 판정 증상 없어 관찰하기로 했지만소화 잘 안 되고 어깨 뻐근해도 “혹시 담석 때문은 아닐까” 불안<br/><br/> 수년 지나 급성 담낭염 찾아와 오한, 구토, 복통으로 응급실행 담석 제거 뒤 오히려 마음 편해져 배드민턴, 등산 하며 일상 복귀<br/><br/> 담석이 있다는 말에 다소 놀란 그는 치료법에 대해 검진 결과를 설명한 의사에게 물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과 함께 복통이 심하게 나타나면 빨리 응급실을 찾으라는 설명만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이씨와 같은 50대 여성에게 흔히 있는 증상으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넘어지는 등 충격을 받으면 골절이 나타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든 우유나 멸치 등과 같은 생선을 많이 먹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설명 뒤 이씨는 저에게도 전화로 담석에 대해 질문하면서 몸 안에 돌이 있는데 관찰만 하라고 했다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저 역시 검진 설명 의사처럼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씨는 종합검진을 받은 대학병원의 외래를 다시 찾아 소화기내과 교수에게 담석에 대해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그 교수 역시 증상이 없으면 관찰하는 것이 의학계의 권고라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당분이나 지방질이 너무 많이 든 음식은 삼가는 것이 좋다는 말과 함께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담석이 커질 수 있으며, 자칫 담즙이 나오는 관을 막아서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몸무게의 급격한 변화도 좋지 않다고 해 다이어트 등을 할 생각은 일단 버리기로 했다</span>”고 말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젊은 여성에게서 담석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담석증을 앓은 20~30대 여성은 약 1만2천명으로 남성 환자 수보다 1.5배 정도 많았습니다. 이는 과도한 다이어트 탓도 크다는 것이 관련 전문의들의 설명인데, 지방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면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담낭에 고인 상태로 농축이 되면서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br/><br/> 이후 이씨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담석을 발견한 뒤 3~4년이 지나 직장을 그만 다니게 된 뒤로는 별다른 일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담석에 대한 불안감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0'>음식을 먹은 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으면 혹시 담석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배드민턴 등과 같은 운동을 한 뒤 어깨가 뻐근하거나 등에서 통증이 생겨도 담석 발작이 시작된 것처럼 느끼기도 했다</span>”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니, 복강경 수술로 담석과 함께 담낭은 쉽게 제거가 가능하며 그다지 위험한 수술도 아니라는 설명을 보면서 복강경 수술도 알아보곤 했습니다. 그는 종종 전화로 “아는 것이 병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것 같다. 과거에 일을 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더니 은퇴하고 나니 걱정이 더 많이 든다”며 수술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0'>담석으로 염증이 심해지면 통증이 너무 심해 연락도 하기 힘들 정도라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더 불안하다</span>”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불안감이 심하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담석을 녹이는 약을 쓰거나 초음파 쇄석술을 알아보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는지 아니면 담당 의사가 두 방법 다 권고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결국에는 담석에 대해 별다른 치료 없이 지냈습니다. <br/><br/> 하지만 2년 전 결국 이씨에게 급성 복통이 나타나는 등 급성 담낭염이 찾아왔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처음에는 열이 나면서 오한이 생겨 감기에 걸린 것으로 생각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담석이 문제가 되면 ‘방바닥에 구를 정도로 아프다’고 해서 의심을 못 했다</span>”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 먹은 뒤에는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후에 실제로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복통이 나타났으며, 처음에는 오른쪽 윗배만 아프더니 나중에는 오른쪽 어깨와 등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돌이켜보면 정말 아이를 낳을 때 통증 이후로 그렇게 심한 통증은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마침 밤늦게 통증이 나타나 남편의 도움으로 곧바로 119를 불러 응급실을 갔다</span>”고 말했습니다. 보통 담석증은 지방질이 과다하게 들어 있는 육류를 많이 먹는 등 과식을 한 뒤, 또는 밤중이나 새벽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평소 고기를 잘 먹지 않아 음식 섭취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br/><br/> 응급실에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다음날 관장 등 몇 가지 처치를 받은 이씨는 결국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송대근 비에비스 나무병원 소화기외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2'>복강경 수술은 복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배꼽이나 명치 부위에 1㎝ 정도 구멍을 3~4개를 뚫고 그 안에 배안(복강)을 들여다보는 카메라인 복강경과 수술 기구를 삽입해 수술하는 방법</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최근에는 배꼽 한군데에만 구멍을 뚫고 복강경 수술을 해 흉터가 거의 나지 않는 방법도 개발됐다</span>”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구멍을 세 개가량 뚫는 복강경 수술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담석이 3개 정도 들어 있는 담낭을 몸 밖으로 빼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어서 별다른 합병증은 없었고, 다른 소화기관 수술과 마찬가지로 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뜻인 방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식사를 시작했으며 수술 뒤 닷새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 설명대로 수술 흉터가 크지 않은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퇴원을 하면서 담낭을 제거했기 때문에 소화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에도 소화 장애가 생기지는 않아 음식을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담낭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일도 없습니다. <br/><br/> 복강경 수술을 받은 뒤 이씨에게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2'>담석으로 복통이 심하면 움직일 수도 없다는 생각에 불안한 날들이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2'>함께 사는 남편이 여행이라도 가면 혹시라도 밤중에 통증이 나타날까봐 두려웠던 것이 사실</span>”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담석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괜한 걱정거리를 만들었다는 생각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미리 응급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 한 장점이 있었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사실 복강경 수술 역시 수술 뒤 내부 장기나 장기를 둘러싼 막이 들러붙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그 역시 이런 주의를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그래도 불안거리인 담낭을 제거했기에 복통을 겪을 일이 없어졌다는 안심이 드는 것은 긍정적인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세상사가 얻는 것이 하나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것처럼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span>”고 말했습니다. 담낭 제거 수술 뒤 오히려 긍정의 힘을 배웠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br/><br/> 그는 수술 뒤에도 여전히 배드민턴과 등산 등과 같은 운동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암 등 중증질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친구들과 주변 지인들이 암 등 중증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합병증을 겪는 것을 종종 듣곤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담낭염이 나타났을 때에는 극심한 복통으로 호되게 고생하기는 했지만 담낭 제거술 정도로 끝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span>”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그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한겨레-1-201.txt

제목: 전설적인 무기상인 아드난 카쇼기 사망  
날짜: 20170607  
기자: 황상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70607113848001  
ID: 01101001.20170607113848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한때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주름잡은 전설적 무기거래상 아드난 카쇼기가 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사망했다. 향년 82.<br/><br/> 카쇼기의 가족은 이날 성명을 내어 “런던에서 파킨슨병 치료를 받아 온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아드난 카쇼기가 82살을 일기로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는 사실을 발표해야 하는 사실이 매우 슬프다”고 했다. 이들은 “그는 삶의 마지막 나날들을 그의 탁월한 일생처럼 우아하고 위엄있게 헌신적인 가족, 자식들과 손주들에 둘러싸여 보냈다”고 밝혔다.<br/><br/>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난 카쇼기는 아버지가 사우디를 건국한 이븐 사우드 국왕의 개인 주치의로 활동하면서 사우디 왕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1960년대부터 미국 무기업체와 사우디 왕가를 연결해주는 무기중개상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 한명으로 꼽혔다. 특히, 그는 미국의 록히드(현재 록히드 마틴)를 대표해 엄청난 무기거래들을 성사시켰다. <에이피>(AP) 통신은 1970년대 한창 때 카쇼기의 재산이 40억달러(4조5000억원)에 이르렀다고 전했다.<br/><br/> 그는 재산을 흥청망청 쓴 것으로도 유명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 가운데 한척인 86m길이의 나빌라호를 보유했는데, 이 요트는 영화 시리즈의 ‘네버 세이 네버 어게인’에 나오기도 했다. 이후 재정적 곤경에 빠졌을 때 카쇼기는 이 요트를 브루나이의 국왕한테 팔았고, 브루나이 국왕은 나중에 이 요트를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한테 팔았다. 트럼프는 2900만달러(325억원)에 요트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br/><br/> 한창 때 카쇼기는 하루 생활비가 25만달러(2억8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사치스런 생활을 했다. 유명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암 수술을 받자, 카쇼기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그녀를 위한 파티를 열었다. 또 그는 록밴드 ‘퀸”을 불러 다른 파티에서 공연하게도 했다. 카쇼기는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의 마지막 연인이었던 도디 파예드의 삼촌이다.<br/><br/> 그는 1986년 전용기로 37점의 그림을 미국에서 프랑스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돼 1997년 파리 법원에서 16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1998년에는 런던 리츠칼튼 호텔의 카지노로부터 800만달러의 도박 빚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으나 합의했다. 카쇼기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루에 수십만달러를 잃어주는 고객이기도 했다. 카쇼기는 1987년 미국내 지주회사가 파산하면서 사실상 재산을 잃고, 전용기가 아닌 일반 여객기를 타야 했다. 2002년 충남도는 카쇼기와 태안군 안면도에 국제관광레저단지 개발을 추진했고,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카쇼기한테 한반도 대운하와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br/><br/> 한편 방위산업 비리로 구속된 바 있는 무기 거래 로비스트 린다 김도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카쇼기와의 인연을 말한 바 있다. 린다 김은 카쇼기의 지시로 박정희 정부 때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냈고 이후 무기 중개상으로 활동한 박종규씨를 스위스로 데려가 그한테 능력을 인정 받았다고 말했다. 린다 김은 미국 생활 초기에 카쇼기의 조카가 룸메이트였고, 이런 인연으로 카쇼기와 연결됐다고 주장했다.<br/><br/> 황상철 기자 rosebud